石鼎李定稚遺蕭

Ⅱ

金堤文化院

鄕土文化資料 第20號

石亭李定稷遺藁

Ⅱ

燕石山房文藁 (6~9)
燕石山房文藁 別集 (1~2)

金堤文化院

번 역 위 원

연석산방문고 제1권	**송 봉 구**(영산대학교 강사)
	선 병 삼(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진 성 수(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연석산방문고 제2권	**공 정 권**(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구원)
연석산방문고 제3권	**고 웅 배**(성균관 선비학당 교수)
	최 영 갑(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연석산방문고 제4권	**임 옥 균**(성균관대학교 강사)
	함 현 찬(성균관대학교 강사)
연석산방문고 제5권	**전 경 목**(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황 갑 연(순천대학교 교수)
연석산방문고 제6권	**최 영 갑**(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정 성 희(성균관대학교 강사)
	송 봉 구(영산대학교 강사)
연석산방문고 제7권	**고 웅 배**(성균관 선비학당 교수)
	김 용 재(성균관대학교 강사)
	김 현 수(성균관대학교 강사)
연석산방문고 제8권	**정 순 희**(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석산방문고 제9권	**공 정 권**(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연구원)
연석산방문고 별집 제1권	**정 순 희**(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최 영 찬(전북대학교 교수)
연석산방문고 별집 제2권	**이 월 영**(전북대학교 교수)
	최 영 찬(전북대학교 교수)
연석산방시고 제1권	**정 원 지**(전북대학교 교수)
연석산방시고 제2권	**서 윤 석**(전북대학교 교수)
연석산방시고 제3권	**최 영 준**(전북대학교 교수)
연석산방시고 제4권	**김 은 희**(전북대학교 교수)
연석산방시고 제5권	**이 월 영**(전북대학교 교수)
소여록	**이 월 영**(전북대학교 교수)
전가록	**최 영 찬**(전북대학교 교수)

表紙題字 : 臨池堂 **李 銀 赫**

次　　例

■ 燕石山房文藁 六

儒有不寶金玉而忠信以爲寶 12
黃梅泉五十壽序 15
論曹參笞子窟 - 課同塾諸生 18
豫讓論 21
論蕭何對以知臣莫如主 23
逸堂記 26
魯有兩生論 28
論張良誤中副車 31
論鉤距 34
論孔光削藁 37
天下事不如此如此必壞說 41
論寇準請眞宗親征契丹 44
但民稱便卽是良吏說 47
文學止於潤身論 49
不可學他不是論 51
要須純意於國事論 54
與世推移論 56
較文藝說示諸生 59
氣水說 61
公孫弘論 64
商鞅論 67
論蔡澤 70
魯仲連論 72
田橫論 74
論令數下民不知所從 76
范增論 78
時時從漢王說 80

論恩若已出怨將誰歸 83
志不在溫飽說 84
論瑞應推而勿居 87
論且俾養望歲久不渝 90
才器論 93
論治天下如治家非大壞不更造 96
論間更鼓知善政 98
論韓世忠 杜門謝客絶口 不言兵 101
心之精微 口不能言論 103
宋裕齋君章萱堂六十一歲壽序 106
論狄青用兵主勝不求奇功 108
種蕉說 110
麗澤說 113
論沛公默然良久 116
論申公 118

■ 燕石山房文藁 七

文　　辨 123
原　　識 125
趙菖磵友誠大人六十一歲壽序 128
王小川六十一歲壽序 130
論日者傳 132
梁休溪詩藁序 135
盧大卿卜新宅文 138
石田書室記 140
祭鄭于稱文 143
黃大雅希溫六十一世壽詩序 145
壽黃桐雲六十一歲序 148
寧可以馬上治天下論 151
各自以爲親已論 154
嚴固不可愛亦不可論 156

三人如推車子論 158
論上前爭事 162
刑賞天下之刑賞論 164
爲文章必本於仁義論 169
勤不言苦說 171
用力多者收功遠說 173
非大壞不更造論 176
先憂後樂說 179
論委任以責成功 182
論陳平答陸賈曰生揣我何念 184
宰天下論 187
田叔論 190
韓信不薦李左車論 193
賀崔篔亭君明甫六十一歲序 195
王小川詩稿序 198
集衆思論 200
非靜無以成學 202
黃鶴皐門生稧序 203
白坡宗英六十一歲壽序 205
文弱論 208
獨觀其大略論 211
黃梅泉書室記 214
長枕軒記 幷序 216
讀古文解 219
讀唐荊川文 220
讀震川文 222
讀堯峰文 223
讀望溪文 225
讀六一文 226
讀東坡文 228
讀昌黎文 230
智石記 233
止石記 235

種竹記 238
白坡書室記 240
辨 惑 242

■ 燕石山房文藁 八

篔亭記 246
小川齋記 248
友竹堂記 250
學而時習之不亦悅乎說 252
亦將有以利吾國乎辨疑 254
在明明德說 256
天命之謂性說 258
曰若稽古帝堯說 261
關關雎鳩 在河之洲說 265
乾元亨利貞說 269
春王正月解 271
〔附〕歷代先儒正朔時月異同說 296
德玉齋記 305
博約齋記 308
送李君希瑞歸南原序 310
月稧序 312

■ 燕石山房文藁 九

寒暄小品 并序 318
思 323
訊 334
敍 341
賀 354
慰 369

餽 378
乞 385
請 391
勉 396
謝 思 400
謝 訊 403
謝 賀 408
謝 慰 412
謝 饋 415
謝 乞 418
謝 請 422
謝 勉 425

■ 燕石山房文藁 別 集

燕石山房文藁 別集 一 429
新舊折衷末篇 429
倍根學說 432
齊一之八 453

燕石山房文藁 別集 二 463
窮理說 463
理象說 466
理象取譬說 468
理氣說 第一 471
理氣說 第二 473
理氣說 第三 476
理氣說 第四 479
太極說 483
太極動靜說 485
理有動靜說 487

太極動靜體用說 490
體用說 493
以太極爲體 動靜爲用 其言有病說 497
理一分殊說 500
答黃雲卿 505
識本箴 - 集三藏序字 508
答黃石田 511
題四宜堂 - 鄭嵎堂精舍 512
答李惺湖 516
答李惺湖 521
答黃雲卿 524
【附】梅泉書 524
答黃梅泉 528
題 畵 531
『논어』에 대한 물음 532
答黃梅泉 553
題所書三家帖贈盧生處仁 554
書金石田屛 556
五畵詩祝李惺堂時衡其大人壽筵 558

燕石山房文藁

六

儒有不寶金玉而忠信以爲寶/12
論曹參笞子窟－課同塾諸生/18
論蕭何對以知臣莫如主/23
魯有兩生論/28
論鉤距/34
天下事不如此如此必壞說/41
但民稱便卽是良吏說/47
不可學他不是論/51
與世推移論/56
氣水說/61
商鞅論/67
魯仲連論/72
論令數下民不知所從/76
時時從漢王說/80
志不在溫飽說/84
論且俾養望歲久不渝/90
論治天下如治家非大壞不更造/96
論韓世忠 杜門謝客絶口 不言兵 /101
宋裕齋君章萱堂六十一歲壽序/106
種蕉說/110
論沛公默然良久/116
黃梅泉五十壽序/15
豫讓論/21
逸堂記/26
論張良誤中副車/31
論孔光削藁/37
論寇準請眞宗親征契丹/44
文學止於潤身論/49
要須純意於國事論/54
較文藝說示諸生/59
公孫弘論/64
論蔡澤/70
田橫論/74
范增論/78
論恩若已出怨將誰歸/83
論瑞應推而勿居/87
才器論/93
論間更鼓知善政/98
心之精微 口不能言論/103
論狄青用兵主勝不求奇功/108
麗澤說/113
論申公/118

10

여 백

燕石山房文藁 六

유자(儒者)는 금옥(金玉)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진실됨과 믿음을 보배로 여긴다

금은 어찌하여 보배라고 하는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바탕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옥은 어찌하여 보배라고 하는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탕이 손상되지 않는 것은 진실됨(忠)에 가깝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信)에 가깝다. 보통 사람들이 보배로 여기는 금과 옥은 손상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귀하기 때문이다. 군자(君子)가 금과 옥을 보배로 여기는 것은 그 손상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덕(德)에 가깝기 때문이다. 덕에 가까운 것으로도 또한 보배라고 하는데, 하물며 덕 그 자체는 어떻겠는가? 이제 금을 불로 달구면 흐르고, 돌로 갈면 부수어진다. 그러므로 그 바탕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도 때로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또 이제 옥을 불로 구우면 갈라져 틈이 생기고, 돌로 때리면 깨어지니, 그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때로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 어찌 한결같이 진실 되고 믿음이 있으면 손상되거나 변하지 않는 것과 같겠는가?

이른바 진실 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의 것에 응하여 참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 단지 사람에게만 덕이 되겠는가? 하늘이 크지만, 진실 되고 미덥지 않으면 춘·하·추·동 사계절을 운행할 수 없고, 땅이 두텁지만, 진실 되고 미덥지 않으면 만물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氣)를 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덕을 체득하여 춘하추동 사계절을 운행할 수 있고, 만물을 기를 수 있으니, 어찌 금과 옥의 보배로움이 그에 비기고 그와 동류가 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은 금과 옥만을 보배롭다고 말한다. 이에 비록 군자가 그를 따라서

보배롭다고 말하지만 군자는 또 말한다. "이것은 실로 보배롭지만 나는 그것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보배로 여기는 것은 진실됨과 믿음일 뿐이다. 그것으로 아버지를 섬기면 효(孝)가 되고, 그것으로 임금을 섬기면 의(義)가 되고, 그것으로 천하를 통솔하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니, 비록 천하에 지극히 보배로운 것을 들어서 쓴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 진실됨과 믿음보다 낫겠는가?" 그러면 앞에서 그 바탕이 훼손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일컬어 말한 것인가?

『역(易)』에 말하기를 "진실됨과 믿음은 덕을 진전시키는 것이다."[1]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일러 만물을 낳는 것이라 하고, 성인의 큰 보배를 일러 지위라 하고, 그 지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일러 인(仁)이라 한다."[2]하였으니 대저 인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 마음이다. 진실됨과 믿음이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다함으로써 만물을 낳는 덕(德)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아! 이것이 과연 하늘과 땅의 커다란 보배이다.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유자(儒者)는 금과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실됨과 믿음을 보배로 여긴다."[3]고 하였으니, 유자란 군자를 말하는가? 군자를 말하는 것이다.

儒有不寶金玉而忠信以爲寶

金胡以云寶 歷久而質不損也 玉胡以云寶 歷久而色不變也 質之不損 近乎忠 色之不變 近乎信 衆人之寶金玉 以其不損不變之足爲珍也 君子之寶金玉 以其不損不變之近乎德也 近乎德且寶焉 況德乎 今夫金火燥之則流 石磨之則屑 其質之不損者 有時而不足恃 今夫玉火燔之則璺 石觸之則缺 其色之不變者 有時而不足恃 豈若忠信之一於忠信 而無或損且變邪 夫所謂忠者 由乎中而無不盡焉 夫所謂信者 應乎外而無不實焉 其爲德也 豈獨於人也 天之大也而非忠信 無以運四時 地之厚也而非忠信 無以育萬物 人也者 稟天地之氣而生焉者也 故能體天地之德 可以運四時而育萬物 豈金玉之寶 而擬而倫之哉 特以衆人之謂金玉寶也 於是 雖君子從而謂寶焉 雖然 君子曰 是固寶也

1) 『주역』「문언전(文言傳)」에 나온다.
2) 『주역』「계사 하(繫辭下)」에 나온다.
3) 『예기』「유행(儒行)」에 나온다.

而吾不以爲寶也 吾之所寶者 忠信而已矣 以之事父則孝 以之事君則義 以之御天下則天下治 雖擧天下之至寶 豈有過於是哉 而向所云 質不損色不變者 何之稱哉 易曰 忠信所以進德 又曰 天地之大德曰生 聖人之大寶曰位 何以守位曰仁 夫仁者 生物之心也 忠信者 盡夫生物之心 以實夫生物之德者也 嗚呼 其果天地之大寶也 記曰 儒有不寶金玉 而忠信以爲寶 夫儒者 君子人歟 君子人也

황매천 오십수서(五十壽序)

사람의 수명이 백년이면 오십은 겨우 그 반이다. 오십 살을 기준으로 오십을 넘긴 사람과 오십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헤아려 보면 오십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오십을 넘기는 사람보다 항상 많다. 대개 오십은 오래 산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 단계에 비로소 올라선 것이다.

내 친구 황매천(黃梅泉 : 玹)은 올해 50세가 되었는데, 그 아우 석전(石田)이 2백리 밖에 있는 나에게 편지를 부쳐 글을 지어 헌수(獻壽)[4]하기를 원했다. 내가 사람들이 장수했다고 일컫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대개 육신을 이 세상에 오래 보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 몸을 백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할 수 있었던 자는 몇 사람밖에 없었다. 다만 보존하여 썩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하고 영명한 기(氣)가 우주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이니, 만일 이러한 것이 있다면 어찌 몸을 세상에 기탁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함을 일컬을 수가 있겠는가?

매천은 문인(文人)이다. 옛 사람 중에 나이가 오십이 안되어 그 글이 불후(不朽)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은 자주 있어 왔다. 얼마 살지 못했으면서 명성이 세상에 드러난 자로서는 한(漢)나라의 가의(賈誼)[5]가 있는데, 그는 나이가 겨

4) 환갑잔치 등에서 잔에 술을 부어 올리거나, 무엇을 바쳐 장수를 축하하는 일. 여기에서는 50세를 축하하는 글을 짓는 일을 말한다.

5) 중국 전한(前漢)의 유학자·정치가·문장가(B.C. 200~B.C. 168). 가생(賈生)·가태부(賈太傅)·가장사(賈長沙)라고도 한다. 낙양(洛陽) 출신이다. 수오공(守吳公)이 그의 재능을 듣고 문하에 두고 순자(荀子) 학파의 학설을 익히게 하였다. 그후 수오공의 추천으로 문제(文帝)에게 중용되어 23세에 최연소 박사가 되고 일년만에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전한의 제도를 정비하려 많은 의견을 올렸으나 고관들의 시기를 받아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었다. 뒤에 양(梁) 회왕(懷王)의 태부가 된 뒤 시폐(時弊)를 극론하고 치안책을 진언하였다. 몇 년뒤 회왕이 죽자 그를 애도한 나머지 1년후에 33세로 일생을 마쳤다. 그의 사상은 유가를 종지로 하

우 33세 남짓을 살았다.

당(唐)의 왕발(王勃)[6]과 이하(李賀)[7]는 채 삼십세도 채우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글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세상에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누렇게 되고[8] 등에 검버섯이 생긴[9] 노인이 되어서도 아무런 자취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수하고 장수하지 못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매천은 앞에서 말한 가의·왕발·이하보다 이십 여세를 더 살았는데도, 그 글은 그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니 이십여 년을 헛되이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닌가? 가의는 글로 서한(西漢)의 으뜸이 되었으나 시(詩)는 남기지 않았다. 왕자안(왕발)은 고시(古詩)가 있고, 시문(時文)이 있으나 고문(古文)에서는 얻은 것이 없었다. 이장길(이하)는 오직 시로써만 이름을 빛냈다. 이에 매천은 이중 한 사람에 비교하기는 부족하지만, 세 사람을 겸하여 비교하면 뛰어난 점이 한 두 가지가 더 많다. 그러므로 매천은 참으로 헛되이 나이만 많이 먹은 자는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매천을 가의와 왕발, 이하 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듣고 비웃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매천 또한 서운하게도 자신을 그들과 같은 동류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그것은 왜인가? 글은 그 공교함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시대의 고금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앞에서 말한 세 사람은 천년 전의 사람이다. 만약 가의가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글이 비록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가 서한의 뛰어난 문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매천의 글이 다행히 없어지지 않으면, 천년 후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지금 사람이 가의, 왕발, 이하 세 사람을 추앙하는 것만 못하리라고 알 수 있는가?

고 있으나 당시의 학자들이 그렇듯이 절충적 경향을 띈다. 저서로 『신서(新書)』가 있고, 부(賦)나 문장으로 다수의 명문을 남기고 있다.

6) 중국 당나라 때 문인(649~676). 용문(龍門) 출신. 자는 자안(子安). 수(隨)나라 왕통(王通)의 후예로 문장에 뛰어났다. 왕형(楊炯)·노조린(盧照鄰)·낙빈왕(駱賓王)과 함께 당 전기의 사걸(四傑)로 불린다.

7) 중국 당나라 때 시인(790~816). 종실(宗室)로서 자는 장길(長吉)이다. 7세에 글을 지을 만큼 영특했다고 한다. 『이장길가시(李長吉歌詩)』『외집(外集)』『금양집(錦裵集)』『외집(外集)』이 있다.

8) 본문에는 황발(黃髮)로 되어 있다. 황발은 늙어 누렇게 된 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9) 본문에는 태배(台背)로 되어 있다. 태배(台背)는 태배(鮐背)와 같다. 노인의 등에는 복어와 같은 점이 생긴다고 하여 노인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또 바라는 바가 있다. 매천이 내년 오십일 세 때부터 오십 세 이전의 글을 다 없애버리고, 글은 사대(四代)[10]의 글을 본받고, 시(詩)는 육의(六義)[11]의 시를 근본으로 삼아 해마다 매진하여 육십이 넘도록 한다면, 그 글이 바르고 섬세하고 우아하며 순수한 것이 앞에서 말한 세 사람보다 도리어 뛰어나게 되지 않겠는가?

아! 내가 만약 망령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내가 망령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천년 후에 내가 식견이 있는 말을 했다고 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강개(慷慨)하여 이 서(序)를 쓰는 까닭이다.

나는 매천보다 나이가 열 살이나 많지만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다. 나와 같은 사람이 바로 참으로 쓸데없이 오래 산 사람이다. 그렇지만 매천이 나의 이 글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그 문고(文藁)의 끝에 붙여 준다면, 매천의 글이 전해지게 되면 후대 사람들이 매천으로 인하여 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니, 머리가 노랗게 되고 등에 검버섯이 피도록 아무런 자취도 없는 자들과 함께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나의 행운이라고 여기고 이 글을 쓴다.

黃梅泉五十壽序

人壽百年 五十僅其半也 以五十計其過與未及 則未及五十者 常多於過五十者 盖五十非壽 而殆躋壽之階也 余友黃梅泉 於是歲生五十矣 而其弟石田 寄書余二百里 要爲文而壽之 余觀人之稱壽者 槩以軀殼之久於世 而自古及今 能保百年之久者 常無幾人 惟其所持可以不朽 卽靈英之氣長存於宇宙之間 苟有是焉 惡獨以軀殼之寄世者 稱其壽不壽哉 梅泉文人也 試擧古之人 年未五十而文足以不朽者 代相望焉 而其得年甚少而名甚著者 漢之賈誼 年僅餘三十 唐之王勃李賀 則未滿三十矣 而其文至于今 炳烺于世 視世之黃髮台背 而泯無迹者 其壽不壽爲何如哉 今梅泉於彼數子 年加五之二而文不能出其上 將不浪壽二十年歟 賈生以文冠西漢 而詩未有焉 子安有古詩有時文而無得於古文者 長吉則專以詩聞 乃梅泉較一而不足 兼三則多一二 於是乎 非眞浪壽者也 世之人 聞余以梅泉擬彼三子者 未有不大笑之 雖梅泉亦歛然自以爲不倫 而余固不顧焉何者 文惟其工 非古今所能限 而人未之知耳 彼三子者 特千歲上人也 借令賈

10) 중국 고대의 우(虞)·하(夏)·은(殷)·주(周) 왕조를 말한다.
11) 여섯 가지 시체(詩體). 즉 풍(風)·아(雅)·송(頌)·흥(興)·부(賦)·비(比)를 말한다.

生居今之世 其文雖工 人能信其爲西漢之卓然者乎 使梅泉之文 幸不覆瓿而千歲之後有見而悅之者 安知必不如今人之仰彼三子者邪 余則又有所望焉 梅泉自明年五十一歲盡去五十以前之文 文祖四代之文 詩宗六義之詩 而年邁六十以外 則安知其典贍雅粹不廻出數子上也邪 嗚呼 使余言妄也 人之笑之也 則宜倘余不爲妄言人也 則後千歲將以余爲知言也 此余所以慷慨而爲是序也 余於梅泉 多十數年 而無一能焉 若余者眞浪壽矣 雖然梅泉不鄙余此文 厠之其藁之末 而梅泉之文 得傳焉 則後之人將因梅泉而知有余焉 而不與黃髮台背 而無迹者 同歸於泯也 斯則余之幸也 是爲書

조참(曹參)이 아들 굴(窟)에게 태형(笞刑)을 가한 일을 논함

-글방의 여러 학생들에게 낸 과제-

세상의 일은 세상 사람들의 추세를 살피지 않고서는 판별할 수 없다. 오직 그 추세를 살피고 무사한 바를 따르고 나서야 천자(天子)를 돕는 재상이 될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고,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소하(蕭何)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한(漢)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도를 정비하고, 이어서 한결같은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쉽게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조참 역시 그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소하를 이어 재상이 되어 이미 정해진 규약을 따르고 스스로 변경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모두 천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굴(窟)[12]은 조참(曹參)[13]의 아들로 벼슬이 중대부(中大夫)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라에 있어서는 천자를 도와 다스릴 수 없었고, 집안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갈 수 없었다. 조참이 노하여 그에게

12) 조참의 아들로 혜제 때의 중대부(中大夫)를 지냈다. 아버지 조참이 죽고, 평양후(平陽侯)의 작위를 이어 받았다. 여후(呂后) 때에 관직이 어중대부(御中大夫)에 이르렀다.

13) 중국 진말한초(秦末漢初) 때 명신(? ~ B.C. 190). 진(秦)나라 때는 패현의 옥리(獄吏)로 있었다. B.C.209년에 유방(劉邦)을 따라 군사를 일으켜 전공을 세웠다. 한나라가 건립되고 나서 평양후(平陽侯)에 봉해졌고, 고조(高祖)가 진희(陳豨)·영포(英布) 등 이성(異姓)의 제후를 평정하는데 협조하였다. 승상(丞相)이던 소하(蕭何)가 죽고 소하의 뒤를 이어 혜제(惠帝)의 승상이 되었다. 황로정치(黃老政治)를 실행하고, '무위(無爲)의 치(治)'를 숭상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일없이 소하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따랐다. 상국(相國)을 맡은 지 3년만에 죽었다. 시호는 의후(懿侯)이다.

태형을 내린 것[14]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대개 진(秦)나라는 형벌과 법령으로 천하를 협박하여 복종시켜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조차 없게 하였다.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가혹하기가 마치 거꾸로 매어 달린 것과 같았다. 초나라와 한(漢)나라가 서로 싸워 전쟁이 온 나라에서 일어나 백성들의 고통이 계속되어, 백성들이 휴식을 바라는 마음이 마치 주린 듯하고 목마른 듯하였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간소하고 쉬운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고, 관대하고 너그럽게 백성들을 부양하여 그들이 받는 고통을 없애 주고, 그들이 바라는 바를 따르는 것은 마치 거꾸로 매어 달린 사람을 풀어 주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먹이고 마시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따르기를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하여서 천하가 편안해졌다. 이것이 이른바 추세를 살펴서 무사함을 따른다는 것이다.

한고조(漢高祖 : 劉邦)는 본래 유생(儒生)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으며, 그가 천하를 얻고부터는 공신들을 자주 의심하였다. 소하는 그 지위가 미미할 때부터 고조를 잘 알아서 공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지키는데 급급하였다. 그러므로 군신의 정치가 구차하고 간소한 것이 자못 많았다.

그러나 그래도 천하를 대략 안정시키고 안락함을 누린 것은 진정으로 백성이 바라는 바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쉬는 것이었으니 그것을 한 것이다. 조참이 제(齊)의 승상이 되었을 때는 장로(長老)와 유생들을 초빙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결집시키는 방법을 물었으니, 일찍이 천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연구하였던 것이다. 공이 청정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여 그를 섬긴 것은 정사를 베푸는 방법이 시의에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천자를 돕는 재상이 되어서는 사람을 등용해 쓰되 말과 글이 각박한 벼슬아치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었으므로 배척하여 쓰지 않았다. 경대부(卿大夫) 이하 빈객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번번이 그들에게 독한 술을 마시게 하여 말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굴(曹窟)은 그의 아들이니 귀와 눈으로 듣고 보았으니 만일 아버지의 뜻을 체득하였더라면 어찌 아버지가 천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간언하겠는가? 아버지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의 일을 알 수가 있겠는가? 그 아버지가 그러한

14) 한(漢) 혜제 때 소하가 죽고 나서 조참이 뒤이어 승상이 되었는데, 모든 일을 소하가 정해 놓은 대로 따르고 새로운 일을 만들지 않았다. 황제는 그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조참의 아들인 조굴을 시켜 물어보게 하였는데, 조참은 아들인 굴에게 태형 2백 대를 때렸다. 소하가 정해 놓은 제도와 법률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점을 질책한 것은 당연하다. 어떤 사람은 그 아들 조굴이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조참이 알았으므로, 그 아들에게 태형을 내려 그것을 물리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조참이 비록 고대의 다스림의 이치를 아는 사람과 비교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大體)에 밝은 것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으므로, 백성들이 취하도록 마시고 노래부를 수 있었으며, 천하가 안정되는 데 이르게 하였다. 어찌 그가 군신간의 도리와 부자간의 친함을 알지 못하여 그 사이에 거짓된 술수를 부렸겠는가?

論曹參笞子窟 - 課同塾諸生

天下事 非察天下人之趨向 不足以辦之 惟察其趨向 而從其所無事而後 可以爲天子相矣 知所以治天下者 知此者也 不知所以治天下者 不知此者也 蕭何知之矣 是以相漢定制次畫一之令 示民易從 曹參亦知之矣 是以代何爲相 遵已定之約 不自變更 此皆能辦天下事者也 窟以參之子 官爲中大夫矣 而乃不能知此 以國乎 則不可以佐天子治也 以家乎 則不可以繼乃父之業也 參之怒而笞之 其以是矣 盖秦以刑法 劫制天下 使無所措手足 民之苦苛暴 若倒懸也 楚漢相爭 兵革遍海內 瘡痍相望 民之望休息 若飢渴也 當此時 導之以簡易 養之以寬厚 除其所苦 而順其所望 猶解倒懸 而食飮其飢渴也 民之從之 如水之就下 而天下晏然矣 此所謂察其趨向 而從其所無事也 高帝素嫚侮儒生 而其得天下 善疑其功臣 蕭何自微時習高帝 而畏已功多 急於自保 以故君臣之爲治 頗多苟簡 然猶能粗定天下 享其安樂者 誠以民之趨向 固無待乎事事 而惟休息爲得之也 參自爲齊相時 已招長老儒生 問所以安集百姓 盖嘗有究於辦天下事也 聞盍公淸淨之設 悅而事之者 爲其術之適合於時宜也 及其爲天子相 盖擧而施之 而文刻之吏 不可以典 此故斥去之 卿大夫已下及賓客 不足以知此 故輒飮以醇酒 使之勿言 若窟則其子也. 以耳目之所廳視 苟能體會 其父之志 豈以其父之不憂天下 諫之哉 父之志 尙未之知 惡足以知天下事哉. 宜其父之責之也 或以爲參揣窟之承帝旨故 故笞而抑之 是必不然 參雖未可擬 夫古之識治理者 而其曉大體已 出於衆人之上 故能醉飮歌呼 而致天下安 豈謂其不識君臣之分 父子之親 而誤機權於其間也邪

예양(豫讓)을 논함

사람이 대의(大義)를 분별하는데 밝지 못하면 비록 굳은 절개가 있어도 의(義)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양[15]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대개 예양이 지씨(智氏)[16]를 섬긴 것과 지씨의 원수에게 죽은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주(周)나라 말기에 왕의 법도가 해이해지자 천하의 사람들이 자신이 부리던 사람들을 신하로 삼으니, 섬김을 받던 사람들은 임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천지간에 임금과 신하가 스스로 정해진 분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대저 임금이란 것은 천하를 다스리면 천자일 뿐이요, 열국(列國)을 다스리면 제후(諸侯)일 뿐이다. 경대부(卿大夫)와 같은 경우는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때에 주나라가 천하에 위세를 떨치지 못하면서부터 다시는 천자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열국의 임금은 자신의 나라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 저 범씨(范氏)와 중행씨(仲行氏)·지씨(智氏)는 진(晋)나라의 경(卿)이었다. 예양 역시 진나라의 신하였다. 예양이 일찍이 범씨와 중행씨를 섬겼으나, 두 사람에게는 군신(君臣) 관계의 정분(定分)이 없으니, 지씨를 섬겨 임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범씨와 중행씨는

15) 중국 춘추전국시대 진(晋)나라 사람. 처음에는 범길사(范吉射)와 중행씨(仲行氏)의 가신(家臣)이었으나 후에 진나라 지백(智伯)의 가신이 되어 총애를 받았다. 당시 진나라 육경(六卿) 중의 하나이던 조씨(趙氏)와 위씨(衛) 한씨(韓)가 힘을 합하여 지백을 멸하였다. 그리고 조씨, 즉 조양자(趙襄子)는 지씨의 두개골에 칠을 하여 잔으로 썼다. 이에 예양은 지백(智伯)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성(姓)과 이름을 바꾸고 조양자의 변소에 숨어들었다가 붙잡혔으나, 조양자는 그 의리를 높이 사 풀어 주었다. 그러나 또 몸에 칠을 하고, 숯을 삼켜 벙어리 노릇을 하며 조양자가 지나가는 다리 밑에 숨어 조양자를 죽이려 하다가 붙잡혔다. 그때 조양자가 "그대는 일찍이 범씨와 중행씨를 섬기지 않았는가? 지백이 그들을 멸망시켰는데도 범씨와 중행씨를 위하여 원수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지씨를 섬겼다. 그 지백은 이미 죽었는데 어찌 유독 그를 위하여 원수 갚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예양은 "신이 범씨와 중행씨를 섬겼으나 범씨와 중행씨는 다 여러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여러사람처럼 보답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조양자의 옷을 청하여 그 옷을 칼로 내리쳐 원수를 갚는 뜻을 이루고는 자결하였다.

16) 지백(智伯), 즉 지양자(智襄子)를 말한다. 춘추시대에 진(晋)나라에는 범씨(范氏)·중행씨(仲行氏)·지씨(智氏)·조(趙)·한(韓)·위(衛)가 있어 이를 육경(六卿)이라 하였는데, 후에 범씨와 중행씨의 땅을 나누어 나머지 넷이 차지하였다. 지백은 출공(出公)이 죽자 소공(昭公)의 손자를 진(晋)의 임금으로 삼았다. 후에 조씨(趙氏), 즉 조양자(趙襄子)에게 땅을 청했으나 주지 않자 한과 위의 군사를 이끌고 조양자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한, 위와 모의한 조양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지씨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예양이 지씨를 섬기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예양은 스스로 임금으로 정하였다. 지씨가 비록 예양을 매우 후하게 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대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죽는 것은 또한 의리와 분수상 꼭 해야 할 바는 아니었다.

옛날에 관중(管仲)[17]이 소홀(召忽)[18]과 함께 자규(子糾)[19]를 섬겼는데, 자규가 자살하자 소홀은 죽고, 관중은 죽지 않았다. 그러나 공자는 관중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어찌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작은 신의(信義)를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도랑과 개천에서 목을 매어도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과 같이 하겠느냐?"[20]라고 하였다. 제(齊)나라에 장차 난리가 날 조짐이 있을 때 관중과 포숙(鮑叔)[21]은 제나라의 어려움을 안정시키는데 뜻을 두고, 어진 공자(公子)를 택하여 그를 섬기고자 하였다. 자규와 소백(小白)[22]은 제(齊)나라의 공자들이었고, 관중과 포숙은 제나라의 신하였다.

그러나 소백은 제나라로 들어가서 제나라의 임금이 되고, 자규는 임금이 되지 못하였으면 관중은 제나라의 임금이 있다는 것을 알뿐이니, 어찌 가벼이 제나라의 공자를 위하여 죽겠는가? 그리하여 비록 소홀의 죽음이 절개가 있으나 공자는 그것을 필부필부의 신의라고 한 것이다. 어찌 헛되어 섬기는 사람을 위하여 죽을 줄만 알

17) 관경중(管敬仲 : ? ~B.C. 645)을 말한다. 이름은 이오(夷吾), 자는 중(仲)이다. 처음에 제(齊)나라의 공자(公子) 규(糾)를 섬겼으나, 후에 규의 동생인 소백을 섬기던 포숙아(鮑叔牙)가 제환공에게 추천하여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수도와 지방의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관리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으며, 토지에 따라 균등 수세(收稅)를 실행하고 어염(魚鹽)사업을 진행하였다. 또 화폐를 주조하고 화폐와 통화를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재정은 부유해지고 군사력은 강해졌다. 제환공을 보좌하여 존왕양이(尊王攘夷)를 역설하고, 북쪽으로 산융(山戎)과 남쪽으로 형초(荊楚)를 정벌하였다. 제후들을 아홉 번이나 모이게 하여 제환공을 춘추시대 제1의 패주(覇主)가 되게 하였다.

18)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대부(大夫), 공자규(公子糾)의 스승. 공자규가 동생인 환공(桓公)과 다투다가 죽자 따라 죽었다. 그러나 같이 공자규를 모시던 관중(管仲)은 죽지 않았다.

19)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공자(公子). 소백의 형이며 양공(襄公)의 아우. 양공이 무도하여 부당한 살육을 계속하자 동생들이 두려워하여 규와 소백은 그를 피하여 달아났다. 후에 양공이 살해당하자 규와 소백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소백이 먼저 돌아와 임금이 되었으니 바로 제환공이다. 규는 소백과 싸우다 죽었다.

20) 『논어』「헌문(憲問)」에 나온다.

21)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대부(大夫)인 포숙아(鮑叔牙)를 말함. 소백(小白)을 보좌하여 소백이 제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지우(知友) 관중을 재상으로 천거하였다. 관중은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아를 아는 것은 포숙이다"라고 할만큼 관중과 포숙은 절친한 사이였다.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다.

22)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공자(公子 : ?~B.C. 643). 공자규(公子糾)의 동생으로 후에 제환공(齊桓公)이 된다.

고, 군신간의 정해진 분수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관중이 공이 있다고 하여 공자가 그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대하게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인의 공평한 법은 반드시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신간의 분수를 어겨 죄를 얻으면 신하가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죄할 수는 없다. 이제 예양의 일로 관중을 보면 관중은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했고, 소홀을 보면 작은 일에서 의를 잃은 것이다. 이것은 대의에 밝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죽음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양은 지씨의 두터이 알아줌에 감복하여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후회하지 않았다. 세상에 삶을 탐하여 구차하게 살아남은 자는 그 어짊이 예양에 훨씬 못 미친다. 만약 예양이 일찍이 대의에 밝아 마땅히 죽어야 할 곳에서 죽었다면 해와 달과 그 빛을 다툴 만큼 이름이 빛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굳은 절개를 슬퍼하고, 대의와 죽음을 모두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豫讓論

人不明乎義之大分 雖有苦節 未免失於義 豫讓是也 盖讓之事 智氏與死於智氏之仇 皆失之矣 何以言之 周末王綱解紐 天下之人 各臣其所使 而所事者 猶君焉 故不知天地間 君臣自有定分 夫君者以天下 則天子而已 以列國 則諸侯而已 若卿大夫不得謂之君矣 是時周不能自振天下 不復知有天子 然列國之君 固自有之 彼范中行與智氏者 晋之卿也 讓亦晋之臣也 讓於二氏 未有君臣之定 分不當以所事爲定君 然范中行氏爲智氏所滅 讓之事智氏 則非人情之所忍爲也 讓自有定君矣 智氏雖待之頗厚 其死於報卿大夫之仇 又非義分之所必爲也 昔者管仲與召忽 俱事子糾 及子糾之自殺也 召忽死 管仲不死 而孔子不以爲非 故曰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 而莫之知也 盖以齊有將亂之兆 而管仲與鮑叔 志在定齊之難 擇賢公子而兮事之 子糾小白齊之諸公子也 管仲鮑叔 齊之臣也 而小白入而爲齊之君 子糾不得爲齊君 則管仲知有齊君而已 豈輕死於齊公子哉 是以雖召忽之死節 而孔子謂之夫婦之諒 豈非以徒知死於所事 而不知夫君臣之有定分邪 若以仲之有功 而賞其不死 則聖人公法 必不如是矣 得罪於君臣之分 功不足以贖罪也 今以豫讓視管仲 則爲失於死 視召忽 則爲失其諒 玆由於不明乎義之大分也 雖然死人之所難也 而讓於智氏感其厚 遇之 死不悔 視世之貪生而苟

活者 其賢遠矣 使讓早有所明 而死於所死 則可與日月爭光矣 余故悲其苦節 而惜其俱失之也

소하(蕭何)의 "임금만큼 신하를 잘 하는 사람은 없다"는 대답에 대해 논함

한(漢)나라의 혜제(惠帝)[23]가 소하에게 "그대가 죽은 후에는 누가 그대를 대신하겠는가?"라고 물으니 소하가 "임금만큼 신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24]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대신(大臣)이 어진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의 물음에 답하는 도가 아니다.

임금이 어진 인재에 대하여 물으면 바로 대답하고, 감히 자신의 말을 굽혀 임금의 의도를 살피지 않는 것이 공경을 다하는 것이다. 『상서(尙書)』는 성인(聖人)이 법을 세워 후세에 남겨 준 경전이다. 「요전(堯典)」의 "요임금이 말하기를 '이 천자의 자리를 이어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구절에서부터, 「순전(舜典)」의 "순임금이 말하기를 '사악(四岳)이여! 나의 삼례(三禮)를 맡아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구절을 보면, 요임금이 질문한 사람도 네 사람이고, 순임금이 질문한 사람도 네 사람인데, 그 대답한 신하들 중에 직접 사람을 천거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천거된 훌륭한 인재는 임금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지만, 신하도 일찍이 임금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미룬 적이 없었다. 임금이 어진 인재를 묻는데, 감히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임금에게 미루겠는가?

소하는 한나라의 현명한 재상이었다. 그 또한 마땅히 이러한 도리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사실은 한 고조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이다. 소하가 재상으로써 백성을 위하여 상림(上林)의 빈땅을 청하자 고조는 갑자기 그를 형틀에 묶었으니,[25] 그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미워해서였다.

---

23) 중국 전한의 황제(B.C. 207~B.C. 188) 성은 유(劉), 이름은 영(盈). 한고조의 아들이다. B.C. 195년에 즉위하여 7년간 재위하였다. 백성들을 쉬게 하는 정책을 계속 실행하였고, 농업 생산과 인구 증식을 장려하였다. B.C. 191년에 진시황이 내린 협서율(挾書律)을 해제하였다.

24) 한(漢)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소하가 병이 들어 누웠는데, 당시의 임금인 혜제가 찾아가 보고 소하에게 "그대가 죽은 후에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하고 물었다. 소하는 바로 누구를 지목하여 대답하지 않고, "임금만큼 신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혜제가 "조참이 어떻겠는가?"하니, 소하가 "제대로 보셨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하가 죽은 후 조참이 재상이 되었다. 『사기(史記)』 세가(世家),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 참조.

대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하가 어찌 자신의 말을 굽혀 임금의 의도를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비록 혜제 때라 하더라도 소하는 오직 임금이 자신에게 사사로운 뜻이 있다고 의심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이 대신이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의 물음에 답하는 도가 아니란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물음이 있으면 바로 대답하는 것이 그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임금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도가 어찌 시대가 내려올수록 점점 더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소하의 대답에 다행히도 혜제가 조참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불행히 임금이 말한 것이 알맞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소하가 어찌 다시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그때에는 황제의 그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신의 도리를 지켜 바로 대답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소하가 조참을 천거하려고 하다가 먼저 혜제의 뜻을 따라서 확정시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 이것은 세속의 말이니, 어찌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큰 법도라고 하겠는가?

論蕭何對以知臣莫如主

漢惠帝問蕭何 百歲後誰可代者 何對以知臣莫如主 此非大臣擧賢對君問之道也 君問賢 則以直對不敢遷就其言探君之意 敬之至也 尙書者 聖人立法垂世之經也 自堯典帝曰疇咨若時登庸 至舜典帝曰咨四岳有能典朕三禮 堯之問者四 舜之問者亦四 而其臣對者莫不直擧其人 其所擧之匪才者 帝莫不知之 而臣下未嘗有推知於君者 盖君方問賢矣 敢不就其所知而對 而乃反推之於君哉 何漢之賢相也 宜亦有以知此 而其所對如彼何也 高帝實啓之也 何以相爲民 請上林空地 而高帝輒械繫之 惡其行惠于民也 夫如是 臣下安得不遷就其言 探君上之意哉 是以雖惠帝之時 何惟恐帝之疑其有私 故自不覺其言之非大臣擧賢對君問之道也 古之人 以有問直對 爲敬其君 而後之人 以言媚而悅耳者 爲敬其君 世道惡得不愈降而愈變邪 且何之對也 幸而帝以曹參爲言矣 不幸

25) 소하가 재상으로 있으면서 장안(長安)은 땅이 좁고 상림(上林) 가운데에는 버려진 공지가 많다고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 밭을 갈게 하도록 고조(高祖)에게 청하였다. 그런데 고조는 소하가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자신의 원유(苑囿)를 청한 것이라고 크게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而所言非其人 則何將何以復對 當此時 見帝之疑之將有甚焉矣 故君子守其經以直對而已矣 或謂蕭何將擧曹參 先順惠帝之意以固之也 嗚呼 此世俗之言也 豈人臣事君之大法也哉

일당기(逸堂記)

무릇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에 쓰임이 있으면, 이는 세상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쓰임이 없는 사람은 비록 존재했더라도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다. 쓸모가 있으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서적 만한 것이 없다. 바로 거기에 실린 일은 당시에 실시되고, 후세로 전하여진다. 당우(唐虞) 이래로부터 유용한 서적은 수 천년이 지나도 확연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니, 그것을 오래 간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이 마땅히 서적에 실려야 하는데도 실리지 않은 것을 숨겨진 일[逸事]이라 하고, 책이 마땅히 전해져야 하는데도 전해지지 않은 책을 숨겨진 책[逸書]이라고 한다. 사람 또한 그러하니, 세상에 마땅히 쓰여져야 하는데도 쓰여지지 않은 사람을 숨은 사람[逸人]이라고 한다.

옛 사람들은 항상 전해들은 것이 있으면 숨겨진 일을 보충하였다. 숨겨진 책은 여러 대가 지나서 나오더라도 세상에 분명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은 비록 당시에는 숨어 있더라도 성과 이름이 후세에 혁혁하게 드러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이가 있다. 대개 존재하는 것은 진실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 친구 이성심(李聖心) 군[26]은 어린 시절부터 옛사람들의 책을 읽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때때로 밭에 나가 일하면서도, 일찍이 잠시라도 책을 놓아 본 적이 없다. 성심은 세상에 쓰이지 않아 그 재주가 과연 옛사람과 같은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나, 읽은 책은 모두 옛날에 실제로 시행되어 지금까지 전하여진 것이다.

하루는 나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나는 재주가 거칠고 학식이 적어 글은 치국(治國)하고 평천하(平天下)하는 일을 돕기에 부족하며, 무력(武力)은 환란을 평정하기에 부족하다. 세상에 처하여 이로운

26) 원문에는 李聖心甫라고 썼는데, 보(甫)는 남자의 미칭(美稱)으로 남자 이름의 뒤에 붙이는 존칭이다. 예를 들어 공자를 니보(尼甫)라고 하기도 한다.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면 인멸되어 내세에 쓸쓸할 것이니 슬프다. 대저 사람이 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사람된 바를 잃지 않기 때문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하여 나의 거처에 편액을 달기를 일당(逸堂)이라고 하였다. 일(逸)이라는 것은 잃었다는 것이니, 그로써 내가 잃을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그대가 나를 위하여 한마디 말로 나의 뜻을 밝혀 주기 바란다."

라고 하였다.

나는 오랫동안 할 말을 찾다가 비로소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쓸모가 없을 것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쓰이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가? 대저 세상에 쓰이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수양한 것이 있으니, 그 수양한 것이 그대의 몸에 충분치 않으면, 이것이 소위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그대를 쓰면 그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 수양한 것이 충분한데도 세상에서 그대를 쓰지 않으면 이것이 이른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세의 사람을 쓰는 관리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인데, 그대가 어찌 꺼림칙하게 생각하겠는가?

모양이 갖추어지면 그림자가 생기고 소리가 크면 멀리까지 울리니, 그대는 오직 스스로 힘써 닦을 것이지, 어찌 전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가? 그렇지만 지금 세상에서 치국평천하 하는 것을 돕지 못하고, 환란을 평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찌 다만 그대의 잘못처럼 여겨 그대 혼자서 걱정하겠는가? 여기에서 그대의 뜻이 충분히 드러났다.

내가 일찍이 생각해 보니, 행하여질 수 있는 일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마땅히 글로 적어 놓아야 한다. 그대가 가슴속에 정하여 놓은 것을 글로 써 놓으면, 후세에 반드시 취하여 모범으로 삼는 때가 올 것인데, 그대는 어찌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숨겨지게 되는 것을 경계로 삼는가?

대저 쓰이지 않은 자를 숨은 사람[逸人]이라 하고, 전해지지 않은 책을 숨겨진 책[逸書]이라 하며, 책에 실리지 않은 일을 숨겨진 일[逸事]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는 운명이 있는 것이니,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대에게 있으니, 그대는 오직 "쓸모가 없을까를 걱정할 뿐이다"하며 거기에 힘써야 한다.

또 '숨는다[逸]'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 편안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편안함에 탐닉하지 말고 방종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방종함에 힘쓰지 말고 숨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숨는데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대개 편안함을 탐하면 행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방종함에 힘쓰면 전하는 것이 자세하지 못하고, 굳이 숨으면 쓸모 있는 것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대는 마땅히 이러한 것을 함께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성심은 "그대의 말이 옳다"고 하고 이 글을 써서 집의 편액 왼편에 달았다.

逸堂記

大凡人物之生 而有用於世 斯可謂存於世 無所用者則雖存 猶不存也 其有用而能久存莫如書 直以所載之事 施于時而傳之後也 自唐虞以來 有用之書 歷數千百載 而炳然存於世 可不謂之久乎 事之宜載 而未載爲逸事 書之宜傳 而未傳爲逸書 惟人亦然 宜用於世 而不見用斯爲逸人焉 古之人 有固傳聞 而補其逸事者 逸書有歷數代而出 而顯行于世者 其人雖逸於當時 而姓名赫赫著于後 有至于今 爲人所矜式者 盖所存者誠有以不逸也 余友李聖心甫 自幼少讀古人書 以家貧 故時時事畎畝 而書未嘗暫廢也 聖心未試于世 未知其才果如古人否 而所讀之書 皆古之實施 而傳于今者也 一日屬于余曰 吾才疎而識寡 文不足以輔治平 武不足以勘禍亂 處乎世 利澤未及乎人 其湮滅而寥寥乎來世 可以悲矣 夫人之所貴於物 爲不失人之爲人也 而吾不能 然吾是以扁吾所居曰逸堂 逸者失也 以而箴吾失 子幸爲我一言 以明吾志 余久而得所言 迺復之曰 子將患夫無所用乎 抑患夫不見用乎 夫見用於世者 必有自修 所修者 未充乎子之身 是所謂無所用也 世則用子 子得無懼乎 自修充矣 而世不子用 是所謂不見用也 卽當世有司者之恥也 子何慊焉 形具則影生 聲大則響遠 惟自修之是力 何患乎無所傳也 雖然視今之世 不能輔治平 勘禍亂矣 直如子之失而子獨憂焉 於此之以見子之志矣 余嘗思之 事之可爲而未爲 宜著之以書 子有所定于胸中者 試出而書之 後世必有來取法矣 子何不圖其久者 而惟箴逸爲也 夫人之未見用者 逸人也 書之未傳者 逸書也 事之未載者 逸事也 玆三者 有命焉 非子之所能爲也 子之所能爲在子 子唯曰 患其無所用而已矣 子其勉矣哉 且逸有數義 不曰安乎 毋耽乎安 不曰縱乎 毋驁乎縱 不曰隱乎 毋固乎隱 盖耽安則所施者 無以辦矣 驁縱則所傳者 無以精矣 固隱則所用者 無以力矣 子宜幷識之 聖心曰諾 遂書此 揭堂之扁之左

노(魯)나라의 두 선비를 논하는 글

숙손통(叔孫通)[27]은 본래 진(秦)나라 때의 박사(博士)였으므로 옛날 일을 아주 환하게 익히고 있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는 초기를 맞아 고금의 의례(儀禮)를 뒤섞어 채택하여 일대의 제도를 정하였으니, 시의(時宜)에 통달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당시에 노(魯)나라의 여러 선비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가려 하지 않았다.[28] 그리고 말하기를,

"공(公)이 행하는 것은 고대의 일과 합치하지 않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공은 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아! 이는 고대 예악(禮樂)의 뜻을 능히 아는 것이다.

또 그 뜻은 오히려 부름에 응한 여러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다. 이에 태사공(太史公 : 司馬遷)은 그 말을 자신의 책에 실었으나, 그 두 사람의 성과 이름은 싣지 않았다. 대개 말은 번거롭게 많고 성과 이름은 간단한 것이다. 그런데 번거로운 십여 구절의 말은 온전히 다 말하면서, 그 간단한 성과 이름을 가만히 빠뜨린 것은 반드시 은미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의 고조는 본래 유생(儒生)을 업신여기고 멸시하였었다. 그것은 무력으로 천하를 얻었으므로 예악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하들이 공을 다투고 술에 취하여 함부로 큰 소리를 지르고 하였는데, 고조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괴로워하였다. 그리하여 부득이하여 조정의 의식을 의논하여 정하였다.

숙손통은 임금의 뜻에 영합하고, 구차하게 한 때의 공을 얻고자 하여 그가 정한

27) 중국 전한 때 사람. 진(秦)나라 때부터 문학으로 이름을 날려 조정에 불려 갔다. 한(漢)나라에 항복할 때 유생(儒生) 백여 명을 데리고 갔다. 고조(高祖) 때 한나라의 의례(儀禮)를 제정하고 만년에는 태자태부(太子太傅)가 되었다.

28) 숙손통(叔孫通)이 한(漢)나라의 의례(儀禮)를 정하면서 노(魯)나라에서 예(禮)에 밝은 선비 30여 명을 불렀다. 그런데 그 중의 두 명은 "지금 천하는 겨우 평정되었을 뿐입니다. 예악을 일으키는 것은 천자가 덕을 쌓아 백 년이나 된 뒤라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께서 하는 것은 옛 일과 합치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았다.

예의는 모두 윗사람을 높이고 아랫사람을 억압하여 임금의 마음을 오만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예악의 근원을 간략히 밝혀 임금이 덕업(德業)에 나아가도록 힘쓰지 않아, 고조는 의례가 정해지는 날에 비로소 임금이 귀한 줄만 알고, 천하를 보존하기가 실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라가 겨우 안정되고 나서 자신이 총애하는 후궁만을 편애하여 자신이 죽은 후의 혼란을 자초하였다.

대개 아직 싹트지 않았을 때부터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시작에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니, 이러한 점에서 보면 숙손통이 어찌 죄가 없겠는가? 태사공은 고조 때의 일이므로 감히 배척하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으로는 숙손통이 한 일을 천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두 선비를 내세워, 그 말을 빌려 숙손통을 나무란 것이다.

또 후세에 국가를 다스리고 예악을 정하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말미암는 제도와 예악을 근원하여 삼대의 제도와 문물로 가감하도록 한 것이다. 숙손통이 세상에 바란 것은 구차하고 소홀하여, 따를 만한 것이 아니다.

『예서(禮書)』[29]에 이르기를 "주(周)나라가 쇠약하여지고 나서 예(禮)가 폐해지고, 악(樂)이 무너져, 대소가 서로 넘보았다."고 하였고, 또 "중니(仲尼)가 죽고 난 후에 그에게서 수업한 문도(門徒)들이 매몰되어 등용되지 않았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진나라에 이르러 육국(六國)[30]의 예의를 채택하였으나 성현의 제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한 고조는 사해에 위세를 떨쳤으나, 숙손통이 더하고 빼어 정한 제도는 모두 진나라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다. 그러므로 석정산인(石亭山人)은 말한다. "나는 여기에서 태사공의 뜻을 알겠다."라고.

魯有兩生論

叔孫通以故秦時博士 頗曉習古事 遭漢興之初 雜採古今之儀 以定一代之制 不可謂不達時宜也 當其徵魯諸生也 有兩生者 不肯行且曰 公所爲不合古 吾不行 公往矣 無汚我云云 噫此能識古禮樂意 而其志尙卓乎出諸生上矣 乃太史公載其言辭 不載其姓名

29) 『사기』 권23에 실린 「예서」를 말한다.

30)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합하기 전 전국시대의 연(燕)·제(齊)·초(楚)·한(韓)·위(魏)·조(趙) 여섯 제후국을 가리킨다.

言辭繁姓名簡 具道繁者十數句 而寂然闕其簡者 必有微意矣 漢高帝素嫚侮儒生 而以干戈得天下 故不喜聞禮樂說 特以群臣爭功辭或妄呼 心煩厭苦之 其議定朝儀 出於不得已也 通則務迎合上意 苟徹一時之功 所定禮儀 皆尊上抑下 以侈人主之心 未嘗略明禮樂之原 以懋進君上之德業 帝於儀定之日 惟知皇帝之始爲貴 而不知夫保有天下之實艱 是以海內僅定 而偏嬖寵姬 召身後之亂 夫啓滋於未萌 壞終於其始 則通於是惡得無罪乎 太史公以高帝之時事 故不敢斥言 而心鄙通所爲 乃設此兩生 借其言以譏之 使天下後世之爲國家 定禮樂者 必原其所由制 損益以三代之典章 若通之希世苟簡所不敢踵也 禮書云 周衰禮廢樂壞 大小相踰 仲尼沒後 受業之徒 沈湮而不擧 豈不痛哉 至秦採擇六國禮儀 不合聖制 高帝光有四海 叔孫通所增減 大抵皆襲秦 故石亭山人曰 盖余於此知太史公意云

장량(張良)이 실수하여 진시황의 부거(副車)를 친 일을 논함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용기이다. 그러나 지혜가 두루 미치지 않을 때도 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것은 의(義)이다. 그러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것이 장자방(張子房 : 張良)이 진시황[31]의 수레를 공격하려다가, 진시황을 수행하는 수레를 잘못 공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한을 남기게 한 이유이다.

하찮은 필부(匹夫)의 몸으로 한 자객(刺客)의 힘을 빌려 만승(萬乘)[32]의 군사를 이끄는 황제를 쇠뭉치로 때려죽이려는 일을 감히 누가 하겠는가? 오직 장자방만이 그

31) 중국 진(秦)나라의 초대 황제(B.C. 259~210). 장양왕(莊襄王)의 아들로 이름은 정(政), 성은 조(趙)씨이다. 장양왕이 조(趙) 나라에 인질로 가 있을 때 여불위(呂不韋)의 첩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정, 곧 진시황이다. 열세 살 때 장양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전국시대 말기 제후국을 병합하여 중국을 통일하였다. 통일 과정에서 많은 살육을 저질렀기 때문에 원수를 갚고자 진시황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진시황은 엄격한 형과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또한 사상 통제 정책을 실시하여 의약·복서·농서 등 실용서적 이외의 서적을 거두어들여 불태우고 서적을 소지를 금지하는 협서율(挾書律)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진시황은 순행도중 죽고 막내아들 호해(胡亥)가 2세 황제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2세 황제가 등극한 지 3년만에 진왕조는 멸망하였다.

32) 중국 주(周)나라 때에 천자(天子)는 그 영토 안에서 병거(兵車) 1만량을 내는 제도가 있었다. 이런 까닭에 만승지국(萬乘之國)은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뜻하고 만승지제(萬乘之帝)는 천자를 뜻한다.

일을 하였으니, 이것을 용기라고 한다.

집안과 나라가 망하여 폐허가 된 것을 슬퍼하여,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을 결심하고 바야흐로 진(秦)나라를 베어야 마음이 흡족한 것은 실로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인데, 장자방이 그것을 하였으니, 이것은 의(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가 두루 미치지 않은 바가 있는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일이 성취될 수 없었던 것은 때가 그러한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진시황은 걸출한 인물로, 여섯 나라를 병합하고, 무력을 천하에 휘둘러 일찍이 사람들의 부형(父兄)·자제(子弟)를 죽인 것이 만여 명에 그치지 않았다. 비록 천하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도, 그 마음은 형가(荊軻)[33]의 비수(匕首)와 고점리(高漸離)[34]의 납이 든 축(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러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신선술(神仙術)에 미혹되어 바다에 나아갔고, 순행(巡行)을 할 때에도, 그때마다 매번 자신이 탄 수레를 변장하여 사람들이 진시황이 탄 수레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을 만큼 교활하였다.

장자방의 지혜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나 끝을 계획하는 데 어찌 숙고하여 계획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사방을 취봉기(翠鳳旗)[35]와 준마(駿馬)가 떼지어 옹위하고, 호위하는 무기가 구름과 같이 많아, 위의(威儀)가 찬란하고 성대하여, 실로 진시황이 어느 수레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이었다. 하물며 호지(滈池)[36]의 아름다움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먼 사구(沙邱)의 평대(平臺)[37]에 와서 진시황의 운명이 온량거(轀輬車)[38]에서 끝난 것은 시대의 운명이 그러한 것이었다.

---

33) 중국 전국시대 말기 위(衛)나라 사람(? ~B.C. 227). 일명 경경(慶卿), 혹은 형경(荊卿)이라고 한다. 조(趙)나라, 연(燕)나라 등을 유력(遊歷)하였다. 그가 연(燕)나라에 있을 때 진(秦)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태자(太子) 단(丹)이 도망하여 왔다. 형가는 태자 단에 의하여 선발되어 사신(使臣)으로 가장하고, 진(秦)나라에 죄를 짓고 연(燕)나라로 도망왔던 진의 장수 번오기(樊於期)의 머리와 독을 바른 비수(匕首)를 가지고, 진나라로 가서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34) 중국 연(燕)나라 때 (筑)이라는 악기를 잘 연주했던 사람. 형가(荊軻)와 친하게 지냈다. 진시황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고점리의 축 소리를 좋아하여 그를 맹인(盲人)으로 만들어 가까이 두고 축을 타게 하였다. 고점리는 축 속에 납을 넣어 두었다가 진시황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를 내리쳤으나 맞지 않았고, 이 일로 고점리는 죽고, 진시황은 제후국에서 온 사람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35) 물총새와 봉황이 그려진 천자의 깃발.

36) 중국 진(秦)나라 때 함양(咸陽) 부근에 있었던 연못의 이름.

37) 지방을 순행하던 진시황의 병이 이곳에 이르러 더욱 심해져 죽었다고 한다.

장자방이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일의 형세와 시운은 즉 사람과 하늘이 적당하게 서로 만나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가 실수한 까닭이다. 그렇지만 장자방이 일의 성패를 어찌 미리 알았겠는가? 다만 나의 의를 다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못할 일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충심(忠心)에서 우러나오는 분노를 따랐을 뿐이니, 이것이 장자방의 됨됨이이다.

진시황이 천하에 위엄을 떨쳐 열흘 동안을 수색하였으나 장자방은 흙 다리 위를 한가하게 거닐고 있었으니,[39] 이것이 장자방의 됨됨이이다. 수행하는 수레를 때려부술 때 진시황은 황급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로 달려들어갔으니, 그 마음은 또한 한기(寒氣)가 돌았을 것이다. 이것이 잘못하여 다른 마차를 쳤지만 또 깊이 한스럽지 않은 까닭이다.

論張良誤中副車

爲人所莫敢者勇也 而智有時乎未周盡 吾所當行者義也 而事不能必其成 此張子房之所以誤中副車 而令人有遺恨者乎 夫以眇然匹夫之身 藉一士之力 欲椎殺萬乘之帝 其誰敢爲之 惟子房爲之 斯之爲勇也 痛家國之爲墟 期報君父之讐 甘心於方斧之秦 固臣子之所必行 而卽子房行之 斯之爲義也 然而智有所未周者 勢也 事不能遂成者 時也 何以言之 盖始皇以桀驁之才 幷呑六國 兵刃遍天下 所嘗殺人之父兄子弟 不啻萬數 雖已駕馭四海 虎視耽耽 而其心 則常以荊軻之匕首 高漸離之鉛筑 未保不起於倉卒之頃 故惑於神仙之術幷海 而巡而輒自變其所駕之車 令人莫測 始皇於是 亦已狡矣 夫以子房之智 在始圖終 豈不計之熟乎 而方其翠鳳纖離簇擁 而來衛仗如雲 威儀赫赫 實有不能審 其必在於何車者 勢也 況滄池之璧未出 沙邱之臺尙遠 而始皇之命 得終於轀輬之車者 時也 子房雖智人也 勢與時 則人天適相値耳 此所以致其誤也 雖然 子房豈逆睹其事之成否哉 惟盡其在我之義 而不顧人之所不敢爲 以洩忠憤之心而已 斯

38) 누워서 쉴 수 있는 수레. 창문이 달려 있어 닫으면 따뜻하고, 열면 시원하므로 따뜻하고 시원하다는 온량(溫涼)의 뜻으로 썼다. 그러나 나중에는 시체를 싣는 수레로 쓰이게 되었다.

39) 진시황을 죽이려는 거사가 실패하고 나서, 장량은 성명을 바꾸고 하비(下邳) 지방으로 도망쳐서 몸을 숨겼다. 어느 날 장량은 흙다리 위를 거닐다가 한 노인을 만났다. 장량은 그 노인에게서 옛날 주(周)나라 태공망(太公望), 즉 주 문왕(文王)의 참모 여상(呂尙)의 병법서를 얻었다고 한다. 장량은 이 병법서를 공부하여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도왔다고 한다.

之爲子房也 始皇奮天下之威 令大索十日 而子房乃從容步於圯上 斯之爲子房也 當擊碎副車之時 始皇之未保倉卒之頃之心 驟動于中 而其膽盖亦寒矣 其所以誤中 又不足以深恨也

구거(鉤距)를 논함

한(漢)나라의 조광한(趙廣漢)[40]은 관리로써 다스리는데 유능하다고 소문이 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 마지않았다. 대개 일을 잘 염탐하여 세력이 강한 사람을 쳐 없애기를 잘하였는데, 그가 일을 잘 염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구거(鉤距)[41]의 술수를 쓰기 때문이었다.

구거라 하는 것은 은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비밀스럽게 살펴보는 것과 드러나게 아는 것은 같지 않다. 비록 아주 세밀하게 그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다 맞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반드시 다 맞지 않는다면, 그 잘못 맞은 사람은 반드시 무고(無辜)하게 억울한 죄를 받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어진 군자(君子)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당시의 일을 예로 들어보자. 도적이 모두 굶주리고 곤궁하여 의지할 바 없는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개 무뢰한 백성으로써 세력 있는 족속들이 함부로 방자하게 날뛰는 것이다. 진실로 그것에 대처하고자 한다면 어찌 방법이 없겠는가?

계강자(季康子)가 공자에게 도둑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그대가 탐내지 않는다면, 비록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다."[42]라고 하였다.

성인(聖人)이 말하는 도둑을 그치게 하는 큰 법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

40) 조광한(趙廣漢 : ?~B.C.65)은 한(漢)나라 때의 유능한 지방관으로 자(字)는 자도(子都)이다. 선제(宣帝) 때 경조윤(京兆尹)이 되었다. 그는 젊어서 군의 관리와 주종사(主從事)의 관직을 지냈는데, 청렴결백하고 재주 있고 총명하며 선비들을 잘 대우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 그러나 그는 구거(鉤距)의 술수에 능하여, 일의 사정을 잘 알고, 음모나 비밀을 들추어내는 일을 잘 했다고 한다.

41) 미늘이 있는 낚시. 이 낚시는 삼키기는 쉬우나 뱉기는 어려우므로 남을 얽어 넣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일의 은밀한 정황을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42) 『논어』「안연(顔淵)」에 나온다.

러므로 벼슬아치가 되어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데, 스스로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오직 공평하고 청렴한 것뿐이다.

공평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하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그만둘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공평하면 사사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 남의 것을 탐하는 자가 그만 둘 줄을 알게 되고, 그러면 도적이 사특한 마음이 있어도 구하지 못할 것이니, 세력을 부리는 자가 믿을 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 예(禮)와 의(義)로 깨우쳐 주고, 진실됨과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 점점 교화하는데 힘써 도적질을 배울 데가 없어지면 급기야는 도적질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 억지로 버티는 것이 분명한 자는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죄를 주어, 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백 사람을 경계하게 하면, 작은 도둑들은 형에 처하지 않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어찌 구거의 술수를 쓸 필요가 있을 것인가? 구거의 술수를 써서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무고하게 죄를 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잔인하고 천박하여 백성에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조광한은 영천(潁川) 지방을 다스리며, 항통(鉟筒)[43]을 설치하여 듣고 보는 모든 것을 들추어내어 신고하게 하였다. 그 뒤부터는 드디어 그러한 풍조가 풍속이 되어 백성이 서로 원수가 되었으나, 한연수(韓延壽)[44]는 예의(禮義)와 겸양(謙讓)으로 그러한 풍속을 고칠 수 있었으니,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들은 반드시 그보다 더 심한 것이 있다.

대개 예의와 겸양으로 그것을 개선하면 도적을 금하는 것은 반드시 구거의 술수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벼슬아치가 되어 다스리는데 그 백성이 어찌 모두 도적이겠는가? 도적을 대하는 방법으로 양민(良民)을 대하는 것은 어진 군자가 차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게다가 조광한의 술수는 모두 정밀하지도 못하여 위상(魏相) 집안의 불법적인 일을 엿보았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45] 위상은 승상(丞相)이다. 그러므로 글을 올려

---

43) 대나무로 주둥이를 작게 만든 통, 여기에다 투서를 넣어 다른 사람이 꺼내보지 못하게 하였다.

44) 중국 한나라 때 사람(?~B.C. 57). 자는 장공(長公)이다. 예의를 숭상하고 옛날의 교화를 좋아하였다. 어떤 지방에 부임하면 반드시 어진 사람을 초빙하여 의견을 듣고, 간쟁을 받아들였다. 동(東都)에 있은지 3년만에 '치행제일(治行第一)'이란 칭송을 들었다. 후에 좌풍익(左馮翊)을 지키다가 소망지(蕭望之)의 탄핵을 받아 기시(棄市) 당했다.

45) 조광한(趙廣漢)이 사사로운 원한으로 남자(男子) 영축(榮畜)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이 그일을 황제에게 상서(上書)하였다. 그리하여 승상어사(丞相御使)가 조사하게 하였다. 조광한(趙廣漢)은 승

스스로 진술하여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보잘 것 없는 백성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일을 밝힐 수 없어 법에 의해 처리되기에 이르는 자가 어찌 적겠는가?

아아! 위에 있는 사람이 관용과 너그러움에 힘쓰지 않고, 가혹한 감찰로 밝히려고 하며, 아래의 백성들을 교화할 임무는 버려두고 사사로운 꾀로 한때의 이름을 구하려 하면, 마침내는 풍속이 패퇴(敗退)하고 덕(德)을 손상시켜 날로 잔인하고 천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능력 있는 관리의 능력이 순후(醇厚)한 관리의 순후함만 못하니, 이것은 임금이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論鉤距

漢趙廣漢以吏 治有能聲 當時稱之不已 盖以善廉察 誅豪强爲能 而其所以善廉察者鉤距是已 夫鉤距 是隱度之名也 隱度與顯知不同 雖至精行之 未必皆中 如未必皆中則其不中者 必無辜而受枉 此豈仁人君子之所忍爲哉 據其時盜賊 非皆出於飢困 無賴之民 而槪豪强之族橫恣 所爲苟有以處之 豈無其道乎 季康子問盜 孔子曰 苟子之不欲 雖賞之不窃旨哉 聖人之言 弭盜之大法 無出於此矣 是以爲吏治者 必先自治 自治之道 無他焉 公廉而已矣 惟公故廉 廉則貪者知戢 公則私不得干貪者 知戢則盜賊有所懲 私不得干 則豪强無所恃 喩智以禮義 示之以忠信 務在漸化 無求效於時日 及其斷事也 取尤强梗顯知 而無疑者 必戮無貸以一警百 則其小者不刑而息矣 此何待乎鉤距哉 藉鉤距而發無不中 無無辜而受枉者 卽其設心 巧詐殘薄 非所以示民也 廣漢治潁川 設鉏箠以告訐爲耳目 自其後以成俗民相怨讐 而韓延壽以禮讓 能改更之 上有好者 下必有甚焉者 夫以禮讓而改更之 則其禁盜賊 不必待鉤距 可以知矣 且爲吏治其民豈皆盜賊乎 以待盜賊者 待良民已 非仁人君子之所忍爲 況廣漢之術 不能皆精至其伺魏相門內不法事 而見不驗矣 魏相丞相也 足以上書自陳 故得以明也 若小民之不能自明 而致于法者 寧有限乎 嗚呼 在上者 不務寬厚 而以苛察爲明 則其下化之任其私智求轍一時之名 而終至敗俗傷德 日趨於殘薄矣 此能吏之能 必不如醇吏之醇 而在於人主之導率之耳

상의 부인이 그의 시녀(侍女)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이 일로 승상을 위협하자 황제가 이를 싫어하여 그를 파면시키고, 끝내 죽임을 당하였다.

공광(孔光)이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삭제한 일을 논함

한(漢)나라의 공광[46]은 정부의 중요한 기관을 맡아보기 10여 년에 위에 올리는 글이 있으면, 번번이 초고를 삭제하였는데, 그것은 임금의 과실을 드러내어 충직하기를 구하는 것은 신하된 자의 큰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공광의 아버지 패(霸)는 하후승(夏侯勝)[47]에게서 『상서(尙書)』를 전수받았는데, 공광은 그의 막내아들로 경술(經術)에 더욱 밝았다. 그가 지키고자 한 것은 『상서』에 의거한 것이었다. 『상서』에서 주(周) 성왕(成王)은 신하인 군진(君陳)에게 명하기를,

"그대에게 좋은 계획이나 좋은 생각이 있으면 곧 들어가서 안에 계시는 그대의 임금에게 고하고, 그대는 밖에서 그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이 계획과 생각은 오직 우리 임금님의 덕이십니다'라고 하시오. 신하된 사람이 모두 이와 같이 하여야 참으로 덕이 훌륭하고 명성이 밝게 드러날 것이오."[48]

라고 하였다.

공광은 실로 여기에서 얻은 것이 있어 그대로 하면 나무랄 바가 없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다시 그 일에 대하여 논하자면,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다. 고하고 나서 그 고한 바를 다하는 것 역시 신하의 직분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신하가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신하가 좋은 계획이나 좋은 생각이 있거든 들어가서 임금에게 고하고, 임금이 진실로 그것을 받아들여 정사(政事)에 실시하면, 신하의 도는 이루는 것이 없이 마땅히 자신의 공은 안으로 품고, 임금에게로 공을 돌려야 한다. 만일 고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받아들이고서도 실시하지 않는다면 따를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

46) 중국 전한 때 사람(B.C. 65~A.D. 5). 자는 자하(子夏)이다. 공자의 14세 손으로 공패(孔霸)의 넷째 아들이다. 경학에 통달하였는데 특히 『상서』에 밝았다. 성제(成帝) 때에 박사가 되었다. 시호는 간열(簡烈)이다.

47) 중국 한나라 때 사람. 자는 장공(長公)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나 공부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일족으로 천재지변을 잘 논했던 하후시창(夏侯始昌)에게서 『상서』와 『홍범오행전(洪範五行傳)』을 전수받아 천재지변에 대하여 잘 논했고, 『예기(禮記)』에도 밝았다.

48) 『서경』 주서(周書), 「군진(君陳)」에 나온다.

'무엇을 밖에서 따르겠는가?'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아도 거듭 고하지 않을 수 없고, 받아들이고서도 실시하지 않더라도 또한 거듭 고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고했는데도 받아들여 실시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서는 굳이 따져서 임금의 과실을 드러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나 백성의 안위에 관련된 큰 일이라면 필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따지는 때에는 그 말이 조정에서 펼쳐 드러나므로 임금의 과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미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상서』「열명(說命)」에서는 "신 부열(傅說)이 간언(諫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이훈(伊訓)」에서는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 형벌은 묵형(墨刑)이다."라고 하였다. 대저 바로잡는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 것이니, 잘못을 간언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명(冏命)」에서는 "좌우 전후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를 바로잡고, 허물과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지위가 있으면 비록 작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라도 임금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정부의 중요한 기관을 맡아보는 대신이겠습니까? 어찌 허물과 그릇됨을 바로잡는데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신하가 임금에게 고하는 것은 그 직무이다. 그러나 반드시 임금이 잘못이 있고 나서 그것을 고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임금이 성군(聖君)이라도 경계(警戒)하도록 고할 수 있는 것이다.

당우(唐虞)의 때에 조정에 있는 신하들의 어짊은 요임금과 순임금에 미치지 못하였고, 요임금과 순임금은 선함을 다하는 성인이었다. 그러나 신하들이 말하기를 "편히 놀지 마시고, 지나치게 즐기지 마시옵소서."[49]라고 하였고, 고요(皐陶)가 말하기를 "임금께서 일을 번잡하게 많이 하시고, 세밀하게 하시면 신하들은 게을러져서 만사가 실패할 것입니다."[50]라고 하였다.

대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자신의 아래 사람에게도 감히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신하가 임금에게 있어서랴. 놀고 지나치게 즐긴다는 것과 번잡하게 일을 많이 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것은 비할 바가 없는 말인데, 그 말을 요순에게 했으나, 요순은 그 말을 괴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후세에도 역시 고요가 임금을 업신여겨

49) 『서경』 우서(禹書), 「대우모(大禹謨)」에 나온다.
50) 『서경』 우서(禹書), 「익직(益稷)」에 나온다.

서 그런 말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는데, 그 말이 역사서에 실려 만세에까지 전해졌으니, 고요가 그 초고를 삭제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본전(本傳)[51]에 이르기를,

"임금이 묻는 것이 있으면 공광은 경전과 법을 근거로 하여 대답하고 구차하게 영합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혹시 따르지 않는 것이 있어도 억지로 간언하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행적이 구차하게 영합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단지 아첨만 하는 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간언할 수 없었던 것은 대의(大義)가 삼가는 작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공광은 공자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공자의 가르침을 익히 익혔을 것이다.

『논어』에 자로(子路)가 임금 섬기는 것을 물으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속이지 말고, 고하는 것이다."[52]라고 하였다. 임금이 따르지 않는데도 따져 말하지 않는 것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도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어찌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서 고할 수 있겠는가?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맡은 일로 여겼으니, 감히 강력하게 간언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 신하가 되어서 신하의 직분을 다하고 임금에게 고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아도 반드시 죄가 되지는 않는다. 만약 신하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삭제한들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論孔光削藁

漢孔光典樞機十餘年 有所言于上 輒削草藁 以爲章主之過 以奸忠直 人臣大罪也 盖光父霸 受尙書于夏侯勝 光以其少子 尤明於經術 其所守有所據尙書 周成王之命君陳曰 爾有嘉謨嘉猷 則入告爾后于內 爾乃順之于外曰 斯謨斯猷惟我后之德 臣人咸若時

51) 『한서(漢書)』「공광전」을 말한다.
52) 『논어』「헌문(憲問)」에 나온다.

惟良顯哉 光實有得於此也 似可無譏矣 雖然且論之 夫臣之有告於君者 臣之職也 有告而能盡其所告者 亦臣之職也 二者而一有未焉 則非盡夫臣之所以爲臣也 臣有嘉謨嘉猷 入告于君 而君誠納之而施之于政 臣道無成當含章 而歸美乎君矣 萬一告而不納 納而無實施 未有可順者矣 何所順之於外哉 告而不納 不容不申 告 納而無實施 亦不容不申告 申告之而猶不納且施焉 則事之小者 不宜固爭 適彰君之過 其大而有關於國之安危 民之休戚者 必不敢不爭 爭之日 而其言已布於朝著 雖欲不彰君之過 其道末由也 在書之說命曰 惟說不言 有厥咎 伊訓則曰 臣下不匡 其刑墨 夫匡者 匡其不正也 非止於有言而已 其在冏命曰 左右前後有位之士 匡其不及 繩愆糾謬 夫有位 則雖小臣 可以匡君之不及 況大臣之典樞機者乎 安見其繩愆糾謬 而能不彰君之過者 夫臣之告君者 其職也 非必君之有過而後告之也 雖其君聖焉 且告戒之 唐虞之世 在廷之臣 其賢不及堯舜 而堯舜聖人之盡善者也 然而益之言曰 罔遊于逸 罔淫于樂 皐陶之言曰 元首叢脞哉 股肱惰哉 萬事墮哉 夫謂無爲有在敵以下 且不敢然 況臣之於君乎 遊淫叢脞 非所擬言於堯舜 而堯舜不以爲怪 後世亦未有以益皐陶爲誣君 而其言載在史典 垂之萬世 不可謂益皐陶之削其藁也 本傳云 上有所問光 據經法而對 不希苟合 如或不從不敢强諫 跡其不苟合 非專乎阿諛者 而猶不能諫者 大義不勝其小謹之心也 光孔子之後也 宜亦熟講夫子之訓矣 魯論子路問事君 子曰 不欺也而犯之 君不從而不爭 可謂不欺乎 彰君之過猶畏之 況能犯之乎 削藁爲其所守 宜乎其不敢强諫也 嗚呼 爲人臣而能盡臣之職 不削藁必不爲罪 如不能盡臣之職 則削藁何足以贖罪也哉

"천하의 일은 이와 같지 않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라는 글을 논함.

- 집안의 여러 학생들에게 『송명신록(宋名臣錄)』 중에 실린 말을 제목으로 삼아 낸 과제 -

송(宋)나라의 석수도(石守道)[53]가 경력시(慶曆詩)를 지었는데, 범문정공(范文正公)[54]

53) 중국 북송(北宋) 때의 유학자(1005~1045). 이름은 개(介)이다. 태산(泰山)선생 손복(孫復)을 찾아가 배웠다. 젊어서 진사에 급제하였으나 조래산(徂徠山)에 은거하여 밭을 갈고 『주역』을 교수하여 '조래(徂徠) 선생'이라 불렸다. 후에 국자감직강(國子監直講), 태자중윤(太子中允) 등을 역임하였다.

54) 중국 북송 때의 명신(989~1052). 이름은 중엄(仲淹), 자는 희문(希文), 소주(蘇州) 오현(吳縣) 사람이다. 척동문(戚同文)에게 배우고 뒤에 진사에 뽑혀 우사간(右司諫)이 되었고, 참지정사(參

이 한위공(韓魏公)[55]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면 괴이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없어진다."라고 하였다. 한위공이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이와 같을 수가 없다. 이와 같다면 반드시 허물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그 글이 군자와 소인을 너무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두 사람의 뜻을 미루어 확대해서 말해 보겠다.

천하의 일은 항상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다른 데서 무너진다. 같다는 것은 현명하고 우둔한 것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건 그렇지 못한 사람이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혹시라도 다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이란 천하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 재상이다. 천하의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 같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임금과 재상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한다. 임금과 재상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임금과 재상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높이 대우해 주면, 사람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에서 총애를 받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그 상황이 모든 사람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반드시 모두 군자답지는 않다. 비록 소인이라도 아주 악한데 이르지 않았으면 반드시 앞으로는 백성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한가? 그가 총애를 받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으니 실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으면, 반드시 군자여야만 잘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소인이라도 또한 잘 대우받을 수 있고, 비록 그 바탕이 사악하더라도, 그 사악함이 드러나지 않고, 또한 백성을 사랑할 수 있으면, 반드시 앞으로 사악해질 것이라고 해서 그를 대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천하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것은 오직 백성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그 요체이지, 헛되이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정의 신하들이 군자와 소인 할 것 없이 모두 백성을 사랑할

知政事)에까지 올랐다. 손복(孫復)·석개(石介)·호원(胡瑗)과 함께 '북송초 사선생(四先生)'으로 불린다.

55) 중국 북송 때의 명신(1008~1075). 이름은 기(琦), 자는 치규(稚圭), 송(宋) 안양인(安陽人)이다. 위국공(魏國公)으로 봉해졌다. 가우(嘉祐)·치평(治平) 연간에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는데 공헌하였다. 범중엄과 함께 오랫동안 병사(兵事)를 맡아보았으므로 '한·범(韓范)'이라고 불렸다.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같다는 것이다. 같다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니 사람마다 같지 않음이 없다. 만약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다면 소인이라도 또한 군자가 될 수 있으니, 어찌 반드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해야 하겠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이끄는데 있을 뿐이니, 임금이면서 천하에 임금 노릇할 도량이 없고, 재상이면서 천하에 재상 노릇 할 도량이 없으면 비록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없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천하를 다스리는 요체가 백성을 사랑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자 하여, 군자에게는 드러내 놓고 "이 사람은 군자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명성만을 좋아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이 주위에 따르게 된다. 또 소인에게는 몰래 지목하여 "이 사람은 소인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스스로를 위태롭게 여기게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공효(功效)는 천하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조정에서 군자·소인이 먼저 나뉘게 되니, 조정이 어찌 흩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다르다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천하의 사람들 중에는 군자는 항상 적고 소인은 항상 많은데, 그 항상 많은 사람의 수가 몇 배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항상 적은 사람은 그 마음이 순일(純一)하고, 항상 많은 사람은 그 마음이 속이기를 좋아한다. 대개 몇 배 이상이 되는 속이기 좋아하는 소인들이 엿보면 순수한 군자들은 그 독을 맞지 않는 자가 없다. 설사 그 임금의 현명함이 충분히 살펴서 소인이 군자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더라도 천하의 일이 무너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천하를 잘 다스리는 자는 군자 소인 할 것 없이 모두 백성을 사랑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항상 그 수가 많은 소인을 없애면 백성을 사랑하는 군자는 그 수가 이미 적은데, 어떻게 넓은 천하를 나누어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만약 임금의 현명함이 충분히 살피기에 부족하면 군자와 소인이 명실(名實)이 상반되어 조정이 무너지고, 천하 역시 무너질 것이니 슬프지 아니한가? 이러한 일의 근원을 살펴보면 군자와 소인의 행적을 분명히 분별하려 한데서 시작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것은 임금과 재상의 급한 일이 아니다. 현명함이 구별할 수 있다 하여도 덕으로써 겉모습에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겉모습에 드

러내지 않아야 소인들이 교화되어 군자를 따를 것이다. 그런데 순(舜)임금이 사흉(四凶)[56]에게 죄를 주었지만 천하가 다 복종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 사흉이 요임금 때라고 해서 어찌 군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요임금은 공공(共工)[57]에 있어서는 외양은 공손하나 마음은 오만하다는 것을 알았고, 곤(鯀)[58]에 있어서는 명령을 어겨 일족의 운명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59], 이것은 현명함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때 임금과 재상은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별하였으나 그것이 겉모습에 드러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흉이 그 흉함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순임금에 이르러서는 순임금이 요임금의 정사(政事)를 옆에서 드러나지 않게 섭정(攝政)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덕의 교화가 저 네 사람의 마음에까지 스며들지 않아 그 흉함이 갑자기 나타나고, 사특함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하여 순임금은 죄를 물어 그들을 처벌하였으니, 천하가 어찌 다 복종하지 않겠는가? 다 복종했다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순임금의 덕에 교화되었다는 것이다.

아! 임금과 재상의 도량을 가진 사람은 군자와 소인의 성(性)이 같지 않음을 분변해서, 각각 그들이 잘하는 일을 맡기니, 소인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이 군자를 모함에 빠뜨리지 않게 하고 백성을 사랑하도록 한다. 이것이 바로 군자와 소인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고 그 마음을 다하게 하는 방법이다.

天下事不如此如此必壞說

- 課堂中諸生用宋名臣錄中語爲題 -

宋石守道作慶曆詩 范文正謂韓魏公曰 爲此怪鬼輩壞了 公曰 天下事不可如此 如此必壞 盖以其分別君子小人 太明白也 余推廣二公之意 而爲之設曰 天下之事 常成於同而壞於異 同者 非謂賢不肖之必同也 特謂上之人 能令賢不肖 皆有有爲之心 而無或異也 君者 居天下之上之人也 其次相君者也 欲使天下之賢不肖 皆同心焉 則君相爲

56) 공공(共工)·환도(驩兜)·삼묘(三苗)·곤(鯀)을 가리킨다. 『서경』 우서(虞書), 「순전(舜典)」 참조.
57) 관직명으로 그 때 그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설과 사람의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58) 우(禹) 임금의 아버지. 그는 요(堯)임금의 명을 받들어 치수에 힘썼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뒤에 형벌을 받게 된다.
59) 『서경』 우서(虞書), 「요전(堯典)」에 나온다.

之先 夫君相所先者何 必以愛民爲先也 君相之愛民之心同矣 擇其能愛民者 而尊寵之 人見其能愛民者 爲上所尊寵 其勢不得不人人愛民焉 非其心之必皆君子也 雖小人不至大慝 則必將愛民 何者 以其爲所尊寵 在於愛民也 苟能愛民焉 非必君子而後尊寵之也 雖小人亦尊寵之 雖其才足以至大慝 而大慝不見 亦能愛民 則必不以將爲大慝而不尊寵之也 其故何也 天下之治與不治 惟愛民與不愛民 其要也 不在乎徒辨君子小人而已 然則在廷之臣 無君子小人 而皆能愛民 是之謂同 同者謂其愛民之心 人無不同也 如其愛民之心同 則是小人者 亦爲君子矣 何必分之哉 在於上之人 導率之耳 君而無君天下之量 相而無相天下之量 則雖有願治之心 而不足以治天下何也 不知治天下之要 在於愛民 而必欲辨其賢不肖 於君子 則襮而白之曰 此君子也 於是好名無實之人附焉 於小人 則竊竊然目之曰 此小人也 於是不爲君子者 人人自危焉 愛民之效未及於天下 而君子小人 先分於朝廷 朝廷惡得不解散乎 此之謂異 異者謂未能同有愛民之心也 天下之人 君子常少 小人常多 其常多之數 不翅倍蓰也 乃常少者 其心醇而相多者 其心譎 夫以不翅倍蓰之譎伺 不足倍蓰之醇 蔑有不中其毒者 使其君明足以察之 不使小人 傷其君子 天下之事 則壞矣何者 善治天下者 無君子小人 皆使之愛民而今也 減其常多者 則愛民之人 其數已少 安得分理天下之廣哉 使其君明不足以察之 則君子小人 名實相反 朝廷壞 而天下亦壞矣 可不痛哉 原其所來 未始不由於分別 君子小人之顯而有迹也 可不愼哉 然則辨君子小人 非君相之急務歟 曰明能辨之 而德能不見於形色 其惟不見於形色 乃使小人化而從君子也 然則舜之罪四凶 而天下咸服何也 曰彼四凶 在堯之時 豈能爲君子哉 堯於共工而知其象恭 於鯀而知其方命圮族 是謂明能辨之也 其時君相同心 故辨之而刑色不著 是以四人不能肆其凶 至舜以側微攝堯之政 其化未及浸灌於四人之髓 而其凶驟發 大慝見焉 舜於是殺其罪而誅之 天下惡得不咸服也 咸服云者 謂其無賢不肖 皆化於舜之德也 嗚呼 有君相之量者 辨君子小人之性之不同 各任其所長 能使小人之有才者 不施之於陷君子 而於愛吾民也施之 斯所以無君子小人 皆爲吾用而盡其心也

구준(寇準)이 진종(眞宗)에게 친히 거란(契丹)을 정벌할 것을 청한 일을 논함

나라에 위급한 환란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질병이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이 한창

병이 심하면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약에 달려 있다. 훌륭한 의사를 필요로 한다. 그는 세밀하게 진맥하고 정확하게 증상을 살펴, 반드시 병이 나을 처방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용렬한 의사가 곁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병자가 현혹된다. 어지럽히는 자가 많으면 좋은 약을 쓸 수 없게 하고, 쓰더라도 혹 그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용렬한 의사의 약을 잡다하게 들이면 그 병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다행히 병자가 점점 훌륭한 의사를 믿게 되면, 훌륭한 의사가 이 병을 다스리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조석으로 병자와 함께 거처하면서 용렬한 의사가 그 말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혹시라도 어지럽히면 번번이 이치로 용렬한 의사를 꺾는다. 그러면 병자의 의지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약을 쓰는 데 힘을 다하면 효력을 나타낼 수 있으니, 이것이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다.

송(宋)나라의 진종(眞宗)은 구준[60]으로 재상을 삼았는데, 마침 거란이 거국적으로 쳐들어 와서 노략질을 하여 위급함을 알리는 보고가 하루 저녁에 다섯 번이 도착하였다. 이에 구준은 임금이 전연(澶淵) 지방에 행차할 것을 청했다.

아! 이것은 훌륭한 의사에게서 보았던 방법이다. 진종은 현명한 임금이어서 구준을 확고히 신임하였고, 구준은 문무(文武)의 지략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임금은 단연에서 군사를 보려 하였다. 용렬한 신하로서 주위에서 어지럽히는 사람이 반드시 많았다. 그러나 소인의 말은 귀신이나 물여우와 같아서 진종은 미혹되지 않지는 못했다.

전세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잠깐 동안에 달려 있는데, 장수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조정의 멀리에서 제어함을 받게 되면 천하의 존망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준은 임금이 친히 정벌할 것을 청한 것인데, 다행히 임금이 그 말을 들었다. 그러나 진요수(陳堯叟)[61]와 왕흠약(王欽若)[62]와 같은 재주가 없고 담이 약한 무리들을

60) 중국 북송 때 사람(961~1023). 송(宋) 하규(下邽) 사람으로 자는 평중(平仲)이고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춘추삼전(春秋三傳)에 통달하였다. 태종(太宗) 때에 진사(進士)가 되고 진종(眞宗) 때에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거란이 침입했을 때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하여 진종을 친정(親征)하게 하여 거란을 평정하였다. 후에 내국공(萊國公)에 봉해졌다.

61) 중국 북송 때 사람(961~1017). 성화(省華) 출신이다. 자는 당부(唐夫),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62) 중국 북송 때 사람(962~1025). 신유(新喩) 출생. 자는 정국(定國),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화의론(和議論)을 주장하여 구준과 대립했다.

전방에 배치하니 그들은 벌벌 떨며, 두려움에 사람들의 틈을 엿볼 사이도 없었다. 혹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준은 번번이 그것을 꺾어 버리니,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 맡은 일에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강력한 오랑캐의 사나운 기세를 꺾었으므로 오랑캐가 화의를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진종이 구중궁궐(九重宮闕)에 거하여 있고 저 여러 무리들이 눈으로 군사가 접전하는 것을 보지 않았으면, 두려워 떨 것도 없어 마음대로 사사로운 지혜를 부렸을 것이다. 임금이 점점 거기에 젖어들고 받아들이게 되어 할 수 없는 것이 없었다면 구준이 비록 승리할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것을 써서 그 공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오랑캐가 화의를 청하여 다급한 전세가 멈추었다. 이에 구준이"앞으로 군사(軍事)를 중요하게 취급하십시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이간질하였는데, 진종이 그 말에 현혹되어 결국은 구준의 뜻을 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하나의 증거이다.

아아! 험하고 위태롭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준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진종에게 친히 정벌할 것을 청할 수 없었을 것이고, 구준의 충성심이 아니었으면 감히 임금이 친히 정벌할 것을 청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이후로 여러 임금이 지나도 오랑캐로 인한 큰 환란은 없었으니, 이것은 구준의 힘이다. 어찌 그것을 나라를 치료하는 훌륭한 솜씨라고 하지 않겠는가?

論寇準請眞宗親征契丹

國之有危難 猶人之有疾病也 人方疾篤 死生惟藥於繫 而須醫之良焉 診脈已精 察證已確 處以必痊之方 而庸醫從傍言不可服 則病人惑焉 擾之者衆 而良藥不能試 試而或不能盡 乃庸醫之藥雜進 而其疾鮮不危矣 幸而病人 稍信良醫 則良醫之治是疾 有術焉 必朝夕病人與處 而不使庸醫 逞其說 一或擾之 輒以理折之 而病人之志 得不惑焉 於是用藥專 而能奏效 此良醫之救人也 宋眞宗以寇準爲相 而値契丹擧國來寇 警報一夕五至 而寇公請上幸澶淵 嗚呼 此其有見於良醫之術也 眞宗賢主也 固已信任寇公 而公兼文武之略 將視師於澶淵 庸下之臣 從傍擾之者必衆 而小人之言 如鬼如蜮 眞宗未必無惑 卽兵機之利鈍 繫於俄頃 而將帥在外 爲朝廷所遠制 則天下之存亡 有

不可知矣 是以寇公請上親征 上幸聽之 而陳堯叟王欽若輩 才劣膽小 置之戎馬之間 惴惴焉 恐畏不遑伺人之間 或有異言 公輒折之 而不敢復言 此所以專其任盡其能 摧强虜之鋒 而虜不得不請和也 若眞宗深居九重 且彼數輩 目不接兵刃之交 無所惴惴者 而騁其私智 浸潤膚受無所不極 則寇公雖有制勝之略 安所施之 而成厥功邪 及虜之請和 而鋒刃之急息焉 乃以公謂將取重於兵事 眞宗惑其說 而竟不能伸公之志 斯其一證也 噫嘻 險且危哉 余嘗謂非公之智 不能請親征 非公之忠 不敢請親征 自是後歷數朝而無夷狄之大患 寔寇公之力也 可不謂之醫國之良手乎

"백성이 편하다고만 하여도 좋은 벼슬아치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벼슬아치는 무엇을 다스리는가?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려면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천하의 사람은 모두 백성이다. 백성은 지극히 많고, 벼슬아치는 매우 적다. 매우 많은 자가 편안하지 않으면 지극히 적은 자는 반드시 위험하게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지 않으면 안되고,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은 드러나게 된다.

백성은 천하의 존망이 달린 기틀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스리면 다스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천하는 지극히 넓어 천하를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천하를 나누어주어 다스리게 하였으니, 이들을 바로 벼슬아치라고 한다. 백성은 지극히 많아 다스려 한결같이 편안하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백성을 다스리는데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많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백성은 굶주리고 싶어하지 않으니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고, 백성은 추위에 떨고 싶어하지 않으니 그들을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 백성은 힘들어하고 싶지 않으니 그들을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백성은 진실로 벼슬아치가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자 하면 아직은 먹지 않아도 장차 배부르게 될 줄을 안다. 백성은 벼슬아치가 그들을 추위에 떨지 않게 않고자 하면 아직은 입지 않아도 장차 따뜻하게 될 줄을 안다. 또 백성은 벼슬아치가 그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자 하면 아직은 쉬지 않아도 편안하게 될 줄을 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아무 일 없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난 후에야 그를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

아치라고 할 수 있다.

벼슬아치는 녹봉이 있다. 그 쌓인 녹봉은 백성이 생산한 것이다. 임금은 벼슬아치가 장차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도록 하기 위하여 녹봉을 준다. 백성은 임금이 관리에게 명하여 그들을 편안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의 생산물을 위에 바쳐 관리에게 주도록 한 것이다. 관리는 백성에게서 받아서 바로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다. 관리가 자신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난 이후에야 자신이 처신할 바를 깨달을 것이다. 처신할 바를 깨달으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위로는 임금이 그들에게 부여한 임무를 저버리지 않게 되고, 아래로는 백성이 그를 먹여 살리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되어 벼슬아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도리에 어두운 사람은 도리어 임금의 녹을 먹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백성은 어리석어 업신여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감히 누구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기의 위력을 마음내키는 대로 함부로 휘두르고 방자하게 구하고 절도가 없어 백성은 굶주리는데도 자기만 배부르고자 하며, 백성은 추위에 떠는데도 자기만 따뜻하고자 하며, 백성은 힘들어 허덕이는 데도 자신만 편안하고자 한다. 심지어는 백성이 도랑과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도 구휼(救恤)하지 않고, 자신의 녹봉만 그대로 받아먹고 자신의 임무는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아아! 어질지 못하구나.

능력이 있다고 불리는 관리는 자신의 재주와 꾀를 함부로 써서 가혹한 법으로 백성을 묶고, 법대로만 써서 얽어맨다. 그리하여 진실된 바탕을 가진 풍속이 무너져 야박하게 변하니, 그 효과는 잠시 나타나지만 병은 깊어지니 이 역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관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다스린다.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다스려야만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어,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은 물리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따르게 된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백성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겠는가?

자신의 입장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 자취를 드러내고 명예를 추구한다. 그러나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그 자취가 없어져도 실질에 힘쓴다.

옛날에 구양영숙(歐陽永叔 : 歐陽修)이 말하기를,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벼슬아치가 재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상관이 없으니, 단지 백성이 편하다고만 해도 훌륭한 관리이다."

라고 했다.

아아! 이것이 바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다스려 한결같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스리는 방법을 논할 때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但民稱便卽是良吏說

吏胡治哉 曰治民 治民將奚爲焉 曰安民 天下皆民也 民至多 吏甚少 至多者不安 則甚少者必危 愈多愈不可不安 愈少而愈見其危 民者 天下存亡之樞機也 是以治之 治之所以安之也 天下至廣 難乎其治也 乃分授而治之 是所謂吏也 民至多 難乎其治而一于安也 雖然無多術焉 惟衆民之所欲 是順而已 民不欲飢 無使飢之 民不欲寒 無使寒之 民不欲勞 無使勞之 民誠知吏之不欲使飢 則未食而如將飽也 知吏之不欲使寒 則未衣而如將煖也 知吏之不欲使勞 則未休而如將逸也 至是無事乎一 而自一焉 夫然後謂之治民之吏也 吏有廩 廩之所儲 民之所出也 上以其將安民 故與之廩 民以上之命吏 而使治安之 故貢其所出於上 以與于吏 吏受民直爲民役者也 吏能知身之爲民役而後 有所畏 有所畏而後 審所處 審所處 則能盡其所以安民 於是上不負上之所以與之 下不愧民之所以食之 而吏治成矣 昧者反是 食君之祿 若應有之 視民之蠢然而可侮 謂不敢誰何 肆其威力 恣求而無節 民方飢而求己之飽 民方寒而求己之煖 民方勞而求己之逸 甚焉至轉于溝壑 而不之恤 受乃直而敗乃役 嗚呼 不仁哉 其稱能者 騁其才智 酷法以縛之 任術以籠之 敗忠質之俗 化爲澆薄 效暫而病深 此亦非安民之吏也 故善爲治者 不以己治民 而以民治民 惟以民治民 而後民之所好惡 無不知之 去其所惡 而就其所好 向所謂民之所欲 是順者非邪 以己治民者 其跡顯徇名也 以民治民者 其跡泯務實也 昔歐陽永叔云 凡治人不問吏才能否 但民稱便卽是良吏 嗚呼 是能以民治民者也 是能治之而一于安者也 論治術無以加矣

"문학은 자신의 몸을 꾸미는데 그친다"는 말을 논함

구양영숙(歐陽修)이 말하기를 "문학(文學)은 자신의 몸을 꾸미는데 그치지만, 정사(政事)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다.

아아! 문학과 정사를 나눈 것은 공자의 문하에서 네 가지 교과(敎科)[63]를 열거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성인(聖人)의 말이 아니고 아마도 문인들이 그렇게 지목하였을 뿐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문왕(文王)이 돌아가셨으니 예악 문물[文]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가?"[64]라고 하였다. 대저 문왕이 예악 문물을 한 것은 성인으로서 한 것이다.

성인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데 공자는 스스로 이르기를 다만 예악문물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안연(顔淵)은 공자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문(文)으로 나를 넓혀 주신다."[65]고 하였는데, 공자는 안연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인정하였다. 공자 또한 일찍이 말하기를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는다."[66]고 하였으니, 성인이 이처럼 문(文)과 학(學)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문학이라고 말하면, 덕행과 정사와 언어가 모두 열거되는 것이다. 문(文)이란 것은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고, 학(學)이란 것은 이것을 배우는 것이다. 뒤에 깨닫는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에게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배움[學]이라고 하고, 배워서 찬란하게 문채를 이루는 것을 문(文)이라고 한다. 어찌 문학이 있다고 해서 천하의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겠는가?

자로(子路)가 완전한 사람(成人)에 대하여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장무중(臧武仲)[67]의 지혜와 공작(公綽)[68]이 욕심 없는 것과 변장자(卞莊子)[69]의 용

63) 『논어』「선진(先進)」에서 공자(孔子)의 제자들이 "덕행(德行)에는 안연(顔淵)·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중궁(仲弓)이요, 언어(言語)에는 재아(宰我)·자공(子貢)이요, 정사(政事)에는 염유(冉有)·계로(季路)요, 문학(文學)에는 자유(子游)·자하(子夏)였다."라고 하여 공자의 가르침을 네 교과로 말하고 있다.

64) 『논어』「자한(子罕)」에 나온다.

65) 『논어』「자한(子罕)」에 나온다.

66) 『논어』「술이(述而)」에 나온다.

67)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대부(大夫). 이름은 흘(紇)이다.

68)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대부(大夫) 맹공작(孟公綽)을 말한다. 청렴하고 고요하여 욕심이 적었다고 한다.

맹과 염구(冉求)[70]의 기예(技藝)에다가 예(禮)와 악(樂)으로 꾸미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71]

고 하셨다.

예와 악은 꾸미는 일인데, 공자가 예악을 일으키고자 하셨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여러 사람의 자질만으로는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문(文)이라, 문(文)이라" 한다고 해서 문이 성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이 성하다는 것은 오직 공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 학(學)이 문(文)에 이르러야 지극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이 쇠퇴하면 문사(文辭)가 기승하는데 문사를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이라는 이름은 마침내 천박해지게 된다. 구양공(歐陽公)은 공자의 말을 읽은 사람이지만 세속의 견해에 익숙해져서 역시 문학을 몸을 꾸미는데 그친다고 보고, 별도로 정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만물에 미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개 몸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 준 것으로 천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니, 자기가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 자신만 윤택하게 하고 만물이 그와 함께 윤택하게 되지 않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어찌 문학을 가리켜 문사(文辭)라 하고, 개인이 사사롭게 가지고 있는 것만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아아! 구양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명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그의 이 말이 나오고 나서 문학이 더 천해졌다. 이것은 세상의 도의에 관계된 것이므로 논하지 않을 수 없다.

文學止於潤身論

歐陽永叔云 文學止於潤身 政事可以及人 嗚呼 分文學政事 自孔門列四科始 雖然非聖人言 盖門人目之耳 孔子曰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夫文王之爲文以聖也 聖無所不能

---

69)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 변읍(卞邑)의 대부(大夫).
70) 공자(孔子)의 제자. 자는 자유(子有)이다.
71) 『논어』「헌문(憲問)」에 나온다.

而夫子之自謂惟文而已矣 顔淵亞於夫子者也 其言曰 夫子博我以文 而孔子許之以好學 夫子亦嘗曰 學而不厭 夫聖人之重文學如是 言文學 則德行政事言語 皆擧之矣 文者 文此者也 學者 學此者也 後覺 覺於先覺之謂學 學而燦然成章之謂文 夫豈有文學也 而天下事不與者乎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禮樂文之事 而聖人之所欲興也 特以數子之材 於成人尙有所不足 故曰文之文之者 非文之盛也 文之盛 惟夫子可以當之 學至於文其至矣 世衰而文辭勝 謂文辭爲文學 而文學之名 遂淺矣 歐陽公讀聖人言者 而狃於世俗之見 亦以文學爲止於潤身 別有政事 始可以及於物 夫身者 受天之所與 足任天下之事 而非己之所私有也 惡可獨潤 而物不與潤邪 惡可以文學 目之文辭 而認以爲止潤其私有者邪 嗚呼 歐陽公 古今所稱賢者也 斯言出 而文學其愈淺矣乎 此有關於世道不可以不論

"그가 옳지 않다고 한 것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논함

세상의 일은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이 있다. 옳고 옳지 않음은 이치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정하는 데는 방법이 있다. 자기를 버리고 사물을 대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공평하게 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학식이 진보된다. 마음이 넓어지면 어떤 일을 당해도 여유가 있고, 학식이 진보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환히 알게 된다. 그리하여 옳고 옳지 못한 것에 대처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옳고 옳지 못한 것을 가리는 것이 세심해진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세상의 옳고 옳지 못함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어떻게 그것을 밝힐 것인가? 내가 옳은 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옳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자가 옳지 않은 것이니, 내가 어찌 그것을 근심하겠는가? 내가 옳지 못한 것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자가 실로 옳은 것이니, 나는 오히려 스스로 그것을 반성해야지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나의 옳고 옳지 않음에 처하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옳고 내가 바로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 나는 다만 그 옳

은 것과 같지 않을까를 근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옳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면, 나는 다만 혹 그 옳지 않은 것과 같을까를 두려워해야 한다. 대개 다른 사람의 옳음과 옳지 않음에 대응하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가 옳다고 하지 않는데 나는 그것을 근심하지 않고 내가 과연 옳지 않은가를 반성하면, 이것은 이른바 대처하는 것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옳으면 나는 그와 같지 않을까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옳지 않으면 나는 그것과 같을까 두려워하면, 이것이 이른바 가리는 것이 세심하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은 확연하여 막힘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응하는 것은 평온하게 따른다는 것이다. 따른다는 것은 사리에 따르는 것이다. 오직 순리에 따르기 때문에 막힘이 없으니, 이것은 군자가 스스로 수양하는 것이다. 이것을 천하에 적용해 보면, 천하의 옳은 것은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고, 천하의 옳지 않은 것은 따르는 것이 없다. 천하의 옳은 것을 모아서 내 한 몸의 옳음과 같게 하면, 천하의 옳고 옳지 않음이 두루 정하여진다. 이것이 대인(大人)의 성대한 덕이다.

송(宋)나라 왕자명(王子明)[72]이 중서(中書)[73]에서 일을 보는 벼슬아치에게 말하기를 "이미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면 그가 옳지 않다고 한 것을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 때의 우연한 일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의 궁극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있다. 그리하여 내가 그 말한 바 뜻을 다 드러내고자 이와 같이 논한다.

不可學他不是論

天下事 有是有不是 是不是定乎理 而定之有道焉 捨己任物 志量廓矣 惟公毋私 學識進矣 志量廓 則所遇而裕 學識進 則所適而審 是以處是不是在乎裕 擇是不是在乎審 二者定 而天下之是不是 無所撓吾心者矣 何以明之 吾之所爲是歟 人不是之 此不是之者之不是也 吾何病焉 吾之所爲不是歟 人不是之 此不是之者固是也 吾猶自反之

72) 중국 북송 진종 때 사람(957~1017). 이름은 단(旦)이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벼슬은 태위(太尉)에 이르렀다.

73) 중서성(中書省)의 약칭.

不暇於彼也 何怨哉 盖處吾之是不是 宜如是也 人之所爲者是歟 吾卽是之 是之則吾惟不如其是者之憂焉 人之所爲者不是歟 吾將不是之 不是之 則吾惟或如其不是者之懼焉 盖應人之是不是 宜如是也 夫人之不吾是 而吾不病焉 吾果不是而將自反焉 非所謂所處之裕乎 人之是者 吾憂其不如 人之不是者 吾懼其或如之 非所謂所擇之審乎 以一身而言 所以自持者 廓然無滯 而所以應人者 夷然其順 順者順乎事理也 惟順故無滯 此君子之自修也 以之而之天下 天下之所是者 靡不由焉 天下之所不是者 無或蹈焉 集天下之是 而如吾一身之是焉 而天下之是不是大定 此大人之盛德也 宋王子明在中書謂吏人云 旣是不是 不可學他不是 是出於一時遇事所言 而言之至者 信乎有味也 余故極其所之而論之如此

"순수한 뜻으로 나랏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논함

대개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정사(政事)에 관한 일을 아뢸 때, 기질이 고상한 사람은 명분에 가까워지기가 쉽고, 기질이 비천한 사람은 이익에 가까워지기가 쉽다. 송(宋)나라의 재상 왕증(王曾)[74]이 말하기를 "순수한 뜻으로 나랏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아! 이것은 참으로 대신(大臣)의 말이니, 그는 천자(天子)를 도와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대개 정치는 실제로 시행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실속 없이 부풀리는 데서 허물어진다.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이루어지고 허물어지지 않는다. 순수하다는 것은 장황하고 번거롭지 않으며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그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한결같고, 장황하고 번거롭지 않으면 실속 없이 부풀리기만 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은 다스림에 이르는 요체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밭이 있다고 하면, 밭 갈 때가 되었으면 밭을 갈고, 씨 부릴 때가 되었으면 씨를 부리고, 김매고 거두어들일 때가 되었으면 김매고 거두어 들여야 추수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밭의 구획을 나누는 데서부터 터를 다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지시하여 알리고,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하며, 비옥함과 척

74) 중국 북송 때 사람(978~1038). 자는 효선(孝先),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중서시랑(中書侍郎),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등의 관직에 올랐다. 문장에 뛰어났고 기국공(沂國公)에 봉해졌다.

박함, 풍년과 흉년, 장마와 가뭄, 바람과 서리의 다름을 들어 세심하게 모두 조목조목 열거하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은 보고들은 것이 통달하고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살펴보면 실제로 밭 갈고, 씨뿌리고, 김 매고, 수확하는 것의 실제에는 도리어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여 쉬지 않고 힘써 일하여 때가 되면 거두는 사람이라야 많이 쌓아 두고 참으로 배부를 수가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식량을 충분하게 해주고,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75]라고 하였다.

대개 식량이 충분하면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면 사방의 오랑캐들이 복종할 것이며, 백성이 통치자를 믿으면 형벌과 법이 잘 처리될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의 대강(大綱)이다.

어떻게 해야 식량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군사력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백성이 통치자를 믿을 수 있는가? 백성을 부릴 때는 적당한 때에 맞추어 하고, 일을 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고,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다.[76] 씀씀이를 절약하면 나라는 부유해지고 백성은 저장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이며,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이 기꺼이 부려질 것이며, 백성을 부릴 때 적당한 때에 맞추어 하면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이 있게 하면, 그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백성들은 교화되고, 마음에 두고 있으면 신령스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하여 이룰 수 있는 상태이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의지가 있고, 신하가 나라를 경영할 계책이 있는데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므로 나라를 경영할 실질적인 계책이 있는 사람은 곧 나라를 다스리는데 급히 힘써, 먼저 큰 줄기를 세우면, 작은 일들은 이어서 행하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황하고 번거롭지 않으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황하고 번거롭지 않다는 것은 실속 없이 부풀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실속 있게 하고, 또 실속 있게 하여, 실속 없는 것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바램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명분을 좋아하는

---

75) 『논어』「안연(顔淵)」에 나온다.
76) 『논어』「학이(學而)」"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에서 나왔다.

자도 있고, 또 이익을 좋아하는 자도 있다. 명분을 좋아하는 자는 명성에 지나치게 힘을 쓰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이익에 지나치게 힘을 쓴다. 그 신하된 자가 나라를 경영할 실질적인 계책이 있더라도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실속 없이 장황하게 허세를 부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혹은 지나치게 명성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혹은 지나치게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임금의 마음이 한번 분에 넘치면 실시된 것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실시하는 것이 졸렬한 듯하여 그 사치스런 마음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아! 사치스런 마음을 없애 버린 사람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사람은 오직 순수한 뜻으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일 것이다.

要須純意於國事論

凡人爲國家疏陳政事 高者易近名 卑者易近利 宋相王曾論之云 要須純意於國事 嗚呼 此眞大臣之言也 可以佐天子出治矣 夫治成於實施 而壞於虛張 惟純而後 有成而無壞 純者不雜而不已也 不已則實施專 不雜則虛張息 非識夫致治之大要者 不能也 今有田於此 及耕而斯耕 及種而斯種 及芸穫而斯芸穫 斯可有秋矣 或乃不然 指證數衍 自畫井至築場 擧膏瘠豊歉澇旱風霜之異 纖悉條列 無所不及 其資見聞暢矣富矣 而顧無甚與於耕種耘穫之實也 卽勤而不休力作 而時收者 能多積而信飽也 治國何以異此 子貢問政 子曰 足食足兵信之矣 夫食足則民不飢 兵足則四夷服 民信之則刑法措矣 此實施之大綱也 何以足食 曰節用 何以足兵 曰愛人 何由而民信之 曰使民以時 曰敬事而信 夫節用則國富而民有儲 愛人則人樂爲用 使民以時則民不渝 敬事而信 則所過化而所存神矣 此實施之之大致也 君有治國之志 臣有經國之謨 而國不治者 未之有也 是以有經國之實謨者 就治國之務之急 先而立其大者 其小者可次第而擧之矣 是所謂不雜而不已也 不雜者 無虛張也 不已者 實而又實 無施而不實也 人君懷致治之願 而有好名者 亦有好利者 好名者 侈於名好利者 侈於利 爲其臣者 雖有經國之實謨 而章奏之間 虛張者少雜焉 則或侈其好名之心 或侈其好利之心 君心一侈 而實施者 未有不壞焉何者 實施似拙不足以當其侈心也 嗚呼 去侈心者 其惟純乎經國 而有實效者 其惟純意於國事者乎

세상과 더불어 변하여 옮겨간다는 것에 대해 논함

사물과 나는 서로 따르지만 사물은 사물 자체일 뿐 내가 아니다. 사물에 대해서 원활하게 융통하고 두루 통하여 일이 이르면 오직 그 마땅한 것으로 응하게 된다. 이것이 성인이 경(經)[77]을 세우고 권(權)[78]에 통달하는 도리이다.

세상에는 간혹 흥망성쇠가 있는데, 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어(古語)를 끌어다 실증하여 이르기를 "성인은 세상과 더불어 변하여 옮겨간다."라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류이다.

옛날에 굴원(屈原)은 충성을 하다가 추방을 당하였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분하고 가슴이 답답해도 풀 길이 없었다. 이에 문답하는 글을 지어 자신의 뜻을 드러냈다. 묻는 말에 이르기를 "성인은 사물에 막히거나 걸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변하여 옮겨간다."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대개 홀로 고상하게 행동한다는 집착이 없고자 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세상이 모두 흐리거든 어찌하여 진흙을 흙탕물 치고 물결을 날리지 아니하며, 중인(衆人)이 모두 취해 있거든 어찌하여 찌꺼기를 먹고 그 묽은 술을 마시지 않는가."[79]

라고 하였으니 격분함이 심하면 도리어 변하여 옮겨가는 까닭을 잃어버리게 된다.

저윽이 일찍이 그것을 논하기를,

"추(推)라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것이고, 이(移)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마치 저울대를 잡은 사람이 그 경중(輕重)을 따라서 옮겨가면서 그

77) 불변하는 상도(常道)를 가리키는 말.
78)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는 도리. 곧 시중지도(時中之道)라고 할 수 있다.
79) 굴원(屈原)의 『어부사(漁父辭)』에서 나왔다.

것을 평평하고 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그가 흙탕물을 치고 물결을 날리며 먹고 마시는 것이 어찌 평평하고 바르다고 하겠는가? 단지 응답하는 사람은 장차 맑고 깨끗하며 희고 결백한 것을 바르다고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할 때도 한번 격발시킴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고 드디어 이것을 변하여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니 어찌 오류가 아니겠는가?

또한 "세상과 더불어 추이한다(與世推移)"고 말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 추이할 수 있다(能與世推移)"고 말한 것은 그 속에 은미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단지 "세상과 더불어 추이한다"고 한다면 세상이라는 것은 중인(衆人)이 대부분인데, 한결같이 중인의 실정을 따른다면 이른바 추이(推移)는 가벼운 것은 더욱 가볍고 무거운 것은 더욱 무거워져 평평하고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말하기를 "세상과 더불어 추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속에 속지 않고 한결같이 도(道)를 따른 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 정미한 것을 탐구하면 진실로 성인이 아니면 능할 수 없는 것이다.

굴원은 비록 행위를 충성스럽게 했지만 어찌 반드시 성인(聖人)의 저울질하는 것에 모두 합치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의 문장은 천고에 뛰어났다. 때문에 비록 억양의 반복이 지극하더라도 글의 의미가 어그러지고 어둡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모난 것을 어그러뜨려서 원을 만들어서 구차하게 세상에 용납되기를 구하는 자의 경우였다면 어찌 성인에 견주어서 논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굴원이 아마 그것을 인용한 것 같다."라고 하였다.

與世推移論

物我相與 物其物不我 於物 圓融通暢 事至而應之惟其所宜 此聖人立經達權之道也 世或有浮沈取容者 援古語而實之曰 聖人與世推移 此大謬也 昔屈原以忠見放 憂國憤懣 繃中而莫泄 乃設爲問答之辭 以見其志 設問之言曰 聖人不凝滯於物 而能與世推移 其意蓋欲毋執乎獨以爲高擧也 繼之曰 世皆濁 何不淈泥揚波 衆皆醉 何不餔糟歠醨 則激之甚 反失其所以推移也 窃嘗論之 推者 從後而送之前也 移者 自此而徙乎彼也 猶執權衡者 隨其輕重而推移之 使之平而正也 彼淈揚餔歠 惡可謂平正哉 特以答

者 將以察察皓皓爲正 故 設問之時 未免有一激焉 遂以此謂之推移 豈不謬哉 且不曰與世推移 而曰能與世推移 其中有微意存焉 何者 只曰 與世云爾 則世者 衆人爲多 一徇衆人之情則所謂推移者 輕益輕重益重 非其所以爲平正也 其曰 能與世云爾者 言其不詭於俗 而一循夫道也 究其精微信乎非聖人不能也 屈子雖忠其所爲 豈必盡合聖人之權衡 而其文章妙千古 故雖抑揚反覆之極 而辭義不舛昧者 若以毁方爲圓 苟容於世者 當之則豈所擬論於聖人者邪 或曰 斯言也 於古有之 而屈子蓋引之

문예를 비교하는 설을 제생에게 보여줌

문예(文藝)를 비교하는 것은 본래 그 유래가 대개 희주(姬周)의 시대에서 시작된다. 『주례(周禮)』에 "3년 동안 크게 비교하여 조사한다."(三年大比而考)고 하였는데 비교하여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근원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사도(大司徒)[80]는 삼물(三物)[81]로써 만민을 가르치고 선비를 등용한다고 하며 그 세 번째를 육예(六藝)라고 말하였는데, 예(禮)와 서(書)는 문예의 근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에는 덕행을 중시했는데 후세에는 문사(文辭)로 흐르게 되었다. 이에 그 다른 점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도 장차 이상할 것이 없다.

나는 비교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자기로써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공(子貢)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82] 다른 하나는 남을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師)와 상(商)은 누가 더 어진가?"[83]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부자(夫子 : 孔子)께서 자공에게 말하기를 "자공은 나보다 어진가보다. 나는 그렇게 할 겨를이 없노라."[84]라고 하셨으니 진실로 이미 그를 책망한 것이다. 그리고 또

---

80) 중국 한대(漢代)에 교육을 맡은 벼슬.

81) 『주례(周禮)』「지관(知官)」 "以鄕三物敎萬民而賓興之 一曰六德知仁聖義忠和 二曰六行孝友睦婣任恤 三曰六藝禮樂射御書數."

82) 『논어』「헌문(憲問)」에서 "자공이 남을 비교하여 논평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공은 나보다 현명한가보다. 나는 저렇게 할 겨를이 없었도다"(子貢方人 子曰 賜也賢乎哉 夫我則不暇)라고 하였다.

83) 『논어』「선진(先進)」에 나온다. 사(師)는 자장(子張)의 이름이고, 상(商)은 자하(子夏)의 이름이다. 두 사람 모두 공자의 뛰어난 제자이다.

84) 『논어』「헌문(憲問)」에 나온다.

묻기를 "너와 안회는 누가 더 어진가?"[85]라고 하셨으니 또한 그로 하여금 비교토록 한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스스로 다스리면 내면이 전일(專一)하게 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 밖으로 치닫게 된다. 바야흐로 내면을 전일하게 하면 어느 겨를에 밖으로 치닫겠는가?

그러나 능한 것과 능하지 못한 것을 비교할 줄 모르면 자신의 의향 또한 점차 내려가게 될 것이다. 주공(周公)이 말하기를 "순(舜)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교의 방법이 아닌가? 지금 제생(諸生)들이 비교하는 것은 다만 문사(文辭)일 뿐이데 내가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본떠서 논하는 것이 비록 마치 질서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문(文)이 이 몸에 있지 않겠는가?"[86]라고 하였는데, 문(文)이란 도(道)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백이전(伯夷傳)」에서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사람이 참고할 서적이 매우 많지만 오직 육예(六藝)를 참고하여 믿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육예라는 것은 또한 육경(六經)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문예는 유독 문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제생들의 관심이 어찌 여기에 한정되는가? 또한 서당에서 조금 비교하고 장차 국빈(國賓)[87]에서 크게 비교해야 한다. 오늘날 과거제도는 허물어졌다. 나는 작은 비교에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기뻐하고, 크게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게 여긴다. 비록 그렇지만 나라에서 비교하여 일시적으로 능한 것과 능하지 못한 것을 정하는 것은, 서당에서 비교하여 천년 동안 정하기를 구하는 것과 같지 않다. 제생들은 무엇을 슬퍼하는가?

시험이란 잠시 동안 문사로써 세상에 명성이 나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사조(謝朓)[88]는 당시에 명성이 제종(諸從)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종영(鍾嶸)[89]은 중품(中品)의 위치에 잘못 놓았다. 마침내 이백(李白)이 적극

85) 『논어』「공야장(公冶長)」에 나온다.
86) 『논어』「자한(子罕)」에서 나왔다. 문(文)이란 문왕이 남긴 문화 또는 문물제도를 가리킨다.
87) 과거를 통해서 선발한 조사(朝士)이기 때문에 '국빈'이라 한 것임.
88) 중국 남조(南朝) 남제(南齊) 때 시인. 자는 현휘(玄暉)이며 오언시에 능했다고 한다. 선성(宣城)의 태수가 되었으므로 사선성(謝宣城)이라 불리었다. 『사선성집(謝宣城集)』 5권이 전한다.
89) 중국 양(梁)나라 때 시인. 영천(潁川) 사람으로 자는 중위(仲偉)이다. 벼슬은 제나라의 남강왕 국시랑(南康王國侍郞)에 이르렀다. 『주역』에 정통하였으며, 『시품(詩品)』 3권을 저술하여 한위(漢魏) 이래 시인 102인의 우열을 논하고 상·중·하 3품으로 나누었다.

그를 추장하여 드디어 후세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두보와 이백은 비록 명성이 비슷했지만 이백은 명성이 천하를 진동시켰고, 두보는 다만 형촉(荊蜀)의 사이에만 명성이 나고 말았다. 원진(元稹)[90]에 이르러서 두보를 이백보다 높였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보를 으뜸으로 삼는다. 대저 이와 같이 일시의 명성도 아직도 확정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진실로 제생들이 크고 먼 곳에 뜻을 둔다면 오직 능한 것에 이르고 능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기를 기약할 뿐이다. 또한 제생들이 나에게서 정하는 방법을 구하는데, 나는 반드시 정하는데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두렵다. 그러나 내가 정하는 것으로 인하여 미루어 나가면 잘못 정하지 않는 사람도 또한 있을 것이다.

제생들은 힘을 쓸지어다. 먼저 내면을 전일하게 하고 밖으로 치닫지 말아라. 내 말을 질서 없는 데로 귀납시키지 않는다면 나도 다행이며, 제생들은 더욱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므로 힘을 쓸지어다.

較文藝說示諸生

較文藝原其所自 蓋始於姬周之時 周禮三年大比而考焉 比考不曰較之原乎 大司徒以三物 賓興之而其三曰六藝 禮興書不曰文藝之原乎 古者 重德行而後世流於文辭 玆其不同而其爲較 將無異焉 余謂較之之術有二 一以已較人也 如子貢方人是已 一以人而較人也 如師與商也 孰賢是已 夫子於子貢則曰 賜也 賢乎哉 夫我則不暇 固已責之而其問以汝與回也 孰愈 則又使之較焉 何者 自治則內專 方人則外馳 方專乎內 何暇于外哉 然而不知較其能否 則志趣亦漸以下 周公曰 舜何人也 余何人也 此非較之之道乎 今諸生所較 特文辭也 而余援是而擬論之 雖若不倫 而語曰 文不在玆乎 文者道之外著也 伯夷傳曰 學者載籍極博 猶考信於六藝 六藝者 又六經也 然則文藝不獨文辭已也 諸生顧何畫乎是哉 且小較於塾 將以大較於國賓也 今科制廢矣 余嘉其孜孜於小較 而悶夫無所於大較也 雖然 較於國 定能否於一時 未若較於塾 而求定於千載矣 諸生何戚焉 試姑以文辭之聞於世者 證之 昔謝朓在當時名聲不及其諸從 故鍾嶸屈

90)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하남(河南) 사람으로 자는 미지(微之)이다. 시에 능하여 백거이(白居易)와 나란히 원백(元白)이라 칭하여졌으며, 그의 시체(詩體)는 원화체(元和體)라 부른다.

置于中品 乃李白極推之 遂振於後世 杜甫與李白 雖齊名而白則聲動天下 甫特聞於荊蜀間 至元稹卽右杜於李 至于今 尙論者 多宗杜氏 夫如是 一時名聲 尙未足定 況科第乎哉 苟諸生志乎大且遠者 惟期至於能去其否者而已矣 抑諸生求定乎余 而余不能必其無誤定可惧也 然而因余之定而進焉 不誤定者 亦自有人矣 諸生勉乎哉 先專乎內毋趍于下 使余言不歸之不倫則 余幸矣 而諸生尤幸矣 勉乎哉

"기는 물이다"라는 설

창려(昌黎) 한자(韓子 : 韓愈)가 이르기를 "기(氣)는 물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좋은 비유이다. 무릇 천지 내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물들은 기(氣)가 아닌 것이 없고 물에 의뢰하지 않는 것이 없다. 겉으로 드러나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초목의 번성함이 이것이다. 금석(金石)이 물에 의뢰하는 것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달구면 물처럼 흐르게 된다. 물이 그 진액을 만들기 때문이다.

불은 물과 더불어 상반된 것이지만 역시 물에 의지한다. 왜 그러한가? 불이 풀섶에는 옮겨갈 수 있지만 잿더미에는 옮겨가지 않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해지는 것은 재가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가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마르면 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아아! 이것이 이치로다. 나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좋은 비유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한유는 단지 물을 빌려서 문장을 비유한 것이지 이치를 말한 것은 아니다. 문장이 지극하면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는 말하기를 "물이 크면 사물이 뜨는데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뜬다."고 하였다.

기가 왕성하면 언어의 장단(長短)이나 소리의 고하(高下)가 모두 마땅하게 된다. 대개 사물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다. 오직 쇠붙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도 반드시 가라앉는데 이 또한 마치 상반되는 것 같다. 쇠붙이가 물에 잠겨 있더라도 빛은 위로 나타나게 된다. 가라앉는 것은 거친 것이고, 정밀한 것은 일찍이 뜨지 않은 것이 없다.

문장도 또한 이러한 점이 있다. 이른바 언어와 소리가 모두 마땅한 것은 문장으로 드러나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언어가 지극히 정밀한 것은 문장으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쇠붙이를 뜨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밀한 것은 곧 거친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쇠붙이가 물에 잠겨 있으면서 빛이 위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

한유는 비록 상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이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물의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뜬다"고 말하지 않고, "뜨는 사물은 크고 작은 것이 모두 뜬다"고 하였던 것이다. 아아! 그렇지 않겠는가? 나는 그러므로 "문장이 지극하면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물이란 하나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직 천지 안에 있는 사물이 살기 위해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다. 즉, 천지는 물이 아니면 움직이고 변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를 비유함에 물을 빌려 온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기(氣)라는 것은 하나에서 시작되어 하나에서 끝난다. 하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道)일 뿐이다. 한가지에 통달할 수 있으면 성인(聖人)의 능사도 마칠 수 있는데 하물며 문장에 대해서랴! 그러므로 문장을 잘 말하는 사람은 또한 오직 도에서 시작하고 끝맺을 뿐이다.

한유보다 앞서 기를 말한 사람은 맹자보다 상세한 사람이 없지만 맹자는 일찍이 물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맹자는 다만 양기(養氣)에 대해서 말을 했을 뿐이다. 한유는 곧 기를 빌려서 문장을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맹자가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91]고 말했는데 호연은 물을 형상한 것이다. 맹자는 기를 키웠는데 문장이 저절로 커졌으며, 한자는 문장을 배워서 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저 기를 말하면서 도로써 하지 않으면 사(辭)라는 것은 문장의 지극한 것이 될 수 없다.

氣水說

昌黎韓子云 氣水也 此善喩也 凡天地之內 有生之物 莫非氣也 而莫不資水焉 顯而易知者 草木之滋榮是也 金石之資水 不可見 然煉之則流焉 水爲之液也 火與水相反者 而亦資於水 何者 火能傳薪而不傳乎灰 其猶傳焉者 灰之有氣者也 有氣則有水 水涸則氣不存焉 嗚呼 其理也 夫余故曰 善喩也 雖然 韓子特借水以喩文非言理也 而文之至者 理

91)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보인다.

自到焉 其言曰 水大而物之浮者 大小畢浮 氣盛則言之短長與聲之高下皆宜 夫物之浮之可見者 人自知之 惟金非甚重者 必沈焉 此亦若相反者 而金藏於水 光現於上 沈者其粗而精者未嘗不浮也 文亦有是焉 向所謂言與聲皆宜者 文之顯而可知者也 言之至精者 非文之所能形 是猶水之不能浮金也 然而精乃由粗而見焉 是猶金藏於水 而光現於上也 韓子雖不詳言 而意已及此 故不曰物之大小畢浮 而曰物之浮者大小畢浮 嗚呼 不其然乎 余故曰 文之至者 理自到焉 抑有說焉 水者 生乎一者也 不惟天地之內之物之資以生也 卽天地非水 無以運化焉 是以 喩氣 莫善於借水 氣者 始於一而終於一 一者何 道而已矣 能達乎一 聖人之能事畢焉 況於文乎 故善言文者 亦惟于道始終焉已矣 先韓子而言氣 莫詳於孟子 而孟子未嘗及水焉 蓋孟子直言養氣 而韓子則借氣而言文 故 設喩焉 然孟子曰 我善養吾浩然之氣 浩然者 水之象也 孟子養氣 而文章自大 韓子學文章 而能知是氣之爲大也 夫言文而不

以道 辭者 非文之至者也

공손홍(公孫弘)에 대하여 논함

한무제(漢武帝)가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면서 사이(四夷)[92]를 정복했지만 천하는 혼란에 이르지 않았다. 대개 그의 탁월한 재능은 하고자 하는 바에 힘쓸 수 있게 하고, 그의 사람을 부리는 능력은 또한 장차 힘쓰고자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때를 당해서 공손홍[93]이 실로 승상이 되었으니 그가 진실로 재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마주대하고 과실을 힐책하거나 조정에서 임금의 잘못을 간언하는 것은 급암(汲黯)[94]에 미치지 못하였고, 사람으로서의 바른 도리나 도(道)를 밝히는 것은 동중서(董仲舒)[95]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공손홍에 대해서 논하는

92) 사방에 있는 오랑캐. 곧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을 말한다. 또는 구이(九夷)·팔적(八狄)·칠융(七戎)·육만(六蠻)으로도 칭하며, 전(轉)하여 야만인의 총칭이다.

93) 중국 전한 때의 재상. 산동 치천(菑川) 사람으로 자(字)는 계(季)이다. 무제 때 60세에 처음으로 박사가 되었는데, 법률·행정에 밝고 그 운용에 있어 유교적 방책을 사용하였으며, 성품이 겸허하였기 때문에 무제의 신임을 얻어 누진(累進)하여 벼슬이 승상에 이르렀으며, 평진후(平津侯)에 봉후(封侯)되었다. 승상으로서 봉후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94) 중국 전한 때의 간신(諫臣). 자는 장유(長孺)이며 복양(濮陽) 사람이다. 경제(景帝) 때에 태자세마(太子洗馬)가 되고 무제 때에 동해(東海)의 태수를 거쳐 구경(九卿)의 반열에 올랐다. 성정(性情)이 심히 엄격하여 직간을 잘하여 무제로부터 옛날의 사직의 신하에 가깝다는 평을 들었다.

95) 중국 전한 무제 때의 학자. 처음에는 강도(江都)의 정승이 되었다. 공손홍(公孫弘)의 미움을 받

사람들이 아첨해서 변하지 않는 총애를 받았다는 점만을 주목한다면 공손홍에 대한 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시험삼아 본전(本傳)에 나아가 살펴보자. 공손홍은 아버지의 후처를 효로써 섬겨 돌아가신 뒤에도 3년의 복을 입었다. 재상의 자리에 앉았을 때는 몸소 검소하게 하여 봉록을 빈객(賓客)에게 주었으며, 동쪽 협문(夾門)을 열어 어진 사람을 맞이했다.

공손홍은 이르기를 "스스로 다스릴 줄을 안 뒤에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공손홍은 과연 허언(虛言)을 한 사람은 아니었다. 무제가 일찍이 공손홍에게 물었다.

"그대의 재능은 스스로 보기에 어떤 점이 주공(周公)의 현명함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

공손홍이 대답하였다.

"저는 재주가 비천하고 엷은 사람인데 어찌 감히 주공에게 재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환하여 치도(治道)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저 황제께서 영명(英明)하시기에 제가 과연 재능이 없어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 어찌 감히 이와 같이 자임하겠습니까?"

공손홍이 일찍이 박사(博士)가 되어 흉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임금께서 노하여 능력이 없는 자라고 여긴 것은 임금의 뜻에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약 공손홍이 재상의 자리에 있은 지 수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임금의 뜻에 합치되지 못하였다면 임금께서는 화를 내는 것이 흉노에 사신으로 갔을 때와 같지 않았겠는가?

또한 공손홍이 일찍이 서남이(西南夷)를 정복해도 쓸모가 없다고 말하자 임금께서 듣지 않았다. 그리고 임금께서는 또한 동쪽으로 창해(蒼海)[96]를 설치하고 북쪽으로 삭방(朔方)[97]을 두었다. 공손홍은 또한 수 차례 중국을 피폐하게 한다고 간언하였다.

아 교서왕(膠西王)의 정승으로 내리 옮고, 후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저술에 힘쓰다가 생을 마쳤다. 춘추(春秋)의 학에 밝히 알고 『춘추번로(春秋繁露)』를 지었다. 무제에게 상주하여 유교를 국교로 정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고 삼강(三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96) 중국 한나라 때 설치한 군명(郡名).

한무제는 이에 주매신(朱買臣)[98]으로 하여금 10책(策)을 내게 하여 공손홍을 곤란하게 하였다. 공손홍은 무제가 마침내 듣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자신도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임금의 뜻에 따랐다. 그런데 서남이와 창해는 없애고 오로지 삭방만을 설치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공손홍의 뜻은 그래도 피폐한 것 중에 한 두 가지라도 구제하여,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르지 않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 즉, 무제가 사방의 오랑캐를 정벌하여 하고자 하는 것을 굳게 하는데도, 천하가 어지럽지 않게 된 것은 어찌 공손홍이 가진 재주의 힘이 아님을 알겠는가?

대저 사람이 타고난 성품은 서로 다르다. 공손홍과 같은 사람은 재능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하고 굳센 것에는 부족한 자이다. 무제의 뛰어난 재주로 문제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휴양의 통치를 계승할 수 있었다면 공손홍의 윤식(潤飾)[99]과 경술(經術)이 어찌 평발(平勃)[100]과 같은데 그칠 뿐이겠는가? 그러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오히려 그것을 논하는 자들은 장점이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니 나는 이에 공손홍이 부여받은 바의 단점을 슬퍼하고 그의 장점을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애석해 하노라. 또한 세상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없어서, 공손홍과 같은 처지로 돌아감을 면할 수 없어 드디어 자신이 부여받은 장점을 가려버리게 될 것을 경계하노라.

公孫弘論

漢武竭民力以征四夷 而天下不至於亂 蓋其英才足以辦所欲爲 而其用人亦能當所將辦矣 當是時 公孫弘實爲丞相 其誠有材能 可以知矣 特以面折廷諍不如汲黯 正誼明道不及董仲舒 故 論者以阿諛固寵目之 則失弘之情矣 試就本傳而觀之 弘事後母孝 卒

97) 중국 한나라 때 설치한 군명(郡名). 한무제 때 흉노를 몰아내고 하남(河南)의 땅을 취하여 설치한 것이다.

98) 중국 전한(前漢) 때 사람. 자는 옹자(翁子)이다. 집은 가난하였으나 글읽기를 좋아하여 가산을 다스리지 않고 평소에 땔나무를 해 팔아서 끼니를 잇곤 했다. 무제 때에 엄조(嚴助)의 추천을 받아서 회계(會稽)의 태수가 되었으며, 승상장사(丞相長史)에 이르렀다.

99) 윤색(潤色)과 같은 말로 윤을 내어 꾸밈, 매만져 곱게 함이라는 뜻이다.

100) 진평(陳平)과 주발(周勃)을 가리키는 말. 모두 한고조의 신하이다. 진평은 고조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혜제 때 좌승상(左丞相)이 되었으며, 여공(呂公)이 죽은 후 주발과 함께 여씨 일가를 죽이고 한실(漢室)을 편안하게 하였다.

而服喪三年 居相位 而躬儉奉祿以給賓客 開東閤以迎賢人 弘之言曰 知所以自治 然後知所以治人 弘果非虛言者也 帝嘗問弘 材能自視孰如周公賢 弘對曰 愚臣淺薄 安敢比材於周公 雖然 愚心曉然 見治道之可以然也 夫以帝之英明 而弘果無材能足以制治 則安敢自任如是哉 弘曾以博士使匈奴 上怒以爲不能者 不合帝意也 使其居相位屢年 而果不合帝意 則上不之怒 如使匈奴時邪 且弘嘗言通西南夷無所用 而上不聽 及上又東置蒼海北樂朔方 弘亦數諫以爲罷弊中國 上乃使朱買臣發十策以難弘 弘知帝之終不聽 故自處以不知其便 以順上意而願罷西南夷與蒼海專奉朔方 是其意尙救一二於罷弊之中 不至勞極民力也 然則 武帝之征伐四夷 逞所欲爲 而天下不亂 安知非弘之材之力邪 夫人之資性所稟不同 若弘者 長於材而不足於剛毅者也 以武帝之英才 復能如文帝之愛民 克纘休養之治 則弘之潤飾經術 豈止如平勃已哉 然而按史而尙論之 其長不足以補其所不足 余於是 悲弘之所稟之短 而惜其長之不白於世 亦以戒夫世之有材器 而不能自立 未免與弘同歸 而遂掩其所稟之長也

상앙에 대해 논함

예나 지금이나 상앙(商鞅)에 대해 논하는 자들은 그의 법은 너무 각박하여 당시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그 해독이 온 천하 후세에까지 흘렀다고 말한다. 나는 그 법이 독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마음이 독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상앙의 법은 대개 천맥(阡陌)을 개척하고, 다섯 집이나 열 집씩 통반을 만들어 연결하고[101], 농사일에 힘쓰게 하고 말단적인 이익을 억제하며, 공적인 전쟁을 숭상하고 사적인 싸움을 금지하는 그런 것뿐이다.

상고시대에는 사람이 적고 땅이 넓었기 때문에 천맥을 제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빈땅을 개척하자 백성들은 식량이 풍족하게 되었다. 사람이 많게 되는데 이르자 먹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고, 그 형세상 땅이 적은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상앙이 개척하지 않았더라도 밭을 개간하는 것은 반드시 천맥에 미쳤을 것이다.

101) 상앙은 십오지제(什伍之制)를 실시하여 다서 집 혹은 열 집씩을 단위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연좌제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법에 어긋나는 일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허리를 베는 형벌에 처하고, 신고한 자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동일한 상을 주고,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동일한 죄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중고(中古) 시대부터 토지 제도를 말하는 사람은 모두 정전제(井田制)[102]를 선왕(先王)의 법으로 삼았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그것을 회복하지 못했으니 이것을 가지고 상앙을 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앙은 진(秦)나라의 천맥을 개척한 것이지 천하를 모두 겸하여 개척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천하의 천맥을 모두 개척하는 것은 하나의 세(勢)이다.

근본을 힘쓰고 말단을 억제하는 것은 비록 군자가 다스리더라도 마땅히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의심할 것도 없는 것이다. 공적인 전쟁을 숭상하고 사적인 싸움을 금지하는 것은 전국시대에 시무(時務)를 살핀 것이니 진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또한 상앙을 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다섯 집이나 열 집씩 통반을 만들어 연결하고 연좌제를 단행하여 무거운 법률을 적용하였으니 참혹하다고 여길 뿐이다. 그러나 참혹한 것은 처자에게 미치는 것이지 다섯 집이나 열 집씩 통반을 만들어 연결하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섯 집이나 열 집씩 통반을 만들어 연결하는 제도가 정해지면 질병이나 고통을 서로 구휼할 수 있으며 간악한 사람들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대개 이와 같은 몇 가지 조목들은 실행하는 데 차례가 있어 효과를 빠르게 보려고 하지 않으면 백성을 이롭게 할 수 있으니 어찌 풍속을 무너뜨리고 후세에 재앙을 미치겠는가?

그러나 상앙은 천성이 매우 표독하여 반드시 공을 세우려고 하였을 뿐 백성을 구휼하지 않았다. 세 길이나 되는 나무에 명을 붙이고[103] 아침저녁으로 감시하며[104], 형벌은 귀천을 구분하지 않았다.[105] 일국의 백성을 핍박하여 오직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여 감히 휴식하지 못하게 했다. 비록 그 효과가 그림자나 소리보다 빠르지만 풍속은 이미 무너지고 독은 이미 흘렀다.

---

102) 정전(井田)이란 전지의 사방 1리를 일컫는다. 은(殷)·주(周) 시대의 전제(田制)로서 구백묘(九百畝)의 전지를 정자(井字) 모양으로 구등분하여 주위를 여덟 집에 나누어 경작하게 하고, 중앙을 공전(公田)으로 하여 여덟 집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을 국가에 바쳤다.

103) 상앙은 법령을 제정하고 백성들이 신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높이가 세 발 되는 나무를 성문 남쪽에 세우고 글을 써서 알리기를 "이 나무를 북문에다 옮겨 놓은 자에게는 10금을 준다"고 하였다. 그 이후 백성들이 법령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령이 공포된 후 1년 동안에 법령이 불편하다고 신고한 자가 수 천명이 되었다.

104) 민가는 다섯 집이나 열 집씩 통반을 만들어 서로 감시하게 하여 연좌의 책임을 지게 하고, 법에 틀린 일을 신고하지 않으면 허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하고, 신고한 자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었다.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동일한 죄로 다스렸다.

105) 태자가 법을 어기자 상앙은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부터 법을 범하기 때문이다"하고 태자의 스승을 형벌에 처하였다.

옛날에 동방에서는 모두 말을 몰았는데, 말의 힘이 다해도 오히려 채찍질을 그치지 않았다. 빨리 달리지 않을 수 없기에 말은 힘이 빠지게 된다. 대개 상앙이 효과를 요구하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이것은 상앙의 죄가 마음의 표독함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면 비록 상앙의 법일지라도 사물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은택을 널리까지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질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게 한다면 비록 선왕의 법을 말미암을지라도 풍속을 무너뜨리고 천하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송(宋) 나라의 왕개보(王介甫 : 王安石)는 성인의 글을 읽고 반드시 준칙에 맞게 하려고 하였으나 신법(新法)[106]으로 천하를 무너뜨렸다. 비록 마음이 표독하다고 할 수 없지만 공을 세우려는 계책이 반드시 백성의 실상을 구휼하지 않은 것은 곧 상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명도(明道 : 程顥) 선생은 그 신법을 그릇되다고 여기지 않았으나, 인심(人心)을 따르지 않은 것은 행해질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런즉 선정(善政)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있을 뿐이다.

대개 경장(更張)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백성의 힘을 넉넉하게 하고, 세월을 헤아리며, 백성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나의 신정(新政)을 알게 한다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히려 차례대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어찌 희롱하고 핍박하며 말을 몰 듯이 달리는데도 백성들이 병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을 다스리되 민심을 내 마음으로 삼지 않고 일시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자는 상앙의 독(毒)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商鞅論

古今論商鞅者 謂其法刻薄敗當時之俗 而毒流於天下後世 余謂非其法之能毒 特其心毒耳 何以言之 鞅之法 大率開阡陌 連什伍 務本業 抑末利 尙公戰 禁私鬪是已 上古人稀而地廣 故 制阡陌不足 以曠土功 而民裕於食及至人蕃 而食者衆 則其勢不得不

106) 중국 북송 때 왕안석이 제창한 정치·재정·사회·병제(兵制) 각 방면의 새로운 법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청묘법(靑苗法)·균수법(均輸法)·보갑법(保甲法) 등이 있다.

病於地少 雖鞅之不開 而墾耕必及於阡陌 是以 自中古言田制 皆以井田爲先王法 而至于今 未之復焉 此不獨罪鞅也 且鞅開秦之阡陌 非幷天下而開之 然而天下之阡陌盡開者 勢也 務本抑末 雖君子之治 當行而無疑者也 尙公戰禁私鬪 則處戰國而察時務固不容不然 此亦不可以罪鞅也 惟連什伍而收坐斷 以重律爲慘刻耳 然慘在收孥而不在什伍 什伍定則疾苦可以相恤 而奸人無所容矣 凡此數者 行之有序 不責效於速 則可以利民 豈至於敗俗 而禍後世哉 但鞅之天心大毒 取必於立功 而不恤民 命以三丈之木 督信於朝暮 而刑不分貴賤 迫一國之民 惟其所欲爲而不敢休息 雖其效疾於影響而俗已敗 毒已流矣 昔東方畢御馬 馬力盡矣 而猶鞭之不已 非不疾馳 而馬則窮矣 夫鞅之責效 何以異此 此鞅之罪在於心毒也 使仁者爲之 雖鞅之法 可以利物而流澤矣 使不仁者爲之 雖由先王之法 吾知其敗俗而病天下矣 宋王介甫讀聖人書 動必準則而以新法敗天下 雖不可謂心毒矣 而其計功取必不恤民情 則與鞅同 故 明道先生 不以其法爲非 而以不順人心爲不可行 然則 善政不在乎法 惟其心而已矣 夫欲更張新化者 先裕民力摩以歲月 使民昭然知吾之新政 必不害民 然後 猶且次第擧之矣 豈有戮迫馳驟而民不被病者邪 治民而不以民心爲心 責效於一時者 踵鞅之毒者也

채택(蔡澤)을 논함

위(魏) 나라의 초야에 살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일찍이 살이 찌지 않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였지만 마음 속으로는 언제나 좋은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부유함은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노력을 쌓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로다."라고 하였다.

이에 총명함을 운용하고 몸을 움직여 남의 노역을 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부유함을 얻게 되자 좋은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몸이 비대해졌다. 비대함이 오래 되자 온 몸이 몹시 결리고, 결림이 심해지자 생명이 장차 그것을 따르는 것 같아 이에 깨달아 말하기를 "질병은 비대함에 있는 것이고, 비대함은 좋은 음식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연(燕) 나라 사람 중에 마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묻게 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어찌하여 그리 심하게 말랐는가? 아마 병이 있는 것이겠지?"라고 하자, 마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아침저녁으로 명아주 잎과 콩잎을 먹습니다. 명아주 잎과 콩잎을 먹으면 위(胃)를 거쳐 장(腸)에 이르는 것이 마치 물이 아주 순조롭게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병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말하기를,

"당신은 좋은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말하기를,

"나는 좋은 음식 먹는 것을 장차 명아주 잎과 콩잎처럼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살찐 사람은 자신이 가진 좋은 음식을 명아주 잎과 콩잎과 바꿨다. 한 달이 지나자 결림이 없어지고 갑자기 나아버렸다.

석정산인이 말한다. 나는 범저전(范雎傳)을 읽다가 채택(蔡澤)이 웅변으로 유세하는 것[107]과 범저가 재상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마치 손으로 물건을 교환하듯이 했으며, 채택은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가지 책략에 통달하거나 한가지 공을 세움도 없는 데에 이르렀다.

아아! 채택은 바로 그 연나라의 마른 사람이었던가? 범저는 살찐 사람이 바야흐로 몹시 결려했던 것인가? 살찐 사람은 대개 일찍이 총명함을 다하고 몸을 수고롭게 해서 남의 일을 하는데 마른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도 좋은 음식을 얻었으니 그것은 요행이었던가? 아, 그 의미를 알겠도다.

범저는 지모 있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양후(穰侯)의 인장을 빼앗고 이미 네 귀한 사람들[108]을 함곡관 밖으로 쫓아버린 것이 마치 썩은 것을 정리하는 것과 같았다. 대개 그 능력을 믿고 남을 제압하여 당시의 임금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공을 이룸에 이르러서는 의지가 충만하게 되어 남은 지혜가 더욱 넓어져서, 장차 사람을 등용하여 자신을 대신하게 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끝맺음을 보존

107) 『사기(史記)』「범저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 참조.

108) 양후(穰侯)·고릉군(高陵君)·화양군(華陽君)·경양군(涇陽君)을 가리킴. 소왕은 범저의 말을 듣고 태후를 폐위하고 이들을 함곡관(函谷關) 밖으로 내쫓았다. 『사기』「범저채택열전」에 보인다.

하고자 했다.

이 때에 채택이 진(秦) 나라에 입국했다. 채택은 범저에게 유세한 것이 아니라 곧 범저가 그로 하여금 유세를 하게 하여 그를 등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채택은 이른바 천하의 뛰어난 웅변의 지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른바 삼왕(三王)의 일과 오패(五伯)[109]의 위업을 밝히는 사람이었다. 범저를 대신하고는 어째서 적막하여 소문이 나지 않았는가?

비유하자면 마치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바둑돌을 분분하게 옮겨 가득 차 이미 형태가 갖추어지면 하나의 바둑돌을 기다려 대국이 종료된다.

아아! 채택은 오직 범저의 손아귀에 있는 하나의 바둑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論蔡澤

魏之野有肥人焉 其始未嘗肥也 家甚貧而心悅梁肉之食焉 曰 非富不可得而非積勤勞不可得乎 於是運聰明動筋骸爲人役 日夜不休 而得富焉 則飫梁肉矣 不數年而體肥 肥久則苦痞 痞甚而命將隨之乃悟曰 病在肥 而肥由梁肉乎 聞燕人有瘠者 使人要而問曰 子何瘠之甚也 殆有病乎 瘠者曰 吾朝夕食藜藿 藜藿下咽歷胃而至腸 如水之建瓴也 何病之足有 曰 子有意梁肉乎 曰 吾食梁肉將如藜藿食也 於是 肥人以梁肉 易其藜藿 逾月而痞去 而藿然而愈 石亭山人 曰 余讀范雎傳至蔡澤以雄辯說 雎讓相位 若手交物焉 及澤居相位 未有達一策著一功者 噫 此其燕之瘠者歟 彼適丁肥人之方苦痞歟 肥人蓋嘗竭聰明 苦筋骸而役人 役者也 乃瘠者不勞而得梁肉 彼其徹倖者歟 噫 知之矣 范雎智謀人也 之人也 奪穰侯印旣而斥四貴出關外 如振朽然 蓋恃其能有足以制人而得之 時君也 及功成志滿而餘智尙恢 恢將擧人代已以保其令終 而乃是時澤入秦非澤之能說雎也 卽雎之使之說而爲已用也 不然 澤所謂天下洪俊雄辯智士也 所謂明三王之事 五伯之業者也 代雎則何寥寥無聞也 譬如奕焉 落子紛紛輸贏已形 而待一子而結局 噫 澤者 其雎手中之一奕子乎

109) 춘추시대의 제후의 맹주 다섯 사람을 말한다. 오패(五霸)와 같은 말이다. 곧 제환공(齊桓公)·진문공(晉文公)·진목공(秦穆公)·송양공(宋襄公)·초장왕(楚莊王)이다.

노중련을 논함

세속에서 뛰어난 뜻을 품은 사람은 중인(衆人)들 속에서 악착하지 않고,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재주를 품은 사람은 일을 하는 이외에 적막하지 않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상반되어 겸하기가 어렵다.

전국시대를 당해서 사람들은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장점을 분발시켜 세상에 참여했다. 예를 들면 오기(吳起)[110]와 손빈(孫臏)은 용병술로, 신불해(申不害)와 상앙(商鞅)은 형명(形名)을 다스리는 술법으로, 장의(張儀)와 소진(蘇秦)은 합종연횡의 설로 천하를 편력했는데 그 재능을 굳건하게 하여 한 때에 밝게 빛나지 않음이 없었으며 또한 공적과 명예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얽매였기 때문에 진퇴(進退)에 유연하고 자유롭지 못했으며, 심한 경우는 자기 몸이 욕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태연히 은거하면서 권세와 이익에 따라 옮겨가지 않은 단간목(段干木)[111]과 같은 사람이 돌아보건대 어찌 일찍이 없었겠는가마는 오직 그것만이 영원히 가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사람이 있더라도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 대개 달콤한 것과 덤덤한 것은 맛이 다르고, 움직임과 고요함은 형태가 다르다. 이것이 바로 상반되어 겸할 수 없는 까닭이다.

나는 「노중련전」을 읽을 때 그가 천금을 물리치고 작록도 받지 않은 채 바닷가로 도망가 은거한 것을 보았는데, 진실로 은일한 선비이다. 신원연(新垣衍)과 연 나라 장수 같은 사람들은 중인 중에서 용렬한 사람인데 노중련은 그들과 대항하여 그의 말이 장황하고 그의 글이 아름답지 않고 마음이 좁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가슴속에 남의 지모를 꺾으려는 계책이 있고, 붓 아래 남의 기세를 빼앗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근심을 배척할 줄을 알고 어지러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막함을 달게 여겨 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

110)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장수. 일찍이 자기 부하로 있는 군사의 종기를 빨아서 치료해주었다는 오기연저(吳起吮疽)라는 고사로 유명하다. 저서로 『오자(吳子)』가 있다.

111) 중국 전국시대 위(魏) 나라의 사람. 어렸을 때 매우 빈천했다. 서하(西河)에서 놀면서 복자하(卜子夏)에게 사사했다. 전자방(田子方)·이극(李克)·적황(翟璜)·오기(吳起) 등과 위나라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모두 장군이 되었지만 단간목은 도를 지키며 벼슬을 하지 않았다. 위나라의 문후(文侯)가 그의 집 앞에 이르자 담을 넘어 도망가 버렸다.

대개 신원연의 유세를 막아서 위나라의 구원군이 이르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연나라 장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여 요성(聊城)을 무너뜨리게 했으니 그의 재주가 출중함이 이와 같고 지조의 높음이 또한 저와 같았다. 노중련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겸했으면서도 서로 상반되는 것을 해치지 않았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도의 선비를 얻어서 그와 함께 할 수 없다면 반드시 광자(狂者)나 견자(狷者)와 더불어 할 것이다."[112]라고 하였으니, 나는 노중련이 아마도 광자나 견자 다음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광자에 가깝고, 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견자에 가까운 것이다.

애석하도다. 우리 부자(夫子)의 문하에 이르러 도를 듣지 못함이여! 그의 말에 이르기를 "부귀를 누리며 남에게 굽히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빈천하게 살면서 세상을 가볍게 여기고 내 의지대로 살고 싶다."고 하였다. 대저 부귀와 빈천은 천명이다. 자신의 의지를 어찌 마음대로 하며, 세상을 어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

魯仲連論

抱高世之志者 不齷齪於衆人之中 懷出群之才者 不寂寥乎 事爲之外 二者 常相反而難乎兼之矣 當戰國時 人有一能各奮其所長以干于世 如吳起孫臏之用兵 申不害商鞅之治刑名 張儀蘇秦之騁從橫之說 遍於天下 莫不逞其能題耀於一時 而亦莫不俛首功名 受人羈絡以故進退不能裕然自由 而甚者 至於僇辱其身 其能脫然 高蹈不爲勢利移如段干木者 顧何嘗無哉 而惟其長往也 雖有之 不見於世 蓋甘溪異味 動靜殊形 斯所以相反而不可兼也 余讀魯仲連傳 觀其却千金壽不受爵 而逃隱海上 誠高蹈之士也 若新垣衍與燕將者 衆人之碌碌者 而仲連乃與之詰頡 其談張皇 其書不嫌 齷齪何哉 是由膏中有折人之謀之策 筆下有奪人之氣之勢 自審其足以排患 足以鮮紛 故 不甘寂寥而無事爲 蓋新垣衍之說沮 而魏救不容不至 燕將之膽落而聊城不能不下 夫才之出羣既如此 志之高世 又如彼仲連於是乎兼兩者 而不害爲相反也 孔子曰 不得中行而與之必也狂狷乎 余疑仲連其殆狂狷之次也 有所欲爲近狂 有所不爲近狷 惜乎 不及吾夫子之門 而聞道也 其言曰 與富貴而詘於人寧貧賤而輕世肆志 夫富貴貧賤命也 志豈可肆而世豈可輕哉

112) 『논어』「자로(子路)」에서 나왔다.

전횡을 논함[113]

죽음은 사람이 어렵게 여기는 바이다. 어떤 한 사람이 죽을 곳에서 죽으면 천하는 그를 의롭게 여긴다. 전횡(田橫)[114]의 무리는 502명인데 모두 의롭게 죽었으니 얼마나 장엄한가? 한 두 사람이 의롭게 죽는 것은 비록 그 임금이 본래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아도 때로 그럴 수 있는 일이다. 502명이 그 임금을 위해 모두 죽는 것에 이르러서는 그 임금이 그들의 마음을 깊이 얻지 않고 이룰 수 있겠는가?

전횡의 어짐은 반드시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횡이 시향(尸鄕)에 이르러 스스로 자결한 것은 장차 북면(北面)하여 한왕(漢王)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한 것이었는데 어찌 섬 가운데서 자결하지 않았던가? 장차 남의 형을 삶아 죽이고 그 아우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어찌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는가?

임금이 그의 면모를 보고자 하니 반드시 삼십 리 가까이 이르러 스스로 자결했으니 허물을 말할 것이 없다. 이 때를 당해서 두 사람의 객이 그를 따랐는데,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지혜가 오백 명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한 마디 말도 없이 이에 이르러 차마 그 주인의 목을 들고 한나라 조정에 이르렀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횡은 이미 502명의 마음을 깊이 얻었고, 반드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일 이년이 아니었다.

당시에 역생(酈生)[115]이 제왕(齊王)에게 유세를 할 당시 전횡은 재상이 되었다. 역생의 말에 따라서 역하(歷下)[116]의 군사를 풀었던 것은 장차 저 한나라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한신(韓信)이 그를 습격하자 이에 역생이 자기를 속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역생은 제나라를 속인 것이다. 어찌 이 때가 되기 전에 지위를 벗어 던지고 역생을 쫓아서 그와 더불어 술이나 마시지 않았던가?

---

113) 「전횡론(田橫論)」의 원본 순서가 문맥에 맞지 않아 역자가 뜻이 통하도록 문맥을 고려하여 순서를 바로잡았으니 읽는 사람들은 착오 없어야 할 것이다.

114) 제왕(齊王) 전씨(田氏)의 일족. 후에 자립하여 제왕(齊王)이 되었다가 한고조(漢高祖)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그의 도당 오백 여명을 거느리고 섬으로 도망하여 마침내 자살하였다.

115) 중국 전한 초기의 책사(策士)인 역이기(酈食其)를 가리킨다. 고조(高祖)를 위해 제(齊) 나라에 가서 유세하여 70여성을 항복받았는데, 그 직후에 한신(韓信)의 대병이 제나라를 공략하였으므로 크게 노한 제왕 전광(田廣)한테 죽임을 당하였다.

116) 지명.

전횡이 이 때에 역생과 더불어 변화를 함께 관찰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급하게 그를 삶아 죽여서 한나라를 평안하게 할 방법을 끊어버린 것은 잘 못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횡은 잠시 역생의 말에 따라 군대를 늦추어야 했을 것이다. 어찌 급하게 수비를 풀어서 한신의 습격을 받게 되었던가?

전횡의 실수가 이보다 심한 것은 없다. 502명은 모두 알면서도 이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전횡이 한 번 패배하여 바다의 섬으로 망명한 까닭이다. 시향에서 목을 찔러 자결했을 때에도 두 명의 객이 한 마디 말도 없었던 것은 이상하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전황이 502명을 얻은 것은 울분을 잘 어루만져 주고 용감하게 죽는 기운을 길러 준 것에 불과할 뿐이다. 어찌 족히 임금자리를 다투는 지혜와 힘이 있어서 고(孤)라고 칭하고 남면(南面)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전횡이 502인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여기자 502인도 전횡의 죽음을 보기를 마치 자기의 죽음처럼 여겼다. 나는 그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며, 지혜가 임금을 보좌하고 그를 안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田橫論

死人之所難也 有一人能死於死卽天下義之 田橫之客 五百二人 同死於義 何其壯哉 一二人之死於義 雖其主非素得其心 時有之矣 至於五百二人同殉於其主 非其主深得其心 可致之哉 橫之賢 必有出於人者矣 然橫之至尸鄕 而自頸 則嘗怪之將恥北面而事之也 何不於島中決之 將愧烹人之兄 而與其弟併肩也 何乃至此 而始覺之 爲帝之見其面貌 必至三十里之近 而自頸尤無謂也 當是時 二客從焉 彼二客必其知慮出五百上 而無一言及此忍以其主之頭致之漢庭何哉 橫旣深得五百二人之心 必其從之也 非一二年矣 當酈生之說 齊王也 橫則爲相矣 從生之言 而罷歷下軍者 將以平夫漢也 及韓信襲之 而乃疑酈生之賣己 果生之賣齊也 豈不先時 而脫去顧從 而與之縱謫哉 橫於是 宜與酈生俱以觀其變 不宜遽烹而絶平漢之路也 抑橫之姑從生言以之緩兵邪 何乃遽罷守戰備 爲信之所襲也 橫之失 未有甚於此 而五百二人 皆知不慮此 此橫之所以一敗 而亡之海島也 無怪乎尸鄕自頸之時 二客無一言及之也 由此觀之 橫之得於五百二人 不過能撫愛善慷慨養其敢死之氣而已 惡足以角逐鹿之智之力 保其南面稱孤也

哉 雖然 橫以五百二人之心爲己之心 五百二人視橫之死 如己之死 余甚悲之 而惜其無智慮能輔主 而安全之也

"명령을 자주 내리면 백성들이 따를 바를 알지 못한다"에 대해서 논함

비의 은택(恩澤)은 만물을 생장시키는 것인데 자주 오면 도리어 그 생장을 해친다. 대개 천하의 사물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비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자주 오면 도리어 해가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물의 생장은 진실로 그 때가 있는 법인데, 은택은 오직 그 때에 맞는 것일 뿐이다. 수시로 비가 와서 말리고 적시는 것이 법칙을 잃어버리면 어찌 병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비 또한 그러한데 하물며 서리와 눈이 자주 내려서 사물을 병들게 하는 것은 또한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사물 중에서 정(情)이 없는 것 또한 병이 드는데 하물며 백성은 지각을 갖추고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즐거우면 기뻐하고 괴로우면 화를 내게 된다. 나라의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 백성이 따를 바를 알면 순(順)하고 편안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비의 은택이 때에 맞게 내리는 것과 같다.

명령을 자주 내려서 백성이 따를 바를 알지 못하면 순리에 어긋나고 불안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사물이 마르고 젖는데 그 법칙을 잃는 것과 같다. 어찌 백성의 실정을 거역함이 있고서 명령이 순조롭게 행해질 수 있겠는가?

백성을 은혜롭게 하는 정치는 오히려 자주 할 수 없는 것인데, 명령을 자주 내리면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하물며 백성을 병들게 하는 정치를 어찌 자주 할 수 있겠는가? 명령을 자주 내리면 혼란해질 것이다.

옛날 초나라의 재상 손숙오(孫叔敖)가 말하기를 "명령이 자주 내려지면 백성들이 따를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아! 이것은 위정(爲政)의 방법을 아는 것이로다. 초나라 왕은 일찍이 세금이 가벼운 것을 근심하여 적은 것을 크게 고쳤다. 그러자 백성들은 불편해지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게 되었다.

시령(市令)이 손숙오에게 고하자, 손숙오가 묻기를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하였다. 시령이 대답하기를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5일이 지난 후 왕에

게 조회를 가서 옛날 제도를 회복하였다.

대저 세금은 백성들의 의식(衣食)으로, 정치의 도리를 통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미 불편해서 백성이 생업을 떠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일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찌하여 5일이나 기다린단 말인가?

대개 왕이 세제를 개혁하는 것은 장차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고자 한 것인데 백성들이 그것을 편리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마도 명령을 내린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편리함을 알지 못했던 것인가? 이미 3개월이 되었고 백성들이 마침내 그것을 편리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불편한 것인가? 비록 그렇지만 또한 몇 일을 기다려서 그 결과가 불편한 것을 살핀 뒤에 왕에게 조회하여 그 불편함을 말하여 다시 옛 제도를 회복하였다.

석정산인은 말한다. 아아! 이것은 명령을 자주 내리고자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따를 바를 알게 한 것이다.

論令數下民不知所從

雨澤者 生長萬物 而數則反病其生長者 夫澤天下之物 莫尙乎雨 而數乃病 何哉 物之生長 固有其時 澤之惟其時而已 而時時而雨燥潤失常 安得不病乎 雨且然 況霜雪而數者其病物 又可?言邪 物之無情者 且病焉 況民者 具知覺能運動 樂則喜苦則怒 國君下令 民知所從 則順而安 猶夫雨之澤其時也 令數下而民不知所從 則逆而不安 猶夫物之燥潤失其常也 焉有逆民之情 而令得以順行者乎 澤民之政 尙不可數 令數則褻矣 況病民之政 惡可以數 令數則亂矣 昔楚相孫叔敖之言 曰 令數下則民不知所從 嗚呼 此其知爲政之術乎 楚王嘗患幣輕 更小以大 民不便而去其業 市令 以告叔敖 叔敖問 幾何頃 市令曰 三月頃 後五日 朝于王而復之 夫幣民之衣食 所由達政之大者也 旣知其不便 而民去業 卽日復之 可矣 何待五日也 蓋王之改幣 將以便其民而民不便之 抑令下未久 民不知其便乎 旣三月頃而民終不之便 果其不便者乎 雖然 且待幾日頃 審其果不便也 而後乃朝王言其不便 而復其舊焉 石亭山人曰 嗚呼 此欲其令不數下 而令民知所從也

범증을 논함

나는 일찍이 「항우 본기(項羽本紀)」를 읽고 다음과 같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항우가 천하를 잃은 까닭은 범증이 기묘한 계책은 있었지만 원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묘한 계책은 위급하고 절박한 것은 구할 수 있지만 먼 훗날까지 생각할 수는 없다. 오직 원대한 계책이 있은 다음에 군왕을 보좌하고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항우가 처음 봉기했을 때 천하는 진(秦) 나라의 지배하에 놓인 지 오래되었다. 비록 실정(失政)하고 백성을 학대할지라도 사람들은 진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다. 이때를 당해서 충심으로 분노하여 격분하고 인심(人心)을 분발시키지 않으면 기세를 고무시킬 수 없었다.

항씨는 초나라에서 대대로 장수를 지낸 집안이다. 초나라 사람은 회왕(懷王)의 원통한 죽음에 분노하여, 초의 민가가 세 집만 있어도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노래가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회왕의 자손을 구하여 왕으로 삼고 충심으로 분노하는 무리들을 불러 모아 초나라의 모든 인심을 격발시켰다.

무릇 초나라 사람이 된 자들이라면 누구인들 그 기세에 고취되고 응하지 않았겠는가? 이에 여러 망국(亡國)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왕의 후계자를 세운 것은 진나라보다 마음에 만족하지 않음이 없어서였다. 진나라 사람들은 그 강함을 회복할 수 없었고 드디어 패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범증[117]의 기묘한 계책이다. 그러나 항씨를 위하여 천하를 도모하였는데 범증의 실계(失計) 중에서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항씨는 비록 초나라의 구신(舊臣)일지라도 회왕이 아직 자립하지 않았기에 군신의 분별은 오히려 아직 정해지지 않았었다. 비록 힘들고 더디게 오직 뛰어난 준걸(俊傑)들을 긁어모아 세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립하여 천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번 초나라를 세워 그의 신하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추령(芻靈)[118]은 풀인데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것을 짓밟으면 보는 사람은 그것을

117) 초나라 항우의 모신(謀臣). 아부(亞父)라 불렸다. 뒤에 항우로부터 의심을 받자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 등창을 앓다가 죽었다.

싫어한다. 사람을 짓밟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다. 하물며 의제(義帝)는 옛날 군주의 후손이고, 항우가 북면(北面)하여 섬겼던 사람이다. 하루아침에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기에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다. 어찌 단지 회왕이 원통하게 죽은 것과 같이 분노하겠는가?

또한 초나라의 뒤를 이은 사람이 임금인데도 차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제국의 뒤를 이은 사람 중에 그 임금의 후손이 아닌 자들에게 차마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음을 두려워하였다. 천하의 사람들이 분하고 두려워하자 항씨의 세력은 속으로 이미 고립되었다. 패공(沛公)이 그 기회를 틈타서 상복을 입고 일어나 제국(諸國)의 인심을 분발시켰는데, 마치 항씨가 모든 초나라의 인심을 고무시킨 것과 같았다.

항우가 다시 강해질 수 없음은 진나라 사람과 더불어 다름이 없었다. 대저 이와 같으니 항우가 어찌 천하를 잃지 않으리오. 그러므로 말하기를 "범증이 초나라의 후예를 세워서 급박하고 절박한 것은 구할 수 있었지만 항우를 위해 천하를 도모한 것은 큰 실수이다. 패공은 육국(六國)에 대해서 항우와는 다른 형태를 취했다. 오히려 그들의 후예를 세우지 않고 육국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임금을 위하여 나의 힘을 분담하도록 배려하였다. 이것이 장량(張良)의 계책이다.

장량과 같은 자는 원계(遠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항우가 범증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범증은 악창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량과 범증의 계책이 대적할 수 없음이 판정 난 것이다. 항우가 어찌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겠는가?

范增論

余嘗讀項羽本紀 歎曰 羽之失天下 以范增之有奇計而無遠計也 夫奇計可以求急切 而不足以慮遠 惟有遠計而後 能佑君王定天下矣 何以言之 當項氏之初起也 天下之爲秦久矣 雖其失政虐民 而人人畏其威 莫之敢嬰 當是時 非激以忠憤奮發人心 無以鼓其氣 而項氏楚之世將也 楚人憤懷王之寃死 至有三戶亡秦之謠 則求懷王之孫 爲之主而號召忠憤之從 激發全楚之人心 凡爲楚人者 誰不鼓其氣而應之乎 於是 諸亡國之人各立其王之後者 莫不甘心於秦 秦人不能復有其强 而遂以敗亡 此增之奇計也 然而爲

118) 풀을 묶어 만든 인형. 순사자(殉死者)의 대신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項氏 而謀天下 則增之失計 莫甚於此 何者 項氏雖楚之舊臣 而懷王之未立也 君臣之分 尙未定也 雖崎嶇遲緩 惟收攬英俊 無所攀援而自立其身 乃可以謀定天下也 一立楚後 而爲之臣 則必不可背之 芻靈草也 而人或躪之 則見者惡之 惡其躪似人者也 況義帝舊君之後 羽之所北面事之也 一朝而投之江中 人之憤之 豈直如憤懷王之寃死哉 且楚之後者 其君也 而可忍之諸國之後之 非其君者 將懼其無不可忍也 天下之人 憤且懼 而項氏之勢 陰已孤矣 沛公乘其機縞素而起 激發諸國之人心 如項氏之鼓全楚之氣 羽之不能復强 與秦人無異焉 夫如是 羽安得不失天下乎 故曰 增之立楚後 可以求急切 而爲項氏謀天下 則失之甚也 沛公之於六國 與羽異形 而猶不立其後 慮六國之人各爲其主 而有以分吾力 此張良籌之也 如良者 可謂有遠計也 假令羽不疑增 增不發疽 張范之計之不敵判矣 羽惡得以有天下哉

때때로 한왕(漢王)을 따른 것을 논함

태사공(太史公 : 司馬遷)이 유후(留侯)의 일을 서술하면서 말하기를,

"장량(張良)은 병이 많아 특별한 장수는 아니지만 항상 책략을 꾸미는 신하가 되어서 때때로 한왕(漢王)을 따랐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으니 읽는 사람은 시시(時時)의 글자를 '그렇지 않은 때가 없다'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하였다. 대개 '그렇지 않은 때가 없다'는 끊어지는 때가 없다는 것이고 시시(時時)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그가 병이 많기 때문에 혹 때로 병이 있으면 따를 수 없는데 어찌 항상 계획을 하는 신하라 할 수 있는가? 그가 계획할 만한 것이 있으면 비록 병이 있더라도 따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시시(時時)는 계획을 꾸밀 때이다. 계획이 없을 때는 비록 병이 없더라도 억지로 따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드디어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두루미는 깨끗한 새이지만 문채는 닭만 못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드시 두루미

는 중요하게 여기고 닭은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닭은 사람에게 길러지는 것이고 두루미는 사람에게 길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중에 혹 두루미를 기르는 사람은 두루미의 깨끗함을 숭상하면서 반드시 두루미의 깃촉을 잘라 놓고 두루미가 떠나고 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다. 두루미로 하여금 진실로 때때로 와서 사람이 항상 친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깃촉을 자르겠는가?"

라고 하였다.

사람이 재주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 등용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봉록을 이롭게 여기고 그 사람의 벼슬자리를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때문에 주인은 그 사람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혹 재주는 있는데 다 사용하지 않으면 몹시 미워할 것이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봉록을 이롭게 여기지 않고 벼슬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데 때때로 와서 사용이 되고 사용함에 반드시 효과가 있으면 누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는가? 누가 미워함이 있겠는가? 그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오직 그가 오기를 희망하고 왔을 때는 반드시 일이 있는 때이니 일이 있으면 변론하고 일이 없으면 반드시 올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욕보일 수 없다.

사람에게 욕보이게 되는 것은 반드시 마음대로 사용되는 사람이고, 사람이 매우 미워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기꺼이 그의 쓰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 이런 방법은 유후(留侯)가 잘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황제는 어쩔 수 없이 그를 공경하고 믿었다. 오직 공경하였기 때문에 그 병 많은 사람에게 임무를 맡겼고, 오직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음이 없었다. 지난번에 이른바 두루미가 때때로 옴에 사람들에게 숭상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길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하(蕭何) 아래의 사람들은 황제에게서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보이게 되었다. 비록 그 문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닭일 뿐이다.

時時從漢王說

太史公敍留侯事有曰 張良多病 未嘗特將也 常爲劃策臣 時時從漢王 斯言也 深有意思 而讀者多以時時作 無時不然 解者非也 蓋無時不然者 無有間斷時也 時時云者 有

時而不然也 何以見其然 以其多病 或時病則不能從也 然則何以云 常爲劃策 臣言其有可劃策 雖病猶從也 時時者 劃策時也 無所劃策 雖不病 不强從 此所謂有時而不然也 遂爲之說曰 鶴禽之潔者而文彩不如鷄也 然人必重鶴而輕鷄 何者 鷄爲人畜 而鶴不爲人畜也 人或有畜鶴者 尙其潔也 而必翦其翮 慮其遂去而不來也 使鶴誠能時時來而人常親焉則 何必翦其翮哉 凡人之有材 而爲世所用者 莫不利人之祿榮人之爵 是以爲其主者 莫不駈使之 或有材而不盡爲之用 卽莫不忌疾之 有人於此 不利其祿 不榮其爵 而時時來而爲其用 用必效焉則夫誰能駈使之 夫誰有忌疾之 未來也 惟望其來也 來必以有事之時 而事則辨焉 無事則不必來也 若人者 人不得以僇辱之也 凡人之爲其僇辱者 必其爲駈使之者也 爲其忌疾者 必其不肯盡爲之用者也 嗚呼 斯術也 留侯熟知之矣 故高帝不得不敬且信焉 惟其敬之也 任其多病 惟其信之也 言無不聽 向所謂鶴之時時來 爲人所尙 而不爲所畜者是也邪 自蕭何以下不爲駈使之 卽爲僇辱之 雖其文彩 足以悅人鷄而已矣

"은혜가 만약 나에게서 나갔다면 원망은 장차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논함

왕증(王曾)[119]이 정사를 집행할 때 그 문하의 선비들 중에 아직 발탁되지 않은 선비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은혜가 만약 나에게서 나갔다면 원망은 장차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라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 말에 대해 의심을 하여 이것은 자기의 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계책이고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국가를 위하여 현명한 사람을 나아가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데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은혜와 원망을 살펴보면 그 사람됨이 현명하면 그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싫더라도 천거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사람됨이 어리석으면 그에게 원망 듣는 것이 두렵더라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말하는 것이 어찌 큰 신하(大臣)가 아니겠는가?

이미 깊이 생각하여 그 뜻을 알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참으로 큰 신하

119) 중국 북송 때 사람. 익도(益都) 출신. 자는 효선(孝先). 시호는 문정(文正). 함평중(咸平中)의 향공(鄕貢)에서부터 예부연대(禮部延對)에 시험을 보았는데 모두 1등이었다. 벼슬은 인종(仁宗)때 중서시랑(中書侍郎)·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역임하였다. 기국공(沂國公)에 봉해졌고 나중에는 태후에게 칭찬을 받았다. 문장을 잘 지었다. 저서에 『왕문정필록(王文正筆錄)』이 있다.

이며 이것이 참으로 큰 신하다."라고 하였다.

큰 신하는 한 사람을 도와 천하를 다스리고 만물을 완성하는 사람이다. 천하는 매우 넓고 만물은 매우 많지만 대신은 한 몸으로 매우 큰 책임을 맡음에 어찌 만물마다 만들어주고 사람마다 나아가고 물러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럴 때 잡는 것은 오직 공평함뿐일 것이다. 공평하면 사사로움이 없고 사사로움이 없으면 주어도 기뻐하지 않고 빼앗아도 성내지 않을 것이다.

비유하면 기(氣)의 흐름과 같다. 펴지면 양(陽)이 되고 약해지면 음(陰)이 되지만 그 자취는 드러나지 않는다. 봄과 여름의 양을 만나면 자연이 따뜻하고 자연이 훈훈해져 영화롭고 빛나고 펴지고 살찐다. 가을과 겨울의 음을 만나면 자연이 춥고 자연이 서늘해져 마르고 시들시들해진다.

저 영화롭고 빛나고 펴지고 살이 찌는 것은 장차 은혜롭게 하려는 것이고 마르고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장차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은혜가 나오는 곳을 알지 못하고 원망이 돌아가는 곳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뒤에야 만가지 변화에 나아갈 수 있고 만가지 종류의 본성을 따를 수 있다.

대신(大臣)도 또한 그러하다. 천거하여 조정에 등용하여 직책을 주는 것은 오직 재주와 덕의 크고 작음에 각각 맞게 하는 것이지, 대신이 지나치게 사랑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파면시켜 외지로 물리쳐 해당하는 형벌을 주는 것은 오직 죄의 경중에 각각 맞게 하는 것이지, 대신이 지나치게 미워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은 매우 공평한 자루를 잡고 물리쳐 옮길 뿐이다. 현명한 사람은 일찍이 발탁되지 않음이 없는데도 그 드러내어 발탁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일찍이 배척당하지 않음이 없는데도 아직 배척 당함을 볼 수 없으니 어디에 은혜를 베풀며 어디에 원망할까? 그렇다면 공(公)의 말은 그 은혜를 베풀고 원망을 부르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은혜와 원망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지극해지면 천하에 등용되어도 일찍이 은혜와 원망이라고 이름부를 것도 없을 것이니 이것이 진실로 대신일 것이다.

이에 감탄하여 말씀하시기를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물리치되 은혜와 원망의 자취가 드러나는 것은 대신의 재주가 아니다. 대신은 의도적으로 자취가 없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바탕이 두텁고 도량이 깊어 자취가 있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論恩若已出怨將誰歸

王曾爲執政 其門下士未有顯拔者 嘗曰 恩若已出 怨將誰歸 余始疑其說以爲此爲一身計足以自善而爲國家進賢退不肖則不當 顧恩怨 其人賢歟 必不可嫌其植恩而不薦也 其人不肖歟 必不可畏其召怨而不黜也 夫其所云 豈所謂大臣者耶 旣而深思而有得焉 乃歎曰此眞大臣也已 此眞大臣也已 夫大臣者 佐一人而治天下遂萬物者也 天下至廣萬物至衆而大臣以一身任其至大之責 豈物物而造之 人人而進退之耶 所操者惟公而已 公則無私 無私則與之而無所喜 奪之而無所慍 譬如一氣之流行也 舒而爲陽 慘而爲陰 而其迹則不顯焉 値春夏之陽者 自然而溫 自然而熏 而榮暢焉耳 敷腴焉耳 値秋冬之陰者 自然而凄 自然而冷 而枯焊焉耳 消索焉耳 彼榮暢敷腴者 如將恩之 枯旱消索者 如將怨之 而恩不知其所出 怨不知其所歸 夫然後可以造萬化而順萬類之性矣 維大臣亦然 其進而登諸朝 授之職 惟才德之大小而各稱焉 非大臣之所偏愛也 其黜而屛諸外 抵之法 惟罪戾之輕重而各當焉非大臣之所偏嫉也 大臣 操其至公之柄而黜運之而已 賢者之未嘗不拔而未見其顯拔 不肖者之未嘗不斥 而未見其顯斥 于何而恩之 于何而怨之也邪 然則公之所言 非惡其植恩而召怨也 要使恩怨一諸無私 無私之至而擧天下未嘗有恩怨之可名焉 斯其爲眞大臣也已 於是又歎曰 進賢退不肖而恩怨之迹顯焉者 非大臣之才也 大臣非有意爲無迹也 蓋質厚而量深自不容有迹也

"따뜻하고 배부른 데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을 논함

사람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한 것이 없다. 보통 사람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비록 대인(大人)이라도 반드시 그것에 여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배고픔과 추위가 심하면 죽는데 죽음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배고픔과 굶주림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배부름과 따뜻함을 원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배부름과 따뜻함을 취하는 데에 있다. 오직 대인은 뜻이 크고 원하는 것이 원대하여 삶을 버려서라도 옳음을 취하려고 하니 삶도 오히려 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배고픔과 굶주림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배고픔과 추위가 두렵지 않는데 배부름과 따뜻함이 어찌 그 뜻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 뜻은 어떤 뜻인가?

최상의 사람들은 지극한 천도(天道)·인도(人道)를 궁구하여 만물을 구제하고, 궁구함이 점차 내려가 노숙해지면 책을 저술하고 교훈이 될 만한 말을 하여 후세의 모범을 만들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재주의 크고 작음과 학문의 깊고 얕음의 경지가 있어서 게으르지 않으면 한 세대의 학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아래에까지 내려가면 문예(文藝)를 전공하여 깊이 생각하고 정밀하게 연구하여 가슴속의 말을 토해내어 종이 위에 실었는데 썩지 않을 수 있었다. 여기에 뜻을 둔 사람은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이름난 선비가 되고 지조 있는 사람이 되어 하늘이 준 천성을 저버리지 않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소인이 되고 천한 사람이 되어 하늘이 준 천성을 배반하여 사람의 부류에 끼지도 못하게 되었다.

비교해 말한다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것인가? 배고픔과 추움, 따뜻함과 배부름에는 명(命)이 있으니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반드시 면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는 것도 아니다. 가령 싫어해서 극복할 수 있고 원해서 얻을 수 있다면 오히려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싫어해도 극복하지 못하고 원해도 얻지 못한다면 이 때에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오직 성인·바보·현인·어리석은 사람·군자·소인·명사·천장부는 싫어하면 반드시 극복하고 원하면 반드시 얻는다. 비록 재주는 소인이지만 학문에 얕고 깊음이 있어서 성인이 되지 않으면 현인이나 군자가 되고 아래로는 명사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소인·천한 장부를 비교하면 누구를 싫어하며 누구를 좋아하겠는가? 아아! 사람의 뜻이 따뜻함과 배부름에 있다면 사람이 되는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깝다."[120]라고 하였다. 이것은 뜻이 배부름과 따뜻함만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이것을 얻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志不在溫飽說

人之所惡 莫惡於飢寒 不惟衆人惡之 雖大人不必衍也 飢寒之甚則死 死人之所大惡也

120) 『맹자』「등문공(滕文公)」에서 나왔다.

欲免夫飢寒 其勢自期於溫飽 是以衆人之志常奪於溫飽 惟大人志大 所期者遠 至有捨生而取義 夫生猶可捨 况飢寒乎 飢寒之不畏 溫飽 惡足以奪其志 斯志也 奚志也 太上學窮天人道濟萬物 其窮而在下而老焉則著書立言 垂法於後世 其或才有小大 學有淺深 能不懈而樹一代之業 最下者 攻文藝 覃思研精 吐胸中之言 載之紙上 亦得以不朽焉 志乎此者 爲聖爲賢爲君子爲名士爲不負 天之所生 爲人所景仰矣 不志乎此者 爲愚爲不肖爲小人爲賤丈夫爲孤負 天之所生 爲人所不齒矣 較而言之 誰得誰失 且飢寒溫飽有命焉 非人之所厭而必免 所求而必得也 藉能厭而免 求而得則猶 猶得爲溫飽之人 萬一厭而不免 求而不得 當此時 將成何人哉 惟聖愚賢不肖君子小人名士賤丈夫厭則必免 求則必得 雖才有小人 學有淺深而不爲聖則爲賢爲君子下不失爲名士 較諸愚不肖小人賤丈夫 誰惡誰悅 嗚呼 人之志在於溫飽 卽人之所以爲人者休矣 孟子曰飽食煖衣逸居而無教卽近於禽獸 其曰志不在溫飽者 殆有得於斯而爲斯言也歟

"상서로운 조짐이 이르러도 물리치고 안주하지 않음"에 대해 논함

상서로운 조짐이 이르러도 그것을 물리치고 안주하지 않으면 임금의 겸손한 덕이 되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론도 옳지 않다는 왕증(王曾)의 말은 잘못한 것이다. 상서로운 조짐은 재앙과 상대적인 것이다. 만약 재앙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에서 말미암는다고 생각한다면 상서로운 조짐은 또한 지극한 다스림으로 말미암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서로운 조짐이 지극한 다스림으로 말미암는다고 한다면 임금이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재앙이 실정(失政)으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금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피해는 정치하는데 게을리 하고 천자가 행하는 봉선(封禪)[121]을 토목공사라고 호칭하는 것에 이를 것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피해는 거리낌없이 대신을 욕보이고 백성을 잔인하게 하고 장차 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에까지 이를 것이다. 임금은 위로 아무도 없고 오직 하늘이 있을 뿐이다. 하늘은 푸르러 헤아릴 수 없지만 혹 해와 달이 좀 먹어 혜패(彗孛)[122]을 제때에 볼 수 없어서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넘치고 땅이 갈라

121) 천자가 행하는 제사. '봉(封)'은 사방의 흙을 높이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일. '선(禪)'은 땅을 정(淨)하게 하여 산천에 제사지내는 일.

지고 메뚜기가 갉아먹는 변고에 이르렀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여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 없다. 신하된 사람은 이로 인해 경계하여 감응하여 부르는 원인을 밝히면 중주 이상의 신하는 수양하고 반성하는데 부지런히 하면 이를 만 하고 소강 이하의 신하는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감히 게을리 하지 않으면 혼란에 이르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 재앙을 한번 경계하여 나라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삼고 신하로서 임금에게 말을 올리는 사람은 감히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왕증은 송나라의 이름난 신하이다. 당시에 이것을 알았지만 이런 말의 실수가 있었다.

대개 왕증은 인종의 덕이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알았고 재앙은 백성의 말을 움직이고 천하가 잘 다스려 졌을 때 오만한 마음이 생겨 앞으로 근심이 없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임금이 두려워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고 앞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사치한 마음을 막는 것은 한때의 위기를 구하는 계책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의 폐단이 없는 말은 될 수가 없었다.

왕증은 어찌 "임금이 다스림을 지극히 하여 좋은 조짐이 이르렀으니 이는 폐하께서 부지런히 정치에 힘쓴 결과 은혜가 백성에게 미치고 천리가 서로 감응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아서 그랬으니 이 감응이 비록 그렇지만 청하건대 이를 믿고 조금이라도 나태하지 마십시오. 나태하면 정치가 날로 방탕해져 그 피해가 이미 천하에 두루 미치고 재앙이 올 때도 반드시 이와 같고, 화기(和氣)는 상서로움을 부릅니다. 그래서 좋은 조짐이 도달하는데 그 기운이 느긋하고, 어그러진 기(氣)는 재앙을 부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때에 그 기운이 포악하여 더욱 두려워 할 만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인종의 인(仁)으로서 어찌 깊이 왕증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나는 송(宋)의 이름 있는 신하에 대해 마음으로 왕공을 미루어 보니 유독 이 말에 실수가 있음을 애석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

122) 별이름. 혜성(彗星) 또는 추성(箒星)이라고 한다.

論瑞應推而勿居

瑞應之至 以推而勿居 爲人主之謙德 可將免夫災沴之來 輿議不可王曾於是而失言矣 夫瑞應者災沴之對也 苟以爲災沴必由於失政 則不容不以爲瑞應亦由於致治也 謂瑞應由於致治 人主有侈心 謂災沴不由於失政 人主無畏心 有侈心則其害不過怠於爲政 以啓封禪上號土木之役矣 無畏心則其害至於無復顧忌僭辱大臣殘虐百姓 蓋將無不爲也 人主無上 獨上有天耳 天之蒼蒼 有不可測而 或日月刓蝕 彗孛不時見 以至山崩海溢 地震蝗慝之變 無非天人相感而致之 爲人臣者 因是而進戒 有以明其感召之故則中主以上勤於修省 可致少康以下亦能恐懼不敢放肆 免至於亂亡 惟此災沴一戒爲有國之所不可忽 而人臣進言者之所不敢有異說也 曾 宋之名臣也 當亦知之而有是焉之失 蓋曾深知仁宗之德不至於不畏天 能懼夫災沴之動民言而天下昇平 侈心之生 未必無將來之慮 故爲是說以安其所懼 而防其將侈 非不爲一時救急之謀 而不可爲千載無弊之言矣 曾何不曰 人主致治而瑞應至 此由陛下孜孜爲政 恩及百姓 天理相感如響 斯應雖然請無恃此而少懈 懈則政事日弛而其害已遍於天下 災沴之來亦必如此 和氣致祥 故瑞應之至 其氣緩 乖氣致災 故災沴之來 其氣暴 尤可畏也云爾 誠如是 以仁宗之仁 豈不深納哉 余於宋名臣 心推王公而 獨惜夫斯言之有失也

"벼슬이 높아져도 변하지 않는 것"을 논함

천하의 일은 차츰 나아가서 쌓는 데에 도달하여야 크게 이루게 된다. 빨리 자란 나무는 견고하지 못하고 빨리 채운 물은 쉽게 마른다. 이것이 이치가 반드시 이르는 곳이다.

맹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라 임금이 어진 사람을 등용할 때는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위가 높은 이를 넘게 하며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친한 사람을 넘게 하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좌우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 해도 안되고 모든 대부들이 현명하다 해도 안되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다고 한 뒤에 살펴서 현명함을 본 뒤에 그를 등용해야 합니다."[123]

이것은 나라 임금이 사람을 등용할 때는 갑자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어찌 등용하는데 신중하지 않겠는가? 혹은 장차 등용하는데 신중하여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높게 하면 높은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을 것이고, 소원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친하게 하면 친한 사람은 의심하여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니 조금씩 축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좌우로부터 모든 대부에까지, 모든 대부부터 국인(國人)에 이르기까지 그가 현명하다고 말한다면 신속하게 얻어서 등용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라고 의심하고 살폈으니 과연 신속하게 등용하지 않은 것이다.

좌우·모든 대부·국인이 믿어야 임금도 또한 믿는 것이 이른바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임금의 믿음이 완전하면 말을 하면 반드시 들을 것이고 베풀면 반드시 행해질 것이니 이것을 점점 모여서 축적된 것이라 한다. 오직 축적된 이후에 그 효과가 드러나니 아! 크게 이룬 것이다. 대신(大臣)은 임금을 도와주는 사람이니 대신이 나라에 현명한 사람을 천거할 때에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잘 해야될 것이다. 송나라 왕자명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진실로 어떤 사람이 현명하고 높고 낮은 벼슬을 두루 역임하고 명망을 얻도록 힘써 세월이 오래되어도 달라지지 않음을 알고 난 뒤에 뽑아서 임무를 맡겨야 한다."

이 가르침은 모두 맹자에게서 얻은 것이다. 지나간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고자 한다.

남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요임금보다 밝은 사람이 없고 사람을 완성시키는데 있어 순임금보다 성인은 없다. 요(堯)가 순(舜)에 대해서 스승으로 불러서 딸 두 명 아들 아홉 명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지 시험하였고, 오전[124]·백규(百揆)[125]·사문·대록[126]으로서 벼슬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일을 묻고 말을 살펴서 오랜 뒤

123) 『맹자』「양혜왕(梁惠王)」에서 나왔다.
124) 사람으로서 항상 지켜야할 다섯가지의 도리. 곧 인·의·예·지·신.
125) 정사를 총찰하는 벼슬아치. 지금의 국무총리 같은 것.
126) 순(舜)임금이 폭풍과 뇌우(雷雨)를 만났던 들판. 또는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위(禪位)한 장소.

에 크게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성인이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는 만세의 본보기이다. 삼대(三代) 이후에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법이 없어져서 한 사람이 칭찬하면 바로 천거하고 한 사람이 비난하면 바로 내쫓으니 점점 쌓이는 것이 없으면 이루는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기를 "양망(養望)은 점점 축적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높고 낮은 벼슬을 역임하는 것은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예를 들면 한나라의 가의(賈誼)[127]는 그 학문이 비록 옛날의 왕을 돕는 재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다음 가기에는 충분하였다. 문제(文帝)는 현명한 임금이었으나 가의의 능력이 꼭 들어맞지 않는데 그를 크게 등용하였으니, 어찌 세상에 순서를 뛰어넘어 벼슬자리가 올라 대부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가의로 하여금 낮은 벼슬에서부터 그 능력을 시험하여 점차적으로 올라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강관(絳灌)[128]이 능력을 미워하여 헐뜯었으니 이는 명망을 얻지 못한 것이다.

또 송나라 때 부필(富弼)[129]·문언박(文彦博)[130]이 함께 재상에 등용되어서 선비들이 조정에서 축하할 때 사마광(司馬光)[131]이 대궐의 뜰을 지나는데 백성들이 길을

---

127) 중국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문인·학자(B.C. 200~B.C. 168). 시문에 뛰어나고 제자백가에 정통하여 문제의 총애를 받아 약관으로 최연소 박사가 되었다. 1년 만에 태중대부가 되어 진(秦)나라 때부터 내려온 율령·관제·예악 등의 제도를 개정하고 전한의 관제를 정비하기 위한 많은 의견을 상주하였다. 그러나 주발등 당시 고관들의 시기로 장사왕의 태부로 좌천되었다.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굴원(屈原)에 비유하여 「복조부(鵩鳥賦)」와 「조굴원부(弔屈原賦)」를 지었다. 4년 뒤 복귀하여 문제의 막내아들 양왕의 태부가 되었으나 왕이 낙마하여 급서하자 이를 애도한 나머지 1년후 33세로 죽었다. 저서에 『신서(新書)』 10권이 있으며, 진의 멸망 원인을 추구한 「과진론(過秦論)」은 유명하다.

128) 중국 전한 고조(高祖)의 신하인 강후(絳侯) 주발(周勃)과 관영(灌嬰)을 가리킴.

129) 중국 북송 때의 현상. 자는 언국(彦國). 시호는 문충(文忠). 열심히 공부해서 큰 기량을 가지게 되었고 경력(慶曆) 초에 지제고(知制誥)가 되었다. 두 번이나 글안에 사신으로 갔으며 추밀부사(樞密副使)의 벼슬을 받았다. 화중(和中)에 이르러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고 문언박(文彦博)과 함께 재상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문(富文)이라고 하였다. 영종(英宗) 때 추밀사(樞密使)가 되고 정국공(鄭國公)에 봉해졌고 희녕(熙寧) 연간에 재상이 되었고 사공(司空)에 제수되어 한국공(韓國公)에 봉해졌다.

130) 중국 북송 때의 현상. 자는 관부. 인(仁)·영(英)·신(神)·철(哲)의 4조에 걸쳐 50년간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이름이 국내외에 떨쳤음. 치사(致仕)한 뒤 부필·사마광 등과 낙양기영회(洛陽耆英會)를 만들었다. 시호는 충렬(忠烈)

131)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사학자. 자는 군실(君實). 시호 문정(文正). 20세에 진사가 되고 1067년 신종(神宗)이 즉위한 해에 한림학사(翰林學士), 이어서 어사중승이 되어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신종이 왕안석을 발탁하여 신법(新法)을 단행하게 하자, 이에 반대하여 새로 임명된 추밀부사를 사퇴하고 1070년에 지방으로 나갔다. 당시 그는 편년체의 역사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술하고 있었다. 신종도 그 책의 완성을 크게 기대하여 편집의 편의를 제공, 그의 뜻대로 낙양(洛陽)에 거주하며 편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등 원조를 아끼지 않았

막고 모여서 말하기를 "그대가 낙양에 머물면서 천자와 삼현의 재주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의(賈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명망을 얻으려면 평소 사대부와 국인이 모두 그를 믿어야 한다. 아니면 남을 등용하려는 사람은 먼저 남의 명성을 길러 주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등용되고자 하는 사람도 먼저 자기의 명망을 길러야 한다. 명망이 높아진 이후에 남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남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으면 뜻을 펴서 시험하여야 하니 생각이 남의 명성을 길러 주고 싶은 사람은 남을 이루어 주어야 하고 먼저 자기의 명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루어야 하니 자기를 완성하지 못하고서 남을 완성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는 것과 같다.

論且俾養望歲久不渝

天下之事 莫不由漸而至于積 乃能大有成 驟長之木不堅 驟盈之水易涸 此理之必至也 孟子曰 國君進賢如不得已 將使卑踰尊疏踰戚 可不愼歟 左右皆曰 賢未可也 諸大夫皆曰 賢未可也 國人皆曰賢然後察之 見賢焉然後用之 蓋言國君之用人 不可以驟也 豈惟愼於用之哉 抑將愼於用之而底于成也 夫自卑而喩尊 尊者不嫌猜 自疏而喩戚 戚者不疑濫 非有漸積而能然乎 自左右而至諸大夫 自諸大夫至國人 莫不稱其賢 可驟而得之乎 猶疑其未也而察之焉 果不可以驟也 左右諸大夫國人 信之而君亦信之 非所謂漸邪 君之信之也專則言之必聽 施之必行 斯可謂之積矣 惟積而後其效著焉 嗚呼 其果能大有成也 大臣者 相人君者也 其進賢於國也 亦當如是善乎哉 宋王子明之言曰 誠知某人賢然歷官尙淺 且俾養望歲久不渝而後 擢任之 此其旨 蓋得於孟子也 請以往藉證之 夫知人 莫哲於堯 成人 莫聖於舜 而堯之於舜 徵於師 錫而以二女九男 試于家 以五典百揆四門大麓 試于官 詢事考言底于績然後 大用 此聖人用賢之爲萬世法者也 三代之後 用人無定規 一人豫之 輒進之 一人毁之 輒黜之 宜乎其無漸積而不能有所成也 其曰 養望者 漸積之謂也 曰歷官尙淺者 不可驟之謂也 如漢賈誼 其學雖不及

으며, 1084년 마침내 전 20권의 『자치통감』을 완성하였다. 이듬해 신종이 죽고 어린 나이의 철종이 즉위, 조모인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섭정이 되자, 신법을 싫어하는 태후에게 발탁되어 중앙에 복귀 정권을 담당하였다. 당시의 연호를 따서 '원우(元祐)의 재상'이라고 일컬어졌다. 재상이 되자 왕안석의 신법을 하나하나 폐지하고 구법(舊法)으로 대체하여 구법당의 수령으로서 수완을 크게 발휘하는가 하였으나, 몇 달 안 되어 죽었다. 그 뒤로 신법당이 세력을 얻자 '원우의 당적(黨籍)에 올라 냉대를 받았으나, 북송 말부터는 명신으로 추존되었다.

古王左 亦足亞矣 文帝賢明之君也 然而不能契合而有所大施者 豈非以一歲中超遷至大夫歟 使誼自卑官試其能以漸而陞歷歲滋久 則絳灌惡能短之 此不養望致之也 且如宋時 富弼 文彦博 同拜集賢相 而士夫相慶於朝 司馬光赴闕庭而百姓遮道聚呼 曰公無歸洛留相天子三賢之才 非過於賈誼也 顧養望 有素士大夫國人皆信之也 抑謂不獨用人者 俾養人望也 卽見用者 先養已望 望重而後人不貳 人不貳則惟展試之 靡不如志焉俾養人望者 成人也 先養已望者 成己也 未有不成己而能成人者也

재주와 도량을 논함

북송의 재상 한기(韓琦)[132]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논하면서 재주와 그릇이 넓어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이 큰 것에 매우 기뻐하였지만 말이 세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있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才)'라 하고 도량(量)이 있는 것을 '기(器)'라 한다. 오직 능력이 있고 난 뒤에 천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오직 도량이 있고 난 뒤에 천하의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인(大人)이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133]라고. 오직 한정된 그릇이 아니어야 큰그릇이 될 수 있다. 옛날의 이윤(伊尹)[134]과 주공(周公) 같은 사람이라야 큰그릇에 속한다.

사람됨이 이윤(伊尹)과 주공(周公) 같으면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보다 아래 수준이면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도량이 없고, 도량이 있으면 반드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천하에 베풀 때는 분별력은 있지만 책임감이 없어서

132)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1008~1075). 자는 치규(稚圭),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젊어서 진사에 합격, 지주안무사로서 사천의 기민(飢民) 190만 명을 구제하고, 이어 서하의 침입을 격퇴하여 변경방비에도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30살에 이미 문무에 명성을 떨쳐 추밀부사가 되었다. 그러나 자청하여 지방관을 역임하고, 56년 삼사사(三司使), 58년에는 재상에 올라 약 10년간 국정에 참여하였다. 신종 즉위 후 다시 지방으로 나갔으며, 왕안석의 청묘법(靑苗法) 실시를 맹렬히 비난하고, 또 거란이 요구해온 영토 할양에도 반대하며 왕안석과 정면 대립함으로써 관직에서 물러났다.

133) 『논어』「위정(爲政)」에서 나왔다.

134) 은(殷)의 어진 재상. 이름은 지(摯). 탕왕(湯王)을 도와 하(夏)의 걸(桀)을 쳐서 천하를 평정하였다. 탕이 죽은후 그의 손자인 태갑(太甲)이 무도(無道)하였으므로 이를 동궁(桐宮)에 내친 뒤 3년 만에 그의 뉘우침을 보고 다시 제위에 복귀시켰다.

일이 넓지 못하고, 책임감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책임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된다.

도량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관중(管仲)[135]일 것이다. 가령 그의 도량만으로 만약 천하의 일을 맡게 하였다면 환공(桓公)[136]을 도와서 왕실을 존중하고 스승인 상보(尙父)[137]의 일을 있지 못하였을 것이니 아름다움이 주공에 짝하겠는가?

능력이 도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갈양(諸葛亮 : 諸葛孔明)이다. 가령 그의 능력만으로 천하의 일을 분별하게 하였다면 어찌 한(漢)나라의 도둑을 없애고 중원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이윤이 될 수 없어서 한 지아비로 하여금 이루려고 하는 뜻을 얻을 수 없게 하지 않았겠는가? 이는 재주와 그릇은 반드시 같이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함께 기록한 것은 그 말이 아직 세밀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품부 받은 것을 탓하니 품부 받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어서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량이 부족한 사람은 뜻을 탓하니 뜻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니 어찌 하늘이 빼앗을 수 있겠는가? 재주는 크지만 그릇이 재주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어찌 그릇이 큰데 재주가 작은 것과 같겠는가? 이는 성인께서 관중에 대해 그릇이 작다고 한탄하고,[138] 뒷날 위로 거슬러 올라가 논하는 사람이 제갈양에 대해서는 바로 왕을 돕는 재주라고 허락하였으니 부득이 이

---

135) 춘추시대 제(齊)나라 재상(宰相). 자 중(仲). 이름 이오(夷吾). 가난했던 소년시절부터 평생토록 변함이 없었던 포숙아(鮑叔牙)와의 깊은 우정은 '관포지교(管鮑之交)' 라 하여 유명하다. 환공(桓公)이 즉위할 무렵 환공의 이복 동생인 규(糾)의 편에 섰다가 패전하여 노나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포숙아의 진언으로 환공에게 기용되어 국정(國政)에 참여하게 되었다. 환공을 도와 군사력의 강화, 상업·수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동방이나 중원(中原)의 제후와 9번 회맹하여 환공에 대한 제후의 신뢰를 얻게 하였으며, 남쪽에서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초(楚)나라를 누르려고 하였다.

136) 중국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군주(재위 B.C. 685~643). 춘추 5패(五霸)의 한 사람이다. 내란으로 형 양공(襄公)이 살해된 후, 이복동생 규(糾)를 몰아내고 즉위하였다. 포숙아(鮑叔牙)의 진언으로 규의 옛 신하인 관중(管仲)을 재상으로 기용, 그 후 관중의 협력으로 제후와 회맹(會盟)하여 신뢰를 얻었다. 특히 규구에서의 회맹으로 그의 패자의 자리가 확립되었다고 전해진다. 또 산융(山戎)을 거쳐 연(燕)을 구하고, 노(魯)의 내란 평정에 힘을 기울였으며, 오랑캐의 침입으로 멸망한 형(邢)을 이의(夷儀)로, 위(衛)를 초구로 옮겨 부흥시켰다. 내정에서는 군사적 강화와 상업·수공업의 육성으로 나라를 튼튼히 하였다. 만년에 관중의 유언을 무시하고 전에 추방한 신하를 재등용하여 그들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죽은 후 내란이 일어났다.

137) 주나라의 현신(賢臣)인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尙)의 존호(尊號).

138) 『논어』「팔일(八佾)」"子曰 管仲之器小哉 或曰 管仲儉乎 曰管氏有三歸 官事不攝 焉得儉 然則管仲 知禮乎 曰邦君 樹塞門 管氏亦樹塞門 邦君 爲兩君之好 有反坫 管氏亦有反坫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집해야 한다면 나는 장차 능력을 버리고 도량을 취할 것이다. 송대(宋代)의 사람으로 말해보면 비록 갑자기 이윤·주공·관중·제갈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점은 재주와 그릇은 다른 시대에서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항(李沆)[139]과 왕증(王曾)은 도량(量)은 혹 근사하지만 재주는 모자란다. 구준(寇準)[140]은 재주는 근사하지만 도량은 모자란다. 범중엄[141]은 재주도 좋고 도량도 좋아서 옛사람에 비교하여도 모자라지 않지만 크지는 못하다. 기(琦)는 도량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현명한 선비들이 세상 경영은 뛰어나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재주는 걸맞지 않을 수도 있나보다. 그렇지 않다면 온세상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을 것이다. 재주와 도량을 모두 갖추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근심할 만한 것이 대개 이와 같을 것이다.

才器論

宋相韓琦論經綸事業 以爲才器周 可以當四面 余甚喜其言之大 而猶恨其言之之未密也 蓋有能之謂才 有量之謂器 惟有能而後 可以辨天下之業 惟有量而後 可以任天下之責 兼而有之 斯爲大人焉 孔子曰 君子不器 惟不器可以爲大器也 古之人伊尹周公可以當之矣 夫人而如伊尹周公 可不謂之大乎 下此則有能未必有量 有量未必有能 其施之天下也 辨而不任 業未弘 任而不辨 責未充 量不及能者 管仲是已 使其量果任天

139) 중국 북송 때 사람. 자는 태초(太初),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태평흥국의 진사로 벼슬은 함평 초기에 평장정사(平章政事)를 지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먼저 생각하여 먼저 알았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성상(聖相)이라고 일컬었다.

140) 중국 북송 때 사람. 자는 평중(平仲).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서 춘추삼전을 통달했다. 태종 때는 진사(進士) 벼슬을 지냄. 진종(眞宗)때는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文下平章事)의 벼슬을 지냈다. 글안(契丹)의 침입에 여러사람의 생각을 물리치고 진종의 친정(親征)을 청하여 맹약을 이루고 돌아왔다. 저서에 『파동집(巴東集)』이 있다.

141)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학자(989~1052). 자는 희문(希文), 시호 문정(文正)이다. 인종의 친정이 시작되자 부름을 받아 중앙에서 간관(諫官)이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곽황후(郭皇后)의 폐립문제를 놓고 찬성파인 재상 여이간(呂夷簡)과 대립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으로 좇겨났다. 그 뒤로 구양수·한기 등과 함께 여이간 일파를 비난하였으며, 자기들 스스로 군자의 붕당(朋黨)이라고 자칭하여 경력당의(慶曆黨議)를 불러일으켰다. 1038년에 이원호(李元昊)가 서하에서 제위에 오르자, 협서경략안무초토부사(陝西經略安撫招討副使)가 되어 서하 대책을 맡고, 그 침입을 막았다. 그 공으로 추밀부사가 되고, 이어 참지정사로 승진하여 내정개혁에 힘썼으나, 그를 미워하는 하송(夏竦) 일파의 저항이 강하여 다시 지방관을 역임하다가 병으로 죽었다. 저술로 『범문정공집(范文正公集)』이 있다.

下之責 可不輔桓公以尊王室 紹師尙父之業 匹美於周公邪 能不及量者 諸葛亮是已 使其能果辨天下之業 豈不能掃漢賊 淸中原以成伊尹 不使一夫不獲所之志邪 此才器之不能必兼審矣 而今乃幷之 此所以恨其言之未密也 嗚呼 能不足者 責之稟 稟由乎天 非人之所能强也 量不足者 責之志 志在乎人 豈天之所能奪乎 才大而器不稱之 曷若器大而才少遜焉 此聖人於管仲 有器小之歎 而後之尙論者於諸葛亮 直許以王佐才也 必不得已於斯二者 吾將捨能而取量也 且試以宋代之人言之 雖不可遽擬於伊周管葛而 要之才器不借於異代矣 李沆王曾 量或近之而才則短也 寇準 才有庶乎而量有愧焉 范仲淹 有才有量而方諸古人 俱未大矣 琦則量有過人者 故於當時諸賢 未嘗許以經綸 然意者才有未稱乎 不然一元昊惡 足患乎才器之難周也 蓋如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짓지 않는다는 것을 논함

사마광(司馬光)이 새로운 정치를 논하면서 왕에게 글을 올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집을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크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다시 고칠 필요가 없고, 다시 고치려고 하면 솜씨 좋은 목수와 재질이 좋은 목재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말이다. 오직 그는 당시에 솜씨 좋은 목수와 재질이 좋은 목재가 없어서 신종의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이다. 신종은 왕안석(王安石)을 솜씨 좋은 목수로 여기고 신법(新法)을 재질이 좋은 목재로 생각했지만 다시 짓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한번 새롭게 해보자고 생각하는 사마광의 말은 비록 옳았지만 어찌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겠는가?

신종은 현명한 임금이다. 비록 솜씨 좋은 목수와 재질이 좋은 목재가 있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다시 만드는 것은 반드시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면 망령되이 시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집에 열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데 한사람은 부자고 아홉 사람이 가난하면 부자는 집이 파괴되면 고치려고 생각하는데 아홉 사람이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때에 부자는 진실로 솜씨 좋은 목수와 재질이 좋은 목재를 얻어 반드시 고치려고 하는데 아홉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을 얻게 한 뒤에 옛것을 허물고 새것으로 바꾸어야 옳다.

만약 아홉 사람이 긍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어 억지로 헐어버리면 아홉 사람이 새로 지었을 때의 이익을 보기도 전에 먼저 있을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 성을 내지 않음이 없고 그 솜씨 좋은 목수를 원망하여 모두 떠들게 될 것이니 목수가 비록 좋고 아름다운 목재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새로 짓지 못할 것이다.

천하의 광대함은 한 집안에 비교될 것이 아니고 만 백성의 많음은 열 사람에 비교될 것이 아니지만 백성과 더불어 한번이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백성들은 원망하여 어수선하고 어지러워서 화를 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큰 소리로 떠드니 어찌 두려워 할 바가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잘 다스리는 사람은 법령과 제도가 크게 무너질 때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경우에 옛것을 말미암아 먼저 어진 정치로서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이 조금도 백성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반드시 크게 이익 되게 한다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한 뒤에 비로소 좌우가 손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같고 팔이 팔꿈치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서 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어진 정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백성의 삶을 순조롭게 해주어 그들의 감정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된다. 삶을 순조롭게 하는 것은 곧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이다. 또 신종은 크게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작게 여겼을 뿐이다.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 곳을 잃지 않게 한다면 비록 붕괴되지는 않지만 큰 것이니 어찌 다시 만들 수 있겠는가? 왕안석의 법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나 사용될 곳을 얻지 못했던 것이다. 사용될 곳은 무엇인가? 백성들을 이익 되게 하고 백성들이 법을 믿게 하는 것이다. 아 과연 백성을 이롭게 하고 과연 백성들을 믿게 한다면 비록 신법이라도 어찌 아름다운 재목이 아니겠는가? 비록 왕안석이라도 어찌 솜씨 있는 목수가 아니겠는가?

論治天下如治家非大壞不更造

司馬光論新政奏上云 治天下如治家非大壞不更造 欲更造非良匠美材不成 此不易之言也 獨恨其謂當是無良匠美材以故不能回神宗之意 蓋神宗以王安石爲良匠 以新法爲美材而姑未見更造之爲害 意欲一新之也 光之言雖正 惡足以動其心哉 神宗明主也 知雖有良匠美材 而使知大更造之 必亂天下 則或不妄試也 今有家於此十人同居焉 而一人富 九人貧 富人意其將壞欲新之 而九人者不肯焉 當此時 富人誠得良匠美材 而必欲更造 則使九人貧者 先得其托身之所 然後毁其舊而易之以新 斯可矣 若怒其不肯而强毁之 則彼未及見新造之利而先失其所 未有不怫然 怨其匠而群咻之 匠雖良材雖美必不能竟其造 夫天下之大非 比一家 萬姓之衆 非比十人 而與民一失其心 則其嗷嗷而鼎沸不止於怫然 群咻而已 豈不懍然畏哉 是以善爲治者 當其法制之大壞 欲更張之姑且仍舊 而先之以仁政 使斯民知上之人 無毫髮妨其生必大利益之 而信之如四時 然後始左右之 則如手之使指 臂之運肘 無不得其所欲焉 仁政之道無他焉 順民之生 毋咈其情焉已矣 順其生生者 卽其托身之所也 且神宗非慮其大壞也 蓋小之也 使居者不至失所則雖非壞也 而且大之 何不可更造之 有安石之法未必非也 卽不得其所以用也 所以用者 何也 利益民也而民信之也 嗚呼 果利益民也 果民信之也 雖新法何嘗非美材 雖安石何嘗非良匠也邪

북소리를 듣고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에 대해 논함

천하의 일은 항상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지고 게으름에서 무너진다. 사람이 남보다 뛰어나게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남보다 뛰어난 부지런함이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함은 큰 일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또한 부지런히 하며, 급한 일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비록 여유 있는 일 일지라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해가 뜨면 일이 있고 밤은 아침과 낮을 쉬게 하는 때이다. 그런데 아침과 낮에 틈도 없었는데 밤이 다가온다. 이 때문에 오직 부지런해야 쉴 틈이 생긴다.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바쁘다. 한가함은 미리 준비하는데서

생기고 바쁨은 갑자기 하는 데서 생긴다. 미리 준비하면 힘이 여유가 있고 갑자기 하면 힘이 다 소모된다.

힘이 여유가 있으면 일이 잘되고 힘이 소모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인가? 게으른 사람은 낮의 틈을 잃은 것이 절반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밤의 틈 얻은 것이 절반이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의 틈은 게으른 사람보다 항상 네 배이고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것도 항상 네 배이니 어찌 다른 사람보다 네 배나 여유로우면서 힘이 여유가 없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해서 힘에 여유가 있을 뿐인 것이다.

옛날에 장영(張詠)[142]이 금릉(金陵)에서 전직을 맡고 있는데 범연귀(范延貴)가 들러 장영에게 일러 말하였다.

"범향현에 들어가니 역마·다리·길이 모두 완전하고 밭과 들이 잘 개간되어 있고 가게에는 도박이 없고 밤이 오래되어 집안에서 북소리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역마·다리·길·밭·들·저자는 위정자가 힘을 기울이는 곳이다. 위의 것들을 보고 그것이 다스려지고 있는 것임을 아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다. 오직 북소리를 듣고 그것이 잘 다스려지는 정치임을 아는 것은 밝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대개 북소리는 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밤을 경계해주는 것이다. 밤을 알려주는 것은 일의 작은 것이고 완만한 것이며 밤을 경계시켜야 할 때 경계함이 있지 않으면 또한 일의 크고 급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정해진 법도는 있고 뒤얽힌 일이 없는 것을 분명한 것이라 한다. 일이 작고 완만한 것은 정해진 것은 있지만 뒤얽힌 것이 없으니 그 크고 급한 일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른바 부지런하여 한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또 이른바 마음을 사용함에 남보다 두 배나 다섯 배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는 힘에 여유가 있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좋은 정치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

142) 중국 북송 때의 사람. 자는 복지(復之), 호는 괴안(乖岸),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태평흥국의 진사였다. 벼슬은 처음에는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를 지내고 나중에는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지냈다. 저서에 『괴안집(乖岸集)』이 있다.

아아! 연귀(延貴)와 같은 사람은 남의 정치를 잘 관찰했다고 할 수 있다. 장공을 일컬어 희안(希顔)이라고 하고 좋은 정치를 한 사람이며 하늘의 관리이며 또 좋은 관리라고 했다. 희안은 범향현 현감이고 그의 성은 또한 장씨라고 한다.

論間更鼓知善政

天下之事 常集於勤而壞於惰 人之能成絶人之業者 必其有絶人之勤者也 夫勤者 非惟大事之是勤 雖小者亦勤焉 非惟急事之是勤 雖緩者亦勤焉 人日出而有事 夜則朝晝之所息也 然而朝晝之所未暇 夜而及焉 是以惟勤者而後 有閒隙 而不勤者 常忙焉 閒生於豫而忙由乎猝 豫則力紓 猝則力屈力紓則事不廢 力屈則事不集 何者 惰者失晝之隙居半而勤者得夜之隙亦居半 故勤者之隙 常四倍於惰者而其用心亦常四倍焉 焉有四倍於人而力不紓 事不集者乎 是以善爲政者 無他 能焉能爲 力有餘而已矣 昔張詠守金陵殿直 范延貴 過之謂詠曰 入范鄕縣 驛傳橋道皆完 田野闢 市肆無賭博 夜宿邸中聞更鼓分明 是其善政者也 夫驛傳橋道田野市肆卽爲政之所力焉 見而知其治 夫人而能之 有聞其更鼓而知其爲善政 非明者 不能焉 蓋更鼓所以報夜也 亦所以警夜也 報夜事之小而緩者也 警夜非有警焉則亦非事之大且急者也 有定度無錯節 斯之謂分明也 事之小而緩者 有定而無錯焉 其大者急者可以知矣 非所謂勤而能閒者乎 非所謂用心倍蓰於人者乎 其必力有餘而事無不集者也 非善政而何 嗚呼 若延貴 可謂善觀人之政也 宜乎張公之稱之曰 希顔 固善政 天使亦好官員也 希顔者 范鄕縣宰而其姓亦張云

한세충(韓世忠)이 두문불출하여 손님을 사절하고 병사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논함

한세충(韓世忠)[143]은 송나라 고종(高宗) 때의 이름난 장수이다. 삼만의 병사로서 초주에 십 년 정도 있는 동안 금인(金人)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다. 진회(秦檜)가

143) 중국 남송(南宋) 건국 초의 무장(武將). 자는 양신(良臣)이다. 북송이 망하자 부하를 거느리고 고종(高宗)에게 달려가 남쪽의 묘부(苗傅)·유정언(劉正彦)의 난을 평정하고 올출(兀朮)을 격파하여 자못 권세를 떨쳤으나 진회(秦檜)의 책략으로 병권을 빼앗긴 후 서호(西湖)에 은거하여 스스로 청량거사(淸涼居士)라 일컬었다.

금나라와 화해정책을 사용함에 미쳐서는 몰래 예천의 관사를 제거하고 두문불출하여 손님을 사절하고 절대로 병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석정산인(石亭山人)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충(世忠) 같은 사람은 달인(達人)이라 할 수 있으며 명장(名將)일 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오직 능력에 부림을 당하지 않아야 막히는 것이 없고 막히는 것이 없는 뒤라야 기미의 밝음을 보고 기미의 밝음을 보게 되면 나아가고 물러남에 그 올바름을 잃지 않으니 이것을 달인(達人)이라고 한다.

장수가 되어 군대를 잘 이용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장수이다. 옛날의 명장 백기(白起)[144]와 한신(韓信)은 참으로 군대를 잘 이용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자기를 알고 남을 알았으니 지혜롭지 못한데 능히 그럴 수 있겠는가? 진나라 왕이 백기로 하여금 조(趙)나라를 정벌하라고 자주 요청하였는데 백기가 정벌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조나라에게 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직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장차 패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유독 임금의 마음을 잃고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능력이 있는 것 을 숨기는 것은 오직 자기의 능력 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이것은 능력에 부림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한신은 한나라를 도와 초나라의 부절을 쪼개어 왕으로 봉해져 군현을 순행하는데 병사를 늘어 세우고 드나들었으니 이는 또한 능력 있는 마음이 아직 그치지 않은 것이다. 한신은 일찍이 무리 수십만을 모아 천하에 두루 다녔는데 무리들을 지휘하기를 귀신과 같이하고 호령하기를 격렬한 천둥·신비로운 왕·기개 있는 장수와 같이하여 앞장서도 가로막는 것이 없고 물러나도 두려움이 없으니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공이 이루어져 몸을 물리는 날을 당하여 그 마음을 보존하고 다시 일으키지 않았으니 이른바 막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

144) 중국 전국시대의 진(秦)나라의 명장. 섬서성(陝西省) 미현(郿縣)사람. 소양왕때 무안군(武安君)에 봉군(封君)됨. 용병을 잘하여 적국의 70여 개의 성을 빼앗았고 서기 260년에는 장평(長平)에서 조나라의 대군을 격파하여 40만의 항졸(降卒)을 생매장 하였다. 후에 응후(應侯)·범저(范雎)와 사이가 틀려 파면당하였다가 다시 사사(賜死)되었다.

한신은 스스로 말하기를,

"교활한 토끼가 죽으니 달리는 개를 삶고, 높이 나는 새가 잡히자 좋은 활은 감추어진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들은 것은 익숙하게 해서 때에 맞게 임하고 아직 나아가는 줄은 알지만 물러나는 것은 보지 못했으니 어찌 지혜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겠는가? 아니면 지혜가 능력 있는 마음에게 빼앗기는 것이겠는가?

이 두 사람의 행위를 논한 뒤에야 세충(世忠)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두 사람의 할 수 없는 것·하지 않은 것은 능력을 감춘 뒤에야 세충이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겠다. 오직 통달한 뒤에 참으로 명장이 되는 것이다.

세충이 일찍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서 말하기를 "진회[145]는 나라를 더럽히기를 두 번 하였다. 어찌 재앙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겠는가?"라고 하였다.

가슴속에 막힌 것이 없으면 천하의 물건을 들어도 겨자를 품을 수 없는데 하물며 병사이겠는가? 하물며 구차한 하나의 능력이겠는가?

아아! 바야흐로 나귀를 타고 물을 가지고 한 두 명의 동자를 데리고 서호(西湖)[146]에서 유람을 할 것이니 어찌 다시 길들이지 않은 말을 타고 독화살을 뽑는 그런 기상이 있겠는가? 대처하기를 만나는 것에 따라 했을 뿐이니 어찌 그 사람을 통달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

145) 중국 남송 초기의 정치가(1090-1155). 자는 회지(會之). 1115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31년 이후 24년간 재상의 자리에 있었다. 그 동안 남침을 거듭하는 금군(金軍)에 대처하여 철저한 항전을 주장하는 군벌이나 명분론·양이론(攘夷論)의 입장에서 실지(失地)회복을 주창하는 이상주의 관료 등의 여론을 누르고, 42년 회하(淮河)·진령(秦嶺)산맥을 잇는 선을 국경으로 하여 금과 남송이 중국을 남북으로 나누어 영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조건으로 송나라는 금나라에 대하여 신하의 예로 취하고 세폐(歲幣)를 바쳤다. 유능한 관리였으나 정권유지를 위해 '문자의 옥'을 일으켜 반대파를 억압하였으므로 민족주의·이상주의를 내세운 후세의 주자학파로 부터는 특히 비난을 받았다. 그의 손에 옥사한 악비(岳飛)가 민족의 영웅으로 존경받는데 반하여, 그에게는 간신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146) 지금의 중국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 서쪽에 있었던 호수.

論韓世忠 杜門謝客絶口 不言兵

韓世忠 宋高宗時 名將也 以三萬兵在楚州十餘年金人不敢犯 及秦檜主和乃焉閒除醴泉觀使 杜門謝客 絶口不言兵 石亭山人曰 若世忠 可謂達人也 不獨名將已也 人惟不役於能而後 無所蔽 無所蔽而後 見機明 見機明則進退不失其宜 斯其爲達人也 夫爲將而善用兵者 將之能也 古名將白起韓信宜爲之最而善用兵 必知己知彼 不智而能然乎 秦王使白起伐趙屢請而不起 蓋慮其爲趙所敗也 未戰而知其將敗 誠智矣 然而獨不能慮 其失君之心與夫違君命之爲罪 何也 蔽於所能也 惟其衒已能之心 重於順君命也 此非役於能者乎 韓信爲漢殘楚剖符封王 而行郡縣陳兵出入 蓋亦能心未已也 信嘗擁衆數十萬 横行天下 指揮如鬼神 號令如雷霆 神王氣壯 前無阻後無畏者 能之所爲也 當功成身退之日 而其心存而不復制 非所謂有蔽者邪 信自言兎死而狗烹鳥盡而弓藏 必其所聞者 熟而臨時 未睹其知進而不能退 豈智之不及邪 抑智爲能心之所奪耳 夫論二子之所爲然後 見世忠之爲不役於能也 蓋二子之不能不爲 能之所蔽然後 歎世忠之爲達人也 惟達而後爲眞名將也 世忠嘗上書言 秦檜誤國者再矣 是豈畏禍者邪 胸中無滯則擧天下之物 不足以芥懷 況兵乎 況區區一能乎 嗚呼 方其跨驢携滴 從一二童遊西湖也 豈復有騎生馬拔毒矢之氣岸邪 處之惟所遇而已 焉可不謂之達邪

마음의 세밀하고 미묘한 것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논함

사람 마음은 신령스럽고 모양이 없어 들어가도 안이 없고 나와도 바깥이 없다. 그래서 귀로 일찍이 들은 적도 없고 눈으로 일찍이 본적도 없고 손으로 가리킬 수도 없고 발로 도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령함이 모이면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세밀하고 미묘함의 지극함이 된다. 지극히 세밀한 것을 일러 정(精)이라고 하고 지극히 작은 것을 일러 미(微)라고 한다. 이에 다시 지극히 세밀하되 세밀함이 없는 데까지 다하고 지극히 작되 작은 것이 없는 데까지 다한 것을 어찌 모양이 있는 것이 자기의 능력을 다할 수 있겠는가?

입은 목구멍·혀·입술·이가 모여 사람 몸에 붙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이다. 말

은 목구멍에서 나와 입술·혀·어금니·이빨의 사이에서 두루 돌아 비록 심령(心靈)이 시키는 것이지만 모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소리가 된다. 모양이 있는 것으로 매개되지 않으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록 지극히 세미하고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만일 매개되는 것이 있으면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극히 세밀하되 세밀함이 없는 데까지 다하고 지극히 작되 작은 것이 없는 데까지 다한 것은 매개되어 드러내고 소리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마음의 정미하고 세밀한 곳은 입으로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나라 정공이 공자에게 "한마디의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말은 이와 같이 근사할 수는 없거니와 사람들의 말에 '임금노릇하기가 어려우며 신하노릇하기가 쉽지 않다' 하였으니 만약 임금 노릇 하는 것의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147)

무릇 나라를 일으키고 잃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니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면 나라의 일어남과 잃음이 이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 이와 같다. 한마디 말로서 그 항상 됨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대체(大體)를 알기 때문이니 기이한 것을 좋아하면서 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나라 임금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면 나라에 일이 생겨 나라가 불안하고, 재상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면 조정에 일이 생겨 조정이 불안하고, 선비가 기이한 것을 좋아하면 선비들에게 일이 생겨 선비들이 불안하고, 백성이 기이한 것을 좋아하면 자기와 집에 일이 생겨 자신과 집이 불안하게 된다. 비록 그렇지만 이 여러 가지를 고치면 구제되어 오히려 바뀌어 편안하게 될 수 있다. 병사를 사용하는데는 자못 심한 것이 있다. 오직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기회의 순간은 호흡하는 짧은 순간에 있는데 한번 잃어버리는 경우 기회를 구하려하나 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니 그 위태로운 것을 두려워함이다. 만일 공을 구하는 마음이 가운데에서 일어나면 기회가 나타나도 앞에서 보지 못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병사를 사용할 때는 오직 이기는 것을 주로 하고 기이한 공을

147) 『논어』「자로(子路)」에서 나왔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 청(靑)은 대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군대는 기이한 것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니 어찌 기이한 공을 구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전쟁에서 기이함으로서 이긴다는 것은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군대를 다스릴 때 정해진 규율이 있고 승리할 때는 정해진 형세가 없다. 그러므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을 바른 것이라 하고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기이한 것이라고 한다. 만약 생각이 기이한 공적에 있으면 비록 탈 만한 기회가 있더라도 공적이 기이하지 않으면 할 것이 못된다.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데 승리하지 않는 것을 기이한 병사라고 할 만 하겠는가?

청(靑)[148]의 일로 말해 보면 밤에 장교들에게 술잔치를 베풀어주고 12시에 이미 곤륜관(崑崙關)을 빼앗은 사람은 기이한 병사였다. 승리할 때는 응당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경원(涇原)의 승리에 적국의 군사를 추격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두커니 서서 공격하지 않음을 후회하니 후회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기이한 공적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무릇 이와 같이 하니 어찌 혹 잃은 것이 있겠는가? 이것을 훌륭한 장군이 대체(大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心之精微 口不能言論

人心之靈 無形無象而入無內 出無外 凡耳之所未嘗聞 目之所未嘗覩 手之所不能指 足之所不能到 皆神會而得之 斯之爲精微之至也 至細之謂精 至小之謂微 而乃復至細而極於無細 至小而極於無小 夫豈有形象者所能盡哉 口也者 喉舌脣齒之會也而附麗人身之有形象者也 言發於喉 周旋乎脣舌牙齒之間 雖亦出於心靈之所使而能因其有形象者爲之聲 未有形象之可因則無以自內而宣外 故雖至細至小者 纔有所因則皆可得以喩之 特其至細而極於無細 至小而極於無小者 無因以發之聲也 是以心之精微者 口固不得以言也 魯定公問於孔子曰 一言而可以興邦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夫邦之興喪 在於心 心一萌而善惡判 善惡判而興喪斯繫焉則有若 可以一言而定其其常者 識大體者也 未有好奇而不壞事者也 國君而好奇則生事於國而國不安 宰相而好奇則生事於朝著而朝著不安 士而好奇則生事於士流而士流不安 百姓而好奇則生事於

148) 송나라 장수.

身家而身家不安矣 雖然斯數者改則救焉 猶可轉而爲安 至用兵殆有甚焉 惟不失機會者勝而 機會之際在於呼吸之頃 一失焉欲救而不能及凜 凜乎其危矣 若有求工之心萌乎中則機會之見 矇乎前而鮮不失矣 故用兵惟勝之是主而奇功不容求也 嗚呼 若靑 可謂識大體矣 或者以爲兵以奇勝 何奇功之不可求哉 惡是何言也 兵以奇勝者 非不失機會之謂乎 治兵有定律而制勝無定勢 故以有定者謂正 而無定者爲之奇也 若意在於奇功 雖有可乘之機 功不奇則不足爲也 然而能制勝乎不能制勝 可謂奇兵乎 以靑之事試言之 夜饗軍校而三鼓已奪崑崙關者 奇兵也 制勝者應如是矣 涇原之勝不追虜兵且曰宁悔不擊 無悔不止 斯不求奇功也 夫如是 豈或有失乎 可不謂良將之有大體者邪

송유재 군장(君章)의 모친(萱堂) 61세를 축하하는 수서(壽序)

남의 장수를 비는 글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중기에 있었다. 부인의 장수를 비는 글은 더욱 옛날에는 없었다. 내가 일찍이 이대규(李大奎)를 위하여 그 모부인(母夫人)의 장수를 비는 글을 지어주었고 오늘에 또 군장(君章)[149]을 위하여 어머니의 장수를 비는 글을 지어주었다. 대개 두 사람의 선대인(先大人)[150]과 나는 정이 독실하였는데 나이가 오십도 되기 전에 돌아가시니 나는 매우 슬퍼하였다. 두 사람은 일찍이 고아가 되었고 점점 장성함에 모두 어머니의 명령을 계승하여 나에게 문자를 배웠다. 그대들 어머니의 회갑을 맞이하여 나는 오직 두 사람의 선대인을 추모하여 장수하고 일찍 죽는 느낌이 없을 수가 없고 그대들이 마침 장수를 비는 글을 지어 달라고 요청하니 이것이 내가 옛스러운지 옛스럽지 않은지 묻지 않는 까닭이다.

그대와 나는 같은 마을에 살았고 그대는 나에게 아침저녁으로 두루 보살펴 주었다. 그대의 집에 작은 일이 일어나면 그대의 어머니께서는 질문하여 말하기를 "너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던가?"라고 하였다. 그대는 어머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질문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올바른 일이면 실천하라."라고 하였다.

어디에 갈 일이 있으면 그대의 어머니가 질문하기를, "너의 선생님이 허락을 했

149) 한말의 유학자 송기면(宋基冕 : 1882~1956)의 자. 호는 유재(裕齋), 전북 김제 출생. 29세 때까지 10여 년 동안 석정 이정직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30대 후반에 간재(艮齋) 전우(田愚)에게 나아가 문학하였다. 석정에게서는 시문·서화·의약 등 실용지식을 포함한 박학적인 학풍을 전수받았다면 간재를 통해서는 성리와 의리에 관한 집약적인 학풍을 받아들였다.

150) 남의 돌아간 아버지의 경칭.

는가?"라고 하고 그대는 어머니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말하기를, "옳은 일이면 가도 좋다."라고 하였다.

그대는 일찍이 어머니의 말을 진술하였는데 "너의 자질이 야위고 약하고 집안의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못한데 너를 집안에 얽어매면 너의 학문에 방해가 될 것이다. 아마 하늘이 나의 생애를 빼앗지 않고 네가 집안 일에 신경 쓰지 않아 네가 학업을 마쳤으면 나는 한이 없겠다."라고 하였다.

아! 오늘날 사람들은 권세와 이익을 숭상하여 공경(公卿)의 대부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글 배우는 것을 시대에 급한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여 풍속을 이루었는데 그대와 어머니는 오로지 그대의 학문에 책임을 다하는데 뜻을 두어 그대에게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여 옛 제자의 예로 집정하니 이는 오직 옛날의 현명한 부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돌아보건대 나는 너무 거칠고 게을러서 자네를 받아들여 자네 어머니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다만 자네 어머니의 건강이 좋아서 자네로 하여금 집안살림에 뜻을 두지 못하게 하더라도 여러 생각을 잊을 수 없었는데 하물며 내가 자네의 선대인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이 가슴속에 맺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그대 어머니의 장수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대의 선대인(先大人)의 장수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 이는 끝없는 정(情)에서 나온 것이다.

생각해 보면 사람이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하늘이다. 그러나 하늘은 이치가 있는 곳이다. 이치가 온전하면 한결같고 한결같으면 기(氣)의 유혹되는 것도 간섭할 수 없다. 이것이 이치의 단정할 만한 것이다. 무릇 남의 부모가 되어서 세상의 풍속에 따라 이익을 쫓지 않고 그 자식을 인도하기를 오직 학문에 힘쓰는 것으로 하니 이치의 바른 것이다. 자식이 되어서 학문에 마음을 두어 그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도 또한 이치의 바른 것이다. 뜻을 한결같이 해서 이치에 의심을 갖지 않는 것이 한결같은 것이다. 이것으로 그대 어머니의 장수를 원하니 나는 분명 장수하실 것을 알겠다.

현명한 어머니가 계신데 그 아들이 학문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이치는 없다. 과연 그대의 학문이 이루어졌으니 이 이치를 믿을 만 하고 어머니의 장수할 것을 나는 반드시 알겠다. 이에 지난번 그대 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거의 위로가 되고 그대가 어머니의 장수를 바라는 뜻이 어찌 여기서 벗어나겠는가?

宋裕齋君章萱堂六十一歲壽序

序壽非古也 中代有之 而序婦人壽 尤非古也 余嘗爲李大奎序其母夫人壽 今也又爲君章序其母夫人壽 蓋二君先大人與余 情義篤密 而年皆未五十而卒 余甚悼惜之 二君皆早孤而所長 皆承其母夫人命 受文字于余 當其母夫人甲子一周之歲 余追惟二君先大人 不能無壽夭之感 而二君適皆請序 其稱觴祝壽之意 此余所以不問古不古也 君章又與余 居同里 朝暮於余 所周旋焉 其家有微小事 其大夫人問曰 汝先生云何如 君章承命來質 余曰可而後行焉 或有所適 其母夫人問曰 汝先生許之否 君章承命來告 余曰可而後出焉 君章嘗陳其大夫 人之言曰 汝天質羸弱而家生未給 使汝縻於玆 將妨于學 倘天不奪吾年 爲汝視家事無兮 汝志得卒業 吾無恨矣 嗚呼 方今天下尙權利 自公卿至閭巷 指文字謂非時務 萬口一辭 牢以成俗而君章大夫人 專意責其子學問 命其子就余 執古弟子禮 此惟古之賢婦人得有之矣 顧余疎蕪衰懶 無以應君章以副其大夫人之望 而特願其大夫人之精力康强 無使君章志兮乎家生 則未嘗忘諸懷 況余於君章先大人 所悼惜者 朋結乎中 今視君章大夫人壽 如將壽君章先大人 此又出於情之不容已也 試思之 人之所難必者 天也 然天者理之所在也 理全則壹 壹則氣之或然者 不能干焉 斯理之可必者也 夫爲人之親能不徇俗以趨利 而導其子 惟文學之是勉者 理之正也 爲子而能存心於學問 以養其親之 志者亦理之正也 志專而不貳理 斯壹焉 以此而願君章大夫人之壽 吾知其必矣 是賢母而其子之不能成學 理所無也 果君章之學之得成 其理可信焉則其大夫人之克享遐壽 吾知其必矣 於是 向之爲君章先大人有感者 庶足以慰焉而夫君章稱觴祝壽之意 豈有出乎此外者乎

적청(狄靑)은 군대를 움직임에 승리를 주도하고 특별한 공을 구하지 않은 것을 논함

송나라 적청[151]은 장군이 되어 군대를 움직임에 승리를 위주하였을 뿐 남달리 특별한 공을 구하지 않았으니 근본을 아는 훌륭한 장수라고 할 수 있다. 무릇 장수는

151) 중국 북송 때 사람. 분주 서하인(汾州西河人)으로 자는 한신(漢臣)이며 시호는 무양(武襄)이다. 범중엄(范仲淹)의 제자로 병법에 정통하였다. 서하의 반란을 평정하고 또 농지고(儂智高)를 평정하고 돌아와서 추밀사(樞密使)에 임명되었다.

임금에게 명령을 받는데 병사의 예리함과 둔함은 국가의 안정과 위태로움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쟁은 국가의 일이고 공(功)은 자신의 도모함이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가가 편안해지면 비록 자신이 공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괜찮으니 어찌 특별한 공을 구하겠는가?

특별한 공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닌데 항상 있지도 않은 공을 구하면 항상 있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항상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패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훌륭한 장수는 특별한 공에 대해서 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구하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을 희망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을 구함으로서 병사의 일을 붕괴시키는 사람일이 가끔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는가? 무릇 천하의 대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면 이것을 일러 항상됨을 잃지 않고 흥하거나 망함을 잃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자는 기약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마음의 미세한 곳은 한마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약 임금 노릇 하는 것이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는데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대개 만약 무엇을 안다고 말한 것은 마음으로 묵묵히 하나되지 못하면 마음의 미세한 곳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호연지기(浩然之氣)[152]를 물었는데 맹자가 대답하기를 "말하기 어렵다."[153]라고 하였다. 말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록 말을 하지만 형용할 수 없고 비록 형용할 수 없어 이룰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해서 곧음으로 길러서 해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대개 '기른다'라는 말은 반드시 마음에 얻고 난 뒤에 입에서 말할 수 없던 것을 능히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릇 모든 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일러 그 항상 됨을 잃지 않는 것이라 한다.

석정산인은 말한다. 내가 『한서(漢書)』 장창(張敞)[154]의 전기를 읽고 그가 임금에

152) 천지(天地) 사이에 가득 차 있는 지대지강(至大至剛)의 원기. 곧 도의(道義)에 뿌리를 박고 공명 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를 말한다.

153) 『맹자』「공손추(公孫丑)」"敢問何謂浩然之氣?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 我故曰 告子未嘗知義 以其外之也."

154) 중국 전한 때 사람. 자는 자고(子高)이다. 선제 때 태복(太僕) 벼슬로 있으면서 절실하게 간하여 명성을 얻게 되었다. 교주(膠州)에 재상으로 천거되어 잘 다스렸다. 경조윤(京兆尹 : 수도

게 올린 글에 뭐라고 말한 것을 보았다. 장창이 하고자 한 것은 선제(宣帝)가 자기를 불러서 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주역』「계사전(繫辭傳)」에서 말한 "말은 뜻을 다 표현할 수 없다."[155]에서 얻어서 그것을 특별히 더 넓힌 것이다. 무릇 입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다시 마음의 미세한 곳에서 구한다면 이것이 지극한 방법이다.

論狄靑用兵主勝不求奇功

宋狄靑爲將 其用兵主勝而已 不求奇功 可謂識體之良將矣 夫將受命於君 兵之利鈍而國之安危繫焉 故戰者 國之事 功者 身之計 苟戰勝而國安 雖身不居功耳可也 豈奇功之是求哉 奇功不常有 不常有而求之則常有者 得無失乎 失其常有 可無敗乎 是以良將之於奇功 非惟不可求 蓋不容求也 然而世之希功者 以求奇而壞兵事者 往往有之 豈不歎哉 大凡天下之事 行其所當行 斯謂之不失其常 不失興喪矣 然而夫子曰 不可以幾也 心之精微 非一言所可盡也 故曰如知爲君之難也 不幾乎一言而興邦乎 蓋如知云者 不能以心默契則不知其精微也 公孫丑問浩然之氣 孟子曰 難言也 難言者 非不欲言也 雖言之 不能形容之也 雖不能形容之 不可以遂已也 故曰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蓋以養云者 必得之於心而後 能盡其口之所不能言也 石亭山人曰 余讀漢書張敞傳 觀其所上封事有曰云云者 敞之意欲 宣帝之徵己而問之 然其言則有得於易繫所云言不盡意者 故特暢論之 夫口之所不能言者 復於心之精微求之 斯其至矣

파초 심는 것을 논함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얻고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 이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음이 있는데 반드시 얻지 못하거나 마음이 없는데도 얻는 것은 이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로 말미암은 것은 내가 한 것이고 자기로

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조정의 큰일에 참여하였다. 나중에 기주자사(冀州刺史)가 되었고 원제(元帝)가 등극하자 좌풍익(左馮翊)에 임명되었다가 병으로 죽었다. 일찍이 부인을 위하여 눈썹을 그려주었다고 한다.

155) 『주역』「계사 상(繫辭上)」"子曰 書不盡言 言不盡意 然則聖人之意 其不可見乎"

말미암지 않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기로 말미암지 않은 것에서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살펴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남의 집에서 높고 크고 잎이 크고 쌀을 이는 키와 같이 깨끗한 파초를 심는 것을 보고 기뻐서 마음으로 항상 심고자 하였으나 수 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 심지 못하고 있었다.

금년 여름에 나는 집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송군(宋君)이 파초 한 그루를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옛날에 일찍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풀 중에 파초가 사랑을 받으니 파초는 화려한 자태는 없지만 늠름하여 다른 것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스럽다."

라고 들었으니 이 때문에 선생님을 위하여 파초를 정원에 심었습니다. 나는 정원의 파초를 보고 기뻐하였다. 하루는 여러 학생들을 시켜 파초에 물을 주고 기르게 하고 조금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파초는 식물인데 쉽게 자라는 곳이 있고 또 쉽게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옛날에 파초에 수 십 년 동안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얻지 못하다가 어느 날 마침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파초를 얻었으니 무릇 천하의 사물에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얻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꼭 그렇다 고는 할 수 없다."

이윽고 송군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는 그대의 그만둘 곳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송군이 손을 잡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경에 자르고 갈고 쪼고 가는 듯이 하라 하였으니 장차 학문을 스스로 닦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156] 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가깝지만 아는 것이 아직 간절하지 않다. 파초가 내 정원에 있어서 날마다 가서 파초를 보고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날마다 나아가고 그만두지 않아서 마음을 비우고 부지런히 하고 휴식하지 않아야 하고, 쌓음이 순서가 있고 차근차근 나아가되

156) 『시경』「위풍(衛風)」"瞻彼淇奧 綠竹猗猗 有匪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瑟兮僴兮 赫兮喧兮 有匪君子 終不可諠兮."

단계를 뛰어넘지 않아야 하고, 하지와 동지 때 굽히는 것과 펴는 것을 크게 활달하게 해서 오래도록 축척해서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어야 하고, 펴는 것은 이미 지나갔고 굽히는 것이 또 이르니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고, 규칙과 이치가 있고 치우치지 않고 어지럽지 않아서 바로 나와서 두루 미치는 것은 오직 순종해서 바른 것을 통달하고 그 차선책도 통달해야 하고, 마음에 쌓인 것이 치밀하기 때문에 몸에 퍼지는 것은 두루 그 가운데를 아름답게 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아! 여기에서 마음이 있어야 학문을 알 수 있고 스스로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잘 관찰하는 사물은 외부에 있지만 마음을 무심하게 두게 되는 사람이니 또한 모두 무심에 의지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네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송군이 두 번 절하면서 말하기를 "이끌어 펴주고 종류에 따라 확장시켜 준다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157]라고 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이 설명을 적어서 여러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種蕉說

有心則必得 無心則必不得 是由己者也 有心而未必得 無心而未必不得 是不由己者也 由己者 爲我 有不由己者 非我有也 然而就不由己者 察所以由己則非我有者 斯亦爲我有也 余年少時 見人家種芭蕉高丈餘葉大 如箕濯濯可悅 心常欲種之 歷數十年而未果也 今年夏 余家居 授諸生文 一日宋君章 手持一本蕉來曰 昔者嘗聞先生云 百卉惟芭蕉爲加愛 愛其無綺艷之態 而軒軒有傑出衆 是以 爲先生致之于庭 余見而復悅之 日令諸生灌養之 旣而歎曰 蕉植物也 易生所在有之 又易致乃昔者不得於數十年之 有心而今一日適得于無心 凡天下之物之不由己者 其不可必如此 旣而謂君章曰 子知在子之已者乎 君章拱手對曰 詩云 如切如嗟 如琢如磨 其將學之自修者 爲在己乎 余曰 近之矣 然喩尙未切也 自蕉之在吾庭 日就而觀之 蘊于中者 日進而不已 其虛心而孜孜不休者歟 蘊之有序 而進之以漸 其不躐等者歟 日至而卷者舒舒者 大而闊 其積久而效著者歟 舒者已前而卷者又至 其不間斷者歟 有條有理 不偏不紊 直出旁行 惟順以達其正而達權者歟

157) 『주역』「계사 상(繫辭上)」"是故 四營而成易 十有八變而成卦 八卦而小成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天下之能事畢矣."

蘊之心者密 故敷于身者 周其美中而暢外者歟 嗚呼 於此而有心可以知學矣 可以自修矣 故善觀者 凡物之在外而置諸無心者 亦皆資之以爲吾有也 子其識之 君章再拜曰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其斯之謂歟 余笑而書其說示諸生

태괘(兌卦)를 논함

일찍이 『논어』 수장(首章)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배우고 제때에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대개 여기에서 천하에 기뻐할 만한 것은 오직 학습하는 것이고 즐거워할 만한 것은 오직 친구의 방문임을 알 수 있다. 성인은 이로서 가르침을 주었다. 그래서 돈독하게 믿어야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몰랐으나 『주역』 태괘(兌卦)를 읽었을 때 공자는 익(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못이 나란히 잇닿아 있는 것이 태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붕우와 배우고 익힌다."[158]

이 말이 논어와 더불어 같지만 기뻐함과 즐거워함을 말하지 않았다. 이에 비로소 묵묵히 연구해보니 8괘[159]에서 태(兌)는 그 모양이 기뻐함이고 64괘에서 중태(重兌)가 중열(重悅 : 심한 기쁨)이 되니 중열은 대단히 기뻐하는 것이니 대단히 기뻐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지 않았으나 기쁨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천하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친구와 배우고 익히는 것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8) 『주역』 태괘(兌卦), 「상전(象傳)」 "麗澤 兌 君子以 朋友講習"(붙어 있는 택이 兌이니, 군자가 보고서 붕우들과 강습한다)

159) 역(易)을 구성하는 64괘의 기본이 되는 8개의 도형(圖形).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을 말한다. 괘(卦)는 걸어 놓는다는 괘(掛)와 통하여 천지만물의 형상을 걸어놓아 사람에게 보인다는 뜻으로, 그 구성은 음효(陰爻)와 양효(陽爻)를 1대2, 또는 2대1 등의 비율로 셋이 되게 짝지어 이루어진다. 팔괘는 중국 최고의 제왕 복희(伏羲)가 천문지리를 관찰해서 만들었다고 하며, 뒤에 이 괘 두 개씩을 겹쳐 중괘(重卦) 64괘를 만들어 이로써 사람의 길흉·화복을 점치게 되었다.

뒤에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까닭을 연구해보니 리(麗)의 말뜻은 연(連 : 이어지다)이다. 연못은 물이 모여있는 곳이다. 물은 본래 사물을 적실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모인 뒤에 윤택해져서 사물에게 미칠 수 있다. 모이되 이어지지 않고 오직 사물에 미쳐 그친다면 연못에 있는 물이 때로 마르게 된다. 마른다는 것은 연못 가운데 물이 없는 것이다. 물이 없으면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붙고 서로 이어져야 이에 서로 젖어 들어가 윤택해진다.

서로 젖어 들어가 윤택해지면 이에 마르지 않게 된다. 무릇 사람이 서로 붙고 교제하여 윤택해져서 마르지 않는 것은 오직 친구들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렇게 해준다. 친구는 글과 행동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다. 강(講)은 그 글과 행실을 배우는 것이고 습(習)은 글과 행실을 익히는 것이다. 나에게 단점이 있고 저 사람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의 장점으로서 나의 단점을 보충해야 하고 나에게 밝은 지혜가 있고 저 사람은 어두우면 나의 밝은 지혜로서 저 사람의 어두움을 열어 주어야 한다. 글에서는 글로 도와주고 행실에서는 행실로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두 연못이 서로 이어져 넘나들어서 젖어 들어 윤택한 것과 같다.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공이 쌓이지 않고 익히되 배우지 않으면 지혜가 확장되지 않는다. 이미 배우고 난 뒤 익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두 연못이 서로 윤택해져서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 무릇 사람이 유독 만물 가운데서 신령한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부자(父子) 사이에서는 친함, 군신(君臣) 사이에서는 의로움, 장유(長幼) 사이에서는 차례, 부부(夫婦) 사이에서는 구별이 아니겠는가?

문(文)은 이 도(道)를 말하는 것이고 행(行)은 이 도(道)를 실천하는 것이다. 문과 행이 서로 돕게 되면 반드시 친구끼리 서로 배우고 익혀서 이 도(道)를 지극히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천하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성인이 특별히 괘에서 중열(重悅)의 모양을 내걸어 알려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습감(習坎 : 거듭 험함)도 두 개의 물인데 유독 서로 들어가서 윤택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습감은 거듭 험한 것이니 거듭 기쁜 것이 아니고 또 물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널리 그 모양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모을 수 없는데 어찌 사물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겠는가?160)

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스승은 도와 보탤 수 없고 어찌 유독 친구만 도울 수 있는가?"

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스승은 친구이면서 임금과 아버지의 존귀함을 겸하고 있으니 이 때문에 오륜(五倫)에서 스승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스승을 함께 하는 것이 친구이니 친구를 말하면 스승의 도가 역시 그곳에 있다"라고 하였다.

麗澤說

嘗讀魯論首載 夫子之言曰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蓋於此知天下之可悅 惟學習是也 可樂惟朋友之來是也 以聖人垂訓 故篤信之 然猶未喩其所以爲悅且樂者及讀大易之兌 夫子之翼曰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其辭與魯論同而不言悅與樂矣 乃始默究之 兌於八卦 其象爲悅 于六十四卦 重兌爲重悅 重悅則悅之深 悅之深 斯樂矣 不言悅樂而悅樂在其中 於此 蓋信其天下之可悅且樂者 無如朋友之講習也 然後復究其所以悅樂之故則麗之爲言連也 澤者水之聚也 水本物之能潤者而必聚而後 其潤足以及物也 聚而不連 惟及於物而已則澤之所存 有時而竭 竭者澤中無水也無水則困 故必附麗相連 乃能交浸而潤交浸而潤 斯不渴矣 夫人之附麗浸潤而不渴者惟朋友講習爲然 朋友同志于文行者也 講講其文行也 習習其文行也 我有所短而彼有所長則以彼之長 補我之短 我有所明而彼有所暗則以我之明 開彼之暗 于文而文以資益之 于行而行以資益之 猶夫二澤之相連而交浸潤之也 講而不習功不積 習而不講智不廣 旣講且習 始克資益 猶夫二澤之交 潤而不渴也 夫人之獨靈於萬物者 以能盡爲

160) 『주역』「감괘(坎卦)」"象曰 習坎 重險也 水流而不盈 行險而不失其信"(습감은 거듭 험함이니, 이 흘러가나 가득하지 않으며, 험함을 행하되 신의를 잃지 않으니)

人之道也 盡人之道者 不以父子之親 君臣之義 長幼之序 夫婦之別乎 文者 言此道者也 行者 蹈此道者也 文行之資益 必須朋友之講習 而能盡此道則凡天下之可悅而可樂豈有過於此者乎 此聖人之特於卦 象之重悅者而揭示之也 或者謂習坎亦二水也 獨不交浸潤之邪曰 習坎重險 非所以重悅也 且不于水之聚者 泛取其象 不可也 夫不有聚焉 惡能潤及于物也 或者又云 師不可以資益乎 奚獨朋友也 曰師者朋友而兼君父之尊是以五倫不言師 雖然同師謂之朋 擧朋友而師之道 亦存焉耳

패공의 침묵이 오래된 것을 논함

패공(沛公 : 漢高祖)의 큰 계략은 항우(項羽)를 굴복시킬만한 것이 있었으니 패공 스스로 알고 있었다. 항우가 대단히 강했지만 패공을 굴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패공 또한 알고 있었기에 패공의 눈에 항우가 보이지 않은지 오래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아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이다.

지나간 것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자. 바야흐로 항우가 화를 내어 관문을 공격함에 패공이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형편이었다. 대개 항우는 대대로 내려오는 초나라 장수의 후예로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의 힘도 또한 수많은 사람을 대적할 수 있었다. 거록(鉅鹿) 땅에서 진나라 군사를 물리친 뒤로부터 제후들은 두려워서 무릎으로 기어가며 감히 항우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항우가 40만의 승리한 군대를 몰아서 패공을 공격할 때 군대의 움직임은 빠른 바람과 같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때는 우레와 번개같았다. 용기로도 그와 맞설 수 없었고 지혜로도 꾀할 수 없었으니 그 누가 항우를 상대하겠는가?

패공은 사수(泗水) 가의 향촌의 장에서 출발하여 처음에는 매우 미약했고 병역을 항씨에게 빌렸으나 세력이 아직 공고해지지 않았을 때 비록 먼저 관중(關中)을 쳐들어갔지만 병사의 힘이 굳세지 못하였고 세력이 대등하지 못하였으니 장량(張良)에게 물어 볼 필요도 없이 패공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번에 패공의 눈에 항우가 보이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는 물음에 직면하였을 때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항우를 두려워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지금의 병력이 대등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대적할 수는 없지만 침묵하여 오래 기다리겠다."라고 하였다.

침묵한다는 것은 장차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말을 할 만한 것은 있는 것이니, 그 하나가 지난번의 패공의 눈에 항우가 보이지 않은지 오래되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하나는 지금의 병력이 대등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는 패공의 눈에 항우가 보이지 않은지 오래되었다는 것과 병력이 대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지고 오래 생각해 보면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고, 그 하나는 이미 대적할 수가 없으면 잠시 굴복하여 우리병사의 힘이 튼튼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고, 그 하나는 패공의 눈에는 항우가 보이지 않는다는 마음이 비록 참모와 친밀함에 이유가 있지만 겉으로는 흔적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는 내가 계속 항우의 강함만 못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는 몸에 손상을 입는 것보다는 나은 척 하는 것이고 그 하나는 장량이 나에게 질문한 것과 그가 나를 설득한 것을 생각하여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무릇 이 일곱 가지를 마음속에 서로 모아 헤아렸으나 처음에는 정할 수 없었으니 어찌 침묵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마침내 할 수 없다고 답을 한 것은 그 이로움이 잠깐 굴복하는데 있기 때문이고 또한 장량이 충고한 것이 나와 더불어 같은 지의 여부를 보려고 한 것이다.

장량은 태공(太公)의 병법으로 패공을 설득하였는데 패공이 문득 좋게 여기고 그것을 사용하였다. 대개 패공의 마음은 이미 열 개중에 일곱 여덟 개를 얻고 있었는데 장량이 다만 모자라는 두 세 개를 보충한 것이다. 그래서 큰 계책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 큰 계책은 항상 침묵하는 가운데 얻는 것이다. 오직 깊고 잔잔해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얕고 깊음을 측량할 수 없다. 오직 강하고 참을성이 있어서 갑자기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깊이 생각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오직 천천히 하고 급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느리고 빠름을 측정하지 못하고 오직 변화하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굴복을 잘 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큰 계책을 가지게 되는 까닭이고, 이것이 항우를 굴복시킬 수 있었던 까닭이고 이것이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끝내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지 않는 까닭이다.

論沛公默然良久

沛公之大略 有可以屈項羽者 沛公自知之 項羽之狠强 不足以屈沛公者 沛公亦知之 是沛公之目 無項羽久矣 然而此特未然者也 據其已然而度之 方羽之怒而擊關 而沛公之不能敵者勢也 蓋項羽以世世楚將之後 藉父祖之餘報 其力又能敵萬人 自鉅鹿一戰 而諸侯震慴膝行 莫敢仰視 其將擊沛公也 驅四十萬 得勝之 兵颺如疾風 爍如震電 勇不可支 智不及謀 其誰能當之 沛公則泗上亭長起身 甚微而借兵於項氏 羽翼未成 雖先入關而兵力不壯 其勢之不侔 不待張良之問 而沛公亦知之熟矣 當其問也 以向之目無項羽者 則應答之曰 吾何懼彼哉 以今之兵力 不侔者則應答之曰 吾不能也而乃默然良久 夫默然者如將不言也 不言而有可言者 在其一 向之目無項羽者是也 其一 今之兵力不侔者是也 其一 以目無項羽與兵力未侔 計其尙 可以敵者是也 其一 旣不可敵 不如且暫屈以待吾力之壯者是也 其一 吾之目無羽之心 雖在帷幄之親 不露形迹者是也 其一 吾繼不如羽之强而遽自居乎不如有損於駕馭之體者是也 其一 念良之所以問我乃其所以說我而計將何出者是也 凡此七者 交集于中而揣量之 姑未定焉 焉得不默然乎 然而竟答之以不能者 以其利在暫屈 而亦將觀良之所策與吾合否也 良嘗以太公兵法說沛公 沛公輒善而用之 蓋沛公之心已得其十之七八 而良特補其二三之未及 故曰大略也 大略常得於默然之中 惟其深淵而不形也 人不測其淺深 惟其强忍而不遽也 吾不害爲深思 惟其紓徐而不迫也 人不測其緩急 惟其變化而不執也 吾不害爲善屈 此所以有大略也 此所以能屈項羽也 此所以今之不能不足爲後之終不能也

신공(申公)을 논함

한무제(漢武帝)가 가장 귀중한 예물과 편안한 수레로 신공(申公)을 불러 다스림과 혼란함의 일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때에 한무제는 글공부를 좋아하였는데 신공의 대답은 말이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실천에 힘을 두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한무제의 병을 맞춘 것이다. 통치를 하는 요점은 본래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데 한무제도 마땅히 힘써 실천하는 도(道)를 질문해야 하는데 다시 질문하지 않았으니 잘못한 것이고 그러나 신공도 또한 일찍이 잘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인가?

속백(束帛)[161]과 포륜(蒲輪)은 임금이 현명한 선비를 모시는 융성한 예이다. 신공은 성인의 글을 배웠고 나이도 팔십일 때 천자를 알현함에 다스림과 혼란함으로 질문하니 마땅히 성인의 글을 널리 펴 진술하고 배운 것을 모두 열거하여 임금의 융숭한 예에 대답해야 하거늘 이 대답에 어찌 이렇게 간략한가?

노나라 애공(哀公)[162]이 공자에게 "한마디의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께서 "말은 이와 같이 근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무릇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냐는 그 질문은 임금에 있어서 공자도 오히려 근사하게 답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는데 하물며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두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애공은 한마디 말을 듣고자 하였는데 공자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사람들의 말에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우며 신하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 하였으니 만약 임금 노릇하는 것의 어려움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일으키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셨다.

임금이 한마디 말을 질문하였는데 한마디 말로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한마디 말로는 임금에게 알리는 것이 가깝지 않다고 여겼다. 그래서 한마디 말로 끝내지 않는 것이 신하가 임금에게 대답하는 도리인데 하물며 한무제가 다스림과 혼란함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다스려지는 것과 혼란해지는 것을 어찌 한마디 말로 말할 수 있겠는가?

다스림을 말해놓은 것 중에 간략한 것은 「우서(虞書)」보다 간략한 것은 없다. 「우서」에서 우임금과 고요(皐陶)[163]가 말한 것은 각각 아는 것을 모두 다 진술하니 말이 많아져서 책을 이루었다. 이것 모두가 황제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고 신공이 마땅히 진술해야 할 것인데도 말하기를, "다스리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데에 있지

161) 비단 5필을 각각 양끝에서 마주 말아 한 묶음으로 한 것. 옛날 나라 사이의 빙문(聘問)하던 예물을 가리키기도 하며, 가례(嘉禮)때 납폐(納幣)로 쓰던 양단(兩端)을 가리키기도 한다.

162) 『논어』 원문에는 애공(哀公)이 아니라 정공(定公)으로 되어 있다.

163) 순(舜) 임금의 신하. 벼슬은 사구(司寇)였다. 법리(法理)에 통달하여 법을 세워 형옥(刑獄)으로 사회 질서를 바로잡았다.

않고 힘써 실천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하니 거의 스승과 제자가 평소에 공부할 때 질문에 답을 할 때 이끌어 주어도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신공이 여기에서 대답을 하는데 잘못하였다.

신공은 독실한 사람이다. 그의 학문은 시경을 외워서 남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실은 일찍이 다스리는 방법을 공부하여 진술하는 말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점을 열거하여 대답한 것이다. 아 훌륭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학(實學)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어찌 유독 신공뿐이겠는가?

論申公

漢武帝以束帛加璧安車蒲輪 徵申公 問治亂之事 是時 帝方好文辭 而申公之對 不貴多言 惟主力行 固深中帝病 又治道之要 本不外是 帝則宜問力行之道 而不復問 失之矣 然申公亦嘗失之矣 何者 束帛蒲輪 人君聘賢士之隆禮也 申公學聖人之書 年且八十 遭天子 擧治亂以問之 宜敷陳聖人之言 悉其所學 以答人君之隆禮 此其對何乃略也 魯哀公問於孔子曰 一言而可以興邦有諸 孔子對曰 言不可以若是其幾也 夫一言興邦 其問在人君夫子 猶病 其不可幾 況臣之於君 敢不悉所知而對乎 哀公則欲聞一言而夫子之對曰 人之言曰爲君難 爲臣不易 如知爲君之難也 不幾於一言而興邦乎 夫君問一言矣 不敢不對以一言 而一言不足幾其告 是以不敢止於一言 蓋臣之對君之道也 況武帝之所問 治與亂也 所治所亂 惡可一言而陳之邪 言治之簡 莫簡於虞書 而禹皐陶之所陳 各悉所知 其言之多至於成篇 此皆帝之所宜聞 申公之所當陳 乃曰爲治不在多言 顧力行何如耳 殆若師弟子 平居講學答其問 而引而不發者 申公於是 失所對矣 申公篤實人也 其學不過誦詩經以授人 而實未嘗講治道不識所以陳言 故特擧其要而對之也 噫 有盛名而不事實學者 奚獨申公已哉

燕石山房文藁

七

文　　辨/123
原　　識/125
趙菖磵友誠大人六十一歲壽序/128
王小川六十一歲壽序/130
論日者傳/132
梁休溪詩藁序/135
盧大卿卜新宅文/138
石田書室記/140
祭鄭于稱文/143
黃大雅希溫六十一世壽詩序/145
壽黃桐雲六十一歲序/148
寧可以馬上治天下論/151
各自以爲親己論/154
嚴固不可愛亦不可論/156
三人如推車子論/158
論上前爭事/162
刑賞天下之刑賞論/164
爲文章必本於仁義論/169
勤不言苦說/171
用力多者收功遠說/173
非大壞不更造論/176
先憂後樂說/179
論委任以責成功/182
論陳平答陸賈曰生揣我何念/184
宰天下論/187
田叔論/190
韓信不薦李左車論/193
賀崔篔亭君明甫六十一歲序/195
王小川詩稿序/198
集衆思論/200
非靜無以成學/202
黃鶴皐門生稧序/203
白坡宗英六十一歲壽序/205
文弱論/208
獨觀其大略論/211
黃梅泉書室記/214
長枕軒記 幷序/216
讀古文解/219
讀唐荊川文/220
讀震川文/222
讀堯峰文/223
讀望溪文/225
讀六一文/226
讀東坡文/228
讀昌黎文/230
智石記/233
止石記/235
種竹記/238
白坡書室記/240
辨　惑/242

여 백

燕石山房文藁 七

문변(文辨)

나는 항상 법(法)에 의거하여 문장을 논하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반박하는 자는 "문장은 재주를 필요로 할 뿐인데, 법을 어떻게 다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또 나는 늙도록 고문(古文)을 전공하여 다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을 반박하는 자는 "고문을 추구하여 솜씨가 없기보다는 금문(今文)을 추구하여 뛰어난 것 중에 어떤 것이 나은가?"라고 하였다.

이 두 가지로 반박하는 자는 모두 한 쪽으로 치우쳐서 그 온전함를 보지 못한 것이다. 무엇을 온전함이라고 하는가? 법을 추구하고서도 재주가 있으며, 고문을 추구하고서도 솜씨가 있는 것이다.

반박하는 자가 또 힐난하여 말하기를, "불행히 온전하지 못하다면 장차 법만을 추구할 것인가, 우선 재주를 추구할 것인가, 장차 고문만을 추구할 것인가, 우선 솜씨 있기를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을 추구하면서 재주가 미치지 못한 자는 있지만, 법을 추구하지 않고 그 재주를 모두 발휘한 자는 없다. 고문을 추구하면서 솜씨가 없는 자는 있지만 고문을 추구하지 않고서 솜씨 있는데 도달한 자는 없다.

지금 남의 문장에 대해서 "집안의 문장을 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중시한 것이요, "자식배의 문장으로 재주를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시하는 것이다. 옛 문장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허여해 준 것이요, 지금 문장이라고 한 것은 그것을 비하한 것이다.

그러자 반박하는 자가 또 질정(質正)하여 말하기를, "예컨대 남풍(南豐)[1]의 문장은

1) 중국 북송 때의 문인 증공(曾鞏)의 호. 자는 자고(子固)이다. 문장에 뛰어나 구양수(歐陽修)와

법을 추구하였으나 변화하지 못하였고, 동파(東坡 : 蘇軾)의 문장은 재주가 있으면서 법대로 하지 않음이 없다. 그대는 장차 남풍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동파를 따를 것인가? 북지(北地)의 문장은 고문에 얽매어 형모(形貌)가 바르지 못하고, 형천(荊川)[2]의 문장은 고문에 얽매지 않으면서도 성정(性情)이 진솔하니, 그대는 장차 북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형천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바로 내가 듣고서 변론하고자 한 것이다. 법을 추구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이 어찌 법을 탓하겠는가. 아마 통달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문을 추구했는데 바르지 못한 것이 어찌 고문을 탓하겠는가. 다만 역시 통달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 내가 변론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 아직 통달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미혹된 것을 지시해주고 병을 제거하여 변화하고 진솔한데 이르고자 한 것이다.

당신들은 소동파가 재주가 있으면서 법을 추구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만을 알고 한창려(한昌黎 : 韓愈)가 법을 추구하면서도 재주를 발휘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북지(北地)가 고문을 추구하여 바르지 못함을 병통으로 여기고, 육일거사(六一居士 : 歐陽修)가 고문을 추구하였지만 진솔한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내가 아직 통달하지 못한 것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다. 법을 추구하되 한갓 법만을 추구하는 것이 참 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며, 재주를 발휘하되 재주만을 믿는 것이 참 재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고문을 추구하되 고문에 얽매이는 것이 참 고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금문을 추구하되 금문에 휩쓸리는 것이 참 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면 이에 바르지 않음이 없으니, 바르지 않음이 없으면 이에 참되게 된다.

무릇 법을 추구하고 변화하지 못한 것과 고문을 추구하고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아는 것이 지극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병통이다. 아는 것이 진실로 지극하면 법을

어깨를 겨루었으며, 당송 팔대가의 한 사람이다. 시문집에 『원풍유고(元豐類稿)』가 있다.

2) 중국 명나라 때의 문장가 당순지(唐順之)의 호. 그는 처음에는 진·한(秦漢)을 숭상하여 이몽양(李夢陽)을 모방하였지만, 후에는 왕신중(王愼中)에게 경도되어 구양수(歐陽修)·증공(曾鞏) 등에게서 학습할 것을 제창하여, 왕신중과 함께 당송파(唐宋派)의 영수가 되었다. 그가 지은 산문은 간아(簡雅)하고 청심(淸深)하며 사건을 서술한 것이 근엄(謹嚴)하고 항상 구어(口語)를 겸하여 사용하였다. 저서에는 『형천선생문집(荊川先生文集)』이 있다.

추구하더라도 재주를 발휘하지 못함이 없고 고문을 추구하여도 솜씨 있게 되지 않음이 없다.

또 동파의 재주는 창려에 뒤지지 않는데 문장이 창려보다 못한 것은 아는 것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형천의 진솔함은 또한 육일에 뒤지지 않는데 문장이 육일보다 못한 것은 아는 것에 지극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까닭으로 재주가 문장을 다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으니, 재주도 오히려 문장을 다 발휘할 수 없다면, 한 사람의 성정이 또 어찌 참됨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아아! 남풍의 변화하지 못함은 법만을 추구하여 법대로 하였기 때문이요, 북지의 바르지 못함은 고문만을 추구하여 고문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무릇 법을 추구하여 반드시 법대로 하는 것이 변화하지 못한 까닭이요, 고문을 추구하여 반드시 고문답게 하려는 것이 바르지 못한 까닭이다.

근대의 문인이 전대의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순전히 재주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요, 순전히 지금의 문장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순전히 재주만을 추구하는 것은 들뜨고 경박하며, 순전히 지금의 문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천하고 좀스럽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온전한 문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文 辨

余常喜以法論文 有駁之者曰 文須才耳 法惡能盡之 又余垂老 攻古文不自貳 駁之者曰 古而未工 曷若今而工 斯二駁者 俱局乎偏而未睹其全也 何謂全 法而才 古而工是已 駁者詰之曰 不幸而未全焉 則將法而已乎 抑且才乎 將古而已乎 抑且工乎 曰 法而不才者有矣 未有不法而充其才也 古而未工者有矣 未有不古而造乎工也 今夫稱人之文曰 法家文者 重之也 曰 才子文 則輕之矣 曰古之文者 與之也 曰今之文 則鄙之也 駁者又質之曰 且如南豐之文 法而未化 東坡之文 才而無不法 子將南豐乎 抑將東坡乎 北地之文 泥古而形貌贋 荊川之文 不泥古而性情眞 子將北地乎 抑將荊川乎 斯言也 正吾所欲聞之而辨焉者也 法而未化 豈罪夫法哉 其殆有未達者矣 古而贋者 豈罪夫古哉 顧亦有未達者矣 夫吾所欲辨之者 將擧其未達者示人 以而指迷 以而去病 以臻於化而眞也 子知夫東坡之才而無不法 而獨不知昌黎之法而無不才乎 子病夫北地

之古而贋 而不許六一之古而眞乎 夫吾所欲擧其未達而示人者 何 惟識而已矣 法焉而識其徒法之非眞法也 才焉而識其恃才之非眞才也 古焉而識其泥古之非眞古也 今焉而識其流乎今之非眞今也 識其非 則斯無不是矣 無不是 則斯眞矣 凡法而未化 與古而贋者 皆病乎識之未至也 識苟至焉 法而無不才矣 古而無不工矣 且夫東坡之才 不下於昌黎 而文遜於昌黎者 識有未至也 荊川之眞 亦不下於六一 而文遜於六一者 識有未至也 吾是以知才之不足以盡夫文也 才猶不足以盡之 則一人之性情 又惡足必其無乖於眞也 嗟夫南豐之未化 法而法 北地之贋 古而古 夫法而必法 斯所以未化也 古而必古 斯所以贋也 若夫近代文人之有愧乎前人者 純乎才而已 純乎今而已 純乎才者浮薄 純乎今者鄙碎 豈所謂文之全也哉

식(識)에 대하여

신(神)이 충만하면 아는 것이 통달하고, 아는 것이 통달하면 여러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는 능력은 마음에서 생기니, 마음을 잘 기르면 신이 온전해 진다.

신은 만물의 쓰임을 묘하게 하는 것이다. 귀의 신이 충만하면 듣는 것이 밝아지고, 눈의 신이 충만하면 보는 것이 밝아진다. 코는 신이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입은 신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 또 사지신체는 신이 없으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폐인이 된다. 사지신체도 신이 없으면 폐인이 되는데, 마음에 신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있겠으며, 마음에 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의 일을 이루려는 자는 반드시 먼저 아는 것에 통달해야 하는데, 신이 바로 아는 것을 통달시키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아는 것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이 있으니, 큰 것을 아는 자는 만 가지 일을 이루지만, 작은 것을 아는 자는 하나의 일이나 다스릴 뿐이다.

손무(孫武)와 오기(吳起)는 병법을 알았고, 신불해(申不害)·한비(韓非)는 형명(刑名)[3]을 알았고, 공손룡(公孫龍)[4]은 견백(堅白)[5]의 논리를 알았고, 백규(白圭)[6]는 수리

3) 관리를 등용하는데 그 사람의 의론 곧 명(名)과 그의 실제의 성적 곧 형(刑)의 일치와 불일치를 살펴 상벌(賞罰)과 출척(黜陟)을 하여야 한다는 학설. 형(刑)은 형(形)과 통한다.

4) 중국 전국시대의 변론가(辯論家). 백마론(白馬論)과 견백론(堅白論)의 논리로써 유명하다. 저서에 『공손룡자(公孫龍子)』가 있다.

(水利)를 알았고, 도주(陶朱)[7]와 의돈(猗頓)[8]은 재리(財理)를 알았는데,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이 보존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자는 아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니, 아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통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장주(莊周 : 莊子)의 변론이 뿌리 없는 것을 주장하여 바른 말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신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부처의 변화는 천지 사방 어느 곳에나 도달하여 신이 충만한 듯 하지만 인간의 오륜을 폐한 것은 아는 것이 통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을 통달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공자가 자공(子貢)에게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안다고 여기느냐?"라고 묻자, 자공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아니다. 나는 하나로써 관통하였느니라"[9]라고 하였다. 대개 자공은 하나를 듣고 둘을 아는 자이니 배워서 아는 것을 통달한 자이고, 공자는 나이 칠십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데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으니, 아는 것이 통달한 자이다. 그러므로 아는 것을 통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잘 길러야 한다.

原　識

神充而識達 識達而事集 識生於心 心養則神全 神者 妙萬品之用者也 耳之神充而聽聰 目之神充而視明 鼻無神不能嗅 口無神不能食 且言肢體無神 頑然爲廢人 夫肢體無神 且爲廢人 心而無神 可爲人乎 心而神不充 可爲全人乎 是以集天下之事者 必先達識 神者 所以達其識也 雖然 識有大小 識其大者 集萬事 識其小者 辨一事 孫吳識

5) 견백동이지변(堅白同異之辯)의 약칭. 일종의 궤변(詭辯)으로 질(質)이 단단하고 빛이 흰 돌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는 다만 흰 것만 알고, 그것을 손으로 만져 보고는 다만 단단한 것만 알므로, 단단한 돌과 흰 돌은 서로 다른 것이고 같은 것이 아니라는 논리적 주장이다.

6) 중국 전국시대 사람. 이름은 단(丹)이고, 규(圭)는 그의 자이다. 일찍이 자기 나라에 둑을 쌓아서 수해를 면하게 하였고, 이 물을 이웃 나라에 흐르게 하여 수해를 입게 하였다. 이것과 관련하여 백규학린(白圭壑鄰)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인(不仁)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7) 도주공(陶朱公)의 약칭. 월왕(越王) 구천(句踐)의 신하였던 범여(范蠡)의 변명(變名)이라고 알려져 있다. 축재(蓄財)에 재주가 있어 19년 동안에 3차례 천금의 치부(致富)를 하였다고 한다.

8)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대부호(大富豪). 도주공(陶朱公)과 함께 도의(陶猗)로 일컬어지는데, 전(轉)하여 부호를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9) 『논어』「위령공(衛靈公)」에서 나왔다.

兵 申韓識刑名 公孫龍識堅白 白圭識水利 陶朱猗頓識財理 能識者 其神存矣 識其一不識其二者 識未全也 識未全 惡足以爲達 莊周之辯 能持不根而不喜正語者 神有未充也 佛之變化 至於六通 若神充矣 而廢人之五倫者 識有未達也 是以莫若達識 能識者 其神存矣 識其一不識其二者 識未全也 識未全 惡足以爲達 莊周之辯 能持不根而不喜正語者 神有未充也 佛之變化 至於六通 若神充矣 而廢人之五倫者 識有未達也 是以莫若達識 子謂子貢曰 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 對曰 然 非與 曰 非也 予一以貫之 蓋子貢 聞一知二 學達識者也 夫子 七十從心所欲不踰矩 識達矣 故欲達識者 必先養其心

조창간 우성(趙菖磵友誠) 대인(大人)의 61세 장수를 축하하는 서문

창간(菖磵) 조백원(趙百源)이 편지를 보내와 말하기를,

"저는 아직 관례(冠禮)도 행하기 전에 가대인(家大人)[10]의 명을 받고 문장을 공부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가대인의 명을 받아 집안의 생산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명하지 못한 관계로 가대인의 뜻에 부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성(友誠)의 나이가 지금 마흔 하나인데도 오히려 어로(魚魯)를 구분하고[11] 포난(飽煖)[12]을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우리 가대인이 하사한 것이 아님이 없었다.

올해 병오년(1906)는 가대인이 나신 지 61년이 된다. 우성은 여러 형제와 함께 술잔을 들어 가대인에게 헌수(獻壽)[13]를 하려 하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옛 사람이 남을 위하여 축수(祝壽)의 글을 지어 지금에도 혁혁하게 이목(耳目)을 비추는 것이

10) 집의 부친을 높여 부르는 말. '대인'은 아버지의 경칭(敬稱)이다.
11) 식견(識見)이 있음을 의미한다. 어(魚)자와 노(魯)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그 뜻이 하나는 물고기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노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연히 다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함은 무식(無識)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12) 포난생음욕(飽煖生淫欲)의 약칭. 안일한 생활을 하면 자연히 음욕이 생긴다는 뜻이다.
13) 환갑 잔치 같은 때 장수하기를 비는 뜻으로 잔에 술을 부어서 드리고 장수를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

있는데, 우성이 그것을 바라고서 나에게 포장(鋪張)해주었으면 했던 것이다.

대개 백원(百源)이 나를 따라 시를 지은 것이 몇 년이 되었고 지금 경하(慶賀)의 때를 만났으니, 백원이 비록 직접 청하지는 않았지만 내 어찌 한 마디의 말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에 서문을 쓴다.

하늘에는 육갑(六甲)[14]이 있고 땅에는 오자(五子)[15]가 있다. 육십년에 갑자(甲子)가 한 바퀴 돌고, 천지의 음양이 한 번 순환한다. 사람은 천지의 기(氣)를 받아 태어난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그 한 번 순환하는 수(數)를 온전히 할 수 있다면 장수했다고 말할 만 하겠다.

기력이 건강하고 강건한 자는 그 장수함을 편안히 여기고, 자손이 많은 자는 그 장수함을 계승한다. 오직 편안하고 계승해야만 연후에 그 장수한 것이 즐거울 만한 것임을 안다. 그런데 지금 백원의 대인이 그것들을 겸하여 가지고서 누리고 있으니, 복을 받았다고 말할 만 하겠다.

내 듣자하니, 백원의 대인은 몸가짐이 근실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 검소하다고 한다. 근실하면 뜻이 전일(專一)하게 되고, 검소하면 재용(財用)이 넉넉해진다. 오직 그 뜻이 전일하기 때문에 사지신체가 피로하여도 피곤에 병들지 않을 수 있으며, 오직 그 재용이 넉넉하기 때문에 생육이 번성하여 각각 제자리를 하게 된다. 무릇 근실하고 검소한 것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이에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겠다.

무릇 하늘의 운행은 61년에 한 번 자리를 넘겨준다. 지금부터 백원은 그 아름다움을 능히 실천하여 근실(勤實)함을 무너뜨리지 말 것이요, 검소함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부친의 만의 하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다면, 이에 백원의 대인은 참으로 그 장수를 편안히 여길 것이요, 백원의 형제들은 참으로 그 장수함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대인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바로 백원 일가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인의 복일 뿐만 아니라, 바로 백원 일가의 복이기도 하다. 백원은 이러한 뜻을 받들어 힘써야 할 것이다.

술을 차리고 시와 노래를 벌리는 것은 진실로 백원 형제들이 이미 마련해 놓았으니, 무슨 내 말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

14)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말한다. 61년을 주기(周期)로 한다.
15) 수(水)·화(火)·목(木)·금(金)·토(土), 즉 오행(五行)을 말한다.

趙昌磵友誠大人六十一歲壽序

趙昌磵百源 以書來曰 友誠自未冠 受家大人命 功文字 旣壯 又受家大人命 治家生以不敏 故不能副家大人意 友誠年四十一于玆 猶能辨魚魯識飽煖 罔非我家大人攸賜而今丙午家大人 以降六十一期之歲 友誠將與羣弟 稱觴獻壽于家大人 竊念昔人 爲人作壽序 有至今赫赫照耳目者 友誠嘗慕焉 幸爲我鋪張之 蓋百源從余 向爲詩有年 而今値其賀慶之辰 百源雖不請 余惡得無一言 遂爲之序曰 天有六甲 地有五子 六十年而甲子一周 而天地之陰陽一還焉 人稟天地之氣而生 故生而得全其一還之數 可謂壽矣 氣力康强者 安其壽 子孫衆多者 繼其壽 惟安且繼 然後知其壽之可樂矣 而今百源之大人 兼有而享之 可謂福矣 余聞百源之大人 持身勤 治家儉 勤則志專 儉則用裕 惟其志專 故肢體勞而不病乎疲 惟其用裕 故生育蕃而各爲之所 夫勤儉者 萬事之本也 於是而知福之有自來矣 凡天行六十年而一禪 自今以往 百源克趾厥美 毋隳勤 毋壞儉 洞洞屬屬 有以答怙生萬一之恩 則於是而百源之大人 眞安其壽 百源之昆弟 眞繼其壽而不惟其大人之樂也 卽百源一門之樂也 不惟其大人之福也 卽百源一門之福也 百源勉乎哉 若夫設酒醴 張詩歌 固百源昆弟之所已辦也 何待夫余言

왕소천(王小川)의 육십일세 장수를 축하하는 서문

왕소천(王小川)이 지은 시(詩)는 당시의 유행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시를 한 번 보고서 근고(近古)[16]라고 평가하고, 그의 시를 얻으면 바로 보관하였다. 나를 따르는 자가 시궤(詩軌)[17]를 묻거든 소장하고 있는 소천의 시를 내어서 보여주는데, 소천의 시를 독실히 믿고 따르는 자는 몇 년이 되지 못하여 성대히 볼 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자신의 시를 변화시키는 빠르기를 감탄하면서 일찍이 서로 멀리 떨어져 거처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음이 없었다.

지난 신축년(1901)에 내 나이 61세였는데, 소천은 시로써 나를 축수(祝壽)해주었다. 올해 병오년(1906)은 소천의 나이 61세이기에 나도 글로 그를 축수해 주려고 하였다.

16) 부천(膚淺)한 오늘보다는 튼실한 옛 모습에 가깝다는 뜻이다.
17) 시의 본보기 또는 법칙.

그런데 혹자는 말하기를,

"듣자하니 소천의 집안은 매우 가난하여 머리가 희도록 먹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소천이 장수하지만 가난이 장수와 함께할까 두렵습니다. 그대가 소천이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그의 가난을 떠나보낼 것을 축원하여 장수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소천은 비록 먹는 것에는 가난하지만 시에는 풍부합니다. 반드시 소천이 시에 장수하도록 해야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소천이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그의 시에다가 축원할 것이니, 시가 장수하게 되면 소천 자신도 장수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컨대, 선비가 궁하면 가난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군자는 급급하게 축원하여 그것이 떠나가기를 구하지 않는다. 시를 아는 자는 어느 시대고 없지 않으니 훌륭한 시라면 저절로 전해져서 무궁토록 썩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사람의 몸뚱이의 나이로 똑같이 비길 수가 있겠는가.

가령 축원하여 가난이 떠나가고, 축원하여 시가 능히 사람의 장수를 늘릴 수가 있다면, 그것은 소천 한 몸을 위한 계책이니 사사로운 것이다. 내가 소천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은 소천이 굳게 자신의 태도를 견지했으면 하는 것이니, 공적인 것이요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아아! 덕이 쇠퇴하면 힘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무(武)가 강하면 문(文)이 약해지는 법이다. 지금 천하는 무력만을 숭상하여, 거의 문이 세상에서 끊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러한 때에 시가 있은들 잘 보존하여 흩어져 없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는가.

속담에 "그물 천 개를 쳐놓아도 걸리는 것은 하나의 그물이다"라고 하였다. 만약 소천이 장수하여 후진을 잘 인도하여 날로 지시하고 달로 교수하여 쌓아 점차 넓혀 가서 마음에 새기고 몸에 저장하고 대추나무와 배나무 같은 좋은 판목(版木)을 만들어 상자에 쌓아둘 수 있다면 별안간 재난으로 인하여 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불행한 사태를 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세상의 시에 솜씨가 있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홀로 소천 뿐이라고 한 것은 대개 소천의 시가 평이하고 순정(醇正)하고 전실(典實)[18]하기 때문

18) 전거(典據)가 되는 옛날에 있던 사실. 전고(典故)와 동의어이다.

이다. 오직 평이하기에 기이한 솜씨를 추구한 것이 없고, 오직 순정하기에 성급하거나 방자하지 않으며, 전거에 충실하기에 부박한 소리나 지나친 기색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근고(近古)의 의미이니, 이와 같고서야 시대의 변화를 면할 수가 있다.

아아! 이것이 어찌 한 사람을 위한 사사로운 계책이겠는가? 소천이 이에 장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나도 이에 소천을 위하여 축수하지 않을 수가 없다.

王小川六十一歲壽序

小川爲詩 不循時好 余一見 許以近古 得其詩 輒藏之 有從余問詩軌者 出所藏示之 其能篤信焉者 不數年而蔚然可觀 余歎其化之之速 而未嘗不恨其相居之遠也 往在辛丑 余年六十一 小川以詩壽余 今丙午 小川年六十一 余將以文壽之 或曰 聞小川家甚貧 白首艱于食 吾恐小川壽 而貧與壽 子欲壽小川乎 則祝去其貧 毋令同其壽 或曰 小川雖貧於食 抑富乎詩 必小川壽詩 乃可壽 子欲壽小川乎 則于其詩而祝之 詩壽而小川自無不壽矣 余謂士窮 不能不貧 斯安之矣 君子不汲汲 祝之而求其去 知詩者 則無代無之 自能傳之 其將不朽于無窮 豈人軀殼之年所同擬哉 借令祝之而貧去 祝之而詩能增人壽 不過爲小川一身計也 私也 夫吾所欲壽小川者 固有之 公也 非私也 嗚呼 德衰而力旺 武强則文弱 今天下 惟武力是尙 幾何文之不絶乎世也 當此時 詩雖存 能保其不散佚乎 諺云 設網千目 容有一罥 使小川壽而導誘後進 日指月授 積而漸廣 得以心鐫身藏 不煩棗梨篋笥 則脫有簡編之厄 吾知其免矣 今世之工詩者 非一人 而余獨於小川云爾 蓋小川之詩 平易耳 醇正耳 典實耳 惟平易也 無奇巧 惟醇正也 不躁肆 惟典實也 浮聲溢色 斯遠焉 此余所謂近古也 然後可以免時變 噫 豈爲一人私計哉 小川於是而不可不壽 余於是而不容不祝小川壽

일자전(日者傳)을 논함

태사공(太史公 : 司馬遷)은 사마계주(司馬季主)[19]를 기록하여 「일자전(日者傳)」[20]을 지었는데, 문장이 6천여 자에 이르니 장황하다고 하겠다.

나는 처음 그것을 읽고서 괴이하게 여겼다. 계주의 말은 뒤섞여서 질서가 없는데 사마공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단 말인가? 이윽고 여러 차례 그것을 연역해보고서 사마공이 느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회포를 거기에 붙여놓은 것임을 알았다.

계주가 말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은자(隱者)의 무리이다. 그가 "세상의 이른바 현자는 명(名)이 실(實)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논한 것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부모를 기만하여도 죄가 없고 임금을 시해하여도 벌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말이 너무 각박한 데 가깝지 않은가?

그리고 말마다 반드시 선왕(先王)을 칭하면서도 개괄하여 "말이 많고 근엄한 것을 자랑하는 자"로 지목하여 현명한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판단에 있어서 경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또 자신을 기술하면서 사람을 취하되 수백의 돈으로 한 것을 가지고 노자(老子)가 "상덕(上德)은 덕(德)으로 하지 않는다"[21]라고 한 것에 비유한 것은 말을 억지로 하여 배합시킨 것이 아닌가?

또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신(星辰)은 서북쪽으로 이동하고, 땅은 동남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로써 연못을 삼는다는 것을 점치는 자의 말에 비유한 것은 아마도 그 점이 모두 자세할 수 없다고 스스로 헤아린 것이다. 참으로 한결같이 자세하지 못한데 사람을 취하기를 수백의 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 중에 더욱 심한 것은 복희씨(伏羲氏)의 괘(卦)와 문왕(文王)의 효(爻)를 가지고 구천(句踐)[22]이 적을 패퇴시킨 것을 비유한 것은 이미 술자(術者)의 말에 떨어져 버린 것이니[23], 비루한 것이 극에 달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데, 어찌 가생(賈生)[24]과

---

19) 중국 전한 때의 복서자(卜筮者). 『사기(史記)』「일자열전(日子列傳)」에는 "사마계주는 초(楚)나라 사람이다. 장안(長安) 동시(東市)에서 복서에 종사했다"라고 되어 있다.

20) 『사기(史記)』 권127 「일자열전(日者列傳)」을 말한다.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는 "제(齊)·초(楚)·진(秦)·조(趙)의 날을 다스리는 것(日者)은 각각 사용하는 풍속이 있는데, 그것의 큰 요지를 통틀어 살펴보고자 『일자전』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는 "『일자전』에는 '제국(諸國)의 풍속을 알데가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저선생(褚先生)은 단지 사마계주(司馬季主)의 일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21) 『노자(老子)』 제38장에 보인다. 최상의 덕, 즉 참된 무위(無爲)의 도(道)를 체득한 덕은 그 덕이 있는 것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덕이 있다는 것이다.

22) 중국 춘추시대의 월(越)나라의 제2대 임금. 와신상담(臥薪嘗膽) 끝에 오(吳)나라 부차(夫差)에게 당한 치욕을 씻었다.

23) 「일자열전(日者列傳)」에는 "복희(伏羲)가 팔괘(八卦)를 만들고 주(周)나라 문왕(文王)이 384효

같은 고견(高見)과 탁식(卓識)으로 이러한 말을 듣고 입을 막고 숨조차 뱉지 못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계주의 말이 뒤섞여 질서가 잡히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장(子長 : 司馬遷)의 붓도 지나치게 억양(抑揚)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자장이 서술하되 넘쳐흐르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말한 느끼는 것이 있어서 자신의 회포를 거기에 붙여 놓았기 때문이었다.

무릇 군주가 된 자도 계책을 세움에 자세하지 못하면 몸이 편안히 거처할 데가 없는데, 점치는 사람으로서 말이 자세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 일찍이 점을 친 것이 진실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편안함과 위태로움의 차이가 이처럼 멀다 하겠다.

사마공은 어찌 잠실(蠶室)의 화(禍)[25]를 상심하여 스스로 살피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까닭에 가생이 품은 한을 깊이 탄식하고 드디어 화려한 것을 힘쓰고 근본을 끊어버린 것이다. 아, 자장은 역사를 찬술하면서 왕왕 자신의 비분함을 표출하였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論日者傳

太史公志司馬季主 以著日者傳 而文至千六百餘言 可謂張皇矣 余始讀而怪之 季主之言 雜而不倫 司馬公 何爲而記之如是其悉也 旣數繹之而後 知夫有感而寓其懷也 觀季主所言 蓋亦隱者之流 而其論世之所謂賢者 名不能踐實 固是矣 而乃曰 欺父母未有罪而弑君未伐者 辭不近於刻乎 其以言必稱先王 槩目之爲多言誇嚴 而不分賢否 無亦失於輕重乎 其自述也 卽以取人數十百錢 比諸上德不德 非强辭而配之乎 至以天不足西北 地不足東南 譬之卜者之言 則蓋亦自度其卜之不能皆審也 苟一不審焉 取人數

(爻)를 연역하여 정치를 함에 천하가 다스려졌다. 월왕(越王) 구천(句踐)은 문왕팔괘(文王八卦)를 모방하여 적국(敵國)을 패퇴시키고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이에 근거해 보면 복서(卜筮)와 무슨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라고 되어 있다.

24) 중국 전한 때의 대신 가의(賈誼)를 가리킨다. 문제 때 박사(博士)에서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으며, 뒤에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양회왕(梁懷王)의 태부가 되었다. 저서에 『신서(新書)』『가장사집(賈長沙集)』이 있는데, 「치안책(治安策)」「과진론(過秦論)」 등의 글이 유명하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태부(賈太傅) 또는 연소한 수재라 하여 '가생(賈生)'이라 불렀다. 33세에 요절하였다.

25) 궁형(宮刑)을 가리킴. 사마천은 일찍이 흉노(匈奴)에 항복한 이릉(李陵)을 변호하려다가 무제(武帝)의 노여움을 사서 궁형에 처해졌다.

十百錢 不已濫乎 其尤甚焉者 以伏羲之卦 文王之爻 取驗於句踐之破敵 已墮於術者之言 而鄙陋極矣 豈有賈生之高見卓識 而聞此言噤口不敢出氣者也邪 此則不惟季主之言之雜而不倫 卽子長之筆 過於抑揚也 然而子長之敘之 津津不已者 吾所謂有感而寓之也 夫爲人主 計之不審 則身無所處 而乃卜者言有不審 向之取糈者 固自如也 安危之相去 如是其遠也 司馬公 安得不自悼蠶室之禍 而悔恨其不自審也 是以深歎賈生之有毒恨 而遂以爲務華而絶根也 噫 子長撰史 而往往自泄悲憤 玆其所以不能無失者歟

양휴계(梁休溪)의 시고(詩藁)에 대한 서문

칠언 근체시(七言近體詩)[26]는 겨우 56자 뿐이다. 구(句)가 제한하고, 평측(平仄)이 매어두고 운(韻)이 구속하니, 그 율(律)이 정밀하다 하겠다. 지의(志義)를 지시하고, 언어를 인도하고, 표격(標格)을 바르게 하고, 풍정(風情)을 통달하고, 성률(聲律)을 살피고 기상을 관찰하니, 그 체(體)가 구비되었다고 하겠다. 재주 있는 자는 감히 그 기교를 놀리지 못하고, 두루 아는 자는 감히 그 잡박함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지 못하고, 용감한 자는 함부로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감히 이치로써 혼란하게 할 수 없으니, 그 모습이 엄하다고 하겠다.

무릇 정밀하고 구비되고 또 엄하기가 이와 같으니, 무엇으로도 용납할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천 이백 년이 흐르는 동안 사해(四海)의 안에서 작자가 교대로 일어나 앞사람이 말할 겨를이 없던 것을 왕왕 말할 수 있으니, 아마도 인심의 영활(靈活)함이 한정이 없어 이미 많다고 해서 드디어 그만두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세상의 시를 논하는 자는 모두 성당(盛唐)을 예로 들어 그 보다 숭상하는 것이 없는데, 두보(杜甫)·이백(李白)·왕유(王維)[27]·맹호연(孟浩然)[28]·고적(高適)[29]·잠삼

26) 칠언 여덟 구로 되고, 제삼·제사의 구와 제오·제육의 구가 대구(對句)를 이룬 한시(漢詩). 칠언율시(七言律詩)라고도 한다.

27) 중국 성당 때의 대표적 자연시인(自然詩人). 자는 마힐(摩詰)이다. 만년의 관명을 따라 왕우승(王右丞)이라고도 불렀다. 시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정통했으며, 특히 남화(南畵)의 조(祖)로 일컬어질 정도로 산수화에도 능했다. 『왕우승집(王右丞集)』 6권이 남아 있다.

28) 중국 성당 때의 시인. 일찍부터 세상에 뜻이 없어 녹문산(鹿門山)에서 은거하며 지내다가 나이 사십에 경사(京師)에 나와 왕유 등과 교유했다. 그의 시는 자연에 친근하여 이를 주관적, 동적으로 읊는 경향이 있어 비감하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 『맹호연집(孟浩然集)』 4권이 있다.

29) 중국 성당 때의 시인. 자는 달부(達夫), 또는 중무(仲武)이다. 50세 경부터 시작(詩作)에 힘썼는

(岑參)[30] · 위응물(韋應物)[31] · 유장경(劉長卿)[32] 등이 모두 그러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칠언율시는 3백 수를 채우지 못한다. 비록 그들이 위대한 작자로서 본래 각기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굳이 이리 저리 찾아 구하면 어찌 한 두 명의 뛰어난 자들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이가 없겠는가?

그런데 근대의 통달한 인사와 꿰뚫은 선비들은 당시(唐詩)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여 당시를 말하는 자가 있으면 무리로 비웃지 않음이 없고, 바로 내쳐서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대개 시풍은 시대를 지나면서 변하는데, 매 번 변하여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욱 신기(新奇)하고 섬교(纖巧)한 것을 강구하여 치열하게 유행이 되어 다시는 옛 모습을 진작시키지 못하게 된다.

내 친구 휴계(休溪) 양사운(梁士云)은 어려서부터 칠언근체시를 매우 좋아하였으며, 특히 당나라 사람의 시를 더욱 좋아하였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비웃어도 개의치 않고 내쳐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신기하고 섬교한 것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시의 체제(體製)가 구비되고 엄숙한 것은 내가 진실로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비록 그렇지만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알아 그것을 좋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나의 뜻을 펼칠 수가 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음미해보면 사운은 진실로 호걸이라 하겠다.

사운은 매 번 하나의 시구(詩句)를 지을 때만다 반드시 머리를 들고 눈썹을 날리며 눈을 부릅뜨고서 완성하였는데, 완성한 후에는 버리고 모으지 않고, "내 뜻은 이것으로 그칠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괴롭게 시를 읊조린 50년 동안 시고(詩藁)가 책을 이루지 못하였다.

만년에 그의 문인인 김낙기(金洛基)가 흩어지고 잃어버린 2백 수 정도를 모아서

데, 그의 시는 침통(沈痛)하고 기골(氣骨)이 있었으며, 특히 칠언고시(七言古詩)에 뛰어났다. 『고상시집(高常詩集)』이 있다.

30) 중국 성당 때의 시인. 숙종 때 가주자사(嘉州刺史)를 지냈으므로, 세상에서 잠가주(岑嘉州)라고 불렀다. 두릉산(杜陵山) 속에 퇴거하다가 촉(蜀) 땅에서 객사하였다.

31) 중국 성당 때의 시인. 소주자사(蘇州刺史)를 지냈으므로 위소주(韋蘇州)라고도 불렀다. 성품이 고결하고, 시 또한 담박하다. 왕유 · 맹호연 · 유자후(柳子厚)와 함께 왕맹위류(王孟韋柳)라고 일컬어졌다. 『위소주집(韋蘇州集)』 10권이 있다.

32) 중국 성당 때의 시인. 자는 문방(文房)이다. 오언시에 뛰어나 오언장성(五言長城)이라 일컬어졌다.

깨끗이 써서 그에게 알려주니, 사운은 웃으면서 "이것이 어찌 전할 만 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죽음에 임박하여 부탁하기를, "자네가 이미 나의 시를 모아 두었으니, 모장(某丈)에게 건네주면 반드시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모장'은 바로 나이다.

아아, 내가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드디어 사운이 자신을 대한 태도를 서술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니, 이후 이것을 보는 자는 내 말을 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여기어 꼭 취하여 읽고 익히었으면 한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웃고 버려버릴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사운이 일찍이 아쉬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그렇다면 사운에게 무슨 손상이 있겠으며, 나도 또한 어찌 병으로 여기겠는가?

梁休溪詩藁序

七言近體詩 僅五十六字耳 句限之 平仄束之 韻拘之 其律精矣 命志義 導辭詞 整標格 達風情 審聲律 觀氣象 其體備矣 才者 不敢弄其巧 博者 不敢肆其雜 勇者 不敢逞以力 智者 不得泥以理 其製嚴矣 夫精而備且嚴如此 則若無以容焉 而于玆千二百餘載 四海之內 作者迭興 前人所未遑 往往能道之 豈人心靈活無倪 不以已多而遂竭歟 世之論詩者 擧推盛唐 爲莫之尙 而杜甫李白王維孟浩然高適岑參韋應物劉長卿 皆其人也 所傳七言律詩 不滿三百首 雖其大者 固各先據 而苟躡而求之 豈無一二大者可與之齊乎 乃近代通人達士 不惟不爲唐 卽有言唐者 莫不羣笑之 輒擯之而不齒 蓋詩風 歷世而變 每變愈下 至於新奇纖巧 熾而靡然 不可復振矣 余友梁休溪士云甫 自少時 酷好七言近體詩 而尤好爲唐人言 雖人笑之而不恤 擯之而不戚 其新奇纖巧 則不之目焉 嘗曰 詩之體製之備而嚴者 吾誠知其不可跂及矣 雖然 能知其應好而好之亦足伸吾志也 味斯言 士云誠豪傑也哉 士云每就一句 必仰首撑眉努目而得之 旣得棄而不收 曰吾志止此已邪 以故苦吟五十年 而藁不成卷焉 晩而其門人金洛基 收其散佚 幾二百首 繕寫而謁之 士云笑曰 此惡足傳 臨沒而囑之曰 子旣收吾詩矣 可齎就某丈 就必有以處之 某丈者 指余也 嗚呼 余可得已邪 遂述士云之所自待者 書之如此 後之覽者 以余言爲不妄 必取而讀且習焉 否者則笑之擯之矣 此固士云所嘗不恤不戚者 於士云何損 而余亦何病焉

노대경(盧大卿)이 신택(新宅)을 점친 것에 대한 글

노처인(盧處仁)이 익산(益山)으로부터 무주(茂朱)의 안성(安城)으로 옮겨와 거처하다가, 이윽고 2백 리를 와서 나에게 부탁하기를

"금평(琴平)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점을 쳐보았습니다. 금평은 새로운 거처와 1리쯤 떨어져 있는데, 산수가 수려합니다. 그 고장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는 감여가(堪輿家 : 風水家)들이 집을 짓기에 좋은 길택지(吉宅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곳에 가서 집을 세우는 자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무슨 까닭인지 모두 철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살면서 아직 번창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천수(天壽)는 아마도 신물(神物)이 농간을 부리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원컨대, 선생의 글을 얻어 그것을 진정(鎭定)시켰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다. 내 웃으면서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령 문장을 지어 집터를 진정시킬 수가 있다면 옛날부터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은 모두 길한 집이 있어야 하는데, 문장을 잘 짓는 자가 궁핍한 경우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는 젊어서 일찍이 감여술(堪輿術)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오래도록 그 술수를 살펴봄에 선비의 과장된 말이었다. 비록 그렇지만 그 설의 입장에서 증명을 해 보이겠다.

그 설에 말하기를, '땅을 점치는 것은 곡식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땅이 비옥한 것이 똑같고, 심는데 드는 수고도 똑같은데, 살아난 것도 있고 살아나지 못한 것도 있으니, 이것은 때의 기후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무릇 집을 지을 땅의 산수가 좋지만 번창하지 못함이 있는 것은 마치 곡식을 한랭한 때에 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대체로 기운이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이다'라고 하였다. 이 설은 비록 술사(術士)에서 나온 것이지만, 진실로 이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대가 '지난 번에 집을 세운 자들이 왕왕 철거하고 번창한 자가 없다'라고 한

것은 아마도 기운이 도달하지 못한 것인 듯 싶다. 지금 그대가 물색하는 곳을 점을 치면서 반드시 감여가에게서 믿음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일찍이 살폈던 것과는 다르다. 설령 감여가의 설처럼 기운이 과연 도달하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또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곳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번창하리라는 것은 내가 그 조짐을 본 것이 있다. 무릇 집을 세움에 변려문(駢儷文)[33]으로써 육포(六抛)[34]를 늘려놓는 것은 본디 있는 일이지만, 고문(古文)을 청하여 집터를 진정시키는 것은 실로 그대가 처음이다. 고문은 문장 중의 박실(朴實)한 것인데, 박실에는 바야흐로 흥기하고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조짐이다.

일월성신(日月星辰)은 하늘의 문채요, 산천목석(山川木石)은 땅의 문채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람의 문채이다. 그대가 인의예지로써 그대의 몸을 문채나게 한다면, 어떻게 몸이 문채나는데 집이 문채나지 않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의 조짐이다.

또 듣자하니, 그대의 맏아들이 나이가 이제 열 여섯인데, 『대학』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한다. 바로 이러할 때에 그대가 이곳에 집을 세우면서 진실로 『대학』으로써 아들을 힘쓰게 하여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도를 깨닫게 한다면, 비록 그대가 이 집에 거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의 집이 번창하게 될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의 조짐이다.

이와 같은데 어찌 반드시 감여가의 말을 취할 것이며, 어떤 신물(神物)이 희롱하는 것에 대하여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처인이 일어나 절하며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큽니다. 삼가 마땅히 이 글을 갖고서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33) 사자구(四字句)와 육자구(六字句)를 많이 써서 지은 화려한 문장.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에 많이 행해졌다. '사륙(四六)'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상량문을 가리킨다.

34) 들보의 동·서·남·북·상·하를 지시하며 던진다는 뜻. 상량문(上梁文)의 말미에 들어가는 상투적인 구절로서 주문적 성격이 있다.

盧大卿卜新宅文

盧生處仁 自益山移居茂朱之安城 旣而來二百里 請于余曰 方卜新宅于栗平 栗平距新居一里所 而山水秀麗 土人相傳言 堪輿家盛稱吉宅地 以故就而建宅者 往往有之 不幾 何皆撤去 未有發達者 天壽意有神物戲焉 願得先生之文以鎭之 余笑曰 使文而能鎭宅基 則自古能文之人 擧有吉宅矣 何工文者之多窮也 余少時 嘗治堪輿術 久而審其爲術 士之夸言也 雖然 就其說而證之 其說有曰 卜地如樹穀然 土之肥沃同 所樹之勤又同 而有生者 有不生者 時候不同也 凡宅地之山水 美而不發達者 其猶樹穀於寒冷之候乎 蓋氣運未之到也 是說也 雖出自術士 而誠亦有理哉 子云 向之建宅者 往往撤去而無發達者 殆丁其氣運之未到歟 今子之卜尋 而必曰取信於堪輿 異乎余之所嘗審也 卽使如其說 氣運之果到 又非余所能知也 然而子之建宅于玆而必發達 余則有以見其兆也 夫建宅而以駢儷之辭 張其六抛者 固嘗有之 而其請古文而鎭之者 寔自子始焉 古文者 文之朴實者也 朴實者 有方興未艾之意 此其一兆也 日月星辰者 天之文也 山川木石者 地之文也 仁義禮智者 人之文也 子以仁義禮智 文子之身 則豈有身文而宅不文者乎 此其二兆也 聞子之胤子 年方十六矣 致力于大學 卽其時也 自子之建玆宅 誠能勉以大學 得格致誠正修齊治平之道 則雖子之不復居玆宅 子之宅之發達 無踰於此 此其三兆也 夫然奚必堪輿之言之是取 而何患乎有物戲之也 處仁起拜曰 受先生之賜 大矣 謹當持此以鎭之

석전서실기(石田書室記)

호남(湖南)에 거주하면서 고문(古文)을 잘 짓기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구례(求禮)의 황매천(黃梅泉 : 玹)을 찾아간다.

무릇 문장에서 고문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에 순풍(淳風)[35]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고문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난 번 을미년(1895)에 매천을 방문하여, 그가 머물고 있는 만수동(萬壽洞)에서 서너 날을 머물게 되었다.

당시 매천의 아우인 석전(石田)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그도 학문이 넓고 문장을

35) 순박한 기풍.

잘 지었으며, 손에서는 고서(古書)를 놓지 않았다. 그와 함께 말을 주고받음에 왕왕 기의(氣義)[36]의 풍모가 있었기에 마음으로 매우 존경하였는데, 아마도 그 행동에 옛날의 도(道)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이후 병신년(1896)에 나는 다시 매천을 방문하여 역시 서너 일을 머물고 장차 돌아갈려고 작별을 고하려 할 적에 매천이 마침 길을 나서는 참이었는데, 석전이 나즈막히 그 형에게 고하기를 "석정(石亭)이 떠나려 하는데, 형은 십리 쯤 나가서 전송하지 않으렵니까?"라고 하였다. 매천은 나를 십리쯤 전송하고서 나에게 그의 아우의 말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것을 듣고서 석전이 기의(氣義)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온 지 11년이 되었는데, 석전은 해마다 반드시 한 두 통의 글을 나에게 부쳐와 나의 안부를 물었고, 매 번 편지를 발송할 때마다 반드시 시와 문장이 함께 있었는데, 매천의 작품이 아니면 혹 당시의 이름난 사람의 작품이었다.

매천의 나이 오십인 해에 석전은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와 나에게 형의 오십을 축수(祝壽)하는 글을 부탁하였는데, 금년에 또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와 그의 향리 사람인 왕소천(王小川)의 61세를 축수하는 글을 권하였다. 이윽고 또 그의 형이 지은 소천을 축수하는 글을 보내왔다. 나는 여기서 그의 행동에 과연 고도(古道)가 있다는 것을 깊이 믿게 되었다.

무릇 거주지가 2백 리가 넘지 않지만 해마다 한 두 통의 편지를 보내와 안부를 묻는 것은 반드시 기의(氣義)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어 이런저런 문장을 주고받는 것도 문인(文人)의 서로 친애하는 일상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십 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은 기의(氣義)에 독실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상세(上世)의 순박한 기풍을 들은 것이 없었겠는가?

무릇 문장을 지음에 순박한 기풍이 있는 것도 고문(古文)이라고 칭하여 귀하게 여길 만한데, 하물며 행동에 순박한 기풍이 있음에 있음에랴. 이와 같은데, 어찌 고도(古道)라 일컬어 더욱 귀하게 여길만하지 않겠는가.

남들이 나에게 와서 문장을 구하거든 내가 일찍이 사양을 하는 것은 대개 내 힘이 매우 가벼워서 문장으로써 남을 귀중하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겸양하여 감히

---

36) 동지(同志)의 정의(情誼)를 말한다. 기의(氣誼)와 통한다.

짓지 않았던 것이다. 석전 같은 이는 항상 대하기를 고도(古道)로써 하니, 이것저것 가볍고 무거운 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석전이 일찍이 나에게 서실(書室)에 기문(記文)을 지어줄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자발적으로 그를 위하여 '서실기'를 지었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이 넓고 글을 잘 지을 줄 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다만 그가 나에 대하여 기의(氣義)의 풍모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이것은 고문은 진실로 석전이 응당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의 행동에 고도(古道)가 있다는 것에 나아가 먼저 기록하였음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石田書室記

居湖南而求能爲古文者 必之乎求禮黃梅泉 夫文之貴乎古 以有淳風也 余以愛古文辭故往於乙未 訪梅泉 其所宅萬壽洞 居數日 而見其弟石田 亦博學能文 手不輟古書 與之言 往往有氣義風 心甚敬之 意其行之有古之道也 其後丙申 余又訪梅泉 亦居數日將還告別 梅泉方發 而石田從容白其兄曰 石亭且行矣 兄不欲送至十數里地乎 梅泉送余至十數里 而向余道其弟言 余聞之歎其有氣義人也 自余還于玆十一年 而石田歲必一二寄余書 存余起居 每發書 必有詩或文 非梅泉之爲則 或當世聞人之爲也 梅泉年五十之歲 石田以郵書請余壽其兄五十文 今年又以郵書勸壽其鄉王小川六十一歲文 旣而又遺其兄所爲壽小川文 余於是信其行之果有古道焉 夫居不過二百里地 歲一二寄書問 非必有氣義而能之 發書有云云 亦文人相愛之常 而其歷十年不一渝 非篤於氣義者決不能爾也 居今之世 而行之若此 豈不有聞於上世之淳風乎 夫文而有淳風 稱之爲古文而可貴焉 況行而有淳風 則豈不曰古道而尤可貴焉也 人有來求余文者 余嘗辭焉 蓋余力甚輕 非能以文重人者 是以謙而不敢爲也 若石田 當待以古之道 輕重非所恤也 石田未嘗求余文記書室 而余乃自以文爲其書室記 不記其博學能文 而特記其於余有氣義風 以見其古文固石田所應有 卽其行之有古道所先記云耳

정우칭(鄭于稱)을 제사하는 글

아아! 슬프다. 우칭이 갔구나. 아아! 애석하다. 우칭 같은 재주 있는 이가 갑자기 떠나갔구나. 하늘은 어찌 우칭하게 재주를 후하게 주고서 우칭에게 나이는 주지 않았단 말인가?

사람이 재주는 있으나 나이는 없는 이가 예로부터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모두 때마침 문장을 높여주는 자를 만나 명성이 일찍이 퍼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록 일찍 죽었다고 하나 후세에 이름이 스스로 멀리 드리워 질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우칭 같은 이는 재주는 있으나 나이도 없고 또 때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가령 우칭이 때를 만난 것이 고인(古人)과 같았더라면, 요절한 것이 비록 안타깝다고 하더라도 멀리 드리워질 명성에 슬프지 않을 것이 있을 것인데, 이제 이것들 모두가 없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는가?

우칭은 십육, 십칠세 때부터 이미 고인의 문장 짓는 솜씨에 대하여 매우 잘 이해하여 몇 년 못되어 그것의 묘(妙)함을 점차 엿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써 시를 지으면 청신(淸新)하고 초발(超拔)하였으며, 그것으로써 문장을 지으면 민달(敏達)하고 순간(醇簡)하였다.

비록 그가 배우지 않았던 글이라 하더라도, 눈이 도달하면 경계가 열리고, 소리가 들어오면 마음이 열리었다. 대개 그의 학식이 두루 미치고 그의 마음에 모두 보존되지 아니한 것이 없음이니,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미칠 수 없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고인의 숙혜(夙惠)[37]로 모든 것을 종합한 자라고 하더라도 혹 더 뛰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칭의 나이 이제 마흔에 가깝고 성문(聲聞)도 아직 멀리 전달되지 못하였는데, 아아! 만난 것이 제 때가 아니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란 말인가?

우칭은 가난에 고달파 문장에 크게 힘도 써보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기었다. 나는 "재주가 민첩하면 쉽게 나아가고 식견이 높으면 쉽게 성취하니, 만일 나이가 조금만 더 부여된다면 그런대로 고인을 발돋움하여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항상 이 말로써 그를 위로하곤 했었다. 그런데 우칭의 나이가 겨우 여기에서 그

37)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다는 말. 숙혜(夙慧)와 같은 뜻이다.

치게 되었으니, 아아!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우칭은 살아생전 제 때를 만나지 못하였다. 때문에 세상의 문장을 구하는 자들은 그의 문하에 모이지 않았다. 가난은 스스로 진전할 수 없게 하였다. 때문에 그가 저술한 것도 상자에 충분히 보관되어 있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나이도 또 세상에서 오래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우칭 같은 재주라고 하더라도 어찌 후세에 전해져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아! 우칭은 불세출의 재주를 타고났고 남다르고 세상에서 빼어난 문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홀연히 났다고 또 가버렸으니, 우주 안에 재주 있는 이도 없고 문장도 없는 것과 같게 되었으니, 아아!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나는 세상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었고, 즐거워 한 것이라곤 다만 문장을 짓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중년 이래의 작품으로 우칭이 손수 편집한 것이 갑오년(1894)의 선화(燹火)[38]에 모두 타버렸다. 그 이후로 얻은 것은 수십 권을 넘지 못하였는데 모두 초고(草藁)인 채로 있었다. 내 일찍이 그것의 수정(修定)을 우칭에게 부탁하였고, 우칭도 이것으로 자임하였었다. 그런데 우칭이 세상을 떠난 것이 내가 죽기 전에 있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아아! 내 장차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단 말인가?

우칭의 시와 문장으로 내 원고에 붙어 있는 것이 약간 되는데, 그 흩어져 세상에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 지는 알 길이 없다. 내 장차 그것을 수집하겠지만 이것으로 어떻게 책이 될 수가 있겠는가? 아아! 어찌 슬퍼하지 않겠는가?

작년에 우칭이 두 눈이 부시고 좋지 않음을 근심하였는데, 금년에 또 배꼽 아래에서 기(氣)가 동하는지 좋지 않다고 근심하였다. 나는 그 병은 근본(根本)에 있다고 생각하여 우칭에게 "자네는 빨리 몸을 보충해주는 것을 드시게나!"라고 했었다.

내가 염려한 것이 그리 얕은 것은 아니지만, 뜻 밖에도 이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隕身] 되었다. 부고(訃告)가 와서 그 죽은 까닭을 물으니, 결국 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였다. 내 이에 내가 통달하지 못하여 그에게 좀 더 일찍 근본을 기르도록 힘써 권하지 못하였던 것이 몹시 한스러웠다.

부고를 듣자마자 내 마땅히 관(棺)을 쓰다듬고 한 번 통곡을 해야 했지만 병 때문에 아직 힘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문장을 지어 애도를 표하게 되었다.

---

38) 동학농민전쟁을 가리킨다.

아아! 젊은이도 오히려 죽는데 늙고 병든 자가 어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죽음에 과연 구원(九原 : 九泉)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칭과 손을 맞잡고 이 회포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천도(天道)는 밝고 밝지만 그 운명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 구원은 아득하고 아득한데, 어떻게 그것이 과연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살아서도 항상 괴롭게 서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죽어서 서로 만나는 것을 또 어떻게 꼭 기약하겠는가. 말함에 마음만 아플 뿐이다.

아아! 슬프다. 부디 흠향(歆享)하기를 바란다.

祭鄭于稱文

嗚呼悲夫 于稱逝矣 嗚呼惜哉 于稱之才而遽逝矣 天何厚與于稱才 而不與于稱年也 人之有才無年 自古何限 而彼皆時值右文 聲聞早達 當時身雖夭折 後世名自遠垂 豈有如吾于稱之有才無年 而又不值時者邪 使于稱值時如古人 則夭折雖可惜 其所遠垂有不悲者存 而乃並此而將無焉 豈不痛哉 自于稱年十六七歲時 已能於古人文章之術領會大致 不幾年而漸窺其妙 以詩則清新超拔 以文則敏達醇簡 雖所未嘗習者 目到而境開 聲入而心通 蓋靡不博及而具存 不獨時人之所不逮 卽古人夙惠兼綜者 未或過焉 而乃于稱年近四十 聲聞未遠達 嗚呼 所值非其時也 豈非命邪 于稱困于貧 未能大肆力於文章 常以爲恨 吾謂才敏則易進 識高則易就 使其有年 猶可跂及古人 常以此慰之 而乃于稱之得年 止於斯 嗚呼 豈不惜哉 于稱生值非時 故世之求其文者 不集于門 貧不能自振 故其所著述 未富於篋 然而年且未久於世 雖于稱之才 而豈有可垂後而不泯者邪 嗚呼 于稱稟不世出之才 有絶類超世之文 而倏然生且滅 於宇宙之內 與無才無文者同 嗚呼 豈非命邪 吾於世無所嗜 所嗜者 惟文字 而中年以來 于稱所手編 灰於甲午之燹 自其後 所得亦不下數十卷 而皆在草藁 嘗以修定 托之于稱 于稱亦以此自任 豈意于稱之逝 在於吾之未死也邪 嗚呼 吾將托此事於何人哉 于稱詩文 附於吾藁爲若干 其散而在世 未知爲幾許 而吾將收之 然此惡足爲卷帙也 嗚呼 豈不悲哉 去年于稱 患兩眼羞明 今年又患臍下氣動 吾意其病 在於根本 謂于稱曰 子其亟求所以滋補者餌之 吾之所慮 雖不淺 然不謂以此而遂隕身 及訃來而問之 則竟以此疾終 吾於是愈恨吾之未洞達而力勸其早養根本也 自聞訃 吾當撫棺一慟 而病未自力 今始屬文而哭之 嗚呼 少者猶死 老且病者 幾何其不死也 死而果有所謂九原 其能與于稱握

手 道此懷邪否乎 天道昭昭 而命不可測 九原冥冥 惡知其果有 生而常苦 不能相會死而相見 又何可必也 言之痛心而已 嗚呼哀哉 庶其歆哉

황대아 희온(黃大雅希溫)의 61세 장수를 축하하는 시(詩)의 서문

나의 친구 황희온(黃希溫)은 내 나이 스무 살 남짓하였을 때 만나 사귀었는데, 병오년(1906) 겨울 날 나를 찾아와 다음과 같이 부탁하였다.

"지금 나는 61세이니, 세상에 말하는 주갑(周甲)이다. 대체로 주갑을 맞이한 이의 자손들이 잔치를 열고 경하의 말을 올린다. 사치하는 자들은 사죽(絲竹)[39]을 펼쳐서 잔치 자리를 화려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술을 준비하여 친구들을 초대할 수도 없다.

나에게 계득(癸得)이라는 손자가 있는데, 올해 열네 살이다. 이숙(里塾)[40]에 다니면서 이오성(伊吾聲)[41]을 읊조리는데, 어느 날 자리를 가까이 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은 주갑의 날을 맞이하면 당세(當世)의 문장으로 이름난 사람들에게 시를 청하여 부친이나 조부를 축수해 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 속으로 일찍부터 흠모해 왔습니다. 오늘의 심정은 대대인(大大人 : 祖父)을 위하여 여러 문사(文士)의 시를 가져왔으면 합니다만, 손자의 나이가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학식도 천박하여 사람들에게 널리 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 속으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여러 문인과 교제를 맺는다면, 혹 좇아서 시를 청하여 대대인을 축수해 드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라고 하였다.

내 처음에는 듣고서 웃었는데, 이윽고 매우 기특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대에게 그대로 전해 말한 것이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시 한 수를 지어 축수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기 바란다"

---

39) 거문고와 퉁소, 현악기와 관악기를 일컬음. 전(轉)하여 음악을 가리킨다.
40) 마을에 있는 글방(書堂).
41) 글을 읊조리는 소리.

내 급히 옷깃을 바로잡고 경하하여 말하기를

"희온은 좋은 손자를 두었다. 무릇 사람이 나아갈 방향은 어렸을 때부터 결정된다. 진실로 잘 길러주고 해치지 않는다면 현자(賢者)도 되고 성인(聖人)이 되기도 하며 거공(巨公)도 되고 명사(名士)가 되기도 한다. 비록 성취한 것은 재주에 따라 다르며 크고 작은 것이 똑같지 않지만, 하늘에서 품부(稟賦)받은 것은 똑같다.

지금 희온의 손자가 이제 동관(童串)[42]인데, 능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조부에까지 도달하니, 그 효도는 진실로 천성이라 하겠다. 그리고, 시가 그 경하하는 것을 크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문학에 있어서도 천성이라고 하겠다.

무릇 사람의 행실은 효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사람의 기예는 문장보다 높은 것이 없다. 그런데 희온의 손자가 이 두 가지를 겸하고서 일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데, 희온은 어찌 가난에 근심할 것이 있겠으며, 어찌 사죽(絲竹)으로 사치를 떠는 것을 부러워 할 것이 있겠는가?

나는 시에 특별한 재주가 없어 남의 장수를 축수해 줄 만하지 못하지만, 가령 시를 지을 수가 있으며 희온에게 좋은 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의 말도 들었으니, 어찌 희온이 지어주기를 부탁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무딘 재주를 복돋워 시를 짓고, 이어서 우리 두 사람의 말로써 서문을 삼았으니, 희온의 손자가 한 번 즐거운 마음으로 보아 주었으면 한다.

黃大雅希溫六十一世壽詩序

余友黃希溫甫 自余年二十許時 所嘗過從 而丙午冬造余 囑曰 今吾六十一世 世所稱周甲也 例其子孫 開宴稱慶 侈者 張絲竹以餚之 吾則家貧 不能置斗酒 邀友朋 吾有孫癸得者 年方十四 就里塾作伊吾聲 乃膝席而告曰 孫見人家値周甲之辰 請詩於當世聞人 以壽其父祖心 嘗歆焉 今日情願爲大大人 致衆文士詩 而孫年未壯 學淺薄 不能

42) 어린아이 또는 아이를 말한다.

廣請于人 於是心竊獨恥焉 自今罔晝夜讀書 結納衆文人 或可以追請詩 得壽大大人矣 吾始聞而哂之 旣而甚奇之 是以誦於子 子不惜爲吾壽一詩乎 余亟作斂衽而賀曰 希溫有孫矣 夫人之趨向 定自幼少時 苟充而不戕 則爲賢爲聖 爲巨公爲名士 雖所就異材大小不齊 而其稟于天 一也 今希溫之孫 方在童丱 而能推愛親之心 以達于祖 其于孝固性也 能知詩之足以張其慶 其于文學 亦性也 夫人之行 莫先於孝 人之藝 莫尙於文 而希溫之孫 兼此二者 而有攸定 夫希溫 何戚乎貧乎 何羨乎侈絲竹乎 余拙于詩 顧不足壽人之壽 而假令能之 而知希溫之有是孫 又聞是語 則豈待希溫之命之邪 玆强頑而爲之詩 仍次吾兩人之言 爲之序 要希溫之孫之一欣然讀之

황동운(黃桐雲)의 61세 장수를 축하하는 서문

동운은 약관부터 문예(文藝)가 있다는 명성이 있어 여러 차례 유사(有司)[43]에 시험을 치렀으나 합격하지 못하자 운명이라고 하고서, 드디어 명리(名利)에 대한 뜻을 끊어버리고 견묘(畎畝)[44]의 사이에 자취를 맡기었다.

때때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때마다 읊조리고 노래하다가 날이 새었고, 문장을 물으러 찾아오는 이가 있거든 쉬지 않고 입으로 전해주어도 피곤을 몰랐다. 늙도록 신체가 건강하여 힘차게 먹고 웃으면서 세상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았으니, 대개 천지 사이의 소요(逍遙)[45]하는 선비라 하겠다.

나이 육십일이 되는 생일날에 술자리를 마련하여 지구(知舊)[46]를 초빙하여 운(韻)에 따라 시를 지었다. 나도 또한 요청한 자 가운데 들어 있었지만 마침 병이 있어 가지 못하였고, 문장을 지어 그의 장수를 축하해 주고자 하였으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무엇 때문인가? 동운이 이 해 봄에 유인(孺人)[47]과 영결하였고,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 나를 방문하여 그의 심정을 말한 것이 매우 척척(戚戚)했기 때문이었다.

가령 이 좋은 날에 부인이 집에 있고 자식들이 헌수(獻壽)를 하여, 거문고와 비파

43) 벼슬아치, 관리를 말한다. 여기서 '유사에 시험을 치렀다'는 것은 과거(科擧)를 본 것을 가리킨다.
44) 밭도랑과 밭이랑. 전답 또는 시골, 민간의 뜻으로 쓰인다.
45) 이러저리 거닒. 유유히 자적(自適)하는 모습을 말한다.
46) 오랜 친구. 고구(故舊)를 말한다.
47) 죽은 부인(婦人)을 지칭하는 말.

가 서로 어울리고 무늬 옷을 입고 추는 춤이 반짝일 때, 웃음을 머금고 앉아 발그레 술이 취한다면,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이제 중궤(中饋)[48]엔 주인이 없고 극인(棘人)[49]이 잔을 들어 축수를 하니, 이러한 때에 마음 속에서 감정이 복받치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무릇 사람이 운명에 바라는 것은 항상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과분한 것을 원하는데, 나도 이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일찍이 의심스러워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동운의 장수는 실로 축하할 만한 것이 있으니, 내가 의심스러운 것 때문에 축하할 만한 것까지 아울러 그만둘 수는 없었다.

무릇 사람이 태어나 육십갑자(六十甲子)를 한 바퀴 돌고 남은 생이 있을 수 있는 자는 백에 겨우 한 명뿐이고,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고 신체가 질병의 고통의 없는 자는 천에 겨우 한 명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겸하고 또 문예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나는 것은 대개 만에 겨우 한 명뿐이다. 지금 동운은 만에 겨우 한 명뿐인 몸으로 풍년이 든 해 술이 익을 때 고향의 옛날 친구들과 모여서 모든 집안 사람이 축수를 하는 날에 취하여 회포를 풀고 술을 주고받으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 이에 축하를 할 수 있거니와, 앞서 말한 것은 조물주가 모든 일을 온전히 안배하는 것이 없어진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없어진 것에서 모두 만족하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는 뜻이었다. 나와 동운은 슬픔이 있으면 마땅히 서로 위로해주고 기쁨이 있으면 마땅히 서로 즐거워하는 사이인데, 이제 그 둘을 모두 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서문을 지어 답답하여 펴지지 않는 마음을 풀어보았다.

동운이 이 글을 읽는다면 아마도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하길 "나는 진실로 운명에 과분한 것을 바란 적이 없는데, 석정이 나의 장수를 축하해주는 것이 이미 너무 지나침이 없는가?"라고 할 것이다.

---

48) 주부가 부엌 안에서 한 집안의 식사를 담당하는 일. 전(轉)하여 아내를 가리킨다.
49) 친상중(親喪中)에 있는 사람의 자식을 일컫는 말.

壽黃桐雲六十一歲序

桐雲 自弱冠 有文藝聲 屢試于有司 而不中焉 則曰命也 遂絶意名利 委跡於畎畝之間 時遇會心人 輒嘯詠達曙 有來問文字者 口授不休 而不知倦 到老身康 强健飮笑 而未嘗拘束于世 蓋天壤間逍遙之士也 年六十一 置酒於初度之日 邀知舊 拈韻賦詩 余亦在邀中 而適有疾未赴焉 欲爲文 以賀其壽 而顧不得其所以言 何者 桐雲于是歲春 訣其孺人 後數月訪余 道其情 殊戚戚也 使是日 其孺人在室 令子獻壽 琴瑟相和 彩舞斑斕 含笑而坐 陶然而醉 則其樂爲何如 而乃中饋無主 棘人稱觴 當此時 得不有觸感于中者邪 凡人之求于命 常忘其在己者 而願其侈於我者 雖余 未免乎是 是以嘗疑而未遽言 雖然 桐雲之壽 實有可賀者 余不以所疑而幷已其可賀也 夫人生而能周六十甲子 而有餘齡者 將百而僅一人矣 周六十甲子 而身體無疾病之苦者 將千而僅一人矣 兼此二者 而又能以文藝聞于人者 蓋將萬而僅一人矣 今桐雲 以萬而僅一之身 年登酒熟 與鄕故舊 酣暢倡酬於擧家祝壽之辰 可不謂之有福人哉 余於是 則可以賀矣 而若向所云者 造化之無全功 久矣 惡能望其亦無而具足也邪 余於桐雲 有戚宜相慰 有歡宜相慶矣 而幷未能焉 故迺以此序 泄其鬱不宣者 桐雲則讀此文 其將掀髯笑曰 吾固不求侈於命 而石亭之賀吾壽 無已太侈我乎

"어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논함

천하를 얻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에 달려있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에 달려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위엄으로써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은혜로써 한다. 위엄은 말 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은혜는 말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육가(陸賈)[50]가 고제(高帝 : 劉邦)에게 "어찌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51]라고 설득한 까닭이다.

---

50) 중국 전한 초기의 학자. 고조(高祖)의 세객(說客)으로서 천하통일에 공이 커 벼슬이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이르렀으며, 칙명(勅命)을 받들어 『신어(新語)』 12편을 지었다.

51) 『사기』 권97 「육가열전(陸賈列傳)」에 나오는 말로. 한 고조(高祖)가 "천하를 말 위에서 얻었는데, 어찌 시서를 일삼겠느냐"는 말에, 육가(陸賈)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지만 어찌 말 위에

비록 그렇지만, 육가는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만을 알았을 뿐이고, 시서(詩書)로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육가가 한(漢)나라를 건립한 원훈(元勳)에 참가하지 못하고, 도리어 삼걸(三傑)[52]의 아래에 있게 된 까닭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고제가 천하를 얻은 것은 말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삼걸을 잘 쓸 수 있는데 있었다. 장량(張良)은 책략을 운용하여 승리를 결정지었고, 소하(蕭何)는 병사를 조절하고 군량미를 공급하였으며, 한신(韓信)은 전투에 공격하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만약 이 세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면 고제가 어떻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 세 가지 전술은 모두 『시경』과 『서경』에 실려있는데, 세 사람은 그런대로 유사한 것을 얻었을 뿐이었다. 『서경』에 이르기를 "네 번 찌르고 다섯 번 찌르며, 여섯 번 찌르고 일곱 번 찌르고서 멈추어 정돈해야 한다"[53]라고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대오가 면면히 이어지고 질서정연하며, 측량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다"[54]라고 하였는데, 한신이 군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한 것이 대략 이것과 유사하다.

『서경』에 "군량을 준비하되 미치지 않음이 없게 하라"[55]라고 하였고, 『시경』에 "이 옷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천자를 도우리라"[56]라고 하였는데, 소하가 날짜에 맞추어 군량미를 제공하였던 것이 대략 이것과 유사하다.

또 『서경』에 "오직 이윤(伊尹)[57]이 탕(湯) 임금과 함께 순일한 덕을 두었다"[58]라고 하였고, 『시경』에 "태사(太師)인 상보(尙父)[59]가 때에 매가 날아오르듯 한다"[60]라고 하였는데, 장량이 고제의 태사가 된 것이 대략 주(周)나라의 상보와 비슷하지만, 상

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여, 한 고조에게 인의(仁義)를 행하고 선성(先聖)을 본받을 것을 권한 내용이다.

52) 장량(張良)·소하(蕭何)·한신(韓信)을 가리킨다.

53) 『서경』「목서(牧誓)」에 나온다. 죽이는 것을 탐하는 마음을 경계시킨 구절이다.

54) 『시경』 대아(大雅), 「상무(常武)」에 나온다.

55) 『서경』「비서(費誓)」에 보인다.

56) 『시경』 소아(小雅), 「육월(六月)」에 보인다.

57) 중국 은(殷)나라의 명상(名相). 탕왕(湯王)과 태갑(太甲)을 보좌하였다.

58) 『서경』「함유일덕(咸有一德)」에 보인다.

59) 중국 주(周)나라의 현신(賢臣)인 태공망(太公望) 여상(呂商)의 존호(尊號). 일찍이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보좌하여 은(殷)나라의 무도한 주왕(紂王)을 축출하고 주나라를 건립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60) 『시경』 대아(大雅), 「대명(大明)」에 보인다.

(商)나라의 아형(阿衡)[61]을 바라기에는 부족하였다.

무릇 『시경』과 『서경』에 실려있는 것에서 혹자는 그 대략적인 것을 얻기도 하고, 혹자는 미치지도 못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천하를 제압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천하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말해야 무엇하겠는가?

육가는 비록 이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한 것을 통하여 옛날과 지금의 역사에서 그것을 징험해보면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없다. 예컨대, 현재의 자신의 강성함만을 믿고서 이후의 일을 잘 대비하지 못한 자로는 다만 진(秦)나라가 천하를 겸병하였다가 갑자기 망한 경우뿐만이 아니었다.

진나라에 앞서 오(吳)나라 부차(夫差)[62]가 황지(黃池)에서 뛰어남을 다투다가 구천(勾踐)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제(齊)나라 민왕(湣王)[63]은 천자(天子)가 되려고 하다가 도리어 요치(淖齒)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진나라 뒤로는 송(宋)·제(齊)·양(梁)·진(陳)·수(隋)와 오계(五季)[64]의 군주는 한갓 위엄이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만을 알고 은혜가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겨우 천하를 얻었다가 곧바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아아! 주(周)나라가 쇠퇴하여 춘추·전국시대를 지나온 동안 오직 권력과 전쟁만을 숭상하여 약육강식(弱肉强食)을 일삼다가, 진(秦)나라에 이르러 더욱 심하게 되었다. 진나라는 육국(六國)[65]을 통일하자마자 바로 시·서(詩書)를 불사르고 유생(儒生)을 파묻었다.

---

61) 중국 은나라의 이윤(伊尹)이 한 벼슬 이름. 아(阿)는 '의뢰한다'는 뜻이고, 형(衡)은 '저울대'로서 물건을 달 때 평평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천하의 백성이 그에게 의뢰하여 공평, 태평을 얻음을 가리킨다. 전(轉)하여 재상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62) 중국 춘추시대의 오왕(吳王). 그의 아버지 합려(闔廬)는 월왕(越王) 구천(勾踐)에게 패하고 부상하여 죽었다. 부차는 왕위를 계승하여 회계(會稽)에서 구천을 패배시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는데, 구천이 오나라 태재(太宰) 비(嚭)에게 뇌물을 주어 오와 화친을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이후 부차는 정치를 비에게 맡기어 내정이 문란해졌고, 3년이 지난 뒤 정예병을 모두 데리고 황지(黃池)에서 제후들에게 무력을 과시하다가, 구천이 이 틈을 이용하여 오나라를 멸망시켰고, 부차는 자결하였다.

63)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임금. 『통감(通鑑)』에 의하면, 제 민왕은 송(宋)을 멸망시키고 교만해져, 이에 남으로 초(楚)를 침입하고 서쪽으로 삼진(三晉)을 침략하고, 동주(東周)와 서주(西周)를 병탐하여 천자가 되고자 하였다. 이에 연(燕)을 중심으로 한 제후국은 연합군을 결정하여 제를 공격하였고, 민왕은 위(衛)로 도망하였다. 이에 초(楚)는 요치(淖齒)를 파견하여 제를 구원해주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요치는 제나라 재상이 되었다. 그러나 요치는 연(燕)과 제나라를 분할하고자 하여 민왕을 살해하였다.

64)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의 오대(五代)를 말한다.

65)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와 대립하였던 산동(山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齊)·노(魯)·송(宋)·연(燕)·초(楚)·진(晉) 여섯 나라를 말한다.

고제는 눈으로 시·서를 읽는 자는 파묻혀 죽음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시·서를 읽지 않았고, 심하게는 유생을 모욕하여 그 관(冠)에다 오줌을 누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이 발 빠른 말을 타고 진록(秦鹿)[66]을 쫓아 얻었다고 여겼으나,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다만 그가 능히 여러 사람의 마음을 획득하고 여러 막료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따랐던 것이 그런대로 시·서에 부합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릇 말을 탄 것으로 말한다면, 천하의 명마인 오추마를 탄 항우는 이미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었고, 고제도 그와 대적할 때마다 패퇴하였다. 그러나 천하를 얻은 자는 항우가 아니고 고제였다. 만약 말 위에서 위엄을 부리는 것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지 않는가?

만약 고제가 시·서를 읽을 줄 알았다면 그의 활달한 큰 국량은 육가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말들을 화산(華山)[67]의 남쪽으로 돌려보냈을 것이요, 그렇게 되었다면 한 고제의 업적으로만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타깝다 하겠다.

寧可以馬上治天下論

得天下 在制人 治天下 在安人 制人以威 安人以恩 威出於馬上 恩不出於馬上 此陸賈所以說高帝 以寧可以馬上治天下者也 雖然 賈能知馬上之不可以治天下 而不能知詩書之亦可以得天下 此乃賈之所以未參漢之元勳 而反出三傑之下也 何以言之 高帝之得天下 不在於馬上 而在於能用三傑 張良而運籌決勝 蕭何而調兵給食 韓信而戰勝攻所 不由此三者 而高帝惡得以馬上得天下哉 之三術 具載於詩書 而三人者 僅得其似也 書曰 四伐五代 六伐七伐 乃止齊焉 詩曰 綿綿翼翼 不測不克 韓之多多益善 粗似乎此也 書曰 峙乃糗糧 無敢不逮 詩曰 我服既成 以佐天子 蕭之得依日月 粗似乎此也 書曰 惟尹躬暨湯 咸有一德 詩曰 維師尙父 時維鷹揚 張之爲帝者師 粗似乎周

66) 진나라의 제위(帝位)를 가리킴. 사슴은 여러 사냥꾼들이 다투어 쫓아가 잡는 짐승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특히, 제위(帝位)를 가리킨다. 『십팔사략(十八史略)』에 "진나라가 그 사슴을 잃자, 천하가 모두 쫓았다"라는 말이 있다.

67) 지금의 중국 섬서성(陝西省) 화음현(華陰縣)에 있는 산 이름. 오악(五嶽)의 하나이다. 일찍이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하고서 전쟁에 쓰인 말들을 화산(華山)의 남쪽으로 보내어 다시는 전쟁을 할 의사가 없음을 보였다고 한다.

之尙父 而不足以望商之阿衡也 夫以詩書所載 或得其粗 或不及焉 而猶可以用之 而制天下 則其於治天下 豈容有言哉 賈雖不能知此 然因其說而驗諸古今 未有不然 恃强而不善後者 非獨秦之兼幷而暴亡也 前乎秦 則吳夫差 爭長於黃池 而見滅於勾踐 齊湣王 欲爲天子 而反見殺於淖齒 後乎秦 則宋齊梁陳隋 及五季之君 徒知威足以制人 而不知恩可以安人 故皆僅得而驟失 嗚呼 周衰而自春秋戰國以來 惟力爭是尙 弱肉强食 至秦而尤甚焉. 及六國就一 乃焚詩書 坑儒生 高帝目見讀詩書者之可坑而殺之 故不讀詩書 甚則侮儒生 而溲溺其冠 遂自認以乘疾足之馬 逐秦鹿而得之 其亦誤矣 惟其能自得師 率由羣匹 略有合於詩書 故得以有天下矣 夫以馬上言之 騅背之項羽 已無敵於天下 而帝遇之輒敗 然得天下者 非羽也 乃帝也 若知馬上不必得天下 則馬上之不可治天下 不已明乎 使高帝得讀詩書 意其豁達大度 不待陸生之言 而歸馬于華山之陽 不止爲漢高之業而已 惜哉

"각자 자기를 친근하게 대해준다고 여기었다"라고 한 것을 논함

사람의 정은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남과 함께 하는데 기쁘면 진실로 상대를 잘 대해 주지만, 기쁘지 않으면 또한 반드시 잘 대해줄 수는 없다.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잘 대해주어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를 친근하게 대해준다고 여기에 하는 경우는 없다.

맹상군(孟嘗君)[68]은 식객(食客)이 삼천 명이나 되었는데, 반드시 그 사람들이 모두 맹상군이 좋아하는 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잘 대해주지 않음이 없었고 형색(形色)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각자가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으니, 맹상군은 현명한 자라고 하겠으며, 식객이 삼천 명이나 많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비록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맹상군은 제(齊)

68) 중국 전국시대 사람. 제(齊)나라 전영(田嬰)의 아들이다. 설(薛) 땅을 봉토(封土)로 받아 맹상군이 되었다.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때 현사(賢士)를 초빙하여 식객(食客)이 삼천명에 이르렀다. 진(秦)나라에 들어가 소왕(昭王)에게 피살될 뻔 한 것을 식객 중에서 계명구도(鷄鳴狗盜)를 잘 하는 이가 있어 위기를 모면하게 된 일화가 유명하다.

나라의 귀공자로서 국정에 참여하여 정사를 듣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일찍이 한 사람의 식객도 왕에게 추천하여 그와 더불어 국정을 함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찌 삼천의 식객 중에서 한 사람도 재주 있고 현명한 자가 없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의 봉록을 허비하여 쓸모 없는 자들이나 먹여준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재주 있고 현명한 자가 있는데 왕에게 천거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현인(賢人)의 길목을 저지하고 현자를 등용하는 문호를 막아버린 것이다.

맹상군이 지혜롭지 못하였다면 굳이 책망할 것도 없겠지만, 지혜로운데 이러한 짓을 했다면 맹상군은 죄가 있다. 무엇 때문인가? 삼천 명의 식객을 좋아한 자나 좋아하지 않는 자나 막론하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맹상군이 자기를 친근하게 대해 주고 있다고 여기게 만든 것은 그가 사은(私恩)을 베풀었기 때문이었고, 삼천 명의 식객 중에 한 사람도 왕에게 천거받음이 없으면서도 각자 맹상군이 자기를 친근하게 대해주고 있다고 여기지 않음이 없었던 것은 그가 사당(私黨)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밖으로는 제후들에게 명예를 요구하고, 안으로는 한 나라 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 것은 오직 그의 사당을 세우려는 마음이 가슴 속에 가득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좋고 좋지 못함이 그의 심정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 오직 사은을 베푸는 힘이 문하(門下)에 두루 미쳤기 때문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그의 환심을 사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던 것이다.

무릇 내 마음의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은 것을 계산에 넣고 있지 않으면 상대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않은 것을 또 어느 겨를에 가리겠는가? 그 주인이 사은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여 그의 사당에 참여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었으니, 맹상군 식객의 현명하고 현명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겠다.

식객 중에 가장 저명한 자는 풍환(馮讙)[69]인데, 그가 말하길 "수레 일승(一乘)[70]을 빌려주어 진(秦)나라에 들어가게 해 준다면 반드시 군주(君主)로 하여금 나라에서 중시받도록 하여 봉읍(奉邑)[71]을 더욱 넓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만 보아

69)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의 식객(食客). 일찍이 "식사에 물고기가 없고, 출행에 수레가 없고, 살 집이 없다는 것"으로 세 차례 '장협귀래가'(長鋏歸來歌)를 부르자, 맹상군이 그를 예우하여 모두 그의 뜻대로 해 주었다.

70) 수레 한 대. 일승에는 네 마리의 말이 붙어 있다.

71) 공신(功臣)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주는 영지(領地). 거기서 나오는 조세를 받아 먹게 한다. 식읍(食邑)과 같은 뜻이다.

도 앞에서 사당을 세운 것이다라고 한 것이 잘못된 판단인가.

아아! 만약 맹상군이 마음을 비우고 식객 중의 현명한 자를 길러서 왕에게 천거하여 그와 더불어 국정을 함께 하였더라면 또한 진실로 현명하지 않았겠는가, 또한 진실로 현명하지 않았겠는가?

各自以爲親己論

人之情 常喜其所好 而不喜其所不好 其與人也喜 固善遇之 不喜 亦必不能善遇之也 虛懷而容之則有矣 未有喜其所不好而善遇之 使其自以爲親己者也 孟嘗君客三千 未必其人皆孟嘗君所好也 而無不善遇之 而形色不外顯 各得其歡心焉 孟嘗君可謂賢矣 宜其有客 至於三千之多也 雖然 余甚疑之 孟嘗君 齊之貴公子也 國政無不與聞 而未嘗以一士薦于其王 與之共國政 豈三千之士 無一人才且賢者歟 則糜國家之奉 養無用之徒也 抑有之而不薦之其王歟 則沮賢人之路 而杜用賢之門也 孟嘗君而不智 固不足責矣 智而爲此焉 則孟嘗君有罪矣 何者 三千之客 無好與不好 使之各自以爲孟嘗君親己者 以其施私恩也 三千之客 未有一人薦于其王 而無不各自以爲孟嘗君親己者 以其樹私黨也 外而要譽於諸侯 內而固位擅貴於一國 惟其樹私黨之心 篤於胸中 故人之好不好 不足以動其情 亦惟其施私恩之力 周于門下 故無所好與所不好 皆盡其歡心也 夫吾心之好不好 不之計焉 則彼之賢不肖 又何暇擇焉 悅其主之施私恩 而甘爲其私黨焉 其客之賢不肖 又可知矣 客之最著者 馮讙也 而其言曰 借車一乘以入秦 必令君重於國 而奉邑益廣 觀乎此 向所謂樹私黨者 非邪 嗚呼 使孟嘗君能虛懷 而養其客之賢者 薦于其王 而與之共國政 不亦誠賢矣哉 不亦誠賢矣哉

"엄격함도 진실로 불가하고 사랑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것을 논함

한위공(韓魏公 : 韓琦)이 군대를 통솔하는 것에 대하여 논하기를 "엄격함도 진실로 불가하고 사랑하는 것도 불가하다"[72]라고 하였다. 그 뜻은 말하자면, 엄격한데

72) 주희(朱熹),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후집(後集) 권1에 보인다.

한결같으면 군대가 반드시 노하게 되고, 사랑하는데 한결같으면 군대가 반드시 교만해지니, 그 두 가지를 짐작하여 되도록 중도(中道)로써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뜻이 명확하지 않다. 내 이런 까닭으로 그 말씀을 되짚어서 그 뜻을 온전히 밝혀 다음과 같이 논한다.

무릇 군대를 통솔하는 방도는 엄격함이 아니면 진실로 불가능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불가능하다. 무엇을 엄격함이라고 하는가? 부대의 대오를 정돈하고, 약속을 굳게 지키고, 상벌을 믿음 있게 실시하는 것이다. 부대의 대오가 정돈되지 못하면 진퇴(進退)를 통일할 수가 없고, 약속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고, 상벌이 믿음이 있지 못하면 용감한 자와 겁이 많은 자를 구분할 수가 없다.

무릇 이 세 가지 것은 정밀하여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니, 엄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엄격하지 못한 자는 평시에 그 군대가 반드시 해이하여, 전투에 임해서는 기운을 떨쳐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엄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자를 구휼해주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주고, 사역을 줄여주는 것이다.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자가 구휼을 받지 못하면 그 힘을 기를 수가 없고, 병들고 상처 입은 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사역이 줄어들지 않으면 그 뜻을 오로지 할 수가 없다.

무릇 이 세 가지는 두루 시행하되 절도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패하게 되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하지 않는 경우 평상시엔 그 군대가 반드시 유감을 느끼고, 전투에 임해서는 그 책임을 다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위엄은 엄격함에서 생겨나고 은혜는 사랑에서 생겨난다. 위엄이 드러나면 군대의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이 없고, 은혜가 두루 스며들면 군대의 정이 두루 통하지 않음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평시에는 그 군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투에 임해서는 기운을 떨쳐 책임을 다하게 되어, 장수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염두에 두니, 이것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는 방도이다.

비록 그렇지만 위엄이 은혜보다 지나치면 혹독해지니, 혹독하면 잔학해진다. 은혜가 위엄보다 지나치면 스스럼 없게 되니, 스스럼 없게 되면 해이해진다. 엄격하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의 생각이 끊어지는데, 은혜의 생각이 한 번 끊어지면 바로 노여움이 그 자리를 잇게 된다. 사랑하기만 하고 엄격하지 못하면 위엄이 깎이게 되는데, 위엄이 깎이게 되면 바로 교만이 싹트게 된다. 이것이 한위공이 "엄격함도 진실로 불가하고, 사랑함도 불가하다"라고 한 까닭이다.

비록 그렇지만 엄격함은 혹독함과 다르고 사랑은 스스럼 없는 것과 똑같지 않다. 엄격이란 오직 법대로 시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말하지만, 혹독함은 정도를 넘쳐서 잔인한 것이다. 사랑은 자신의 인(仁)으로써 남에까지 미쳐가는 것을 말하지만, 스스럼이 없는 것은 편안히 여기고 깔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혼동하여 구별이 없게 할 수가 있겠는가? 요컨대, 마땅히 "엄격하되 혹독해서는 안되고, 사랑하되 스스럼 없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한위공은 또 이어서 "만약 그 죄가 합당하다면 비록 날마다 백 명의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도 백 명의 사람이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말씀이 지나치게 억양(抑揚)을 표출하여 도리어 그 정밀함을 잃고 있다. 따라서, 나는 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嚴固不可愛亦不可論

韓魏公論御軍云 嚴固不可 愛亦不可 其意以爲 一於嚴 則軍必怒 一於愛 則軍必驕 要酌其兩者 務以中道云爾 然而辭失於粗 意乃未明 余是以反其辭 而盡其意 爲之言曰 夫御軍之道 不嚴固不可 不愛亦不可 何謂嚴 整部伍 牢約束 信賞罰 是已 部伍不整 無以壹進退 約束不牢 無以應機會 賞罰不信 無以齊勇怯 凡此三者 要精密無罅否則必敗 可不嚴乎 不嚴者 平時其軍必懈 臨戰不能作其氣 故不可不嚴也 何謂愛 恤飢寒 濟病傷 省使役 是已 飢寒不恤 無以養其力 病傷不濟 無以完其命 使役不省 無以專其志 凡此三者 要周至有節 否則必敗 可不愛乎 不愛者 平時其軍必憾 臨戰不能責其効 故不可不愛也 威生於嚴 恩生於愛 威著 則軍事無不擧 恩洽 則軍情無不通 兩者備 而平時其軍不擾 臨戰作氣責効 惟吾所欲爲 此必勝之術也 雖然 威勝於恩者酷 酷則殘矣 恩勝於威者褻 褻則弛矣 嚴而不愛 恩意絶 恩意一絶 而怒斯繼矣 愛而不嚴 威稜削 威稜一削 而驕斯萌矣 此魏公所以謂嚴固不可愛亦不可者也 雖然 嚴與酷異 愛與褻不同 嚴者 惟法無我之謂 而酷則濫而忍也 愛者 以仁及人之謂 而褻則恬

而翫也 豈可混而無別哉 要之 當曰嚴而不酷 愛而不褻焉耳 魏公又云 若當其罪 雖日誅百人 百人自不怨 此其意也 而辭過抑揚 反失其精 故余不得不論

"세 사람이 수레를 미는 것과 같다"는 것을 논함

송나라 경력(慶曆)[73] 연간에 한기(韓琦)[74]와 범중엄(范仲淹)[75]과 부필(富弼)[76]이 함께 서부(西府)[77]에 있으면서 임금 앞에서는 사안(事案)을 쟁론하였지만 궁궐을 나와서는 화(和)함을 잃지 않았다.

설자(說者)들은 이 일을 두고서 "세 사람은 마치 수레를 미는데 그 마음이 수레를 나가게 하는 것을 주로 삼은 것과 같았다"라고 하였다. 나는 세 사람이 참으로 군자(君子)이고 설자도 세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한 것이 기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일을 논해 보았다.

수레는 가는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 삼고 일은 성공하는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 삼는데, 그 일차적인 것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마음에서 그것을 책려(責勵)해야 한다. 수레를 미는 자는 마음이 항상 가는 것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되고, 일을 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성공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 수레가 길을 가는 것은 일이 성공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수레가 나가는 것은 점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미리 정할 수가 있지만,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부딪치기에 성공을 미리 정할 수가 없다. 앞서 미리 정한 자는 그 마음이 한결같지만, 아직 앞서서 미리 정하지 못한 자는 그 마음이 의심을 갖게 된다. 의심을 갖게 되면 여러 생각들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 생각들을 모으면 논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재주에는 뛰어나고 열등한 것이 있

---

73) 중국 북송 인종의 연호. 1041년~1048년에 해당한다. 경력지치(慶曆之治)라고 일컬어진다.
74) 중국 북송 때의 현상(賢相). 자는 치규(稚圭)이다. 인종 때 재상이 되어 위국공(魏國公)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75) 중국 북송 때의 명상(名相). 자는 희문(希文)이다. 벼슬이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76) 중국 북송 때의 명상(名相). 자는 언국(彦國)이다. 영종(英宗) 때 왕안석과 사이가 좋지 않아 벼슬에서 물러나려 했으나, 도리어 사공(司空)을 가배(加拜)되고 한국공(韓國公)에 봉해졌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77) 중국 송나라 때 경사(京師)의 동서(東西)에 양부(兩府)를 두었는데, 서부는 추밀사(樞密使)가 업무를 보았다.

고 생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있는데 열등한 자가 뛰어난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른 자가 자신의 견해를 옳다고 여기니, 이것이 쟁론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러한 때에 자기의 열등한 것을 버리고 남의 뛰어난 것을 따르며, 자기의 그른 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남의 옳은 것을 취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옳고 그른 것이 서로 합하여 그른 자도 옳게 되고, 뛰어나고 열등한 것이 서로 합하여 열등한 자도 뛰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지난번에는 논의가 되었지만 지금은 합하게 되고, 지난번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정해지게 된다. 처음에는 비록 다투었지만 어찌 최종적으로 화합하는 데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마음을 한결같게 가지는 것의 효과이다.

마음을 한결같게 가지는 효과는 오직 공평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이 공평하기 때문에 천하의 일을 쟁론하여도 그것은 마치 하나의 수레를 밀어 나아가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니, 군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소인은 이것과 반대로 행동한다. 그들은 자기의 재주를 헤아리지도 않고 능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도 않는다. 자기를 헤아리지 않으면 이기려는 마음이 생겨나고, 남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기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서로 원인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긋나고 균열이 생기게 되어 다시는 화합할 수가 없게 되니, 이것이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것이 가져오는 해악이다.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자는 공공적인 마음이 없는 자이다. 그것은 수레를 밀면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고서 일에 실패하지 않은 자는 천하에 없다. 크게는 국가를 그르치고 작게는 몸을 망친다. 앞의 수레가 이미 전복되었는데 뒤에 오는 수레가 경계하지 않으니,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이러한 사태를 모면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세 군자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三人如推車子論

宋慶曆中 韓公琦與范公仲淹富公弼 同在西府 上前爭事 下殿不失和 說者謂 三人如推車子 其心主車可行而已 余喜三公誠君子 而說者能得三公之心 因敷爲之論曰 車一於行 事一於成 欲其一者 均責之於心 推車者 心常不貳乎行 作事者 心常不貳乎成

車之於行 猶事之於成也 雖然 車之進也 以漸 故行可前定 而事則應於不測 故成未能前定 前定者 其心專 未前定者 其心疑 疑則集衆思 集衆思 則議論生 才有長短 慮有得失 而短者不能測長 失者自以爲得 此爭之所由起也 當此時 捨己之短 而從人之長 覺己之失 而取人之得 得失相合 而失者亦得 長短相合 而短者亦長 向也議 而今也合 向也疑 而今也定 始雖爭 安得不終歸於和哉 此心一之效也 一心之效 惟有公心者 得以致之 其心公 故爭天下事 如推一車 而欲其行者焉 可不謂之君子乎 小人反是 不度己之才 不讓人之能 不度己 則勝心生 不讓人 則忌心生 勝與忌相因 而乖戾潰裂 不可復合 此心不一之害也 心不一者 無公心者也 是以與推車而不欲行者無異焉 然而不僨事者 未之有也 大而誤國 小而誤身 前車已覆 後車不戒 可不哀哉 欲免乎斯 當以三君子爲軌

임금 앞에서 일을 쟁론하는 것을 논함

나는 앞에서 한기·범중엄·부필 삼공(三公)이 일을 의론한 것이 화(和)함을 잃지 않은 것이 군자의 쟁론이라고 논하였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들이 임금 앞에서 일을 쟁론한 것이 대신(大臣)의 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대신은 나랏일을 담당하는 자이다. 자신의 재주를 헤아려서 대신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으면 비록 임금이 명령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무릅쓰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일을 만났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시험삼아 옛날의 대신을 일일히 예로 들어서 내 말을 증험해 보겠다.

요임금의 조정에서는 순(舜)이 일을 맡았고, 순임금의 조정에서는 우(禹)가 일을 맡았다. 그리고 고요(皐陶)[78]·설(契)[79]·익(益)[80]·직(稷)[81]과 같은 현명한 자들이 모두 도와서 일을 성취하였다. 일에 임해서 요 임금과 순 임금 앞에서 쟁론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

78) 순(舜) 임금의 신하. 자는 정견(庭堅)이다. 사구(司寇) 즉, 옥관(獄官)의 장(長)을 지냈다.
79) 순 임금의 신하. 사도(司徒) 즉, 교육의 장을 담당하였다.
80) 순 임금의 신하. 우(虞 : 山澤)를 담당하였다.
81) 순 임금의 신하. 농관(農官)을 담당하였다.

이윤(伊尹)과 중훼(仲虺)[82]는 함께 상(商)나라를 보좌하였고, 주공(周公)과 소공(召公)[83]은 함께 주나라를 보좌하였지만, 일찍이 임금 앞에서 일을 쟁론한 적은 없었다. 비록 내려와 한(漢)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였다. 장량(張良)과 진평(陳平)[84]은 함께 한고조를 보좌하였고, 방현령(房玄齡)[85]과 두여회(杜如晦)[86]는 함께 당태종을 보좌하였지만, 그들도 또한 일찍이 그 임금의 앞에서 일을 가지고 쟁론한 적이 없었다.

그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한 사람이 일을 논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쟁론하면 임금의 마음이 미혹된다. 임금의 마음이 미혹되면 결단이 지체되고, 결단이 지체되면 막고 훼방하는 것이 슬며시 다가와서 일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임금 앞에서 일을 쟁론하는 것은 대신의 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상고시대에는 문장이 간략하였기 때문에 비록 쟁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서책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공(周公)이 재상이 되어 일찍이 동정(東征)을 하였고 또 일찍이 낙읍(洛邑)을 건설하였다. 골육(骨肉)의 친척으로써 주륙(誅戮)을 행하고, 새로 축조한 나라에서 대역사(大役事)를 일으켰는데, 소공(召公)이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만약 임금 앞에서 말을 하였다면 사관(史官)이 어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주공에 앞선 자들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일을 기록한 것이 한나라와 당나라에 내려와서는 번잡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데, 다만 장량과 진평은 발을 당겨 모으고 귀를 가까이 붙이었다고 하였고, 방현령은

82) 은나라 탕(湯) 임금의 신하. 좌상(左相)을 지냈다. 『서경』에 「중훼지고(仲虺之誥)」라는 편명이 있다.
83) 주나라 문왕(文王)의 서자(庶子). 이름은 석(奭)이다. 성왕(成王) 때 삼공(三公)이 되어 주공과 더불어 덕정(德政)을 베풀었다.
84) 중국 전한의 공신. 지모가 뛰어나 고조(高祖)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고, 혜제(惠帝) 때 좌승상(左丞相)이 되었다. 여후(呂后)가 죽은 후 주발(周勃)과 함께 여씨(呂氏) 일가를 죽이고 한실(漢室)을 편안케 하였다.
85) 중국 당나라 개국공신. 자는 교(喬)이다. 박학(博學)하며 정사(政事)를 잘 다스려 두여회(杜如晦)와 함께 정관(貞觀)의 방·두(房杜)라고 일컬어진다.
86) 중국 당나라 개국공신. 자는 극명(克明)이다. 태종 때에 우복야(右僕射)가 되었고 내국공(萊國公)에 봉해졌다.

모의(謀議)을 잘 하였고 두여회는 결단을 잘 하였다고 하였을 뿐이었다. 언제 일찍이 하나의 일이라도 임금 앞에서 쟁론한 것이 있었는가?"

라고 하였다. 혹자가 또 말하기를,

"대신이 잘못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참정(參政)[87]이 그 일을 쟁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 대답하기를,

"이것은 당연히 쟁론해야 하는 것이지만 마땅히 상부(相府)[88]에서 해야 할 것이고, 마땅히 임금 앞에서는 해서는 안될 것이다. 후한(後漢)의 제갈무후(諸葛武侯 : 諸葛亮)가 참서(參署)[89]를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만약 사소한 혐의까지 멀리하려 한다면 어긋난 것에 대해 서로 쟁론하기 어려워 직무를 오래도록 비워두게 된다.' 라고 하였다.

무릇 참정과 참서가 비록 하는 일이 다르지만 마땅히 상부(相府)에서 일의 득실(得失)을 논의하여 논의가 정해지면 임금에게 아뢰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금 앞에서 쟁론을 벌여 임금의 마음을 미혹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후세에 논의는 성대하지만 실제 일을 성취한 것은 적으며, 대신이 된 자들이 독단의 혐의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 까닭이다. 비록 한기·범중엄·부필 삼공과 같은 식견을 가진 자들도 옛날 대신이 행했던 도를 행하지 못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그 언론의 정대(正大)함은 혹 한나라와 당나라의 여러 대신에 앞서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도리어 그들에 손색이 있었던 것이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임금의 앞은 일을 쟁론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인가?"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간관(諫官)[90]이 본래 이 직책을 맡고 있다. 만약 참정(參政)이 반드시 먼저 상부

87) 참지정사(參知政事)의 약칭. 송대(宋代)에는 재상 다음 가는 벼슬이었다.
88) 재상(宰相)이 거처하는 관청.
89) 정사에 직접 참여하여 해당 부서에서 일을 집행하는 직책.
90) 임금을 간하는 벼슬.

(相府)에서 쟁론을 했는데 대신이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 일이 국가의 큰 정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곧바로 탄원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 어찌 쟁론으로 그칠 것이겠는가?"

라고 하였다. 혹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불러서 함께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였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일을 미리 앞서서 정해두었다가 질문에 대비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혹간 갑자기 발생하여 미처 대비하지 못하더라도 침착하게 생각을 진술하고 물러나 쟁론하여 동일한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論上前爭事

余旣論韓范富三公之議事 不失和爲君子之爭 而獨恨其爭事於上前 非大臣之道也 何以言之 大臣任國事者也 度其才 不可以堪大臣之職 則雖上命之 不敢冒居也 如足以堪焉 遇事能自任 可也 試歷擧古昔大臣而證之 堯之廷 舜任事 舜之廷 禹任事 如皐契益稷之賢 皆協成之 未聞臨事而爭於堯舜之前也 伊仲同佐商 周召同佐周 而未嘗爭事 雖降至漢唐 張陳同佐高帝 房杜同佐太宗 而亦未嘗以事爭於其君之前也 其故何也 一人論事 而一人出而爭之 則君心惑 君心惑 則決斷遲 決斷遲 則沮撓傍至 而事不可就矣 故曰上前爭事 非大臣之道也 或曰 上古文簡 雖有爭論 特書未載爾 是大不然 周公爲相 嘗東征矣 嘗宅洛矣 以骨肉之親 行誅戮 以新造之邦 興大役 未可曰召公必無言 雖果言之 其不在王前 明矣 若在王前 史官豈不記之邪 推此而觀之 前乎周公者亦可知矣 記事至漢唐 不爲不繁矣 而但曰 張良陳平 攝足附耳 語房玄齡善謀 杜如晦能斷而已 何嘗有以一事爭於上前者邪 或又曰 大臣有謬擧 參政抑不可以爭之乎 曰是固宜爭 而當於相府 不當於君前也 後漢諸葛武侯謂參署曰 若遠小嫌 難相違覆 曠闕損矣 夫參政與參署 雖異 然當於相府 議其得失 及其議定 可奏之上而行之也 豈有爭於君前 而令君心惑者邪 此由後世議論盛而實事少 爲大臣者 嫌於獨專 不敢自任

雖以韓范富三公之識 未能行古大臣之道 是以其言論之正大 或過於漢唐諸大臣 而實施及有遜焉 寧不惜哉 或曰 然則上前 非爭事之地乎 曰 諫官固其職也 若參政必先爭於相府 大臣不聽 而事有關於國之大政 卽彈而正之 奚特爭而止哉 上召與共議 奈何曰 豫事而定 以待問 或遽而未也 從容陳懷 退而爭 期於一

"형상(刑賞)은 천하의 형상이다"는 것을 논함

형벌과 상이 위에서 나오면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아래에서 행해진다. 이 형벌과 상은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리는 이로운 도구이다. 따라서 이 도구를 시행하는 것은 마땅히 공적이어야지 사적이어서는 안 된다. 군주는 그 자루를 잡고 있는 자인데 다스림과 혼란이 여기에 달려 있다.

형벌과 상이 공적인 것을 따랐는가? 만약 그렇다면 한 사람을 형벌에 처함에 천하가 악을 징계하지 않음이 없고, 한 사람에게 상을 줌에 천하가 선에 권면하지 않음이 없다. 천하가 권면하고 징계하지 않음이 없으면 상을 줄자만 있고 형벌에 처할 만한 자가 없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집집마다 봉해줄 만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형벌과 상이 사적인 것을 따랐는가? 만약 그렇다면 형벌이 비록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천하는 날마다 죄를 범할 것이고, 상이 비록 후중(厚重)하다고 하더라도 천하는 날마다 공적을 무너뜨릴 것이다. 천하가 죄를 범하고 공적을 무너뜨리지 않음이 없으면 형벌에 처할 자만 있게 되고 상을 줄만한 사람이 없게 된다. 걸 임금과 주 임금의 백성이 집집마다 사형에 처할 만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 일러 공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라 하는가? 공이 있으면 비록 평소에 싫어하던 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비록 평소에 사랑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하면 상을 남용하는 것도 없고 형벌을 요행이 면하는 것도 없게 된다. 그리고 천하는 선에 권면하고 악을 징계할 줄을 알게 된다.

무릇 군주는 한 사람이니 지극히 작은 존재이다. 천하는 구주(九州)[91]와 사해(四海)를 포함하니 지극히 광대하다. 지극히 작은 존재로 지극히 광대한 것을 다스리는

91) 중국 전 국토를 아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천하(天下)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인다.

데, 어찌 집집마다 일깨우고 호호(戶戶)마다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만 형벌과 상으로써 이로운 도구로 삼아 높은 곳에 앉아 그 자루를 잡고서 구주의 밖과 사해에 안에 화(禍)와 복(福)을 내리는 권한을 보여줄 뿐이다. 편안함과 위태로움의 기미는 지극히 미묘한 사이에 있는데, 군주가 어떻게 한 때의 기쁨과 노여움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무릇 형벌과 상은 비록 군주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기미(幾微)는 천하 사람의 눈과 귀에 호응한다. 다스림과 혼란의 효과는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른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과 상은 천하의 형벌과 상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아! 군주가 형벌과 상을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봄과 가을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야흐로 봄이 시작될 때에 온화한 기운이 무럭무럭 생겨나면 한 떨기 꽃이 피어나고 이윽고 천하의 꽃이 따라서 피어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가을의 때에 접어들어 숙살(肅殺)[92]의 기운이 싸늘하게 움직이면 잎이 하나 떨어지고 이윽고 천하의 잎이 따라서 떨어지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군주가 형벌과 상을 시행하는 것에 따르는 감응의 효험이다.

무릇 하늘은 봄과 가을에 지극히 공적인 것으로써 만물에 그것을 시행할 뿐이니, 어찌 하늘이 사사로이 한 것이 있겠는가? 하늘의 봄과 가을이 바로 만물의 봄과 가을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군주의 형벌과 상이 천하의 형벌과 상이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겠다.

刑賞天下之刑賞論

刑賞出於上 而勸懲行於下 此一人所以御天下之利器也 其爲器也 宜公而不宜私 人主操其柄 而治亂繫焉 刑賞循乎公邪 則刑一人 而天下無不懲矣 賞一人 而天下無不勸矣 天下無不勸且懲焉 則有可賞之人 而無可刑者 堯舜之民 比屋而可封者 是已 刑賞循乎私邪 則刑雖嚴 而天下日犯其罪矣 賞雖重 而天下日敗其功矣 天下無不犯罪而敗功焉 則有可刑者 而無可賞之人 桀紂之民 比屋而可誅者 是已 何謂循乎公 有功 則雖素所惡之者 必賞 有罪 則雖素所愛之者 必刑 賞無濫得 刑無僥免 天下於是 知所勸懲矣 夫人主者 一人 至眇矣 天下者 九州四海 至廣矣 以至眇而御至廣 豈所家喩

92) 가을 기운이 초목을 말라죽게 하는 것을 말함. 가을의 기운을 숙살지기(肅殺之氣)라고도 한다.

而戶說哉 特以刑賞爲之利器 居高操柄 以示禍福於九州之外四海之內 而安危之幾 在於至微之際 人主豈容以一時之喜怒 有所自恣於其間哉 夫刑賞 雖出於人主之手 而其幾微 應於天下之人之耳目 治亂之效 疾於影響 故曰 刑賞者 天下之刑賞也 嗚呼 人主之有刑賞 猶天之有春秋 方春之時 和氣藹然而生 則一花榮 而天下之花 無不敷矣 及秋之時 肅氣凄然而動 則一葉隕 而天下之葉 無不振矣 此人主刑賞感應之驗也 夫天之於春秋 以至公付諸萬物而已矣 豈天之所得而私哉 如知天之春秋 卽爲萬物之春秋 則人主之刑賞 爲天下之刑賞 亦可以知矣

"문장은 반드시 인의(仁義)에 근본해야 한다"는 것을 논함

송나라 문정공(文正公) 범중엄(范仲淹)은 문장을 지음에 반드시 인의(仁義)에 근본하였다. 나와 같은 문장가는 감히 인의의 문장을 더불어 논할 수 없지만, 문장가도 인의를 어기고서 바른 문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망령됨을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논한다.

문(文)이 천지의 사이에 생겨남으로부터 『서경』「우서(虞書)」에서는 요임금을 일컬어 '문사(文思)'[93]라고 하였고, 순임금을 일컬어 '문명(文明)'[94]이라고 하였고, 우임금을 일컬어 '문명(文命)'[95]이라고 하였다. 공자(孔子)는 문왕(文王)을 일컬어 '내문명(內文明)'[96]이라고 하였고, 또 "문왕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文)이 이 몸에 있지 않은가?"[97]라고 하였다. 또 주공(周公)이 예악(禮樂)을 주나라에 구비하였는데, 공자는 "찬란하구나 문(文)이여, 내 주나라를 따르겠다"[98]라고 하였다.

무릇 요·순·우·문왕·주공은 위대한 성인(聖人)인데 모두 그들을 칭하기를 '문(文)'으로써 하였다. 위대하도다 문(文)이여, 오직 성인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하겠다.

---

93)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다'는 뜻. 『서경』「요전(堯典)」에 보인다. "欽明文思安安"
94) 깊고 명철하며 문채나고 밝다는 뜻. 『서경』「순전(舜典)」에 보인다. "濬哲文明"
95) 문교(文敎)를 사해에 편다는 말. 『서경』「대우모(大禹謨)」에 보인다. "文命敷于四海"
96) 문왕이 안으로는 문명(文明)의 덕을 갖고 있으면서 밖으로는 유순(柔順)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왕(紂王)의 화(禍)를 피하였다는 뜻. 『주역』「명이괘(明夷卦)」 단사(彖辭)에 보인다.
97) 『논어』「자한(子罕)」에 보인다.
98) 『논어』「팔일(八佾)」에 보인다.

성인은 도(道)가 광대하여 천지(天地)와 똑같다. 그러므로 문(文)으로 발현하여 천지의 사이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공자는 요 임금의 위대함을 일컫기를 "찬란하게 문장이 있으셨다"[99]라고 하였는데, 자공(子貢)은 공자를 일컫기를 "그 문장은 들을 수가 있었지만 성(性)과 천도(天道)를 말한 것은 들을 수가 없었다"[100]라고 하였다. 이것은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을 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문장이 바로 성과 천도의 발현임을 말한 것이다.

대개 문장은 도의 광휘(光輝)이고, 도는 문장의 실질이다. 공자는 "천도(天道)를 세우는 것은 음(陰)과 양(陽)이고, 지도(地道)를 세우는 것은 유(柔)와 강(剛)이고, 인도(人道)를 세우는 것은 인(仁)과 의(義)이다"[101]라고 하였다. 인의(仁義)가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면 광휘가 밖에 드러나는 법이니, 이것이 말하자면 문장이다. 아아, 이와 같은 문장을 쉽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요 임금의 문장은 요 임금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으나, 우(虞)나라의 사관(史官)이 서책에다 그것을 기록하였으니, 무엇인가? 그 도가 천하에 시행된 것이다. 공자는 자리를 얻지 못하였고 도가 세상에 시행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시경』과 『서경』을 전술(傳述)하고 『주역』을 찬(贊)하고 『춘추』를 지었다. 공자의 문장은 오직 공자 자신만이 지을 수가 있다. 지극하도다 문장이여, 성인이 아니면 그러한 것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논어』에서는 "행하고 남는 힘이 있거든 곧바로 그 틈을 이용하여 문(文)을 배워야 한다"[102]라고 하였다. 증자(曾子)는 "문(文)으로써 벗을 모은다"[103]라고 하였고, 안자(顔子)는 "공자는 나를 넓혀주기를 문(文)으로써 하였다"[104]라고 하였다. 이것으로써 살펴보면 대현(大賢) 이하는 문(文)을 학문을 통하여 지극한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대개 앞의 것을 기준으로 말하면 문장은 서책이 아니고, 뒤의 것을 기준으로 말하면 문장은 도(道)를 싣고 있는 언어이다. 따라서 언어로 표현하는데 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

99) 『논어』「태백(太伯)」에 보인다.
100) 『논어』「공야장(公冶長)」에 보인다.
101) 『주역』「설괘전(說卦傳)」에 보인다.
102) 『논어』「학이(學而)」에 보인다.
103) 『논어』「안연(顔淵)」에 보인다.
104) 『논어』「자한(子罕)」에 보인다.

주(周)나라의 도가 쇠퇴함에 문(文)이 천하에서 무너졌고, 사설(邪說)[105]과 피언(詖言)[106]이 어지럽게 일어나 각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책에 그것을 표현하여 문(文)이라고 호칭하였다. 혹자는 허무(虛無)로써 하고[107], 혹자는 불근(不根)[108]으로써 하고, 혹자는 형명(刑名)[109]으로써 하고, 혹자는 전술(戰伐)[110]로써 하고, 혹자는 위아(爲我)[111]로써 하고, 혹은 겸애(兼愛)[112]로써 하였다. 그들이 각지 주장한 것은 비록 똑같지 않지만 모두 이단(異端)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말이 인의(仁義)에 근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맹자는 증자(曾子)와 자사(子思)의 학문을 배워서 요·순·우·문왕·주공·공자의 문(文)을 밝히었는데, 그 말이 인의(仁義)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자의 문장을 배운 자 중에서 맹자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하겠다.

좌구명(左丘明)[113]·공양고(公羊高)[114]·곡량적(穀梁赤)[115] 같은 이는 모두 『춘추』의 뜻을 밝힐 수가 있었고, 한나라의 동중서(董仲舒)[116]와 유향(劉向)[117]도 능히 그것을 언급하였다.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118]는 두 시대의 역사를 책으로 엮어 『춘추』를 이으려고 하였고, 양웅(揚雄)[119]은 『태현(太玄)』과 『법언(法言)』을 지어 『역

105) 바르지 못한 학설.
106) 편파적인 말.
107) 노자(老子)·장자(莊子) 등 도가(道家)의 이론을 가리킨다.
108) 불근지론(不根持論)의 준말. 근거가 없는 지론이라는 뜻이다. 동방삭(東方朔)과 매고(梅皐)의 의론을 지칭한다.
109) 신불해(申不害)·한비자(韓非子) 등 법가(法家)의 이론을 가리킨다.
110) 오기(吳起)·손빈(孫臏) 등 병가(兵家)의 이론을 가리킨다.
111)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양주(楊朱) 등을 가리킨다.
112) 묵적(墨翟) 등 묵가(墨家)의 이론을 가리킨다.
113)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찬자. 『좌씨전』은 유가 고문경학(古文經學)의 주요전적으로서, 기사(記事) 중심으로 서술되어 후세의 사학과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114)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찬자. 『공양전』은 유가 금문경학(今文經學)의 주요전적으로서, 주로 『춘추』의 대의(大義)를 천술하고 있다.
115)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의 찬자. 『곡량전』은 유가 금문경학(今文經學)의 주요전적으로서, 주로 『춘추』의 의리(義理)를 천술하고 있다.
116) 중국 전한 무제(武帝) 때의 학자. 『춘추』에 밝아 『춘추번로(春秋繁露)』를 지었다. 한 무제를 권하여 유교를 국교로 정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117) 중국 전한의 종실(宗室). 자는 자정(子政)이다. 성정(性情)이 충신(忠信)스럽고 전일(專一)하였으며 뛰어난 학자로 평해졌다. 저서로 『열녀전(列女傳)』 『신서(新序)』 『설원(說苑)』 등이 있다.
118) 중국 후한 초기의 역사가. 자는 맹견(孟堅)이다. 아버지 표(彪)의 유지를 받들어 20년을 걸려 『한서(漢書)』를 완성하고 뒤이어 『백호통의(白虎通義)』를 찬집(纂集)하였다.
119) 중국 전한 때의 철학가·문학가. 자는 자운(子雲)이다. 『주역』과 『노자(老子)』에 능통하였고, 사부(辭賦)에도 뛰어났다. 공자를 추숭하여 경(經)은 『역』보다 위대한 것이 없고 전(傳)은 『논

경』과 『논어』를 이어보려고 하였다.

이 서너 사람은 전하고자 한 것을 혹 다 표현하지 못하였고, 의리를 추구한 것도 혹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기술한 것도 혹 그들이 뜻한 바에 부합하지 못하였지만, 그런대로 성인의 해타(咳唾)[120]를 모아서 그림자를 만들 수는 있었다. 요약하면 모두 충분히 성인을 사모한 자가 될 수 있었다.

당나라의 한유(韓愈)는 문(文)을 논하여 말하기를 "인의(仁義)로운 사람은 그 말이 온화하다"라고 하였다. 한유는 비록 성인의 문장을 깊이 터득할 수는 없었지만, 또한 인의가 문장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원도(原道)」[121]를 지어 그 뜻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대개 그는 인의를 담고 있는 언어로써 그의 문장을 윤색하였는데, 이것이 후세의 문장가들이 그를 받드는 까닭이다.

나는 일찍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성인의 문장은 넓고 넓으면서 높고 높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것을 형언할 수가 없다. 증자·자사·맹자의 문장은 그런대로 성인에 가까우며, 한유의 문장은 패자(覇者)와 같으며, 좌씨(左氏) 이하 제자(諸子)의 문장은 강사(講師)와 같으며, 이단(異端)의 문장은 경계를 막아서 더불어 중국과 함께 할 것이 못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인의에 순수한 것이 성(聖)이요, 인의를 빌린 것은 패(覇)요, 때때로 인의를 말하지만 잡박한 것은 강사(講師)요, 인의에 어긋나는 것은 함께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슬프다. 세상의 도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임수와 기교를 추구하는 문장이 점차 치열해졌다. 이른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하고 방탕하며 험하고 투박한 곳으로 흘러가 문장과 도는 둘로 나뉘어져 다시는 합쳐지지 않게 되었다.

비록 그렇지만 성인의 문장에서 구하여 인의(仁義)의 설에 적셔든다면 크게는 도에 도달할 수가 있고 적어도 유자가 되는 것을 잃지는 않게 된다. 이런 까닭에 송나라 시대의 인물 중에서 문장과 사업(事業)을 겸하면서도 정대(正大)한 기상이 있는 자는 범중엄 뿐이었던 것이다.

어』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고 하여, 『주역』을 모방하여 『태현(太玄)』을 짓고, 『논어』를 모방하여 『법언(法言)』을 지었다.

120) 기침과 침. 기침과 침은 말할 때 나오므로, 전하여 어른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여기서는 성인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121) 한유가 유교의 요지를 서술하고 노불(老佛)을 배척한 글.

爲文章必本於仁義論

宋范文正仲淹爲文章 必本於仁義 若余者 文辭之人也 顧不敢與論於仁義之文 而文辭之人 亦不能背仁義 而得辭之正焉 是以妄竊爲之論曰 自文之生於天地間 虞書稱堯曰文思 舜曰 文明 禹曰 文命 孔子稱文王曰 內文明 又曰 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周公備禮樂于周 而子曰 郁郁乎文哉 吾從周 夫堯舜禹文王周公 大聖人也 而皆稱之以文大哉文乎 惟聖人 可以當之矣 聖人道大 與天地同 故發見爲文 而盈乎天地之間 夫子稱堯之大而曰 煥乎其有文章 而子貢之稱夫子則曰 文章可得而聞 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 非謂其不可聞也 言乎其文章 卽性與天道之發見云爾 蓋文章者 道之光輝也 道者 文章之實也 子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仁義充於中 而光輝著於外 是之謂文章 嗚呼 文章可易言哉 堯之文章 堯不自言 而虞史載之于書 何者 其道行也 孔子不得位 道不行於世 故述詩書贊周易作春秋 夫子之文章 惟夫子能自述之 至矣哉文章也 非聖人 不可以爲之也 然而語曰 行有餘力 則以學文 曾子曰 以文會右 顏子曰 夫子博我以文 以是觀之 大賢以下 文可以學而期乎至也 蓋由前而言 則文章非書也 由後而言 則文章者 載道之言也 言之不以道者 不可謂之文章也 及周道衰 而文壞於天下 邪說詖言 紛然而起 各以其意 著之書而號爲文 或以虛無 或以不根 或以刑名 或以戰伐 或以爲我 或以兼愛 所主雖不同 而均之爲異端 何者 其言不本乎仁義也 當是時 孟子得曾子子思之學 以明堯舜禹文王周公孔子之文 而其言無不由於仁義 學夫子之文章者 孟子爲之最焉 若左丘明公羊高穀梁赤 皆能明春秋之旨 而漢之董仲舒劉向 亦能言之 司馬遷班固 纂兩史以擬續春秋 揚雄著太玄法言以擬續易論語 此數子者 所傳或未盡 其義所造 或未逮其辭 所述或未副其志 而猶能拾聖人之咳唾 爲之影幕 要之 皆足爲慕聖人者也 唐韓愈之論文曰 仁義之人 其言藹如也 愈雖不能甚得乎聖人之文 而亦知仁義爲文之原 故作原道以明其志 蓋以仁義之言潤其文 此後世文辭之人之所以宗也 余嘗竊以爲 聖人之文 蕩蕩巍巍 莫得以名焉 曾子子思孟子之文 其庶乎聖矣 韓愈之文 猶夫覇也 左氏以下諸子之文 猶夫講師也 異端之文 屏之不與同中國者也 何以言之 醇乎仁義者 聖也 借仁義者 覇也 時言仁義而雜駁者 講師也 悖乎仁義者 則不齒焉耳 噫 世道愈降 而詭譎畸巧之文 漸熾焉 所謂文者 流於浮蕩險薄 而文與道貳 不可復合矣 雖然 求之聖人之文 而浸灌乎仁義之說 則大之可以至於道 而下不失爲儒者也 是以宋朝人物 兼文章事業 而有正大之氣者 范仲淹也已

"근면하면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함

천하의 일은 근면한데서 이루어지고 근면하지 못한데서 무너지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것은 꺼리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을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 것은 서로 반대되면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근면한 자는 수고롭고 수고로운 자는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는 즐겁지 못하니,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면한 자는 성취하게 되고 성취한 자는 편안하고 편안한 자는 즐겁게 되니, 이것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일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에 절실하면 정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그것에 압도되게 된다. 고통스럽지만 고통스럽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억지로 참고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즐거움은 고통에서 나오지만 고통이 스스로 없어지게 되었는데, 무엇을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무엇으로써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

지금 수북히 쌓인 모래를 헤치고 조그마한 금을 가리는 자는 그 고통이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 모래는 매우 가는 물건이지만 쌓으면 많아진다. 금은 희귀한 물건인데 모래 속의 조그마한 것은 더욱 가늘다. 이제 그 가늘고 많은 것은 헤쳐서 그 가늘고 희귀한 것을 가리는 자는 반드시 마음으로 알고 눈으로 구분하여 손으로 모래와 금을 버리고 취해야 한다. 그 번거로움을 참고 그 피로를 잊으면서 해가 기울도록 쉬지도 않으니, 수고로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수고로우면 고통스럽다. 그러나 고통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바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쌓인 모래를 헤쳐서 조그마한 금을 가리는 것은 하루에 얻는 것이 수(銖)[122]도 채 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근면한 자는 그것을 누적하여 한 번에 천자(千貲)[123]를 셀 수 있는 것에 이르기도 한다. 이것을 하면 부모와 형제와 처자가 옷 입고 먹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장차 굶주리고 추위에 떨게 된다. 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 절실하면 고통은 빼앗고 말 것도 할 것이 없이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근면하면 고통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22) 무게의 단위. 1냥의 24분의 1에 해당한다.
123) 천냥 또는 천금이라는 뜻. 자(貲)는 값이라는 뜻이다.

무릇 임금을 섬기는 자가 진실로 국가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성(至誠)에서 나오면 일에 임해서는 반드시 근면하게 되는데, 근면하여 쉬지 않으면 일에 있어서 큰 것 작은 것 가릴 것이 없이 성취되지 않음이 없다. 그리하여 위로는 황유(皇猷)[124]를 도울 수가 있고, 아래로는 생민(生民)에 은택을 주는데 이를 수가 있다. 이 마음이 어찌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사랑하여 그들이 굶주리고 추위에 떨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아래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억지로 참고서 고통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일이 성취가 있고 무너지는 것이 없음을 즐거워하여 신하된 직분을 다한 것이다. 몸은 수고롭지만 마음을 편안하니, 편안한 자가 어찌 일찍이 고통을 알았겠는가? 오직 스스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勤不言苦說

天下之事 成於勤 隳於不勤 人之情 憚其苦 樂其不苦 二者相反而相須焉 勤者勞 勞者苦 苦者不樂 此相反也 勤者成 成者逸 逸者樂 此相須也 事之相須者 切於中 則情之相反者 爲其所奪 其不言苦者 非强忍而不言也 樂生於苦而苦自無焉 何足言哉 何以明其然也 今有披積沙而揀零金者 蓋莫苦焉 沙細物也 而積則多 金希物也 而零則細 披其細且多者 而揀其細而希者 必其心認而目辨 手以去取之 耐其煩 忘其疲 日仄而不休 可不謂之勞乎 勞則苦矣 然而不言苦者 以其可欲者 在是焉耳 夫披積沙 揀零金 一日所得 或不能粲銖 而勤者累而積之 至有一發數千貲者 爲此則父母兄弟妻子可以衣食 而不爲此 則將飢寒矣 彼其憂飢寒與愛父母兄弟妻子之心 切於中 而苦不待奪而自無焉 此勤不言苦之喩也 凡事君者 苟其憂國愛君之心 出於至誠 臨事必勤 勤而不休 則事無大小 未有不成焉 而上可至於贊皇猷 下可至於澤生民 此其心 豈下於愛父母兄弟妻子 而憂其飢寒也哉 然則非强忍而不言苦也 樂其事之有成無隳 而盡其爲臣之職 身勞而心逸 逸者 何嘗知苦哉 惟其不自知苦也 是以不言苦

124) 천자(天子)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하여 세운 계책.

"힘을 많이 쓴 자가 공을 거두는 것이 크다"는 것을 설함

일찍이 제방을 쌓는 것을 보았는데, 제방이 길지만 여름에 큰물이 갑자기 지게 되면 바로 무너졌다. 제방 아래는 모두 좋은 전답이었는데, 제방이 터질 때에 토사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답이 많이 손실되었다. 소작인들이 힘을 합하여 그것을 수리하지만 겨우 일척쯤 하고 그치었다. 때문에 비가 적게 오면 일이 없었지만, 큰물이 지게 되면 다시 예전과 같게 되었다. 전답을 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이에 여러 사람의 힘을 합하여 제방을 쌓되, 높이가 한 자이면 두께도 똑같이 하였는데, 이로부터 제방이 무너져 터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

나는 이에 탄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아! 사마공(司馬公 : 司馬光)이 말씀한 '힘을 쓴 것이 많으면 공을 거두는 것이 크다'[125]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그가 문장을 많이 외우고 종신토록 잊지 않은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무릇 힘이란 공의 실지이고, 공이란 힘의 효과이다. 힘은 일표(日表)와 같고, 공은 해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일표가 높으면 해 그림자가 길어지는 법이니, 그렇지 아니한가?"

석정산인은 말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때때로 대나무를 그리기를 좋아하였다. 매 번 줄기를 그릴 때마다 아래서부터 붓을 세워서 위로 올라가는데, 뜻은 진실로 반듯이 둥글면서 굳세게 뻗어 올라가는데 있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에 붓을 움직이면 어느 것은 가늘게 따라가다가 도리어 두껍게 되어버리고, 어느 것은 속도를 내다가 중간에 끊어지게 되고, 어느 것은 길고 짧은 것이 자리가 맞지 않게 되고, 어느 것은 향하고 등진 것이 세(勢)를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이것을 면한 것은 백에 한 두 점도 못되었다. 마음이 매우 불만스러웠지만 여타의 일 때문에 깊이 힘을 쓰지 못하였었다.

---

125) 이 말은 주희(朱熹)가 찬집(纂集)한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후집(後集) 권7에 보인다. "사마광은 어렸을 때 암기하는 것이 남들과 같지 못하여, 여러 형들이 이미 암기하고 놀 때, 그는 혼자 남아 책을 묶은 것이 끊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외울 수가 있었다. '힘을 쓰는 것이 많은 자가 공을 거두는 것이 크다.' 그는 정밀하게 암송하였기 때문에 종신토록 잊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사마광은 일찍이 '책은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말 위에서나 한 밤중에라도 문장을 읊조리고 그 뜻을 생각하면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였다"

늘그막에 대나무를 그린 것을 구하는 자가 매일 찾아왔지만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리하여 마침내 옛날 종이를 모아다가 꾸준히 수 십만 가지의 대 줄기를 쉬지 않고 그렸는데, 그제서야 위에서 말한 어떠 어떠한 것이 없게 되었고, 넉넉하게 붓과 함께 잊게 되었다. 그리하여 줄기가 길면 길수록 뜻은 더욱 한가롭게 되어 그런대로 둥글고 힘이 있게 뻗어 올라가게 되었다.

대나무를 그리는 것도 이와 같은데, 문장을 암송하는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사람이 힘을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속히 큰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은 어째서인가?"

用力多者收功遠說

蓋嘗見築堤者矣 堤長而夏潦水暴至 則輒壞矣 堤下皆良田 所決而土汩之 田以故多敗 佃人合力而修之 僅一尺而止 而少得無事 潦則復如前 置田者患之 乃多合衆力而築之 高一丈 厚如之 自是堤不壞決焉 余於是歎曰 嗚呼 司馬公所謂用力多而收功遠者 非邪 其多誦文而終身不忘 宜哉 夫力者 功之實也 功者 力之效也 力猶表 功猶影 表高則影長 不其然乎 石亭山人曰 余自小時 時喜寫竹 每作幹 自下竪筆而上之 意固在挺然圓勁而拔也 乃筆運 而或由細而反麤 或疾奮而中斷 或短長乖位 或向背失勢 免乎此者 槩百不一二焉 心殊怏怏 而以餘事故 未嘗下深力矣 垂老而徵竹者 日集而常苦不從心 遂取舊紙 一連作數十萬竿而不撤 然後無向所云或者 而悠然與筆忘 幹愈長而意愈閒 其庶乎圓勁而拔也 寫竹然矣 誦文 豈異於是乎 而人有不肯用力 乃欲速收遠功 何哉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짓지 않는다"는 것을 논함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신종(神宗)[126] 황제에게 말하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비유하자면 집에서 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지면 그것을 수리하지만, 완전히 무

126) 중국 북송의 제6대 황제. 이름은 조욱(趙頊). 영종(英宗)의 장자로 18년간 재위하였다. 연호는 희령(熙寧)·원풍(元豐)이다.

너지지 않으면 다시 짓지 않습니다"[127]라고 하였다.

이 말은 참으로 바꿀 수 없는 좋은 비유이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시 짓고자 한다면 훌륭한 목수와 아름다운 재목을 얻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비유를 해야 되는 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좋은 비유라고 하였는가? 무릇 어떤 집에 아비와 조부가 자금을 내어 집을 짓고 자손에게 물려줄 적에는 반드시 장전(庄田)[128]을 가꾸어 근본을 삼고 그 나머지를 취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법이니, 그 도모하고 헤아린 것이 깊고 심원하다 하겠다. 집을 짓고 오랜 기간 거처하는 동안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수리하여 이어주고 썩은 것이 있으면 보충하여 수선을 해준다. 이와 같이 하면 비록 천년 백년이 지나도 그 자손들이 방탕함이 없고 게으름이 없다면 작게는 그것을 지킬 수가 있고 크게는 그것을 증가하여 넓힐 수가 있다. 이 이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손 중에 자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어 물려준 법도에 불만을 느끼고서 크게 확장을 하고자 하여 옛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성취할 수도 없고, 억지로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보유할 수도 없다. 무엇 때문인가?

처음 집을 세우는 자는 몸소 그 집안을 운영하여 일에 대하여 익숙한 까닭에 재목을 모으고 양식을 준비하며 목수를 모집하고 일꾼을 고용함에 있어서 모두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시작 단계를 계산하고 마무리를 헤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의 근본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새롭게 집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집을 다시 짓는 자는 자신의 풍족함에 만족하고서 집을 확장하여 크게 만드는 것에 마음이 급하여, 갑자기 움직이는 것으로써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여기고, 잡아 비트는 것으로써 독자적인 결단이라고 여긴다. 그리하여 가볍게 재물을 허비하여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근본이 상처를 받게 되니, 근본이 상처를 받게 되면 집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거대한 집은 처음 짓는 것에만 힘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127) 주희(朱熹),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후집(後集) 권7, 사마광조에 보인다.
128) 소유하고 있는 전답. 전장(田庄)과 같은 말이다.

을 부수는데도 힘이 소모된다. 집사람들은 살 곳을 잃고 재물을 관리하는 것도 절도에 맞을 수가 없다. 크게 확장하는 일은 창졸간에 결정된 까닭에 토목공사와 재목 및 목수와 일꾼의 비용은 갑자기 뛰어서 몇 배가 되어 버린다. 이 서너 가지 것도 이미 재물을 소모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집을 세우는데 따르는 비용이 항상 처음 계산보다 넘침에 있어서랴! 그런데도 마음은 이미 과장되고 키워져서 걸핏하면 아름다움을 다하고자 한다. 이와 같고서 근본을 손상시키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없었다.

근본이 이미 손상되었는데 억지로 완성하여 집은 크게 확장되었지만, 소용된 비용이 너무나 커서 머지 않아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이것은 도리어 집을 완성하지 못함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비유하면 집에 거주하는 것과 같으니,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지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좋은 비유가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이미 집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비유했다면 굳이 또 집을 짓는 것으로써 그것을 비유할 필요도 없다. 무릇 좋은 목수는 큰집을 만드는 사람이지 더불어 함께 집에 거주할 사람은 아니다. 아름다운 재목은 큰집을 만드는 도구이지 의지하여 집에 거주하는 도구는 아니다. 불행하게도 집이 크게 부숴지는 경우를 만나면 우선 작은 것을 수축(修築)하여 그 집을 다져놓고, 사람들은 근본을 배양하는 수단에 노력을 기울여 세월을 쌓아 나가다가 그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제서야 크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어찌 갑자기 좋은 목수와 아름다운 재목을 쓰려 하겠는가?

신종은 조종(祖宗) 이래로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과장된 마음이었다. 왕안석(王安石)이 크게 신법(新法)을 제창하여 그러한 마음에 적중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왕안석으로 좋은 목수를 삼고 신법으로 좋은 재목을 삼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본다면 사마광의 좋은 목수, 아름다운 재목 운운한 것은 다만 신종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비유를 해야 되는 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아! 신종이 잘 다스리고자 했던 마음이 태조의 창건과 인종(仁宗)의 수성(守成)[129]한 일에 의뢰하여 그 옛 법도를 따라서 근본을 배양하고, 또 점차 인의(仁義)

129) 중국 북송의 인종 경력(慶曆) 연간에는 북송의 국운이 극성기로 문물이 대성하고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명신으로는 한기(韓琦)·범중엄(范仲淹)·부필(富弼)·구양수(歐陽修)·사마광

를 연마하고 서서히 법제를 강구했더라면, 천자의 자리에 오른 지 18년 동안 굳이 다시 건조하지 않았더라도 집은 저절로 크게 증대될 수 있었을 것이니, 무엇 때문에 옛 집을 허물겠는가?

非大壞不更造論

宋司馬光 對神宗皇帝曰 治天下 譬如居室 弊則修之 非大壞 不更造 此言誠不易之善譬也 其曰 大壞而欲更造 非得良匠美材不成 此言爲未得其所以譬也 何以謂善譬 凡人家父祖之發貲建室 遺其子孫 而必治庄田 爲之根本 取其羨以應所須之用 其謨慮深遠矣 居之滋久 而有缺者 補尋之 有朽者 補葺之 雖歷千百年 其子孫無荒無怠 則小可以守之 大可以增而廣之矣 此理之不可易也 乃子孫有夸心 不滿遺規 而欲大張之毁其舊室 而營新建焉 則必不可就 强而就之 必不能保有矣 何者 創建者 身親其家 熟諳於事 其鳩材備糧 募工雇傭 皆能從所省費 又能計始揣終 不傷根本 故雖新建其室 而力不絀矣 更造者 恬於富足 急於張大 以暴動爲勇決 以執拗爲獨斷 輕於糜財 駸駸不覺其根本之受傷 根本受傷 則室不可就矣 何者 巨室者 非惟創之費力 毁之亦費力 家人失所 而理産不能中節 大張之役 出於倉猝 土木工傭之直 騰踊倍蓰 凡此數者 已足以耗財 而況營造之費 常溢於始算 而心既夸大 動輒盡美 如是而不傷根本者未之有也 根本已傷 而强而就之 室則大張 應須之用 益以浩繁 幾何而室不爲他人有也 此則反不如不就者矣 故曰 治天下如居室 非大壞不可更造者 爲善譬也 雖然 既以居室譬於治天下 則不必又以造室譬之也 夫良匠者 造巨室之人 非與之居室之人也 美材者 造巨室之具 非資而居室之具也 不幸而値室之大壞 則姑小築以奠其家 人務所以培其根本 積以歲月 度其力之不絀 然後可以大造 何遽用良匠美材爲哉 神宗以祖宗以來 不能立法定制 不滿於心 是夸心也 而王安石大言新法 以中之 於是以安石爲良匠 以新法爲美材 則司馬光良匠美材之說 適足以堅其心矣 故曰 不得其所以譬也 嗚呼 使神宗求治之心 藉太祖創建仁宗守成之業 順其舊規 培養根本 又復漸摩仁義 徐講法制 則卽祚十八年之間 不須更造 而室可以大增矣 何爲而毁其舊室哉

(司馬光) 등이 있었고, 명유(名儒)로는 호원(胡瑗)·주돈이(周敦頤)·소옹(邵雍)·장재(張載)·정호(程顥)·정이(程頤) 등이 있었고, 문호(文豪)로는 구양수(歐陽修)·소순(蘇洵)·증공(曾鞏)·매요신(梅堯臣)이 있었고, 소식(蘇軾)·소철(蘇轍) 형제와 왕안석(王安石) 등도 문명(文名)이 있었다. 역사에서는 이를 경력지치(慶曆之治)라고 한다.

"근심을 앞서 하고 즐거움을 뒤에 한다"는 것을 설함

문정공 범중엄이 말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천하의 근심을 앞서서 근심하고 천하가 즐거워 한 다음에 즐거워해야 한다"[130]라고 하였다. 아아! 그는 참으로 인인(仁人)이라 하겠다. 이에 그 의미를 추론하여 다음과 같이 설한다.

사람의 마음은 공(公)과 사(私)가 있을 뿐이다. 천하의 일은 근심과 즐거움이 있을 뿐이다. 이로우면 즐겁고 해로우면 근심하고, 얻으면 즐겁고 잃으면 근심하며, 편안하면 즐겁고 위태로우면 근심하니,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심정이다. 그리고 즐거운 것이 있기를 원하고 근심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사람의 사적인 심정이다.

천하가 만약 오직 나 한 사람뿐이라면 그 사적인 것을 따른다고 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천하는 오직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사람들이 근심스럽게 여기고, 내가 근심스러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거워한다. 이것은 일 중에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때에 사적인 것을 따르면 즐거운 것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게 되고 근심이 남에게 있기를 바라게 되니, 이것을 두고 공적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인가? 사사로움이 공적인 마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무릇 근심이 나에게 있는 것은 우연히 그러한 것이고,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것도 우연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고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것이다. 내가 일에 우연히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의 마음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공적인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적인 것을 따르는 자는 그 회포가 좁고 작으며, 공적인 것을 따르는 자는 그 도량이 넓고 크다. 천하를 알기를 오직 나 한 사람 뿐이라고 하는 것은 협소한 것을 말한 것이고, 천하를 염두에 두기를 오직 나 한 사람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광대한 것을 말한 것이다. 협소한 자는 천하를 이용하여 나 한 사람의 마음을 쾌족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광대한 자는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서 천하에까지

130) 『범문정집(范文正集)』 권2와 주희(朱熹)가 찬집(纂集)한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전집(前集) 권7 범중엄조에 보인다.

미쳐가고자 한다.

무릇 광대한 것으로 따지면 오직 천지가 그에 해당된다. 하늘의 광대함은 해와 달과 뭇 별들이 거기에 달려있고, 땅의 광대함은 산과 내와 풀과 나무가 거기에 붙어있다. 천하의 사람이 많고 많은 것은 하늘과 땅에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풀과 나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천지로써 마음을 삼는다면 천하의 사람 중에 근심스러워 할 만한 것을 내가 모두 더불어 함께 근심하고, 천하의 사람 중에 즐거워 할 만한 것을 내가 모두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일반적인 심정은 반드시 즐거움만 있고 근심은 없었으면 한다. 따라서 근심스러운 것을 반드시 피할 수 없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근심하게 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을 반드시 얻을 수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도 근심한다. 이렇게 보면 천하의 사람들은 어느 때든 근심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리고, 그 근심이 즐거움보다 앞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하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근심이 없기를 바라지만 근심은 갑자기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 내 마음은 즐겁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지만 즐거움이 갑자기 있을 수가 없으니, 나의 마음이 역시 즐겁지 않다. 이러한 나의 마음은 어느 때나 즐거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근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천하가 즐거워 한 다음에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무릇 심정이나 욕망이나 회포나 도량이나 모두 마음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을 만나거든 생기게 된다. 일을 만남에 생기게 되는 것이 처하는 상황마다 공적이지 아니함이 없다면 어찌 사적인 것이 있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마음은 공적일 뿐이다. 이로움과 해악, 얻음과 잃음, 편안함과 위태로움은 모두 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지만 마음의 근심과 즐거움이 거기에 달려있다.

즐거움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근심으로 인한 것이다. 일에 앞서서 근심을 하여 그것을 마음에 잊지 않은 다음에야 즐거움을 기약하지 않아도 즐거움이 저절로 이르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하의 일은 근심을 먼저해야 할 뿐이다.

정자(程子)가 인(仁)에 대해 언급하기를 "인자(仁者)는 공적인 마음을 갖고서 남의 입장으로써 그것을 체득해야 한다"[131]고 하였다. 아아! 이와 같은 자는 참으로 인인

131)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5에 보인다. "인(仁)의 도(道)는 요컨대 하나의 '공(公)'이란 글자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공(公)은 인의 이치이지만 공을 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공적인

(仁人)이라고 하겠다.

先憂後樂說

范文正仲淹之言曰 士當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嗚呼 其仁人也哉 遂推其意而爲之說曰 人之心 公私而已矣 天下之事 憂樂而已矣 利則樂 害則憂 得則樂 失則憂 安則樂 危則憂 此人之常情也 而願其有樂 不願其有憂者 又人之私情也 使天下獨我一人也 循其私 或可矣 而天下非獨我一人已也 我之所樂 而人則憂之 我之所憂 而人則樂之 此事之不常者也 當此時 循乎私 則樂欲在我 憂欲在人 可以謂公心乎 然而人且不免是焉 何者 私蔽之也 夫憂之在我 適然者也 樂之在我 亦適然者也 而欲人之有樂而無憂者 斯其宜然者也 我不以事之適然者 壞我之心之所宜然 則可不謂之公乎 循乎私者 其懷狹而小 循乎公者 其量廣而大 認天下 獨我一人者 狹小之謂也 念天下 非獨我一人已者 廣大之謂也 狹小者 以天下而欲愜我一人之心也 廣大者 以我一人之心 而推而及之於天下也 夫廣大者 惟天地爲然 天之廣大 而日月星辰麗焉矣 地之廣大 而山川草木附焉矣 天下之人之多 如天地之有日月星辰山川草木也 我以天地爲心 則天下之人之可憂者 皆我之所與共憂也 天下之人之可樂者 皆我之所與共樂也 然人之常情 必欲有樂而無憂 而其可憂者 未能必免 則人憂之 其可樂者 未能必得 則人亦憂之 是天下之人 無時而不憂也 以其憂先於樂 故我必先天下之憂而憂也 我欲人之無憂 而憂不能遽無 則我之心不樂矣 我欲人之有樂 而樂不能遽有 則我之心又不樂矣 是我之心 無時而可樂也 以其樂後於憂 故我必後天下之樂而樂也 夫情也欲也懷也量也 皆心之爲也 而遇事而有焉 遇事而有者 無所處而非公 則豈容復有私哉 於是而曰 人之心 公而已矣 利害也 得失也 安危也 皆事之所生 而心之憂樂繫焉 樂不自生 必因於憂 豫事而憂 勿忘乎心 然後不期於樂而樂自至矣 於是而曰 天下之事 先憂而已矣 程子言仁曰 仁者 公而以人體之 嗚呼 若此者 其誠仁人也哉

마음을 갖고서 남의 입장으로써 그것을 체득하기 때문에 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적인 것을 하게 되면 남과 내가 서로 비춰주게 된다. 그러므로 인은 서(恕)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서(恕)는 인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임무를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성공을 책임지운다"는 것을 논함

나무에 구멍을 뚫어 비비는 것을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을 얻는 것을 반드시 기약할 수가 없고, 약을 쓰는데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반드시 기약할 수 없고, 일을 맡겼는데 전적으로 하지 못하면 공을 성취하는 것을 반드시 기약할 수 없다.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여 준다는 것을 말하고, 책임지운다는 것은 목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장수를 선발하여 임무를 맡기고 성공을 책임지우는 방법이다.

무릇 군대를 사용하는 것은 기미(機微)에 속하는 일이다. 전쟁의 입장에서 보면 승패의 기미가 여기에 달려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고 사는 기미가 여기에 달려 있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안위(安危)의 기미가 여기에 달려있다.

'기미'라는 것은 미미한 것을 자세히 살펴 원대(遠大)한 것에 그것을 응용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일정한 것이 없어, 빠른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한다. 훌륭한 장수는 그 기미를 장악하여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것은 비유하면 사람이 숨을 쉬고 뱉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숨을 뱉는 것을 끝까지 하게 되면 더 이상 숨이 나올 수가 없고, 숨을 쉬는 것을 끝까지 하면 더 이상 숨을 들이마실 수가 없다. 변화를 끝까지 추구하면 더 이상 대응을 할 수 없다.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기미를 잃지 않으면 전쟁에서는 이것으로써 이길 수 있고 사람은 이것으로써 장수할 수 있고 국가는 이것으로써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장수가 된 자는 앞에서는 적에게 제압을 받아서는 안 되고, 뒤에서도 임금에게 제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뒤에서도 임금에게 제어를 받지 않아야만 공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은 제압을 하는 것이 장수에게 달려 있지만, 장수는 제어하는 것이 임금에게 달려 있다. 임금이 제어를 받지 않는 권한을 수여하지 않으면 장수는 감히 스스로 전권(全權)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무릇 변화는 눈 깜작할 사이에 발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속도는 비바람보다 빠른 것이 있는데, 장수가 스스로 전권을 발휘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자 한들 가능하겠는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국가가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이 모두 이기고 지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인데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이 장수를 쓸 때에는 제어를 받지 않은 권한을 부여하고 적을 제압하는 것을 책임지우는 것이다. 이것이 훌륭한 장수가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예컨대, 위(魏)나라의 악양(樂羊)[132]이 비방하는 글에 흔들리는 것을 면하고, 진(秦)나라의 감무(甘茂)[133]가 식양(息壤)으로 볼모를 삼아서[134] 그 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들의 임금이 전적으로 위임을 하고서 성공을 책임지웠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대개 이목(李牧)[135]만이 위임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혹자가 말하기를 "조괄(趙括)[136]과 기겁(騎劫)[137]도 위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만약 악의(樂毅)[138]와 염파(廉頗)[139]가 그 위임을 얻었더라면 저 조괄과 기겁같은 자가 어떻게 일을 망칠 수 있었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아, 장수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데 달려 있고, 장수에게 위임하는 것은 전적인

---

132)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 문후(文侯)의 장수. 중산(中山)을 정벌할 때 그의 아들이 중산에 있었던 까닭에 중산왕(中山王)이 삶아서 국을 만들어 악양에게 보냈는데 악양이 한 그릇을 게걸스럽게 먹었다. 문후는 그의 공을 포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을 의심하였고 여러 비방하는 글도 있었지만 끝까지 위임하였다. 중산 땅이 이미 확보됨에 그를 영수(靈壽)에 봉해 주었다. 자세한 것은 『사기』 권71에 보인다.

133) 중국 전국시대 진(秦)나라 사람. 무왕(武王)을 섬겨 좌상(左相)이 되었는데, 무왕이 주실(周室)을 보고자 함에 감무는 한(韓)나라 의양(宜陽)을 정벌하였고, 이것으로 무왕은 주실에 이를 수가 있었다.

134) '식양으로 볼모를 삼았다'는 것은 감무가 무왕과 일찍이 식양에서 맹세를 하고 한나라 의양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다섯 달이 되어도 함락시키지 못하므로 무왕이 측근의 소환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 감무를 불러 싸움을 그만두게 하려 할 때, 감무와 무왕에게 "식양이 저기 있습니다"(息壤在彼)라고 약속을 지키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5)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 북방 변경의 양장(良將). 일찍이 그가 북방을 담당한 10여 동안 흉노(匈奴)가 감히 조나라 국경을 범하지 못하였고, 또 진(秦)나라 군대를 대파하여 그 공으로 무안군(武安君)에 봉해졌다. 자세한 것은 『사기』 권81에 보인다.

136) 조괄은 어려서부터 병법에 밝아 천하에 병법에 관하여 그와 다툴 자가 없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조나라 군대를 망하게 할 자는 반드시 조괄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조나라는 염파(廉頗)가 군대를 통솔하여 국방이 튼튼하였는데, 진(秦)나라의 이간으로 조괄로 하여금 염파의 직책을 대신하게 하였다가 진나라 백기(白起)에게 조나라 군대 40만명이 몰살당하였다.

137) 기겁은 일찍이 연(燕)나라 혜왕(惠王)은 악의(樂毅)를 불신하여 기겁으로 악의의 대장군(大將軍) 직을 대신하여 연나라 군대를 통솔하여 제(齊)나라를 공격하게 했다가 도리어 제나라에 대패하였다.

138) 중국 전국시대 연(燕)나라 소왕(昭王) 때의 장수. 조(趙)·초(楚)·한(韓)·위(魏)·연(燕)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거느리고 제(齊)나라를 쳐서 70여 성을 빼앗았으나, 소왕이 죽은 후 뒤를 이은 혜왕(惠王)은 그를 중용하지 아니하여 조나라에 가서 중용되었다.

139)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양장(良將). 혜문왕(惠文王)의 상경(上卿)을 지냈다. 인상여(藺相如)와 문경지교(刎頸之交)를 맺은 것으로 유명하다.

것에 달려 있다. 현명함 때문에 공을 이룬 것은 전쟁 이전에 기초지워진 것이고, 전적인 것 때문에 공을 이룬 것은 이미 전쟁을 치른 뒤에 효험이 드러나는 법이다. 오직 현명하고 또 전적이어야 만이 훌륭한 장수를 제어하는 임금이라 하겠다.

論委任以責成功

鑽木不專 不能必其取火 用藥不專 不能必其療病 任事不專 不能必其成功 委也者 專之之謂也 責也者 必之之謂也 此選將授任而責成之術也 夫用兵者 機事也 以戰 則勝敗之機在此 以人 則死生之機在此 以國 則安危之機在此 機也者 察之於微 而應之於遠 其變也無定 速者 發於頃刻 善將者 握其機 而惟變之是應 譬如人之呼吸 呼之極不可以復出 吸之極 不可以復入 變之極 不可以復應 應之不失其機 而戰以而勝 人以而生 國以而安 是以爲將者 前不受制於敵 後不受制於君 然後可以成功矣 然而敵則制之在將 而將則制之在君 君不授以不受制之權 則將不敢自專 夫變發於頃刻 而應之之速 有疾於風雨者 將不敢自專 則欲戰之不敗 得乎 人之死生 國之安危 皆勝敗之所出也 可不重歟 是以明君之用將也 委之以不受制之權 而責之以制敵之功 此良將之所以能成良將也 如魏之樂羊 得免謗書所撓 秦之甘茂 得以息壤爲質 而成其功者 皆由於其君之委任而責成也 蓋不獨李牧爲得其委任也 或曰 趙括騎劫 亦可委任邪 曰 使樂毅廉頗 得其委任 彼括也劫也 惡得以敗事 噫 擇將在明 任將在專 明之功 基於戰之先 專之功 效於已戰之後 唯明且專 其御良將之君也哉

진평(陳平)이 육가(陸賈)에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헤아려보라"고 답한 것을 논함

생각은 마음에서 생겨는 것이니,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곧 그 생각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러나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마음이다. 진평(陳平)이 한가히 있을 때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육가(陸賈)[140]가 병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집에서

140) 중국 전한 초기의 학자. 고조(高祖)의 세객(說客)으로서 천하통일에 공이 커 벼슬이 태중대부(太中大夫)에 이르렀다. 칙명을 받들어 『신어(新語)』 12편을 지었다. 여후가 칭제하고 여씨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재상인 진평에게 병권을 쥐고 있는 주발(周勃)과 협력할 것을 권하여 여

기거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각각 두 사람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 마음이 흉중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진평은 일찍이 육가에게 드러내지 않았고 육가도 일찍이 진평에게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헤아리기 쉽지 않은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진평은 육가를 헤아려 그 마음의 십에 아홉을 얻었고, 육가가 진평을 헤아린 것도 그 마음의 반 이상을 얻었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아는가?

무릇 두 사람은 지혜가 넉넉하고 도모하는 것은 깊은 자들이었다. 조정에 있는 여러 장수가 대부분 유씨(劉氏)의 사람들인데 여후(呂后)[141]가 다만 조정에 임하여 정치를 좌지하는 권력으로 그들을 제압하였는데, 여후는 여자 중의 걸오(桀驁)[142]한 자로서 바야흐로 칭제(稱制)[143]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유씨를 위하는 자들은 비록 감히 함부로 행동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심정은 여씨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기회가 동하면 반드시 우단(右袒)[144]할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두 사람처럼 지혜가 넉넉한 자들이 어찌 미리 알지 못하였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바야흐로 여씨를 왕으로 삼고 있을 때, 육가는 병으로 벼슬을 물러나와 화를 피아였고, 진평은 거짓으로 들어주었다.[145] 병으로 벼슬을 물러나와 화를 피한 것은 그 기미(幾微)가 비교적 드러나 있지만, 거짓으로 들어 준 것은 그 기미가 매우 은미하다. 은미한 것으로써 드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십의 구를 알았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 거짓으로 들어주는 것을 헤아리는 것은 비록 은미하여 알기가 어렵지만, 하루 아침에 기회를 보고서 유씨를 안정시킬 것을 도모할 수 있는 자는 지위가 높고 계

씨의 세력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141) 중국 전한 고조의 황후. 혜제(惠帝)가 죽자 여씨(呂氏)를 왕으로 삼고자 했으나, 진평 등의 노력으로 허사로 끝났고, 이후 여씨는 삼족이 멸족되었다.

142) 성질이 사납고 교만함.

143) 조정에 임하여 천자를 대신하여 정사를 다스리는 것.

144)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는다는 것으로, 한쪽 편을 든다는 의미이다.

145) 당시 여후가 진평에게 여씨를 왕으로 삼는 것이 어떤가 라는 질문에, 진평은 "고제(高帝)가 천하를 평정하고 그 자제를 왕으로 하셨는데, 이제 태후께서 칭제(稱制)하시니 여씨를 왕으로 한다고 하여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후에 진평의 이 대답에 대하여 왕릉(王陵)이 책망하자 그는 "지금 얼굴에 대고서 그 과실을 지적하고 조정에서 간쟁하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는 못하지만 사직(社稷)을 보전하고 유씨(劉氏)의 후손을 안정시키는 것은 당신이 나만 같지 못하다"고 대답하여, 그의 여후에 대한 대답이 거짓이고 그의 뜻이 한실(漢室)을 안정시키는데 있음을 밝혔다.. 자세한 것은 『한서(漢書)』 권40에 보인다.

책이 깊은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시에 이 두 가지를 겸하고 있는 자는 두 사람 중에서 진평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그러므로 "또한 그 반 이상은 얻었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두 사람은 각각 흉중에 생각을 두고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누설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기회를 잡아 움직일 것을 엿본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육가가 진평의 집으로 직접 찾아 들어온 날은 기회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도모는 미리 설정할 때였던 것이었다.

대개 한 고조(高祖)가 죽었을 때 여후도 늙었다. 늙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법이니, 여씨가 죽을 날이 이미 임박하였다. 여후가 죽으면 여러 여씨는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비록 그렇지만 계책을 미리 정해두지 않다가 일이 창졸간에 발생하면 갑자기 대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육가가 이에 반 이상을 헤아린 것을 가지고 시험삼아 말하기를 "무엇을 그리 깊이 생각하십니까?"하고 묻자, 진평도 이에 십의 구를 헤아린 것을 가지고 반문하여 시험삼아 말하기를 "당신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헤아려 보라"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개 육가의 답을 들음으로써 십의 나머지 하나도 함께 얻은 것이었다.

아아! 이것이 지혜가 넉넉하고 계책이 깊다는 것이다. 육가도 또한 이것을 통하여 아직 헤아리지 못한 십의 이, 삼을 얻었음은 물론이다.

이것을 종합하여 논하면, 그 두 사람은 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가를 위하여 감히 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지혜의 밝음은 충분히 일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었고, 그 계책의 치밀함은 충분히 일은 마땅히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었다. 위태로움을 전환하여 편안함을 성취하여 각각 한나라 시대의 아름다운 이름을 이루게 된 것이 어찌 공연한 것이었겠는가?

論陳平答陸賈曰生揣我何念

念生於心 測其心 則揣其念矣 而未易測者 心也 陳平之宴居深念之心 卽陸賈之病免家居之心 而二人之心 各據二人之胸中 此其未易測也 其心之據於胸中者 平未嘗路之

於賈 賈亦未嘗路之於平 此其未易測也 雖然 平之測賈 而得其心之十九 而賈之測平亦得其心之强半也 何以見之 夫二人 足智而深謀者也 見諸將之在朝者 擧劉氏之人而呂后特以臨朝之權制之 后女中之桀驁者 而方據稱制之席 爲劉氏者 雖不敢妄動 然顧其情 不樂於呂氏矣 一朝機動 必無右袒者 而二人之智之足 豈不預有以知之乎 雖然 方其王呂之時 陸賈病免 陳平僞聽 病免者 其幾微較著 僞聽者 其幾微頗隱 以隱而測著易 故曰十得其心之九也 測其僞聽 雖隱而難知 然計一朝覘機而安劉 非位高而謀深者不能 而當時之兼此二者 二者非平而誰哉 故曰亦得其强半也 雖然 二人者 各置諸胸中 噤而不言 非不欲言也 一則恐泄 一則伺動矣 乃今賈直入平室之日 機雖未動 而謀將豫定之時也 蓋高帝崩而后且老矣 老則必死 而后之死期已迫 后死則諸呂不足爲也 雖然 謀不先定 而事在倉猝 不可以遽辨 故賈於是以測其强半者而試之曰 何念之深也 則平於是以測其十九者 而反問而試之曰 生揣我何念 蓋將以聞賈之答而幷得其十一也 嗚呼 此之爲智足而謀深也 而賈亦以此而幷得其所未測之十二三矣 由是論之 彼二人者 雖不可遽謂 一心爲國 敢於不懼禍 然其智之明 足以識夫事之所當爲 其謀之密 足以辨夫事之所當就者矣 轉危爲安 各成漢朝一代之令名 豈徒然也哉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논함

천하는 참으로 광대하다. 사람도 참으로 많고 일도 참으로 번잡하다. 물(物)의 많은 것을 일컬어 '만(萬)'이라 하는데, '만'으로만은 충분히 천하를 모두 다 대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천하는 '만'이 누적된 것이고, '만'은 '일(一)'이 누적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나 한 사람을 기준으로 천하의 많고 번잡한 것을 헤아림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면 천하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볼 수가 있다. 하나의 일에 임해보면 천하의 일의 실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다. 무릇 사람은 머리가 둥글고 턱은 늘어져 있으며 귀와 눈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입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코는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천하의 사람이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얼굴은 대체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무릇 사람의 심정은 배부르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굶주리고 추운 것을 싫어하며 편안하고 한가한 것을 기뻐하고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한다. 천하의 일

이 비록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심정은 대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 이사(里社)[146]의 모임에서 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먹는 고기를 주관한다면 참여한 사람의 수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면 사용할 고기의 양도 얼마만큼의 정도가 된다. 사람의 많고 적음과 고기의 많고 적음 및 이사(里社)의 모임에서 마땅히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헤아리고, 그 균등하게 할 방도를 먼저 정하여 그것에 기준하여 분배하여 각각 적합한 것을 얻으면 주관한 고기의 문제는 대개 이미 균평해지게 된다.

저 천하는 이사(里社)가 누적된 것이고, 천하의 재물은 이사에 제공된 고기가 누적된 것이다. 내가 또 천하 사람의 많고 적음과 지출되는 재물의 많고 적음 및 국가의 수도와 주와 군에서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 균등하게 할 방도를 먼저 정하여 그것에 기준하여 분배하여 각각 자신의 자리를 얻게 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도 장차 균평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다.

아아! 나는 천하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옷을 입지 않으면 추위에 떨고 수고로우면 고통스럽고 편안하면 한가하다. 이런 까닭으로 천하 사람의 심정이 나와 똑같다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 대체로 나와 차이가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겠다.

무릇 내가 좋아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으로써 천하에 그것을 미루어 나가 그 중에 미워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 중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에 나아가도록 한다면, 천하가 비록 넓고 사람이 비록 많으며 일이 비록 번잡하다고 하더라도, 어찌 내가 주관하여 다스리는 것을 따르지 않겠는가?

사람이 천하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은 그가 천하의 좋아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사람의 옷 입고 먹는 것과 국가에서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것을 통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천하를 이용하여 위에 있는 사람의 수요만을 충족시킨다면 천하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발끈 노여워하지 않겠는가? 천하의 사람이 노여워하면 혼란이 발생하는 법이다.

지금 내가 만약 먼저 균평하게 할 방도를 정해두지 않고 사사롭게 고기를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운다면 이사(里社)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발끈 노여워하게 될 것이니, 노여워하다면 어찌 잘 주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개 나는 후미진 골목의 돗자리로 문을 만든 누추한 집에서 옛날의 천하를 다스

146) 마을의 조합.

린 것을 기재한 책을 읽기를 좋아하여 그들이 균평하게 하였던 것을 묵묵히 기억하였다가 한 번 시험삼아 이사에 제공되는 고기를 주관하는 것에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宰天下論

天下誠廣矣 人誠多而事誠繁矣 號物之多 謂之萬 而萬不足以盡天下矣 然而天下者萬之屢積也 萬者 一之屢積也 以吾一人而料天下之多且繁 無不可知者矣 且夫觀一人而天下之人之面 可以像矣 臨一事而天下之事之情 可以揣矣 夫人圓頭而垂頤 兩其耳目 而一其口 而鼻居其中 天下之人 雖多 人之面 概不外乎是矣 夫人之情 好飽暖 而惡飢寒 喜安逸 而厭勞苦 天下之事 雖繁 人之情 概不出乎是矣 今里社之會 使我一人 宰多人所食之肉 而計其人若干矣 肉又若干矣 量人之多寡 與肉之多寡 以及社會應供之費 先定其所以均 按而分之 各得其適 所宰之肉 蓋已均矣 彼天下者 里社之積也 天下之財者 社肉之積也 我又計天下之人之多寡 與所出之財之多寡 以及國都州郡應支之費 先定其所以均 按而分之 各得其所 則宰天下 亦將無不均矣 嗚呼 我居天下之人之一 而不食則飢 無衣則寒 勞則苦 安則逸 以是知天下之人之情之同於我 如人之面之概無異於我也 夫以我之所好惡喜厭 推之於天下 去其惡且厭者 而使就其好且喜焉 則天下雖廣 人雖多 而事雖繁 豈有不從吾之所宰者哉 人之不能宰天下者 以其不知天下之好惡喜厭 又不達乎人之所衣食與國之所應供 惟以天下充在上之人之所求天下之情 安得不嗷然而怫乎 怫則亂矣 今也 使吾不先定其所以均 私取其肉 以充吾所嗜 則里社之人 必將怫然而怒矣 怒則豈善之云乎哉 蓋吾於窮巷席門之內 好讀古昔治天下之書 有以默識其所均 而聊一試之於宰社肉也已

전숙론(田叔論)

사람의 학술은 그 시작할 때에 삼가해야 하는데, 큰 것을 배우고 작은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 한(漢)나라 전숙(田叔)[147]은 충효(忠孝)가 있고 관리가 되어서는 자

147) 중국 전한 때 사람. 사람됨이 청렴정직하고 임협(任俠)을 좋아하였는데, 조왕(趙王) 장오(張

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의 열전(列傳)을 읽고 있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만든다. 그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해 나갔다면 비록 천자를 보좌하여 사해(四海)에까지 시행한다고 하였더라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文帝)처럼 훌륭하게 정치를 수행한 임금을 만나고서도 세상에 크게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은 대개 그의 처음 학술이 검술(劍術)을 좋아하고 임협(任俠)[148]을 기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비록 황로(黃老)[149]를 배워 황로의 언사를 말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천하를 도와 다스릴 수 있었는데, 다만 그 학술을 모두 시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150] 무엇에 근거하여 그것을 아는가?

문제(文帝)는 황로를 좋아하여 현정(玄靜)[151]으로써 천하를 다스렸는데, 천하의 장자(長者)[152]를 등용하여 크게 쓰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숙이 맡은 바에 일에 충실한 까닭에 그가 장자라고 여기고서 전숙에게 "공은 천하의 장자가 누구인지를 아는가?"라고 물었던 것이다.

무릇 천하의 장자는 온 천하에서 한 두 사람뿐이니, 충분히 천하를 도와 다스릴 수 있는 자이다. 전숙이 이에 대답할 때에 그 재주가 천하를 보좌할 수 있는 자를 헤아려 천거하였다면 문제도 반드시 마음으로 경청하여 그의 뜻이 천하를 위하여 재상의 직무를 수행하여 임금을 보좌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니, 조정에서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을 전숙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敖)가 낭중(郎中)으로 삼았다. 조오(趙午)와 관고(貫高) 등이 고제(高帝)를 시해하려다가 발각되어 조왕(趙王)과 여러 반란에 참여한 자들이 체포되었는데 모두 삼족을 멸하였고, 오직 전숙과 맹서(孟舒) 등 십여 인만이 붉은 죄수복을 입고 자진해서 머리를 깍고 칼을 목에 차고서 장왕(張王)을 따라서 장안(長安)에 이르렀다. 조왕 장오가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풀려나오게 되었고, 전숙 등을 고제에게 추천함에 전숙을 한중수(漢中守)로 임명하였다. 양효왕(梁孝王)이 원앙(袁盎)을 죽인 일로 연유하여 노상(魯相)으로 옮겨져 거기서 죽었다. 자세한 것은 『사기』 권104, 「전숙열전」에 보인다.

148) 호협한 기개. 협기(俠氣)라는 뜻이다.

149) 황제(黃帝)와 노자(老子)를 가리킨다. 황로사상은 청정무위(淸淨無爲)을 주장하여 도(道)·법(法)을 융회하고, 기타 제자학파의 사상들을 겸채하여, 『노자(老子)』에서 제출된 일련의 군주의 통치술과 정치·전쟁과 관련된 여러 사상들을 주로 발전시켜, 국가의 화복성쇠와 흥망득실을 연구한 것이다. 한나라 초기, 약 70년간 혜제(惠帝)로부터 문제·무제 초기에 이르기까지 황로사상이 정치의 지도사상이었다.

150) 『사기』 「전숙열전(田叔列傳)」에 따르면, 젊어서 전숙은 검술(劍術)을 좋아하고 황노를 악거공(樂巨公)에게 배웠다고 한다.

151) 청정무위(淸淨無爲)와 같은 말. 황로사상의 근본원칙으로 '지극히 조용하다'는 뜻이다.

152) 덕망이 있는 사람.

그리하여 전숙은 맹서(孟舒)[153]라고 대답하였는데, 맹서는 전숙과 함께 장왕(張王)[154]을 따라서 장안(長安)에 온 자였다. 전숙이 맹서를 말한 것은 바로 자기를 말한 것이었으니, 비록 고지식하여 혐의(嫌疑)스러운 것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 국량은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문제가 그의 말을 듣고서 맹서를 운중수(雲中守)로 복직시켜 주었는데, 전숙도 노상(魯相)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은 대개 문제가 전숙이 맹서를 말하는 데에서 그의 우직함을 살피고 그의 의리를 허락해 주었지만, 그의 국량이 협소하여 그 재주가 담당 지역의 상(相)에 그칠 뿐이다라고 여긴 것이었다. 생각컨대 그렇지 않겠는가.

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맹서가 과연 장자(長者)라면 그 재주가 충분히 천하를 보좌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곧바로 전숙은 마땅히 대답하기를 "맹서는 천하의 장자입니다. 그의 능력이 천자를 보좌하여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데, 한갓 운중수(雲中守)에 그칠 뿐이라면 그 큰 재주를 펼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어야 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는 반드시 마음으로 경청하였을 것이다.

생각컨대, 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작은 것을 책망해서는 안 되니, 맹서를 조정에 불러 들여서 그가 진실로 그러한지 여부를 시험해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전숙은 위의 두 가지 것에 모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처음 학술에 임한 것이 큰 것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싶다. 나는 전숙의 행동을 매우 높게 평가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것을 미루어 천하에 시험해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때문에 이와 같이 논해본 것이니, 또한 세상의 고상한 품행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홀로 자신의 몸만을 착하게 하는데만 한정하여 자신에게만 수행하는 것에 돌아가지 말기를 부탁한다.

---

153) 맹서는 일찍이 전숙과 함께 관고(貫高) 등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어 조왕(趙王) 장오(張敖)를 따라 장안(長安)에 왔다가, 전숙과 마찬가지로 조왕의 추천으로 운중수(雲中守)로 임명되었다. 전숙이 문제에게 맹서를 추천할 때, 맹서는 공교롭게 오랑캐가 변경을 침입하여 도적질을 일삼는데 운중 지역이 특히 심한 것으로 인하여 면직을 당한 상태였다.

154) 조왕(趙王) 장오(張敖)를 가리킨다.

田叔論

人之學術 愼於其始 學其大 勿學其小也 漢田叔 具有忠孝 當官盡職 讀其傳 令人感動 持此以往 雖佐天子 施之四海 可也 然而遇文帝好治之主 不能大施于世 蓋以其初學術 不出於好劍喜任俠也 雖亦學黃老 言黃老言 猶能佐治天下 而顧又未盡其術也 何以見之 文帝好黃老 以玄靜治天下 欲擧天下之長者 以大用之 以田叔能忠於所事 知其爲長者 問之曰 公知天下長者乎 夫天下長者 擧天下而一二人也 是足以相天下者也 叔於是對也 度其材可相天下者而擧之 則帝必傾心聽之 知其志在於爲天下 修相業以輔其主也 安知試之于廷 不自田叔始乎 乃叔以孟舒對 夫孟舒與叔 同隨張王 至長安者也 其稱舒 卽是稱己 雖戇直不避其嫌 而其量不已狹乎 帝聽其言 以舒復爲雲中守 於叔亦終於魯相而已 蓋帝於叔之稱舒 察其戇 許其義 然狹其量 以爲其材止於守相而已 意者不其然乎 且未知孟舒果爲長者 則其材足以相天下歟 卽叔宜對曰 舒天下之長者也 是其能佐天子而安天下 一雲中守 不足以展其大也云爾 則帝必傾聽之 意其有大才者 不必責其小者矣 安知不召舒于廷 以試其誠然否也邪 叔於二者 俱未之及 豈不以始學不講乎大者歟 余甚高田叔之行 惜其不能推之 以試於天下 故論之如此 亦以勗夫世之有高行者 勿畫於自善其身 而歸於獨行已也

한신(韓信)이 이좌거(李左車)를 천거하지 않은 것을 논함

신하가 임금은 섬기는 것은 오직 충성을 다하는 것에 있을 뿐인데, 충성을 다하는 도리는 현명한 자를 천거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한(漢)나라 소하(蕭何)가 한왕(漢王)을 따라서 촉(蜀)에 들어갔다가 한신(韓信)이 도망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급히 추격하여 한왕에게 천거하고서도 오히려 잃을까 두려워하여 안절부절하였으니, 소하 같은 자는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안 사람이다. 이런 까닭으로 소하는 한왕에게 신임을 받았고 능히 아름다운 이름을 온전히 보존하였으니, 단지 군수(軍需)를 조달하는 것 때문에 한나라 조정의 큰 공신이 된 것뿐만이 아니었다.

대개 천하가 분쟁하여 군웅(羣雄)이 힘을 다툴 때에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항상 의심스러운 것이 있기 마련이다. 그 신하가 병사를 거느리고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으면 그 임금은 일찍이 의심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일찍이 시기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시기하는 것은 그의 공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침내 제어하지 못할까 근심하기 때문이다.

한신이 연나라를 평정한 뒤에 한왕이 한(漢)의 사자(使者)를 칭하고서 새벽에 한신의 성벽으로 말을 달려들어가서 한신의 인부(印符)[155]를 탈취하여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위치를 바꾸어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이었겠는가?

만약 한신이 임금을 섬기고 신임을 획득하는 도리를 알았더라면 그가 조(趙)를 깨뜨리고 연(燕)은 평정한 날에 마땅히 왕에게 글로 보고하기를

"신이 정형(井陘)에 들어가 조(趙)나라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조나라가 이좌거(李左車)의 계책[156]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사신을 보내어 연(燕)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것도 이좌거가 신에게 선성후실(先聲後實)의 계책[157]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명한 자는 마땅히 대왕을 보좌하여 기이한 계책을 내어 천하를 평정해야 합니다. 신은 이런 까닭으로 감히 대왕에게 그를 천거합니다"

라고 하였다면, 한왕은 그것을 보고서 반드시 크게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뻐한 것은 이좌거를 얻은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신이 진심

155) 장수의 인수(印綬)와 부절(符節). 당시 초(楚)나라가 자주 하수(河水)를 건너 조나라를 공격하므로 한신은 조왕(趙王)과 왕래하면서 조나를 구원하고 인하여 조나라 성읍(城邑)에 머물게 되었는데, 형양(滎陽) 등에서 초(楚)에게 크게 패퇴한 한왕(漢王)이 새벽에 한나라 사신으로 가장하고 조나라 성에 치입(馳入)하여 한신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그들의 인부(印符)를 탈취하여 제장(諸將)을 불러 자리를 바꾸었다. 한왕이 한신의 인부를 탈취한 사건은 『사기(史記)』 권92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자세히 보인다.

156)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하려 할 때, 조나라의 광무군(廣武君) 이좌거는 한나라 군대가 승승장구하여 그 예봉을 꺾을 수 없지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피로한 기색이 있고 정형 땅이 협곡인 까닭에 식량 조달을 차단하고 수비에 치중하면 한신의 군대를 깨뜨릴 수 있다고 한 계책이다. 그러나 조왕은 이 계책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결국 한신에게 패퇴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157) 한신이 바야흐로 조(趙)나라를 격파하고 연(燕)나라를 공격하려 할 때 병사가 잦은 전쟁으로 피로한 상태였는데 이좌거가 한신에게 우선 병사를 휴식시켜 힘을 기르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에게 실력을 과시하면 연나라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다시 이것을 이용하여 제나라에게 소문을 퍼뜨리면 제나라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책으로, '먼저 소문을 내고 후에 실리를 취한다'는 책략이다.

으로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현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천거한 것을 기뻐한 것이다. 무릇 이와 같았다면, 한왕이 형양(滎陽)에서 패배했을 때 한신에게 사신 한 사람을 보내어 그의 군대를 징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몸소 사신을 칭하여 새벽에 그의 성벽으로 말을 달려 들어왔겠는가?

한왕이 역생(酈生)[158]으로 하여금 제(齊)나라에 가서 항복을 받아오게 했을 때, 한신은 마땅히 한왕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신이 바야흐로 제나라를 치려고 할 적에 역이기(酈食其)가 능히 한 마디 말로써 제나라 왕을 설득하여 병사도 피로하지 않고 식량도 허비하지 않고서 칠십 여개의 성을 항복받았습니다. 이러한 공은 실로 신보다 배는 더합니다. 신은 이런 까닭으로 감히 대왕에게 보고합니다"

라고 하였더라면, 한왕은 반드시 크게 기뻐했을 것이다.

그런데 기뻐한 것은 임금이 파견한 사람에게 능력을 양보한 것을 기뻐하고 지난번 충성을 다한 것에 기뻐한 것에 대하여 의심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그와 같았더라면 역생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반드시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신의 역량이 아닙니다. 한신의 조나라를 격파하고 연나라를 평정한 위세를 빌려서 제나라 왕을 설득한 것입니다. 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을 것이다. 무릇 이와 같으면, 한신이 한왕에게 신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왕의 여러 신하들도 모두 그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신이 고릉(固陵)에 이르지 않았을 때도 장량(張良)이 땅을 준다는 위장술[159]을 바치지 아니하고 "한신이 당연히 올 것입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또 한신이 초왕(楚王)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모반을 고발했을 때에도 진평(陳平)은 거짓 순수(巡守)하는 계책[160]을 바치지 아니하고 "한신은 반드시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

158) 중국 전한 초기의 책사(策士)인 역이기(酈食其)를 가리킨다. 그는 고조를 위해 제나라에 가서 유세하여 칠십여 성을 항복받았는데, 그 직후에 한신이 대병(大兵)을 거느리고 제나라를 공략하였으므로 대노한 제왕 전광(田廣)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159) 한왕이 고릉(固陵)에서 곤란을 겪다가 장량의 계책을 이용하여 제왕(齊王)인 한신을 불러 병사를 이끌고 해하(垓下)에 모이도록 하고, 항우가 이미 격파됨에 한왕은 한신의 군대를 급습하여 탈취하였다. 그리고 한(漢) 5년 정월에 한신을 초왕(楚王)으로 옮기고 하비(下邳)에 도읍하도록 했다.

160) 한신이 초왕이 되고서 출입할 때에 항상 군대를 정돈하였는데, 혹자가 한왕에게 한신이 모반

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한신이 회음후(淮陰侯)로 있을 때 사람들이 그가 진희(陳豨)[161]의 내통하여 모반을 꾀한다고 하였을 때에도 고제(帝)는 반드시 "한신이 어찌 나를 배반하겠는가?"라고 했을 것이다.

아아! 이것이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신임한다는 것이니, 이와 같으면 어떻게 시기하고 의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이좌거가 현명하지 못하였는가? 만약 그랬다면 한신이 당연히 서향(西嚮)[162]하여 그를 스승으로 섬기면서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그가 현명하고 그의 말이 따를 만하며 따르게 되면 적중하였는가? 만약 그랬다면 한신이 어찌 그 공을 보답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무릇 남의 계책을 사용하고서 그 공을 갚지 않았으니, 이것이 고제가 그의 공을 보답하지 않은 것을 초래한 까닭이다. 슬프다. 한신은 적을 그리도 잘 파악하면서 자신을 헤아리는 것이 저와 같았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어찌 애석하지 않은가!

韓信不薦李左車論

人臣事君 惟在盡忠 而盡忠之道 莫先於薦賢 漢蕭何之從漢王 入蜀也 聞韓信亡 急追之 薦于王 猶恐失之若何者 知事君之道者也 是以見信於漢王 而能保全令名 不獨轉向給軍 爲漢廷元功也 蓋天下分爭 羣雄角力 君臣之際 常有可疑 其臣將兵 所向無敵 則其君未嘗不疑 亦未嘗不猜 猜者 非忌其功也 慮其終莫之制也 當韓信定燕之後 漢王者稱漢使 晨馳入信之壁 迨信未起 奪其印符 麾召諸將 而易置之 此出於何矣哉 使韓信知事君見信之道 則其破趙定燕之日 當書奏于王曰 臣之下井陘破趙者 以趙不用李左車之計也 臣之發使定燕者 以李左車教臣以先聲後實之策也 是其賢 宜佐大王 發奇策 以定天下 臣是以敢薦之大王 則漢王見之 必大喜 喜者 非喜得李左車也 卽喜信

하리라고 고발하자, 한왕이 진평의 계책을 이용하여 천자가 순수하면서 제후를 회합한다는 명분으로 한신을 사로잡고 낙양으로 압송한 사건을 말한다.

161) 중국 전한 때 사람. 고조(高祖) 때 낭중(郎中)으로 열후(列侯)에 봉해졌다. 그는 조대(趙代)의 변병(邊兵)을 통솔하면서 빈객(賓客)을 불러들여 잘 대우하였는데, 조상(趙相)과 주창(周昌)이 진희가 이상한 모의를 하고 있다고 아뢰자 고조가 그를 소환함에, 진희는 드디어 반란을 일으켜 대왕(代王)으로 자칭하였으나,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

162) 옛날에는 객(客)과 함께 계단을 오를 때 객은 서쪽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고 주인은 동쪽 계단으로 오르면서 서로 예를 표하였는데, 한신이 서향을 하면서 스승으로 섬겼다는 것은 그를 객으로 예우하였다는 의미이다.

之心能盡忠於所事 而不蔽人之賢也 夫如是 王之敗於滎陽 發一使于信 而徵其兵 足矣 何必身稱使者 而晨入其壁哉 王之使酈生下齊也 信當書奏于王曰 臣方欲伐齊 而酈食其能以一言說齊王 不勞兵 不費餉 下七十餘城 是其功 實倍于臣 臣是以敢聞于大王 則王又必大喜 喜者 喜其讓能於其君所使之人 而向所喜其盡忠者 爲無疑也 酈生聞之 必亦喜曰 此非臣之力也 藉韓信之破趙定燕之威 以說齊王也 臣何功焉 夫如是 非惟見信於王 王之諸臣 皆信之 其於固陵之不至也 張良不獻捐地之計 而曰信當至矣 其於王楚而人告反也 陳平不獻僞遊之計 而曰信必不反矣 其在淮陰也 人告與陳豨通 則帝必曰 夫韓信 豈反我哉 嗚呼 此人臣能知事君之道 故君信之也 何猜疑之有哉 且使李左車不賢歟 則信不當西嚮師事之 而從其言也 果其賢矣 而其言可從 從之而中歟 則信豈不思所以報其功哉 夫用人之策 而不報其功 此所以來夫高帝之不報其功也 噫 以信之善於料敵 而不能料其身如是 豈不惜哉 豈不惜哉

최운정(崔篔亭) 군명(君明)의 61세 장수를 축하하는 서문

무릇 천하의 사람이 모두 원하는 것은 장수와 부귀이다. 그러나 부귀하지만 장수하지 못하기보다는 차라리 장수하고 부귀하지 않은 것이 낫다고 여기니, 부귀가 장수만 같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하겠다.

사람이 장수에 있어서 원하는 것 중에 그 부모가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부모가 장수에 있어서 원하는 것 중에 그 자식이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 무릇 천하 사람 중에서 그 자신도 장수한데 부모까지 장수하는 자가 몇 사람이 되겠는가? 진실로 그러한 자가 있다면 저 부귀는 무엇을 말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두릉(杜陵)의 최군명(崔君明) 씨는 나이 61세에 그의 대부인(大夫人)께서 집에 살아 계신다. 대부인이 군명을 낳으신 것이 7월 13일이니, 이 날이 갑자(甲子)로 1주기(一週期)가 되는 날이다. 이러한 날에 잔을 들어 헌수(獻壽)[163]하여 힘들고 수고롭게 자식을 길러준 은혜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거의 유감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163) 잔을 올려 장수를 축하하는 것.

천하의 자식된 자가 모든 사람이 그 부모의 장수를 얻을 수 없는데 오직 군명은 그것을 얻었고, 천하의 부모된 자가 모든 사람이 그 자식의 장수를 얻을 수 없는데, 오직 대부인만은 그것을 얻었다.

대부인께서 군명이 갓 태어나 울 때에 보았는데 이제 이미 장년을 지나 늙어 주갑(周甲)의 해를 맞이한 사람이 되었다. 군명이 생각해 보니, 대부인께서 어루만지고 길러주신 것이 두루 갖추고 지극하셨다. 이제 처음 젖을 먹여준 날을 맞이함에 미수(眉壽)[164]토록 건강하시니, 마치 큰 언덕처럼 장수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얻은 것이라 하겠다. 시험삼아 천하의 모든 것을 들어봄에 어떤 즐거움이 이것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군명에게는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차례로 질서있게 헌수를 하고, 군명이 헌수를 받는 뒷 자리엔 대부인이 빙그레 웃음을 머금고 당상(堂上)에 앉아 계시니, 군명이 여기에 더 남은 바램이 없을 것이다.

군명은 문학을 하는 선비이기에 빈천(貧賤)에 근심하지 않는 자이니, 내 마땅히 부귀의 설로써 말한 것은 없다. 다만 군평이 평생 제대로 받들지 못한 것을 상심하였는데, 이 날 특히 더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군명의 장수에 대한 복이 부귀보다 만 배는 낫다는 것을 말하여 군명의 뜻을 넓혀주려 한 것이니, 군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 같은 자도 일찍이 태어나 갑자 일주기를 맞았는데, 풍수(風樹)[165]의 한스러움을 갖고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비록 군명 처럼 헌수를 하고 싶지만 당상(堂上)엔 이미 예를 베풀 분이 계시지 않다. 내 이런 까닭에 군명이 장수하여 얻은 즐거움이 온 천하에 몇 사람 없다는 것을 알겠다. 사람의 원하는 것 중에서 어찌 이것에 더할 것이 있겠는가, 어찌 이것에 더할 것이 있겠는가?

賀崔篔亭君明甫六十一歲序

夫天下之人之所願者 壽與富貴也 與其富貴而不壽 毋寧壽而不富貴也 是富貴之不如壽 審矣 人之所願於壽者 莫大乎願其親之壽 親之所願於壽者 莫甚乎願其子之壽 凡

164) 눈썹이 세고 길어지도록 오래 사는 것. 곧 장수(長壽)를 뜻한다.
165) 풍수지탄(風樹之歎).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天下之人 其身壽而其親亦壽者 將幾何人矣 誠有之乎 則彼富貴 惡足道哉 杜陵崔君明甫 年六十一 其大夫人在堂 大夫人生君明 寔惟七月十有三日 而此其甲子一周之期也 于是日 而稱觴獻壽 答劬勞之恩之萬一 則爲人子者 庶可以無憾矣 天下之爲子者不能人人得之於其親 而惟君明得之 天下之爲親者 不能人人得之於其子 而惟大夫人得之 大夫人視君明始生呱呱也 而今已長壯而老 而爲周甲之年之人 君明念大夫人 拊育備至 值初鞠之辰 而眉壽康强 得如其岡陵之願 試擧覆載之內 有何樂可方此也 君明有婦有子有子婦 以次秩然獻壽 於君明獻壽之後 而大夫人怡然含笑 而坐於堂上 君明於是可無餘願矣 君明 文學之士也 非戚戚於貧賤者 余不當以富貴之說望之 而君明生平 傷無以爲養 至于是日 將尤甚焉 故特道君明之壽之福 出富貴上萬萬 以廣君明之意 而君明以其在己不自知也 若余者 亦嘗生逢甲子一周之期 而抱風樹之恨已久 雖欲如君明之獻壽 堂上未之得也 余是以知君明之壽之樂 擧天下而無幾何人也 人之可願 夫豈有加於此哉 夫豈有加於此哉

왕소천(王小川) 시고서(詩稿序)

시(詩)는 마음의 소리이다. 마음이 시에 드러나 소리가 된 것은 그 이루는 것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타고난 재주이고, 하나는 타고난 식견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어느 하나가 없을 수 없다. 온전히 두 가지를 모두 하늘에서 받고 태어난 자는 대체로 드물다.

타고난 재주가 표일(飄逸)한 자는 공교한 생각이 샘처럼 솟아나고 기민하게 알아채는 것이 곳에 따라 호응하여 독특한 경지에 이르러 우뚝히 한 시대를 능가하게 된다. 이것은 마음의 소리가 갱연(鏗然)[166]한 것이니, 그가 말한 것은 영기가 발하고 신명이 빼어나 듣는 자가 놀라고 또 기뻐하게 된다.

타고난 식견이 정밀하고 밝은 자는 척도가 분명하여 어느 순간에나 잘못되지 아니하여 멀리 이어받아서 기술한 것이 있고 또 모범을 후세에 드리우게 된다. 이것은 마음의 소리가 범연(泛然)[167]한 것이니, 그가 말한 것은 매우 순수하고 전후(典厚)하여 듣는 자가 감동하고 또 온화하게 된다.

166) 금석(金石) 또는 거문고 소리를 말한다.
167) 알맞은 소리. 곧 중용(中庸)의 소리를 말한다.

타고난 재주는 높지만 관대하고 고요한데 거처하고, 타고난 식견은 원대하지만 평안하고 느긋한데 도달하니, 이것이 두 가지를 모두 다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타고난 것을 잘 길러서 두 가지를 모두 잘 발달시킨 자는 거의 되었다 하겠다.

왕소천의 시는 내가 일찍이 그가 타고난 식견이 있다는 것을 탄복하고 그의 전체 원고를 청한 것이 십일년이 되었다. 금년 여름 세 권을 주면서 한 마디 말을 찾기에, 내 받고서 끝까지 읽어보니, 황매천(黃梅泉)이 마지막에 제(題)[168]를 하여 고체(古體)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미루어 말씀하였는데, 대개 말이 간략하지만 뜻이 다하였기 때문이었다. 내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보니 그런대로 소천의 고심(苦心)을 알겠기에 망령되게 그의 시를 평가해 보겠다. 소천은 비록 재주에는 부족하지만 그의 식견이 고인의 문에 나아가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169] 따라서 고인의 자취를 밟아 묵묵히 그것이 무엇 때문에 훌륭하게 되었는가의 까닭을 연구하고, 그것을 오래도록 일삼아 만약 이해하는 것이 있으면 한 두 번 시험을 해보고, 다시 오래도록 일삼으면 그런대로 가까운 듯하게 되고, 다시 누적하기를 오래도록 하게 되면 고인과 나의 관계조차도 잊게 된다. 이와 같게 된 이후에 크게 마음대로 하더라도 혼혼(混混)하게 하나가 될 것이다.

그의 말은 작은 듯하지만 큰 듯하며, 깊은 듯하지만 얕은 듯하며, 아취가 있는 듯하지만 속기가 있는 듯하며, 옛 것을 인습한 듯하지만 새롭게 창작한 듯하며, 끝이 없는 듯하지만 끝이 있는 듯하다. 보는 자로 하여금 도대체 고인 중의 어떤 사람을 배웠는지를 정할 수 없게 한다. 무릇 시를 지은 것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거의 되었다고 할 것이다. 총괄하면 장차 깊고 순수하며 전아하면서 후중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평소 시를 말하기를 좋아했지만 재주와 식견이 모자란 까닭에 비록 그림자와 메아리를 더듬고 헤아려서 억지로 서문을 짓지만, 두려운 것은 말한 것이 뇌동(雷同)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혐의가 있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감히 질언(質言)하지 못하고, 우선 소천의 깊고 독실한 것을 거론하여 이후의

168) 문체의 하나. 일반적으로 문장의 첫머리에 오지만, 여기서는 문장의 마지막에 오는 발문(跋文)의 뜻으로 사용된 듯하다.

169) 이 구절은 『논어』 「선진(先進)」에 보이는 비유로 원래는 도(道)에 들어가는 단계를 말한 것으로, '방(室)'은 곧 정묘하고 심오한 경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왕소천의 자질이 정묘하고 심오한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마음을 가진 자가 취하여 모범을 삼기를 기다린다.

시는 모두 1,196수인데, 매천이 뽑은 266수는 그 중에 뛰어난 것이다. 나는 전체 원고에서 의심스러워 부합하지 않은 것 삼십 이 수를 표시하여 내가 구차히 뇌동하지 않는 자임을 보여주었다.

王小川詩稿序

詩者 心聲也 心之形於詩而爲聲 其致有二焉 曰天才也 曰天識也 二者常相須 不可相無 而全受於天者 蓋鮮矣 天才飄逸 則巧思迸湧 機警隨應 獨造特立 而凌駕一代 此心聲之鏗然者 而其爲辭也 英拔神秀 聞之者 驚且悅矣 天識精明 則尺度瞭然 造次不忒 遠有紹述 而垂範後世 此心聲之洌然者 而其爲辭也 甚醇典厚 聞之者 感且和矣 天才 高而宅于寬靜 天識 遠而達乎條暢 是爲兩盡 養其所受 而能兼蓄焉者 其庶幾矣 王小川詩 余嘗服其有天識 而請其全稿者 十有一年矣 今年夏 遺以三卷 而索一言 余受以卒讀焉 則黃梅泉題其後 而推之以爲師古 蓋言簡而意盡矣 余又何言哉 雖然 竊自謂略窺小川之苦心 是以輒妄言之 小川雖嗇乎才 顧其識有可以造古人門而入其室者 乃就古人跡 默究其所以工之故 久而若會焉 則一再試之 久則若幾焉 積之久而若忘焉 然後大肆焉 而混混然一矣 其言若小若大 若深若淺 若雅若俚 若襲故若創新 若無際若有涯 使觀者 不能定其學古誰人 夫爲詩至此 殆將庶幾者乎 要其歸 其將深醇典厚者乎 余生平好言詩 而短於才識 雖揣摸影響 强爲是序 然懼非立言者 且嫌於好夫同也 是以不敢質言之 姑擧其用功之深且篤者 以俟後之公心者 取以爲軌焉 詩凡一千一百九十六首 梅泉選二百六十六 其尤者也 余則於全稿 惟標其疑而未契者 三十二首 以見余非苟同者云耳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은 것에 대하여 논함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은다"는 것은 제갈무후(諸葛武侯 : 諸葛亮)의 말씀이다. 아아, 무후가 무후가 된 까닭은 이것 때문일 것이다.

『주역』에 이르기를 "마음을 비워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170]라고 하였다. 무

릇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은 이후에 빈 것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서경』에 이르기를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른다"[171]라고 하였다. 무릇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은 이후에 자기를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땔나무꾼에게도 물어본다"[172]라고 하였다. 무릇 땔나무꾼에게 물어보았다면 여러 생각이 모이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청컨대 한 번 논해 보겠다. 대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서로 같지 않은 것은 사람이 얼굴이 서로 다른 것과 같으니, 여러 사람의 얼굴을 보면 곧 여러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된다. 얼굴이 서로 다른데서 예쁘고 못난 것이 드러나고, 생각이 서로 다른데서 얻고 잃음이 분명해 지는 법이다. 여러 사람의 얼굴이 모여 있으면 얼굴이 출중(出衆)한 자가 있게 되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모이게 되면 생각이 출중한 자가 있게 된다.

무릇 무후가 장차 일을 벌릴 경우에는 생각이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음에도 오히려 "내 혼자 생각한 것뿐이니, 일을 그르침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의견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 중에는 합치하는 것도 있고 합치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생각하기를 "합치하는 것이 옳은가, 합치하지 않은 것이 옳은가?"라고 하였다. 생각한 것이 이미 분명해 졌을 때 합치하는 것이 옳으면 곧 "이것은 진실로 옳다"라고 하였고, 합치하지 않은 것이 옳으면 곧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진실로 이와 같으면 비록 옳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을 것이다.

무후의 실수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마속(馬謖)[173]을 쓴 일이었다. 바야흐로 무후가 마속을 쓸 때에도 또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었고, 모두가 가하다고 한 이후에 그를 썼다. 만약 여러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후는 반드시 "내가 마속을 쓰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 이것이 일을 그르치게 된 까닭

170) 『주역』 함괘(咸卦), 「대상전(大象傳)」에 보인다.
171) 『서경』 「대우모(大禹謨)」에 보인다.
172) 『시경』 대아(大雅), 「판(板)」에 보인다.
173)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장수. 군사 책략을 논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일찍이 용병의 방도는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최상이고 성을 공략하는 것이 아래이다고 하였다. 제갈량(諸葛亮)은 그를 중용하여 참군(參軍)으로 삼았다. 유비(劉備)는 임종할 때 "마속은 말이 실지를 넘어서니 크게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위(魏)와 가정(街亭)에서 싸울 때 명령을 어기고 패배를 초래하여 처형되었다.

이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후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가 있었겠는가?

비록 성인이라고 하여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요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사악(四岳)[174]의 의견을 묻자 사악이 모두 곤(鯤)[175]을 천거하였다. 요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명령을 어기고 종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사악이 말하기를 "가능함을 시험해보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요 임금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 않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는데, 그 마음은 대개 혹여 짐의 지혜가 미치지 못한 것이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조정의 신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요 임금이 성인이 된 까닭이다.

세상에서는 무후가 알지 못한 것이 없다고 여기지만, 무후라고 어찌 알지 못한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다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자신의 지혜로 삼았을 뿐이었다. 만약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지혜로 삼고자 한다면 어찌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생각으로 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무후가 무후가 된 까닭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은 데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集衆思論

集衆思 諸葛武侯之言也 嗚呼 武侯之所以爲武侯 其以此乎 易曰 虛受人 夫集衆思而後 可以虛受矣 書曰 舍己從人 夫集衆思而後 可以舍己而從也 詩曰 詢于芻蕘 夫芻蕘而詢之 則衆思之無不集 可以知矣 請試論之 蓋思出於心 心之不同 如人面焉 見衆人之面 斯知衆人之思矣 面之不同 妍蚩見矣 思之不同 得失審矣 衆人之面集 而面之出衆者 有矣 衆人之思集 而思之出衆者 有矣 凡武侯之將有事也 思之旣熟矣 而猶曰我獨思耳 得無僨事者乎 是以聽於衆人 衆之中 有合者 有不合者 且思之曰 合者是歟 不合者是歟 思之已審 而合者是矣 則曰此誠是也 不合者是矣 則曰我未之及也 苟如

174) 중국 요임금 때 사방의 제후(諸侯)를 통솔하던 장관을 말한다. 아래의 요임금과 사악의 대화는 『서경』「요전(堯典)」에 보인다.

175) 중국 고대 우(禹)임금의 아버지. 요 임금이 숭백(崇伯)으로 봉하여 치수(治水) 사업을 9년간 맡겨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순(舜)이 우산(羽山)에서 죽이었다. 당시 사흉(四凶)의 한 사람으로 칭해졌다.

是 雖有不是者 寡矣 武侯之失 無大於用馬謖者 方其用謖也 亦必詢於衆人 皆曰可而後 武侯用之矣 假使不詢於衆乎 武侯於是必曰 我用謖而不詢於衆 此所以僨事也 然則武侯之集衆思 惡可已也 雖聖人亦然 堯之治水 咨之四岳 則四岳擧鯀焉 堯曰 吁方命圮族 岳曰 試可乃已 則堯不能自是而從之 其心蓋曰 毋或朕之知有不及歟 而不以廷臣爲不知 此堯之所以爲聖人也 世以武侯爲無所不知 夫武侯惡能無不知焉哉 特以衆知爲知焉耳 如欲合衆知而爲知 焉可不集衆思而爲思也哉 故曰武侯之所以爲武侯不出於集衆思也已

고요함이 아니면 학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배우는 자가 움직이는 것마다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완성(完成)'이라고 한다.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요함에 말미암아야 한다. 고요함은 움직임의 근본이다. 고요함에 근본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임 가운데에는 항상 고요함을 머금고 있다 하겠다.

바야흐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고요함에서 확립되어야 하고, 이미 완성함에 이르러서는 고요함과 일체가 되어야 하니, 고요함이란 학문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시작할 때에는 고요함으로써 학문을 진보시키고, 끝마무리에서는 고요함으로써 학문을 완성해야 하는데, 오직 진보해 나가고서야 비로소 완성을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고요함이 아니면 학문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한 번 자세히 말해 보겠다.

학문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고, 마음은 신명(神明)이 깃든 곳이다. 신명이 움직여 그치지 않으면 조급하고 흔들리게 된다. 조급하고 흔들리면 망령되게 되고, 망령되게 되면 어디를 가나 적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로 덕을 일삼으면 덕이 어긋나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까닭으로 고요함으로써 주도를 해야 하니, 고요하게 되면 망령이 제거되고, 망령이 제거되면 참의 세계가 있게 된다.

고요함은 참의 세계가 있는 곳이다. 참의 세계가 있는 곳은 어디를 가나 적합하

지 않음이 없으니, 이치상에서는 이치가 통달하고, 일에 있어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직 밝아야만 이치가 통달하게 되고, 오직 민첩해야만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밝은 것은 심광(心光)이 움직인 것이고, 민첩함은 심력(心力)이 움직인 것이다. 심광은 항상 움직여 쉽게 꺼지고, 심력은 항상 움직여 쉽게 피로하게 된다. 오직 고요함과 일체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꺼지지도 않고 피로하지도 않게 될 수가 있다.

고요함과 일체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고요함을 확립해야 되는데, 확립하는 것은 조급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고요함이 아니면 학문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주역』에 "고요히 움직이지 않다가 감(感)함에 드디어 천하의 일에 통하게 된다"[176]고 하였다. 무릇 조급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은 배우는 자가 고요함에서 확립되어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지극한 공을 들인 것이다. 밝고 민첩한 것은 배우는 자가 고요함과 일체가 되어 감함에 드디어 통한 것이니, 그 지극히 공을 들인 것이 이미 완성된 것이다. 아아, 고요함과 일체가 된 것은 잘 배운 것이라 하겠다.

非靜無以成學

學者 動皆中節 是謂之成 動不自動 必由乎靜 靜者 動之根也 根乎靜 以之而動 動之中 常含靜焉 方其未成 立乎靜 及其已成 體乎靜 靜者 其學之始終者乎 始焉以進學 終焉以成學 惟進而後乃成焉 故曰 非靜無以成學也 試詳言之 學 所以存心也 心 神明之舍也 神明 動而不已 則躁擾 躁擾則妄 妄則無適而宜 以德則德敗矣 以業則業壞矣 是以主之以靜 靜則妄除 妄除則眞矣 靜者 眞之所在也 眞之所在 無適而不宜 于理而理達矣 于事而事集矣 惟明而後理達 惟敏而後事集 明者 心光之動也 敏者 心力之動也 光常動易熄 力常動易疲 體乎靜 乃能不熄不疲矣 欲體乎靜 必先立乎靜 立者 不躁擾之謂也 故曰 非靜無以成學也 易曰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 夫不躁擾 學者之立乎靜而寂然不動 其極功也 明敏 學者之體乎靜而感而遂通 其極功之已成者也 嗚呼 一於靜 其善學者乎

176) 『주역』「계사전(繫辭傳)」에 보인다.

황학고(黃鶴皐) 문생(門生)의 계사(禊祀)에 대한 서문

『전(傳)』에 이르기를, "덕(德)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177]고 하였다. 무릇 하늘이 인간에게 명하고 인간이 하늘에서 얻은 것을 덕이라고 하니, 덕은 하늘과 인간의 실리(實理)이고, 군자의 순수한 행동으로 얻은 것이다.

그 중대함이 얼마인데 재물과 함께 언급을 하는가? 비록 가리키는 것의 근본과 말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데 상대하여 거론하니 서로 비교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아마도 재물도 군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삼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이 계사(禊祀)[178]에 참여한 자는 스승의 존귀함이 부모에 비견되지만 스승을 섬기는데 있어서 재물이 없을 수 없은 즉, 참으로 재물이 덕에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또한 상서롭지 못한 것을 불제(祓除)[179]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짧은 글을 지어 본 것이다.

黃鶴皐門生禊序

傳曰 德者本也 財者末也 夫天之命乎人 而人之得乎天 是謂之德 德者 天人之實理 而君子之純行也 其重如何 而乃與財幷言之 雖所指本末逈絶 對而擧之 不幾於若相較哉 豈財於君子 亦在必須 而不之名也 凡入於斯禊者 念師之尊之比於親 而其事之也 不可以無財 則信乎財爲德之所須 而祓除不祥 於斯在矣 是爲序

177) 『대학』, 전(傳) 제10장에 보인다.
178) 물가에서 요사(妖邪)를 떨어버리기 위해 행하는 제사. 음력 3월 상사(上巳)에 행하는 것을 '춘계(春禊)'라 하고, 7월 14일에 행하는 것을 '추계(秋禊)'라고 한다. '계(禊)'는 '계(禊)'와 통한다.
179) 재액(災厄)을 떨어버린다는 뜻.

백파(白坡) 종영(宗英)의 61세 장수를 축하하는 서문

백파(白坡)가 61세가 되던 현호(懸弧)[180]의 날에 그의 세 아들이 각각 맛있는 술과 아름다운 음식을 준비하여 술잔을 들어 뜰에서 축수의 잔을 올리려 할 적에 백파가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할 것이 없다"고 하니, 세 아들이 명을 받들고 황공하여 부복(俯伏)하고 감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고향의 이웃 선비와 벗들 중에 와 있던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자네 집안이 가난한데 세 아들이 힘을 팔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의 잔치를 열었으니 효성스럽다고 말할 만 하네. 그런데 자네가 저들이 축하의 잔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이에 종족의 친인척들이 한결같은 말로 힘껏 권하니, 백파가 쓸쓸히 얼굴빛을 바꾸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우리 부모가 힘들게 나를 길러주시어 내 오늘 이 날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위로는 부모의 은덕을 보답할 수도 없는데, 아래로 감히 자식들의 축하의 잔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당시 나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의 효도에 독실하고 견지한 태도가 매우 확고한 것에 깊이 탄식하였다. 비록 그렇지만 가만히 의심이 생기었다. 만약 천하의 사람 자식이 모두 백파와 같다면 누가 감히 부모의 은덕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축하의 잔을 올리는 것도 드디어 폐해지게 될 것이다.

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백파에게 넌지시 말해보니, 백파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말하기를,

---

180) 현호(懸弧)는 출생일을 말한다.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호(弧), 즉 뽕나무 활을 문의 왼쪽에 걸어 활을 잘 쏘기를 바란데서 유래한 것이다.

"내 비록 자식이 잔을 받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고향 이웃의 선비와 벗, 종족과 친척 등과 더불어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여 즐거움을 다하고 자리를 파한다면 충분히 자식배의 심정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청하기를 "내 평소에 석정 자네의 글을 매우 좋아했는데, 나를 위하여 오늘 일을 서술하여 내 자식과 손자들로 하여금 대대로 전하게 하여 집안의 법도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나는 즉시 허락하기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무릇 태어나 육갑(六甲)이 되돌아와 잔치를 베풀고 잔을 들어 축하하는 것은 풍속에서 숭상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고례(古禮)에는 없는 것이었다. 하물며 백파의 말씀과 행동은 효도와 자애 두 가지가 모두 다하였으니, 전해주어 백파 집안의 법이 될 뿐만이 아니라, 곧 전시하여 천하의 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 어찌 보잘 것 없는 문장을 이유로 사양하겠는가"라고 하고, 드디어 글로 쓰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白坡宗英六十一歲壽序

白坡六十一歲 懸弧之期 其三子 各具旨酒芳羞 將奉觴獻壽于庭 白坡揮之曰 無以也 三子承命 惶恐俯伏 不敢復請 鄉隣士友 來赴者咸曰 子家貧而三子 食力殫誠 辦今日宴 可謂孝矣 而子乃不許其獻壽 不亦異乎 於是宗族戚姻 一辭勸之力 白坡愀然變容 儼然而言曰 昔者 吾父母劬勞 我此其辰也 吾曾上不能報父母之德 下敢受兒子輩獻壽乎 時余亦在坐 深歎其篤於孝思 而持之甚確也 雖然 竊有疑焉 使天下人子 皆如白坡 誰敢曰能報父母德乎 而其子之爲親獻壽 可遂廢矣 余以此叩白坡 白坡良久而曰 吾雖不許其奉觴 與我鄉隣士友 宗族姻戚 擧盃相屬 盡歡而罷 則足以伸兒子輩情也 因請曰 吾平昔 甚好石亭文 爲我敍今日事 使吾子若孫 世傳之 以爲家法 余曰諾 夫生周六甲 而張宴稱慶 俗尙久矣 然於古禮 未之有也 況白坡之云爲 於孝慈兩盡焉 不獨垂而爲白坡家法 卽示而爲天下法 或無不可 余安得以蕪文故而辭 遂書之如此

문약(文弱)을 논함

문학에 종사하는 것은 사람을 약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을 약하게 하는가? 지금 날쌔고 사나우며 웅걸차고 특출한 사람은 제재를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데 그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문학에 종사하게 하여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의 날쌔고 사나우며 웅걸차고 특출한 기상은 사라져 닳아지고 쪼개고 꺾어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도탑고 순박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을 약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령 문학하는 선비 수십 인이 아관(峨冠)[181]을 쓰고 긴소매를 끌고서 높은 누대 위에서 풍류를 즐기면서 시를 읊조리고 있는데, 한 두 명의 호협(豪俠)[182]한 사람이 짧은 옷을 입고 활과 칼을 가지고서 갑자기 들이닥치면 풍류를 즐기며 시를 읊조리는 자들은 슬슬 물러나 자리를 피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무릇 수십 인의 힘이 반드시 모두 한 두 명의 호협한 사람에게 뒤지지는 않을 것인데 감히 더불어 맞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이 익혀 왔던 것이 문학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문학이 사람을 약하게 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문학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어찌 문학의 본성이겠는가? 다만 문학을 하는 것이 잘하고 잘하지 못한 것이 그것을 초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일 뿐이다. 진실로 훌륭하게 문학에 종사하면 천하의 지극히 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학보다 강한 것이 없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는가?

한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지만 천하의 일은 끝이 없다. 유한한 지식으로 무궁한 일을 상대하게 되면 반드시 두루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만약 갑자기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만나게 되면 비록 지식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사람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람이 천하의 글을 두루 읽고 그것의 실질을 구하지 않음이 없어 일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사람을 제어하는 기술이 이에 넉넉히 남은 것이 있게 된다. 진실로 이와 같으면 천하의 아무리 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181) 장중하게 보이기 위해 쓰는 높은 관. 일반적으로 사대부들이 쓰는 관을 말한다.
182) 호방하고 의협심이 있음.

것이 이것에 더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을 잡고 있는 자는 천하의 막강한 문학이 아닌 것이다.

성대한 시대의 문학은 고상한 까닭에 논할 것이 없거니와, 시대가 내려오면서 문학이 쇠퇴하여 창업을 일군 군주가 여러 영웅들과 영토를 다툴 때 있는 힘을 다하지만 가까스로 그것을 획득하고, 비록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천하의 무궁한 영웅들을 제재할 방도가 없음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그들을 제재하는 방법은 오직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을 구하여 그것으로 영토를 획득하는데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이 영토를 소유한 자들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 까닭이다.

그런데 승평(升平)[183]한 날이 오래되면 똑같은 문학이라 하더라도 문호(門戶)가 분열되어 각각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높이게 되어 한 쪽으로 치우친 것을 붙잡고서 까마득히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혹 그가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일러주면 문을 닫아걸고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내 평소에 숭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추위와 더위가 이미 옮겨갔는데, 갖옷을 입은 자는 한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고, 갈옷을 입은 자는 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또 약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아직 알지 못한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자가 장차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것을 배워서 이미 많이 쌓고 익혀서 일정한 단계를 넘어선 자와 비견하려는 것은 남은 물방울을 가져다가 솥 가득한 물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그러한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문학이 약해지지 않게 되는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뿐이다. 나라의 임금이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신하와 백성에 붙게 되고, 장수(將帥)가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병사와 군졸이 붙게 되고, 선비가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도술(道術)이 붙게 된다. 붙게 되는 것이 많으면 강해지고, 붙게 되는 것이 적으면 약해진다. 만약 문학이 남보다 약해지지 않고자 한다면 오직 스스로를 잘 다스려 도술이 저절로 붙게 되는 것에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붙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보아야 할 것은 직접 보고, 알아야 할 것은 직접 알고, 배워야 할 것은 직접 배워야 한다. 스스로 어느 한 쪽을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과장하지 말아야 되고, 내달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 장점을 모아서 나의 지혜를 증진시켜야 된다. 그

183) 나라가 잘 다스려져 태평함.

리고 이렇게 하여 제재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거의 약해지지 않게 될 수 있다. 동류(同類)를 접촉해서 이끌어 확대해 나간다면 영민하고 강한 것을 이루는 방법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문장이 약해진 것을 이유로 이렇게 논하는 것도 반드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데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사람 중에 이 글을 읽는 자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미루어 확대해 나감이 있다면 아마도 문학을 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을 초치하여 도리어 문학의 본성을 의심하는 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文弱論

文可以弱人乎 曰 可 胡以弱人也 曰 今有勇悍雄特之人 不甘于受制 使之背責而從事於文 久則其勇悍雄特之氣 消磨剉折 變而爲溫柔敦淳之人 此非弱人者乎 試使文士數十人 戴峨冠曳長裾 風詠於高臺之上 而有一二豪俠之人 着短衣帶弓刀 突然而至 則風詠者 無不逡巡而避 夫數十人 其力非必皆遜於一二人 而乃不敢與之抗 何也 以其所習者 文也 此非文之弱人之驗乎 雖然 文之弱人 豈文之性哉 特爲文者之善不善 有以致之也 苟善爲之 則天下之至强 莫强於文 何以見其然也 一人之智有限 而天下之事無窮 以有限遇無窮 必不可以徧知也 若猝然遇其所不知 雖知者 必不知其所以應之向所謂弱人者 以此故也 使斯人遍讀天下之文 無不求其實 而識其所以應之 制人之術於斯焉恢恢有餘矣 誠如是 天下之强 孰有加於此哉 是以執一偏者 非天下莫强之文也 盛世之文 尙矣無論 自世降文衰 創業之君 與群雄爭土地 角力而僅得之 雖得之 恐無以制天下無窮之雄 其制之之術 惟在乎求其弱人者而爲之地 此文之所以爲有土地者弱人之具也 至於升平日久 則同一文也 而門戶分裂 各尊其所知 而執其一偏 范然不知其自我弱之 人或告之以所未知者 則閉門而却之曰 非吾素尙也 寒暑已遷 而衣裘者盛暑而喘汗 衣葛者 隆寒而凌兢 豈不悲哉 其稍有知慧者又謂 其所未知勝於所已知者 將欲學其所未知 以肩其積習而化者 取餘瀝而較全鼎 吾未信其果爾也 然則如之何而文不弱也 曰 自治而已 國君自治 則臣民附 將帥自治 則士卒附 士自治 則道術附 附者衆則强 附者寡則弱 如欲文之不弱人 惟在於自治 而道術附焉 其所以使之附者 無他焉 可覽者覽之 可知者知之 可學者學之 毋自執 毋自棄 毋因之而夸 毋因之而驁

集衆長而益吾智 得其所以制之 則其或庶乎不弱矣 觸類而引伸之 則英强之術 或不外乎此矣 吾所以爲其文弱而論之者 亦不必其不自墮於一偏 然人之讀此論者 有以推擴焉 則似不歸於不善而自致其弱 乃反有疑於文之性也已

홀로 그 대략을 관찰한 것을 논함

제갈무후(諸葛武侯)가 어렸을 때 서원직(徐元直) 등과 함께 유학(遊學)을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은 모두 정밀하고 익숙히 하기를 힘썼지만, 무후만 홀로 그 대략(大略)을 관찰하였다.[184] 나는 이 일을 논하여 무후의 뜻을 밝혀보고자 한다.

학문은 정밀하고 익숙히 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대략만을 관찰하고 그친다면 추솔(粗率)[185]한 것에 가깝지 않은가? 과연 추솔한데서 그친다면 학문은 성취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무후가 과연 그러했는가?

무후의 말은 살펴보면 "학문은 반드시 정밀해야 하고, 재주는 반드시 학문을 통하여 연마해야 한다. 학문이 아니면 재주를 광대하게 할 수가 없고, 정밀함이 아니면 학문을 성취할 수가 없다"[186]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후의 뜻이 학문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런대로 알 수가 있다.

대개 천하의 일은 모든 것을 정밀하고 익숙하게 할 수는 없다. 일일마다 정밀하고 익숙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혜와 힘이 나누어지게 된다. 지혜와 힘이 나누어지게 되면 전일하게 종사할 수가 없고, 전일하게 종사할 수가 없으면 번잡한 것을 제어하여 간략한 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천하의 일은 반드시 모두 정밀하고 익숙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일일마다

184) 양시위(楊時偉), 『제갈충무전(諸葛忠武傳)』 권2에 자세히 보인다.

185) 거칠고 경솔함.

186) 제갈량의 『계자서(誡子書)』에 보인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무릇 군자의 행동은 고요함으로써 몸을 닦고 검소함으로써 덕을 기른다. 담박함이 아니면 뜻을 밝힐 수가 없고, 편안하고 고요함이 아니면 원대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 무릇 학문은 반드시 정밀해야 하고, 재주는 반드시 학문을 통하여 연마해야 한다. 학문이 아니면 재주를 광대하게 할 수가 없고, 정밀함이 아니면 학문을 성취할 수가 없다. 태만하면 정밀히 연구할 수가 없고, 조급하면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해는 때와 함께 달려가 버리고 뜻은 해와 함께 가버린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락(枯落)하여 궁한 오두막에서 한탄한들 장차 어찌 다시 미칠 수가 있겠는가!" 『제갈충무전(諸葛忠武傳)』 권9 참조.

반드시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고자 한다면 근본과 말단이 섞이게 된다. 근본과 말단이 섞이게 되면 요체를 획득할 수가 없고, 요체를 획득할 수가 없으면 간략한 것을 잡고서 광대한 것을 회통(會通)할 수가 없다. 이것이 무후가 일일마다 정밀하고 익숙하기를 힘쓰지 않고 오직 대략을 관찰하고자 했던 까닭이다.

지금 단순히 무후가 홀로 대략을 관찰했다는 것만을 알고 그가 대략에 있어서 진실로 이미 정밀하고 익숙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겠는가? 천하의 일에는 수 만 가지가 있는데, 천하의 이치는 하나일 뿐이다. 하나가 대략인데, 대략은 간(簡)과 약(約)이다.

시험삼아 국가를 다스리는 것으로써 말해보고자 한다. 경대부(卿大夫)[187]에게는 경대부의 직책이 있고, 백집사(百執事)[188]에게는 백집사의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하는 자는 재상(宰相)이다. 내가 재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리에 대하여 정밀하고 익숙하다면 저 경대부와 백집사가 하는 직책은 개괄할 수가 있다. 이와 같으면, 비록 정밀하고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밀하고 익숙한 것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간(簡)으로써 번잡한 것을 제어하고 약(約)으로써 광대한 것을 요약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유독 국가를 다스리는 것만이 그렇겠는가? 도학(道學)[189]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학의 대원(大原)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 오성(五性)인데, 인을 행하는 방법에 정밀하고 익숙하면 의와 예와 지와 신도 개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역수(易數)[190]도 마찬가지이다. 역수의 큰 조목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191]인데, 태극(太極)[192]의 이치에 정밀하고 익숙하면 음양과 오행의 수(數)를 개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록 들어가는 길은 자신만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과 말단에는 진실로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근본에 근거해야만 지엽적인 것을 개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후는 타고난 자질이 매우 높으니, 여러 일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

187) 경(卿)과 대부(大夫). 곧 집정자를 말한다.
188) 여러 실무 담당자를 가리킨다.
189) 유가(儒家)의 학문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성리학(性理學)·심학(心學)을 가리킨다.
190) 역리(易理)를 따져서 길흉(吉凶)을 미리 아는 술법(術法).
191) 우주 사이에서 쉬지 않고 운행하는 다섯 원소. 즉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를 가리킨다. 이 오행의 상생상극(相生相剋)에 의해서 만물이 소장(消長)하고 생존한다고 한다.
192) 천지와 음양이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의 이치, 원리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니다. 때문에 다만 그가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는 데에 힘쓰지 않은 것을 보았지만, 실상은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지 않음이 없었다. 무후가 힘쓴 대상은 바로 근본에 정밀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을 힘쓴 것이었다. 아아, 이것이 바로 무후가 된 까닭이다.

獨觀其大略論

諸葛武侯在幼時 與徐元直等遊學 諸人務皆精熟 武侯獨觀其大略 余爲之論 以明其意曰 學 非精熟 不可以有成 而乃觀其大略而止 不幾於粗率乎 果粗率而止 學之不成也明矣 武侯而乃爾邪 觀武侯之言曰 學須精也 才須學也 非學 無以廣才 非精 無以成學 然則武侯之志 欲成其學 亦明矣 是必有以焉 而其或可知也 蓋天下之事 不能皆精熟之也 欲事事而能精熟焉 則知力分 知力分 則不得其專 不得其專 則無以御繁而就簡矣 天下之事 不必皆精熟之也 欲事事而必精熟焉 則本末混 本末混 則不得其要 不得其要 則無以操約而會博矣 此武侯所以不務事事而精熟 惟大略是觀者也 今徒知其獨觀大略 而不知其於大略 固已精熟 可乎 天下之事有萬 而天下之理 一而已矣 一其大略也 大略 卽簡與約之謂也 試以爲邦言之 卿大夫有卿大夫之職 百執事有百執事之職 而總之者相也 我於爲相之道 精熟焉 則彼爲卿大夫百執事之職 可概之也 雖不精熟 而精熟者自在矣 向所謂簡以御繁 約以會博者 非邪 奚獨爲邦然也 惟道學亦然 道學之大原 仁義禮智信五性也 精熟於爲仁之方 則義禮智信 可以概也 惟易數亦然 易數之大目 曰陰陽五行也 精熟於太極之理 則陰陽五行之數 可以概也 雖其所入之路自有階級 不可驟求而便得 然其本末 固有輕重 必先據其本 且可以概其枝葉也 武侯天資甚高 非諸人所可測 故但見其不務精熟 而其實未嘗不亦有以精熟之也 乃武侯之所務 則務精熟於其本也 嗚呼 斯其所以爲武侯歟

황매천(黃梅泉) 서실기(書室記)

문장을 짓는데 매천이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있다면 정직(定稷)도 없을 수가 없다. 매천이 서실에 기문(記文)을 짓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기문을 짓는다면 정직의 문장이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매천은 문장을 남방을 경도하여 그 성망(聲望)이 정직보다 훨씬 크니, 정직이 있고 없는 것이 어찌 매천에 대하여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정직이 생각하기에 또한 없을 수가 없으니, 어찌 자신을 과시해서 매천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것이겠는가? 그만둘 수가 없는 까닭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사사로운 설을 피력해볼까 한다.

대개 매천은 비록 오늘날의 사람이지만 그의 문장은 빼어나고 발군이며 독특한 경지에 올라 자신감 있게 고인(古人)과 겨룰만하나, 정직은 망령되게 스스로 시대를 한계로 삼지 아니하고 법도를 준수하여 가만가만 고인으로써 기약을 삼고 있다. 그 재주를 비교하고 그 역량을 헤아리면 진실로 비교되지 못하지만 한 사람은 대항을 하고, 한 사람은 기약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문(古文)을 짓는데 있어서 완전히 같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매천이 말하기를,

"고문은 문장으로 치면 오래된 것이다. 오래되면 진부하게 되고, 진부한 것은 나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바야흐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새로운 것은 이른바 옛 것이 아니다. 옛 것을 기준으로 나를 구한다지만 나는 진실로 옛 것이 아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러해야만 내가 진실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인을 빌려서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하였다. 정직이 말하기를,

"옛 것은 오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에 살면서 옛 것을 고집하는 것은 마땅히 오늘에 부합되지 않는다. 비록 그렇지만 옛 것은 소박하고 지금의 것은 편벽되어 있으며, 옛 것은 순수하고 지금의 것은 뒤섞여 있다. 나는 장차 순수하고 소박한데 거처하고자 하노니, 차라리 옛 것을 고집하여 검소하게 살지언정 지금의 사치스러움은 바라지 않겠다"

라고 하였다.

아아! 이 두 주장은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힐난하고 또 변론하였지만 통일에 귀착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에 정직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 보았다. 고인은 지금에 앞선 자이다. 지금의 이른바 옛 것이라는 것은 고인 자신들은 새로운 것으로 여긴 것이다. 매천이 이미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면 바로 지금보다 이후에 매천을 살펴보면 매천이 고인을 바라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옛 것에 빠져있었던 것이 과연 나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다시 매천을 대신하여 마음을 비우고 생각해 보았다. 내가 고인의 모습을 본뜨고 자 하는가. 그러나 나의 모습은 고인이 아니다. 내가 고인의 마음을 본뜨고자 하는가. 마음으로 본다면 고인과 내가 얼마나 심하게 다르겠는가? 마음으로써 하고 모습으로써 하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옛 것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고문이 나를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하여 무슨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이에 두 사람은 마땅히 각기 마음을 비우고서 결론짓기를 "우리 두 사람은 마음이 똑같지 않아서 서로 반대된 것이 아니다. 생각컨대 각자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밝은 귀와 밝은 눈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해 줄 때 귀 하나와 눈 하나만 주었더라도 충분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을 두 개씩 만들어 준 것은 서로 필요로 해서 온전하게 해 준 것이다. 만약 각각 하나씩으로 그쳐 귀와 눈의 기능을 겨우 겸하였는데, 귀와 눈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옳지 못하다.

우리 두 사람이 이미 귀와 눈을 두 개 씩 가지고 있고 또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네 개의 귀와 네 개의 눈을 가진 것이다. 비록 시대에 속박되는 것이 있고 재주와 역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대로 고인에게 많이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무릇 이와 같은 이후에는 진부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이 한결같이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무릇 이와 같은 이후에 "우리 두 사람이 고문을 한다"라고 하여도 또한 진실되지 않겠는가?

아아! 매천이 정직에게서 취한다면 매천이 온전해 질 것이고; 정직이 매천에게서 취한다면 정직이 온전해 질 것이다. 무릇 이와 같은 연후에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여도 또한 가능하지 않겠는가?

매천의 서실은 바로 고문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그의 집에 기문을 짓는데 내가 이러한 그만 둘 수가 없는 문장이 없을 수 있겠는가. 청컨대 이것을 걸어주기 바란다.

黃梅泉書室記

使爲文而無梅泉已 有則定稷不可無也 使梅泉而不記書室已 記則定稷之文不可不揭也 今梅泉 以文傾南方 聲望遠出定稷上 定稷之有無 惡能輕重梅泉哉 而定稷乃以爲 亦不可無 豈其自夸而欲肩之歟 抑有不得已之故 以伸其私說也 蓋梅泉 雖今人乎 其文穎發獨詣 由由然抗古人 而定稷妄自不限時代 遵繩循尺 竊竊然以古人期 衡其才 量其力 誠不侔矣 而一則抗焉 一則期焉 其於爲古文 不可謂全不同矣 然而梅泉之言曰 古文 文之故者也 故則陳 陳不足以爲我 吾方出之以新 新者 非所謂古也 以古求我 我固非古也 以我歸我 其爲我也 全矣 吾爲眞我而已 假古人 於我何哉 定稷則曰 古者 非今之稱也 居于今 而執乎古 宜不合於今矣 雖然 古者樸 而今也辟 古者純 而今也糅 吾將居乎純樸 寧且古而儉 不願今之侈也 噫 此二說者 吾兩人所以且難且辨 而不能宿乎一也 於是定稷 虛吾心而思之 古人前乎今者也 今之所謂古 古人所自以爲新也 梅泉其已新焉 卽後乎今而視梅泉 何異於梅泉之視古人 向也吾之泥夫古 果不足以爲我也 於是復代梅泉 虛其心而思之 使吾襲古人之貌邪 吾之貌 非古人也 使吾法古人之心邪 古人與吾 豈甚異哉 以心不以貌 吾雖循乎古 何患乎不爲我 於是兩人者 宜各虛其心而決之曰 吾兩人 非心不同而相反焉 意其各有未全者歟 人之所賴者 聰明也 天之賦人 一耳一目 斯足矣 而必兩之 其將相須而全之也 如或各一而止 僅能兼聰兼明 謂耳目之全則未也 吾兩人 旣兩其耳目 而又相須焉 是四耳而四目也 雖時代有束才力有懸 其庶幾不多讓於古人哉夫然後 無陳無新 一以全之 夫然後而曰 吾兩人也 爲古文 不亦允乎 嗚呼 梅泉而取乎定稷 則梅泉全矣 定稷而取乎梅泉 則定稷全矣 夫然後而曰 有其人 不可無斯人 不亦可乎 而梅泉書室 卽古文所在之所也 記其室 又吾可無此不得已之文也 請以是揭之

장침헌기(長枕軒記) 병서(幷序)

나는 일찍이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이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인(因)할 수 있는 것을 궁구하여 인욕에 나아가 천리를 따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인의(仁義)의 행실을 닦는 자는 반드시 먼저 형기(形氣)의

욕망을 잘 이끌어야 하는데, 형기의 욕망이 제대로 길러지면 인의의 길은 막히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순임금이 관리에게 명하는데 곡식을 파종하는 것이 가르침을 베푸는 것보다 앞섰던 것이다.[193] 이것은 대체로 백성이 막히거나 굶주림이 없고서야 오품(五品)[194]을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공자(孔子)가 정치에 대한 질문에 답할 때에 양식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백성이 믿는 것보다 앞선다고 하였다.[195] 이것은 대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서야 믿음이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맹자가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진술할 때 의식(衣食)이 상서(庠序)[196]에 앞선다고 하였다.[197] 이것은 대개 또한 백성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떠는 것이 없고서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에게 공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성현(聖賢)의 마음은 의식(衣食)이 오성(五性)[198]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다. 먼저 형기를 잘 길러주고 이것을 통하여 성명(性命)의 바름을 인도하면 인욕이 천리를 해칠 수가 없어 인의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에 통달하지 못한 자는 단순히 큰 소리 치면서 "인의(仁義)는 공적인 것이고, 형욕(形欲)은 사적인 것이다. 어찌 반드시 의식 같은 사적인 계산을 가지고 천리와 같은 공정한 것과 더불어 논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한다.

이 말은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저 인욕의 사사로움이 형기의 가운데에서 점차 불어나고 암암리에 자라나 점점 앞으로 나아가 오래 지속되면 사적인 것으로써 공적인 것을 멸하게 되어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없다. 그 형기를 인도하여 제대로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일당(逸堂) 이성심(李聖心) 씨는 그의 둘째 동생과 살고 있는 처소의 곁

193) 이 말은 『서경』 「순전(舜典)」에 보이는데, 순 임금은 먼저 농사를 담당하는 장관인 기(棄)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오곡을 파종하도록 하고서, 다시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인 설(契)로 하여금 백성이 오품(五品)에 순응하도록 교육을 시키라고 하였다.

194) 오륜(五倫)과 같은 말. 즉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장유유서(長幼有序)·부부유별(夫婦有別)·붕우유신(朋友有信) 등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질서를 말한다.

195) 이 말은 『논어』 「안연(顔淵)」에 보이는데, 자공(子貢)이 정사(政事)를 묻자, 공자는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사를 풍족하게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196) 향리(鄕里)의 학교를 말한다. 여기서는 기본 교육의 의미로 쓰였다.

197) 이 말은 『맹자』 「양혜왕상(梁惠王上)」에 보이는데, 맹자는 "여러 집안이 굶주리지 않으며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삼가하여 효제(孝弟)의 의리로써 그들을 거듭 일깨워주면 반백의 사람들이 도로에서 무거운 짐을 이거나 지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198) 인간이 타고난 다섯 가지의 본성.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을 말한다.

에 띠로 지붕을 이은 정자를 하나 엮어 만들고 장침헌(長枕軒)이라고 편액(扁額)을 하였다. 이것은 우애(友愛)의 뜻을 붙여 놓은 것으로 항상 자신도 권면하고 아울러 둘째 동생도 힘을 쓰도록 하게 한 것이었다.

나는 이 일을 매우 장하게 여기고서 그 장침(長枕)을 온전히 하여 오래도록 간직할 방도를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평소 천리와 인욕을 궁구하여 그 설을 얻은 것으로써 기문(記文)을 지어보았다.

침(枕)이라는 물건은 매우 작고 또 쉽게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쓰고 힘을 쓰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 장침은 소침(小枕)에 비교하여 비용이 더욱 많이 들고, 모정(茅亭)은 장침에 비교하여 더욱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반드시 의식(衣食)으로써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아야 장침을 구비하고 모정을 얽어서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인의의 본성에서 우애를 얻을 수가 있지만 평소에 그것을 닦아두지 않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것이 이성심 씨가 장침을 만들고 권면하여 우애톱기를 기약한 까닭이었다.

나는 그 뜻을 아름답게 여기고 장침헌을 만들기 이전에 이 이치를 얻은 것에 근원하여 장침헌이 온전하고 또 오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것으로써 내 자손의 아들이 되고 형이 되고 아우가 되는 자들이 취하여 모범으로 삼기를 바란다.

長枕軒記 幷序

余嘗究天理人欲之不相容而可相因者 得其就人欲而循天理之術 竊以爲修仁義之行者必先導形氣之欲 形氣之欲 得其所養 而仁義之途 無所塞矣 是以舜之命官也 播穀先於敷教 蓋曰 民無阻飢而後 五品可得以遜矣 孔子之答問政也 足食先於民信 蓋曰 非不得已 則民無死而後 信可得以立矣 孟子之陳王政也 衣食先於庠序 蓋亦曰 民無飢寒而後 孝弟之義 可得以申之矣 聖賢之心 非以衣食爲重於五性也 爲其先養形氣 因以引乎性命之正 則人欲不能害天理 而仁義可以行矣 不達乎此 徒嘐嘐然曰 仁義公也 形欲私也 何必以衣食之私計 與論於天理公正之地乎云爾 則其辭非不善矣 而顧彼人欲之私 潛滋暗長於形氣之中 侵尋而久 至於以私滅公 而不自覺矣 此無他焉 不知夫導其形氣 而得其所養也 余友李逸堂聖心甫 與其二弟 搆一茅亭于所居之側 顔之曰長枕軒 以寓友愛之義 常自勗而幷勗其二弟 余甚韙之 深思所以全其長枕而久有之 乃以

所常究於天理人欲而得其說者 而爲之記曰 枕之爲物 甚小易具 然非用心用力 不可成也 長枕比小枕爲更有費 茅亭比長枕爲更多費 必其不以衣食撓其心 而後可得以具且搆焉 亦可得於仁義之性 而非修之有素 則鮮不失其所當行 此聖心甫之所以爲長枕 黽勉而期於友愛也 余則美其意 而原其爲枕之先而得是理 使其長枕 得以全且久焉 亦以示吾子孫之爲子爲兄爲弟者 取以爲法焉爾

독고문해(讀古文解)

문장은 말을 전달하여 지금에 시행하는 것이니, 무슨 옛 것을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옛 것을 본받지 않으면 방자하게 되니, 방자한 것이 할 수 없게 되면 도학(道學)이 숭상되게 된다.

시(詩)는 한·위(漢魏)를 스승으로 삼고, 서예(書藝)는 진(晉)을 스승으로 삼는다. 문장도 또한 마찬가지로 양한(兩漢)이 스승이 되는데 극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문(古文)은 한(漢)을 조(祖)로 삼고 당(唐)을 종(宗)으로 삼는다.[199] 시와 서예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와 같다.[200] 조(祖)라는 것은 옛날을 시조로 삼는다는 의미이고, 종(宗)이라는 것은 지금에 숭상된다는 것이다.

시는 한·위를 스승으로 삼지만 당(唐)으로 말미암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서예는 진(晉)을 스승으로 삼지만 역시 당(唐)으로 말미암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고문(古文)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양한(兩漢)에 성대하였지만 당(唐)에 이르러 더욱 성대하게 발휘되었기 때문이다.

당(唐)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문공(韓文公 : 韓愈)이다. 문공의 문장은 양한보다 성대하지는 못하지만, 고문(古文)을 모아서 그 중(中)을 얻은 것이니, 이것으

199) 양한(兩漢)은 서한(西漢)과 동한(東漢) 혹은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에 나오는 「독창려문(讀昌黎文)」을 보면, 연석(燕石)은 "육가(六賈)의 치안책(治安策)과 동중서(董仲舒)의 천인(天人) 관계에 대한 대책(對策), 사마상여(司馬相如)과 사마천(司馬遷)의 넓고 풍부함, 유향(劉向)과 유흠(劉歆) 부자(父子)의 발명과 분석, 양웅(揚雄)·반고(班固)의 의경(擬經)과 속사(續史)는 모두 양한 시기의 탁월한 것들이다"라고 평하고 있다. 당(唐)을 종(宗)으로 삼는다는 것은 한유(韓愈)의 고문(古文)을 두고 한 말이다. 한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독창려문」에 자세히 보인다.

200) 양한의 시는 악부(樂府)·고시(古詩) 등 정형화되지 않는 시가 유행하였지만 양한 시기의 문화와 맞물려 웅혼(雄渾)한 풍격이 보인다. 이후 당(唐)에 이르러서는 이백(李白)·두보(杜甫) 등 뛰어난 작가가 나와 성당(盛唐)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서예는 후한(後漢)의 장지(張芝)와 위(魏)의 종요(鍾繇)를 계승하여 진(晉)의 왕희지(王羲之)·왕헌지(王獻之) 부자가 활동하였고, 당나라에 이르러 안진경(安眞卿)·구양순(歐陽詢)·유공권(柳公權) 등이 활동하여 극성기를 맞았다.

로 보면 문공은 둘째가 된다.

문공 이후로 송(宋)과 명(明)에는 각각 두 사람이 있었고, 근대에도 두 사람이 있었다. 즉, 구양육일(歐陽六一 : 歐陽修)과 소동파(蘇東坡 : 蘇軾)는 송나라 때 대가(大家)이고, 당형천(唐荊川)[201]과 귀진천(歸震川)[202]은 명(明)에서 본보기가 된다. 그리고, 왕요봉(王堯峰)[203]과 방망계(方望溪)[204]는 근대에서 발군이다.

그들 이외에 문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고문의 뜻을 얻었기 때문에 칠현(七賢)의 문장을 읽고 각각 그것의 해(解)를 지어보았다. 이 해(解)는 나의 생각에 따른 것뿐이지, 남들이 반드시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고문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들이 사용한 언사(言辭)에 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기적으로 지금에 가장 가까운 당형천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한창려를 언급하였다.

원(元)나라의 우도원(虞道園)[205]과 명(明)나라의 송잠계(宋潛溪)[206]·왕준암(王遵巖)[207]도 또한 빼어난 자들인데, 기다렸다가 읽어보려 한다.

---

201) 중국 명나라 때의 문장가 당순지(唐順之)를 가리킴. 형천(荊川)은 그의 호이다. 그는 처음에는 진·한(秦漢)을 높여 이몽양(李夢陽)을 모방하였지만, 후에는 왕신중(王愼中)에게 경도되어 구양수(歐陽修)·증공(曾鞏) 등에게서 학습할 것을 제창하여, 왕신중과 함께 당송파(唐宋派)의 영수가 되었다. 그가 지은 산문은 간아(簡雅)하고 청심(淸深)하며 사건을 서술한 것이 근엄(謹嚴)하고 항상 구어(口語)를 겸하여 사용하였다. 저서에는 『형천선생문집』이 있다.

202) 중국 명나라 때의 문장가 귀유광(歸有光)을 가리킴. 진천(震川)은 그의 호이다. 그는 그의 전후로 활동한 사람들의 "문장은 반드시 진·한을 본받아야 한다"(文必秦漢)는 주장을 반대하였다. 그의 산문은 사마천·구양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간결하고 담박한 문체로 가인(家人)이나 붕우(朋友) 사이의 일상적인 일을 잘 표현하였다. 왕신중(王愼中)·당순지(唐順之)·모곤(茅坤) 등과 함께 당송파(唐宋派)를 불려진다. 저서로는 『진천선생집』이 있다.

203) 중국 청나라 초기의 문장가 왕안(汪琬)을 가리킴. 요봉은 그의 호이다. 그의 문장은 후방역(侯方域)·위희(魏禧)와 이름을 나란히 하였으며, 풍격(風格)은 당순지(唐順之)·귀유광(歸有光) 등과 매우 가까웠다. 저술로는 『둔옹유고(鈍翁類稿)』『요봉문초(堯峰文鈔)』 등이 있다.

204) 중국 청나라 때의 문장가로 동성파(桐城派)의 비조인 방포(方苞)를 가리킴. 망계는 그의 호이다. 학문을 논함에 있어 송유(宋儒)를 받들어 경(經)을 말한 것이 모두 정주학을 따랐다. 문장은 한유와 구양수를 배웠는데, 도를 천발하고 교화에 보탬이 되지 않은 것은 구차스럽게 짓지 아니하였다. 저서로는 『방망계선생문집』이 있다.

205) 중국 원나라 때의 시인 우집(虞集)을 말함. 도원은 그의 호이다. 저작으로는 『도원학고록(道園學古錄)』『도원유고(道園類稿)』 등이 있다.

206) 중국 명나라 초기의 문장가 송렴(宋濂)을 말함. 잠계(潛溪)는 그의 호이다. 산문은 당송(唐宋)을 본받아 자연스럽고 간결하며 변화에 뛰어났는데, 일찍이 유기(劉基)는 "당금의 문장에서 제일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저작으로는 『송학사문집(宋學士文集)』이 있다.

207) 중국 명나라 때의 문장가 왕신중(王愼中)을 말함. 준암은 그의 호이다. 처음에는 "문장은 반드시 진·한을 본받아야 된다"(文必秦漢)고 주장하였지만, 이후 구양수·증공(曾鞏) 등을 추숭하였다. 그의 산문 창작은 유창(流暢)하고 포만(飽滿)한 것으로 뛰어남을 삼았는데, 당송파(唐宋派)의 대표 인물의 하나로서, 당순지(唐順之)와 어깨를 겨룬다. 저서에는 『준암집』이 있다.

讀古文解

文達辭 以行乎今 奚古之云哉 不師古則恣 恣不可以爲 則道學尙矣 詩師漢魏 書師晉 惟文亦然 兩漢其師也 爲其極乎盛也 然古文祖漢而宗唐 雖詩書宜然 祖者 祖乎古也 宗者 宗于今也 詩師漢魏 而由唐以溯之 書師晉 而亦由唐以溯之 惟古文亦然 爲其盛於兩漢 而工于唐也 唐有一人焉 韓文公是已 非文公之文 盛於兩漢也 集古文而得其中 則文公其二也 由公以下 于宋于明 各得二人焉 于近代亦得二人焉 曰歐陽六一 曰蘇東坡 宋之大家也 曰唐荊川 曰歸震川 模楷乎明 而曰汪堯峰方望溪 拔出乎近代也 非外此而無文 爲其得古文之意焉 是以讀七賢之文 而各爲之解 解由己而已 非曰夫人而必吾從也 欲識古文之意 則辭達是先 首之以荊川 以終于昌黎 元之虞道園 明之宋潛溪王遵岩 亦其秀也 俟將讀之云

당형천(唐荊川)의 글을 읽고

언어를 문장으로 표현하여 훌륭하게 글이 되는 것, 이것이 고문(古文)이다. 그러나 문장으로 문장을 추구하는 것은 고문이라고 할 수 없다.

언어는 마음을 펴는 것이고, 문장은 말을 표현하는 것이니, 능히 펴고 능히 표현하여 유연(油然)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전아(典雅)하고 후중(厚重)하며 깊고 순수하게 된 것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형천은 문장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운용한 수단은 전아하고 장중하며 찬찬하고 촘촘한 생각을 가지고 넓게 통달하고 풍부한 언사로 표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펴면 멀고 가까운 것에 모두 도달하였고, 말아들이면 크고 세밀한 것이 모두 모이게 되었다. 거스르지 않고 문장의 기세를 타게 되면 훨훨 날아가고, 거슬러 반박해야 될 경우에는 시원하게 변론을 전개하였다.

하나가 충분하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시도함에 일찍이 쓸데없이 이러저리 흩어져 번잡하고 잡다하지 않았는데, 마치 잘 조련된 말을 타고서 위 아래로 굴곡이 심한 길을 달리는 것과 같았다.

네모진 것은 꺾어야 할 곳에 적중하였고, 둥근 것은 돌아야 할 곳에 적절하였다.

위로 치켜든 것은 날아오르는 것 같았고, 아래로 굽어 본 것은 종종걸음을 한 듯하였다. 한 번은 천천히 하면 한 번은 빠르게 하여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절도(節度)에 호응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정신이 한가하고 뜻이 풍부한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그가 타고난 자질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 언어에서 품어나오는 기운이 완만하고 성대하기 때문이었다.

세상의 문장으로 문장만을 추구하여 진무(榛蕪)[208]한데서 분주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오직 형천만이 벗어나서 그것에 미혹되지 않았으니, 문장 중에서 호걸이라고 할 만 하겠다.

그가 성취한 것을 말하자면 비록 구양수의 온아(溫雅)함과 소동파의 질탕(迭宕)[209]함만 같지 못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송(宋)으로부터 당(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형천의 문장이 실로 앞서서 열어준다 하겠다.

讀唐荊川文

以言爲文 而煥乎有章 斯之爲古文 以文爲文 則非古也 言者 心之宣也 章者 辭之揚也 能宣能揚 油然自我而出 而典重深醇者 其至矣乎 荊川之於文 知其如是也 其自運也 則以雅莊縝密之思 爲博達茂贍之辭 舒之而遠近俱到 卷之而巨細畢集 順而乘之翩然其往也 拂而迎之 沛乎其辨也 一之不足 再三之 而未嘗有冗散而繁碎焉 如駕熟調之馬 而騁於屈曲高下之路 方中折 圓中旋 仰如翥 俯如趨 一徐一疾 翕然應節 而人之望之 見其神閒而意足者 以其天質優裕 而辭氣緩㠯也 世之以文爲文 而奔走於榛蕪者 蓋已久矣 惟荊川脫然不爲所迷 其殆文中之豪傑乎 語其成就 雖不如歐陽之溫雅蘇氏之迭宕 而使人尋其正路 由宋而至於唐 則荊川實爲之開先也已

208) 잡목·잡초가 성하다는 뜻. 정도(正道)를 해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209) 소동파의 산문이 종횡(縱橫)으로 호탕(豪宕)하여 파란(波瀾)이 심함을 가리킨다. 그의 문장은 "행운유수(行雲流水)처럼 애초에 일정한 바탕이 없고, 다만 마땅히 행해야 할 곳에서는 행하고, 마땅히 그쳐야 할 곳에서 그쳤다. 문리가 자연스럽고, 자태가 종횡으로 생겨났다"(소식(蘇軾), 「답사민사서(答謝民師書)」)고 한다.

귀진천(歸震川)의 글을 읽고

방망계(方望溪)가 귀진천의 문장을 논하기를, "기운(氣韻)은 자장(子長 : 司馬遷)에서 얻었고, 구양수(歐陽修)와 증공(曾鞏)에게서 법을 취하였는데, 약간 그 형모(形貌)를 변경하였다"[210]라고 하였다. 이 말은 거의 그의 문장을 온전히 평가한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혹자는 부용(膚庸)한 것으로 지목하여 "견식(見識)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시문(時文)에 힘을 다한듯 하나 두 가지 모두를 정밀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비속한데 가깝고 번잡한데 손상된 것이 있다"[211]라고 하였는데, 대개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그의 문장을 읽고서 단정적으로 기골(氣骨)에는 넉넉하지만 재주가 모자라다고 여기었다. 오직 기골에 넉넉하기 때문에 성격이 자장(子張)에 가까우면서 그것을 훌륭하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재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구양수에게서 참고하여 그 문장을 구사하였다. 그렇다면 반드시 자장에게서 얻고서 구양수에게서 그 형모를 고쳤다고는 볼 수 는 없다.

무릇 기골이 뛰어나고 재주가 부족한 자는 간결한 문장을 지을 수 있는데, 진천의 마음이 어찌 번잡하게 하는 것을 바랐겠는가? 그것은 다만 문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깊이 변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항상 문장을 표현하는데 통창(通暢)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고, 스스로 구불구불 수식하여 포장하는 것을 면치 못했던 것이니, 이것이 그의 문장이 번잡하게 된 까닭이다.

그가 뜻을 얻은 것은 곧 간결한데 있는데 통창하지 못하였다. 만약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선다면 말은 결단이 있으면서 뜻은 풍부하여 우뚝히 사람의 정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천의 경절(警絶)한 문장[212]은 반드시 간결한데 있어야 하는데 부족하니, 대개 자장(子長)에게 가까운 것이 이것 때문이요, 구양수에 미치지 못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

210) 이 구절은 방포(方苞), 『망계집』 권3, 「서귀진천문집후(書歸震川文集後)」에 보인다.

211) 「서귀진천문집후(書歸震川文集後)」에 보면, "옛적 나의 친구인 오곤승(吳崑繩)은 진천의 문장을 지목하여 부용(膚庸)하다고 했다. …… 그의 문장은 아결(雅潔)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속한데 가깝고 번잡한데 손상된 것이 있으니, 아마도 시문(時文)에 이미 그 마음과 힘을 다한 까닭에 두 가지를 정밀할 수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212) 사람을 경동(警動)케 할 정도로 절륜(絶倫)의 문장이라는 뜻.

아아! 문장의 지극한 것이 간결한데 있으면 간결한 것에 있는 것이고, 번잡한 것에 있으면 번잡한 것에 있는 것이다. 어찌 번잡한 것은 고문(古文)이 아니고 간결한 것만이 고문이란 말인가? 비록 그렇지만 진천의 문장을 읽지 않으면 고문을 하는 것이 마침내 위미(委靡)[213]한데로 빠져서 떨쳐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讀震川文

方望溪論震川文 謂氣韻得之子長 而能取法於歐曾 少更其形貌 斯言也 庶幾盡之 而有以或人之目膚庸 謂其有見 又疑其竭力於時文 不能兩精 故仍有近俚而傷繁者 蓋不盡許也 余則讀其文 斷以爲優於氣骨 而短於才 惟其優於氣骨 故性近於子張而能好之 惟其短於才 故參之歐陽 以暢其辭 非必得於子長 而更其貌於歐陽也 凡氣骨勝而才不足者 能爲簡潔之文 震川之心 豈欲爲繁哉 而但文有不得不詳說而深辨之者 乃於是常患遺辭之未暢 自不免紆演而鋪張之 斯其所以爲繁也 其所得意者 卽於簡而未暢 奮力而振掉之 則辭斷而意足 竦然有令人神聳者 是以震川警絶之文 必在於簡而短 蓋近於子長 以此 不及歐陽 亦以此 嗚呼 文之至者 在簡而斯簡在 在繁而斯繁在 豈繁者非古 而簡者是古也邪 雖然 不讀震川之文 則爲古文者 終趨於委靡 而不振也已

왕요봉(汪堯峰)의 글을 읽고

문장은 말로써 이루는 것이고 말은 문체로써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체가 정해짐에 재주와 식견이 판가름난다.

무릇 식견에는 높고 낮은 것이 있는데, 식견이 높은 자는 그 말이 순일(醇一)하고, 식견이 낮은 자는 그 말이 잡박(雜駁)하다. 재주에는 민첩한 자와 둔감한 자가 있는데, 민첩한 자는 그 말이 성대하고, 둔감한 자는 그 말이 껄끄럽다. 이것이 대체적인 줄거리이다.

기운이 성한 자는 그 말이 굳세고, 힘이 강한 자는 그 말이 넉넉하다. 아취와 비속, 깨끗함과 탁함은 진한 것과 엷은 것 중에 어느 것을 잡느냐에 달려있다. 촘촘한

213) 힘이 없고 쇠약함.

것과 성긴 것은 열고 닫는 것을 얼마나 솜씨있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신축(伸縮)과 조응(照應)은 법(法)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말미암는다. 여기서 선택하여 그 중에 정밀한 것을 얻은 자가 정종(正宗)이 되고, 정밀하면서 주편(周徧)하지 아니함이 없는 자가 대가(大家)가 된다.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북송(北宋)은 성대한 시기였다. 그러나 그 아래로는 제가(諸家)의 문장이 각각 자기의 장점만을 갖고 있어 모두 부족한 것이 있게 되었다. 예컨대, 요봉(堯峰)의 문장은 굳세면서 방자하지 않고 강하면서 딱딱하지 않으며, 넉넉하면서 전아(典雅)하고 아취(雅趣)가 있으면서 온화하며, 간결하면서 농밀(濃密)하고 촘촘하면서 섬세한데 이르지 않았으며, 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일찍이 법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대개 선택을 하면서 그 중에 정밀한 것을 얻은 것이다.

골기(骨氣)는 진천(震川)만 같지 못하고 정취(情趣)는 형천(荊川)만 같지 못하지만, 풍범(風範)[214]은 넉넉히 옛날 대가의 유풍이 있으니, 이로부터 나아가면 또 한 명의 여릉(廬陵 : 歐陽修)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식견이 약간 높지 못하였고 재주가 약간 준수하지 못한 것뿐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요봉 때문에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讀堯峰文

文以辭成 辭以體備 體定而才識 斯可判矣 夫識有高下 高者 其辭醇 下者 其辭駁 才有敏鈍 敏者 其辭鬯 鈍者 其辭滯 此大略也 氣盛者 其辭健 力强者 其辭贍 雅俚潔濁 繫乎操濃薄 密麤繫乎工開闔 伸縮照應 由乎法 擇焉而得其精者 爲正宗 精矣而無不周徧者 爲大家 漢唐北宋 其蔚然矣 自其下 諸家之文 各有所長 而亦皆有所不足焉 若堯峰之文 健而不橫 强而不硬 贍而典 雅而和 潔而亦濃 密而不至於纖 不泥乎法而未嘗離於法 蓋擇焉而得其精者也 骨氣不如震川 情韻不如荊川 而風範優優乎有古大家之遺焉 由此而進 則又一廬陵矣 而所未至焉者 識稍未高 才稍未俊耳 余於是不能不爲堯峰失色

214) 풍채와 도량.

방망계(方望溪)의 글을 읽고

혹자가 묻기를 "당신은 왕요봉(汪堯峰)의 문장을 평하여 옛날 대가(大家)의 유풍이 있다고 하였는데, 방망계는 어떠한가?"라고 하기에, 나는 "식견이 뛰어났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그렇다면 아마 요봉보다 뛰어난 듯하다"라고 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뛰어난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바로 맏형과 둘째의 사이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것이다. 대개 망계의 식견은 경학(經學)에 근원하고 한창려(韓昌黎)에게서 참고하였는데, 그 언사가 순일하고 그 논의가 바르다. 바로 여기에 요봉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

그러므로 그가 지은 문장은 깊은 사고가 있고 성대한 규모가 있다. 피부(皮膚)를 화사하게 하지도 않았고, 윤택한 색상으로 덧칠하지도 않았다. 간결하고 엄격하면서도 삼가하고 정밀하였다. 떨어버릴 만한 앙금도 없었고, 지적할 만한 하자도 없었다. 참으로 본보기가 될 만한 문장가의 글이라 하겠다.

이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교해 보자. 재목을 쌓아놓고 공정을 헤아려 마땅히 먹줄을 써야 할 곳은 먹줄을 쓰고, 마땅히 자를 써야 할 곳은 자를 쓰고, 도끼질을 해야 할 곳은 도끼질을 하고, 톱을 대야 할 곳은 톱을 대어 잘라낸다. 도끼로 찍어내고 수준기로 평평하게 한다. 그리하여 들보와 서까래와 지도리와 문지방과 동자기둥과 두공과 벽장과 문설주 등등이 갖추어지 않음이 없다. 심장(心匠)[215]이 이미 운용됨에 위로는 용마루와 아래로는 집이 이루어지고, 마루와 집과 행랑과 담장이 훌륭하게 종결되었음을 고한다. 무릇 이와 같으면 누가 '아름다운 집이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터전을 보면 확연하지 못하니, 대개 거대한 집은 아직 지을 만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그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문장을 읽어보면 일찍이 그것의 정제(整齊)함을 기뻐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또한 일찍이 사람의 가슴을 넓고 시원하게 해주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음도 없었다.

그러나 고문(古文)을 배우고자 하는 자가 망계의 문을 들어가서 그의 마루와 방을 보지 않으면 또한 옛사람의 문에 들어가서 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어갈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니, 반드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

215) 구상(構想)과 같은 뜻.

讀望溪文

或問 子以堯峰之文 爲有古大家之遺焉 曰望溪 則何如 余曰 識勝之矣 曰 然則殆賢於堯峰歟 曰 以其所長 補其所短 正伯仲之間耳 蓋望溪之識 原之經學 參之昌黎 其辭醇 其論正 此其有優於堯峰也 是以其爲文也 淵乎其有思 森然其有規 不敷演其皮膚 不塗傅以色澤 簡嚴而謹密 無滓可祛 無瑕可指 信乎其法家之筆也 譬諸搆屋 委材量功 當繩而繩 當尺而尺 可斧者斧之 可鉅者鉅之 斤斲焉 準平焉 杗柄棬臬 樽櫨庪楔之類 靡不具焉 心匠旣運 上棟下宇 而堂室廂序 廊塾門墻 煥焉告訖 夫如是 孰不曰 美哉其屋乎哉 然而視其地 不廓如也 蓋巨廈則未焉 此其所短也 是以讀其文 未嘗不喜其整齊 而亦未嘗不恨其不能恢豁人胸次也 然而學古文者 不入乎望溪之門 見其堂室焉 則亦無以知入古人之門 升其堂而入其室也 必不可以不讀也

구양육일(歐陽六一)의 글을 읽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도술(道術)이 밝아지고 문장은 그 안에 있게 된다. 세상이 내려오면서 이설(異說)이 일어나고 도술이 천하에서 이리저리 갈라짐에 문장이 비로소 나뉘게 되었다. 예컨대 마계장(馬季長)[216]과 정강성(鄭康成)[217]의 경학(經學)은 문장이라고 일컬을 만한 것이 없고, 사마자장(司馬子長 : 司馬遷)과 반맹견(班孟堅 : 班固)이야말로 문채가 발산하였다고 하겠다.

송(宋)나라의 구양육일(歐陽六一 : 구양수)은 문장으로 천하에 이름이 났으며, 경학(經學)에 있어서도 찬란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통(兼通)인데, 그것은 겸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었다.

구양육일의 문장이 고금의 정종(正宗)이 된 것은 그가 경술(經術)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경술에 통달하여 그것을 문장에 크게 베풀었기 때문에 있지 않은 것이 없

216) 중국 후한 때의 경학가(經學家), 문학가인 마융(馬融)을 말함. 계장(季長)은 그의 자이다. 일찍이 시(詩)·서(書)·역(易) 등을 주석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명나라 사람들이 편집한 『마계장집(馬季長集)』이 있으며, 『후한서』에 전(傳)이 있다.

217) 중국 후한 때의 경학가인 정현(鄭玄)을 말함. 강성(康成)은 그의 자이다. 일찍이 마융(馬融)에게서 경학을 배웠다. 평생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모시전(毛詩箋)』과 『삼례주(三禮注)』의 영향이 가장 크며, 특히 『모시보(毛詩譜)』는 『시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의 하나이다.

어 이에 대가가 된 것이다.

공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의 문장은 한창려(韓昌黎)에게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문장을 읽어보면 크게 근사(近似)하지 않은 듯하다.

한창려가 말하기를, "뿌리가 튼튼한 것은 열매가 맺고, 땅이 기름진 것은 빛이 난다. 인의(仁義)한 사람은 말이 온화하다"[218]라고 하였다. 대개 구양공(歐陽公)은 여기에서 그의 문장의 참 뜻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창려의 문장이 전순(典醇)하다면 육일의 문장은 온아(溫雅)하며, 창려의 말씀이 혼혼(混混)하다면 육일의 말씀은 은은(閒閒)하다. 이것이 창려가 말한 이른바 '온화하다'는 것이다.

공이 창려에게 비슷한 것은 정신인데 세상에서는 모습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고, 공이 창려에게 얻은 것은 도술인데 세상에서는 문예로써 그것을 찾고 있으니, 어찌 구양자(歐陽子)의 문장을 알 수가 있겠는가?

온화하고 평이한 생각을 가지고 평상적인 도(道)에 그것을 운용하면 말이 통창(通暢)하게 되고 모습이 옹용(雍容)하게 되고 의리가 밝아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양자의 문장이다. 아아! 이것이 경술의 문장이다.

讀六一文

天下有道 道術明 而文在其中 世降而異說作 道術裂於天下 而文始貳矣 如馬季長鄭康成之經學 而文無稱焉 乃司馬子長班孟堅 則爛然矣 宋之歐陽六一 以文聞天下 于經學亦炳烺焉 世謂兼通 而非兼之也 卽一之也 六一之文 爲今古正宗者 以其有經術也 惟其通乎經術 而以之大肆於文章 故無所不有 斯其爲大家也 公嘗自言 其文得之昌黎 而讀其文 殊不近似焉 而昌黎之言曰 其根茂者 其實遂 其膏沃者 其光燁 仁義之人 其言藹如也 蓋歐陽公 於斯得之矣 是以昌黎之文典醇 六一之文溫雅 昌黎之辭混混然 六一之辭閒閒然 此所謂藹如之言也 公之所似於昌黎者其神 而世以其貌求之 公之所得於昌黎者道術 而世以文藝求之 惡足以知歐陽子之文也 以和易之思 運之於平常之道 而其言也通暢 其象也雍容 其義也光明 此歐陽子之文也 嗚呼 此經術之文也

218) 한유(韓愈)의 「답이우서(答李翊書)」에 보인다.

소동파(蘇東坡)의 글을 읽고

문장을 말하는데 소동파를 칭하는 것은 마치 활쏨씨를 말하는데 양유기(養由基)[219]를 칭하고 기교를 말하는데 공수반(公輸般)[220]을 칭하는 것과 같다. 그 재능을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 마치 눈밝음의 이루(離婁)[221]에 있어서와 귀밝음의 사광(師曠)[222]에 있어서와 같은 것이다.

북송의 문장은 구양수와 소동파가 세상에서 나란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사람들이 나아가 숭상하는 것은 소동파에게 통일되었다. 그러나 구양자(歐陽子)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오래지 않아 소동파에게 가리게 될 것임을 알았다. 소동파가 문장으로 천하고금을 경도시킨 것이 이와 같이 성대하였다.

옛날 맹자의 문장은 그 기운이 호연(浩然)[223]하여 천지의 사이에 가득하였다. 그러나 장자(莊子)의 말은 "붕(鵬)새의 등 넓이는 몇천 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 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드리운 구름과 같은데, 남쪽 바다로 날아간다. 파도를 일으키기를 삼천 리,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오르기를 구만 리였다"[224]라고 하였다. 무릇 붕새는 비록 크지만 천지에 비교하면 진실로 하나의 작은 물건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은 천지를 보고서 놀라는 자는 없지만 붕새에 대한 것을 들으면 모두 크게 놀란다.

천지는 일정한 것이고, 붕새는 일정한 것이 아니다. 일정한 것은 사람이 편하게 대하지만, 일정하지 않은 것은 머리를 에워싸고 눈을 찢고서 두 어깨를 문지르고 두 발을 구르고 입술과 혀가 닳도록 하여도 피곤할 줄을 모른다. 무릇 문장의 정(正)과 변(變)이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

소동파의 문장은 제가(諸家)에서 넓게 취하여 기이함과 바름이 모두 구비되어 표현되고 있으니, 반드시 장자(莊子)보다 순수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웅변

219) 중국 춘추시대 궁술(弓術)의 명인.
220)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의 교장(巧匠). 일찍이 초(楚)나라를 위하여 운제(雲梯)라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221) 중국 고대 황제(黃帝) 때 사람. 눈이 매우 밝았다고 한다.
222)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음악가. 소리를 들으면 잘 분별하여 그것으로 길흉(吉凶)을 점쳤다고 한다.
223) 마음이 넓고 큰 모양. 『맹자』「공손추(公孫丑)」에서는 "호연지기(浩然之氣)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한 도로써 길러 방해하는 것이 없으면 천지의 사이에 가득한다"라고 하였다.
224) 『장자』「소요유(逍遙遊)」에 보인다.

(雄辯)과 회기(恢奇), 호한(浩汗)과 분방(奔放), 괴위(瓌瑋)와 영롱(玲瓏), 변환(變幻)과 질탕(迭宕)은 마치 우레소리가 우르렁하다가 갑자기 번개 불이 번쩍이고,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다가 그치고, 무지개가 멀리 꽂혀있고, 바다가 물이 넘실거리고, 모든 붙이가 연하여 꿈틀거리는 것과 같다. 황홀하고 황홀하여 끝까지 캐물을 수가 없다. 요컨대 중행(中行)[225]에서 그의 문장을 구할 수가 없다.

오직 장자가 변화에 호응하여 사물을 해석한 것이 가까울 뿐이니, 소동파가 천하고금의 현명한 자, 어리석은 자 모두를 분주하게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찍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만약 장자가 머리를 굽히고 마음을 고쳐서 수사(洙泗)[226]의 무리에게서 강학을 하였다면 맹자와 더불어 성인의 경지를 나란히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소동파가 경술(經術)에 복응하여 여릉(廬陵 : 歐陽修)에게 나아가 바로잡았다면 재주가 실로 그에 앞섰을 것이니, 어찌 한창려에게 종(宗)의 자리를 양보하였겠는가?

讀東坡文

言文章而稱東坡 猶言射而稱養由基 言巧而稱公輸般 其得於天者 猶明之於離婁 而聰之於師曠也 北宋之文 歐蘇其幷世也 而至于今 天下之人之趣尙之 槩于蘇公焉 自歐陽子在時 已知其不久而爲所掩 夫東坡之以文傾天下古今 若是其靡然也 昔孟子之文章 其氣浩然 塞乎天地之間 而莊叟之言曰 鵬之背 不知其幾千里 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 徙于南溟也 水擊三千里 摶扶搖而上者九萬里 夫鵬雖大 比諸天地 固一物也 而人未有見天地而驚者 聞鵬則大驚焉 天地者 常也 鵬者 非常也 常者 人恬之 而非常者 則將遶首決眦 磨兩肩 頓兩足 弊脣舌 而不知倦 夫文章之正變 何異於是 東坡之文 博取諸家 奇正具出 非必純乎莊氏 而方其雄辯恢奇 浩汗奔放 瓌瑋玲瓏 變幻迭宕 如雷聲忽殷 電火閃繞 風雨驟止 虹霓遠揷 瀛海汪濊 百族蜿蜒 恍兮惚兮 莫之窮詰要之 不可求之中行 惟莊氏之應化解物爲近之 而其所以奔走古今天下之賢愚 正在於此矣 竊嘗謂 使莊子屈首改志 講於洙泗之徒 安知不與孟子齊聖 而東坡服膺經術 就正於廬陵 則才實過之 何渠讓宗於昌黎邪

225) 중용(中庸)의 행위,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행위. 여기서는 이러한 중용이 발휘된 문장을 가리킨다.
226)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공자가 이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도를 가르쳤으므로, 전하여 공자의 문하의 뜻으로 쓰인다.

한창려(韓昌黎)의 글을 읽고

맹자의 문장은 인의(仁義)에 말미암은 것으로 경(經)의 반열에 올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문(古文)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가생(賈生 : 賈誼)의 치안책(治安策)과 동자(董子 : 董仲舒)의 천인(天人) 관계에 대한 대책(對策), 두 사마씨(司馬氏)[227]와 같은 넓고 풍부함, 유가(劉家)의 부자(父子)[228]와 같은 발명과 분석, 양씨(揚氏 : 揚雄)·반씨(班氏 : 班固)와 같은 의경(擬經)과 속사(續史)는 모두 양한(兩漢) 시기의 탁월한 것들이다.

그러나 탁월한 것으로 치면 어느 것이 한창려가 고문(古文)의 종(宗)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있겠는가? 아아! 창려일 뿐이니, 창려가 아니라면 누가 종이 되겠는가?

저 양한(兩漢)의 문장은 진실로 고문이지만 사람들은 하나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두루 다 할 수는 없었다. 혹자는 잡박하여 순일하지 못하고, 혹자는 막혀 통하지 못하고, 혹자는 말을 구사한 것이 만연하고, 혹자는 경(經)에 위배되어 방종하고, 혹자는 넓은 것만을 추구하여 산만하고, 혹자는 기이한 것을 좋아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고, 혹자는 방정하고 촘촘하지만 넓고 크지 못하다. 이러한 것은 모두 넓으면서 순수한데에 나아갈 수 없다.

오직 한창려만이 제자(諸子)를 모아 그 뛰어난 것을 취하여 짐작한 것이 옛날이나 지금에나 모두 적합하였다. 반듯하고 기운 것을 분별하여 육경(六經)에서 근원하고 도술(道術)로써 그것을 가지런하게 했다. 문을 높이 세우고 담을 넓게 하여 그 가운데에 당실(堂室)을 위엄있게 세우고 오른쪽 왼쪽의 부고(府庫)에는 온갖 물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계단과 뜰에서 위의(威儀)를 떨치고서 노복(奴僕)에게 명하여 지시하여 부렸다. 이에 집안 사람의 위아래가 강직하고 화락하여 손님이 오거든 양계(兩階)[229]의 자리와 방호(房戶)의 사이에서 읍양(揖讓)과 수작(酬酌)의 예(禮)를 표하였다.

아아! 이것이 이른바 고문의 대가인 것이요, 그것을 수립한 것은 창려부터 시작하

227) 사마상여(司馬相如)와 사마천(司馬遷)을 가리킨다.

228) 유향(劉向)과 유흠(劉歆) 부자를 말한다. 유향의 저술로는 『열녀전(列女傳)』『신서(新序)』『설원(說苑)』 등이 있는데, 선진(先秦)의 허다한 역사고사와 민간전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들이다. 유흠은 서한 고문경학(古文經學)의 가장 적극적인 제창자로서 특히 『춘추좌씨전』 연구에 성취가 가장 컸다.

229) 동계(東階)와 서계(西階)를 말함. 손님과 주인이 당에 오를 때 손님은 서계로 주인은 동계로 오르면서 서로 읍하고 양보하여 차례로 오르는 예를 표한다.

였다. 그리고, 이후의 사람들은 그의 대문과 뜰을 엿보고서 능히 역력히 집안의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혹자는 "이것이 종지(宗指)이다"라고 하고, 혹자는 "이것이 파란(波瀾)이다"라고 하고, 혹자는 "이것이 조응(照應)이고, 이것이 관쇄(關鎖)이다"라고 한다. 또 "머리이고 끝이다"라고 하는 자도 있고, "체간(體幹)이며 근골(筋骨)이다"라고 하는 자도 있고, "기력(氣力)이고 혈기(血脈)이다"라고 하는 자도 있다.

각자 자신의 명목을 세워 그 지름길을 구하는 자들이 앞뒤로 서로 바라본 것이 지금까지 천백 년이 지났는데 모두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무릇 이와 같은데 대종(大宗)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그 집의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식견이 최상이 되고, 기력이 다음이 되고, 재주가 또 그 다음이 된다. 풍부하여도 과시하지 말 것이며, 민첩하여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질박하지만 투박하지 않아야 하고, 화려하지만 들뜨게 되어서는 안 된다. 속이는 것으로써 기이함을 삼지 않아야 되고, 기교로써 변론을 삼지 않아야 된다.

조악하고 거친 것으로써 웅장한 것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섬세하게 새기는 것으로써 정밀함을 삼지 않아야 된다. 자주 변화를 일으켜도 요술을 부리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되고, 때때로 희롱을 하여도 조롱하고 속임수를 부리는 것까지 이르러서는 안 된다.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종용(從容)하게 표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순일하면서 바른 것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니, 이것이 그 기준이다.

이것을 지나간 것은 말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또한 다시 어떤 사람이 이것을 벗어나서 별도로 창작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다.

讀昌黎文

孟子之文章 由乎仁義 而班乎經 固不應稱以古文 若賈生之策治安 董子之對天人 博富如兩司馬 發明剖判如劉家父子 擬經續史如揚班二氏 皆兩漢之卓 卓者 何昌黎之爲宗乎古文乎 嗚呼 其昌黎哉 非昌黎 而誰宗也 彼兩漢之文 誠古矣 而人有一長 非周徧也 或雜而不醇 或泥而不通 或騁辭曼延 或違經縱恣 或務博而散 或好奇而僻 或整密而未恢廓 均之 不能造乎宏而粹也 惟昌黎 集諸子 而取其英 酌宜乎古今 分別乎正

傍 原之於六經 齊之以道術 高其門 闊其墻 儼堂室於其中 左右府庫 充牣百物 陳威儀於階庭 命奴僕而指使 於是家人上下 侃侃焉 怡怡焉 而賓至 則揖讓酬酌於兩階之次房戶之間 嗚呼 此乃所謂古文大家 而建之自昌黎始 後之人窺其門庭 而有能歷言之曰 此宗指也 曰 此波瀾也 曰 此照應也 此關鎖也 又有曰 首也尾也 體幹也筋骨也 精也神也 氣力血脈也 各立各目 求其蹊徑者 前後相望 歷千百年于玆 而不能出其範圍 夫然則可不曰大宗矣乎 然則何以而得達其堂奧也 曰 識爲上 力次之 才又次之 富而勿誇 敏而勿衒 質而無樸 華而不浮 不以詭爲奇 不以巧爲辯 不以粗厲爲雄壯 不以纖刻爲精密 屢變而不至於幻 有時乎戲之 而不至於詼譎 因其自然 發以從容 而始終不越於醇而正 斯其準矣 過此以往 非言之所能喩 而又未知復有何人 離乎是而別創之也

지석기(智石記)

돌을 무엇 때문에 지혜와 관련시켜 말하는가? 지혜는 움직이는 것이고 돌은 고요한 것이며, 지혜는 통하는 것이고 돌은 막혀 있는 것이며, 지혜는 민첩한 것이고 돌은 둔한 것이다.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데, 무리로 묶어서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만물을 만들 때 반드시 두 가지 짝이 있게 하는데, 두 가지 짝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움직임과 고요함, 통함과 막힘, 민첩함과 둔함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고요함이 아니면 무엇으로써 움직임을 보겠으며, 막힘이 아니면 무엇으로써 통함을 보겠으며, 둔함이 아니면 무엇으로써 민첩함을 보겠는가? 저 서로 반대되는 것에서 볼 수가 있다면 저 서로 필요로 하는 것에서 서로 연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움직임은 고요함에 연유하고 통함은 막힘에 연유하고 민첩함은 둔함에 연유한다. 그렇다면 고요함은 움직임을 낳고 막힘은 통함을 낳고 둔함은 민첩함을 낳았다고 하여도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

나에게는 망년우(忘年友) 삼오(三五) 이지석(李智石)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삼오는 옛날에 부모를 봉양할 때 가난하였기 때문에 문학을 깊이 있게 전공하

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찍이 겨를이 있을 적마다 묵묵히 궁구하여 서한(書翰)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넉넉하였다.

삼오는 형제간에 우애하였지만 형제도 또한 가난하였다. 때문에 삼오는 재산을 불리는 것을 도모하여 쌓아 저축하는 것을 오래도록 하였는데 그것에도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만두었다. 그리고, 지난 행적을 그만두고 뜻을 고쳐서 날마다 『논어』 십여 행씩을 읽어갔는데, 일년을 마침에 대의(大義)를 통달하였다.

내 이러한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말하기를, "이것이 지석(智石)이 된 까닭인가 보다"라고 하였다.

지난번에는 생업을 꾸리는데 움직이다가 지금에는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는데 움직이고, 지난번에는 시변(時變)을 관찰하는 것에 통하였다가 지금에는 이훈(彝訓)[230]을 일삼는 것에 통하고, 지난번에는 서한(書翰)을 궁구하는데 민첩하였다가 지금에는 문학을 전공하는데 민첩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서로 연유해서 생겨난 것인 듯하다.

내 이에 한 마디 말을 없을 수 없기에, 『논어』의 '문(文)'에 관한 언급으로써 다음과 같이 고하여 주었다. 『논어』에 이르기를 "공자는 네 가지 것으로써 가르쳤으니, 문(文)과 행(行)과 충(忠)과 신(信)이었다"[231]고 하였다. 문은 행의 발로이고, 행은 문의 시행이며, 충신은 문과 행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성인(聖人)은 학문에 있어서 문(文)을 귀중하게 여기었다. 공자는 "문왕(文王)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문(文)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232]라고 하였다. 참으로 문이 귀중하다 하겠다.

비록 그렇지만 군자는 허문(虛文)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는 "문(文)이 질(質)을 앞서면 겉치레만 잘하는 것이다"[233]라고 하였다.

지금 삼오는 바야흐로 행(行)에 힘써 오직 충신(忠信)만을 급선무로 여기고 문(文)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는 거기에 겨를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문도 또한 행이니, 어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는가?

내가 살펴보기에 아름다운 돌은 반드시 문채가 있는데 그 문채는 본래 자연스러움에서 나온 것이지 강제로 엄습하여 취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에 대한 것도

230)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하는 떳떳한 교훈. 곧 오륜(五倫)을 가리킨다.
231) 『논어』「술이(述而)」에 보인다.
232) 『논어』「자한(子罕)」에 보인다.
233) 『논어』「옹야(雍也)」에 보인다.

마찬가지이니, 일삼은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행할 뿐이다. 만약 그것을 강제로 행한다면 천착한 것이 된다.

나는 삼오에게 강요해서 문(文)에 천착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그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문과 행으로 하여금 서로 연유하여 생겨나는 것이 마치 지혜와 돌의 관계처럼 하고자 한 것뿐이다.

智石記

石奚以云乎智 智動而石靜 智通而石塞 智敏而石鈍 二者常相反焉 可倫而擬之哉 天之生物 必兩焉 兩者相待也 動之于靜 通之于塞 敏之于鈍 非相待者邪 非靜 何以見動 非塞 何以見通 非鈍 何以見敏 于彼相反 得以見焉 則于彼相待 得以相因 斯可知矣 動因乎靜 通因乎塞 敏因乎鈍 於是而曰 靜生動 塞生通 鈍生敏 何不可之有哉 余有忘年友李三五智石 其人也 三五昔者 養親而貧 以故不甚攻文學 然嘗於其暇 默究之 蓋於書翰 則綽綽然也 三五友于兄弟 而兄弟亦貧 以故三五謀殖貨 至積貯久之 知其有命也 卽已之 乃謝跡改志 日覽論語十數行 竟年而通大義焉 余異之曰 玆其所以爲智石歟 向也動於治生業 今也動於求放心 向也通於觀時變 今也通於服彝訓 向也敏於究書翰 今也敏於攻文學 其殆相因而生者歟 余於是不得無一言 乃告以論語之文曰 子以四敎 文行忠信 文者 行之發 行者 文之施 忠信者 以之而爲文行者也 聖人之於學 貴乎文 子曰 文王旣沒 文不在玆乎 允矣哉 文之重也 雖然 君子不貴虛文焉 故曰 文勝質則史 今三五 方施諸行 惟忠信之是急 其於文 必曰 我不暇焉 而文亦行也 何可二焉 吾觀石之美者 必有文 其文固發於自然 非强襲之也 人之於智 亦然 行其所無事而已 强爲之則鑿矣 吾非强三五 以鑿乎文 要亦順其自然 使文與行 相因而生 如智之於石云

지석기(止石記)

나는 지석기(智石記)를 지었는데 이윽고 자세히 들어보니 지석(智石)이 아니라 지석(止石)이었다. 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와 지석은 아는 것이 모두 몇 년인데 그

래 오인한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문장을 고치려고 하였는데, 얼마 안되어 다시 웃으면서 자조하기를,

"무릇 사람이 그 집에 기문(記文)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장에 솜씨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화려하게 수식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 말이 항상 실제적인 것보다 넘치게 된다.

만약 이 기문에서 사람들이 내가 오인(誤認)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지석(止石)이 나에게 부탁하여 꾸며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문장에 솜씨가 있는 사람이 못된다. 비록 솜씨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말을 넘치게 해서 아름답게 꾸며주고 싶지도 않다.

지난 번 내가 정연하게 쓴 문장은 지석(止石)의 지(止)를 지(智)로 쓴 것이 다만 오인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주거니와, 지석의 실사(實事)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비록 이 기문으로써 그의 집에 대한 기문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내 또 생각해보니, 석(石)은 땅 위의 물건이다. 물의 형상에서 보면 산(山)이 된다. 그러므로 『주역』에 이르기를, "간(艮)은 산(山)이 되고 석(石)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간(艮)은 그침(止)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석(石)이 이미 간(艮)에 속한 것이라면 지(止)도 또한 간(艮)에 속하니, 이것은 간(艮)이 거듭한 것이다. 간괘(艮卦)의 대상(大象)[234]에 이르기를, "산이 거듭함이 간(艮)이니, 군자는 그것을 보고서 생각함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석(止石)의 집에 적절한 기문을 써줄 수 있을 것이다.

지위라는 것은 현재 처하여 있는 자리이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처해 있을 곳을 얻은 것이다. 선비가 선비의 일을 하고, 농부가 농부의 일을 하고, 상인이 상인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지석은 선비인데 일찍이 농사도 지었고 또 일찍이 장사도 하여 그가 처할 곳을 잃어버렸었다. 그런데 지석은 또 자신의 실수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고쳐 성인(聖人)의 말씀에 종사하였다. 이것은 대개 앞으로 마땅히 처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었다.

---

234) 『주역』의 괘(卦)와 효(爻)에는 각각 상전(象傳)이 있는데, 괘에 붙는 것을 '대상'이라고 하고, 효에 붙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대상은 괘 전체가 갖는 형상적 이미지를 설명한 것이고, 효에 대한 상은 육효(六爻) 중에서 해당 효가 갖는 형상적 이미지를 설명한 것이다.

옛날 번지(樊遲)는 농사를 배웠고,[235] 자공(子貢)은 화식(貨殖)을 하였지만,[236] 두 사람이 성문(聖門)의 무리가 된 데에는 방해되지 않았다. 하물며, 지석이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한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에 있음에랴! 이와 같은데, 어떻게 지석의 병이 될 것인가?

가령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이미 그것들을 사절하였는데 또 무엇이 지석에게 손상될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잃어버린 마음을 구하고 이훈(彝訓)에 종사하며 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간괘의 단사(彖辭)[237]에 이르기를, "그칠 곳에 그침은 그 제자리에 그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석이 이제 선비가 그쳐야 할 곳에 그치고 있으니, 만약 지석이 이로부터 다시 문학을 하는 데 종사한다면 겸산(兼山)[238]의 뜻을 얻게 될 것이다.

간괘의 육오(六五)[239]에 이르기를, "그 보(輔)에 그친다. 말이 질서가 있으니, 후회가 없으리라"라고 하였다. 보(輔)는 윗 턱이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움직이고 말을 그치면 멈춘다. 말에 질서가 있고 움직이고 그치는 것이 각각 그 제자리를 얻는 것으로는 문학보다 엄한 것이 없다.

무릇 선비가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은 문학이 아닌가? 말해야 할 것을 망령되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학이다. 움직이는 것이 헛되게 움직이지 않고 그쳐야 할 곳에 그치니, 마땅히 후회가 없다. 그렇다면 지석(止石)의 지(止)와 지(智)가 어찌 많은 차이가 있겠는가? 지석은 힘써야 할 것이다.

止石記

余爲智石記 旣而審聞之 曰止石也 余歎曰 吾與止石 知凡幾年矣 乃誤認邪 方欲更其文 尋復笑曰 凡人之記其室者 必屬于工文之人以侈之 故其辭常溢於其實焉 若玆記者

235) 번지가 농사를 배운 것과 관련된 기사는 『논어』「자로(子路)」에 보인다. 번지가 농사일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는 "나는 늙은 농부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고, 채전을 가꾸는 것을 배우기를 청하자, "나는 늙은 원예사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236) 자공이 화식(貨殖)에 종사한 것에 관한 기사는 『논어』「선진(先進)」에 보이는데, 공자는 "자공은 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화를 늘렸으나 억측하면 자주 맞았다"라고 하였다.

237) 『주역』의 한 괘의 뜻을 총론하여 길흉을 판단한 말. 문왕(文王)이 지었다고 한다.

238) 산이 중첩되어 있다는 뜻. 간(艮)은 산(山)을 상징하는데, 간괘는 두 개의 산이 거듭 중첩되어 있으므로 '겸산'이라고 한 것이다.

239) 여섯 효 중에서 다섯 째 효를 가리키는 말. 육(六)은 음(陰)을 구(九)는 양(陽)을 상징한다.

人見余之誤認 卽知止石之非屬余以侈之也 且余非工文者 雖工 誠不欲溢辭而美之也 向余之鑿鑿 證其智者特出乎誤 而止石之實事 則無一辭之誤焉 雖以此記 記其室 庸何傷乎 雖然 吾且思之 石 地上物也 於物象爲山 故易傳曰 艮爲山爲石 又曰 艮止也 夫石旣屬乎艮 止亦屬乎艮 此重艮也 艮之大象曰 兼山艮 君子以 思不出其位 觀乎此 可以記止石之室也 位者 所處之地也 不出者 得其所處也 士而爲士之事 農而爲農之事 商而爲商之事 是之謂不出其位也 今止石士也 而嘗爲農 又嘗爲商 失其所處矣 惟止石知其失 故改之以從事乎聖人之語 蓋將以還乎當處之地也 昔樊遲學稼 子貢貨殖 二子不害爲聖門之徒 況止石之爲農爲商 出於孝友之不得已 惡足爲止石病 借曰不然 旣已謝之矣 又何損乎止石 而乃今也 求放心焉 服彝訓焉 工文學焉 艮之彖辭曰 艮其止 止其所也 止石於是乎止於士之所止也 使止石從玆而又從事乎爲文乎 則兼山之義 得矣 艮之六五曰 艮其輔 言有序 悔亡 輔上頷也 人有言則動 已則止 言之有序 而動止各得其所者 莫嚴於文 夫士之所當言 非文也耶 不妄言所言者 文也 動不虛動 止於所止 宜其無悔也 然則止石與智 豈甚異哉 止石勉乎哉

종죽기(種竹記)

물건 중에 드물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 귀한 것은 항상 소유하기가 어렵다. 항상 소유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물리도록 보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컨대, 황금과 백벽(白璧)은 드물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날마다 쓰는 것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쌀과 보리와 삼과 비단은 항상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하루라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황금과 백벽에 대해서는 매우 귀중하게 여기지만, 쌀과 보리와 삼과 비단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미혹되었다 하겠다.

내가 거처하는 방 앞에 빈 땅이 있는데 넓이가 서너 걸음쯤 되었다. 그곳을 가꾸는데 처음에는 파초를 심었고 계속해서 또 국화를 심어 보았다. 그러나 파초는 성질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하고, 국화는 황색과 백색이 운집한 것이 가장 아름답지만 그것도 추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파초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것이 파초에 비교하여 더욱 정성을 드려야

한다.

나도 또한 그렇게 따라 해 보았지만, 파초는 이 년에 두 번 다 얼어버렸고, 국화도 또한 말라 점차 시들어져 버렸다. 겨우 남아 있는 것은 또 사람들이 따 가지고 가버렸다. 아아! 귀한 것이 항상 있기 어려운 것이 진실로 이와 같은가 보다.

그리하여 나는 어린 대나무 몇 뿌리를 취하여 울타리를 따라서 심어두었는데, 몇 개월이 못되어 울연(蔚然)이 푸른 기를 띠었고, 그다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덮는 것이 장차 무성하게 되리니, 그 풍운(風韻)[240]이 은연중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있었다.

이윽고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이한 꽃과 특이한 풀의 귀한 것은 거의 황금, 백벽과 더불어 나란한데 그 소유하고 있기가 어려운 것은 황금과 백벽을 넘어선다. 황금과 백벽은 그런대로 사람의 자용(貲用)[241]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지만, 저 기이한 꽃과 특이한 풀은 이것도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황금과 백벽을 이기고 있으니, 어찌 미혹된 것이 심하지 않다고 하겠는가?

대나무는 곳곳마다 있어서 쌀과 보리와 삼과 비단과 다름이 없으니, 바로 이른바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쓰임새는 비록 반드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있어서 왕왕 쌀과 보리와 삼과 비단이 미치지 못한 것이 있다.

또 쌀과 보리와 삼과 비단은 2년 마다 심어서 거두어야 하지만, 대나무는 한 번 심으면 또 유구한 것을 기약할 수 있으니, 장수(長壽)라고 말할 수 있다. 성질은 또 추위를 잘 견디어 서리와 눈이 그것을 덮어도 그 푸른색을 바꾸지 않으니 정고(貞固)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있게 하면 말끔히 비루하고 인색한 생각이 없어지도록 만드니 청결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연화(煙火)와 진애(塵埃) 가운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쇄락(灑落)[242]하여 오염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달통(達通)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릇 이 네 가지 것은 여타 물건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 귀한 것이 어찌 드물게 있는 것에 그치겠는가?

무릇 여타 물건에 없는 것이 드물게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 항

240) 풍도(風度)와 운치. 바람이 부는 소리를 일컫기도 한다.
241) 소요되는 물품.
242) 깨끗하여 속기(俗氣)가 없는 모양.

상 있기가 어렵다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또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날로 쓰는데 미치지 못한 것에 보탬이 있으니 위에서 말한 물리도록 보아서 귀함을 알지 못한다는 탄식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대나무가 이미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저 파초와 국화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내 이런 까닭으로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저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種竹記

物之希有者 人貴之 貴者 難以恒有 恒有者 則人又恬視之 不以爲貴 如黃金白璧 其希有者也 而無所須於人之日用 米麥麻綿 則恒有者也 而人之所須用 必不可一日闕也 然而人於黃金白璧 則甚貴之 於米麥麻綿 乃不知其眞可貴焉 惑矣 余所居室前 有隙地 寬數步長 倍之始種蕉 繼又種菊 而蕉性不耐寒 故護之殊密 菊以黃白雲集爲勝品 而其怕寒如蕉 人之護之 視蕉尤加焉 余亦從而效之 而蕉則再歲而再凍 菊亦憔悴漸萎 其僅存者 又爲人取去 噫 貴者之難以恒有 固若是歟 余於是取竹之稚者 循籬而植之 不數月而蔚然葱青 不甚護之 而蓋將成林 其風韻隱然有可貴者矣 旣而歎曰 奇花異草之貴 幾與黃金白璧齊 而其難有也過之 金璧猶有須於人之貲用 彼奇花異草無是矣 而人之貴之 若勝於金璧焉 豈非惑之甚邪 竹在在有之 與米麥麻綿無異 卽亦所謂恒有者也 其爲用 雖非必不可闕者 而於人所須 或有米麥麻綿之所不及焉 且米麥麻綿 貳歲種之 而竹則一種之 期其悠久 可謂壽矣 性復凌寒 霜雪加之 而不改其色 可謂貞矣 使人見之 脩然無鄙吝之念 可謂淸矣 雖在煙火塵埃之中 而灑落有不染者存 可謂達矣 凡此四者 物之所未有也 其貴也 豈止於希有也哉 夫其所未有 不止於所希有 而無向之難以恒有之患 人之所須 有補於日用之所不及 而無向之恬視不知貴之歎 此則竹已矣 非彼蕉與菊之所得以彷佛也 余是以貴此而不貴彼

백파(白坡) 서실기(書室記)

나는 백파와 의기(意氣)가 서로 맞아 마음에 감개(感慨)한 것이 있으면 매 번 볼 때마다 후유 탄식하며 간담(肝膽)을 비춰볼 자로 우리 둘 만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최근에 나는 병으로 집에 있으면서 고반(考槃)[243]의 장소에 한 번도 찾아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여 붓을 잡고 일문(一文)을 지어 그의 서실(書室)에 기문을 지어줄까 생각하다가, 문득 백파와 더불어 오십여 년을 사귀면서 일찍이 그가 왜 백파라고 불렀는 지를 물어보지 않은 것에 웃음이 나왔다. 비록 그렇지만 백파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니, 어찌 반드시 묻고 나서야 그 뜻을 얻겠는가?

무릇 백(白)은 '희다'는 뜻이다. 바탕에 문채를 펴지 않은 것을 '희다'라고 말한다. 『예기』에 이르기를 "흰 것이 문채를 받는다"[244]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흰 바탕이 있고서야 비로소 그 문채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백파는 성격이 소박하고 정직하여 남을 따라서 몸가짐을 꾸밀 줄을 몰랐다. 『주역』에 이르기를 "꾸밈을 희게 함이니, 허물이 없다"[245]라고 하였는데, 질소(質素)한 것을 숭상하면 꾸미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본래의 참 모습을 잃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백파의 의미는 아마도 이러한 뜻에서 취한 듯하다.

그런데 『논어』이 이르기를 "질(質)이 문(文)보다 나으면 촌스럽다"[246]고 하였으니, 질박한 바탕에 문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무릇 흰 것도 색상인데, 오색은 흰 것이 없으면 갖추어지지 못한다. 백파는 어찌 깨끗하고 깨끗한 몸으로 더럽고 더러운 물건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지 말고, 순화(純和)한데서 지극히 청결한 것을 머금고서 자연스러운 문채를 발산하는 것이 마치 구슬이 감추어져 있으면 하천이 아름답게 되고 옥이 깃들어 있으면 산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한다면, 호호(皓皓)한 것이 비록 진애(塵埃)를 뒤집어쓴다고 해도 어떻게 본질에 손상이 있겠는가?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백파는 어려서부터 문장을 공부하여 머리가 희도록 멈추지 않았으니, 대개 이미 고인의 서책을 익숙히 읽었을 것이다. 고인의 서책은 질소(質素)한 것으로 그 문채를 드러낸 것이 없으니, 문(文)과 질(質)이 잘 어울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운(揚子雲 : 揚雄)은 휨을 숭상하여 『태현(太玄)』을 지음에 군자들은 그를 훌륭하게 평가하였다. 백파가 비록 늙었지만 힘써 이에 종사한다면

243) 은거하여 산수(山水)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것을 말한다.
244) 『예기』「예기(禮器)」에 보인다. "군자는 인의(仁義)의 도를 살피고자 하는데, 예(禮)가 그 근본이 된다. 공자는 '단 것은 조화를 받고, 흰 것은 문채를 받는다. 충신스러운 사람이라야 예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245) 『주역』 분괘(賁卦), 상구(上九)의 효사(爻辭)에 보인다.
246) 『논어』「옹야(雍也)」에 보인다.

아직 늦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묵묵히 흰 것만을 고수하여 그것에 오색을 갖추지 않는다면 옛날의 이른바 "흰 비단에 채색을 가하였다"[247]는 것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요, 옛날 서로 감개했던 것을 앞으로 특별히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알뜰히 그를 위하여 기문(記文)을 짓는 이유이다.

白坡書室記

余於白坡 意氣相與 蓋有所感慨于中 每相見 唏噓歎息 以爲照映肝膽 莫吾兩人若也 近余病居 未能一訪于考槃之所 而道所欲言 迺思援筆爲一文 以記其室 輒自笑與白坡周旋五十餘年 未嘗叩其所以號白坡者 雖然 白坡之心 猶余之心也 何必叩之 而後得其意哉 夫白 素也 凡質之不施文者 謂之素 記曰 白受采 言有此素質 乃得以施其文采也 白坡性朴直 不能隨人爲修飾態 易曰 白賁無咎 言其尙質素 則無待乎賁飾 而不失本眞也 白坡殆有取於斯義也 而語曰 質勝文則野 質之不可無文 審矣 夫白 亦色也 五色 非白不備 白坡其毋曰 安能以身之察察 受物之汶汶乎 而含至潔於純和 發自然之文采 如珠藏而川媚 玉蘊而山輝 則皓皓之白 雖蒙塵埃 顧何損乎本質乎 抑又思之 白坡自少攻文字 至白首不休 蓋已熟讀古人之書矣 古人之書 其質素也 而未有以宣其文采 則不可曰文質彬彬矣 揚子雲尙白而草太玄 君子多之 白坡雖老矣 勉爲之 尙未晩也 若默默守其白 不以之備諸五色 則古所謂素以爲絢者 不得復覩 而夫昔之所相感慨者 將無以別白於來玆 此余所以眷眷而爲之記云

변혹(辨惑)

어떤 이유로 바른 것을 법고(法古)라고 하는가? 옛날에는 둥지에서 거처하였는데, 내 장차 나무를 엮어서 살아볼까? 옛날에는 피를 마시고 털 짐승을 먹었는데 내 장차 짐승을 사냥이나 해볼까? 옛날에는 나무 껍질과 풀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는데,

247) 이 시는 『시경』에 수록되지 않은 일시(逸詩)인데, 『논어』 「팔일(八佾)」에 보인다. 자하(子夏)가 묻기를, "'예쁜 웃음에 보조개가 예쁘며,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선명도 하네. 흰 비단으로 채색을 하도다.' 하였는데,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라고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비단을 마련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 장차 나무를 찍어서 껍질을 벗기고 풀을 뜯어서 깁어볼까?

어떤 이유로 기이한 것을 창신(創新)이라고 하는가? 하늘과 땅은 본래 그대로이니, 내 장차 구름과 놀을 밟고 바다와 산악을 머리에 이어볼까? 형체는 본래 그대로이니, 내 장차 귀로 보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밟고 발로 잡아볼까?

어떤 이유로 참된 것을 자아(自我)라고 하는가? 주(朱)[248]의 혼란함과 상(象)[249]의 오만함과 도척(盜蹠)[250]의 거칠고 사나운 것은 본성에서 나온 것인데, 이러한 본성이 나의 참 모습인가? 사광(師曠)[251]이 앞을 못보고 극극(卻克)[252]이 절름거리는 것과 지리무신(支離無脤)[253]과 옹앙대영(甕盎大癭)[254]은 형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니, 이러한 형체는 나의 참 모습인가?

저 창신(創新)이다 자아(自我)이다 하는 것은 비록 두 가지이지만 실은 하나이다. 내일 새로운 것을 보면 지금 새로운 것은 옛날의 것이 아닌가? 다음 세상에 나를 보면 지금의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닌가?

둥지는 그런대로 거처할 수가 있고, 털과 피는 마실 수가 있고, 나무 껍질과 풀잎사귀는 옷으로 입을 수가 있지만, 천지와 형체는 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혼란함과 오만함과 사나움과 보지 못함과 절름거림과 입술이 없음과 큰 혹이 달린 것은 내 그것이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새는 발이 둘이고, 짐승은 발이 넷이고, 불은 타오르고 물은 젖어들며, 바람은 공중에서 불고 비는 땅으로 내리며, 머리에는 관이 있고 발에는 신발이 있으며, 저고리는 위에 있고 치마는 아래에 있으며, 남자는 정자를 주고 여자는 잉태를 하며, 임금과 아버지는 앉아있고 신하와 자식은 무릎을 꿇고서 절을 하며, 겨울날에도 햇빛이 비추고 여름날에도 햇빛이 비추며, 들판의 사람도 달을 바라보고 산 사람도 달

248) 요(堯) 임금의 아들. 일찍이 요 임금은 그의 아들이 효송(囂訟 : 시끄럽고 말다툼하는 것)하다고 하여 제위(帝位)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순(舜) 임금에게 물려주었다.

249) 순(舜) 임금의 이복아우. 일찍이 고수(瞽叟)와 함께 순 임금을 죽이고 그의 처를 취하려다가 실패하였는데, 이후 순 임금에 덕망에 감화를 받았다.

250) 중국 고대의 큰 도적 이름. 9천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하였다 한다.

251)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음악가. 소리를 들으면 잘 분별하여 그것으로 길흉(吉凶)을 점쳤다고 한다.

252)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대부. 일찍이 제(齊)나라에 조회(朝會)를 갔는데, 제왕의 부인이 그가 절름발이임을 비웃었다. 후에 극극은 제나라 군대를 대파하였다.

253) 불완전하고 추한 모습을 가공적으로 꾸며 말한 것. 지리(支離)는 꼽추, 무신(無脤 : 無脣)은 입술이 없는 언청이를 말한다.

254) 항아리 같은 큰 혹이 있는 사나이라는 뜻. 가공적인 인물이다. 옹앙(甕盎)은 항아리와 같은 큰 혹을 형용한 것이고, 대영(大癭)은 큰 혹이라는 뜻이다.

을 바라본다.

이러한 것은 옛 것인가, 새로운 것인가? 자아인가? 미혹된 것인가, 미혹되지 않은 것인가? 변론할 수 있는가, 변론할 수 없는가? 내 반드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으며, 또한 반드시 자아가 아니다고 말하지 않겠다.

내가 홀로 괴이하게 여기는 것은 옛 것을 일삼지 않으면서 오직 새로운 것과 오직 자아만을 추구하지만, 새로울수록 기이하지 못하고 나만을 추구할 수록 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 괴이한 것은 바르면 스스로 참 모습을 띠면서 기이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괴로워 이것을 하지 않으며 무엇이 즐거워 오직 저것을 하려 하는가?

책의 시조는 「요전(堯典)」인데 "옛날에 상고해 본다"[255]고 하였고, 사람의 성인은 공자(孔子)인데 "옛 것을 좋아하여 민첩히 그것을 구한다"[256]라고 하였다. 아아! 바른 것을 추구할 뿐이다.

辨 惑

何由而正曰法古 古也巢居 吾將搆木乎 古也飮血茹毛 吾將獵獸乎 古也衣樹皮草葉 吾將斲而剝採而葺乎 何由而奇曰創新 天地故矣 吾將躡雲霞而戴海嶽乎 形體故矣 吾將耳視而目聽 手蹈而足握乎 何由而眞曰自我 朱之闇 象之傲 盜蹠之暴戾 出乎性 性其我之眞乎 師曠瞽 卻克跛 支離無脤 甕盎大癭 生乎形 形其我之眞乎 彼創新也 自我也 雖二乎而一也 明日而視新 新非古乎 來世而視我 我非古乎 巢猶可居 毛血可茹 樹皮草葉可衣 天地也形體也 吾知其不能易也 闇傲暴戾瞽跛無脤大癭 吾知其不當有也 鳥兩足 獸四蹄 火燃而水浸 風行空 雨降陸 首有冠 足有履 衣在上 裳在下 男子施精 女子包胎 君父坐而臣子跪拜 冬日曝 夏日亦曝 野人望月 山人亦望月 古乎新乎 而自我乎 惑乎不惑乎 可辨乎不可辨乎 吾不曰必不新 亦不曰必不我 吾獨怪夫不于古而惟新惟我 愈新而不奇 愈我而不眞 又益怪夫正則自眞而無不奇 何苦而不爲此 何樂而惟彼之爲 書之祖 堯典也 曰曰若稽古 人之聖 孔子也 曰好古敏而求之 嗚呼 正而已矣

255) 『서경』「요전(堯典)」 첫구에 보인다.
256) 『논어』「술이(述而)」에 보인다.

燕石山房文藁

八

篔亭記/246

小川齋記/248

友竹堂記/250

學而時習之不亦悅乎說/252

亦將有以利吾國乎辨疑/254

在明明德說/256

天命之謂性說/258

曰若稽古帝堯說/261

關關雎鳩 在河之洲說/265

乾元亨利貞說/269

春王正月解/271

〔附〕歷代先儒正朔時月異同說/296

德玉齋記/305

博約齋記/308

送李君希瑞歸南原序/310

月稧序/312

여 백

燕石山房文藁 八

운정기(篔亭記)

남방의 선비로서 고문(古文)을 지을 수 있는 자는 운정(篔亭) 최국명(崔國明) 보(甫)[1] 그 한 사람이다. 운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고문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시문(時文)[2]을 공부해서 세상에 쓰이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공교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 시험 봐도 그때마다 시험 담당관에게 내쳐졌고, 마침내 다시는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거리낌없이 말하며 글을 지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문장을 시문(時文) 같지 않다고 보고 고문(古文)이라 지목하니, 저는 실로 두렵습니다. 시문을 지었는데 공교롭지 못하다고 저지당하지 않은 것은 저의 옛날 한때의 망령된 요행이었습니다. 고문에 능하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그것을 짓는다면 식자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감히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애석해 하며, "운정의 겸손함은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문장에는 시·고(時古)가 없고, 금(今)에도 부합하지 않는데, 금(今)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그 문장이 고(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때문에 당신의 문장이 반드시 고(古)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시문으로 시험 담당관의 인정을 얻는 것은 시속에서의 영광일 따름입니다. 고문에 잠심(潛心)해서 지언(知言)의 군자를 기다린다면 장차 후세에 불후(不朽)하게 될 것입니다. 고문을 시문에다 견준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겠습니까?

문장의 고(古)는 진실로 쉬운 게 아닙니다. 양한(兩漢) 이래로 2천년 동안 우뚝하니 세상에 조종이 된 사람은 겨우 몇 분뿐입니다. 그대 문장의 공교로움이 진실로 이 몇 분보다 뛰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대의 공교롭지 못함이 대번에 이 몇 분 이

---

1) 남자의 미칭(美稱).
2) 주로 과거문(科擧文)을 가리킴.

외의 사람들보다 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는 어째서 그렇게 쓰셨습니까? 사람이 천성에서 얻은 것을 도리어 스스로 알지 못함은 어째서입니까? 자기에게서 나왔으므로 오래 애쓰지 않아도 얻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얻어졌기 때문에 아직 (고문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운정의 글은 천성에서 나왔는데, 그대는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 수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저는 고문을 하려고 오래 애써왔지만 천성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다른 사람 문장의 고(古)·불고(不古)를 알 수는 있습니다. 더욱 힘써 노력해 보신다면 제 말이 그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였다.

운정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말을 기문(記文)으로 써써 그의 거처에 게시하고 그 뜻을 풀어주었는데, 그가 운정이라 자호(自號)한 것은 흘러흘러 세월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어서라고 한다.

篔亭記

南方之士 能爲古文者 崔篔亭國明甫其一也 篔亭之言 曰 不然 吾豈能爲古文哉 吾少也 功時文 干于世 以不工故 屢試而屢見黜于有司 遂不復就焉 顧時時有放言而爲文者 人見其不似時文 目之以古文 吾實懼焉 爲時文而不以不工沮者 吾昔者妄徼倖一時也 不能古文而强爲之 奈識者笑何 自今吾不敢復爲也 余聞而惜之 曰 篔亭之謙 信美矣 其畫則余不知其可也 子之於文 無時與古 不合于今 不合于今 以其古也 余以是知其必合于古也 彼以是文得於有司 榮于俗耳 留古文以待知言之君子 將不朽於後世也 以此方彼 何舍何取 文之古 誠未易也 自兩漢來二千年 卓然宗于世 僅數子也 謂子工固不能邁于數子 謂子未工 必不遽出於餘子下 子何書焉 凡人之得於性者 顧不自知何者 出于己 不積苦而得之 是以疑其未至焉 夫篔亭之文 其出于性也 子不能自知而惟余爲能知之 何者 余則積苦于是 而不足乎性 故未至焉 尙能知夫人之文之古不古也 子毋疑焉 益肆力焉則知余言之爲知子也 旣以告于篔亭 記此言 以揚其所居 而解其意 而其自號以篔亭 盖有感於冉冉歲晩云

소천재기(小川齋記)

나는 일찍이 왕소천(王小川 : 師瓚)의 시(詩)에 서(序)를 써주며 그 시가 깊고 순정하고 전아하고 두텁다고 칭찬했고, 소천에 대해 대략이나마 알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소천도 언젠가, 내가 시를 논할 줄 안다고 말하였고, 여러 번 시에 그런 뜻을 나타냈으니, 내가 자신을 알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 가만이 보니, 예나 이제나 시를 논할 때에는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를 맨 먼저 꼽는다. 이백과 두보가 시에 있어서 지닌 성정(性情)은 다르지만 시의 대가가 됨은 똑같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만날 때면 반드시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했지만, 두보의 시어(詩語)에 두보가 이백을 추앙하고 인정하며 그리워 하는 정이 넘쳐나는 것은 진실로 그만 둘 수 없는 게 있었다.

그러나 이백은 두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했을 뿐, 별로 경도된 뜻이 없었다. 천재(天才)의 뛰어남으로 입만 열면 주옥같은 시가 되었지만, 애써 그리워하고 힘써 배우며 간절히 고인(古人)에 의지해 위체(僞體)를 끊어내는 두보를 대하는 것은 너무 가볍지 않았던가?

어찌 이백과 두보만이 그러하겠는가? 백향산(白香山 : 樂天)이 한창려(韓昌黎 : 愈)와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백향산이 창려에게 준 두 시를 창려의 문집에서 살펴보니, 역시 백향산도 창려를 심상하게 대하고 있었다. 아마 백향산은 창려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몰랐던 것이다. 서로 알기 어려운 것이 옛날에도 오히려 이와 같았거늘 하물며 후세에 있어서랴! 그러니 지금 문장으로 위세 당당하게 한 지방을 내려다 보는 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소천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또한 무에 이상한 일이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천하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스럽지 않을 만하다"고 하였다. 저 소천이란 사람에 대해, 나는 그를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열복(悅服)하고 있다. 그러나 소천은 혹 별로 쓸쓸하지 않더라도 나의 초췌하고 곤비함은 또 하나의 소천이니, 소천으로 소천을 칭찬하면서 어찌 소천을 중히 여길 수 있단 말인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정취(情趣)를 달리 한다고 해서 쉬이 여기지 않으며, 상대가 자기보다 나은 것을 즐겨서 그를 끌어 올리려 하는 것은 저 두 현인도 지니지

못한 점이니 어찌 유쾌하지 않겠는가!

마침내 이 글을 써서 소천의 서재(書齋)에 주었더니, 소천은 당시 이 글을 한 번 낭독해 보고는 거의 여한이 없는 듯이 하였다. 소천이란 사람은 천사선생(川沙先生)의 아들로서, 가정에서 학업을 전수받았다 한다.

小川齋記

余嘗序小川詩 稱其深醇典厚 自以爲略知小川 而小川亦嘗謂余能言施 屢形諸吟詠 則已知余之足以知己也 窃觀古今論詩 首推李杜 李杜之於詩 所性不同 而其爲大家一也 幷世相見 必相深知 而杜之推許思念情溢於辭 固有不能已焉 李則寥寥數語 泛然無傾倒意 夫以天才飄逸 咳唾珠玉 而見其苦思力學 窃窃焉攀古人而裁僞體 無乃其輕之歟 何獨李杜爲然 白香山 與韓昌黎同時 考其集所酬二詩 亦待以尋常 盖未悉昌黎爲何如人也 相知之難 古猶如此 況後世乎 今之以文章雄視一方者 往往有之 而槩不道小川 又何足怪也 昔人云 使天下有一人知己者 足以不恨 夫小川 余不惟知之 卽心悅而服焉 小川或不太落莫矣 而乃余之憔悴困頓 亦一小川也 以小川而稱小川 何能重小川邪 雖然能不以異趣而輒易之 樂其勝己而欲援而上之 則彼二賢之所未有也 豈不快哉 遂書此以遺之小川之齋 而小川時一朗讀焉 庶乎其無恨矣 小川者 川沙先生之子也 其學受之家庭云

죽우당기(友竹堂記)

나는 언젠가 고인(古人)들이 초목을 벗삼는다는 것에 대해 들었는데, 그것은 초목이 사람과 더불어 벗이 될 만하다는 말은 아니다. 초목을 취해 자신의 뜻을 기탁한 것이니, 소나무를 벗삼은 사람도 있고, 지초(芝草)를 벗삼은 사람도 있으며, 꽃을 벗삼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유독 대나무를 벗삼았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는데, 바로 옥산(玉山) 신죽우(申友竹)에게서 그것을 보았다.

저 소나무와 지초, 꽃을 벗삼는 자들은 진실로 각기 그것들을 취해서 기탁하는 이유를 지니고 있지만, 우도(友道)에 부합하기로는 오직 대나무만이 확실하다. 『시경』에 이르지 않았던가? "저 기수(淇水) 벼랑을 보니 푸른 대나무 야들야들하도다.

문채나는 군자여, 잘라놓은 듯 다듬어 놓은 듯 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하도다"라고.[3]

그리고 『대학』 전문(傳文)에 "'여절여차(如切如磋)'라는 것은 학문을 말하고 '여탁여마(如琢如磨)'는 자수(自修)를 말한 것이다"하였으니, 학문으로 자수(自修)해서 절차탁마하기로는 벗보다 더 나은 게 없다. 공자께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즐겁지 않은가?"[4]라고 하셨으니, 배우고 익힘에 벗이 도움을 주어서 기쁘고 즐거움에 이른다면 절차탁마가 우도(友道)에 부합하는 것은 이미 진실하지 않은가?

우죽(友竹)이 일찍이 내게 글을 구해서 그 당(堂)에 편액하려고 하였는데, 나는 그의 생각이 과연 나와 같은지에 대해서는 미처 물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죽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니, 부지런히 노력해서 배움에 나가도록 했다. 자식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기 몸의 법도를 길러야 하고, 그 자식에게 그와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죽'이 비록 자호(自號)지만, 실은 두 아들이 아버지 우죽에게 배울 때[5] 아들들에게 게시해 주며 "배움을 자수(自脩)함은 벗이 아니면 얻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본다면 '우죽(友竹)'의 의미는 두 아들에게 있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다.

옛날에 매완릉(梅宛陵)[6]이 「노인천시(老人泉詩)」를 지어 노소씨(老蘇氏)[7]에게 주고 노소씨의 두 아들을 칭찬하였다. 후세에 노소(老蘇)를 일컬어 노천(老泉)이라 한 것은 여기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노인천(老人泉)에서 취한 것은, 뜻이 노소(老蘇)에게 있지 않고 그의 두 아들에게 있었다.

---

3) 『시경』 위풍(衛風), 「기욱(淇澳)」에 보인다.
4) 『논어』 「학이(學而)」에 보인다.
5) 추정('趨庭)' 또는 '과정(過庭)'은 자식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논어』 「계씨(季氏)」에 "일찍이 홀로 서 계실 때에 이(鯉)가 빨리 걸어 뜰을 지나는데, "시(詩)를 배웠느냐?"하고 물으시기에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다" 하시므로 내가 물러가 시를 배웠노라"(孔子嘗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6) 중국 북송 때의 시인 매요신(梅堯臣 : 1002~1060)을 가리킴. 자는 성유(聖兪). 선성(宣城)의 옛 이름이 완릉(宛陵)이라 '완릉선생'으로 일컬어진다. 구양수(歐陽修)와 시우(詩友)가 되었다. 저서에 『완릉집』 40권, 『당재기(唐載記)』 『모시소전(毛詩小傳)』 등이 있다.
7) 중국 북송 때의 문장가 소순(蘇洵 : 1009~1066)을 가리킴. 매주(眉州) 미산인(眉山人)이다. 자는 명윤(明允), 호는 노천(老泉). 노소(老蘇)로도 일컬어지는데, 그의 아들 소식(蘇軾)·소철(蘇轍)이 각각 대소(大蘇), 소소(小蘇)로 불리는 것과 병칭해서 삼소(三蘇)라고도 한다. 저서에 『문집』 20권과 『시법(諡法)』 3권 등이 있다.

우죽이 진실로 두 아들로 하여금 학문을 성취케 하려 했으니, 비록 대번에 소씨(蘇氏)의 아들들에게 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기탁한 뜻은 완릉(宛陵)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노소(老蘇)라는 말은 후인에게서 호칭되었지만 우죽은 바로 자칭(自稱)이었다. 그러나 두 아들을 권면해서 학문에 뜻하게 한 방법에 있어서는 노소(老蘇)와 비교해 딱 맞아떨어진다. 그러므로 이 편액은 아마 여기에서 취함이 있었을 것이다. 우죽이 빙그레 웃으며, "저를 위해 이 말을 기문(記文)으로 써서 제 두 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였다.

友竹堂記

余嘗聞古人以草木爲友者 非謂草木之可與人友也 盖取以寄托焉 有以松爲友者 有以芝爲友者 亦有以花爲友者 而獨未聞以竹爲友 乃於玉山申友竹 見之矣 彼友松友芝友花者之所以取寄者 固各有之 而其合於友道 則惟竹之爲確焉 詩不云乎 瞻彼淇澳 綠竹猗猗 有斐君子 如切如磋 如琢如磨 傳曰 如切如磋者 道學也 如琢如磨者 自修也 夫自修以學而切磋琢磨 莫尙於友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夫友之有盖於學習而至於悅且樂焉 則切磋琢磨之合於友道 不旣允乎 友竹 嘗求書于余 以扁其堂 余未及問其意之果與余同 而觀友竹方敎誨其子 孜孜向學 凡敎誨其子者 必先慤于躬式 令其子似之矣 今友竹 雖自號乎 其實於二子趨庭之際 揚而示之 曰學之自修 非友不得云爾 則牛竹之意 在於二子而不在其也 昔梅宛陵 作老人泉詩 貽老蘇氏 稱美其二子 後世號老蘇爲老泉 由於此 然其取乎老人泉者 意不在老蘇而在其二子也 友竹 誠能令二子成就其學 則縱不得遽比蘇氏子 而余之所以寄意 與宛陵無以異也 老蘇之號稱 自後人 而友竹 乃自稱焉 然其於勉二子向學之道 則視老蘇爲親切矣 玆扁也 其殆有取於斯歟 友竹 逌然笑曰 請爲我記是言 將以示吾二子云

학이시습지불역열호설(學而時習之不亦悅乎說)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하나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입에 있어서의 음식과 몸에 있어서의 의복, 눈에 있어서의 채색(采色), 귀에 있어서의 성음(聲

音), 감정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느낌 등이니, 이것은 천하 사람들이 똑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學習)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만은 君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사람에게 있어 배움이란, 듣는 일에 귀를 수고롭게 하고, 보는 것에 눈을 수고롭게 하며, 독송(讀誦)하는 데 입을 수고롭게 하고, 기억하고 인식하는 일에 정력(精力)을 수고롭게 하며, 깨닫는 일에 신기(神氣)를 수고롭게 하는 것이다. 수고로우면 괴롭고, 괴로우면 싫증난다. 싫증은 미숙한 데서 생기고 숙달은 익힘의 효과이며, 싫증이란 기쁨의 반대이다. 배우고도 효험을 보지 못한다면 어찌 싫증나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군자는 배움에 대해서 반드시 시습(時習)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시습'이란 때마다 익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오래도록 익혀서 몸이 그 익힘에 따라 변화되는 것은 숙달되기 때문이다. 숙달되면 의리(義理)가 두루 미치고 정신이 충만해져서, 사물이 다가옴에 순히 맞이하고, 일이 이름에 천천히 응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마치 음식과 의복, 채색(采色)과 성음(聲音), 남녀간의 느낌과 같게 되니 어찌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음식이나 의복, 채색, 성음, 남녀간의 느낌 등이 주는 기쁨은 배우지 않아도 그것이 기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학습의 기쁨만은 반드시 배운 뒤에야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문제자(門弟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먼저 '학이시습(學而時習)'[8]이란 말을 들어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기뻐한다는 것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다. 오직 '시습'의 기뻐할 만함은 사람마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몇 가지(음식, 성음 등)가 주는 기쁨에 비하건대 이 역시 기뻐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기뻐할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느슨하지만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간절하다. 아아! 성인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이처럼 간절하시다. 저 음식·의복·채색·성음·남녀간의 느낌이 진실로 기쁨이기는 기쁨이지만 기쁨에 그칠 뿐이고, 오직 '시습'의 효험만은 더욱 '벗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즐기'는 지경에 이른다. 즐거움은 기쁨의 심화이므로 그것도 기쁨임은 말할 거리가 못된다. 기쁨이 깊어져 즐거움에 이르면 절로 성냄이 없어지니, 이것을 군자(君子)라고 한 것이다. 연속해서 '불역호(不亦乎)'라는 말을 쓴 것은 윗 문장을 이었을 뿐이다.

---

8) 『논어』「학이(學而)」에 나온다.

學而時習之不亦悅乎說

人之所悅 非一 而其大者 飮食之於口 衣服之於體 采色之於目 聲音之於耳 男女相感之於情 天下之人之無不同然 而惟學習之 亦悅乎人 則非君子 難以知之矣 學之於人耳勞於聽 目勞於視 口勞於讀誦 精力勞於記認 神氣勞於領會 勞則苦 苦則厭 厭生於未熟 熟者習之效也 厭者悅之反也 夫學而不見其效 惡得以不厭也 是以君子之於學必以時習爲先 時習者 無時而不習也 習之久而身與之化者 以其熟也 熟則義理浹洽精神充滿 物來而順迎 事至而舒應 其得於己也 如飮食衣服采色聲音男女之相感 焉可不謂之悅乎 然而彼之可悅 不敎而人無不知之 惟此之可悅 必敎之而後 人知之 故夫子與門弟子語也 將先擧學而時習以示之 而衆人之所悅 衆人固悅之 無容言矣 惟時習之爲可悅 非人人所能知也 而比彼數者 此亦足悅矣 曰亦足悅矣 則其辭緩 曰不亦悅乎 則其辭切 嗚呼 聖人之敎人也 若是其切矣 彼飮食衣服采色聲音男女之感 悅固悅矣 而止於悅而已矣 惟時習之效 復至於有朋自遠方來而樂矣 樂者 悅之深也 悅又不足言也 悅之深而至於樂 則自無慍焉 斯之謂君子也 其連之曰不亦乎者 盖承上文云耳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9]라는 대목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분별함

무력을 숭상하고 나라를 겸병(兼幷)하는 전국시대를 당해서 맹자(孟子)는 당시 임금에게 인의(仁義)를 행하라고 권했다. 인(仁)에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있고, 의(義)에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있는데,[10] 저 무력을 숭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병기를 들이대고, 겸병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병기를 들이대는 것은 측은지심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은 수오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병기를 들이대는 자와 억지로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자가 부유해져서 이른바 인의(仁義)의 효험을 보기 싫어 한다. 이것이 바로 양혜왕(梁惠王)이 의심한 것이어서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라는 질

9)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나온다.
10)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보인다.

문을 한 까닭이다. 부강함이 나라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진실로 절로 아는 일인데 유독 저 인의(仁義)도 나라를 이롭게 하는지는 모른단 말인가? 아니다.

일단 혜왕(惠王)의 의심을 가지고 자세히 분별해 보겠다. 이른 바 인의라는 것은 한창 싸우는 중에 시행되는 도구가 아니고, 싸우기 전에 나아가 인의로써 싸움을 갖게 한다면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게 할 도구이다. 어째서 그렇게 말하는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인의가 아니고서는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이 없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나라를 편안히 하는 방법이다. 임금이 인의의 정치를 백성에게 시행하면 백성은 그 임금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백성도 사랑받은 것을 임금에게 돌리게 된다. 백성이 진실로 사랑받은 것을 임금에게 돌리면 임금은 이에 더할 수 없이 부유해지고, 국가는 이에 더할 수 없이 강성해진다. 부유함은 재물이 풍족한 것이고, 강성함은 군대가 정예로운 것이다. 군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재물에서 나오지 않는 게 없으므로, 재물이 풍족하면 군대는 반드시 정예롭게 된다.

재물을 풍족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백성에게 저장하는 것이 이것이고, 백성에게 저장하는 데에 방법이 있으니 인의의 정치가 이것이다. 임금이 진실로 백성에게 재물을 저장하면 가까운 계책은 부족할지언정 원대한 계책은 넉넉하다. 어째서인가? 백성의 마음은 재물을 내놓는 데 있어서, 임금이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취한다면 비록 일전(一錢)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불쾌해 하고, 아랫사람으로서 즐거이 할 일이라면 비록 십백(十百)처럼 많을지라도 내놓기를 아까와하지 않는다.

인의지국(仁義之國)이 장차 유사시(有事時)에 임금이 자기의 뜻을 백성에게 보이면 백성이 즐거이 임금을 위해 다 내놓고, 또 백성들이 내주는 것이, 임금이 스스로 백성에게 취하는 것보다 두세 배 정도가 아닐 만큼 많다. 그러니 부유하다 이르지 않겠는가? 재물이 풍족하고 군대가 정예로우며, 게다가 즐거이 임금을 위해 싸우기까지 한다면 강성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인의의 효험이고 또한 장차 나라를 이롭게 할 술책이다.

그런데도 맹자가 혜왕에게 이렇게 고하지 않은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선왕(先王)의 정치는 도로써 하였지 술책으로 하지 않는다. 도로 하는 정치는 효험이 더디지만 그 시행은 구원(久遠)하다. 인의로 말미암아 시행되기 때문이다. 술책으로 하는 정치는 효험은 신속하지만 그 시행은 구원하지 못하다. 인의를 빌려 시행되기 때문이다.

맹자가 행하고자 한 것은 선왕의 도(道)이지, 어찌 기꺼이 술책으로 하려 했겠는

가?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필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亦將有以利吾國乎辨疑

方戰國尙力兼竝之世 孟子勸時君以行仁義 仁者有測隱之心 義者有羞惡之心 而彼尙力者 加人以兵 兼竝者 奪人之地 加人以兵 是其無測隱之心者也 奪人之地 是其無羞惡之心者也 然而能加人以兵者 强能奪人之地者富 惡覩所謂仁義之效也 此梁惠王之所疑而有亦將有以利吾國乎之問也 盖富强之利國 固所自知 而獨未知夫仁義之亦利國乎 否也 試就惠王之疑而祥辨之 所謂仁義者 非施于方戰之具也 卽其未戰而有以得其戰 則必克之具也 何以言之 人君之治國也 非仁義 無以安民 安民所以安國也 君以仁義之政 施之於民 則民知其君之愛民 而民亦以所愛者 反之於君 民苟以所愛者 反之於君 則君於是而富莫尙矣 國於是而强莫尙矣 富者 財足者也 强者 兵精者也 兵之所須 無非出於財 故財足則兵必精矣 足財有道 藏於民 是也 藏於民有道 仁義之政 是也 人君誠能藏財於民 則近計不足而遠計有餘 何者 民情之於出財也 上所强取 則雖一錢之少 必怫焉 下所樂爲 則雖十百之多 不惜焉 仁義之國 將有事也 君以其意示之於民 則民莫不樂爲之輸矣 與君之自取於民 其多不啻倍蓰矣 可不謂之富乎 財足精兵而又樂爲之戰 則可不謂之强乎 此仁義之效而亦將利國之術也 然而孟子不以此告于惠王 抑何故焉 先王之政 以道 不以術 以道者 效遲而其施也久遠 由仁義而行也 以術者 效速而其施也不久遠 假仁義而行也 夫孟子之所欲行者 先王之道 豈肯以術哉 故曰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명덕(明德)을 밝힘에 있다[11]는 설

명명(明明)의 명(明)은 사람의 밝음이고, 명덕(明德)의 명(明)은 하늘의 밝음이다. 하늘의 밝음을 아는 자는 사람의 밝음을 다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늘의 밝음이라 말하는 것인가. 하늘이란 자연을 말하고, 밝음

11) 『대학』 경문(經文) 제1장에 보인다.

이란 어둡지 않음을 일컫는다. 사시가 번갈아 변해감에 따라 만물이 생성되고 일리(一理)가 순환함에 따라 건운(健運)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자연'이 아니겠는가? 화육(化育)이 유행(流行)해서 우주에 충만하고, 미미한 것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고상하고 명랑하고 밝으니 '어둡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또 무엇을 사람의 밝음이라 말하는가?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고유한 성(性)을 지니고 있고, 사람은 하늘을 따르기 때문에 당연한 도(道)를 지니고 있다. 성(性)에서 명(命)을 받아 사덕(四德)[12]이 순수함은 연마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실로 나에게 구비되어 있다. 그러니 '고유한 것'이 아니겠는가? 형(形)으로 인해 정(情)이 생겨나서 물(物)과 접하는데, 느낌에 있어서 망령됨이 없고 한결같이 도(道)를 따른다. 그러니 '당연함'이 아니겠는가?

'명명(明明)'이 몸에 있으니 백성이 함께 새로워지고, 천선(天善)에 자리해서 지극함에 그치면, 큰 강상(綱常)이 이에 들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떠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도(道)일 것이다. 격물(格物)이라 했는가? 이 『대학』의 도로써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 것이다. 치지(致知)라 했는가? 이 『대학』의 도로써 지식을 지극히 한 것이다. 이것으로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루며, 이것으로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한다. 또 성의(誠意)·정심(正心)·수신(修身)·제가(齊家)하니, 나라는 그것으로 다스려지고 평천하(平天下)가 된다. 정실(精實)을 함양하고, 가까운 것을 독실히 하여 먼 데 이르니, 아아, 지극하구나!

자사(子思)가 이른바 명성도교(命性道敎)[13]와 맹자가 이른 바 심성신명(心性身命)은 천명(天明)에 근원하여 인명(人明)으로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하늘이 사람에게 밝음을 주어서 명(命)이라는 이름이 있고, 사람이 하늘에서 밝음을 받아서 성(性)이라는 이름이 있다. 명(明)을 따라서 사람과 하늘이 합한 것을 도(道)라 하고, 그 명(明)을 닦아서 사람이 하늘을 본받는 것을 교(敎)라 한다. 명(明)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의 몸안에 자리하니, 심(心)이 이것이고, 하늘에 자리한 명(明)으로서 그 광휘가 사람의 안팎을 뚫으니, 신(身)이 이것이다.

이 명(命)·성(性)·도(道)·교(敎)·심(心)·신(身)을 얻음에 하늘과 사람이 상통해서 비치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을 '명덕'이라 하고, 그것을 밝힘에 사람과 하늘 사이에 틈이 없어 얻지 못할 게 없는 것을 '명명덕'이라 한다. 아! 우리 공자께서 한 이치로 모든 것을 꿰뚫은 뜻은 아마 대대로 전해져서 천만세까지도 드리울 것이다.

---

12) 천지(天地) 자연(自然)의 네 가지 덕(德). 곧 원(元)·형(亨)·이(利)·정(貞)을 말한다.
13) 『중용』 제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在明明德說

明明之明 人明也 明德之明 天明也 知天明者 能盡乎人明矣 何謂天明 天者 自然之謂也 明者 不昧之稱也 四序迭推 萬物生成 一理循環 健運不息 非自然乎 化育流行 充滿宇宙 無微不彰 高朗昭融 非不昧乎 何謂人明 人生於天 故有固有之性 人循乎天 故有當然之道 受命于性 四德純粹 非由襲取 實具於我 非固有乎 因形生情 與物相接 在感無妄 一遵乎道 非當然乎 明明在身 民與俱新 宅于天善 至乎至極 亘綱斯擧 衆目畢張 此其爲大學之道乎 格物云乎 格之以此也 致知云乎 致之于此也 以此而誠意正心 以此而修身齊家 誠正修齊而國以之治矣 天下以之而平矣 涵養精實 篤近致遠 嗚呼 其至矣乎 子思所云命性道教 孟子所云心性身命 無非原乎天明而示之以人明也 天與人以明而有命之名 人受明于天而有性之名 循乎明而人與天合者 謂之道 修其明而人法乎天者 謂之教 明自乎天而宅乎人身之內者 心是也 宅天之明而光輝得徹乎人之表裏者 身是也 得之而天人相通 無所不照曰明德 明之而人天無間 無所不得曰明明德 嗚呼 吾夫子 一以貫之之旨 其庶乎相傳而垂于千萬世乎

천명지위성설(天命之謂性[14]說)

"하늘을 잴 수 있을까?"

"잴 수 없다. 하늘은 맑고 푸른데 어찌 잴 수 있겠는가?"

"천명(天命)을 들을 수 있을까?"

"들을 수 없다. 하늘은 곡진하게 명(命)하지 않으니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자사(子思)가 우리를 속인 것인가? 어째서 '하늘이 명(命)하신 것을 성(性)이라 이른다'고 말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자사가 이른바 천(天)이란 맑고 푸르름으로 말한 게 아니라 곧 자연(自然)에서 나온 이치로 형이상(形而上)에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자사가 이른 바 천명(天命)이란 곡진하게 명해주는 것으로 말한 게 아니라, 형이상에 있는 이치로서 인심(人心)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저 하늘

14) 『중용』 제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 非道也"

을 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 천(天)이라 하지 않겠는가? 또 볼 수 없으면서 인심(人心)의 안에 구비된 것이 마치 저 하늘이 곡진하게 일러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천명(天命)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理)가 인심(人心)에 구비된 것을 하늘로부터 말한다면 명(命)이고, 사람에 있는 것으로 말한다면 성(性)이다. 그러니 '하늘이 명(命)하신 것을 성(性)이라 이른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무엇을 형이상·형이하라 하는가?"

"천지 안에 큰 듯 하고 작은 듯 해서 볼 수 있는 물(物)이 형(形)인데, 사람은 그 한 가지 물(物)에 처해서 최고의 영특함[15]을 얻는다. 형(形)을 가지고 말해 본다면, 볼 수 없는 것을 형이상이라 하고, 볼 수 있는 것을 형이하라 한다. 『주역』 전(傳)에 '형이상을 도(道)라 하고, 형이하를 기(器)라 한다'[16]라고 하였다. 도(道)는 바로 이치의 당연함으로써 행할 만한 것이고, 기(器)는 바로 물건이 이미 이루어져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형(形)은 눈으로 보이고 이(理)는 마음으로 보인다. 이(理)는 형(形)이 없으면서 있는 듯하고, 볼 수 없으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목되는 도(道)이다. 그러므로 성명(性命)에 통달한 자는 자연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도(道)를 얻는다.

심(心)으로 말해 본다면, 형이상에 나아가서는 성(性)이 여기에 자리하고, 형이하에 나아가서는 정(情)이 여기에서 발한다. 장차 마음에 형(形)이 있다고 말한다면, 형이상의 것이 있고, 장차 마음에 형이 없다고 한다면 형이하의 것이 있다"

"심(心)이 형이상·형이하를 통솔하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겠는가?"

"이(理)는 이미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그 이유를 아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우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를 보고서 측은지심을 발한다면,[17] 그 마음에서 형이상과 형이하를 모두 말할 수 있다. 측은해 하는 것은 정(情)이니 바로 심(心)을 말하고, 측은케 하는 소이(所以)는 성(性)이니 역시 심(心)이라 말할 수 있다.

『서경(書經)』에 '인심(人心)은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은미하다'[18]고 하였으므로, 인심은 형이하의 심(心)이고 도심은 형이상의 심(心)이다. 형이하의 마음은 정(情)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형이상의 마음은 성(性)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성(性)은 볼 수

15) 『계몽편(啓蒙篇)』에 보인다. "만물의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영특하다"(萬物之中 惟人 最靈)
16) 『주역』「계사 상(繫辭上)」에 보인다.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
17)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지금에 사람들이 갑자기 어린 아이가 장차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가지니……"(今人 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18) 『서경』「대우모(大禹謨)」에 보인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보이는 것이 단서이기 때문에 은미하다 하였고, 정(情)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따르면 성(性)을 어그러뜨리게 되므로 위태롭다고 하였다.

아! 성명(性命)에 통달한 자는 드러나서 은미하지 않고 편안해서 위태롭지 않으니, 도(道)는 그로써 밝아지고 교(敎)는 그로써 행해진다. 이것이 바로 자사가 『중용』의 첫머리에서 '하늘이 명(命)하신 것을 성(性)이라 이른다'고 언급한 이유이다"

天命之謂性說

天可測乎 曰 不可測 天蒼蒼然 惡得以測之 天命可聞乎 曰 不可聞 天不諄諄然命之 惡從而聞之 曰 然則子思欺余哉 何以曰天命之謂性 曰 不然 子思之所謂天 非以蒼蒼然者言之也 卽理之出於自然而在於形而上者也 子思之所謂天命 非以其諄諄然命之者言之也 卽理之在於形而上而具乎人心之內者也 形而上者 不可見 猶夫天之不可測也 可不謂之天乎 不可見而具乎人心之內 猶夫天之諄諄然與之也 可不謂之天命乎 理之具乎人心者 自天而言則命是也 在人而言則性是也 可不曰天命之謂性乎 曰 何謂形而上下 曰 凡天地之內 物之若洪若纖 可見者形也 而人處其一 得最靈焉 夫自形而言 就其不可見而曰形而上 就其可見而曰形而下 易傳曰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 道卽理之當然而可行者也 器卽物之已成而可見者也 形以目見 理以心見 理者 其道之目乎無形而若有形 不可見而可見矣 是以達乎性命者 循其自然而得其當行之道也 自心而言 就其形上而有性斯宅焉 就其形下而有情斯發焉 將謂心有形乎 則形而上者在矣 將謂心無形乎 則形而下者在矣 心者 其統夫上下者乎 何以證其然也 曰 理者見其已然而知其所以然 是也 人之見孺子入井也 惻隱之心發焉 則于心而形上形下 可以俱言矣 惻隱者 情也而乃謂之心 所以惻隱者 性也而亦謂之心 書曰 人心惟危 道心惟微 人心者 形下之心也 道心者 形上之心也 形下之心 就情而言者也 形上之心 就性而言者也 性 不可見而可見者 其端也 故曰微 情 未必不善而徇之則悖於性矣 故曰危 嗚呼 達乎性命者 顯而不微 安而不危 道以之而明矣 敎以之而行矣 此子思之於中庸 首揭之曰天命之謂性者也

왈약계고제요설(曰若稽古帝堯[19]說)

음식(飮食)과 의복(衣服)·거처(居處)는 백성의 삶에서 일용(日用)하는 급한 일이다. 상고시대엔 혼돈스럽다가 여러 대를 거치고서야 비로소 그 제도가 갖추어졌으니, 정책으로 다스려 태평한 지경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孔子)께서 제왕(帝王)의 정치를 서술해서 『상서(尙書)』를 엮고 첫머리에 "옛날을 상고하건대"라고 게시하셨으니, 그것은 어째서인가?

공자께서 "중용(中庸)은 지극하구나!"[20]라고 말씀하셨으니, 중용(中庸)이란 양단(兩端)을 잡고서 그 가운데를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중용이 아니고, 이보다 지나치는 것도 중용이 아니다. 아아! 부자(夫子)께서 정치를 서술하시면서 중용으로 후세에 법(法)을 드리우셨도다!

짐승의 날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음식으로 못미치고, 사방 한 길의 상에 가득한 진기한 음식은 지나친 것이다. 짐승의 털과 가죽을 옷으로 입는 것은 의복 가운데 못미치는 것이고, 금수(錦繡)와 능라(綾羅)로 된 옷은 지나친 것이다. 동굴이나 들에서 사는 것은 거처로는 못미치고, 높은 처마와 무늬 새긴 담장의 집은 지나친 것이다. 그 양단을 참작해 보면, 음식은 굶주리지 않으면 족하고, 의복은 춥지 않으면 족하며, 거처는 일정한 자리를 잃지 않으면 족하다. 이것을 바로 중용이라 할 것이다.

옛 정치에 중용을 얻었던 자로는 요·순이 지극하다. 이 때문에 특별히 들어서 "옛날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라고 하였던 것이다. 부자께서는 요·순의 정치를 태평함의 바른 궤범으로 삼으셨다. 이전(二典)[21]을 상고해 보면, 음식에 대해 "곡식은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22]고 하였으니, 이는 굶주림이 없는 것이다. 또 거처(居處)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23] "그대로 흩어져 살며"[24] "평화롭고"[25]

19) 『서경』「요전(堯典)」에 나온다. "옛 제요(帝堯)를 상고하건대 방훈(放勳 : 공이 큼)이시니, 공경하고 밝고 문채롭고 생각함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며 진실로 공손하고 능히 겸양하시어 광채가 사표(四表)에 입혀지시며 상·하에 이르셨다."(曰若稽古帝堯 曰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20) 『논어』「옹야(雍也)」에 보인다. "중용의 덕이 지극하구나! 사람들이 이 덕을 소유한 이가 적은 지 오래이다"(子曰 中庸之爲德也 其至矣乎 民鮮 久矣)

21) 『서경』의 「요전(堯典)」과 「순전(舜典)」을 가리킴.

22) 『서경』「순전(舜典)」에 보인다. "咨十有二牧 曰 食哉惟時 柔遠能邇 惇德允元 而難任人 蠻夷率服"

23) 『서경』「요전(堯典)」에 "알맞은 중춘(仲春)이 되게 하면 백성들은 흩어져 살고 조수는 새끼를

"아랫목에 있다"[26]고 말하였으니, 이는 일정한 자리를 잃지 않은 것이다. 의복(衣服)에 대해서는 비록 밝혀진 글이 없지만, 음식이나 거처에 대한 것을 보고 의복에 대한 언급을 추측해 보건대, 이 역시 추위를 없게 하는 정도일 것이다.

굶주림이 없고 추위가 없으며 일정한 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우선적 효험이 되고, 그 효험은 중용(中庸)의 도에 말미암는다.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명(命)하여, "진실로 그 중(中)을 잡도록 하라"하고, 이어서 사해(四海)의 곤궁함으로 경계했다.[27] 아름답도다, 그 말씀이여! 오직 중(中)을 잡은 뒤에야 백성들이 곤궁함에 이르지 않는다.

정치는 교화를 지극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교화는 반드시 민생의 업(業)에서부터 시작하니, 업(業)이 족하면 교화를 베풀 수 있다. 후세엔 그렇지 못해서, 윗사람이 음식과 의복, 거처를 중용(中庸)에 지나치게 하자 백관(百官)과 조민(兆民)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사치와 음일(淫佚)이 날로 더욱 치열해진다.

아랫사람들이 자연 그들의 업(業)을 무너뜨리고 나면 윗사람 역시 따라서 무너지게 되니, 천하가 어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곤궁함을 스스로 구휼할 수도 없건만 교화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태평하게 정치하는 방법을 구할진대, 옛날을 통해 상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옛날 요임금의 덕을 상고해 보건대, 중용의 지극함을 말하지 않겠는가?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실로 순(舜)이 보좌했으므로, 요(堯)를 칭송할 때엔 순(舜)도 내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복생(伏生)[28]은 『서경』의 「순전(舜典)」을 「요전(堯典)」에다 합쳤으니, 아마도 전해진 바가

낳고 교미한다"(以殷仲春 厥民 析 鳥獸 孳尾)고 되어 있고, 주(注)에 "석(析)은 나누어 흩어짐이다. 앞서는 겨울에 추워서 백성들이 아랫목에 모여 있었는데, 이에 이르면 백성들이 흩어져 삶을 가지고 기후가 온화함을 징험하는 것이다"(析 分散也 先時冬寒 民聚於隩 至是則以民之散處而驗其氣之溫也)고 하였다.

24) 『서경』「요전(堯典)」"바른 중하(仲夏)가 되게 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흩어져 살고 조수는 털이 듬성해져 가죽이 바뀐다(以正仲夏 厥民 因 鳥獸 希革)"라 하고, 주(注)에 "인(因)은 흩어지고 또 흩어짐이니, 기후가 더욱 더워져서 백성들이 더욱 흩어져 사는 것이다"(因 析而又析 以氣愈熱 而民愈散處也)"라고 되어 있다.

25) 『서경』「요전(堯典)」에 "알맞은 중추(仲秋)가 되게 하면 백성들은 평화롭고 조수(鳥獸)는 털갈이를 하여 윤택해진다"(以殷仲秋 厥民 夷 鳥獸 毛毨)라고 하고, 주(注)에 "이(夷)는 평함이니, 더위가 물러가서 사람의 기운이 평안한 것이다"(夷 平也 暑退而人氣平也)라고 하였다.

26) 『서경』「요전(堯典)」에 "바른 중동(仲冬)이 되게 하면 백성들은 아랫목에 있고 조수(鳥獸)는 가는 털이 난다"(以正仲冬 厥民 隩 鳥獸 氄毛)고 하였고, 주(注)에는 "오(隩)는 집의 안이니, 기후가 추워져서 백성들이 집안에 모인 것이다"(隩 室之內也 氣寒而民聚於內也)고 하였다.

27) 『논어』「요왈(堯曰)」에 보인다.

28) 중국 전한 때 학자. 이름은 승(勝), 자는 자천(子賤)이다. 원래 진(秦)나라의 박사(博士)로 『상서

있을 것이다.

부자께서 요(堯)를 칭송하시며, "위대하시다. 요의 임금노릇하심이여! 그 공덕이 넓고 넓어 백성들이 무어라 형용하지 못하는구나"[29]라고 하셨는데, 이점이 바로 『상서』에서 요임금을 가장 첫머리로 든 까닭이다. 또 부자께서는 순임금을 칭송하셔서, "무위(無爲)로 다스리신 자는 순임금이실 것이다"[30]고 하셨으니, 순임금이 요의 뒤를 잇고 요를 본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우임금에 대해서는, "우(禹)임금은 내 비난할 데가 없으시다. 평소의 음식은 간략하게 하시면서도 (제사에는) 귀신에게는 효도를 다하시고, 의복은 검소하게 하시면서도 불·면(黻冕)의 제복(祭服)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시고, 궁실(宮室)은 낮게 하시면서도 (백성을 위한) 치수(治水) 사업에는 힘을 다 하셨다"[31]고 하셨다. 우임금이 요순을 본받았으면서도 마치 교화의 아름다움을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는 바로 옛날을 상고해서 태평의 정치를 서술하는 데 요임금보다 나은 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은, 후세 국가의 부유함이 고인(古人)보다 과도한 것을 본다면, 옛날이 후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길 것이다. 아아! 슬프다. 국가의 부유함이 중용보다 지나친데도, 그 백성들을 각각 자신의 업(業)에 편안하도록 해서 태평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지금 이후로 기필코 없을 것이다. 어째서일까? 옛날을 상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曰若稽古帝堯說

飮食衣服居處 民生之日用急務也 上古草昧 歷累世而其制始備 則政術之不能臻於治平 亦可知也 孔子 述帝王政治 編爲尙書而首揭之曰 曰若稽古 何哉 子曰 中庸其至矣乎 夫中庸者 執其兩端而得其中也 不及乎此 非中庸也 過乎此 亦非中庸也 嗚呼 夫子之述政治 其以中庸垂法於後世乎 飮血茹毛 飮食之不及者 而方丈珍羞 其過也

(尙書)』를 연구했고,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 때 벽에다 『서경』을 숨겼다. 한(漢)이 일어난 뒤 그 책을 찾았으나 산일되었다고 한다. 전한의 『상서(尙書)』 학자는 대체로 그의 문하에서 나왔다.

29) 『논어』 「태백(泰伯)」에 보인다.

30)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보인다.

31) 『논어』 「태백(泰伯)」에 보인다.

衣其羽皮 衣服之不及者 而錦繡綾羅 其過也 穴居野處 居處之不及者 而峻宇雕墻 其過也 酌其兩端 則飮食 無飢而足矣 衣服 無寒而足矣 居處 無失所而足矣 斯其爲中庸乎 古政治之得中庸者 堯舜 其至矣 是以特揭之曰 曰若稽古帝堯 盖夫子 以堯舜之政治 爲太平正軌也 考諸二典 於飮食 則曰食哉惟時 斯其無飢也 於居處 則曰析 曰因 曰夷 曰隩 斯其無失所也 於衣服也 雖無明文 視彼概此 其亦無寒而已矣 無飢無寒與無失所 爲政治之先效 而其效莫不由乎中庸之道 堯之命舜 曰 允執其中 因戒之以四海困窮 旨哉言乎 夫惟執中而後 民不至於困窮矣 政治以敎化爲至 然敎化之始必于民生之業 業足而敎可以施也 後世則不然 上之人 飮食衣服居處 過乎中庸 而百官兆民效之 奢侈淫佚 日增而熾 下旣自壞其業 而上又從而殘之 天下安得不困窮也 困窮之且不自恤 敎何以得施也 然則求政治太平之術 可不於古而稽之乎 稽之于古帝堯之德 可不曰中庸之至矣乎 堯之治 舜實佐之 稱堯而舜亦擧焉 故伏生 書舜典合于堯典 其殆有所傳也 夫子稱堯而曰 大哉 堯之爲君也 蕩蕩乎民無能名焉 此尙書之所以首帝堯也 稱舜而曰 無爲而治者 其舜也與 言其紹堯之後而法夫堯也 於禹而曰 禹 吾無間然矣 非飮食而致孝于鬼神 惡衣服而致美乎黻冕 卑宮室而盡力乎溝洫 言乎其法夫堯舜而若有未盡敎化之美者也 此所以稽古而述太平之治 莫尙乎帝堯也 令人見後世人國之富過於古人 謂古之不及乎後 噫 國之富之過於中庸 而能使其民各安其業以臻乎太平者 自今以往 必未之或有 何哉 不稽古也

관관저구 재하지주설(關關雎鳩 在河之洲說)

공자께서는 지나간 것을 말해주자 올 것을 아는 자라야 비로소 더불어 시(詩)를 논할 만하다고 여기셨다.[32] 비록 성인(聖人)의 한 때의 말씀이지만 실로 『시경(詩經)』 3백편을 읽는 데 변하지 않는 법이 된다. '관저장(關雎章)'[33]이 3백 편의 첫머리가 되니, 관저장을 잘 읽은 사람은 저 첫 두 구에 나아가서 '지나간 것을 말해주자 올 것을 안다'는 말의 뜻을 알 수 있다. 『시경』은 외워 읊조리면서 득실(得失)을 밝힌 것이다. 선을 들으면 권면할 바를 알고, 악을 들으면 경계할 바를 알게 되니, 이것이 『시경』의 본지이다.

32) 『논어』「학이(學而)」에 보인다.
33) 『시경』 주남(周南), 「관저(關雎)」 참조.

『시경』을 명명하는 것에는 풍(風)·아(雅)·송(頌)이 있고, 뜻을 기탁하는 방식에는 부(賦)·비(比)·흥(興)이 있다. 명명하는 것에는 각기 정하는 바가 있고, 탁의(托意)에는 부·비·흥이 서로 중첩할 수 있다. 풍·아·송이 각각 정해지면 풍(風)에는 절로 교화의 뜻이 있고, 아(雅)에는 절로 바름의 뜻이 있으며, 송(頌)에는 절로 송도하는 뜻이 있다. 또 부·비·흥이 서로 중첩되면, 흥(興)은 부·비의 뜻을 겸하고, 부(賦)는 비·흥의 뜻을 겸하며, 비(比)는 부·흥의 뜻을 겸하게 된다. 이것을 안 뒤에야 『시경』을 논할 수 있다.

관저는 물새로서 하수(河水)의 모래섬에 있으니, 부(賦)의 진술이 아닌가? 하수(河水) 모래섬의 그윽하고 깊음을 가지고 그윽하고 한가로운 요조함을 형상했으니, 비(比)의 비유가 아닌가? 장차 숙녀(淑女)가 군자(君子)의 짝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 그에 앞서 관저가 화(和)하게 운다는 말을 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흥(興)을 일으킨 것이다. 큰 뜻을 들자면 흥이지만 부와 비가 흥 가운데 들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의 뜻이 활발해서 말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널리 통할 수 있다.

모장(毛萇)[34]은 관저(關雎)를 후비(后妃)의 덕이라 하였고, 정현(鄭玄)[35]은 이를 태사(太姒)[36]라고 여겼는데, 정현의 이 견해는 모공(毛公)의 설을 따른 것이다. 양웅(揚雄)과 두흠(杜欽)[37]은 관저를 강후(康后)[38]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제(齊)·노(魯)·한(韓) 삼가(三家)[39]의 설을 따른 것이다. 태사(太姒)는 문왕을 도와 지치(至治)의 아름다움을 지녔고, 강후(康后)는 강왕(康王)[40]의 정치가 쇠해졌을 때 조정을 편안히 하는 데 실수를 하였다. 그러니 한 쪽은 칭찬하고 한 쪽은 비난해서 매우 상반된 것이다.

---

34) 중국 한(漢)나라 때의 경학자. 벼슬이 북해태수(北海太守)에 이르렀으며, 육국(六國) 때의 노(魯)나라 학자인 모형(毛亨)에게서 시고훈전(詩詁訓傳)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관장경(貫長卿)에게 전수하였다. 모형(毛亨)을 대모공(大毛公)이라, 모장(毛萇)을 소모공(小毛公)이라 한다.

35) 중국 후한 때의 경학자(127~200). 자는 강성(康成). 모든 경(經)에 널리 정통하여 한대(漢代) 경학을 집대성하였. 모시전(毛詩傳)·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 등의 주석을 남겼다.

36)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비(妃). 무왕(武王)의 어머니이다.

37) 중국 한(漢)나라 때 사람. 자는 자하(子夏). 두업(杜鄴)과 성이 같고 자도 같으며, 함께 재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두흠(杜欽)이 스스로 소관(小冠)이라 하여 두업(杜鄴)과 구별하였다. 이후 두업(杜鄴)을 대관자하(大冠子夏), 두흠(杜欽)을 소관자하(小冠子夏)라고 불렀다.

38) 주(周)나라 강왕(康王)의 妃

39) 중국 한대(漢代)에 『시경』을 전한 노(魯)·제(齊)·한(韓) 삼가(三家). 노시(魯詩)는 신공(申公)에게 근본하고, 제시(齊詩)는 원고(轅固)에 근원하며, 한시(韓詩)는 한영(韓嬰)에 근원한다. 제시와 노시는 위(魏)와 서진(西晉) 때 앞뒤로 망실되었고, 한시는 외전(外傳)만이 남아 전한다. 지금 전하는 『시경』은 한대(漢代)의 모시(毛詩)를 가리킨다.

40) 주(周)나라 성왕(成王)의 아들.

구양수(歐陽修)는 "왕자(王者)가 일어남이 어찌 오로지 여덕(女德) 때문이겠는가? 오직 후세엔 아녀자로 인해 쇠란(衰亂)을 불러왔으니, 처음에 부덕(婦德)의 도움으로 왕자(王者)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했을 뿐이다. 쇠란케 한 이유 때문에 왕자가 일어난 까닭을 생각하였고, 이것이 바로 '관저'장이 지어진 이유이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하자면, 후비(后妃)의 덕을 태사(太姒)로 보고, 강후(康后)로 보는 두 說이 모두 통용될 만하다. 그런데 정초(鄭樵)[41]는 "양웅(揚雄)은 주(周)나라 강왕(康王) 때 '관저'장이 윗사람에게서 지어졌다'고 하였고,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은 '주(周)나라의 도(道)가 쇠하자 시인(詩人)이 임석(衽席)에 근본해서 관저(關雎)가 지어졌다' 하였다. 그러니 '관저'를 지은 뜻은, 만일 처음에는 화(和)한 정치를 하다가 후세에 선조를 본받지 못하고 정치에 태만한 자가 있으면 이 시를 취해 연주해서 경계의 뜻을 펴라는 것이다" 하였다. 이것을 구양수가 말한 것과 비교해 봄에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증공(曾鞏)[42]의 말에, "선왕(先王)의 정치는 반드시 안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주남(周南)」 「소남(召南)」의 업(業)은 문왕이 몸소 모범을 보여 교화한 것에 근본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몸이 닦였기 때문에 국가와 천하가 다스려졌다는 것을 말한다.[43] 주자(朱子 : 朱熹)가 이 말을 취해서 『시변(詩辨)』[44]에 써 놓고, "'관저'의 시가 비록 마치 오로지 태사(太姒)만을 아름답게 여긴 것 같지만, 실로 문왕의 덕을 깊이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에 '관저'장에 대한 설이 비로소 조금도 유감이 없게 되었고 '지나간 것을 알려주면 올 것을 안다'는 말의 뜻이 갖추어졌다. 어째서인가? 주자(朱子)의 의론이 도에 합해서 후세에 가르침을 드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으니, "숙녀의 군자에 대한 관계는 현신(賢臣)의 임금에 대한 관계와 같다. 군자는 숙녀를 두어서 집안을 다스릴 수 있고, 임금은 현신을 두어 국가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뜻에 따른다면, 비록 '관저' 한 편을 비(比)라고 하여도 괜찮겠지만, 부(賦)와 흥(興)도 그 가운데 있다.

---

41) 중국 남송 때의 학자(1104~1160). 자는 어중(漁仲). 내제산(來濟山)에 살아서 내제선생(來濟先生)이라 일컬어진다. 고증학자로서 『통지(通志)』 2백권을 저술하였다. 『송사(宋史)』 「유림전(儒林傳)」 참조.

42) 중국 북송 때의 문장가(1019~1083). 자는 자고(子固). 문장에 뛰어나 구양수(歐陽修)와 어깨를 겨루었다.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저술에 『원풍유고(元豐類稿)』가 있다.

43) 『대학(大學)』 경(經) 1장 참조.

44) 『시서변설(詩序辨說)』의 약칭.

시서(詩序)에 "'관저'는 숙녀를 얻어 군자에 짝함을 즐거워 하고, 걱정이 현자(賢者)를 등용함에 있어 여색(女色)에 빠지지 아니하며, 요조숙녀(窈窕淑女)를 서글퍼하고 현재(賢才)를 생각하여 선(善)을 상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부자(夫子)께서 이른 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화(和)를 해치지 않는다"[45]는 가르침을 따라 문자를 분리시키고 우회해서 구한 것이다. 그러나 요조숙녀를 보고서 현신(賢臣)을 생각함은 역시 '지나간 것을 고해주면 올 것을 안다'는 말의 뜻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

아! 『시경』에 대해 잘 논하는 자는 『시경』의 내용을 단장취의(斷章取義)[46]해서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근거로 삼았으니, 오직 그것은 선을 다하여 도(道)에 합함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성인(聖人)께서 『시경』을 산정해서 가르침을 드리운 이유이지만, 어느 때 처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그 뜻이 깊다. 그런데도 후인들은 시끌시끌하게 많은 말을 해서 고증의 자료로 삼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關關雎鳩 在河之洲說

孔子 以告諸往而知來者 謂始可與言詩 雖出於聖人一時之言 而實爲讀詩三百篇 不易之法矣 關雎爲三百篇之首 善讀關雎者 卽夫首二句而得告往知來之意矣 詩者 諷詠而明得失者也 聞善則知所勸 聞惡則知所戒 此其本旨也 其命名有風雅頌 其托意有賦比興 命名者 各有攸定 托意者 可以互因 各定則風自有風之義 雅自有雅之義 頌自有頌之義 互因則興也而兼賦比之義 賦也而兼比興之義 比也而兼賦興之義 知此而後 可以言詩也 關雎 水鳥也而在河之洲 非賦陳乎 以河洲之幽深 形窈窕之幽閒 非比喩乎 將言淑女之配君子 而先之以關雎之有和聲 此所謂興起也 擧其大致則是興也 而賦與比在其中矣 是以其義活潑 可以正說 可以旁通矣 毛萇 以關雎爲后妃之德 而鄭玄謂是太姒 此因毛公說也 揚雄杜欽 謂是康后 此因齊魯韓三家說也 夫太姒 助文王有致治之美 康后 在康王政衰之時 有晏朝之失 一則稱之 一則傷之 相反甚矣 歐陽修 以爲王者之興 豈專由女德 惟其後世 因婦人以致衰亂 則宜思其初有婦德之助以興爾 因其

45) 『논어』「팔일(八佾)」에 나온다.
46) 작자의 본의(本意) 여하를 불문하고 시문(詩文) 중에서 자기가 소용되는 부분만을 따서 마음대로 해석하여 씀.

所以衰 思其所以興 此關雎之所以作也 以此言之 二說皆可通矣 而鄭樵又以爲 揚雄曰 周康之時 關雎作于上 太史遷曰 周道缺 詩人本之衽席而關雎作 作之爲義 如始作翕如之作 後世有不能法祖而怠于政者 取是詩而奏之以申警諷 此比歐陽所言 爲有徵而猶未也 曾鞏之言 曰 先王之政 必由內始 故二南之業 本於文王之躬化 此謂身修故國家天下治也 朱子取之 書于詩辨 曰 其詩 雖若專美太姒 而實以深見文王之德 於是關雎之說 始無少憾 而告往知來之意備焉 何者 以其立言 合于道 可以垂教于後世也 抑有說焉 淑女之於君子 有賢臣之於邦君也 君子有淑女 可以治家 邦君有賢臣 可以治國家天下 由斯義也 則雖以關雎一篇爲比 亦可 而賦興又在其中矣 詩序云 關雎 樂得淑女 以配君子 憂在進賢 不淫其色 哀窈窕 思賢才 而無傷善之心焉 夫其言 因夫子所云樂而不淫哀而不傷之訓 而離析文字 迂廻而求之 然其見窈窕而思賢才 則亦可謂得其告往知來之旨也 嗚呼 善說詩者 斷章取義 而爲勸善戒惡之地 惟其言之盡善而合於道而已 此聖人所以刪正而垂教夜 而不明言其始作之在於何時 其旨深矣 後人譊譊多辭 以爲放證之資 不亦謬乎

건원형이정설(乾元亨利貞說)

건괘(乾卦)의 단사(彖辭)에 "건(乾)은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47]고 하니, 공자께서 그 말을 보충하여 "원(元)은 선(善)의 으뜸이요, 형(亨)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利)는 의(義)에 화함이요, 정(貞)은 일의 근간이니, 군자(君子)가 인(仁)을 체행함이 남의 우두머리가 될 만하며, 모임을 아름답게 함이 족히 예(禮)에 합하며, 물건을 이롭게 함이 족히 의(義)에 조화되며, 정고(貞固)함이 족히 일의 근간이 될 수 있다"[48]고 하였다.

또 "위대하다,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의뢰하여 시작하니, 이에 하늘을 통합하였도다"[49]고 하였다. 원·형·이·정을 사덕(四德)이라 하고 또 형·이·정을 원에 통합해 소속시켜 처음과 끝을 일관되게 하였다. 공자께서 이렇게 단사(彖辭)의 뜻을

47) 『주역』 건괘(乾卦) 참조.

48) 『주역』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의 내용. 『주역』은 괘사(卦辭), 효사(爻辭) 외에 공자(孔子)의 작으로 전하는 십익(十翼)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익은 「단전(彖傳)」 상·하, 「상전(象傳)」 상·하, 「계사전(繫辭傳)」 상·하와 「문언전」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의 10편을 말한다.

49) 「건괘(乾卦)」 단전(彖傳)

해석한 것에 덧붙일 게 없으니 더 무슨 말을 하리오?

그런데, 역(易)의 64괘 단사 가운데 원·형·이·정이란 말을 단 것은 7가지의 괘가 있으니, 건(乾)·곤(坤)·둔(屯)·수(隨)·임(臨)·무망(無妄)·혁(革)괘가 이들이다. 건(乾)만은 여섯 양(陽)의 괘가 강건중정(剛健中正)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사덕(四德)을 갖추어 부족함이 없다. 비록 곤괘(坤卦)의 "포용하고 너그러우며 빛나고 위대"해서 "그에 의뢰해서 만물을 생겨나게"[50]하는 덕으로써도, 정(貞)에 있어서는 암말의 정(貞)함으로 비유되니, 그것은 유순(柔順)하게 건(乾)을 받듦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둔(屯)·수(隨)·임(臨)·무망(無妄)·혁(革)의 다섯 괘들도 각각 경계하는 말을 지니고 있지만, 건괘와 같지는 못하다.

둔괘(屯卦)에 대해서는 "크게 형통하고 정(貞)함이 이로우니, 갈 바를 두지 말고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51]고 하였다.[52]

수괘(隨卦)에 대해서는 "크게 형통하니 정(貞)함이 이롭다. 허물이 없으리라"[53]고 하였다.[54]

임괘(臨卦)에 대해서는 "크게 형통하고 정(貞)함이 이로우니, 8월에 이르면 흉함이 있으리라" 하였다.[55]

무망괘(无妄卦)에 대해서는, "크게 형통하고 정(貞)함이 이로우니, 바르지 않으면

---

50) 「곤괘(坤卦)」 단전.

51) 「둔괘(屯卦)」 괘사.

52) 自註 : 둔(屯)은 진(震)이 아래에 있고 감(坎)이 위에 있다( ). 진(震)은 움직이고 감(坎)은 험난하므로, 그 상(象)이 험한 가운데 움직이게 된다. 그러므로 원·형·이·정의 덕을 지녀서 사업을 경륜(經綸)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앞에 험난함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두지 말라"고 하였고, 반드시 여러 사람의 힘을 얻어야만 험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후(侯)를 세움이 이롭다"고 한 것이다.

53) 「수괘(隨卦)」 괘사.

54) 自註 : 수괘(隨卦)는 진(震)이 아래에 있고 태(兌)가 위에 있으니( ), 동(動)하고 기뻐함이 수(隨)의 상(象)이 된다. 기뻐하고 동(動)하므로, 수(隨)는 진실로 크게 형통하지 않음은 없으나, 만약 부정(不正)하게 서로 따른다면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바름으로써 서로 따른 뒤에야 허물이 없을 수 있다.

55) 自註 : 임괘는 태(兌)가 아래에 있고 곤(坤)이 위에 있으니( ), 두 개의 양(陽)이 점점 자라 나아가, 기뻐하고 순응해서 크게 형통한 상이 된다. 그러나 이양(二陽)의 나아감이 12월의 괘가 되지만 아직도 삼양(三陽)으로 커나가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다. 앞에 사음(四陰)이 있으니, 혹 반대로 양(陽)에 임할까 하고 염려한다. 반대로 되면 관괘(觀卦 :)가 되는데, 관괘는 8월의 괘이다. 또 복괘(復卦 :)인 일양(一陽)의 괘로부터 이음(二陰)의 달에 이르러 둔괘(遯卦 :)가 되면, 그 수가 8이 된다.* 그러므로 한창 성대할 때에 장차 쇠해질 날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앞서서 경계하면 흉함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貞)함이 이롭다'고 하였다.

* 「임괘(臨卦)」 괘사에 대한 주자(朱子)의 『본의(本義)』에 나오는 말.

허물이 있을 것이므로 가는 바를 둠이 이롭지 않다"[56]고 하였다.[57]

혁괘(革卦)에 대해서는 "하루가 지나야 믿으리니, 크게 형통하고 정(貞)함이 이로워 뉘우침이 없다"[58]고 하였다.[59]

이 다섯 괘의 괘사(卦辭)는 괘의 상(象)을 따라 모두 경계하는 바가 있으므로, 보는 자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비록 건원(乾元)의 대덕(大德)으로도 가득참을 경계할 줄 모르면, 끝까지 올라간 용의 뉘우침[60]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물며 건(乾)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랴! 이로써 역(易)이 가르침을 드리우는 것이 오로지 경계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히 경계할 바를 알면, 허물과 뉘우침이 없음이 앞서서 정해질 것이다.

또 역(易)의 사덕(四德)에 있어서, 원(元)이 선(善)의 으뜸이 되지만, 원(元)으로 괘사를 단 것은 매우 드물고 이(利)로 단 것은 매우 많다. 어째서일까? 이(利)는 의(義)에 화함이니,[61] 의(義)가 처하는 바를 살피고자 하면 항상 이(利)가 있는 곳에서 가려야 한다. 그러나 이(利)로써 하나의 사사로움을 따르는 것은 이(利)가 의(義)에 합하지 않는 것이고, 이(利)로써 천하를 공(公)되게 하는 것은 이(利)가 의에 합하는 것이며, 의(義)에 합하면 화(和)함이다. 원(元)은 인(仁)이라 그 체(體)를 알기 어렵지만, 의(義)는 물(物)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그 쓰임이 쉽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仁)을 체행함이 의(義)에 드러나고, 예(禮)에 합함이 의(義)에 드러나고, 일의 근간이 됨이 의(義)에 드러난다.

---

56) 「무망괘(无妄卦)」 괘사.

57) 自註 : 무망괘는 진(震)이 아래에 있고 건(乾)이 위에 있으니( ), 동(動)하고 굳셈이 응(應)해서 크게 형통한 상이 있다. 그러나 무망(无妄)함을 믿고서 굳세고 동(動)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허물이 있게 된다. 허물은 망(妄)은 아니지만 망(妄)에 이르는 것이므로 항상 바르지 않음이 있을까 경계해야 한다.

58) 「혁괘(革卦)」 괘사.

59) 自註 : 혁괘는 이(離)가 아래에 있고 태(兌)가 위에 있으니( ), 태(兌)의 상(象)은 택(澤)이고, 택은 흐르지 않는 물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쉽게 마르고 날로 말라 가서 변혁의 상이 있다. 혁(革)은 옛것을 변함이니, 옛것을 변하면 사람들이 대번에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루를 지내고 오래되어 사람들이 믿는 것을 기다려서야 변혁하는 것이니, 여기에 크게 형통한 도가 있다. 만약 사람들이 믿음을 기다리지 않고서 대번에 변혁하면, 비록 그 변혁함이 마땅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뉘우칠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오직 소홀함에 대해 경계한다면 뉘우침이 절로 없어질 것이다.
* 「혁괘」 괘사에 대한 정자(程子)의 『역전(易傳)』에 나오는 말.

60) 「건괘」 상구(上九)의 효사(爻辭)에 나온다. "상구(上九)는 끝까지 올라간 용(龍)이니, 뉘우침이 있으리라"(上九 亢龍 有悔)

61) 「건괘」 문언전.

64괘 가운데 이(利)를 말한 것이 매우 많은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의(義)에 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乾)의 시작이 아름다운 이로움으로써 천하를 이롭게 하므로 굳이 이로운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이로움이 크구나!"[62]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利)의 덕은 널리 베풀 수 있지만, 또한 오직 '인(仁)을 체행함이 남의 우두머리가 될 만'[63]한 뒤에야 예(禮)에 합할 수 있고 일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아아! 이것이 바로 대역(大易)의 뜻이고, 부자(夫子)께서 장차 물(物)을 이롭게 함이 사덕(四德)의 용(用)이 됨을 칭찬하신 바일 것이다.

乾元亨利貞說

乾之大彖 曰 乾元亨利貞 孔子翼之 曰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幹也 君子 體仁 足以長人 嘉會 足以合禮 利物 足以和義 貞固 足以幹事 又曰 大哉 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夫以元亨利貞爲四德 而又以亨利貞 統屬于元 以貫始終 其釋大彖之義 蔑以加矣 豈復有說哉 然而易之六十四卦大彖之辭 繫之以元亨利貞者 有七焉 曰乾曰坤曰屯曰隨曰臨曰无妄曰革 是也 惟乾 以六陽之卦 剛健中正而純粹焉 故具四德而無不足焉 雖以坤之含弘光大資生萬物之德 其於貞則比之於牝馬 以見其柔順而承乎乾也 若屯隨臨无妄革五卦 則各有戒辭 不得與乾同焉 於屯則曰元亨利貞 勿用 有攸往 利建侯(自註 : 屯 下震上坎 震 動也 坎 險也 其象爲動乎險中 故非有元亨利貞之德 不可以經綸事業 然以其前有險難 故曰勿用 有攸往 而其必資衆力 乃能不陷于險 故曰利建侯)

於隨則曰 元亨利貞 无咎(隨 下震上兌 動而說 爲隨之象也 爲隨之象也 說而動 隨固無不元亨 然若以不正相隨 則有咎 必以正而相隨然後 得無咎也)

於臨則曰 元亨利貞 至于八月 有凶(自註 : 臨 下兌上坤 其卦 二陽浸長而進 說而順 應爲元亨之象 然二陽之進 爲十二月之卦 而猶未至於三陽之泰也 前有四陰 慮或反對臨之 反對爲觀 而觀是八月之卦也 又自復一陽之卦 至于二陰之月而爲遯 則其數爲八矣 能於方盛之時 慮其有將衰之日而戒在于先 則不至於凶 故曰利貞也)

於无妄則曰 元亨利貞 其匪正 有眚 不利有攸往(自註 : 无妄 下震上乾 動而健 應有元亨之象 然恃其无妄而健動不戒 則易有眚焉 眚者 非妄而至者也 故常戒其有匪正也)

---

62) 「건괘(乾卦)」 문언전.
63) 「건괘(乾卦)」 문언전.

於革則曰 已日 乃孚 元亨利貞 悔亡(自註 : 革 下離上兌 兌 澤也 澤 止水也 止水 易涸而日以乾之 有變革之象焉 革者 變其故也 變其故 人未遽信 故必歷日至久 待其信之而革之 此其有元亨之道也 約不待人之信之而遽革之 則雖其所革爲當 而必有可悔者 惟戒之在圖 則其悔自亡也)

凡此五卦之辭 隨其象而皆有所戒 觀者 可以知之矣 不惟是也 雖以乾元之大德 不 知戒滿 則有亢龍之悔 況其不及于乾者乎 以是知易之垂教 專在於戒 能知所戒 其无咎无悔 可前定矣 且易之於四德 元爲善之長也 而繫之以元者爲甚少 繫之以利者爲甚多何者 利者 義之和也 欲審義之所處 則常於利之所在而擇焉 以利而徇乎一己者 利之不合於義者也 以利而公諸天下者 利之合於義者也 合於義則和矣 元者 仁也 其體難知而義者 所以利物也 其用易見 故體仁 著於義 合禮 著於義 幹事 著於義

六十四卦之中 所以言利爲甚多者 無他焉 以其和義也 故曰 乾始能以美利利天下 不言所利 大矣哉 然則利之爲德 可以博施 而亦惟體仁而足於長人而後 可以合禮 可以幹事矣 嗚呼 此其大易之旨 而夫子之所贊其將以利物爲四德之用也歟

춘왕정월(春王正月)에 대한 해설

『춘추(春秋)』에 "춘왕정월(春王正月)"이라 쓰인 것은, 공자께서 구사(舊史)에 기록된 "춘정월(春正月)"이란 말에 따라 필(筆)을 가해 수정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정월'이 제후의 정월이 아니라 천자의 정월임을 밝혔다. 사시(四時)를 해에다 연결시키고 달을 계절에다 연결시킨 것이 비록 구사(魯史)에 기록된 바지만, 노공(魯公)은 이 사시(四時)와 달을 주(周)나라 천왕(天王)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공(公 : 제후)의 정월이 아니고, 또 주나라 천왕이 이 시월(時月)을 노공에게 반포했기 때문에 '왕정월(王正月)'이라 했다.

반포한 것과 받은 시월이 다름이 없지만, 나누어 구별해서 '춘(春)'을 먼저 쓰고 '왕정월(王正月)'을 다음에 쓴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봄이 주대(周代) 정삭(正朔)의 봄이지 천시(天時)의 바뀌지 않는 봄은 아님을 밝힌 것이다.

천시(天時)의 봄은 북두성 자루가 초저녁에 인방(寅方)[64]을 가리키는 때이니, 즉 봄의 절기가 삼양(三陽)의 달[65]에 서는 것을 만세가 함께 따르는 절후로 삼은 것이다. 정삭(正朔)의 봄이란 북두성의 자루가 초저녁에 자방(子方)[66]을 가리키는 때이니,

64) 24방위의 하나. 동북간(東北間)이다.
65) 음력으로 정월을 말한다.

봄의 기운이 일양(一陽)의 달[67]에 싹트는 것을 주왕(周王) 일대(一代)의 계통으로 삼은 것이다.[68] 천시의 봄은 상천(上天)의 운행에서 나왔지, 당시의 왕 일대의 계통으로 이루어 고친 것은 아니다. 이로써 주대(周代)의 시(詩)에서 고찰해 보면, 모두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음력 정월의 봄을 따라 차례를 삼은 것이다.

또 정삭(正朔)의 봄은 천왕이 제정한 것에서 나왔지, 신하가 붓을 잡고 써서 감히 고친 것이 아니다. 이로써 『춘추』의 기록을 준거해 보면,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음력 11월의 봄으로 차례를 삼지 않음이 없다.

만일 주나라의 정삭을 천시(天時)의 정춘(正春)과 같게 한다면 반드시 "왕춘정월(王春正月)"이라고 써야만 했는데, 연달아 '춘정월(春正月)'이라 쓰지 않고 '왕정월(王正月)'의 위에 춘(春)을 쓴 것은 그렇게 씀으로써 천시(天時)의 정춘(正春)이 삼정(三正)[69]을 포괄해서 여러 왕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또 '왕정월(王正月)'을 춘(春)의 아래에 쓴 것은 그렇게 씀으로써 일대(一代)의 춘월(春月)이 시의(時宜)를 따르고 삼정(三正)을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천시(天時)를 빌려 뜻을 세운 이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도(經道)와 권도(權道)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春王正月解

春秋書春王正月者 孔子 因舊史所紀春正月而筆以修之也 以明夫此正月 非公之正月而卽王之正月也 以時繫年 以月繫時 雖魯史所紀 而以魯公受此時月於周之天王 故非公正月也 以周之天王頒此時月於魯公 故曰王正月也 所頒所受時月 無異也 而乃分以別之 先書春 次書王正月者 以明夫此春是周代正朔之春而非天時不易之春也 天時之春 建寅是也 以春之節 立於三陽之月 爲萬世共遵之候也 正朔之春 建子是也 以春之氣 萌於一陽之月 爲周王一代之統也 天時之春 出於上天之所運 非時王一代之統之所

66) 24방위의 하나. 정북방(正北方)이다.
67) 음력 11월을 가리킨다.
68) 『논어』「위령공(衛靈公)」에 "子曰 行夏之時"라 하였는데, 그 주(注)에 말하기를, "夏時 謂以斗柄 初昏建寅之月 爲歲首也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故斗柄建此三辰之月 皆可以爲世首 而三代迭用之 夏以寅 爲人正 商以丑 爲地正 周以子 爲天正也 然時以作事 則歲月 自當以人爲紀"라고 하였다.
69) 천정(天正)·지정(地正)·인정(人正)을 가리킴.

遂改也 是以考之於周代之詩 皆從建寅之春而爲之序也 正朔之春 出於天王之所制 非人臣秉筆之書之所敢變也 是以準之於春秋之紀 無不以建子之春而爲之序也 使周之正朔 同於天時之正春 則必書之曰王春正月也 而其不連書春正月 乃書春於王正月之上者 有以見夫天時之正春 可以包三正而示諸百王也 書王正月於春之下者 有以見夫一代之春月 可以隨時宜而從其三正也 此所以假天時而立義 而經權兩盡也

〔부록〕 역대 선유(先儒)들의 정삭(正朔) 시월(時月)에 대한 이동(異同)을 말함[70]

호씨전(胡氏傳)[71]에서는 "하(夏)나라의 철(책력)을 주(周)나라 달 위에 붙인다"[72] 고 하였다.

정초(鄭樵)[73]는 "고금의 책력은 모두 북두칠성의 자루가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하니, 그 정삭(正朔)을 자(子)·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달로 정하는 경우는 상(商)나라와 주(周)나라 2대일 뿐이다"고 하였고, 또 "『상서(尙書)』에 '원사(元祀 : 元年) 십이월'[74]이라 하였고, 『주례(周禮)』에 '정세(正歲)[75] 12월'이라 하였으니, 비록 자·축방을 가리키는 때로 달을 명명했지만, 점성(占星)으로 책력을 정하고 사당을 닦아 일을 거행함에는 여전히 하(夏)나라의 책력을 살피지, 각기 자기 나라의 제도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70) 부록으로 실린 이 글은 중국 명나라 때 문장가인 당순지(唐順之)가 집술(輯述)한 것을 절록(節錄)하고, 거기에 다소 덧붙인 것이다.

71) 송(宋)나라 호안국(胡安國)의 『춘추전(春秋傳)』을 말함. 1073-1138년. 자는 강후(康侯). 소성(紹聖) 4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태학박사(太學博士)가 되고, 호남(湖南) 지방의 학문을 제고시킴. 고종(高宗)이 즉위하자, 장준(張浚)의 천거로 급사중(給事中)을 제수받고 시독(侍讀)을 겸해서 『춘추』를 강함. 이로 인해 무이선생(武夷先生)으로 일컬어짐. 저서에 『춘추전(春秋傳)』·『자치통감거요보유(資治通鑑擧要補遺)』 등이 있음. 또 제자들이 강학(講學)중에 들은 그의 말을 기록해서 『상채어록(上蔡語錄)』을 지음. 『송사』에 전이 있고, 『송원학안』에 「무이학안(武夷學案)」이 있음

72) 自註 :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살펴보니 "문정(文正 : 司馬光)의 「춘추설(春秋說)」에, 공자께서 하(夏)나라의 철로 달을 시작하고 주력(周曆)으로 일을 기술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공(公)의 즉위가 옛날에는 11월이었는데, 공자께서 개정해서 '춘왕정월(春王正月)'이라 했다고 하는 말인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였다.

73) 중국 남송 때의 학자. 자는 어중(漁仲). 내제산(來濟山)에 살아서 내제선생(來濟先生)이라 일컬어졌다. 저술로는 『통지(通志)』가 유명하다. 『송사(宋史)』 권436, 「유림열전」 참조.

74) 『서경』 「이훈(伊訓)」에 보인다.

75) 하(夏)나라의 책력

또 말하기를 "「시월지교(十月之交)」[76]와 「정월번상(正月繁霜)」[77]의 주(注)에서 8월과 4월로 한 것은 잘못이다. 두 시가 「소아(小雅)」에서 나오는데 어찌 유독 주나라의 달력만을 썼겠는가?"라고 하였다.[78]

또 말하기를 "『춘추』에, 봄에 얼음이 없고 가을에 보리가 없으며, 시월에 서리가 내려 콩이 말라 죽었다는 말은 모두 주나라의 달력이다. 주나라의 달력으로 기사(紀事)하고, 하나라의 철(책력)을 달 위에 붙였기 때문에 먼저 '춘(春)'을 쓰고 뒤에 '왕정월(王正月)'을 썼고, 순수(巡守)와 제사에는 하나라의 달력을 썼다"라고 하였다.

조방(趙訪)은 말하기를 "『춘추』가 비록 역사를 편수해서 경(經)으로 되었지만 오히려 그 대체는 지니고 있다. 시년(始年)을 '원년'이라 하고, 세수(歲首)를 '춘(春)'이라 하였으며 1월을 '정월'이라 하고, '정(正)'에다가 '왕(王)'을 더한 것은 모두 사문(史文)의 전(傳)을 따른 것이다. 다만 '왕정월(王正月)'을 해석한 것만이 국사의 기록에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왕의 정삭월(正朔月)은 주월(周月)이 되고 철은 주의 철이 된다는 말이다. 공씨(孔氏 : 孔穎達)가 '달이 바뀌면 봄이 옮겨진다'고 한 말이 이런 뜻이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춘하추동의 차례는 주나라의 달력을 따르고, 입춘(立春)과 입하(立夏), 입추(立秋)와 입동(立冬)의 절후[79]에는 하나라의 철을 따른다"라고 하였고, 또

---

76) 『시경』 소아(小雅), 「기부지십(祈父之什)」에 있다.

77) 위와 같음.

78) 自註 : 살피건대, 모시(毛詩 : 詩經) 「시월지교」의 주에 "주(周)의 10월은 하(夏)의 8월이다"고 하였고, 「정월번상」의 주에 "정월은 하(夏)의 4월이다"라고 하였으며, (공영달의) 소(疏)에 "'소공(昭公) 17년 여름 6월 갑술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춘추좌씨전』에 '축사(祝史 : 神明께 고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가 쓸 폐백을 청하자, 하자(夏子)가 막으며 「그만두십시오. 오직 정월 초하루의 음기(陰氣)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일식(日蝕)이 있을 때만 이에 폐백을 쓰고,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고, 태사(太史)가 「이 달에 지내야 합니다」'고 하였다. 『춘추』 소공 조(條)에서는 6월이라 쓰고, 『좌씨전』에서는 정월이라 썼으며, 그 안에서 태사(太史)는 「이 달에 지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나라의 6월이 정월이 되는 것이다. 주나라의 6월은 하(夏)의 4월이므로 여기에서의 정월이 하의 4월임을 알겠다. 정월이라 한 것은 건괘(乾卦)가 용사(用事)하는 정순양(正純陽)의 달이기 때문이다.* 『좌씨전』에서 '특미작(慝未作)'이라 일컬은 것은 음기(陰氣)가 아직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전(鄭箋 : 鄭玄注)에서 '순양(純陽)이 용사(用事)하다'라고 한 것이다" 주자(朱子)의 『시집전(詩集傳)』을 살펴보니, 「시월지교」에 대해 "10월이란 하나라의 달력으로 말한 것이니, 북두칠성 자루가 해방(亥方)을 가리키는 달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모장(毛萇)의 설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정월번상」에 대해서는 "정월은 하나라의 4월이다" 하였는데, 이는 모(毛)의 설을 따른 것이니, 『춘추』 소공 조의 '6월'을 합치면 역시 자연 하나라의 책력이 되기 때문이다.

* 1년 12개월을 『주역』의 괘에 맞춘 것으로, 동지(冬至)에 양효(陽爻) 하나가 처음 생기므로 일양지월(一陽之月)이 되고, 이후 차례대로 양효가 늘어나면 4월은 순양(純陽)인 건괘(乾卦)의 달이 된다.

"『급총죽서(汲冢竹書)』[80]에 「주월해(周月解)」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라의 책력은 모든 왕들이 함께 하는 것을 얻었다. 상(商)나라는 북두칠성의 자루가 축방(丑方)[81]을 가리키는 때로 정삭(正朔)을 삼았으니, 우리 주(周)도 정삭을 만들어 하·은·주의 삼통(三統)[82]을 전한다'고 하였으나, 그 가운데 민시(民時 : 백성의 농사철)를 경건하게 주는 것[83]과 순수(巡狩)와 제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하력(夏曆)을 따랐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태사공(太史公)은 은(殷)나라에 대해 '정삭(正朔)을 바꾸다'라고 했고, 주(周)나라에 대해서는 '정삭을 제정하다'라고 하였으며, 진(秦)나라에 대해서는 '연시(年始한 해의 처음, 歲初)를 바꾸다'라고 하였다. 은나라와 주나라는 개정한 달이 세수(歲首)가 되기 때문에 '정삭을 바꾸다', '정삭을 제정하다'라고 했지만, 진나라는 10월을 세수로 삼으면서 따로 하나라의 책력을 써서 달을 계산하기 때문에 '연시를 바꾸다'라고 했다. 그의 말이 너무도 자세하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진총(陳寵)[84]이 '양기(陽氣)가 처음 싹트자 난(蘭)과 사간(射干)[85], 운려(芸荔)의 응함이 있으니, 하늘은 그로써 바르게 되고 주(周)나라는 그로써 봄을 삼는다. 양기가 위로 통하자 꿩이 암컷을 찾아 울고 닭이 알을 낳으니[86], 땅은 그로써 바름을 삼고 은나라는 그로써 봄을 삼는다. 양기가 이미 지극해서 천지가 이미 교통하자 만물이 다 바루어지며 숨어 있던 벌레가 비로소 떨쳐나니, 사람은 그것으로 바름을 삼고 하(夏)나라는 그로써 봄을 삼는다. 대개 하늘은 자회(子會)에서 베풀어지고, 땅은 축회(丑會)에서 화(化)하며, 사람은 인회(寅會)에서 생겨난다. 삼양(三陽)이

---

79) 분(分)은 춘분과 추분을 말하고, 지(至)는 하지와 동지를 말하며, 계후(啓候)는 입춘과 입하를 말하고, 폐후(閉候)는 입추와 입동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 희공(僖公) 5년조 참조.

80) 중국 진(晉)나라 때 급군인(汲郡人)이 위(魏) 양왕(襄王)의 옛무덤에서 얻은 죽간(竹簡)을 말함. 『급총서(汲冢書)』라고도 하고 『죽서(竹書)』라고도 한다.

81) 북동(北東) 방향

82) 삼정(三正)과 같은 말. 하·은·주 삼대(三代)의 책력을 뜻한다. 하나라는 북두칠성의 자루가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때를 정삭으로 했으므로 인통(人統), 은(殷)나라의 정삭은 북두칠성의 자루가 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때인 지통(地統), 주(周)나라는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때인 천통(天統)이다.

83) 『서경』 「요전(堯典)」에 보인다. "이에 희씨(羲氏)·화씨(和氏)에게 명하여 호천(昊天)을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성신(星辰)을 역상(曆象 : 책력으로 기록하고 觀象하는 기구로 관찰함)하여 인시(人時 : 백성의 농사철)를 공경히 주게 하셨다(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84) 중국 후한 때 사람. 자는 소공(昭公). 광무제(光武帝)를 섬겨 정위(廷尉)에 이르렀고, 숙종(肅宗) 때에는 상서(尙書)가 되었다. 당시 정사를 너무 엄하게 펴자 진총이 상소문을 올려 너그러운 정책을 펼 것을 청했는데, 이 뒤로 후한의 풍속이 화평해졌다고 한다. 『후한서』 76권 참조.

85) 붓꽃과에 속하는 다년초. 뿌리는 하제(下劑)로 쓰임. 범부채.

86) 『예기』 「월령(月令)」 "雉雊鷄乳"

비록 미미하고 드러남의 차이는 있으나, 삼정(三正)은 다 봄을 말할 만하다'고 하였다. 진충의 이 말도 역가(曆家)가 서로 계승하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씨(何氏)[87]는 애공(哀公) 14년조의 전주(傳注)에서 '하(河) 북쪽에서는 겨울에 사냥[狩]을 했다고 말했는데, 기린을 잡은 일에 대해서 봄에 사냥을 했다고 말한 것은 대체로 노나라가 주(周)의 봄을 바꾸어 겨울로 한 것에 의거해서 주(周)의 정삭을 버리고 하(夏)나라의 책력을 행한 것이다'고 하였다. 하나라의 책력을 행하는 것으로 『춘추』를 말하는 경우는 대체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하씨(何氏)는 진실로 북두칠성의 자루가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때를 주(周)의 봄으로 삼았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봄에는(봄사냥에는) 수(狩)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도 함부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점이다.[88]

정자(程子 : 程顥)의 문인 유질부(劉質夫)[89]에 이르러서는 '주(周)나라 정월은 봄이 아니다. 천시(天時)를 빌어 뜻을 세웠을 뿐이다' 하고는 마침내 북두칠성의 자루가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때를 봄이라고 말하기는 마땅치 않다고 의심했다. 유(劉)의 이 말은 호씨(胡氏)가 하나라 철을 주나라의 달 위에 붙인다고 한 말의 근거이다.

선유(先儒)들은 『맹자』의 "『춘추』는 천자(天子)의 일인데 그것을 저술한 뜻을 전하는 게 없다. 오직 사대(四代)[90]의 예약(禮樂)이 백왕들의 대법(大法)이 됨을 짐작할 뿐이다"라고 한 대목을 보고서 마침내 춘추를 지은 본뜻이 맹자의 이 말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번양(番陽)[91]의 오중우(吳仲迂)[92]는 '만약 호전(胡傳)을 따른다면, 이는 주나라가 하나라의 책력에 근본해서 자월(子月)을 겨울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도리어 하나라의 책력을 행하지 않고 자월을 봄이라 하셨다'고 하였다. 하씨(何氏)의 설도 또한 오중우의 이 말과 다르다. 그러므로 주자(朱子)는 성인의 제

87) 중국 후한 때의 경학가 하휴(何休 : 129~182)를 말함. 자는 소공(邵公). 동중서(董仲舒)의 사전제자(四傳弟子)로, 육경(六經)을 정밀하게 연구하였다. 17년의 시간을 들여 『춘추공양해고(春秋公羊解詁)』를 완성하였으며, 또 금문가(今文家)인 이육(李育)의 설을 따라 『공양전』의 뜻을 펴고 『좌씨전』과 『곡량전』의 뜻을 반박하였다. 저서에 『공양묵수(公羊墨守)』와 『좌씨고황(左氏膏肓)』『곡량폐질(穀梁廢疾)』 등이 있으나 실전(失傳)되었다. 『후한서』「유림전(儒林傳)」 참조.

88) 사냥은 계절마다 다른 명칭을 쓴다. 봄사냥은 수(蒐), 여름사냥은 묘(苗), 가을사냥은 선(獮), 겨울사냥은 수(狩)라 한다.

89) 유현(劉絢)을 말함. 송나라 상산(常山) 사람. 질부(質夫)는 그의 자. 정호(程顥)의 문인으로 『춘추』에 정통하였다. 『송사』 권468 참조.

90) 우(禹)와 하·은·주 3대를 가리킴.

91) 현 이름.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파양현(鄱陽縣).

92) 중국 원나라 때 사람. 오우(吳迂)를 가리킴. '중우'는 그의 자이다. 벼슬길을 단념하고 강학(講學)에 전념해서 가당선생(可堂先生)이라 일컬어졌다. 저서에 『사서어록(四書語錄)』『오경발명(五經發明)』『공자세가(孔子世家)』 등이 있다. 『송원학안(宋元學案)』 권83권 참조.

작이 이처럼 어수선하게 뒤바뀌고 번잡하며 착란되고 법칙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어떤 이는 여전히 천고에 결정나지 않을 의문이라고 여기니, 그것은 『시경』『서경』『주례』『논어』『맹자』에서 언급한 시월(時月)을 다 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정(三正)이 민간의 풍속에 소통된 지가 오래되었다. 제후국의 역사기록에서는 천자의 정삭(正朔)을 써서 천하의 대순(大順)과 정삭의 반포를 나타냈으니, 정삭을 고하는 것이 한 체(體)가 되었다.

『시경』은 본래 노래이지만 또한 민간의 일을 말하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혹은 하나라의 달력을 써서 글이 풍속과 소통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서경』은 바로 왕조 사관이 천자의 말을 기록한 체인데, 혹은 달은 쓰고 철은 쓰지 않고, 혹은 철은 쓰고 달은 쓰지 않는다. 『주례』에 쓰인 정월과 정세(正歲)는 다 하나라의 달력인데, 시월(時月)을 드러내는 것은 또한 대부분 민간의 일이고, 순수(巡狩), 증향(烝享)이 하나라로부터 온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라의 철을 따랐다. 그러므로 책서(策書)로 고해서 일대(一代)의 제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논어』에서 '모춘(暮春)'[93]을 말한 것은 『시경』과 『서경』에서 '춘하(春夏)'를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민간 풍속에 통하는 일상적인 말이다. 『맹자』에서 '7, 8월 사이의 가뭄'[94], '11월에 도강(徒杠)이 이루어지며 12월에 여량(輿梁)이 이루어지면'[95]이라고 했고, 『좌씨전』에서는 '뒤에는 주나라가 달을 개정하고서도 오히려 예전 그대로 하였다'고 했다. 또 『죽서(竹書)』는 또한 진(晉)나라 곡옥장백(曲沃莊伯)[96]의 11년 11월은 노(魯)나라 은공(隱公)의 원년 정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

93) 『논어』「선진(先進)」에 보인다. "暮春者 春服旣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

94) 『맹자』「양혜왕 상(梁惠王上)」에 보인다.

95)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보인다. 자산(子産)이 정(鄭)나라의 정사를 다스릴 적에, 자기가 타는 수레를 가지고 진수(溱水)와 유수(洧水)에서 사람들을 건네주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로우나 정치를 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도다. 11월에 도강(徒杠)이 이루어지며 12월에 여량(輿梁)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물 건너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는다. 군자가 정사를 공평히 한다면 출행할 때에 사람들을 벽제(辟除)하는 것도 가하니, 어찌 사람마다 모두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위정자가 매양 사람마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 한다면 날마다 하여도 또한 부족할 것이다(子産 聽鄭國之政 以其乘輿 濟人於溱洧 孟子曰 惠而不知爲政 歲十一月 徒杠成 十二月 輿梁成 民未病涉也 君子平其政 行辟人 可也 焉得人人而濟之 故爲政者每人而悅之 日亦不足矣).

* 도강은 도보(徒步)로 다니는 자들이 건너는 작은 다리, 여량(輿梁)은 수레를 통하게 하는 큰 다리를 말함.

96)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환숙(桓叔)의 아들. 이름은 치(鱓). 진의 효후(孝侯)를 익(翼)땅에서

『죽서』는 바로 후인들이 하나라의 달력으로 구사(舊史)를 추기(追記)한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와 다르지만 또한 하나라의 달력으로 『춘추』의 시월(時月)을 어지럽히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 "『소대기(小戴記)』[97]의 맹헌자(孟獻子)의 말에 '정월 동지에는 상제께 일이 있을 수 있고, 7월 하지에는 선조에게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동지가 주나라 달력의 봄 정월에 있고, 하지는 주나라의 달력으로 가을 7월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명당위(明堂位)」[98]에서 말한 '맹춘'은 바로 북두칠성의 자루가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달이고, '계하(季夏) 6월'은 바로 사방(巳方)[99]을 가리키는 달이다. 『예기』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춘추임에랴!" 하였다.

사백선(史伯璿)[100]은 "월수(月數)에 대한 설을 살펴보니, 주자(朱子)는 고쳤다고 하였고, 채씨(蔡氏 : 蔡沈)[101]는 고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시경』 「칠월(七月)」장[102]으로 고찰해 보면, '7월·9월'의 류는 하나라의 달력이고, '일양(一陽)의 날·이양(二陽)의 날'은 북두병이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달로부터 수(數)를 일으켰고, '바람이 차갑고(觱發) 기온이 차가운[栗烈]'[103] 기후로 징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라의 달력과 주나라의 달력이 한 시(詩) 가운데 함께 보이니, 이것으로 달수가 바뀌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달수를 바꾸지 않았다는 채씨의 설이 아마도 바꿨다는 주자의 설보다 타당하지 못하고, 이들과 가까운 시대의 진정우(陳定宇)[104]와 장부언(張敷言)의 논의가 가장 분명하다" 하였다.

시해하고 진인들의 공격을 받아 곡옥(曲沃)땅으로 들어갔다. 후에 다시 진을 공격하자, 주(周) 평왕(平王)이 괵공(虢公)을 시켜 곡옥을 정벌케 하였다.

97) 『소대례기(小戴禮記)』의 약칭. 중국 한(漢)나라 초에 대성(戴聖)이 전한 『예기』. 대성의 숙부인 대덕(戴德)이 쓴 것은 '대대례(大戴禮)'라 한다.

98) 『예기』의 한 편명.

99) 24방위의 하나. 동남방.

100) 중국 원나라 때 학자. 자는 문기(文璣). 저서에 『사서관규(四書管窺)』 『변론제경사(辨論諸經史)』 등이 있다. 『송원학안(宋元學案)』 권65 참조.

101) 중국 남송 때의 학자 채침(蔡沈 : 1167~1230)을 말함. 자는 중묵(仲默). 원정(元定)의 아들이다. 어려서 주희(朱熹)에게 배웠다. 나이 30에 과거공부를 버리고 오로지 이학(理學)을 연마하면서 구봉(九峯)에 은거하였는데, 학자들이 '구봉선생'이라 일컬었다. 『송사』 「채원정전(蔡元定傳)」에 부기되어 있다.

102) 『시경』 빈풍(豳風)에 있다.

103) 위와 같음.

104) 중국 원나라 때 사람 진력(陳櫟)을 말함. 자는 수옹(壽翁). 당호(堂號)를 정우(定宇)라 했던 까닭에 학자들이 '정우선생(定宇先生)'이라 불렀다. 저서에 『상서집전찬소(尙書集傳纂疏)』 『역조통략(歷朝通略)』 등이 있다. 『원사(元史)』 권189와 『송원학안(宋元學案)』 권70 참조.

진정우는 "'환공(桓公) 4년이다. 봄 정월에 공이 낭(郎)에서 사냥(狩)을 하다'[105]라는 경문(經文)에 대해 두씨(杜氏)[106]의 주에 '겨울 사냥을 수(狩)라 한다. 주나라의 봄은 하나라의 겨울이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또 "'환공 13년이다. 여름에 비포(比蒲)에서 크게 사냥을 하다'[107]라는 경문에 있어서는, 봄 사냥을 '수(蒐)'라 하는데 공자께서는 단지 '여름에 사냥(蒐)하다'라고만 쓰셨다"고 하였다.

또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에서는 '왕정월(王正月)'이, 북두병이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달이 아니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였지만 '춘왕정월(春王正月)'의 '춘'자에 대해서는 하나라의 철을 주나라 달 위에 붙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찌 두 나라의 달을 연결해서 하나라의 철을 주나라 달 위에 얹을 리가 있겠는가? 공자께서 하나라의 철을 행하려 하신 것은 대개 안자(顔子 : 顔回)가 만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대답하신 것일 뿐이다.[108] 어찌 단지 하나라 책력의 봄이 있는 줄만 알고 상나라의 책력과 주나라 책력의 봄이 있는 줄을 모르겠는가?" 하였다.

장부언(張敷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춘추』를 읽다가, '춘왕정월(春王正月)' 대목에 이르러서 가만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다. 저 '정월'이란 진실로 왕의 정월이고, 후세 역사서에서 정월이라 쓴 것은 바로 당시 왕의 정월이다. 어찌 왕을 가칭(假稱)했으리오? 내 생각에 반드시 이른 바 정월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왕이라 일컬어 구별한 것이다.

희공(僖公) 5년의 기사를 읽다 보니, 진(晉)나라 헌공(獻公)이 괵(虢)을 칠 때, 적을 이길 수 있는 때를 복언(卜偃)[109]에게 묻자, 9월과 10월 사이라고 대답을 했다. 동요

105) 『춘추』 환공 4년조 참조.

106) 중국 진(晉)나라 때 학자 두예(杜預 : 222~284)를 말함. 자는 원개(元凱). 하남윤(河南尹)과 탁지상서(度支尙書) 벼슬을 역임했다. 백성들의 부역을 징발해서 수리(水利)를 닦아 1만 이랑의 밭에 물을 대었고, 그로 인해 두부(杜父)라 일컬어졌다. 태강(太康) 원년에 군대를 이끌고 오(吳)나라를 멸하고, 그 공으로 당양현후(當陽縣侯)에 봉해졌다. 박학하고 지략이 많아서 두무고(杜武庫)라 일컬어졌다.. 스스로 '좌씨벽(左氏癖)'이 있다고 하였으며, 저술로 『춘추좌씨전집해(春秋左氏傳集解)』가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좌씨전』 주해서이다.

107) 『춘추』 소공(昭公) 11년조의 오기(誤記).

108) 『논어』 「위령공(衛靈公)」에 보인다.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라의 철을 행하며,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나라의 면류관을 쓰며, 음악은 소무(韶舞)를 할 것이요"(顔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

109)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 복서(卜筮)에 밝았다.

와 성상(星象)의 징험으로 고증을 해 보면, 이 시기는 다 하나라 달력의 10월이다. 그런데 『좌씨전』에서는 바로 12월에 있었다고 썼으니, 『좌씨전』에서 달을 바꾼 것이 분명하다.

애공(哀公) 30년[110]에 강현노인(絳縣老人)이 '신이 태어난 날은 정월 갑자일(甲子日) 초하루로 지금까지 445번째의 갑자일이 지났는데, 그 마지막 갑자일은 오늘까지 삼분의 일만 지났습니다'고 하였는데, 그가 말한 '정월'도 하나라의 달력이다. 노인이 센 수를 살펴보면 바로 73년 26,660일이므로,[111] 마땅히 축월(丑月)[112] 계미(癸未)에 끝나야만 하는데도, 『좌씨전』에서는 2월에 있었다고 썼다.[113] 그러므로 『좌씨전』이 달을 바꾼 게 분명하다.

이로 인해 주나라의 정삭(正朔)과 월수(月數)를 알 수 있으니, 반드시 조근(朝覲)[114]과 방문, 정삭을 반포하고 천시(天時)를 일러주는 일로 역사책에 기록되는 것은 당시 왕의 월수를 쓰고, 민간의 풍속과 세시에 주고받는 대화는 모두 인월(寅月)로 수를 일으켰으니, 후세와 마찬가지로 예전대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에서 '왕정월(王正月)'을 써서 민간의 풍속과 달리 한 것은 의심할 것 없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 유자(儒者)들의 논의는 각각 자신들의 소견을 고집해서, 달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월(改月)하지 않은 글을 만나면 그것을 빠뜨려 쓰지 않고, 달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월의 뜻을 만나면 숨기고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끝내는 상호간에 분명하게 소통해서 학자들의 의혹을 제거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주공(周公)이 『주례』를 지을 때, 정월 뒤로는 다시 정세(正歲)라고 말하지 않았다.[115] 그러니 정세를 말하는 자가, 하나라가 사시(四時)의 바름을 얻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북두병이 자방(子方)과 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

110) 『춘추』 양공(襄公) 30년의 잘못이다.
111) 自註 : 살피건대 이 73년의 날수는 내가 따로 고증해 둔 것이 있다.
112) 음력 12월의 별칭.
113) 自註 : 살피건대, 하력(夏曆) 정월은 12월을 기준으로 하니 그 수는 12월에 다한다.
114) 신하가 아침에 천자를 배알하는 것.
115) 自註 : 그 자주(自註)에 "능인(凌人 : 氷政을 담당하는 관리)은 정세(正歲) 12월에 얼음을 깨뜨리게 한다"*라고 한 말이 가장 참고할 만하다. 이미 인월(寅月)로 정세를 삼았으니 자월(子月)은 임시방편이 된다"고 하였다.
* 『주례』 천관(天官) 「능인(凌人)」조 참조.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훈(伊訓)」[116]의 '원사(元祀 : 元年) 12월'에 대해, 채씨(蔡氏 : 蔡沈)가 은(殷)의 정월이라 한 것은 과연 어떤 달인가?'

'북두병이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달을 말한다'[117]

'그렇다면 사왕(嗣王)을 받들어 공경히 할아버지를 뵈온 것[118]이 정월에 있지 않았고, 『서경』「태갑(太甲)」에서 이윤(伊尹)[119]이 사왕을 받들어 박(亳)땅으로 돌아가게 한 것도 정월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가?'

'사왕(嗣王)이 면복(冕服)을 입고 고명(顧命)을 살피는 일은 진실로 평상의 의례인데, 어찌 정월을 기다렸겠는가? 게다가 왕을 동궁(桐宮)으로 가게 한 일[120]은 신하로서 큰 변고의 일이라 아침에 스스로 원망하고 저녁에 마땅히 다시 불러야 하므로 더욱 정월을 기다릴 수 없었다. 하물며 정월을 단지 12월이라고만 써서 『서경』「우서(虞書)」의 정삭(正朔)으로 예를 들었으니 은나라만은 늘 정삭이 아니란 말인가?'

'진(秦)나라는 북두병이 해방(亥方)을 가리키는 때를 정월로 하였으니, 오히려 10월이라 칭하는 것도 같지 않은가?'

'진나라 책력의 오류를 어찌 법으로 취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진(晉)나라가 하력(夏曆)을 썼기 때문에 복언(卜偃)의 말과 강현노인(絳縣老人)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라고 한다'

'이 또한 그렇지 않다. 강현노인의 말은 진(晉)나라 문백(文伯) 뒤에 있었고, 혹 복언의 말이 있었더라도 이는 바로 헌공(獻公) 때의 일이다. 이때는 진문백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서 주나라에 조회하고 공물을 바칠 겨를도 없었다. 그런데 어찌 전대의 문물과 제도를 바꾸고[121] 하나라

116) 『서경』의 한 편명.

117) 自註 : 살피건대, 은나라는 북두병이 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달을 정월로 삼는다. 그러므로 12월은 북두병이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달이다.

118) 『서경』「이훈(伊訓)」에 보인다.

119) 중국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신하. 이름은 지(摯). 본래 탕임금의 처가쪽의 노예였으나 후에 탕임금이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치는 일을 도와 은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탕임금의 사후 탕의 손자 태갑(太甲)이 탕의 법제를 무너뜨리자, 이윤이 그를 동궁(桐宮)으로 내쫓았다가 3년 후에 다시 맞이해서 그 지위를 회복케 함하였다 『상서(尙書)』의 서(序)에서는 이윤이 「여구(汝鳩」「여방(汝方」「탕서(湯誓)」「함유일덕(咸有一德)」「이훈(伊訓)」「사명(肆命)」「조후(徂后)」「태갑(太甲)」 등 여러 편을 지었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의 『상서』에는 「탕서」「함유일덕」「이훈」「태갑」 등만 남아 있다.

120) 『서경』「태갑」에 보인다.

121) 개물(改物) : 천하를 소유함에 정삭(正朔)을 바꾸고 복색(服色)을 바꾸어 전대의 문물과 제도

의 달력을 쓸 수 있었겠는가!'고 하였다"

사백선(史伯璿)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씨(張氏)의 이 말은 진씨(陳氏)의 결점을 보충할 만하다. 혹 상(商)나라는 북두병이 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달로 세수(歲首)를 삼는다고 하였지만, 『서경』에 '원사(元祀) 12월 을축일(乙丑日)에 이윤(伊尹)이 선왕에게 제사할 적에 사왕(嗣王)을 받들어 공경히 할아버지를 뵈었다'[122]고 하고, '3년 초하루에 이윤이 면복(冕服)으로 사왕(嗣王)을 받들어 박읍(亳邑)으로 돌아왔다'고 하였으니, 상나라가 비록 축월(丑月)로 정월을 삼기는 하지만 인월(寅月)로 수를 일으키는 것이 바뀐 적은 없다.

내 생각에, 채전(蔡傳)[123]이 장씨(張氏)의 이 말을 미루어 진실로 이와 같이 하였지만, 장부언(張敷言)의 말은 이치상 막히는 곳이 있는 것 같다. 즉위하는 해는 마땅히 '원사(元祀)'라고 일컬어서는 안 된다.[124]

전왕(前王)이 돌아간 해에 개원(改元)[125]하는 것은 난세(亂世)의 일이고, 이윤(伊尹)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례』로 상나라를 고증해 보면 그러할 뿐이다. 그러나 삼대의 예는 주나라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졌으므로 주나라 이전에도 다 주의 제도와 같았을 것임을 알겠다. 순임금과 우임금의 즉위를 『맹자』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마땅히 요순이 돌아간 3년 뒤에 있었다.

기타 하나라와 상나라 이전의 예는 주나라 때 크게 갖추어진 것만 못한 점이 있으니, 어찌 소씨(蘇氏 : 蘇軾)의 말로만 한정하겠는가?[126] 주의 제도를 미루어 상나라를 따져보는 것은 『서경』「고명(顧命)」에서 『춘추』의 예를 미루어 소공(召公)을 의론한 것과 흡사하다.[127]

소공(召公)은 친히 주공(周公)과 함께 관료가 되어 주공에게 공경과 신뢰를 받았다. 그러니 예를 아는 것이 바로 소씨(蘇氏)의 판단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를 변경하는 것을 말함.

122) 『서경』「이훈」에 보인다.

123) 채침(蔡沈)의 주.

124) 自註 : 사백선(史伯璿)의 자주(自註)에 "혹 이 말로 장씨의 견해를 깨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언급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살피건대 12월로 상나라 달력의 자월(子月)을 삼는다면 이 사왕(嗣王)은 전왕(前王)이 돌아간 해에 즉위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원사(元祀)'라 칭할 수 있겠는가?

125) 연호를 고치는 일.

126) 自註 : 살피건대, 왕이 돌아간 해에 개원(改元)한다고 운운한 것은 소씨(蘇氏)의 말이다.

127) 自註 : 살피보건대, 소씨는, 강왕(康王)이 가복(嘉服)으로 제후를 만나고, 또 황옥(黃玉)과 백(帛)의 폐백을 받아 드리운 것은 예가 아니라고 여기고, "만일 주공(周公)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였다.

소씨가 후대로 전대(前代)를 미루어 본 것은 지당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채씨가 '춘정(春正)'을 끌어다 달수를 바꾸지 않은 것의 증명으로 삼은 것도 후대로 전대를 미루어 본 것이다. 그 논의의 득실에 대해서는 장부언(張敷言)이 이미 분별했다"

또 말하였다. "부자의 '하나라의 철(책력)을 행한다'라는 한 마디 말로 증명해 보면, '시(時)' 한 글자는 정삭(正朔)과 월수(月數)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춘하추동의 사계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미 이른바 하나라의 철이 있다고 말했다면 반드시 이른바 상나라의 철, 주나라의 철도 있는 것이다.

안자(顔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묻자, 부자께서 하나라의 철을 행하려 하셨다면 당시에 행해지던 것이 꼭 하나라의 철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라의 철이 아니었다면 주나라의 철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만약 주나라의 철의 인방(寅方)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라의 철과 다름이 없다면 또한 어찌 꼭 '하나라의 철을 행한다'고 말씀하셨겠는가?"

또 "『서경』「무성(武成)」의 '1월 임신일(壬申日)'에 대해 두 공씨(孔氏)[128]와 임씨(林氏)는 모두 자월(子月)이라고 여겼지만 채씨(蔡氏)는 그 설을 따르지 않았다. 내 생각에, 정월이라 하지 않고 1월이라 한 까닭은, 당시 한창 거사중이라 상나라의 명(命)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주가(周家)가 정월의 명명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사관(士官)도 후대를 따라 전대를 고치는 뜻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칠월(七月)」시의 '일양(一陽)의 날'과 똑같으므로 저 『시경』을 미루어 『서경』의 이 말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주홍모(周洪謨)[129]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漢)나라 공안국(孔安國)과 정강성(鄭康成 : 鄭玄)은 주나라 사람들이 시월(時月)을 고쳤다고 여겼고, 송(宋)나라의 정이천(程伊川)과 호안국(胡安國)은 주나라 사람들이 달은 고쳤지만 철은 고치지 않았다고 여겼다. 유독 구봉(九峰) 채씨(蔡氏 : 蔡沈)만은 철을 바꾸지 않았고 달도 바꾸지 않았다고 여겼다.

원나라 유자(儒者)인 오중우(吳仲迂)·진정우(陳定宇)·장부언(張敷言)·사백선(史伯

128) 『서경』의 주(注)를 쓴 공안국(孔安國)과 공영달(孔穎達). 공안국은 중국 전한 사람으로 공자의 후예이다. 신공(申公)에게서 『시경』을 전수받았고, 복생(伏生)에게서 『서경』을 전수받았다. 간대부(諫大夫)와 임회태수(臨淮太守)를 지냈다.

129) 명(明)나라 사천(四川) 장녕(長寧) 사람. 자는 요필(堯弼)이고, 시호는 문안(文安). 정통(正統)년간에 진사가 되어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냄. 『명사(明史)』 권184 참조.

璿)·오연징(吳淵澄)·왕극관(汪克寬)[130] 등에 이르러서는 멀리 한(漢)나라 유자들의 오류를 추종해서 채씨(蔡氏)의 설을 극력 비난하면서, 채씨의 설로 『서경』을 말한다면 따를 수 있지만 『춘추』를 말한다면 따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역』 『서경』 『시경』 『주례』 『춘추』 『논어』 『맹자』 및 『급총주서』 『사기』 『한서』로 여러 유자들의 논변의 실책을 증명할 수 있다"

『주역』 : 살피건대 임괘(臨卦) '8월'로 증거를 삼았다.

『서경』 : 무왕(武王)이 주(紂)를 벌한 것은 자월(子月)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주나라의 시와 『주례』에서 알 수 있다.[131]

『시경』 : 어떤 사람은 '일양(一陽)의 날(一之日)' '이양(二陽)의 날(二之日)'이 자월(子月)로 수(數)를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 잘은 모르겠으나, '일지일(一之日)'은 일양(一陽)의 달[132]이고 '이지일(二之日)'은 이양(二陽)의 달이지만 달을 센 것은 아니다.[133]

『주례』 : 신안(新安) 왕씨(汪氏)는 "『주례』에서 정월이라 말한 것은 자월(子月)을 가리키고 세종(歲終)이란 축월(丑月)을 가리키며, 정세(正歲)는 인월(寅月)을 가리킨다. 만일 주나라가 이미 자월(子月)로 정월을 삼았다면 주력(周曆)의 해월(亥月)이 세종(歲終)이 되는 게 분명하다. 어찌 갑자기 북두병이 축방(丑方)을 가리키는 다음 달로 세종(歲終)을 삼겠는가?"라고 하였다.[134]

---

130) 중국 원나라 말기의 학자. 왕화(汪華)의 손자로 자는 덕보(德輔), 중천(仲遷)이다. 오중천(吳仲遷)을 따라 배워서, 원나라 태정(泰定) 연간에 향시(鄕試)에 합격했다. 그러나 후에 과거공부에 마음을 두지 않고 경학(經學)에 전념하니, 학자들이 환곡선생(環谷先生)이라 일컬었다. 홍무(洪武) 초에 『원사(元史)』을 편수하는 데 초빙되었다. 저서에 『춘추경전부록찬소(春秋經傳附錄纂疏)』와 『정주역전의음고(程朱易傳義音考)』 『시집전음의회통(詩集前音義會通)』 『예경보일(禮經補逸)』 『환곡집(環谷集)』 등이 있다.

131) 自註 : 살피건대, 주나라 시와 『주례』는 다 하정(夏正)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고, 「하서(夏書)」의 "삼정(三正)을 태만히 하여 버리다"*라는 말은 그 뜻이 삼극(三極 : 三才)과 삼강(三綱)과 같은 류라고 생각한다.
* 『서경』 하서, 「감서(甘誓)」에 보인다.

132) 동짓달. 동지(冬至)에 양효(陽爻) 하나가 처음 생기기 때문임. 주역의 괘로는 복괘(復卦), 섣달은 이양(二陽)의 달로 임괘(臨卦), 정월은 삼양(三陽)의 달로 태괘(泰卦), 2월은 사양(四陽)의 달로 대장괘(大壯卦), 3월은 오양(五陽)의 달로 쾌괘(夬卦), 4월은 순양(純陽)의 달로 건괘(乾卦), 5월에는 음효(陰爻) 하나가 처음 생기는 구괘(姤卦), 6월은 이음(二陰)의 달로 둔괘(遯卦), 7월은 삼음(三陰)의 달로 비괘(否卦), 8월은 사음(四陰)의 달로 관괘(觀卦), 9월은 오음(五陰)의 달로 박괘(剝卦), 10월은 순음(純陰)의 달로 곤괘(坤卦)이다.

133) 自註 : 또 『시경』 「출진(出車)」의 "봄해가 길고 긴지라(春日遲遲)"와 「사월(四月)」의 "가을날이 쌀쌀해지는지라(秋日凄凄)"와 "사월(四月)에 여름이 되거든(四月維夏) 6월에 더위가 물러가느니라(六月徂暑)", 「소명(小明)」의 "2월 초하루였는데(二月初吉)"를 끌어다 주나라가 시월(時·月)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춘추』: "춘왕정월(春王正月)"에 대해 정자(程子)는 "주나라의 정월은 봄이 아니다. 천시(天時)를 빌어다 뜻을 세웠을 뿐이다"고 하였고, 호씨(胡氏)는 "북두병이 자방(子方)을 가리키는 달은 봄이 아니다. 하나라 철(책력)을 주나라 달위에 붙였다"고 하였다. 주자(朱子)도 "주나라 사람들이 달은 고치지만 천시(天時)를 바꿀 수는 없다. 『춘추』의 월수(月數)는 바로 노(魯)나라 역사의 옛 글이지만, 사시(四時)의 차례는 공자의 은미한 뜻이다"고 하였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달은 고쳤지만 철은 고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금년의 11월로 정월을 삼아서 중동(仲冬)에 매어놓고, 다음 해의 10월로 12월을 삼아서 맹동(孟冬)에 매어 놓는다면 맹·중(孟·仲)이 그 차례를 잃게 된다. 이것이 어찌 성인께서 네 계절을 평균해서 질서지어준 뜻이겠는가? 가당(可堂) 오씨(吳氏)[135]는 "주나라 사람들은 개월(改月)했을 뿐만 아니라 철을 바꿔 그 해를 가지런히 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한(漢)나라 유자들의 오류를 답습한 것이다. 신안(新安) 왕씨(汪氏)도 "노(魯)나라 역사를 『춘추』라고 명명하는 것은 맨처음에 '춘왕정월(春王正月)'을 쓴 것과 마찬가지이다.[136]

이는 주력周曆이니, 이미 자월(子月)로 바꿔 봄을 삼은 것이다"하였고, 또 "주나라는 자월(子月)로 세수(歲首)를 삼았는데, 『춘추』에서는 인월(寅月)로 정월을 삼아서 매년 자축월(子丑月)을 절단해 전년(前年)으로 옮긴다면 『춘추』 242년의 일은 다 당시의 달과 날이 아니다. 성인께서 어찌 그렇게 하셨겠는가?"라고 하였다.[137]

주나라의 정삭은 자월(子月)로 세수(歲首)를 삼지만 역법으로는 그대로 인월(寅月)을 처음으로 한다. 다만 노사(魯史)의 기년(紀年)이 반드시 겨울 11월에 시작하는 것은 정삭을 따르기 때문이고, 『춘추』의 기년이 '춘왕정월(春王正月)'에서 시작하는 것

---

134) 自註 : 또 "중동(仲冬)에는 양목(陽木)을 베고 중하(仲夏)에는 음목(陰木)을 베다"*라는 말과 "능인(凌人)은 12월에 얼음을 베게 한다"**는 말로 증명할 수 있다.
* 『주례』 지관(地官), 「산우(山虞)」에 나온다. 양목(陽木)은 봄과 여름에 잘 자라는 나무, 혹은 산의 남쪽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하고, 음목(陰木)은 가을과 겨울에 잘 자라는 나무를 말하거나 산의 북쪽에서 자라는 나무를 말한다.
** 『주례』 천관(天官), 「능인(凌人)」에 나온다.

135) 중국 원나라 때 학자 오징(吳澄)을 말함. 자는 유청(幼淸). 초려선생(草廬先生)이라 일컬어진다. 성학(聖學)의 공부에 힘써서 지대(至大) 초에 국자감사업(國子監司業)이 되고, 한림학사(翰林學士)로 전직되었다. 태정(泰定) 초에 경연(經筵)의 강설(講說)을 주관했고, 『영종실록(英宗實錄)』의 편수를 총괄하였으며, 그 일이 이루어지자마자 병으로 귀향하였다. 귀향해서도 강학(講學)에 힘쓰자 사방에서 학도들이 모여들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136) 自註 : 살피건대, '춘왕정월(春王正月)' 이란 말은 필삭(筆削)을 거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137) 自註 : 왕씨의 말은 여기까지이다.

은 후세에 법을 드리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는 노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 철과 달을 바꾼 적이 없고, 단지 편년(編年)에서 시작하는 달이 같지 않게 될 따름이다.

노나라가 이미 주의 정삭을 받들었다면 노공(魯公)의 즉위는 다 마땅히 정삭으로 행해야 하건만 11월에 대해서 어째서 그대로 정월이라고 쓰는가?

『주례』를 살펴보니, 조근(朝覲)이나 회동(會同)·순수(巡狩)·제향(祭享) 등 나라의 모든 대사(大事)에는 다 하정(夏正)을 따랐고 처음에는 정삭의 달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서경』에서 4월에 성왕(成王)[138]이 죽자 그 열흘 뒤에 강왕(康王)이 즉위했다고 기재한 것[139]도 정삭의 달을 쓰지 않았으니, 노공(魯公)의 즉위를 어찌 반드시 정삭으로 행했겠는가? 그러므로 『춘추』에서의 즉위가 정월에 기재된 것이 일곱 경우이고 6월에 기재된 것이 한 경우이니, 각각 실제 일을 들어 쓴 것이다.

예컨대 "은공(隱公) 9년 3월 계유일에는 큰 비가 오고 우레가 쳤다. 또 경진일에는 크게 눈이 내렸다. 비가 3일 이상 내리는 것을 장마라고 한다"[140]고 했다. 북두병이 진방(辰方)을 가리키는 달[141]에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은 진실로 마땅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레와 비가 교차되어 일어나는 게 이미 다 3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상적이지 않고 과도하게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또한 진(晉) 태시(泰始) 6년(270) 6월에 큰 비가 내려 황하(黃河)와 낙수(洛水)가 다 넘쳐 4천여 가를 휩쓴 일과 같다. 그러니 『춘추』에 '큰 비가 내리다'라고 쓰인 것이 꼭 이와 같지 않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환공(桓公) 8년 겨울 10월에 눈이 내리다", "희공(僖公) 3년 겨울에 크게 우박이 내리다", "4년 정월에 크게 우박이 내리다"고 했다. 환공 8년에 눈이 내렸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혹 빠진 글이 있는 듯하다. 아마도 '눈이 내리다[雨雪]'는 말 위에 마땅히 대자(大字)가 있어야 할 것이니, 그것은 희공 10년 겨울에 '크게 눈이 내리다[大雨雪]'는 말과 같다. 눈이 내린 것이 비록 제 시기에 맞았을 지라도 너무 과도하게 내렸다면 또한 이상한 일이 된다. 이것은 한(漢)나라 원수(元狩) 원년(B.C.122) 겨울 12월에 크게 눈이 내려서 백성들이 대부분 동사했던 일과 같다. 그러니 어찌 『춘추』에서 '크게 눈이 내리다'고 쓴 것이 이 한(漢)나라의 기록과 같지 않다고 장

138) 주(周)나라 제2대 왕. 이름은 송(誦)으로 무왕(武王)의 아들이다.
139) 『서경』「고명(顧命)」에 보인다.
140) 『춘추』 은공(隱公) 9년조에 나온다.
141) 음력 3월을 가리킴.

담하겠는가?

우박이라는 것에 이르러서는, 음양이 화(和)하면 서리·눈·비·이슬이 되지만, 음양이 화하지 않으면 큰 우박이 된다. 그것은 또한 한(漢)나라 원봉(元封) 3년(B.C.108) 12월 말 머리처럼 큰 우박이 내렸다는 것과 같으니, 『춘추』에서 '크게 우박이 내리다[大雨雹]'고 쓴 것이 이것과 다르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환공 14년 봄 정월에 얼음이 없었다고 하였고, 성공(成公) 원년 2월에 얼음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 성공 12년 정월에 얼음이 없다고 하였다. 왕씨(汪氏)는 "만일 얼음을 꺼내려는데 얼음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마땅히 항상 2월이어야지 정월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만약 얼음을 보관하려는데 얼음이 없으니 없다고 썼거나 혹 얼음을 꺼내 쓰는데 얼음이 없으니 없다고 썼다면 또한 어찌 기사가 잘못된 것이겠는가?

주나라 사람들은 12월에 얼음을 캐서 정월에 얼음을 보관소에 넣고 2월에 얼음을 꺼낸다. 지금 정월에 얼음이 없다는 말을 만약 11월이었다고 한다면, 11월에 얼음이 없지만 12월에는 얼음이 있으니, 또한 무슨 해가 되겠는가? 이 11월에 얼음이 없는 것은 진실로 쓸 만한 일이 아니다.

요컨대, 정월에 얼음이 없다는 것은 얼음을 보관할 달에 보관할 만한 얼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니, 겨울에 얼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만하다. 또 2월에 얼음이 없었다는 것은 중춘(仲春)에 "어린 양을 신에게 드리고 빙고(氷庫)를 열어 얼음을 꺼내서 먼저 종묘(宗廟)에 바치는데"[142], 지금 종묘에 바칠 때를 당해서 얼음이 없다면 뒤의 제사에도 얼음이 없다는 것을 알 만 하다. 능음(凌陰)[143]에 종묘에 바칠 얼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얼음이 없다고 말한 것은 성인(聖人)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꺼리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춘추』가 일을 따라 써서 본보기를 드리우는 법이다.

"정월에 비가 내렸는데 나무가 얼었다"[144]는 대목에 대해, 공씨(孔氏 : 孔穎達)는 "중동(仲冬)에는 때로 아직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 비가 나무에 붙어 얼음이 된다는 것은 추위가 심해서 절도에 지나친 것을 기록한 것이다"고 하였다. 노나라 땅이 중

142) 『예기』「월령(月令)」에 보인다.
143) 얼음창고. 『시경』 빈풍(豳風), 「칠월(七月)」에 "이양(二陽)의 날에 얼음을 쿵쿵 깨어 삼양(三陽)의 날에 빙고(氷庫)에 넣나니"(二之日鑿氷冲冲 三之日納于凌陰)이라 하고, 전(傳)에 "능음은 얼음집이다"(凌陰 氷室也)고 하였다.
144) 『춘추』 성공(成公) 16년조에 나온다.

동에 지극히 추워 눈만 내리고 비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비가 내려서 얼음이 되었다면 그것 또한 지나친 게 되지 않으니, 어찌 이상한 일이라 하겠는가?

필시 맹춘(孟春)의 달에 삼양(三陽)이 열리고 펴질 때[145]인데도 오히려 비가 내려 나무가 얼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이(記異)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위(魏)나라 황초(黃初) 6년(225) 정월에 비가 내려 나무가 나무가 얼었고 군(郡)의 적들이 일어났다고 한 것과 같다. 그러니 『춘추』에서 비가 내려 나무가 얼었다고 쓴 것이 이것과 같지 않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장공(莊公) 7년 가을에 홍수가 나서 보리싹[146]이 없었다". 4월에 보리를 수확할 때[147]가 되면 이미 보리를 베기 시작하고, 5월이 되면 완전히 다 벤다. 『춘추』 경문(經文)에서 가을에 보리싹이 없다고 말한 것은 칠월에 홍수가 나서 싹이 이미 물에 잠겨서 가망이 없고, 보리의 이로움도 오래지 않아 모두 다해 버릴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보리싹이 없다고 말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장공(莊公) 28년 겨울에 "보리와 벼가 많이 자라지 못했다"고 한 것과 같다.

정공(定公) 원년 10월에 서리가 내려 콩이 말라죽었다. 여러 재앙과 이변들에 대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오직 이 기록만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아마도 빠진 글이나 오자(誤字)가 있는 듯하다. 예컨대 '군씨(君氏)'와 '곽공(郭公)'[148]같은 종류이니, 진화(秦火)[149]의 나머지와 한(漢)나라의 예서(隸書)[150]가 유행한 뒤로 그 기록에 잘못이 없었을 것이라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진정우(陳定宇)는 "'봄에는 수(蒐), 여름에는 묘(苗), 가을에는 선(獮), 겨울에는 수(狩)라는 사냥을 하다'[151]라는 말은 사시(四時) 사냥의 정해진 이름이다"고 말했다. 진씨는 이해할 수 있는 곳만을 인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곳은 감히 인용하지 못했다.

---

145) 『주역』에 정월이 태괘(泰卦)가 되는데, 태괘는 아래에 삼양(三陽)이 있다.

146) 보리의 싹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보리와, 모든 곡식의 싹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뒤의 내용으로 보아 '보리싹'이라고 해석한 듯하다.

147) 농력(農曆)의 4월을 맥추(麥秋)라고 하니, 그것은 보리를 거두는 때를 말함. 『예기·월령』에 "미초(靡草-겨울에 생겼다가 여름에 말라죽는 풀)가 말라죽고, 보리가 익게 된다(靡草死 麥秋至)라는 말이 있음.

148) 모두 『춘추』의 경문(經文)에 나오는 말이나 명확한 뜻을 해석할 길 없어서 궐문(闕文)이거나 오자(誤字)라고 보는 대목. '곽공(郭公)'은 장공(莊公) 24년조에 보인다.

149) 진시황(秦始皇)이 천하의 전적(典籍)을 불사른 일. 분서갱유(焚書坑儒).

150) 한문 서체(書體)의 하나. 전서(篆書)의 자획을 간략하게 고친 것이다. 한(漢)나라 때에는 다시 고쳐 팔분(八分)이라고 하였으나, 송(宋)나라의 구양수(歐陽修)가 그의 『집고록(集古錄)』에서 이를 예서(隸書)라고 하였다.

151) 『춘추좌씨전』 은공(隱公) 5년조.

『춘추』에서 '수(狩)'를 쓴 곳은 네 군데이고, '수(蒐)'를 쓴 곳은 다섯이다. "환공(桓公) 4년 봄에 낭(郎)에서 사냥하다(春狩于郎)", "애공(哀公) 14년 서쪽에서 사냥하다(西狩)"는 대목을 이미 겨울이라 한다면, "희공(僖公) 28년 겨울 천왕이 하양(河陽)에서 사냥하다(冬天王狩于河陽)"[152]와 "장공(莊公) 4년 겨울 작(穜) 땅에서 사냥하다(冬狩于穜)"라는 대목은 또한 마땅히 모두 가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겨울에 狩라는 사냥을 하다(冬狩)"라는 말에 과연 정해진 이름이 있겠는가?

"소공(昭公) 11년 5월 비포(比蒲)에서 크게 사냥을 하다(五月蒐于比蒲)"와 "정공(定公) 13년 여름 비포(比蒲)에서 사냥하다(夏蒐于比蒲)"라는 대목을 이미 봄이라 한다면 "소공(昭公) 8년 가을 홍(紅) 땅에서 사냥하다(秋蒐于紅)"[153]와 "소공(昭公) 22년 봄 창간(昌間)에서 사냥하다(春蒐于昌間)"[154], "정공(定公) 14년 가을 비포(比蒲)에서 사냥하다(秋蒐于比蒲)"[155]는 대목은 또한 마땅히 여름과 겨울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봄에 수(蒐)라는 사냥을 하다(春蒐)"라는 말이 과연 정해진 명칭이 있겠는가?

왕씨(汪氏)는 "『좌씨전』 '희공(僖公) 5년 정월 태양이 남극점에 도달하다(冬至)'와 『예기』의 '정월 일지(日至)'에 대해 진정우(陳定宇)는 진(晉)나라 복언(卜偃)과 한(漢)나라 진방(陳寵)이 전한 말을 인용했고, 장부언(張敷言)은 강현노인(絳縣老人)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였다.

『주역』『서경』『시경』『주례』가 다 믿을 만한데도 여러 유자들은 바로 이 글들을 버려두고 도리어 좌씨(左氏)와 한(漢)나라 유자들의 말을 믿는다. 그러나 좌씨와 한나라 유자들은 성인(聖人)께서 『춘추』를 지으신 뜻을 얻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망령된 뜻으로 글을 더하거나 고치고 부회(附會)해서 천착하지 않은 곳이 없다.

『논어』와 『맹자』[156] : 『맹자』에서는 "7,8月 사이에 가물다"와 "11월에 도강(徒杠)이 이루어지며 12월에 여량(輿梁)이 이루어지다"[157]라고 말한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벼가 익는 것이 남방에서는 이르지만 북쪽 땅에서는 더디다. 그런데 남방의 맹추(孟秋)와 중추(仲秋) 때에도 가뭄이 재앙이 되면 비의 혜택을 빠뜨릴 수 없건만, 하물며 북쪽 땅에서랴!

---

152) 自註 : 살피건대 겨울은 유(酉)·술(戌)·해월(亥月)이 된다.
153) 自註 : 살피건대 가을은 오(午)·미(未)·신월(申月)이 된다.
154) 自註 : 살피건대 봄은 자(子)·축(丑)·인월(寅月)이 된다.
155) 自註 : 살피건대 가을은 오·미·신월이 된다.
156) 自註 : 살피건대 『논어』에서는 '모춘(暮春)' 대목을 인용했다.
157) 『맹자』「이루 하(離婁下)」 참조.

"11월에 도강(徒杠)이 이루어지며 12월에 여량(輿梁)이 이루어지다"란 말은 "진수(溱水)와 유수(洧水)"[158]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진수(溱水)와 유수(洧水)는 다 황하(黃河)의 남쪽에 있어서 북방만큼 심하게 춥지 않다. 그러므로 9월에 축장(築場)하고 10월에 벼를 수확하는 절기[159]를 당해서는 농사일을 방해할 수 없고 반드시 농사일이 끝난 뒤에 강을 건널 다리공사를 해야 한다. 11월에 이르러 도강(徒杠)이 이미 이루어지고, 12월에 이르러 여량(輿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달에 이르러서야 그 공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상나라와 주나라의 역수(曆數)는 하나라와 같지만 정삭(正朔)은 하나라와 다르다. 부자께서 안자(顔子)에게 고해주신 것은 역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삭으로 말한 것이다. 내 생각에,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반드시 정삭을 고쳐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급총주서(汲冢周書)』에[160] "4년 맹하(孟夏)에 왕이 처음 종묘에서 기도하고, 이에 태조(太祖)께 보리를 맛보여 드리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진(晉)나라 낭심(狼瞫)[161]이 인용한 주지(周志)의 말이 이 글에 나타나니, 이 글은 바로 『춘추』 이전 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 말이 비록 『춘추』와 부합하지 않지만, 주나라 사람들이 정삭을 고쳤고 월수(月數)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과, 맹하에 보리를 먹는다고 말한 것은 오경(五經)에 실린 주나라의 시월(時月)과 또한 합치되지 않는 게 없다.

『사기』와 『한서』. 『한서(漢書)』 주(注)에서 문영(文穎)은 "진(秦)나라는 10월을 정월로 삼는다"고 하였고, 안사고(顔師古)[162]도 "한(漢)나라의 기년(紀年)에 겨울 10월을

158)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보인다. "자산(子産)이 정나라의 정사를 다스릴 적에, 자기가 타는 수레를 가지고 진수(溱水)와 유수(洧水)에서 사람들을 건네 주었다"(子産聽鄭國之政 以其乘輿 濟人於溱洧)

159) 『시경』 빈풍(豳風) 「칠월(七月)」 "9월에는 장포(場圃)를 다지고 / 10월에는 벼를 거둬들이나니"(九月築場圃 十月納禾稼)

160) 自註 : 살피건대 "민시(民時 : 백성의 농사철)를 공경히 주게 하다"(『서경』 「堯典」)란 말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라를 따르는 것과 같다.

161) 중국 춘추시대 진(晉)나라 대부(大夫). 진(晉)과 진(秦)이 효(殽)에서 싸울 때 낭심(狼瞫)이 융우(戎右)가 되었는데, 후에 이 일로 출척(黜陟)되었다. 다시 진(秦)나라 맹명(孟明)이 진(晉)에 쳐들왔을 때, 낭심이 진(秦)의 군진(軍陣)으로 달려들어가 죽자 진(晉)의 군대가 낭심을 따라서 진(秦)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였다.

162) 중국 당나라 때 학자(581~645). 안지추(顔之推)의 손자, 안사로(顔思魯)의 아들. 자는 유(籀)이다. 어려서 가학(家學)을 전수받아 훈고(訓詁)에 정통했다. 태종(太宗) 때 중서시랑(中書侍郎)이 되었는데, 왕이 오경(五經)의 전습(傳習)이 날로 와전된다고 해서 안사고를 불러 교정케 하였다. 후에 태자가 되어 『한서』에 주를 달고, 수(隋)나라 이전 23가의 주석을 모아 오류를 고치

먼저 쓰고 이어서 춘정월(春正月)을 쓴 것은, 다 태초(太初) 연간(B.C.104～101)에 역법을 바로잡은 뒤에 글을 쓴 사람이 추후에 고쳤기 때문이지 당시에 본래 일컫던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근세의 오연징(吳淵穎)도 그 설을 취하고는 "채씨(蔡氏)는 영진(嬴秦)[163]으로 삼대(三代)를 보았으니, 그렇다면 진한(秦漢)의 역법은 과연 개월(改月)했던 것인가?"라고 하였다.

『사기』에서는 진(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처음에 개년(改年)과 조정하례를 모두 10월 초하루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164] 그러나 어찌 10월을 정월로 삼은 것이겠는가? 만일 10월을 정월로 삼았다면 시황(始皇) 29년 지부(之罘)에 올라 비석을 새겼는데, 그 비문(碑文)에 "때는 중춘(仲春)에 있어 봄 기운이 바야흐로 일어나다"[165]란 말은 『시경』의 "2월 초하루였는데", "일월(日月)이 막 따뜻해지더니"[166]와 뜻이 같아진다. 그러니 이 진(秦)나라의 2월이 11월이 되지 않는 게 분명하다.

또 진시황 31년 12월에 납월(臘月)[167]을 가평(嘉平)이라 개명하였으니[168], 이 진(秦)의 12월이 3월이 되지 않는 게 분명하다. 만약 한(漢)나라 사람들이 한기(漢紀)를 지으면서 추후에 고쳤다면 무슨 까닭으로 진기(秦紀)까지 겸해서 고쳤겠는가? 진한(秦漢)이 개월(改月)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

살피건대, 부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뒤로 삼전(三傳)[169]이 이루어졌고, 이들 모두 경(經)의 뜻을 발명(發明)했다. 『좌씨전』에 대해서는 진(晉)나라 두예(杜預)가 주를 쓰고 당나라 공영달이 소(疏)를 지었다.[170] 『공양전』은 한(漢)나라 하휴(何休)가 주를 달고 당나라 서언(徐彦)이 소를 지었다.[171] 『곡량전』은 진(晉)나라 범녕(范寧)[172]이

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였다. 『당서(唐書)』 권73; 『신당서(新唐書)』 권198 참조.

163) 진(秦)나라를 일컫는 말. 진왕의 성(姓)이 영(嬴)이기 때문이다.

164) 『사기』「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참조.

165) 위와 같음.

166) 『시경』 소아(小雅), 「소명(小明)」에 나온다.

167) 음력 12월을 이르는 말.

168) 『사기』「진시황본기」 참조.』

169) 곧 『좌씨전』『공양전』『곡량전』을 말함.

170) 自註 : 『좌전정의(左傳正義)』 60권이다.

171) 自註 : 『공양전주소(公羊傳註疏)』 28권이다.

172) 중국 진(晉)나라 때 학자(339～401). 자는 무자(武子). 어려서부터 전심해서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왕필(王弼)과 하안(何晏)의 현학(玄學)에 반대해서, 두 사람의 죄가 걸(桀)과 주(紂)보다 깊다고 하였다. 처음에 여항(餘杭)의 현령이 되었다가 예장(豫章) 태수로 전직했는데, 이르는 곳마다 학교를 일으켜, 그 공이 매우 컸다. 강주자사(江州刺史) 왕응지(王凝之)가, 범영이 학교를 세우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을 낭비했다고 탄핵해서 면직되었다. 『곡량전』에 대한 좋은

주(註)를 달고 당나라 양사훈(楊士勛)이 소를 지었다.[173]

역대 제유들 가운데에는 『좌씨전』을 중심으로 해서 『춘추』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양전』과 『곡량전』을 중심으로 『춘추』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삼전을 모두 참고해서 절충하는 사람들이 있고, 삼전을 모두 물리치고 자신의 견해을 세운 사람들이 있다. 각각 자신들의 견해를 고집하며 어지러이 통일되지 않았는데, 후성(後聖)이 전성(前聖)의 필삭(筆削)한 본지를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 설들을 두루 살펴보고 막힘없이 이해함이 있으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소원하지도 않았다. 예컨대 정삭의 설도 본래는 별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데도, 여러 설들이 각각 근거한 것을 증거로 삼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서로 배척해 버렸다. 그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헤아리지 않고 망령되게 「춘왕정월해(春王正月解)」라는 한 편을 짓게 되었지만, 이 글이 제유(諸儒)들의 설과 큰 차이[徑庭]가 있지는 않다.

그런데다가 내 소견이 넓지 못하고 한 쪽으로만 치우쳐 막혀있기 때문에 당형천(唐荊川 : 唐順之)이 집술(輯述)한 「정삭이동설(正朔同異說)」에서 그 요지를 절록(節錄)해서 「춘왕정월해(春王正月解)」 뒤에 붙였다. 그리고 또 이 기록도 해박하지 못할까 싶어서 도리어 이 궁항(窮巷)의 너무도 적은 서적들 가운데 근대 서목(書目) 가운데 『춘추』에 대해 언급한 약간인을 취해 아래에다 나열한다. 그래서 뒷날 이 여러 설들에 대해 주목할 사람이 있기를 기다린다.

당(唐) 육순(陸淳) : 『춘추집전찬례(春秋集傳纂例)』를 지어서 그의 스승 담조(啖助)[174]와 벗 조광(趙匡)[175]의 설을 해석했다. 삼전(三傳)을 배격한 것은 이 글로부터 발휘되었다. 담조의 자는 숙좌(叔佐)이다. 그는 『춘추』를 잘 이해해서 삼가의 장단점을 살펴 빠진 부분을 보충했고, 『집전(集傳)』을 지은 지 19년만에 완성했다.

송(宋) 손복(孫復)[176] : 『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 12권을 지었다. 대지(大指)는

해석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해 동안 심사숙고해서 『춘추곡량전집해(春秋穀梁傳集解)』를 지었다.

173) 自註 : 『곡량전주소(穀梁傳註疏)』 20권이다.

174) 중국 당나라 때 학자(724~770). 조주(趙州) 출신.

175) 중국 당나라 때 학자. 자는 백순(伯循). 육질(陸質)과 함께 담조(啖助)의 뛰어난 제자였고, 육질(陸質)이 조부자(趙夫子)라 일컬었다. 담조가 죽은 뒤 광이 스승의 『춘추집주(春秋集注)』를 증감시켰다. 양주자사(洋州刺史)를 지냈다.

176) 중국 북송 때 학자. 자는 명복(明復). 진사시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하자 태산(泰山)에 물

『공양전』『곡량전』과 가깝고, 『춘추』에는 폄(貶)은 있으나 포(褒)는 없다고 여겼다.

송 유창(劉敞)[177] : 『춘추권형(春秋權衡)』 17권을 지었다. 삼전의 득실을 논하고 여러 설들을 진퇴시킴에 있어, 경(經)에 의거해서 입의(立義)했다.

송 섭몽득(葉夢得)[178] : 『춘추전(春秋傳)』 20권을 지었는데, 삼전을 참고해서 경의 뜻을 찾았다.

송 진부량(陳傅良)[179] : 『춘추후전(春秋後傳)』 12권을 지었다. 삼전을 합해서 경의 뜻을 찾았다.

송 여조겸(呂祖謙)[180] : 『춘추좌씨전설(春秋左氏傳說)』 20권을 지었다. 『좌전』에 심취해서 다 실제 일에 근거해서 쓰고 그 득실을 지적하였다.

송 이기(李琪)[181] : 『춘추왕패열국(春秋王覇列國)』을 지었다. 기(紀는) 없고, 앞에는 서(序)를 두었고 뒤에는 논단의 글을 실었다.

송 조붕비(趙鵬飛)[182] : 『춘추경전(春秋經筌)』 16권을 지었다. 전을 버리고 경을 따랐으며, 지론(持論)이 성실하다.

러나 살면서 문장에 힘썼다. 범중엄(范仲淹)과 부필(富弼)이, 손복은 경술(經術)을 지니고 있으므로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해서 비서성교서랑(祕書省校書郞)과 국자감직강(國子監直講)을 제수받았다. 저서에 『역설(易說)』『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춘추총론(春秋總論)』『손명복소집(孫明復小集)』 등이 있다.

177) 중국 북송 때의 학자(1019~1068). 자는 원보(原父), 호는 공시(公是). 유반(劉攽)과 형제간이다. 여러 분야에 박학했지만, 특히 춘추학에 정통했다. 저서에 『칠경소전(七經小傳)』『춘추권형』『공시집(公是集)』 등이 있으나, 앞의 두 가지는 전하는 않는다. 『공시집』도 원래는 75권이었으나 산실되어서 지금은 54권만 남아 전한다. 구양수의 『문충집(文忠集)』 권35에 묘지(墓誌)가 있다.

178) 중국 송나라 때 학자(1077~1148). 자는 소온(少蘊), 호는 석림(石林). 자주 상소를 올려 시정을 논의하였다. 시사(詩詞)의 필력이 웅장해서 소문(蘇門)의 유풍을 지녔으며, 저술로 『석림거사건강집(石林居士建康集)』『석림사(石林詞)』『석림시화(石林詩話)』 등이 있다.

179) 중국 남송 때의 학자. 자는 군거(君擧). 문장으로 당세에 이름을 떨치고 일가를 이루었다. 학문을 함에 있어서, 삼대(三代)와 진한(秦漢) 이하의 글은 연구하지 않았다. 건도(乾道) 연간의 진사시에 합격, 여러번 기거사인(起居舍人) 벼슬을 하였다. 시호는 문절(文節). 세상에서 지재선생(止齋先生)이라 일컬었다. 저서에 『시해고(詩解詁)』와 『주례설(周禮說)』『춘추후전(春秋後傳)』『좌씨장지(左氏章指)』『지재문집(止齋文集)』 등이 있다.

180) 중국 남송 때의 학자(1137~1181). 자는 백공(伯恭). 여호문(呂好問)의 손자로 동래선생(東萊先生)이라 일컬어졌다. 융흥(隆興) 연간에 과거에 급제, 벼슬이 직비각저작랑(直祕閣著作郞), 국사원편수(國史院編修)에 이르렀으며 주희(朱熹)·장식(張栻)과 명망이 비등해서 동남삼현(東南三賢)이라 불렸다. 처음에 주희와 함께 『근사록』을 편찬했으나, 뒤에 모시(毛詩)에 대해 쟁론하면서 의견을 합치하지 못해 서로 배척하게 되었다. 일생의 저작이 매우 많은데, 중요한 것으로는 『동래좌씨박의(東萊左氏博議)』 20권, 『고주역서설(古周易書說)』 35권, 『황조문감(皇朝文鑑)』 150권, 『여조겸집』 등이 있다.

181) 중국 송나라 때 사람. 자는 개백(開伯). 벼슬은 국자사업(國子司業)을 지냈다.

182) 중국 송나라 때 사람. 자는 계명(啓明), 호는 목눌(木訥)이다.

송 가현옹(家鉉翁)[183] : 『춘추상설(春秋詳說)』 30권을 지었다. 글자마다 포폄의 이유를 찾았다.

원(元) 오징(吳澄)[184] : 『춘추가언(春秋嘉言)』 12권을 지었다. 여러 설을 채집해서 자신의 견해로 절충했다.

원 왕원걸(王元杰)[185] - 『춘추언의(春秋讞議)』 9권을 지었다.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설을 모아 호씨설(胡氏說)로 보충했다.

원 조방(趙訪) : 『춘추집전(春秋集傳)』 15권을 지었다. 책서(策書)의 예가 15이고 필삭(筆削)의 예가 8이라고 말했고, 그 문인 예상의(倪尙誼)가 그의 설을 보충했다. 또 『사설(師說)』 3권을 지었는데, 그의 스승 황택(黃澤)[186]의 설을 근본으로 삼아서 부연했다. 택(澤)은 좌씨를 위주로 해서 번쇄함의 폐단을 제거하는 데 깊이 경계했다.

조방(趙訪)은 또 『속사(屬詞)』 15권을 지었다. 『춘추』의 뜻이 실제 일에 비견해 글을 써서 필삭한 뜻을 추측해 보는 데 있다고 했다. 그 예는 8인데, 두예(杜預)의 『석례(釋例)』와 진부량(陳傅良)의 『후전(後傳)』을 근본으로 해서 보정한게 많다.

또 『좌씨전보주(左氏傳補註)』 10권을 지었다. 황택의 학문을 전함에 『좌전』을 위주로 하였고, 좌씨가 미치지 못한 곳은 『공양전』과 『곡량전』으로 이해했으며, 두예가 넉넉히 하지 못한 곳은 진부량의 설로 이해했다. 이 책은 바로 진부량의 설을 채집해서 두예 주의 빠진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원 왕극관(汪克寬) : 『춘추호전부록찬소(春秋胡傳附錄纂疏)』 30권을 지었다. 제가의 설로 호씨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지만, 큰 뜻은 호씨를 근본으로 한다고 하였다.

---

183) 중국 송나라 때 학자. 자는 칙당(則堂), 미산(眉山) 출생이다. 『춘추』에 해박하였다. 송나라 관리로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송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석으로 울며 식음을 폐했다. 원나라에서 그에게 벼슬을 주려고 하였으나 끝내 받지 않다가, 원나라 성종(成宗)이 즉위하면서 방면시켜 주어, 집으로 돌아와 생을 마쳤다. 저술로 『춘추상설(春秋詳說)』 『칙당집』 등이 있다.

184) 중국 원나라 때 학자. 자는 유청(幼淸), 초려선생(草廬先生)이라 불렸다. 성학(聖學)에 힘을 써서 지대(至大) 초에 국자감사업(國子監司業)이 되고, 누차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올랐다. 태정(泰定) 초에 경연에서 강연을 맡았고, 『영종실록(英宗實錄)』의 편수를 총관하였으며, 실록이 완성되자 병으로 낙향했다. 저술로는 『주역』 『시경』 『서경』 『춘추』 등에 대한 각각의 찬언과 『학기(學基)』 『학통(學統)』 등이 있다.

185) 중국 원나라 때 학자. 자는 자영(子英)이다.

186) 중국 원나라 때 학자. 자는 초망(楚望). 나면서부터 특이한 자질을 지녔고, 경학(經學)에 뜻을 두었다. 대덕(大德) 연간에 강주경성서원산장(江州景星書院山長)이 되었고, 얼마 있다가 동호서원산장(東湖書院山長)으로 옮겼다. 저서에 『역학남상(易學濫觴)』 『춘추지요(春秋指要)』 등이 있다.

명(明) 『춘추대전(春秋大全)』 : 30권이다. 호광(胡廣)[187] 등이 왕극관의 『찬소』를 따라 글을 조금 고쳐 썼다.

명 왕초(王樵)[188] : 『춘추집전(春秋輯傳)』 16권을 지었다. 주자를 조종으로 삼고, 참고로 제가의 견해를 모았다.

명 고공(高拱)[189] : 『춘추정지(春秋正旨)』 1권을 지었다. 경의 뜻을 미루어 근본해서 제가의 오류를 정정했다.

명 고반룡(高攀龍)[190] : 『춘추공의(春秋孔義)』 12권을 지었다. 삼전과 호전을 요량해서 이해만 하고 논변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경으로 경을 해석했다.

청(淸) 고염무(顧炎武)[191] : 『좌전두해보정(左傳杜解補正)』 3권을 지었다. 두주(杜註)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부분을 들추어 지적하고, 정확하고 핵실한 부분을 근거로 하였다.

청 주학령(朱鶴齡)[192] : 『독좌목초(讀左目鈔)』 14권을 지었다. 역시 두주(杜註)의 빠지고 잘못된 부분을 보충했다.

청 모기령(毛奇齡)[193] : 『춘추전(春秋傳)』 30권을 지었다. 주서(注書) 22종류를 나누

---

187) 중국 명나라 때 학자(1370~1418). 자는 광대(光大)이다.

188) 중국 명나라 때 학자. 자는 명원(明遠). 가정(嘉靖) 연간에 진사시에 합격해서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郞)을 역임했다. 『주역』 『춘추』에 관한 저술이 있다. 시호는 공간(恭簡).

189) 중국 명나라 때 학자(1512~1578). 자는 숙경(肅卿). 가정 20년에 진사가 되었고, 벼슬은 태학사(太學士)에 이르렀다. 정치의 일에 힘을 쓰면서 자신의 재능을 믿고 힘을 부려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다. 처음엔 서계(徐階)의 천거로 입각하였으나, 곧 계와 불합해서 면직하고 돌아갈 것을 청하였고, 후에 다시 등용되어 재상에 올랐다. 저술로 『고문양공집(高文襄公集)』과 『방변기사(防邊紀事)』 등이 있다. 시호는 문양(文襄).

190) 중국 명나라 때 학자·문장가(1562~1626). 자는 존지(存之), 경일(景逸), 운종(雲從)이다. 만력 17년에 진사가 되었다. 처음에 고헌성(顧憲成)과 함께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주자학을 강하여 유자의 종(宗)이라 일컬어졌다. 희종(熹宗) 때 좌도어사가 되어 정계의 쇄신을 꾀하다가 권신이던 환관 위충현(魏忠賢)에게 미움을 받아 자살하였다. 저서에 『고자유서(高子遺書)』 12권, 『무림유기(武林遊記)』 1권, 『주역공의(周易孔義) 등이 있다.

191) 중국 명말 청초의 학자(1613~1682). 초명은 강(絳)이고, 자는 영인(寧人)이며, 호는 정림(亭林)이다. 독창심득(獨創心得)을 존중하고 실증과 치용(致用)을 중시하는 학계의 신기풍을 일으켰다. 저술로 『일지록(日知錄)』 『천하군국이병서(天下郡國利病書)』 등이 있다.

192) 중국 명말 청초의 학자. 자는 장유(長孺), 우암(愚庵)이라 자호하였다. 고염무(顧炎武)와 친히 지냈으며, 전소(箋疏)에 뛰어나 『모시통의(毛詩通義)』 『우공장전(禹貢長箋)』 등 여러 주석서를 남겼다.

193) 중국 청나라 때의 경학자(1623~1716). 자는 대가(大可)이고, 또 다른 이름은 신(甦)이다. 서하선생(西河先生)이라 일컬어진다. 명말의 제생(諸生)이었으나, 명나라가 멸망한 뒤 성의 남산으로 숨어들어가 토실에서 독서하였다. 강희(康熙) 연간에 한림원 검토(檢討)에 제수되어 『명사』의 찬수관에 보충되었다. 박학하고 경학(經學)으로 자부하였으나, 논박하기를 즐겨해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반박하곤 하였다.

어 4가지 예로 개괄했지만, 큰 뜻은 좌씨를 조종으로 삼았다.

청 서정원(徐庭垣)[194] : 『춘추관규(春秋管窺)』 12권을 지었다. 『좌전』의 일로 경을 정하고, 경의 이동을 예로 나눔에 『공양전』·『곡량전』 이하 제설들을 참고하였다.

청 장자초(張自超)[195] : 『춘추종주변의(春秋宗朱辨義)』 12권을 지었다. 『춘추』는 일에 따라 직서(直書)했다는 주자의 설을 근본으로 삼았지만, 성경(聖經)을 깊이 어지럽히지는 않았고, 주자설을 전용(全用)한 것도 아니다. 그의 『총론(總論)』 20편도 비사촉사(比事屬詞)의 뜻이다.

청 방포(方苞)[196] : 『춘추통론(春秋通論)』 4권을 지었다. 경문을 통해서, 노(魯)나라 역사가 본래 공자께서 필삭한 뜻을 쓴 것임을 미루어 찾았다.

청 섭유(葉酉)[197] : 『춘추구유(春秋究遺)』 16권을 지었다. 그 스승 방포의 논의를 근본으로 하고, 또 때로 넘나들기도 하는 일체의 까다롭고 세세하고 어지럽게 얽힌 설들을 거의 다 제거했다. 좌씨에 대해서도 대부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지만, 좌씨의 사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많다고 의심했으니, 그것은 정단학(程端學)[198]의 견해에 가깝다.

위에 기록한 역대 제유의 책들은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는데, 여기에서는 다만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들만 들었다. 그 외에도 『침고황(針膏肓)』 『기폐질(起廢疾)』 『발묵수(發墨守)』 각 1권씩이 있는데, 한나라 때 정현(鄭玄)이 지은 것이다. 또 한나라 가규(賈逵)[199]의 『복건훈해(服虔訓解)』를 후인이 모아 찬술한 20권이 있고, 원

194) 중국 청나라 때 학자. 수수(秀水) 사람. 벼슬은 신창현승(新昌縣丞)을 지냈다.

195) 중국 청나라 때 학자. 고순(高淳) 사람. 자는 이탄(彝嘆)이다. 강희(康熙) 때 진사가 되었으며, 경사(經史)의 연구와 궁행실천(躬行實踐)에 힘썼다.

196) 중국 청나라 때 학자·문장가(1668~1749). 안휘성 동성(桐城) 사람. 자는 영고(靈皐), 호는 망계(望溪)이다. 학문은 정주(程朱)를 조종으로 삼고, 문장은 한유와 구양수를 배웠다. 그의 제자 유대괴(劉大櫆)와 재전제자(再傳弟子) 요내(姚鼐) 등과 함께 같은 고향이어서 사람들이 동성파(桐城派)라 일컬었고, 동성파의 시조로 받들었다. 저서에 『망계문집(望溪文集)』이 있다.

197) 중국 청나라 때 학자. 자는 서산(書山). 안휘성(安徽省) 동성(桐城) 사람이다. 대략 1754년을 전후로 재세(在世)하였던 것 같다.

198) 중국 원나라 때 학자. 자는 시숙(時叔). 정단례(程端禮)의 아우로 『춘추』에 정통하였다. 지치(至治) 연간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국자조교(國子助敎)가 되었는데, 행동에 사법(師法)을 지녔고, 엄정하고 방정해서 학자들이 매우 조심스러워 했다고 한다. 벼슬은 태상박사(太常博士)에 이르렀다. 저서에 『춘추본의(春秋本義)』 『삼전변의(三傳辨疑)』 『춘추혹문(春秋或問)』 등이 있음.

199) 중국 후한 때의 유학자. 자는 경백(景伯). 가의(賈誼)의 9세손으로 『좌씨전』과 오경에 정통하였다.

나라 정단학이 찬술한 『춘추본의(春秋本義)』 30권이 있다.[200] 또 『춘추』에 전문적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전서(全書)에 나타나는 자들은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

조방(趙訪)의 말에 "이정(二程)·장횡거(張橫渠 : 載)·소강절(邵康節 : 雍)·주(朱子 : 熹) 네 군자는 지혜가 족히 성인을 알 만하지만, 글을 연이어 가며 역사적 사실들을 배열하는 일에는 자주 할 겨를이 없었다. 이는, 오경의 은미한 뜻은 어두우면서도 다시 분명해 지지만, 유독 『춘추』만은 막혀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201] 이 말은, 네 선생이 『춘추』의 훈고에 미칠 겨를을 갖지 못해서 세상에 『춘추』에 대한 정설(定說)이 없는 점을 탄식한 것이다.[202]

〔附〕 歷代先儒正朔時月異同說

胡氏傳 曰 以夏時冠周月(按朱子語類 曰 文正春秋說 夫子 以夏時冠月 以周正記事 謂如公卽位 依舊 是十一月 孔子改正 作春王正月 某不敢信)

鄭樵曰 古今之歷 皆建寅 其朔建子丑者 商周二代耳 又曰 尙書曰 元祀十有二月 周禮曰 正歲十有二月 雖建子丑以命月 而占星定曆 修祠擧事 仍按夏時 皆不自用其制 又曰 十月之交與正月繁霜 注以八月四月 非也 二詩出小雅 何以獨用周正(按毛詩十月之

200) 自註 : 삼전(三傳)에 대한 176가의 설을 채록하였다.

201) 自註 : 살피건대 정자(程子)가 비록 『춘추전서(春秋傳序)』를 지었지만 거기에 쓰인 것은 환공(桓公) 9년에 그쳤다.

202) 自註 : 송나라 장흡(張洽)*에게는 『춘추집주(春秋集註)』 11권이 있는데, "춘왕정월(春王正月)"을 주정(周正)이라 정했다. 원나라 이렴(李廉)**은 『춘추제전회통(春秋諸傳會通)』 24권을 두었는데, 그 안에 「하주정변(夏周正辨)」이 있다. 명나라 장이령(張以寧)***에게는 『춘왕정월고(春王正月考)』 1권이 있고, 청나라 오내(吳雃)에게는 『삼정고(三正考)』 2권이 있다. 이렴과 장이령의 설을 취해 보면, 번다한 것을 깎아내고 간략함을 취했고, 근세 제유들이 논한 것을 더해서 『춘추』가 주정(周正)을 사용했음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아직 보지 못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고, 다만 이와 같이 기록해 둔다.

* 중국 북송 때의 학자(1161~1237). 자는 원덕(元德). 가정(嘉定) 원년에 진사가 되어 여러 번 저작좌랑(著作佐郞)의 관직에 올랐다. 주자의 학문을 추종하였으며, 저술로 『춘추집주(春秋集注)』『춘추집전(春秋集傳)』 등이 있다.

** 중국 원나라 때 사람. 자는 행간(行簡). 지정(至正) 연간에 『춘추』로 향(鄕)의 추천을 받아 진사에 급제했으나, 문을 닫고 저술에 힘썼다. 후에 신풍령(信豐令)이 되었으나 난을 만나 사절(死節)하였다. 저술로 『춘추제전회통(春秋諸傳會通)』이 있다.

*** 중국 명나라 때 학자. 자는 지도(志道). 태정(泰定) 연간에 『춘추』로 진사에 천거되어 한림시강학사(翰林侍講學士)에 이르렀다. 박학강기(博學强記)해서 당시인들 사이에 '소장학사(小張學士)'로 불렸는데, 뒤에 고전(古田) 취병산(翠屛山) 아래로 들어가 은거하니 세상에서 취병선생이라 불렀다. 저서에 『춘왕정월고(春王正月考)』와 『취병집(翠屛集)』이 있다.

交註云 周之十月 夏之八月也 正月繁霜註云 正月 夏之四月 疏云 昭 十七年 夏 六月 甲戌 朔日 有食之 左傳曰 祝史 請所用幣 平子禦之 曰 止也 惟正月朔慝未作 日有食之 於是乎用幣 其餘別 否 太史曰 在此月也 經書六月 傳書正月 太史謂之在此月 是周之六月爲正月也 周六月 夏之四月 故知正月 夏之四月也 謂之正月者 以乾用事 正純陽之月 傳稱慝未作 謂未有陰氣 故鄭箋云 純陽用事也 ○按朱子詩集傳於十月之交 曰 十月 以夏正言之 建亥之月也 是不從毛說也 正月繁霜 曰 正月 夏之四月 是從毛說也 蓋以其與春秋之六月合 則亦是自爲夏正故也)

又曰 春秋 春無氷 秋無麥 十月 隕霜殺菽 皆周正也 以周正紀事 以夏時冠月 先書春 後書王正月 巡狩烝享 用夏正

趙訪曰 春秋 雖修史爲經 猶存其大體 謂始年 爲元年 歲首 爲春一月 爲正月 加王於正 皆從史文傳 獨釋王正月者 見國史所書 乃時王正朔月 爲周月 時爲周時 孔氏謂月改則春移 是也

又曰 春夏秋冬之序 則循周正 分至啓閉之候 則仍夏時 又曰 汲冢竹書 有周月解 亦曰 夏數 得天百王所同 商 以建丑爲正 亦越我周作正以垂三統 至於敬授民時 巡狩烝享 猶自夏焉

又曰 太史公 於殷 曰 改正朔 於周 曰 制正朔 於秦 曰 改年始 殷周 卽所改之月爲歲首 故曰改正朔曰制正朔 秦 卽十月爲歲首 而別用夏時數月 故改年始 其言之已詳

又曰 陳寵曰 陽氣始萌 有蘭射干芸荔之應 天以爲正 周以爲春 陽氣上通 雉雊鷄乳 地以爲正 殷以爲春 陽氣已至 天地已交 萬物皆正 蟄蟲始振 人以爲正 夏以爲春 蓋天施於子 地化於丑 人生於寅 三陽 雖有微著 三正 皆可言春 此亦曆家相承之說

又曰 何氏 哀十四年傳注 曰 河陽 冬言狩 獲麟 春言狩者 蓋據魯變周之春 以爲冬去周之正而行夏之時 以行夏之時 說春秋 蓋昉於此 然何氏 固以建子 爲周之春 但疑春不當言狩 而妄爲之辭

至程子門人劉質夫則曰 周正月 非春也 假天時以立義耳 遂疑建子 不當言春 此 胡氏冠周月之說所從出也

先儒 見孟子謂春秋 天子之事 而述作之旨無傳 惟斟酌四代禮樂爲百王大法 遂以爲作春秋本意在此 故番陽吳仲迂曰 若從胡傳 則是周本夏時而以子月爲冬 孔子 反不行夏時而以子月爲春矣 何氏之說 又異於此 故子朱子 以爲恐聖人制作 不如是之紛更煩擾錯亂無章也

又曰 或者 猶以爲千古不決之疑 則以詩書周禮論語孟子所言時月 不能皆合故也 夫三正通乎民俗 久矣 侯國史記 書王正 以表大順與頒朔 告朔爲一體

詩本歌謠 又多言民事 故或用夏正 以便文通俗也 書乃王朝士官記言之體 或書月 則

不書時 或書時 則不書月 周禮所書正月正歲 皆夏正也 其著時月者 又多民事 與巡狩烝享自夏者同 故仍夏時 盖非赴告策書 定爲一代之制者

若論語言暮春 則亦如詩書言春夏 皆通民俗之恒辭也 孟子言七八之間旱 十一月 徒杠成 十二月 輿梁成 在左傳 後則周改月 猶自若 竹書 又記晉曲玉莊伯之十一年十一月 魯隱公之元年正月也 竹書 乃後人 用夏正 追錄舊史 故與春秋不同 然亦未嘗輒以夏正亂春秋之時月也

又曰 小戴記 孟獻子之言 曰 正月日至 可以有事於上帝 七月日至 可以有事於祖 此言冬至在周正之春正月 而夏至在周正之秋七月 明堂位所言孟春 卽建子月 所言季夏六月 卽建巳月 禮記猶然 況春秋乎

史伯璿曰 按月數之說 朱子以爲改 蔡氏以爲不改 以詩七月放之 則凡七月九月之類夏正也 凡一之日二之日 是自子月數起 以鬻發栗烈之氣候 驗之可見矣 夏正周正 同見一詩之中 可見月數之未嘗不改矣 蔡氏不改之說 恐不如朱子之的當 近代陳定宇張敷言之論 最爲分曉

陳定宇曰 桓四年春正月 公狩于郎 杜氏註曰 冬獵曰狩 周之春 夏之冬也

又曰 桓十三年夏 大蒐于比蒲 春田之蒐 夫子只書曰夏蒐

又曰 胡氏春秋傳 不敢謂王正月爲非子月 而於春王正月之春字 謂以夏時冠周月 安有屬兩月而以夏時冠周月之理 夫子 欲行夏時 盖答顔子 使得爲邦 則宜如此耳 豈可但知有夏時之春 而不知商正周正之春乎

張敷言曰 伏讀春秋 至春王正月 窃有疑焉 夫正月 固王之正月 如後世史書 書正月卽時王之正月也 何假稱王 意必其別有所謂正月者 故稱王以別之

及讀僖公五年 晉獻公 伐虢 以克敵之期 問於卜偃 答以九月十月之交 考之童謠星家之驗 皆是夏正十月 而其傳 乃書在十二月 其改月明矣

哀公三十年 絳縣老人 稱臣生之歲 正月甲子朔 于今 四百四十五甲子 其季三之一 而所稱正月 亦是夏正 考老人所歷 正七十三年 二萬六千六百六十日(按是七十三年之日數余別有所考) 當盡丑月癸未 而其傳 乃書在二月(按夏正正月 準十二月 數則盡禦十二月) 其改月 明矣

因是而知周之正朔月數 必其朝覲聘問頒朔授時 筆之於史冊者 用時王月數 其民俗歲時相語之話言 皆以寅月起數 如後世者自若也 春秋書王正月 以別民俗爲無疑

不然 諸儒之論 各執所見 主改者 遇不改之文 則沒而不書 主不改者 遇改月之義 則諱而不錄 終不能曉然相通以祛學者之惑

又曰 周公作禮 正月之後 不復曰正歲(其自註云 凌人 正歲十有二月 令斬氷 最可考 旣以寅月爲正歲 則子月爲權宜) 說正歲者 不謂夏得四時之正 則必復有以子丑之月爲正者矣

又曰 伊訓之元祀十有二月 蔡氏以爲殷正月者 果何月乎 曰 建子之月也(按殷以丑爲正故十二月爲建子) 然則嗣王祗見 不在正月 及太甲篇之嗣王奉歸 不在正月乎 曰 嗣王冕服 考之顧命 固有常儀 何時正月 而放桐之事 人臣大變 朝而自怨 夕當復辟 尤不須於正月也 況正月但書十月 以虞書正朔例之 殷不其獨每正乎 曰 秦以亥正 猶稱十月 不亦同乎 曰 秦正之謬 安足取法 曰 或者謂晉用夏正 故卜偃老人之言 如此 曰 是又不然 老人之言 在晉文伯 後容或有之卜偃之言 乃獻公之世 晉文未興 齊桓猶在 方朝周納貢之不暇 何敢改物而用夏正哉

史伯璿曰 張氏此說 可以補陳氏之缺 或謂商以建丑之月 爲歲首 而書言 元祀十有二月乙丑 伊尹 祠于先王 奉嗣王 祗見厥祖 又三祀十有二月朔 伊尹 以冕服 奉嗣王 歸于亳 是商雖以丑月爲正 而寅月起數 未嘗改也 愚切以爲蔡傳推之 固是如此 然張敷言之說 似亦有理所碍者 卽位之年 不當稱元祀(其自註云 或以此破張氏 故及之 按若以十二月爲商正之子月 則是嗣王卽位於前王崩年也 安得稱元祀乎)

崩年改元 亂世之事 不容在伊尹而有之此 以周禮證商則然耳 然三代之禮 至周大備 知自周以前 亦皆如周之制乎 舜禹卽位 以孟子推之 當在堯舜旣崩三年之後 其他夏商以前 禮有不如周之大備者 何限蘇氏(按崩年改元云云 是蘇氏之言也) 推周制以律商 亦與顧命推春秋之禮以議召公者 相似(按蘇氏 以康王嘉服見諸侯 又受垂黃玉帛之幣 爲非禮 且曰 使周公在 必不爲此) 召公親與周公同僚 爲周公所敬信 知禮 乃不得如蘇氏邪正 恐蘇氏 以後推前 未爲至當 蔡氏 引春正 爲不改月數之證 亦是以後推前 其得失 張敷言 已辨之矣

又曰 以夫子行夏之時之一言 證之時之一字 非但指正朔月數 而言是指春夏秋冬四時而言 旣有所謂夏之時 則必有所謂商之時周之時矣 顏子 問爲邦 夫子 欲其行夏之時 則當時所行 未必是夏時也 未是夏之時 則非周之時而何 若周之時建寅 無異於夏時 則又何必曰行夏之時爲哉

又曰 書武成篇 惟一月壬申 二孔林氏 皆以爲子月 蔡氏 不從其說 窃意其所以不曰正而曰一者 以時方舉事 商命未改 周家未得定正月之名 史官 亦不容因後改前之意也 與七月詩一之日者 正同 推彼可以明此矣

周洪謨曰 漢孔安國・鄭康成 則謂周人改時與月 宋伊川・胡安國 則謂周人改月而不改時 獨九峰蔡氏 謂不改時 亦不改月 至于元儒吳仲迂・陳定宇・張敷言・史伯璿・

吳淵澄・汪克寬輩 則又遠宗漢儒之謬而力詆蔡氏之說 謂以言書則可從 以言春秋則不可從 故以易・書・詩・周禮・春秋・論語・孟子 及汲冢周書・史記・漢書 以證諸儒論辨之失云

易(按以臨卦八月爲證)

書 武王伐紂 不在子月 何以明之 于周詩周禮而見之也(按謂周詩周禮 皆用夏正 故知之 又謂夏書怠棄三正之說 意如三極三經之類)

詩 或謂一之日二之日 以子月起數 殊不知一之日者 一陽之月 二之日者 二陽之月 而非數月也(又引出車之春日遲遲 四月之秋日凄凄 四月維夏 六月徂暑 小明之二月初吉 以證其不改時月)

周禮 新安汪氏 謂周禮凡言正月 指子月 歲終 指丑月 正歲 指寅月 如周既子月 爲正月 則明子之亥月 爲歲終也 何遽以次月之建丑 爲歲終哉(又以仲冬斬陽木 仲夏斬陰木 凌人十有二月斬氷 證之)

春秋 春王正月之書 程子 謂周正月 非春也 假天時以立義爾 胡氏 謂建子 非春也 以夏時冠周月 朱子 亦謂周人改月 而天時不可改 春秋月數 乃魯史之舊文而四時之序則孔子之微意 是三子者 皆謂改月而不改時 然以今年之十一月 爲正月而繫之仲冬 以明年之十月 爲十二月而繫之孟冬 則孟仲 失其倫 豈聖人平秩四時之義哉 可堂吳氏謂周人 不特改月而又改時 以齊其年 此則襲漢儒之謬也 新安汪氏 亦謂魯史 名以春秋 則似元書曰春王正月(按謂春王正月 未嘗徑筆削也) 是周曆 已改子月爲春也 又謂周以子月爲歲首 而春秋以寅月爲正月 每年截子丑 月移在前一年 則春秋二百四十二年之事 皆非當時之月日矣 聖人豈爲之哉(按汪說止此)

盖周之正朔 以子月爲歲首 而曆數 仍以寅月爲首 但魯史紀年 必始於冬十一月 所以遵正朔也 春秋紀年 則始於春王正月 所以垂法後世也 是春秋之於魯史 未嘗改其時月 但其編年所始之月 爲不同耳 曰 魯既奉周正朔 則魯公卽位 皆當以正朔行之而在十一月 何乃書于正月乎 曰 按周禮 朝覲會同 巡狩祭享 凡國之大事 皆從夏正 初不始于正朔之月 書載四月成王崩而旬日之後 康王卽位 亦不用夫正朔之月 則魯公卽位 豈必以正朔行之乎 故春秋卽位 書於正月者七 書於六月者一 各據其事以書也

如隱九年三月癸酉大雨震電 庚辰大雨雪 曰 雨 三日以往 爲霖 盖建辰之月雷電 固所宜有 而雷雨交作 已皆三日 故以見其非常過度 雨雪之大 亦若後世晉泰始六年六月大雨 河洛幷溢 流四千餘家 安知春秋之書大雨者 亦必不類乎此也

桓八年冬十月雨雪 僖三年冬大雨雹 四年正月大雨雹 曰 桓八年冬十月雨雪 此或有缺

文 恐雨雪上 當有大字 如僖十年冬大雨雪也 雨雪 雖當其期 而太多過度 則亦爲異 亦若漢元狩元年 冬十二月 大雨雪 民多凍死 安知春秋之書大雨雪 必不類乎此也 至於雹者 陰陽和則爲霜雪雨露 不和則爲大雹焉 亦若漢元封三年十二月 雹大如馬頭 安知春秋之書大雨雹者 亦必不類乎此也

桓十四年春正月 無氷 成元年二月 無氷 又十二年正月 無氷 汪氏 謂苟以發氷而知無氷 則當常以二月而不在正月矣 若曰或藏氷 無氷而書無 或發氷 無氷而書無 抑何紀事之錯亂哉 曰周人 以十二月 鑿氷 正月 納氷 二月 發氷 今正月無氷 若以爲十一月 則十一月無之 而十二月有焉 亦又何害 是十一月之無氷者 固不足書也 要之正月無氷者 言藏氷之月 無氷可藏 則冬之無氷 可知矣 二月無氷者 仲春獻羔 開氷 先薦寢廟 今當薦寢廟而無氷焉 則後之祭無氷者 可知矣 不言凌陰寢廟之無氷 而但曰無氷者 聖人諱之 此正春秋因事而書 以垂鑑戒之法也

正月 雨木氷 孔氏 謂仲冬 時有雨 雨着樹爲氷 記寒甚之 過其節度 殊不知魯地 仲冬極寒 有雪無雨 使雨而成氷 亦不爲過 何足爲異 必孟春之月 三陽開泰 而猶雨木氷 故書之以記異 亦猶魏黃初六年正月 雨木氷而郡賊起 安知春秋之書雨木氷者 亦必不類乎此也

莊七年秋 大水 無麥苗 曰 四月麥秋至則已刈麥 至五月則刈已盡 經言秋無麥苗 言七月大水 苗既爲水所漂 固無可望而麥之利 未久又皆已盡 故曰無麥苗 亦猶二十八年冬書曰大無麥禾也

定元年十月 隕霜殺菽 曰 諸災異 皆可通 惟此爲不可通 恐有缺文誤字 如君氏郭公之類 秦火之餘 漢隸之後 安保其傳錄之無訛也

陳定宇 謂春蒐夏苗秋獮冬狩 四時田獵定名也云云 曰 陳氏 但引其所可通者 不敢引其所不可通者 春秋 書狩者四 書蒐者五 桓四年春 狩于郎 哀十四年 西狩 既以爲冬矣 則僖二十八年冬 天王狩于河陽(按冬爲酉戌亥月) 莊四年冬 狩于禚者 又當皆爲秋也 是冬狩之果有定名乎

昭十一年五月 蒐于比蒲 定十三年夏 蒐于比蒲 既以爲春矣 則昭八年秋 蒐于紅(按秋爲午未申月) 二十二年春 蒐于昌間(按春爲子丑寅月) 定十四年秋 蒐于比蒲(按秋爲午未申月) 者 又當爲夏與冬也 是春蒐之果有定名乎

汪氏 謂左傳僖五年正月 日南至 禮記正月日至 陳定宇 引晉伏儼及漢陳寵傳之說 張敷言 引絳縣老人之語 曰 易書詩周禮 皆可信矣 諸儒 乃捨之而反信左氏漢儒之說 左氏漢儒 不得聖人作經之意 未有不妄意增改而附會穿鑿者矣

論語孟子(按論語 引暮春) 孟子言七八月之間旱 十一月徒杠成 十二月輿梁成 窃以爲禾稻之熟 南方早而北土遲 然而南方孟秋仲秋之際 旱暵爲災 則雨澤 亦不可缺 況北土乎 至於十一月徒杠成 十二月輿梁成者 盖主溱洧 言溱洧 皆在大河之南 其寒不如北土之甚 當九月築場十月獲稻之候 不可妨農 必田功畢 然後爲之 至十一月而徒杠已成 至十二月而輿梁已成 非謂至是月而始爲之也

商周曆數 與夏同 正朔則與夏異 夫子告顔子者 不以曆數言 以正朔言也 意謂爲邦者必改正朔以易制度

汲冢周書(按引敬授民時 猶自夏焉) 維四年孟夏 王初祈禱于宗廟 乃嘗麥于太祖 按晉狼瞫所引周志之言 見於此書 則此書 乃春秋以前之人所作 其言 雖不合於經 而其謂周人改正朔不改月數及孟夏嘗麥 則與五經所載周之時月 亦無不合也

史記漢書 西漢書註 文穎 乃謂秦以十月爲正月 顔師古 亦謂漢紀年 先書冬十月 繼書春正月者 此皆由太初正曆之後 記事者 追改之 非當時本稱也 而近世吳淵穎 亦取其說 且謂蔡氏 以嬴秦 視三代 然則秦漢之正 果改月乎 曰 史記 言秦幷天下 始改年朝賀 皆自十月朔 曷嘗以十月爲正月哉 如以十月爲正月 則始皇二十九年 登之罘刻石其詞曰 時在仲春 陽和方起 與詩所謂二月初吉日月方燠 同意 是秦之二月 不爲十一月 明矣

三十一年十二月 更名臘曰嘉平 是秦之十二月 不爲三月 明矣 若以漢人作漢紀而追改之 則何故亦兼秦紀而改之乎 是秦漢之不改月 審矣

按自夫子修春秋以後 三傳 作而皆發明經旨 左氏傳 晉杜預 爲之註而唐孔穎達 爲之疏(左傳正義 六十卷) 公羊傳 漢何休 爲之註而唐徐彦 爲之疏(公羊傳註疏 二十八卷) 穀梁傳 晉范寧 爲之註而唐楊士勛 爲之疏(穀梁傳註疏 二十卷)

歷代諸儒 有主左氏而言春秋者 有主公穀而言春秋者 有參三傳而折其衷者 有排三傳而立己說者 各執其見 紛紜未一 盖非有後聖無以知前聖筆削之本旨 然而博覽衆說 有以會通焉 則雖不中 亦不遠矣 至於正朔之說 本非甚不可解者 而衆說 各證所據 互斥異己 故愚不自揆 妄有春王正月解一篇 不與諸儒之說 大有徑庭 然又恐所見未廣 泥於一偏 故就唐荊川所輯正朔異同之說 節錄其要指 附于篇後 又恐此錄 未足爲博 顧以窮巷書籍甚少 就近代書目 取其說春秋者若干人 列之左 以俟日後有以寓目于諸說云

唐 陸淳 撰春秋集傳纂例 以釋其師啖助 其友趙匡之說 盖捨擊三傳 自此發揮矣 啖助

字叔佐 善爲春秋 考三家短長 縫綻漏闕 號集傳 十九年乃成

宋 孫復 撰春秋尊王發微十二卷 大指 近於公穀 而謂春秋有貶而無褒

宋 劉敞 撰春秋權衡十七卷 論三傳之得失而進退諸說 依經而立義

宋 葉夢得 撰春秋傳二十卷 參三傳而求經旨

宋 陳傅良 撰春秋後傳十二卷 合三傳而求經旨

宋 呂祖謙 撰春秋左氏傳說二十卷 深於左傳 皆據事發揮 指陳得失

宋 李琪 撰春秋王霸列國 無紀 前有序而後有論斷

宋 趙鵬飛 撰春秋經筌十六卷 棄傳從經 持論平允

宋 家鉉翁 撰春秋詳說三十卷 字字求褒貶之故

元 吳澄 撰春秋纂言十二卷 採輯諸說 折以己意

元 王元杰 撰春秋讞議九卷 輯程子朱子說 以胡氏說 補之

元 趙訪 撰春秋集傳十五卷 謂策書之例十有五 筆削之例八 其門人倪尙誼 補其說 又撰師說三卷 宗其師黃澤之說而演之 澤以左氏爲主 而深戒刻削繁碎之弊

又撰屬詞十五卷 謂春秋之義 在於比事屬詞 以椎筆削之旨 其例凡八 以杜預釋例陳傅良後傳 爲本而多所補正

又撰左氏傳補註十卷 傳黃澤之學 以左傳爲主 左氏所不及 以公穀通之 杜預所不足 以陳傅良通之 此書 卽採陳說 以補杜註之闕

元 汪克寬 撰春秋胡傳附錄纂疏三十卷 謂以諸家說 補胡氏之闕遺 大旨 以胡氏爲宗

明 春秋大全三十卷 胡廣等 因汪克寬纂疏而稍點竄之

明 王樵 撰春秋輯傳十六卷 朱子爲宗 旁採諸家

明 高拱 撰春秋正旨一卷 推原經義 訂諸家謬說

明 高攀龍 撰春秋孔義十二卷 斟酌三傳及胡傳 不主功辨 專在以經解經

清 顧炎武 撰左傳杜解補正三卷 抉摘闕誤 根據精核

清 朱鶴齡 撰讀左日鈔十四卷 亦補杜註之闕誤

清 毛奇齡 撰春秋傳三十六卷 分二十二類 而概括以四例 大旨 宗左氏

清 徐庭垣 撰春秋管窺十二卷 以左傳之事實質經 以經之異同 辨例 以考公穀以下諸說

清 張自超 撰春秋宗朱辨義十二卷 宗朱子春秋據事直書之說 不以深汨亂聖經 非全用朱子說 其總論二十篇 亦比事屬詞之義

清 方苞 撰春秋通論四卷 就經文 推求魯史本書孔子筆削之旨

淸 葉西 撰春秋究遺十六卷 宗其師方苞之論 而亦時有出入一切苛細糾紛之說 掃除殆盡 其於左氏 亦多糾正 惟於左氏事迹 疑其多僞 近於程端學之見矣

右所錄歷代諸儒之書 不止於此 此特擧其最著者 而外有針膏肓起廢疾發墨守 各一卷 漢鄭玄撰也 亦有漢賈逵服虔訓解 後人所輯述二十卷 元程端學所撰春秋本義三十卷(採三傳 以一百七十六家之說) 其非專門而見於全書者 不可殫錄 趙訪之言曰 程張邵朱四君子者 知足以知聖人矣 而於屬辭比事 有未暇數數焉 此五經微旨 所以闇而復明 春秋 獨鬱而不發也(按程子 雖有春秋傳序 而其所傳 止於桓公九年) 盖有歎於四先生不可及於春秋訓詁 而世未有定說也(宋張洽 有春秋集註十一卷 而定春王正月爲正月 元李廉有春秋諸傳會通 二十四卷 內有夏周正辨 明張以寧有春王正月考 一卷 淸吳闓有三正考 二卷 盖取李廉張以寧說 刪繁就簡 益以近時諸儒所論 以明春秋之用周正云 顧余未見其書 不知如何爲說 姑錄之如此)

덕옥재기(德玉齋記)

- 내실(乃實)의 또 다른 호는 물재(勿齋)니 바로 옥초(玉樵)의 종제(從弟)이다 -

남원(南原) 이연회(李淵會) 내실(乃實) 보(甫)는 성명학(性命學)에 종사하지만, 문장에 대한 일로 때로 욕되게도 내 거처를 찾곤 하더니 금년 봄에는 편지를 보내 덕옥재기(德玉齋記)를 요청했다.

내실이 사는 마을이 옥산(玉山)이고 그 마을 뒤에 덕치(德峙)라는 산이 있는데, 그 아래에다 서재를 짓고 산과 마을의 이름을 합쳐 편액을 지었다. 그 편액의 뜻은, 군자가 덕(德)을 옥(玉)에 비유하는 데에서 취했다고 한다.

나는 늙고 병들어 즉시 응해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되자 내실이 또 나를 찾아와서 더욱 굳세게 요청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문자를 공부했지만 실로 저 도덕의 설을 강학하지 못했으니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내가 엿본 것에 의지해서는 또한 감히 이 기문을 짓지 못할 것이다.

덕을 옥에 비유한 것은, 자공(子貢)의 옥(玉)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자께서 덕으로 비유하신 것인데, 그 조목에 11가지를 두어 상세히 구비하셨다. 비록 만일 후성(後聖)이 다시 일어난다 해도 반드시 부자께서 답하신 외에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실은 오직 마땅히 그 가르침을 힘껏 복응해서 스스로 나아갈 것이지 어찌

도덕의 설에 대해 강학한 적 없는 사람에게 말을 구하는가? 나는 이미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 내실이 내게 말을 구하였지만 내가 묵묵히 응답하지 않은 것은, 내실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다만 알고 있는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억지로 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옥(玉)은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다. 군자가 세상에 처해서는 때를 따라 의(義)를 제어하여 몸에 여러 덕을 갖추고, 그것을 미루어 행해서 덕이 없는 자를 교화시킨다. 이것은 군자가 때를 만났을 때 행하는 바이다.

그러나 때가 아직 가능하지 않다면 덕을 거두어 숨겨두고, 덕이 없는 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니, 이것은 군자가 때를 얻지 못했을 때 행하는 바이다. 마치 옥이 덕을 품고 있으면서도 말이 없고 함부로 완석(頑石)과 겨루지 않는 것과 같으니, 부자께서 비유하신 게 치밀하고, 엄함[栗者]이 혹 거의 이에 가까울 듯하다.

옥이 덕에 비유됨에는 11가지가 있는데 나는 다만 내가 아는 것으로 말하였고, 또 지식이 담고 있는 것은 매우 넓은데도 나는 단지 그 가운데 한 가지 일만을 지적해서 말 하였다. 내가 그 말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현재의 세상에 처한 자로서 그 도리상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실이 만약 이를 따라 펼쳐간다면, 내가 갖추어 말하지 못했던 것들도 점차 미루어 확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갖추어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비록 늙었지만 뒷날을 기다려 이해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장차 다시 말해 주어서 내실에게 서로 도움이 되기를 구할 것이다.

德玉齋記

- 乃實一另勿齋 卽玉樵從弟 -

南原李淵會乃實甫 從事於性命之學 而以文字故 有時辱訪余居 今年春 貽書 請德玉齋記 盖乃實所居里曰玉山 而里後有山曰德峙 建書齋其下 合山與里 扁之而其義 則取諸君子比德於玉云 余老且病 未卽應焉 及夏而乃實 又造余 請益堅 余自少功文字而實未講夫道德之說 不宜强所不知而言之 藉有所窺 亦不敢爲此記也 夫比德於玉 孔

子 因子貢之問玉而喩之以德 其目有十一 詳而備矣 雖使後聖復起 必不能立言於夫子所答之外 乃實惟當力服其訓 以自進焉 何乃求言於所未嘗講者乎 余旣以此復之 尋又思之 乃實求言於余 而余默而不應 非所以待乃實之道也 姑就知之一事而强爲之說 曰玉有君子之德焉 君子之處世也 因時而制義 身具衆德 推而行之 使無德者化之 此君子得時之所爲也 時未可焉 則卷而藏之 不使無德者加諸身 此君子不得時之所爲也 猶玉之含德無言 不妄角於頑石焉 則夫子所喩縝密 而栗者或將庶幾焉矣 凡玉之比德 厥有十一 而余獨就知而言之 知之所包甚廣 而余獨指其一事而言之 不惟余之不能具得其說 顧處乎今世者 其道似乎宜然也 乃實 苟因是而引申之 則余所不能具言者 亦可漸有以推擴矣 余亦慚無以具應 雖老矣 俟他日有得 則將復言之 求相長於乃實矣

박약재기(博約齋記)

내가 어렸을 때 내게 강학(講學)을 권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방법을 물으니 "『논어』에 구비되어 있다"고 했다. 그 때문에 나는 『논어』공부에 무척 힘을 썼다.

(『논어』에서) 부자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더니, 그 사람의 재질에 따라 내용을 일러주셨다. 그러므로 묻는 것은 같은데도 답해주는 것은 다름이 있었고, 뜻이 넓고 말이 풍부해서 끝없이 넓었다. 망령되게도 내 생각에, 범범하게 응할 데에 곡진하게 당하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자공(子貢)은 성문(聖門)의 뛰어난 제자이다. 그의 말에 "부자의 문장은 들을 수 있으나, 부자께서 성(性)과 천도(天道)를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없다"[203]라고 했다. 나는 이 말에 대해 망령되게 그 성과 천도가 아마도 바로 그 까닭일 것이라고 여겼다. 안자(顔子)와 성인과의 거리는 한 칸 정도이다. 그는 "부자께서 차근차근히 사람을 잘 이끄시어 문(文)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혀 주시고 예(禮)로써 나의 행동을 요약하게 해 주셨다"[204]고 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서도 망령되게 그 까닭이란 게 예(禮)에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예를 지킴(執禮)은 부자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던 것이니,[205] 사람마다 들을 수 있

203) 『논어』「공야장(公冶長)」에 보인다.
204) 『논어』「자한(子罕)」에 보인다.
205) 『논어』「술이(述而)」"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

다. 그렇다면 예로 요약한다는 말과 예를 지킨다는 말은 다른 점이 있는가? 안자가 인(仁)을 묻자, 부자께서는 극기복례(克己復禮)로 대답하셨다.[206] 회복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얻은 성(性)을 회복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이른바 예(禮)로 요약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해 나는 함부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성인의 도가 비록 크지만 항상 사람의 일용간에 있기 때문에 공자께서 사람을 가르치심에 고원(高遠)한 것으로 보여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학자는 마땅히 효제충신(孝悌忠信)과 몸을 닦고 사물을 접하는 데에서 성인의 도를 구해야만 한다고 말이다.

오직 자기가 처한 곳에서 각각 그 마땅함을 헤아리는 것이 문(文)으로 넓힘[博文]'이고, 그 행함이 익숙해져서 천리(天理)의 질서정연한 절문(節文)을 따르지 않음이 없는 것이 '예(禮)로써 요약함[約禮]'이다. 넓음(博)을 통해 요약으로 나아감은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우는(下學) 공부이고, 요약을 잡고 박(博)을 제어하는 것은 위로 천리(天理)에 도달(上達)하는 공부[207]이다. 넓음에 힘써 점차 요약에 이르기를 기약하는 자는 스스로를 경계짓지 않는 자이다. 맹자가 이른바 "널리 배우고 자세히 말하면 장차 말함이 간략함에 돌아온다"는 것이 이것이다. 오직 넓기만을 오로지 하고 대번에 요약함에 뜻을 두지 않는 자는 속히 이루어짐을 구하지 않는 자이다. 주자가 이른 바 "다만 넓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나 또한 요약에 갈 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부자께서는 대성이신데도 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아래로 인사를 배워 위로 천리를 통달한다"고 하셨다. 그러나 부자의 학문을 구하는 사람들은 오직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우는(下學)' 공부만을 급히 할 따름이다. 자사자(子思子)께서 "군자의 도는 비유컨대, 먼 길을 가는 것은 반드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으로부터 하는 것과 같다"[208]고 했으니, 아마도 이것을 이를 것이다. 박학을 싫어하고 요약하기만을 좋아하는 것은 이단지학(異端之學)이 성인지학(聖人之學)과 다른 이유이다.

나는 함부로 이와 같이 생각한 적이 있으나, 감히 배움을 가지고 스스로 드러내지 않은 것이니, 진실로 일용상행(日用常行)의 '가깝고 낮은 것'으로도 오히려 넓지

206) 『논어』「안연(顔淵)」"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207) 『논어』「헌문(憲問)」 참조.
208) 『중용』, 전(傳) 제15장에 보인다.

못함을 걱정함이 없건마는 하물며 요약함에 대해서랴!

임실(任實) 최창렬(崔滄烈) 의경(宜卿) 보(甫)는 강학의 길에 대해 성실과 공경의 태도로 임해왔고, 거처하는 서재에 "박약(博約)"이라 편액을 하더니, 내게 기문(記文)을 물었다. 물음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은 오만함이고, 아직 행하지 않고서 억지로 말하는 것은 속임이다. 마지못해 일찍이 여러 번 의심스러워 하며 석연치 못했던 점으로 대답해 드렸다. 그로써 내가 '박약'의 학문을 말하기에는 부족하나, 실로 의경이 스스로를 경계짓거나 학문의 속성(速成)을 추구하지 말았으면 하는 데 내 바람이 있음을 밝혔을 뿐이다.

博約齋記

不佞 少時有勸以講學者 問其方則曰 具在論語矣 以故 不佞 頗用力於論語 見夫子之教人 因其材而告之 有所問同而所答不同者 義廣而辭富 浩無涯涘 妄窃意其汎應而曲當 必有所以然者矣 子貢 聖門之高弟也 其言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不佞 於是 妄意其性與天道 殆其所以然之者歟 顔子 去聖人一間矣 其言曰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不佞 於是 又妄意其所以然之者 在於禮歟 執禮 夫子雅言也 人人得以聞之矣 抑約禮與執禮 有以異乎 顔子問仁 夫子答之以克己復禮 復之云者 復夫性之所得於天者也 此其所謂約禮者乎 於是 不佞 妄窃以爲聖人之道 雖大而常在於人之日用 故其教人也 未嘗示之以高遠 學者 當求諸孝悌忠信修己接物之間 惟其所處而各究其當者 博文也 及其行之之熟而莫不循乎天理秩然之節文者 約禮也 由博而就約 下學之工也 操約而御博 上達而功也 方懋乎博而期以漸至於約者 不自畫者也 孟子所云 博學而詳說之 將以反說約 是已 惟專乎博而不遽有意於約者 不求速成者也 朱子所云 非欲其徒博而亦不可以往約 是已 夫子大聖也 其自道也 曰 下學而上達 凡人之求夫子之學者 惟下學是急而已 子思子曰 君子之道 譬如行遠 必自邇 升高 必自卑 殆斯之謂歟 其厭博而喜約者 異端之學 所以異於聖人之學也 不佞 妄嘗揣之如此 而不敢以學自襮者 誠以日用常行 邇且卑者 尙患不能博 固未矣 況於約乎 任實崔滄烈宜卿甫 摳衣於講學之門 而扁所居之齋曰博約 問記於不佞 夫有問而不應者 傲也 未行而强言者 誣也 不獲已而以曾所屢疑而未釋然者復之 盖以明夫不佞之不足言博約之學 而實有望於宜卿之毋自畫毋求速成云耳

이군(李君) 희서(希瑞)가 남원(南原)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면서 쓴 서(序)

- 희서의 이름은 병규(秉珪)니 옥초(玉樵)의 장자(長子)이다

지난 을미년(1895) 봄에 내가 남원에 간 지 겨우 몇 일만에 옥산(玉山) 이옥초(李玉樵)가 내 거처로 와서 제자의 열(列)에 들게 해달라고 청했다. 나는 스승이 되기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하였더니, "저는 일찍이 과거에 응시하느라 시문(時文)에 힘썼습니다만 그것은 본래부터 품은 뜻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제도가 폐지된 상황에 고문(古文)을 배우기로 결심했고, 이 때문에 와서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그와 더불어 말을 나눠보니, 진실로 재주가 많고 천성이 넉넉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교제를 맺고 내 집에서 문자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그렇게 돌아 간 지 얼마 안 되어 옥초가 일찍 돌아갔다는 부음을 듣고는 매우 애석해 했다. 가서 곡을 하는데, 옥초의 두 아들은 어리고 수척했고, 옥초의 아버지는 나를 보고는 놀라며 울더니, 잠깐만에 두 손자가 지은 칠언시를 내 보여주며, "죽은 아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손자들이 제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문학을 공부한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그 3년 뒤에 옥초의 차자(次子) 원서(元瑞)가 그 조부의 명을 받들고 내 문하에서 종유하다가 몇 달을 지내고서야 비로소 돌아갔는데, 원서는 고시(古詩)에 대해 가정에서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부터 서신을 통해 묻는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 을사년에 옥초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버리셨다. 나는 원서 형제에 대해 삼대(三代)에 걸친 우의를 지녔고, 또 그들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같은 나이인데도 늙고 병들어 조문하지 못했으니, 나는 그게 부끄러웠다.

금년 봄에 원서가 나를 찾아와 만났고, 그의 형 희서(希瑞)가 또 찾아와 만났는데, 그동안 격조했던 까닭을 말하고는 목메어 울며 "선군(先君)께서 일찍부터 문학을 공부하셔서 명예를 울창히 하셨는데, 불초자가 어린 나이에 상을 당해서 선군을 유작(遺作)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불초한 저의 죄가 천지간에 지극할 것입니다. 선생님께는 제 선군이 옥산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 쓰신 서(序)가 있고,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둔 곳을 잃어 버렸습니다" 하였다.

말을 다하기도 전에 나는 얼른 일어나 상자를 뒤져서 옥초의 두 시가 내 원고 가운데 있는 것을 찾았다. 얼마 뒤에 또 내가 옥초를 전송하며 지었던 글을 내 산고(散藁)에 실어놓았던 것을 기억해내고 찾아 보았더니, 과연 들어 있었다.

희서에게 이르기를, "옛날 육방옹(陸放翁)[209]은 그 아버지가 지은 칠언시 일련(一聯)을 자신의 시권(詩卷)에 실어 두어서 지금껏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지. 지금 그대 선군의 칠언율시와 오언고시는 다 한 편의 작품을 이루었으니, 육방옹 집안의 유시(遺詩)에 비한다면 매우 많다. 한스러운 점은 그대 선군의 문(文)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대 선군을 전송하며 쓴 서(序)를 본다면 그대 선군도 고문(古文)을 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그대가 또한 그대 선군이 종유하던 이웃과 동군(同郡)에서 (선군의 글을) 부지런히 찾고 있으므로 수집되는 글이 응당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테니, 이 일은 자네에게 달려 있네" 하였다.

이에 이 일의 전말을 일일이 써서 희서를 전송한다. 그래서 희서 형제가 선군의 일을 계술(繼述)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니, 만일 그들이 성취한 바가 육방옹이 세상에 유명해진 것 같을 수 있게 된다면 희서 선군의 유시(遺詩)와 유문(遺文)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희서는 힘쓸지어다.

送李君希瑞歸南原序

- 希瑞名秉珪 玉樵長子 -

往在乙未春 余適南原 僅數日 而玉山李玉樵 造余所住 請居弟子列 余以非其人辭謝則曰 某嘗以應擧 故役于時文 然非素志也 及今科制廢而決意學古文 是以來請余與之語 信乎其多財而足性也 遂結驩 期以文字 見于余舍 旣還 未幾而聞玉樵早世 甚悼惜之 往哭焉 二孤 弱齡孌孌 而玉樵大人見余 驚且泣 須臾出示兩孫所作七言詩曰 亡兒已矣 此孫輩 能繼乃父業 修文學 則吾死無恨矣 後三年 玉樵次子元瑞 承其祖父命 遊余門 歷數月始歸 而元瑞於古詩 有家庭風 自是訊問不絶 而乙巳 玉樵大人謝世 余惟余於元瑞兄弟 有三世誼 又余與其王大人同庚 而乃老病不能弔 余其怍矣今年春 元瑞來見 夏而其兄希瑞 又來見 敍所以阻濶之故 因哽咽 言曰 先君 蚤功文

209) 중국 남송 때의 시인 육유(陸游 : 1125~1210)를 말함. 자는 무관(務觀), 호는 방옹. 청신한 시로 일가를 이루었는데, 특히 촉중(蜀中)의 풍토를 사랑해서 시집의 제목을 『검남시고(劍南詩稿)』라 하였으므로 검남파(劍南派)로 일컬어진다.

學 蔚有聲譽 而不肖 年淺遭艱 先君遺作 未之蒐輯 不肖之罪 極于穹壤 且先生有送先君歸玉山序 不肖嘗讀矣 而亦失所在 言未旣 余亟起檢篋 得玉樵二詩在余藁中 旣而 又記余送玉樵載余散藁 檢之 果有焉 謂希瑞曰 昔陸放翁 以其親所作七言一聯 載其詩卷 得至今不泯 今子之先君七律五古 皆成篇 比陸家 遺詩已多矣 所恨者 文無徵矣 而見余送子先君序 足以徵子之先君之亦爲古文也 況子又勤搜于比隣若同郡所嘗從子之先君遊 其所蒐 不應止此 是則在子 於是 歷書其顚末 以送希瑞焉 盖欲希瑞之兄弟 不懈于繼述 使其所就 得如陸放翁之名世焉 則希瑞之先君遺詩遺文 必傳矣 希瑞勉矣哉

월계서(月稧序)

참된 이로움은 의(義)와 함께 행해지니, 의와 함께 행하지 못하는 자는 참된 이로움을 알 수 없다. 의에 있어서도 그러하니, 진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이(利)와 함께 행한다. 이런 말을 갑자기 들으면 이상할 듯하지만, 성인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주역』에 "이(利)는 의(義)의 화함이다"[210]라 하고, 또 "물(物)을 이롭게 하면 족히 의(義)에 화(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직 화(和)한 뒤에야 참된 이(利)를 거둘 수 있고, 오직 물(物)을 이롭게 한 뒤에야 참으로 자기를 이롭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로움을 구할 수 없다.

비유컨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대하고서 서로 사양하고 먹지 않으면 골고루 배부를 수 있으니, 이것이 의와 함께 행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번 다툼이 있다면 좋은 음식이 상하고 없어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물(物)을 이롭게 함이 자신을 이롭게 함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재화를 합쳐 이익을 증식시키는 것을 계(稧)라고 명명한다. 그 처음을 물어보면 의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으나, 그 끝을 고찰해 보면 대체로 합치는 것은 적고 흩어진 것은 많다. 어째서인가? 참된 이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의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참된 이로움을 안다면 먼저 참된 의를 힘쓰게 되고, 참된 의를 힘쓰고자 하

210) 『주역』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보인다.

면 먼저 그 의를 해치는 원인을 제거한다. 해로움을 제거하면 장차 탐(貪)함을 그칠 것이고, 탐함을 그치면, 장차 사양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사양하는 마음이 일어남에 의가 확립되고, 해로움이 제거됨에 이로움이 온전해진다. 이것은 필연적이 이치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형세이다.

지금 이 월계(月稧)가 오로지 이로움을 증식시키는 것만 위하고 설혹 의와 함께 함이 없는 것 같더라도, 참된 의가 그 가운데 행해질 수 있다면 합자(合貲)한 계원들로 하여금 진실로 참된 이(利)를 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의를 해치는 것이 마음에 싹트게 해서는 안 된다.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만일 작은 지혜를 행한다면 의를 해치고, 원대한 사려를 생각하지 않고 고식적인 것에 편안해 한다면 의를 해치며, 공익(公益)을 돌아보지 않고 사사로운 생각을 부른다면 의를 해친다.

이 세 가지 해로움이 반드시 제거된다면, 의를 해치는 것은 싹트지 못하고 의를 모으는 것은 성대하게 생겨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계가 화합하지 못하고 이로움이 참되지 못한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여러 계원들이 화합하니 이로움이 절로 이를 것이고, 여러 계원들이 이로우니 자신도 절로 이로울 것이다. 의(義)와 함께 행하니 그렇지 않겠는가?

사람이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의(義)가 얼굴색에 나타나지만, 실제 일에 임해서 뜻을 잃고 본말이 전도되어 이로움을 쫓는 것은 의가 이로움 가운데 행해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이로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참된 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혹 의를 가장해 이로움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속임에 가까운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구할 뿐이라고 말한 것이다. 마음이 거짓되고 가장됨은 진실로 속임이고, 마음이 참되고 실천하면 바르게 될 뿐이다.

아! 이런 방법을 따라 가는 것이 어찌 다만 이 한 계(稧) 뿐이리오? 어찌 다만 이 한 계 뿐이리오? 계 중의 절목(節目)은 아래에 상세히 들어 놓았고, 여기에서는 다만 그 큰 뜻만을 들었다.

月稧序

利之眞者 與義同行 不與義同行者 不能知眞利也 卽義亦然 眞能爲義者 必與利同行 斯言也 驟聞之 若異矣 而聖人 盖已言之 易曰 利者 義之和也 又曰 利物 足以和義

惟和然後 可以收眞利 惟利物然後 可以眞利己 不知此者 不足以求利也 譬如衆人對美食 交讓勿食 均得其飽 斯非與義同行乎 一有競爭 美食壞捐 斯非不知利物之爲利己者乎 我東 以合貲殖利 命之曰稧 問其始 無非出於義者 及考其終 則概少合而多渙何者 不知眞利 故不能行眞義也 苟知眞利 先務眞義 欲務眞義 先祛其所以害義者 祛害 將以止貪 止貪 將以興讓 讓興而義立 害祛而利全 此理之必然而勢所必致也 今玆月稧 專爲殖利 而設似無與乎義矣 而眞義 得行乎其中 使合貲之員 誠能求眞利也 勿使害義者 萌于心矣 不念大體 苟行小智則害義 不思遠慮 安於姑息則害義 不顧公益聘其邪念則害義 凡此三害 務必祛焉 害義者 不萌而集義者 沛然而生矣 夫如是 何患乎稧之不合 利之不眞乎 諸員和而利自至 諸員利而己自利 與義同行 不其然乎 人之平居出言 義形於色 而臨事失志 顚倒趨利者 盖不知義行乎利中也 故曰 不知眞利者不能行眞義也 或疑假義取利 不近乎譎乎 曰 是責之于心耳 心僞而假焉 固譎也 心眞而踐焉 則正而已矣 嗚呼 由是道而往 豈獨此一稧哉 夫豈獨此一稧哉 稧中節目 詳揭于左 玆特擧其大指云

여 백

燕石山房文藁

九

寒暄小品 并序/318
思/323
訊/334
敍/341
賀/354
慰/369
餽/378
乞/385
請/391
勉/396
謝 思/400
謝 訊/403
謝 賀/408
謝 慰/412
謝 饋/415
謝 乞/418
謝 請/422
謝 勉/425

여 백

燕石山房文藁 九

한훤(寒暄)[1]에 대한 소품(小品) - 서(序)를 곁들여

서한(西漢 : 前漢)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글을 읽어보면 대체로 문(文)이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문(文)은 더욱 번잡해졌으나 유독 서찰(書札)만은 점차 간략해졌다. 그리고 더욱 내려올수록 또 표일(飄逸)함과 간결함을 취하여 따로 한 형식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문(文)은 글을 잘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서찰은 글을 잘 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것이다. 만약 모두가 글을 잘 짓지 못한다면 국문 등의 말로 쓴다해도 말이 통하지만 글을 잘 짓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글에는 간결한 것도 있고 또 표일한 것도 있으니, 간결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상스러움을 면해야 한다.

요즘 중국 사람의 척독(尺牘)[2]을 보면 우아하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아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저절로 구별이 된다. 우리 나라는 중국과 또 구별되어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지 않으면 곧 서로 비웃으면서 잘 모른다고 여긴다. 이것은 세속에서 숭상한 것이 그렇기 때문이다.

나와 교유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속에서 숭상하는 말로 글을 잘 짓는다고 해서 구해보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매번 급작스레 응답하는 글이 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을 근심했다. 때마침 며칠 간 일이 없어 생각나는 대로 이 글을 써서 구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 보는 사람은 반드시 웃으면서 중국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 것도 아닌 또 다른 형식을 이루었다고 여길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끝이 없어서 하나의 글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 때

---

1) 겨울과 여름을 말하는데, 곧 일기의 춥고 더움을 말하여 서로 인사함을 말한다. 따라서 한훤소품이란 간단한 계절 인사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2) 편지를 말한다. 독(牘)은 네모난 판(版)으로 한 자를 기준으로 긴 것을 간(簡)이라고 하고 짧은 것은 독(牘)이라고 한다. 척소(尺素)·척한(尺翰)·척저(尺楮)라고도 부른다.

문에 우선 작은 단락으로 나누니, 사(思 : 생각함), 신(訊 : 물어봄), 서(敍 : 서술함), 하(賀 : 축하함), 위(慰 : 위로함), 궤(餽 : 드림), 걸(乞 : 빌림), 청(請 : 부탁함), 면(勉 : 권함), 사(謝 : 감사함)이다. 우리나라에서 통행하는 것을 주로 하고, 고어(古語)를 조금 따서 그것을 윤색(潤色)했다. 이것은 대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련하면서 너무 속되면 그들의 견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였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근순(謹詢)[3], 복순(伏詢)[4], 기후(氣候)[5], 체후(體候)[6] 등은 사람들이 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했다.

寒暄小品 幷序

讀西漢人所相與書 蓋文而已矣 世降而文滋繁 獨書札 乃漸取簡 愈降則又取逸取潔 別立一門 其故何也 文行乎工文者 而書札通乎未工文者 使皆未工 卽俚無不可 而于工者 則又不當爾 故有所謂簡者 又有所謂逸者 潔者 要免夫俚也 觀近日中州人尺牘 非雅非俚 比前代自別矣 我東與中州 更別自成面目 不如此 輒相笑以爲闇 俗尙使之然也 從我遊者 謂余能作俗尙語 求之不已 每患倉猝應之 辭不達意 適數日無所事 漫書此以資應人求 覽者必笑以爲非中非東 又成一面目也

事物之來無窮 非一書可以盡之 姑分爲小段 曰思 曰訊 曰敍 曰賀 曰慰 曰饋 曰乞 曰請 曰勉 曰謝 以通行于我東爲主 而微採古語 以潤色之 蓋爲初學者設 而慮其太俚 則無所資其見聞也 若其例套謹詢伏詢氣候體候之類 人固恒用 故闕之

사(思)

헤어진 날로부터 한 차례의 겨울과 두 차례의 여름이 지났습니다. 남쪽 구름을 바라보니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헤어진 뒤 5년이 지나니 반딧불이가 흩어지는 것처럼 소식은 아득합니다. 비록 하늘이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지만 사람의 일에는 다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

3) 삼가 묻는다는 뜻. 관례적으로 쓰는 어투이다.
4) 엎드려 묻는다는 의미의 상투적인 용어이다.
5) 계절에 따른 안부(安否) 인사말이다.
6) 건강을 묻는 인사말이다.

한 번 외람되이 편지를 받은 뒤로 오랫동안 은혜로운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음(韶音)[7]처럼 아름다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읊조리며 다만 간절하게 조아려 기릴 뿐입니다.

멀리 있어 안부를 여쭙지 못하니 심사(心思)가 서글퍼져 은덕을 우러러 앙모(仰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일찍이 외람되이 사랑을 받고서 한 번 숭헌(崇軒)[8]에 나아가 안부를 여쭙고 흥겨이 머물 겨를을 내지 못하니 은덕을 저버림이 많습니다.

그대를 뵙지 못한 지 일년쯤 됩니다. 조신(操身)한 덕을 크게 앙모하여 잠시라도 가슴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도성(都城)의 성문에서 옷깃을 부여잡고 나누었던 밝은 달과 맑은 바람 같던 싯귀를 어찌 일찍이 가슴속으로 읊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이 겸손하신 덕화로 아랫사람들을 깨우치시며 내려 주시던 맑은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감격하여 저의 오장(五臟) 속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다만 관하(關河)[9]에 막혀 멀리 떨어져 있어 공손히 거친 편지도 써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은덕을 우러름에 어떻게 그리움을 견디겠습니까.

찾아뵈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녹록(鹿鹿)하게도 형역(形役)[10]이 되어 덕휘(德暉)를 직접 접할 길이 없으니 아쉬운 생각이 쌓여 다만 답답할 뿐입니다.

산과 물로 가로막히는 것은 비록 물고기와 기러기라도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엄 있는 모습을 뵙지 못하니 부질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발돋음 해 바라봅니다.

초봄에 문가(文駕)[11]의 분림(賁臨)[12]을 입어 몽매함을 일깨워 주시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와 같은 감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갓 속기(俗氣)도 채 없애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13] 조금도 펴지 못하니 죄송한 마음에 더욱 간절히 우러러 사모

---

7) 순임금의 음악 이름. 『서경』 「익직(益稷)」에 "소소(簫韶)의 음악을 아홉번 연주하니 봉황새도 날아와 춤을 추었다"라는 기사에 처음 보인다. 그 가사는 실전(失傳)되었다.
8) 상대방의 집을 높여서 부르는 말.
9) 산과 물로 막혀 오가지 못하는 것을 뜻함. 관은 함곡관(函谷關)을 말하고 하는 황하(黃河)를 가리키니, 둘 다 사람의 자유로운 왕래에 막대한 장애가 되는 것이다.
10) 마음이 육체적 생활의 노예가 되어 사역당하는 일을 말한다. 전하여, 정신상의 안락을 구하는 일이 없이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일을 말한다.
11) 문인이나 관리의 탈 것을 높여서 부르는 말.
12) 남이 자기 집에 방문하는 것을 높이는 말.
13) 원문의 근경(芹敬)은 어떤 사람이 고사리를 먹으며 "이 맛있는 것을 임금님에게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합니다.

머물러 잘 곳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매번 고인(古人)의 천리명가(千里命駕)[14]를 생각하면 오래도록 부끄럽습니다.

오랫동안 덕교(德敎)을 사모하였는데, 한형주(韓荊州)[15]와 면식(面識)을 갖고자 하는 바람을 이루지 못한 것이 평소의 한이 됩니다.

장마가 그친지 스무날이 되었고 길은 진흙탕이 되어 달려가 만날 수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금음(金音)[16]을 받지 못한 채 겨울과 여름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스라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형과 이별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형을 생각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형이 저보다 간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17]

갈대가 푸르지만 흰 이슬에 시듭니다. 저 사람을 생각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옛날을 생각하면 서쪽 누각(樓閣)에 불던 비바람이 꿈속의 일인 듯합니다. 매번 해질 녘에 술에서 깨어나면 이별의 감회가 더욱 괴롭습니다.

예전 우리가 이별할 때에는 나무에 눈이 쌓였었는데 그 사이 꽃이 피고 잎이 돋고 잎이 다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오히려 이러한데 사람이 어찌 세월을 감당하겠습니까?

계곡의 물안개는 저녁이면 푸르고 산의 나무는 가을이면 붉어집니다. 정은 경치로 인해 생겨나서 사람을 늙게 합니다.

오랫동안 대량(戴良)[18]의 스승인 황헌(黃憲)[19]과 같은 분을 뵙지 못하였으니 주거

14) 먼 곳의 친구를 생각하여 방문하려고 거마(車馬)의 채비를 차리게 하는 것.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동평인(東平人) 여안(呂安)이 절친한 계강(稽康)이 생각나면 천리라 되는 거리라고 할지라도 말에 멍에할 것을 명했다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간오(簡傲)」에 보인다.

15) 중국 당나라 때 형주자사(荊州刺使)를 지낸 한조종(韓朝宗)을 말한다. 이백(李白)의 「여한형주서(與漢荊州書)」에 "이백이 듣기에 천하의 선비들이 서로 모여 말하기를, '평생에 만호후(萬戶侯)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다만 한형주와 일면식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니 어찌 사람을 경모함이 여기에 이른단 말입니까?"라고 한데서 나온 고사이다. 곧 유명인사를 면회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일을 말한다.

16) 금쪽처럼 귀한 말씀이란 뜻.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높이는 말이다.

17) 한유(韓愈)의 「여맹동야서(與孟東野書)」에 "내 마음으로 그대를 생각해 보면 그대가 나보다 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周擧)[20]에게 비루하고 탐하는 마음이 싹튼 것[21]과 같은 일이 어찌 다시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별한 뒤로 꿈을 꾸지 않으면 모를까 꿈을 꾸면 일찍이 형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즐겁게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생시(生時)가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꿈을 꾸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꾀꼴꾀꼴 우는 꾀꼬리도 오히려 벗을 찾을 줄 아는데 어찌 사람이 그만 못하겠습니까?

버드나무 싹이 돋아 나려하고 꽃봉오리는 맺혀 있습니다. 누가 사물에 정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형의 시를 읽어보면 매우 수척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매화라도 대하면 우리형처럼 수척하여 또렷이 우리형과 마주한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픕니다.

형과 이별한 지 한 달이 되어 회인시(懷人詩) 스물 아홉 수를 지었습니다. 첫날에만 시가 없는데 시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 이별하고 몹시 그리워서 지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생각이 심하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형의 문을 두드리고 형의 방에 들어가 손을 마주 잡고 다정스럽게 얘기하다가 깨어나면 변함 없이 저의 침상이어서 오랫동안 슬퍼합니다. 그러나 장민(張敏)[22]이 길 한가운데서 헤매던 것에 비교하면 문득 시원하고 유쾌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 헤어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별의 한이 어떠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다

---

18) 중국 후한 때 사람. 백란(伯鸞)의 아우이고 자는 숙란(叔鸞)이다. 재주가 뛰어나고 기이(奇異)한 것을 의논하기를 좋아했다. 조정에서 자주 불렀으나 모두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후한서(後漢書)』 권113에 보인다.

19) 중국 후한 때 사람. 자는 숙도(叔度)이다. 14세 때 영천(潁川)의 순숙(荀淑) 과 더불어 이야기하며 날이 바뀌는 것을 몰랐다. 효렴(孝廉)에 천거되었으나 벼슬하는 것을 꺼려 잠시 경사(京師)에 들렀다 돌아가는 등 평생을 벼슬하지 않고 48세에 죽으니 천하사람들이 징군(徵君)이라고 불렀다. 그릇이 커서 천이랑 넓이의 연못과 같아 그것을 맑게하려 해도 할 수 없고 흐리게 하려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리기가 어렵다고 당시 사람들이 평했다. 『후한서』 권83에 보인다.

20) 중국 후한 때 사람. 방(防)의 아들이며 자는 선광(宣光)이다. 박학하고 견문이 넓어 유자(儒者)의 종사(宗師)가 되었다. 벼슬은 대홍로(大鴻臚)를 역임했다. 『후한서(後漢書)』 권91에 보인다.

21) 진번(陳蕃)과 주거(周擧)가 항상 서로 말하기를, "오랫동안 황헌을 보지 못하니 비루하고 탐하는 싹이 다시 마음에서 생겨난다"라고 한데서 나온 말인데, 『후한서』 「황헌전(黃憲傳)」에 보인다.

22) 중국 후한 때 사람. 자는 백달(伯達). 건초(建初) 연간에 효렴(孝廉)에 천거되어 뒷날 상서(尙書), 사공(司空)을 역임했다.

만 여름 낮이나 겨울밤에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형과 헤어진 뒤 다른 때에는 한스러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부르면 대답해 줄 사람이 없은 후에야 비로소 참으로 한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한은 오로지 우리 같은 사람이나 알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별한 뒤의 회포는 글만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 까닭을 찾아보면 어찌 다만 남몰래 혼만 삭일 뿐이겠습니까?

지난날 아침저녁으로 머리를 맞대고 붓과 벼루 사이에서 높게 읊조리고 낮게 외우던 일을 기억하면 묘연(杳然)히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 같습니다. 진실로 한마음으로 모이고자 한다면 어찌 지난날과 같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내가 가지 않았는데 어찌 형이 꼭 올 것을 바라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꼭 한 번 간 뒤에 한 번 온다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매번 그리움이 깊어 어찌 해볼 수 없는 데에 이르면 문득 '벗은 그림자가 아닌데 어떻게 서로 따라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이 말로써 약간 스스로를 누그러뜨릴 뿐입니다.

물이 겹치고 산이 중첩하여 우리 두 사람을 가로막으니 서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저 달뿐입니다. 달이 나올 때 형도 그것을 바라보고 저도 그것을 바라보니, 비록 천리가 가로막혀 있지 않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저 물이나 산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다시 한 가지 걱정은 달이 없을 때에는 어찌합니까?

한 사람이 벗을 방문하러 벗의 집에 갔다가 돌아갈 때면 그 벗이 그를 전송하여 수 십리에 이르러 머물러 숙박합니다. 아침이 되어 길을 떠나려할 때 책망하며 말하기를, "자네가 나를 전송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나라고 어찌 자네를 전송하지 않겠나?"고 하여 그를 전송하려고 벗의 집에 이릅니다. 이렇게 왕복하기를 열흘 동안이나 멈추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모두 피로하여 드디어 서로 상의하여 이사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속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벗 사이에 서로 마음을 기울이는데 본보기가 될 만합니다. 형을 위하여 그 이야기를 외우니 형은 이 일에 유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번에 댁에 갔다가 만나 뵙지 못했고 오늘 또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뒷날 또

만나 뵈올 것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열흘쯤 제 집에서 오시기를 기다릴테니, 형은 저를 위하여 한 번 사례하지 않을런지요.

심하도다, 문인이 서로를 생각함이여! 의심스러운 뜻을 만나면 함께 질정할 것을 생각하고, 경계할 글귀를 만다면 함께 완상할 것을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아침엔 꽃이 피고 저녁엔 달이 뜨는데, 고요히 우두커니 서서 한가로이 감회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록 구름을 타거나 진흙탕으로 다녀 거처하는 곳은 같지 않지만[23], 옛날 서책(書冊)을 베고 등잔의 심지를 돋우며 즐거워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위의(威儀)를 갖춘 사나이들이 죽 늘어선 것이 아스라이 눈에 어린 것이 어제의 일인 듯 싶습니다.

산과 들길로는 한계가 있어 목을 늘어뜨리고 남쪽을 바라보노라면 정신이 날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정(情)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나는 그를 생각하기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하는데 그는 무심하기가 산의 암굴(巖窟)에서 나오는 구름과 같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와 같다면 왜 그를 그토록 그리는가?"라고 하는데, "그의 재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思

自拚別來 歷一寒二暑 瞻望南雲 能不依依

一別五秋 螢散聞漠然 雖天分南北 抑人事有未盡也

一自叨辭 久隔寵光 懷詠韶音 只切額頌而已

逖違問候 下懷悵菀 無時不欽仰德暉

夙叨摯愛 未遑一造崇軒 而恭候興居 負德多矣

睽隔淸光 一年所矣 景仰夙德 不能晷刻忘諸懷 曩者都門 把袂獲領 塵談朗月淸風 何嘗不懷詠

向蒙謙光下霽 頒淸誨者 屢矣 銘感之私 深縈五內 但關河遠隔 未能恭修蕪函 企仰恩暉 曷勝依戀

---

23) 운니지차(雲泥之差)를 말한다. 두 사람의 신분이나 처지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현격함을 의미한다.

擬叨謁 非止一再 而鹿鹿爲形役 末由親炙德暉 積歉之懷 只自紛結
山川迴隔 雖魚鴈 時有之 儀型莫接 徒切翹企
春初 蒙文駕賁臨 克承塵教 何感如之 徒以俗氣未除 未獲少伸芹敬 歉仄繃中 尤切景仰之忱
不數舍地 睽離乃爾 每思古人千里命駕 輒靦然久之
久欽德教 以未遂識韓之願 爲生平一恨
積雨兼旬 道途泥濘 未獲趨晤 安得不悵然
不奉金音 寒暄居然兩易 春樹暮雲 悄然入望素心 人應亦同情也
與兄別久矣 以吾之思兄 知兄懸懸於吾也
蒹葭蒼 而白露霜 欲不懷伊人 得乎
憶往年 西樓風雨 如在夢中 每值日暮 酒醒覺 離懷更苦矣
昔我別時 雨雪在樹 載花載葉 葉又成陰矣 樹猶如此 人何以堪
溪烟夕蒼 山樹秋紅 情因境生 令人欲老
久不見戴良之師 周子居鄙吝之心 何得不復生
奉別來 無夢則已 有夢 未嘗不與兄促膝暢談 雖知其非眞 猶賢乎無夢也
嚶嚶黃鳥 尙能求友 豈人而不如也
柳眼欲穿 花心如結 孰謂物無情哉
念吾兄詩 瘦頗甚 及對梅花 如吾兄瘦 宛然與吾兄對 不覺黯然傷神
別仁兄一月矣 而得懷人詩 二十九首 蓋一日無詩 而非無詩也 始別而懷之甚 不能作耳
思之甚 則夢 夢叩兄之門 入兄之室 握手話娓娓 寤則依舊 是弟之臥榻也 悵然久之 然比張敏半途而迷 便覺暢快矣
一別垂一年矣 不知別恨爲如何 但覺夏日冬夜 無與對話 茫然自失而已
別吾兄 他時不知其可恨 及言之而無與聽 唱之而無與和 然後始知爲眞可恨 此恨 惟我輩人知之
吾兩人別懷 文通賦中所未道也 苟究其故 豈直黯然銷魂而已哉
憶向來晨夕聚首 高吟微諷於筆硯間 杳然若前生事 苟一心要會合 何渠不若向來 而顧不能焉 何也 豈亦有主張是哉
我之未往 豈望兄之必來 雖然 必一往而後可一來 則不待其來而先往者 此何人哉
每當懷仰之深 至不可解去 則輒曰 友朋非形影 何能相隨 以此稍自寬耳

複水重山 隔我二人 所能相對者 月而已矣 月出時兄望之 弟亦望之 雖謂之千里不隔可也 彼水也山也 無如吾兩人何 然更有一事 奈無月時何哉

一人訪友之友家 將還 其友送之 至數十里 止宿 詰朝臨發而曰 子送我至此 我寧不送子 送之至友家 與之往返 旬日而不休 二子俱憊 遂相謀移家 從之 此雖俚史 可爲友朋相向者法 爲吾兄誦之 兄其有意於此乎

向進至高軒而失拜 今又進至而又失拜 後來之未失拜 可能必耶 自今以往十日計 將於弊廬候之矣 兄無意爲吾一謝乎

甚矣 文人之相思也 遇疑義 則思共質之 遇警策 則思共賞之 風天雨地 花朝月夕 有不悄然佇立 悠然興懷者乎

雖乘雲行泥 棲息不同 憶疇昔枕籍書史 剪燈雅謔時 鬚眉稜稜 森然在目 如昨日也

山野路限 引領南望 覺神氣飛越也

最難爲情者 我思彼 如渴者之於水 而彼乃無心 如出岫之雲 或曰 若爾 胡彼之是思曰 愛其才也

신(訊)

봄바람이 사나운데 도체(道體)[24]는 두루 편안하신지요. 변변찮은 제가 어찌 크신 괴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정성(定省)[25]에 부모께선 화평하고, 훈지(塤篪)[26]에 형제간에 화목하고, 의실(宜室)[27]하여 부부간에 화락하며, 사랑하는 자식은 수고롭게 하시는지요.[28] 유람하면서 지었던 글귀를 하나하나 듣기를 원합니다.

남해(南陔)의 봉양[29]과 상체(常棣)의 즐거움[30]은 우러러 생각함에 날마다 하여도

24) 학문에 종사하는 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25)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줄임말. 저녁에 부모님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새벽에 안부를 묻는 일이다.
26) 훈지상화(塤篪相和)의 줄임말. 형은 질나팔을 불고 동생은 저를 분다는 뜻으로 형제간에 화목함을 말한다.
27) 부부간의 화목한 금슬을 말한다. 『시경』「도요(桃夭)」의 "저 아가씨의 시집감이여, 그 부부간과 집안을 화순하게 하리로다"(之子于歸 宜其室家)"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28) 『논어』「헌문(憲問)」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면 수고롭게 하지 않겠는가, 충성한다면 깨우쳐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보인다. 자식에 대하여 사랑하면서도 수고롭게 할 줄을 알아야 그 사랑이 깊음을 말한 것이다.
29) 효자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어버이를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시경』 소아(小雅), 「남해서(南陔序)」에 보인다.

부족한데, 여력이 있어 능히 글을 배우는 데 미칠 수 있는지요.[31]

시체(侍體)[32]가 두루 편안하신지요. 악화(鄂韡)[33]가 잘 합치하기는 예전과 똑같은지요. 시(詩)와 예(禮)를 읽고 외우기에 쉼이 없고 붕우간의 절시(切偲)[34]함에 게을리 함도 없으신지요.

양당(兩堂 : 兩親)의 기력은 두루 강녕하신지요. 향그런 저녁과 정갈한 새벽엔 부모님 장수의 큰복을 생각하며, 봉양하시는 여가엔 문학과 역사에 힘을 쓰시는지요.

존당(尊堂)[35] 연세가 여든이신데 기체(氣體)는 강녕하신지요. 영백(令伯)과 영계(令季)[36]는 아름다운 명성이 날로 높아지는데, 인형(仁兄)도 능히 우뚝하게 서서 원대한 것을 발돋움하여 미치실 수 있는지요.

대부인(大夫人)[37] 기력이 강건(康健)하여 회초리를 가지고 형을 때리신다니 한백유(韓伯愈)[38]의 어머니보다 낫습니다. 형의 아드님 형제가 직접 밥을 지어 봉양하고 조용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조금도 어기지 않는 것이 진식(陳寔)[39]의 두 아들과 같습니까.

인형(仁兄)은 자잘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직접 밭을 가꾸고 양(羊)을 쳐서 조석으로 음식을 올리고 삼복(三伏)과 섣달에 쓰일 고기를 준비하여 색양(色養)[40]을 다하신다 하니, 참으로 자식된 도리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습니다. 요사이

---

30) 형제가 화목하게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것을 말한다. 『시경』 소아(小雅), 「상체(常棣)」에 보인다.
31) 『논어』 「학이(學而)」에 보인다.
32) 부모를 모시고 있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
33) 악은 말이고 화는 실발이니, 곧 말을 실천하는 언행일치(言行一致)를 의미한다.
34) 붕우간에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勸勉)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 「자로(子路)」에 보인다.
35)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존칭.
36) 영백(令伯)와 영계(令季)는 상대방의 형과 아우에 대한 경칭.
37)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존칭.
38) 중국 한나라 때 효자. 언젠가 잘못을 저질러 그의 어머니가 매질을 하니 백유가 크게 울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기고 말하기를 "전에 너를 때릴 때는 기쁘게 맞더니 오늘은 왜 그리 슬피우느냐?"라고 하자, 백유가 대답하기를 "전에 맞을 때는 아팠었는데 오늘의 매는 아프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그만큼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웁니다"라고 대답했다. 『상우록(尙友錄)』 권5에 보인다.
39) 중국 후한 때 사람. 자는 중궁(仲弓)으로 환제(桓帝) 때 태구현장(太丘縣長)이 되었는데 송사를 지극히 공정하게 처리했다. 양상군자(梁上君子)를 훈계한 고사로 유명하다. 그의 두 아들인 진기(陳紀)와 진심(陳諶) 형제는 효양(孝養)을 다하고 가정이 화목하여 지덕(至德)으로 일컬어 졌다. 난형난제(難兄難弟)의 고사로 유명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인 진식과 더불어 삼군(三君)이라고 칭했다.
40) 공손한 얼굴색으로 부모를 모신다는 뜻. 『논어』 「위정(爲政)」의 "부모를 모시는데 얼굴색이 어려우니 일이 있거든 제자가 수고로운 것을 감당하고, 술과 음식이 있거든 어른이 먼저 잡수게 한다"는 말에서 나왔다.

봄 날씨가 차니 정성스럽게 부모를 모시는 몸을 신령(神靈)이 보호하시어 두루 건강하신지요. 우러러 무탈하기를 비옵고 진실로 조금이라도 쇠할까 위로합니다.

당상(堂上)[41]의 기체(氣體)는 계속하여 두루 편안하시어 모계위(茅季偉)[42]가 닭고기 반찬이 줄어듬이 없도록 한 것과 같은 감탄을 누리시는지요. 형은 덕업(德業)이 날로 증진하시어 진씨(陳氏) 집안의 뜸들지 않은 밥[43]과 강씨(姜氏) 형제가 한 이불을 덮고 잔 것[44]처럼 언행과 태도에 여유가 있으신지요.

존왕대인(尊王大人)[45]께서는 기력이 두루 강건하시어 인형(仁兄)과 영종(令從)이 때때로 자문함에 능히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요.

형이 정위(庭闈)[46]를 떠난 지가 거의 반년이 되었는데 지금 돌아와 부모님을 뵈오니, 이것은 옛사람이 말하는 오랜만에 부모에게 절하고 뵙는 경사라 하겠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색옷을 받쳐 입고 부모님 면전에서 춤을 추며 즐거움과 환희가 집에 넘쳐날 것을 우러러 생각하니,[47]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존대인(尊大人)[48]께서 집을 떠나신 지가 거의 일년이 가까웠는데 들으니 돌아오신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더군요. 알지 못하겠지만 피로하시어 기력에 손상이나 없으신지요. 그리고 인형이 사모한 나머지 절하고 뵙는 경사의 기쁨은 또 어떠하신지요.

풍문으로 듣자하니, 탕약(湯藥)을 올리신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하니, 염려됨이 몹시 큽니다. 생각하니 요사이 존당(尊堂)의 병세가 점차 원기(元氣)를 회복하셨는데, 형은 경계하여 살피신 나머지 건강이라도 해치지 않았는지요. 머리 숙여 축하

41)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존칭.
42) 중국 후한 때 사람 모용(茅容)을 말함. 자는 계위(季偉)이다. 40세가 넘도록 농사일에 종사했는데, 곽임종(郭林宗)이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다가 다른 농부들이 계위를 공경해서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그날 밤을 그의 집에서 묵었다. 계위가 닭을 잡아 어머니에게 드리고 자신은 손님과 함께 채식(菜食)을 하는 것을 보고 감탄하여 학문을 할 것을 권장하여 뒷날 대덕(大德)이 되었다.
43) 진기(陳紀)와 진심(陳諶) 형제가 손수 밥을 지어 부친인 진식(陳寔)을 봉양하던 고사이다.
44) 중국 후한 때의 효자 강굉(姜肱의 고사. 그는 자가 백회(伯淮)인데 두 동생인 중해(仲海), 계강(季江)과 함께 효행이 뛰어나 계모(繼母)를 극진하게 모셨다. 『시경』「개풍(凱風)」의 시에 나오는 효에 감동하여 젊은 계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형제 삼인이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계모의 방에 들어가는 일이 없이 봉양했다는 고사이다. 강굉공피(姜肱共被)라고도 한다.
45) 상대방의 할아버지에 대한 존칭.
46) 부모가 거처하시는 방. 곧 부모를 의미한다.
47) 노래자(老萊子)는 양친을 효봉(孝奉)하여 나이 칠십에 영아희(嬰兒戲)를 하여 몸소 알록달록한 오색옷을 입고 부모 면전에서 춤을 추워 기쁘게 했다고 한다. 『소학(小學)』「계고(稽古)」에 보인다.
48) 상대방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

드리며 자세한 사정을 들었으면 합니다.

인편에 처음으로 요사이 부모님 걱정에 깊이 경계하고 삼가하심을 알고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밤에 서성이게 됩니다. 대부인의 환후(患候)가 점점 나아진다 하니 구구(區區)한 저는 두 손 모아 복을 빕니다.

편지를 받고서야 존대인(尊大人)께 병환이 있음을 알게되니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깊어서 먹고 자는 것을 잊으실 때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더욱 간절하게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존왕대인(尊王大人 : 祖父)의 환후가 아직 남아있고, 존대인(尊大人 : 부친)께서는 노년에 탕약(湯藥)을 받들어야 하니, 반드시 건강을 해치실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저는 염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듣자하니 인형(仁兄)께서 탕약을 받드시느라 옷을 벗지 못하고 눈을 붙이지 못한 지가 거의 십여 일이라 하니, 형의 부모님에 대한 깊은 근심으로 어떻게 마음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때에 형이 만약 건강을 잃으신다면 약과 미음을 올리는 일을 살피는 것이 다른 사람은 반드시 형만 같지 못할 것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되도록 스스로 보중(保重)하실 것이니, 이것은 형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충고를 드립니다.

풍문에 들자하니 병환이 점차 나아 원기를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묻자오니, 요사이 주무시는 것은 더욱 편안하고 미음은 더 드시는지요. 보잘 것 없는 저는 사모하여 축원함에 사사로운 정리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병환이 매우 심각한 나머지에 비록 원기가 회복되어 이미 평소의 음식을 드신다지만 노년의 기력은 젊어 장성할 때와는 다르니 체하실까 염려됩니다. 두 번 찐 밥을 조금씩 드시는 것이 조섭(調攝)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팥물을 조금 치면 더욱 부드러울 것입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겠지만 염려가 깊기에 돌아보지 않고 쓸데없는 군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백씨(令伯氏)[49]의 병환은 이미 나으셨는지요. 듣자니 체기(滯氣)로 고생하신다니, 이것은 평소에 좁은 집안에서 독서에 몰두하시느라 기혈(氣血)이 막혀 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책을 보시는 습관이 남들 보다 몇 배는 더하시니, 생각건대 건강이 회복되는 중에 조금 차도가 있으면 반드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

49) 상대방의 형에 대한 경칭.

제가 이미 편지를 써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형도 간절히 충고해 보심이 어떠할까 합니다.

영함(令咸)[50]의 병세는 어떠합니까.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요. 사람이 와서 알려주길 약을 지닌 사람들이 바삐 오고 간다하니, 병세가 더 악화된 것이 아닌지 염려됩니다.

윤군(允君)[51]이 요사이 어떤 책을 읽으며 부지런히 힘쓰는지요. 천성이 똑똑해서 공씨(孔氏)의 아들[52]에게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공(坡公 : 蘇軾)이 "붓끝의 꿈틀거림이 추강(秋江)을 매단듯하다"[53]라고 한 말씀을 아드님에게 기대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윤(令允)[54]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놀라 정신이 멍하였습니다. 유자후(柳子厚 : 柳宗元)가 두각(頭角)을 드러내 아름다움을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귀공(貴公)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융(阿戎)[55]과 이야기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영백미(令白眉)[56]께서는 요사이 건강이 어떠하신지요. 오랫동안 두 분 형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법호(法護)라는 승려가 누구인지 더욱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지를 알지 못하니[57], 자못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 형께서는 지은 시문

---

50) 상대방의 조카에 대한 경칭.

51) 상대방의 아들에 대한 경칭.

52) 중국 당나라 때의 경학자 공영달(孔穎達)을 가리킨다. 공영달은 자가 중달(仲達)이며, 공자의 32세손이다. 어려서부터 오경(五經)을 수학했으며 재능을 널리 인정받았다. 수나라 양제(煬帝)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계에 나갔다. 양제가 천하의 유자(儒者)들을 낙양에 불러 국자(國子), 비서(秘書)의 학사들과 함께 토론하게 했는데 그가 의뜸이었다.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 노사(老師)와 숙유(宿儒)들의 시기를 받고 양제마저 그를 경원하여 암살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당나라의 태종(太宗)에게 중용되어 국자박사(國子博士)를 거쳐 국자좨주(國子祭酒), 동궁시강(東宮侍講) 등을 역임했다. 『오경정의(五經正義)』를 찬정(撰定)하였다.

53) 이 시는 『증황씨자소덕(贈黃氏子小德)』에 보이는데, 황씨의 아들이 겨우 삼척(三尺)의 어린아이인데 문장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칭찬한 것이다.

54) 상대방의 아들에 대한 경칭.

55) 상대방의 아들에 대한 경칭.

56) 상대방의 형에 대한 경칭.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마씨 5형제가 모두 재주가 뛰어났다. 그 중에서도 눈썹에 흰털이 난 마량(馬良)이 가장 뛰어나 사람들이 백미(白眉)라고 불렀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마량이 마속(馬謖)의 형인 까닭에 이후 상대방의 형에 대한 경칭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57) 법호라는 승명(僧名)을 가진 두 명의 승려가 누구인지와 두 사람의 우열(優劣)을 묻는 내용이다. 두 사람의 법호는 다음과 같다. 1. 당나라의 승려로 조군 조씨(趙郡 趙氏)의 아들이다. 도술(道術)을 좋아하여 정관(貞觀) 년간에 황명(皇命)을 받고 용잠(龍潛)에 들어갔고 훗날 천궁사(天宮寺)에 머물렀다. 2. 양(梁)나라의 승려로 동평 장씨(東平 張氏)의 아들이다. 송나라 효건(孝建) 년간에 경사로 와서 건원사(建元寺)에 주거(住居)했다.

(詩文)을 보여 주실 수 있는지요.

영묘군(令卯君)[58]의 문장의 운치는 요사이 또 어떠합니까. 능히 황루부(黃樓賦)[59]를 지을 수 있는지요.

윤군(允君)의 기풍(氣風)이 날로 발전하는지요. 사람의 걱정을 풀어줄만 합니까.

영숙보(令叔寶)[60]가 날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니, 가슴 속에 수레를 타고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양념을 빻는 쇠절구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심[61]이 없어졌는지요.

듣자니 생선을 먹고는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매우 염려가 됩니다. 어떤 약을 쓰셨는지요. 형이 묵은 회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제가 익히 알았거니와, 오늘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이 될 줄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근자의 감편(甘片)[62]이란 것이 비록 외국에서 들어 온 것이나 회충을 가장 잘 치료하여 옛날의 고통스러운 치료법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이미 시험해 보셨는지요.

영계(令季)[63]께서 어제 단풍놀이를 가셨다니 과연 그렇습니까. 내장산(內藏山)[64]의 단풍이 호남에서 으뜸이고 또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한번도 구경하지 못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니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영계께서 이번 행차를 계획하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당연히 지팡이를 나란히 하고 함께 갔을 터인데 지금은 글렀으니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

58) 토끼해에 태어난 상대방의 아들에 대한 경칭.

59) 소동파가 팽성(彭城)의 태수로 있으면서 황루(黃樓)라는 누각을 보고 지은 부(賦).

60) 상대방의 사위에 대한 경칭. 숙보(叔寶)는 곧 진(晉)나라 위개(衛玠)를 말하는데, 숙보는 그의 자이다. 왕제(王濟)의 사위로, 천하의 가장 훌륭한 사위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61) '수레를 타고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양념을 빻는 쇠절구를 먹는 것에 대한 의심'은 곧 아무런 생각도 기인한 것도 없는 맹랑한 것을 의심하여 중병(重病)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중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설신어(世說新語)』「문학(文學)」에 이에 대한 고사가 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위개(衛玠)가 총각 때에 악령(樂令)에게 꿈에 관하여 물었다. 낙령이 말하기를, "이것은 생각이다"고 했다. 위개가 말하기를, "몸과 정신이 일찍이 접해 보지 못하였는데, 어찌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하십니까?"라고 했다. 낙령이 말하기를, "어떠한 일에서 '기인'한 꿈이다. 일찍이 수레를 타고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양념을 빻는 쇠절구를 먹는 꿈을 꾼 사람이 없는 것은 모두 '생각'한 바도 없고 '기인'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위개가 '기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해 보았으나 얻어지는 것이 없자 드디어 병에 걸렸다. 낙령이 그것을 듣고 위개를 찾아가서 자세하게 그 것에 관하여 분석을 해주니, 위개가 곧 조금 차도를 보였다. 낙령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 아이의 가슴 속에는 중병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62) 회충약의 하나. 모양은 마늘쪽과 비슷하고 맛은 달다.

63) 상대방의 아우에 대한 경칭.

64) 전라북도 정읍(井邑)에 소재한 산이다 내장사(內藏寺)와 단풍으로 명성이 높다.

형이 점을 쳐서 소실(小室)을 들였다고 하는 것을 묻겠는데,[65] 한 밤에 등의 가려운 데를 긁게 하면 자못 시원한지요. 저는 흰머리가 목에 드리우도록 이런 맛을 알지 못했으니, 참으로 부질없이 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형이 타향살이를 한 후로 낯선 곳의 쓸쓸함을 느끼지나 않는지요. 땔나무나 양식, 간장과 식초는 부족하지나 않는지요. 어울려 지내거나 따를만한 사람이 있는지요. 주변의 자연경치는 마음에 맞는지요. 때로 언덕에 올라 시가(詩歌)를 읊조리는지요. 시에 능한 사람이 있어 노래하고 화답하는 음절이 족히 사람의 흥겨운 생각을 늘려주는지요.

옛날에 원백수(袁伯修)[66]가 도석궤(陶石簣)[67]에게 준 편지에서 말하기를, "근자에 천태산(天台山)[68]과 안탕산(鴈宕山)[69]을 다녀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러보신 곳이 몇 봉오리이며, 어떤 봉우리가 가장 높고, 어떤 골짜기가 가장 기이하던지요. 이것을 보고 어떤 시를 지었으며, 어떤 이인(異人)을 만났는지요. 바라건대 하나하나 써서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것을 한번 읽고 그 글 솜씨의 정밀하고 날카로움에 감탄했었습니다. 형이 방장산(方丈山 : 智異山)으로부터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한 통 써서 그 간의 일을 묻고자 하다가 이 말 밖에 할 것이 없음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전문(全文)을 써서 드리니 살펴보시면 빙그레 웃으실 것입니다.

매화서옥(梅花書屋)에 문사(文士)들이 안석에 가득참을 추억해보면 그 즐거움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가를 읊조리는 여가에 혹 옛 친구를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

65) 옛날에 소실(小室)을 들일 때 양인(良人)신분의 여자이면 관계가 없으나, 천인(賤人) 출신은 선계(先系)를 알 수가 없어 점을 쳐서 길흉을 판단하던 일이다. 대개 동성(同姓)을 취하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출발한 풍속이다.

66) 원종도(袁宗道)를 말한다. 백수는 그의 자이다. 명나라 공안(公安)사람이다 만력(萬曆) 년간의 회시(會試)에서 수석을 하여 편수(編修)를 제수 받고 우서자(右庶子)를 지냈다. 저서로는 『백소재집 白蘇齋集』이 있다.

67) 도망령(陶望齡)을 말한다. 자는 주망(周望)이고, 석궤는 호인데 승학(承學)의 아들로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만력 년간에 진사가 되고 관직은 편수(編修), 국자좨주(國子祭酒)를 지냈고 저서로는 『해장 解莊』이 있다.

68) 절강성(浙江省)의 천태현에 있는 명산이다. 선하령(仙霞嶺) 산맥 중의 한 봉우리로 수려하고 계곡이 유원(幽遠)하다. 수(隋)나라 때 지의(智顗)가 여기에서 천태종을 개설한 뒤로 중국 불교의 일대 도량이 되었다.

69) 절강성 낙청(樂淸)과 평양(平陽) 두 현의 경계에 있는 산명이다. 괄창산맥(括蒼山脈)에 속는데 산정(山頂)에 사방 십여리의 호수가 있는데 항상 물이 마르지 않고 봄에 기러기가 돌아갈 때 머무르기 때문에 안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노두(老杜 : 杜甫)의 시에 "장인(丈人) 집 위의 까마귀, 사람이 좋으면 까마귀도 좋다네"[70]라고 한 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제가 형을 생각하는 것이 깊어 형이 기거하시는 집에까지 생각이 미쳐 집의 전후, 좌우에 있는 물건들까지 생각 속으로 들어오지 않음이 없습니다. 왕백곡(王百穀)[71]이 혹자에게 보낸 편지에 "족하(足下)의 무하서(無何署)[72] 중의 죽순(竹筍)이 모두 아름다운 화살로 변하였는지요. 족하를 사랑함이 심하여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칩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제 마음을 앞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안부를 묻는 편지를 올렸으나 한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천이 멀리 떨어져 있고 역참(驛站)에서의 유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석두성(石頭城)[73]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형께서는 자식들의 혼사가 끝난 후에 오악명산(五嶽名山)[74]을 유람하느라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나 봅니다.

형과 이별한 지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얼굴과 터럭은 변함이 없으신지요. 시문과 저술은 이미 상자에 넘치겠지요. 보지 못한 책을 더욱 읽으셨겠지요. 거처하시는 곳의 산천이 영감(靈感)을 얻는데 도움이 있는지요.

영포(令抱)[75]가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조부의 풍모가 있는지요. 일찍이 그 서각(犀角)이 넓고 불룩한 것을 보면[76] 훗날 용약봉명(龍躍鳳鳴)[77]하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

70) 이 시는 두보의 『봉증사홍이사장(奉贈射洪李四丈)』에 보이는데, 『상서대전(尙書大傳)』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그 지붕 위의 까마귀도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 장인(丈人)은 연장자에 대한 경칭이다.

71) 중국 명나라 때 사람 왕치등(王穉登)을 가리킨다. 백곡은 그의 자이다. 문징명(文徵明)의 문하에서 시(詩)를 배웠다. 만력(萬曆) 연간에 부름을 받아 국사(國史)를 편수하였다. 신종 만력 40년에 7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저서로는 『오사편(吳社編)』『혁사(弈史)』『오군단청지(吳郡丹靑志)』 등이 있다.

72) 어렸을 때 살던 고향마을을 가리킨다.

73)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손권(孫權)이 쌓은 성 이름.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강녕현(江寧縣)의 서쪽에 있다. 진(晉)나라 때 은선(殷羨)이 예장태수(豫章太守)가 되어 부임하다가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칠 편지 1백여 통을 석두성변 강가에 이르러 모두 강에 던지고 말하기를, "은교홍(殷喬洪)이 이곳에 편지를 부칠 역참을 마련하지 않아 지금 사람들이 울면서 강에 편지를 던지게 한다"라고 탄식한 데서 나온 고사이다.

74) 중국의 태산(泰山)·화산(華山)·형산(衡山)·항산(恒山)·숭산(嵩山)을 말한다.

75) 상대방의 손자에 대한 경칭.

76) 관상(觀相)에서 두 눈썹 위의 이마가 돌출한 것을 서각(犀角) 또는 용각(龍角)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큰 명성을 떨칠 상으로 친다.

77) 장차 훌륭한 인재가 될 것임을 말한 것이다. 용이 물에 잠겨있다가 성장하여 뛰어 뭍에 오르며, 봉황은 성인이 나오면 내려와 춤을 추고 운다고 한다.

배가 불룩하고 눈썹이 하얀 늙은이가 꽃나무 아래서 손자와 노는 재미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손주 형제가 수십 명이라 수염을 잡아당기고 무릎을 에워싸니 늘그막에 찾아온 완전한 복록(福祿)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다만 수염을 여럿에게 잡아당기우는 고통은 참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편지를 받들고 웃습니다.

요사이 곤궁함이 전에 비해 어떠합니까. 솥을 아예 떼내어 버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는지요.

족하(足下)가 청색의 인끈을 감거나 붉은색의 인끈[78]을 당기어 금마문(金馬門)과 옥당전(玉堂殿)[79]에서 한가로이 지낸다 하더라도 고작 한 때의 귀인(貴人)이 되는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능히 한 편의 글과 한 수의 시가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아마도 하늘이 장차 족하를 곤궁함으로 곤란과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니, 족하는 한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현초(玄草)[80]가 익었는지요. 호사가(好事家)가 있어 술을 싣고 서로 오가지는지요.

잠시 쉬신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왕봉주(王鳳洲)[81]가 "6개월의 짧은 휴식에 회오리바람을 타고 오르는 것이 멀지도 않은가"[82]라고 했는데, 족하를 위해 암송해 올립니다.

상제(霜蹄)가 잠시 넘어졌으나[83] 마땅히 다시 도성(都城)을 지나가게 될 것이니 형은 이번 일에 개의치 마시고 더욱 책려(策勵)할 것을 생각한다면 끝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못쓰게 된 붓이 지금까지 몇 무더기나 되니 설첩서(楔帖序)[84]와 같은 작품을 쓸

78) 금자은청(金紫銀靑)에서 나온 말이다. 금으로 만든 도장과 자색빛 인끈, 은으로 만든 도장과 청색빛 인끈으로 한대(漢代)에 관리의 직인(職印)을 만들던 제도이다.

79) 한나라의 궁궐인 미앙궁(未央宮) 가운데 금마문과 옥당전으로 모두 문학지사(文學之士)가 근무하던 관청이다. 한림원(翰林院)의 별칭이기도 하다.

80) 담배의 별칭.

81) 중국 명나라 때의 문장가 왕세정(王世貞)을 가리킨다. 호는 봉주 혹은 엄주산인(弇州山人)이라고도 한다. 가정(嘉靖) 연간에 진사가 되어 형부주사(刑部主事)를 거쳐 형부상서에 이르렀다. 이반룡(李攀龍)과 함께 고사(古辭)를 주창(主唱)하여 이왕(李王)으로 병칭되고 또 이반룡·사진(謝榛)·양유예(梁有譽)·종신(宗臣)·서중행(徐中行)·오국륜(吳國倫)과 함께 후칠자(後七子)로 불린다. 그의 문장은 진·한(秦漢) 이상을 모범으로 했다. 저서로는 『엄주산인사부고(弇州山人四部稿)』『화원(畵苑)』『서원(書苑)』『엄주당별집(弇州堂別集)』 등이 있다.

82) 이것은 왕세정의 『답용군선(答龍君善)』에 보이는데,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의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파도를 일으키기를 3천리,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오르기를 9만리니, 6개월을 쉬고서 날아 왕래하는 자이다" 라는 말에서 연역한 것이다.

83) 과거에 낙방함을 이르는 말. 상제(霜蹄)는 준마(駿馬)의 발굽을 말한다.

수 있는지요. 옛 사람이 절차각(折釵脚)[85], 옥루흔(玉漏痕)[86]이라고 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예로부터 시(詩)·서(書)·화(畵)를 삼절(三絶)이라고 합니다. 시, 서는 마땅히 힘을 써야 할 것이고, 그림만은 치워두워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대를 그리는 것은 서가(書家)와 서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며, 족하도 여기에 힘을 쏟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요즘에는 가슴 속에 성죽(成竹)이 있는지요, 말재(襪材)[87]에 힘겹지나 않는지요.

訊

春風多厲 道體萬安 區區仰止 曷任遠忱

定省和婉 塤篪且湛 宜室其樂乎 愛之能勞否 溯洄瞻詠 一一願聞

南陔之養 常棣之樂 仰想惟日不足 餘力能及於學文否乎

侍體萬安 鄂韡好合 併如嚆昔否 詩禮誦讀 能無闕 朋友切偲 能無倦乎

兩堂氣力萬康 馨夕潔晨 想惟介祉 晨昏之暇 能力及於文史否

尊堂隆耋 氣體康寧 令伯令季 令聞日彰 仁兄亦能有以樹立 跂及遠者大者乎

大夫人氣力康健 能持箴笞仁兄 勝韓家母 允君昆季 炊飯竊聽 言無遺失 如陳氏子乎

仁兄不屑屑從斗筲役 乃灌園牧羊 供朝夕之膳 俟伏臘之資 以盡色養 誠無愧乎爲人子矣 近日春寒 惻惻侍體 神護萬旺 仰頌無斁 允勞寸衰

堂上氣體 連享萬康 茅季偉鷄饌得無傷哉之歎乎 令難 德業日增 陳家不餾之飯 姜氏一布之被 綽綽有裕乎

尊王大人氣力萬康 仁兄與令從 時時有咨 不能決者否

兄離庭闈 幾半載 今而反面 此古人所謂拜家慶也 仰想棻衣斑斕 歡欣溢堂 足以獻賀

尊大人離次 垂一年 伏聞返駕有日 未審氣力無損於勞攘 而仁兄拜慶於思慕之餘 歡喜爲如何耶

---

84)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첩(蘭亭帖)을 가리키는 별칭. 난정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 더러움을 씻어버린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85) 필법(筆法)의 한 가지. 절차고(折釵股)와 같은 뜻이다. 붓이 꺾이는 부분이 둥글고 힘이 있다.
86) 필법의 한 가지. 지붕에 빗물이 새어 얼룩진 자국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필법을 말한다.
87) 버선의 끈을 풀어도 그 끈이 길지 않으므로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재주나 또한 천박한 재능을 말한다. 말선재(襪線材)라고도 한다.

側聞侍湯有日 仰慮萬萬 伏惟辰下 尊堂患體 漸復天和 兄戒矧之餘 得無損節 頂祝願聞

人來始審間者 戒深矧翔 不勝仰慮 謹惟夜回 大夫人患候 漸臻勿藥 區區拱禱

拜承惠書 謹審尊大人有不安節 曷勝奉慮 色憂方深 想寢啖失時 尤切願聞

尊王大人患候彌留 尊大人老境侍湯 必有損節 區區不任仰慮

聞仁兄侍湯 衣不解目不交 殆十餘日 以兄色憂之深 安得不焦心 但當此時 兄若失攝 則進藥餌糜粥之節也 他人必不如兄 豈小事耶 務自保嗇 非爲一身計也 以是獻箴

側聞湯患 漸至復和 伏問日來 寢睡益安 糜粥益進 區區慕祝 不任私忱

病患沉瘵之餘 雖天和快復 已進常啖 而老境氣力 異於少壯 凝滯可慮矣 重蒸飯 少少進之 最益於調理 而微添赤豆水爲更柔軟 仰想南垓之養 靡不用至 而慕慮攸深 不恤爲賸語耳

令伯氏患節 已平復耶 聞爲滯氣所苦云 此由平日 蝸屋讀書 氣血未暢也 且看書之癖倍蓰於人 想復和之餘 稍可振作 則必復如前 弟已裁函縷陳 然兄且苦諫 如何

令咸愼節何如 不至沉重耶 有人來傳 帶藥者踉蹌而去 慮有添證否

允君近讀何書 能孜孜否 其天性了了 不減孔氏兒矣 坡公所謂筆頭滾滾懸秋江 於此君期之矣

向與令允語 不覺自失 柳子厚嶄然頭角 不能專美 更覺共卿言 不如共阿戎談矣

令白眉近候若何 久不聞兩兄語 未知法護僧 彌誰當爲佳 頗鬱鬱不可堪 兩兄所作詩文可相示耶

令卯君文致 近復何如 能作黃樓賦否

允君風氣日上否 足散人懷否

令叔寶日復璧潤 胸中無乘車擣韲之疑否

聞以河魚之崇愆和云 甚庸仰慮 試何藥耶 兄之爲老蛔所困 弟稔知之 安知今日非此證耶 近所謂甘片者 雖自外國來 最能治蛔 勝於舊方苦練之類 遠矣 已試否耶

令季日昨賞楓之行 果然耶 內藏之楓 蓋甲於湖省 又程途非遠 而弟尙未一賞 懶散乃爾 好笑好笑 早知令季作此行 當聯笻而去 今左矣 咄咄無及

問兄卜貳室云中 夜搔背癢 頗暢快矣乎 弟華髮垂領 而不識此味 眞浪度一世耳

自兄僑居 得無異鄉落落否 柴米漿醋 能不乏否 有可與過從者否 一丘一壑 足適意否 時登臨嘯詠否 有能詩者乎 而唱和音節 足長人興思否乎

昔袁伯修與陶石簣書云 知近日杖履 在天台鴈宕間 所遊幾峰 何峰最高 何洞最奇 相

對作何語 會何異人 幸一一寫示 弟時一讀之 歎其詞鋒精銳 及聞兄自方丈還 欲作一書問之 尤覺不能出此言外 將全文書呈 俯覽當莞爾也

遙憶梅花書屋 擁卷盈几 其樂未易量 嘯詠之暇 徜念故人否耶

老杜詩云 丈人屋上烏 人好烏亦好 信哉言也 弟思兄之深 幷及於兄所居之舍 舍之前後左右 所有之物 無不入思 王百穀寄人書云 足下無何署中笋根 悉成美箭耶 愛足下甚 幷及此 此言先獲我心矣

屢修候函 未蒙一紙賜覆 山川脩遠郵寄浮沈容有之 而未必槩歸石頭城也 想吾兄婚嫁已畢 遊五岳名山未還也

別吾兄十餘載矣 容鬢能無改乎 詩文著述 已溢箱篋乎 益讀未見書乎 所居山川 有足資發性靈乎否乎

令抱能讀書否 有乃祖風否 曾見其犀角豊盈 異日龍躍鳳鳴 可以卜矣

皤腹雪眉 花下弄孫 風味可想

令抱昆季數十 挽鬚繞膝 晩來完福 令人健羨 然但鬚被衆挽 想當不堪苦也 奉呵呵

近日之窮 視前何如 得不至鞭箠否

使足下紆青拖朱 翱翔於金馬玉堂 不過成一時貴人耳 能有一篇文一首詩 足傳後世者邪 殆天將困苦足下于窮 以玉成之也 足下勿恨

玄草垂就否 有好事人 載酒相過者否

聞暫垂翅云 果然邪 王鳳洲所謂 六月暫息 扶搖非遠 爲足下誦之

霜蹄暫蹶 當復過都 仁兄能不以介懷 益思策勵 終有以前進乎

退筆今成幾塚 能寫如稧帖序否 古人所謂折釵脚屋漏痕 是何語 果領會否

自古以詩書畫爲三絶 詩書宜用力 惟畫置之爲可 然意寫竹與書家相資 已知足下用力于此 不審今日胸中有成竹否 不爲襪材所困否

서(敍)

저는 부모님의 건강이 여전한 듯하여 다행스럽습니다만, 가제(家弟)[88]가 호서(湖西)로 간 후 때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저의 중성(重省)[89]은 그런대로 건강이 여전하시어 다행스럽습니다만, 가질(家姪)[90]

88) 남에게 자신의 아우를 지칭하는 말.

이 서울에 있으면서 중병에 걸려 아직 낳지 않았고 며칠 동안 소식도 들리지 않아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저의 중성(重省)은 그런대로 건강하게 지내시어 다행스럽습니다만,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초조하고 걱정됩니다.

기하(記下)[91]는 부모님이 예전과 같이 건강합니다만, 사백(舍伯)[92]이 습종(濕腫)[93]으로 몸이 불편하여 열흘이 넘도록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 차례 약을 썼으나 아직 뚜렷한 효과가 없어, 고민이 가득합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해수(咳嗽)[94]가 심하게 시작되어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누우면 더욱 심합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이는 수기(水氣)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타고난 건강이 허약해서 평소에 스스로 조심하여 기욕(嗜慾)을 삼가해 왔는데 무슨 까닭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더욱 괴이하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봄이 되면서부터 선영(先塋)에 석물(石物)을 세우는 일에 매여 날마다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히 피곤하다고 말은 못하나 홀홀 떨쳐버리지 못하니, 제 자신이 가엽습니다.

가친(家親)께서 풍현(風眩)[95]으로 평안치 못하여 탕약과 환약을 올린 지 이미 한 달이 가까운데도 병환이 더하시니 애가 타게 고민스럽습니다.

젖먹이가 겨우 돌이 되었는데 걸핏하면 감기가 들어 증세가 더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위(胃)의 기운이 조금 회복되어 목구멍도 전에 비해 크게 열리게 되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치루(痔漏)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데 여름에는 더욱 심해지고 누워서 뒤척일 때면 고통이 말할 수 없어 매우 괴롭습니다. 며칠 전에 선어(鱔魚)[96]를 약으로 써보니 자못 효험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어찌 그 병의 근원을 뽑을 수야 있

---

89) 중당(重堂)과 같은 뜻. 원래는 상대방의 조부모를 높이어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자기의 조부모를 가리킨다.
90) 자기의 조카를 지칭하는 말.
91) 서간문에서 신분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92) 자기의 맏형을 지칭하는 말.
93) 다리에 나는 헌 데. 아프지도 않고 잘 아물지도 않는데 습창(濕瘡)이라고도 한다.
94) 기침병.
95) 간질(癎疾)을 달리 이르는 말.
96) 두렁허리를 말한다. 두렁허리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로 몸은 길이 40센티 내외의 원통형으로 뱀처럼 가늘고 길며 꼬리 끝이 뾰족하다. 아시아 일대의 하천어(河川魚)로서 무논·도랑·연못 등에 서식한다. 논두렁을 뚫기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다. 방언으로는 드렁이라고도 한다.

겠습니까.

형인(荊人)[97]이 아이를 낳은 후 악혈(惡血)이 빌미가 되어 날마다 복통이 발생하고, 때로는 오한(惡寒)과 발열(發熱)이 교대로 일어나니, 매우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름이 된 이후로 더위에 곤욕을 치루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였는데, 제호(醍醐)[98]와 육일니(六一泥)[99]도 모두 조그만 효과도 없습니다. 스스로 가련하고 우스운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부자(丈夫子)[100]을 얻었는데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태어나 3, 4개월은 지난 것 같으니 혹자가 영걸(英傑)한 아이라고 하였습니다. 산모(産母)는 처음에 미미한 복통이 있었지만 해가 뜬 뒤로 밥도 잘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없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가제(家弟)의 나이가 이미 서른인데 아직도 완점지몽(莞簟之夢)[101]이 없어 고민했는데 며칠 전에 나에게 확실히 태기(胎氣)가 있음을 알겠다고 알려주어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형은 가제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주니, 형은 필시 아직 듣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달에 큰 아이가 사내아이를 생산하였고 어제 둘째 아이가 또 사내아이를 생산하였습니다. 두 산부(産婦)가 모두 순산을 했고 밥도 잘 먹으니,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돈아(豚兒)[102]가 남자아이를 낳으니 매우 기쁩니다. 옛날을 생각해보면 죽마(竹馬)를 타고 장난을 하던 것이 어제 일처럼 뚜렷한데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니 세월의 빠름에 또한 서글퍼집니다. 또 이십 년이 지나면 다시 증조부가 될 것이니 이 때가 되면 또 한 번 서글퍼해야 할 것이니, 웃음이 나고 웃음이 납니다.

가엄(家嚴)[103]께서 해가 갈수록 병세가 극심해져 온갖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실로 건강을 회복하는 경사를 바랄 수 없고 다만 심해지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며칠 전에 사백(舍伯 : 伯兄)이 아들을 얻고 다음 날 사중(舍仲 : 仲兄)이 또 아

97)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낮추어 부르는 호칭. 졸형(拙荊)이라고도 한다.
98) 오매육(烏梅肉)·사인(砂仁)·백단향(白檀香)·초과(草果)를 곱게 가루내어 꿀에 버무렸다가 끓여 냉수에 타서 먹는 청량제(淸凉劑).
99) 황토(黃土)·방분(蚌粉)·석회(石灰)·적석(赤石)·식염(食鹽)의 가루를 물과 섞어 만든 약. 혹은 지렁이를 건조해서 만든 약을 말한다.
100) 사내, 남자를 말한다.
101) 자식을 얻을 태몽(胎夢)을 말한다.
102) 자신의 아들을 일컫는 겸칭.
103) 자기의 부친을 남에게 일컫는 말.

들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어 이 때부터 주무시고 드시는 것이 전에 비해 갑자기 달라지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지팡이를 짚으시고 뜨락을 거니시니 온 가족의 기쁨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이 병은 본래 답답함이 쌓여서 빌미가 된 것인데 큰 기쁨을 얻게 되니 풀린 것이다"라고 하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뜻밖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니 진실로 분수에 넘치는 것이라 크게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몸으로 기쁨을 드릴 일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습니다. 천은(天恩)에 감격하여 되뇌이자니 끝을 모르겠습니다.

집의 아이가 처음으로 벼슬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입니다. 요사이 벼슬길에 나간 것은 오직 이것뿐이니, 다행스럽고 다행스럽습니다.

가제(家弟)가 다시 등용된 것은 특별한 대우에서 나온 것으로 천은이 매우 무거우니 얼마나 감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이 제수(除受)된 것은 청직(淸職)[104]인데 분수에 넘치게 욕심냈던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사백(舍伯)이 일전에 봉격(奉檄)의 기쁨[105]이 있게 되었는데, 이로부터 한 고을을 맡아 부모님을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안이 평소 가난하여 숙수(菽水)[106]도 잇기가 어려워 저희 동생들은 다만 상재(傷哉)의 탄식[107]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백의 덕택에 오늘의 상황이 있게 되었으니,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본래 회인(恢刃)[108]이 없어 제금(製錦)의 지위[109]에 거처할 만하지 못하니 큰

---

104) 삼사(三司 : 司憲府 · 司諫院 · 弘文館)의 관직.

105) 부모를 모신 몸으로 고을의 원이 된 기쁨을 말한다.

106) 콩과 물. 곧 악식(惡食)을 뜻한다.

107) 『예기』「단궁(檀弓)」에 보인다. 자로(子路)가 말하기를, "가슴 아프도다, 가난이여! 살아서는 제대로 봉양도 못하고 죽게 되어서도 예를 차리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공자(孔子)가 대답하기를, "콩을 먹고 물을 마시더라도 부모님을 즐거움을 다해주면 이것이 효도인 것이요, 몸이나 덮어줄 정도로 염을 하고 곧바로 장례를 치러 외곽(外槨)이 없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맞게 한다면 이것이 예(禮)이다"라고 하였다.

108) 칼날을 놀림에 여유가 있다는 뜻.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뛰어난 재주를 의미한다.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에 포정(庖丁)이 소를 잡는데 칼 하나를 19년동안 쓰면서도 칼날이 여전히 날카로웠는데 그 이유에 대해 "소의 관절은 사이가 있고 칼은 얇으니 얇은 것으로 사이가 있는 것을 발라내는 데 넉넉하여 칼날을 놀림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였다.

109) 원래는 남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곧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서는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춘추(春秋)』「양공(襄公)」 31년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비단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겠는가? 대중(大衆)과 대읍(大邑)은 사람

고을은 진실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한 번 불러 통보해 주시는 곳이 과연 작은 고을이어서 그런대로 조촐하게나마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어 공무(公務)의 대의(大義)와 사사로운 정을 모두 다하게 되었으니, 심히 다행스럽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특별히 내려와 승진을 하게 되었으니, 날마다 삼가고 두려워합니다. 총애하여 발탁해주신 은혜가 뼛골에 스미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명승(冥升)[110]의 경계에 몸둘 데가 없습니다. 감격이 깊다보니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야(田野)에 칩거한 이래로 세간의 영욕(榮辱)에 관계된 것을 듣지 않게 된 것이 첫 번째 통쾌한 일입니다. 때때로 이웃집 늙은이와 마주앉아 탁배기를 마시고 취하면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자는 것이 두 번째 통쾌한 일입니다. 술에서 깨면 우물로 가서 한 두 되의 물을 길어 얼굴을 쳐들고 한 번 들이켜서 가슴속에 남은 누룩 찌꺼기를 씻어버리는 것이 세 번째로 통쾌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형도 몇 건의 통쾌한 일이 있는지요.

바야흐로 더위를 먹었을 때는 불구덩이에 들어앉은 듯이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두 구절의 싯구가 슬며시 가슴속에서 뭉클뭉클 솟아나 입 속을 맴돌 때에는 문득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두 겨드랑이에서 생겨남을 느낍니다. 이에 천천히 소리내어 그것을 읊조릴 때는 다시는 세상의 어떤 것이 무더위에 녹아나는 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버릇은 생각해 보면 천지의 사이에 달리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기에 때때로 혼자 배를 잡고 웃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사일을 아이들에게 맡기고 땔나무와 양식과 간장과 식초 등을 다시는 살피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 손자들과 어울려서 가장 어린놈은 안고 조금 큰놈은 손을 잡고 그보다 큰놈에게는 주흥사(周興嗣)의 『천자문(千字文)』을 외우게 하고 열 살이 넘은 아이들은 촌락의 서당(書堂)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논어』 한 두 구절의 뜻을 묻습니다. 이로써 하루를 보낼 만 하니, 이에 비로소 천지 사이에 오직 내가 한가로운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갔다가 어젯밤에야 집으로 돌아와 고단함을 떨치지 못하였는데, 부모님의 건강의 예전과 같으시니 다행스럽습니다.

이 의지하는 곳이니 기술은 배운 사람들이 비단을 만들면 또한 비단이 많지 않겠는가?"라고 한 고사에서 나왔다.

110) 올라설 자격이 없는 자가 자리에 앉게 되면 장차 위태롭게 되므로 계속하여 바름을 추구해야 함을 경계한 말. 『주역(周易)』 승괘(升卦)에 보이는데, "오르는데 어두우니 쉬지 않는 바름이 이롭다(冥升 利于不息之貞)"라고 하였다.

한달 전부터 한담(寒痰)[111]이 생겨서 날마다 약을 먹어 지금은 조금 나았으나 완전히 낫지는 못했습니다. 또 위(胃)의 기운이 화(和)하지 못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실하지 못하니 스스로 가련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돌보는 것이 그런대로 옛날 같으니 이나마 다행입니다.

네 번째 손자놈이 머리를 더풀더풀 늘어뜨리고서 능히 오자구(五字句)를 짓는데 잘된 것은 쟁그랑거리는 옥이 부딪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대저 이와 같은데 어찌 다시 가난한 것을 한탄하겠습니까.

미돈(迷豚)[112]이 며칠 전에 신부(新婦)를 맞이하여 폐백(幣帛)을 들이려 대추와 밤을 들고 와서 병든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술 한잔을 따르는 예를 행하였는데, 그 거동을 보니 충분히 집안을 화목하게 할 만하기에 다행하였습니다.

손자 아이가 관례를 행하기 전에는 행동이 절제가 없고 장난질에만 몰두하여 여러 차례 꾸짖었으나 조금도 마음을 바꿔먹지 않아 매우 걱정했었습니다. 삼가례(三加禮)[113]를 올린 뒤로는 몸가짐을 자못 삼가고 말을 가려서 하며 날로 깨닫고 날로 향상되는 것이 자못 볼 만합니다. 옛 사람이 관례를 올리는 것이 성인(成人)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형께서 매번 이 아이의 발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칭찬하실 때는 항상 그렇지 않다고 여겼는데, 오늘 이후에야 형에게 사람을 알아보는 밝은 거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敍

弟省節如前慶幸 而家弟作湖西行 過期不還 以是紆鬱

生重省粗依伏幸 而家侄在洛 經重病未蘇完 數日來又未聞音 伏庸悶鬱

侍生重省姑遣伏幸 而慈節欠寧 伏切焦悶

記下庭省如昔 而舍伯以濕瘧嘗和 浹旬委席 屢試藥餌 向無顯効 私庸悶沓

僕自數日來 咳嗽大發 晝宵無間 臥則尤甚 醫云 是水氣不足 而僕天稟淸弱 平昔自愛

111) 팔다리가 차고 마비되며 근육이 뭉쳐서 쑤시고 아픈 신경통의 일종. 냉담(冷痰)이라고도 한다.

112) 자신의 아들을 일컫는 겸사.

113) 가관(加冠)의 예를 말한다. 먼저 치포관(緇布冠)을 쓰고 다음에 피변(皮弁)을 가하고 그 다음에 작변(爵弁)을 가하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謹於嗜慾 未知緣何乃爾 尤可怪歎

入春來 糜於先壟立石之役 日未遑息 雖不敢言勞 而薾然莫振 自憐自憐

家親以風眩欠寧 進試湯丸 已近一月 而證候愈欲 私切煎悶

乳兒生纔周年 而動有風候 增減無常 自數日前 胃氣稍復 食道比前大開 殊自幸甚

痔漏 是自少貞疾 而經暑愈肆 轉側艱辛 悶人悶人 日前試鱔魚 頗若有效 然何可必其去根也

荊人產後 惡血作祟 腹痛日發 時復寒熱交作 殊覺惱煞人也

自入夏 爲暑氣所困 圉圉若衰憊人 醍醐六一 都無些兒效 自憐自呵

昨日得丈夫子 聞其啼 若生過三四月兒聲 或者是英物也 產母初有微微腹痛 自日出後健飯無所苦 私甚喜幸

家弟年已三十 而尙無莞簟之夢 私爲之悶 日前向我云 的知有胎候 殊可喜幸 兄與家弟無間 故爲此報 兄應未及聞也

昨月大兒擧男子 昨日次兒又擧男子 兩產婦皆順娩善飯 大可幸也

豚兒生男可喜 記疇昔騎竹作兒戲 宛如昨日 而居然爲人祖 光陰迅駛 又足悵也 使過二十年 將爲人曾祖 當其時 又當一悵也 好笑好笑

家嚴經年患候 焦灼已甚 而百藥無效 實不能望有復常之慶 而但祝不至於沉重矣 日前舍伯得男 翌日 舍仲又得男 家嚴聞而大悅 自是寢啖 比前頓異 今朝扶杖步庭 擧家歡欣 無與爲比 醫人云 此本積鬱爲祟 得大喜而解 私深伏幸

意外一命 實是濫竽 慙懼深矣 而侍下供歡 無出此外 感誦天恩 罔知涯涘

家兒牽絲 寔出望外 近年出身之路 惟此而已 可幸可幸

家弟甄復 出於異數 天恩偏重 曷勝感祝

新除是淸啣 而非分濫叨 不勝兢懼

舍伯日前奉檄 自此可專城養親矣 念家素淸貧 菽水難繼 如弟輩 只切傷哉之歎 賴舍伯有今日 情私喜幸

弟本無恢刃 不堪居製錦之地 雄州巨郡 實非所望 而日前一麾之報 果是閑邑 尙可供菽水之養 公義私情兩盡 甚幸

新命特下 歷日戰兢 寵擢之恩 非不浹髓 冥升之戒 靡所措窮 感祝之深 若獲罪戾

弟蟄伏田野 不聞世間榮辱事 爲一快 時與隣翁 對斟濁醪 醉卽倒樹林下 齁齁鼾睡 爲二快 及醒而就井 汲水一二升 仰面一吸 消胸中麴蘗氣 爲三快 未知兄亦有幾件快事否乎

方飮暑時 如坐火炕 硪硪欲殊 遇有一二句 暗自胸中 油然而出 繞牙頰際 便覺淸颸纚纚 從兩腋起 因曼聲詠之 不復知世上何者 爲流金鑠石 似此痴 想天壤間 更無一人時自絶倒

自今年將稼穡事 付之兒曹 柴米漿醋 都不復畧省 惟與羣孫輩遊 最幼者抱 稍大者提 其尤大者 使之誦周興嗣千字文 其過十歲多者 俟自村塾還 問論語一二義 此足消一日 於是始知天地間 惟吾爲閑人也

間作日下行 昨暮還巢 憊薾莫振 而惟庭省依前 是庸慶幸

自月前爲寒痰所攻 日事刀圭 今則少可 而向遲完痊 又胃氣不和 飮啖未健自憐 而事育如昔狀 是足幸也

第四孫髣髴鬆鬆 而能作五字句 其佳者有鏗鏘聲 夫如是 何能復寒貧哉

迷豚日前 迎新婦 執棗栗來見 與病妻對坐 酬一獻之禮 而觀其儀 有足以宜家 可幸

孫兒在未冠時 動作無節 專于戲謔 譙呵之屢矣 而不少改心 甚憂之 自三加後 持身頗謹 擇言而發 日覺日上 殊可觀也 古人以加冠爲成人之始 此其驗也 兄每稱斯兒 步趨不可量 常不以爲然 而今而後 知兄之有朗鑑也

하(賀)

곰 꿈은 예전에 그 길(吉)함을 점쳤는데 이제 농장(弄璋)[114]이 있게 되었으니, 그 기쁨을 알 만합니다.

꿈에 한 도사(道士)가 바둑알을 형에게 주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서 곧 형께서 사내아이[丈夫子]를 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운이 문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인형(仁兄)이 사내아이를 생산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바로 뛸 듯이 달려가 탕병(湯餠)[115]의 손님이 되고 싶습니다.

방금 들으니 노형(老兄)이 지난밤에 장중주(掌中珠)[116]을 얻었다고 하는데, 골상(骨相)이 우뚝하여 장차 조정의 큰 인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장(弄璋)에 양(羊)처럼 순산하였다니[117], 축하를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

114) 사내아이를 낳음을 말함. 옛날 아들을 낳으면 장난감으로 장(璋)이란 옥(玉)을 준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115) 아이를 낳은 지 3일만에 그 아이의 장수를 위하여 먹는 메밀국수.

116) 손에 쥔 구슬. 전(轉)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뜻한다.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마다 다 있는 일이지만 때로 혹 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늘 있는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이 있으니, 형 같은 이는 마치 늙은 조개가 진주(眞珠)를 생산하는 격이라, 참으로 축하를 드릴 일입니다.

탄미(誕彌)[118]이 기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천리마의 새끼와 봉황의 새끼임은 보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밤새 아이를 씻겼다니 축하를 드립니다. 아이의 서각(犀角)[119]이 풍영(豊盈)한 것이 아비에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형의 시(詩)도 아이가 우직하고 노둔(魯鈍)함이 파로(坡老 : 蘇軾)와 같기를 바라며 지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오직 아이의 총명함이 반드시 형과 같기를 바랄 뿐입니다.

연길(燕姞)이 난초 꿈을 꾼 경사[120]는 사람을 통쾌하게 합니다. 장래의 국향(國香)[121]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형이 늦게 아들을 얻었다니 매우 기쁩니다. 이에 네모진 벼루를 하나 드리니, 곧 파옹(坡翁 : 蘇軾)이 말씀[122]한 감히 속된 물건으로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늙더라도 이 아이가 책을 읽으며 이 벼루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 그 때에 다시 두 가지 기쁨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인형(仁兄)이 영윤(令允)을 얻은 것을 축하드린 것이 어제 일인 듯 뚜렷한데 다시 영윤이 장부자(丈夫子)를 얻은 것을 축하드림이 어느새 오늘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매번 듣는 것마다 이와 같다면 설령 머리털이 눈처럼 희더라도 젊고 씩씩한 기운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듣자하니 형이 손자를 안아보는 기쁨이 있다 하니,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합니다.

일전에 영윤(令允)이 아들을 얻었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아우가 또 아들을

117) 『시경』「생민(生民)」에 "첫 아기를 낳되 양새끼처럼 쉽게 낳는다"(先生如達)이란 말이 있는데, 양은 새끼를 순산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118) 열달을 채워 자식을 낳았다는 뜻. 『시경』「생민(生民)」"誕彌厥月 先生如達"

119) 관상(觀相)에서 두 눈썹 위의 이마가 돌출(突出)한 것을 서각(犀角) 또는 용각(龍角)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큰 명성을 떨칠 상으로 친다.

120) 연길은 정(鄭)나라 문공(文公)의 천첩(賤妾)인데 하늘이 난초를 내리는 꿈을 꾸고 문공의 총애를 입어 목공(穆公)을 낳고 난(蘭)이라고 이름을 지은 고사이다.

121) 뛰어난 향기라는 뜻. 전(轉)하여 난초의 다른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장래 난초처럼 향기로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을 뜻하고 있다.

122) 소식의 「여서득지서(與徐得之書)」에 보인다. 편지의 내용은 서득지가 늙으막에 아들을 얻자 소식이 축하하면서 "감히 속된 물건으로 축하드릴 수 없어 쓰고 있는 벼루 하나를 올리니 글씨를 배울 때 유용할 것입니다. 잠시 사이에 아이가 성장하면 우리들은 더욱 늙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종사(螽斯)의 진진(振振)함[123]은 곧 덕이 있는 집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경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두 산부가 모두 음식을 잘 든다니 더욱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서사제도(筮仕制度)[124]는 곧 옛날의 과거제(科擧制)에 해당되니, 벼슬길에 나아가 조정에 서는 것이 어찌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의 진사(進士)는 중국과는 달리 여전히 일개 선비일 뿐이요, 오직 대과(大科)에 발탁되어야 비로소 청화(淸華)[125]의 자리에 올라 이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 차례 서사제를 시행할 뿐 소과·대과를 모두 논하지 않으니, 오락가락하는 관리선발보다는 차라리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축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께서 서사(筮仕)에 통과하였으니 기쁨을 알 만합니다. 과거제가 폐지된 뒤로 오직 이 하나의 길만이 출신(出身)할 수가 있으니, 선비가 멀리 나아가 뜻을 펴고자 한다면 이미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제도를 예전의 음환(蔭宦 : 蔭仕)과 동일시합니다. 하물며 형께서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니 천리마가 걸음을 떼어놓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식에게 책을 읽도록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과거(科擧)에 급제하길 바라서입니다. 과거제가 폐지된 뒤로 세상은 드디어 희망을 상실하여 이에 온 나라가 책 읽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실의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홀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서사제(筮仕制)는 한(漢)나라의 현량제(賢良制)와 다름이 없는데, 영윤(令允)이 능히 조기에 발길을 나섰다니, 이런 까닭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서사에 합격한지 1년이 지났는데 어느새 오마(五馬)를 멍에하고 백리(百里)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선비가 가난하게 살며 가장 마음이 상하는 것은 속수(菽水) 같은 거친 음식도 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께서 오늘날 고을의 원으로 부모를 봉양하니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리 안이 모두 자목(字牧)[126]의 관할지에 속하는데, 가난하여 부모를 봉양할 수 없는 자가 몇 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

123) 종사(螽斯)는 메뚜기를 의미하고 진진(振振)은 매우 많은 모양이니, 곧 자손이 번성함을 말한다. 『시경』「종사우(螽斯羽)」에 "메뚜기의 깃이 우글우글하니 너의 자손이 번성함이 당연하도다"(螽斯羽 詵詵兮 宜爾子孫 振振兮)라고 하였다.
124) 갑오경장(甲午更張 : 1894) 때 과거제(科擧制)를 폐지하고 새로 시행한 관리 선발법.
125) 고위고관의 지위에 오름을 말함. 곧 청운(靑雲)과 같은 뜻이다.
126) 고을의 원이 백성을 사랑하여 다스린다는 뜻. 여기서는 명사로 고을의 원을 의미한다.

도 자신의 자리를 얻지 못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효를 미루어 남에게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무릇 이와 같은 뒤에야 완전한 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한 말은 형을 축하한 것이고 뒤에 한 말은 형을 권면(勸勉)한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을 수양하여 남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목표를 삼지 않음이 없지만, 다만 지위를 얻지 않고서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께서 목민관(牧民官)의 임무를 받았으니 어느 정도는 전날에 쌓은 것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리오!"[127]라는 말로써 시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부모를 모신 몸으로 고을의 원으로 임명된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고을이나 부모를 봉양하기에는 충분하니, 우러러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남을 가르쳐 다스리는 것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교지(敎旨)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재주가 높고 학문이 넉넉하여 백성을 임하여 다스리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있으리니, 연애(涓埃)[128]나마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어제 저보(邸報)[129]를 보니 조개(皂蓋)[130]가 장차 남쪽으로 출발하는군요. 어느 날 전하(殿下)께 출발을 고하고 어느 날 차비를 꾸리렵니까. 듣자하니 부임하시는 곳은 산물이 많고 땅이 넓다하니, 형께서 일찍이 품은 넓은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볼 만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승진하여 오시게 되었으니 머리를 맞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약이 있게 되었습니다. 형을 위해 축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제 자신을 축하합니다.

부석(鳧舃)[131]이 겨우 돌아오자마자 다시 남쪽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재주가

---

127) 『논어』「양화(陽貨)」에 보인다.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데 어찌 이런 대도(大道)를 쓸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다.

128) 물방울과 먼지. 근소(僅少)한 것을 말한다.

129) 조선시대에 경저(京邸)에서 발행하여 고을로 띄우던 관보(官報). 관리의 인사동정(人事動靜)이 실렸다.

130) 검은 일산(日傘). 관리가 임용되어 갈 때 쓰는 것이다.

131) 오리 신발. 『후한서(後漢書)』「왕교전(王喬傳)」에 의하면 한나라 현종(顯宗) 때 사람 왕교는 하동(河東)사람인데 섭현(葉縣)의 현령이 되었다. 왕교는 신술(神術)이 있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항상 조정의 조회에 참석을 하였다. 황제는 그가 올 때마다 거가(車駕)가 보이지 않음을 괴이하게 여겨 몰래 태사(太史)를 시켜 그를 살피게 하였다. 그가 나타나면 갑자기 오리 두 마리가 동남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알고 오리가 날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물로 한 마리를 잡아보니 오리는 온데간데 없고 신발 한 짝이 그물에 들어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후세에 지방관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뛰어나고 다스림은 신속하며 일찍이 여러 일을 경력하여 가벼운 수레를 타고 익숙한 길을 다니는 것과 같으리니 마땅히 칼날을 놀림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132]

남쪽 고을의 지방관으로 새로 임명을 받으시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기쁩니다. 언제쯤 날 정절(旌節)[133]을 갖추고 출발을 아뢰시렵니까. 높다란 아기(牙旗)와 거대한 독기(纛旗)[134]를 갖추고 큰 고을에 나아가 안무(按撫)하니 귀공의 소임으로는 축하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나, 오직 남쪽 지방의 백성은 장차 감당(甘棠)의 교화[135]를 입으리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축하할 만합니다.

은혜로운 가자(加資)[136]를 받으심을 감축(感祝)합니다. 단계를 뛰어넘어 승진하심은 실로 성상(聖上)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크게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성상의 은총이 높고 두터워 승진하여 정석(鼎席)[137]을 받게 되심은 실로 모든 사람의 바람에 합하는 일이니, 홀로 저의 사사로운 하례(賀禮)일 뿐이 아닙니다.

악강(嶽降)[138]의 경사스런 날에 화갑(花甲)이 곧 돌아오시니 영자(令子)와 영손(令孫)이 색동옷을 입고 술잔을 올릴 것입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아름답고 즐거움이 이것에 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장수하여 이순(耳順) 지나 육갑(六甲)이 한 바퀴 돌아옴에 금슬(琴瑟)같은 부부가 함께 즐겁고 아들과 손주가 복을 비는 마음으로 술잔을 올리니, 인간세상의 경사스러운 기쁨이 이것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이에 삼가 무함(蕪函)[139]을 올려 축하를 드립니다.

상서로움이 남극성(南極星)[140]을 움직여 춘부장(春府丈)의 화갑(花甲)이 곧 돌아옵

---

132)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에 보인다.
133) 정기(旌旗)와 부절(符節)을 말한다.
134) 아기(牙旗)는 상아(象牙)로 장식한 대장군의 깃발이고, 독기(纛旗)는 쇠꼬리로 장식한 큰 깃발인데 군중(軍中)의 거가(車駕)의 왼쪽에 세운다.
135) 『시경』「감당(甘棠)」에 보인다. 주나라 소공(召公)의 남국(南國)을 다스릴 때 선정(善政)에 감동한 백성들이 그가 휴식을 취하던 팥배나무를 소중히 여겼던 고사에서 나온 말로 백성들이 선정을 편 위정자의 덕을 사모하는 것을 말한다.
136) 임금으로부터 작위(爵位)를 받는 것을 말한다.
137) 재상의 자리를 말한다. 솥에는 세 개의 발이 있는데 삼정승과 수가 같고 본래 솥은 천하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138) 산신(山神)이 내려와 사람으로 화신(化身)한다는 뜻. 귀인이나 위인이 태어남을 말한다.
139) 거친 글이라는 뜻. 자신의 편지를 낮추어 부르는 겸사이다.
140) 남십자성(南十字星)이라고도 하는데 하늘의 남극 가까이에 있는 별로 사람의 수명을 맡고 있다고 한다.

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화려한 자리가 높게 펼쳐지고 따스한 햇살이 밝게 비춤에 향기로운 술은 바다와 같은데 붉은 빛이 어리어 비칩니다. 형의 형제와 조카들이 색동옷을 입고 번갈아 축수의 잔을 올릴 것이니, 인간세상의 지극한 영화가 어찌 이보다 더함이 있겠습니까. 때마침 일이 있어 직접 찾아보이 축하드릴 수 없기에 삼가 보잘 것 없는 선물을 갖추어 부족하나마 작은 정성을 드리니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훤당(萱堂)[141]의 탄신하신 날[142]에 육갑이 곧 돌아온다 하니 형이 평소에 부모님을 봉양함에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나, 이 경사스러운 잔치를 맞이하여 따사로운 삼춘지휘(三春之輝)[143]를 보답하는 것에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삼가 30자로 된 오언고시를 지어서 간략하나마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서술하여 술잔을 올리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거칢을 비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거두어서 존빈(尊賓)의 명문(名文)들 끝에 두셨으면 합니다.

양당(兩堂)[144]의 수연(壽宴)이 한 해에 두 번이나 열리니 동해(東海)를 기울여 술통을 삼고 남극성을 우러러 복을 빈다 하여도 형이 술잔을 올리는 정성을 비유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존왕대인(尊王大人)께서 태어나신 날에 봉호(蓬弧)[145]를 문에 걸었는데, 이제 화갑(花甲)이 돌아옴에 춘훤(春萱) 양당이 나란히 술잔을 올리고 옥수(玉樹)와 지란(芝蘭) 같은 손주들이 반짝이는 색동옷을 입고 있으니, 누군들 먼저 보는 것으로써 즐거움을 삼지 않겠습니까. 아우는 욕되게 가부지친(葭莩之親)[146]을 입었으니, 마땅히 직접 참가하여 하례를 올려야 하겠지만, 복잡한 일이 있어 정성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편지로 대신하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

141)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예전에 북당(北堂)의 뜰에 훤(萱) 즉 원추리를 심었던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142) 원문에는 설세지신(設帨之辰)으로 되어있다. 옛날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문앞에 뽕나무 활과 쑥대 화살을 걸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문앞에 수건을 걸었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한다.

143) 부모의 은혜가 봄날의 따사로운 햇볕과 같다는 것을 비유한 말. 맹교(孟郊)의 시 「유자음(遊子吟)」에 "한 마디 풀의 심정으론 삼춘의 햇볕을 보답하기 어렵네"(難將寸草心 報得三春輝)라고 하였다.

144) 상대방의 양친을 말한다.

145) 예전에 아들을 낳으면 대문 왼쪽에 쑥과 활을 단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남자의 생일을 뜻한다.

146) 아주 엷은 교분을 뜻함. 가부(葭莩)가 갈대의 줄기에 있는 얇은 막으로 아주 얇다는 것의 비유로 쓰이는 데서 나왔다.

영왕대부인(令王大夫人)[147]께서 장수하여 회갑을 맞이하여 당신이 설세(設帨)[148]한 날에 자손들이 절하고 춤을 추며 술잔을 번갈아 올리니 푸르고 붉은 비단이 뜨락에 가득하고 색동옷이 서로 어리어 비칩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모두 갖추어 봉양하니 기쁨이 가득 넘칩니다. 이 때에 직접 말석에 앉아 성대한 의식을 보지 못하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배 백 개와 대추 한 말을 드리오니, 감히 신선이 먹는 배인 교리(交梨)와 신선이 먹는 대추인 화조(火棗)의 의미를 취하여 잔치에 필요한 물품을 보충하고자 한 것입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부족하나마 변변찮은 정성을 올립니다.

존집(尊執)[149]의 춘추가 이미 고희(古稀 : 70세)에 가까운데 동생분의 화갑이 또 돌아왔습니다. 옛날 원방(元方)과 계방(季方)[150]이 한 곳에 같이 사니 덕성(德星)[151]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성(壽星)[152]이 귀댁의 즐거운 연회 자리를 찬란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덕(德)이 있으면 진실로 수(壽)가 있으니, 이로써 천문(天文)을 맡은 태사(太史)의 상주(上奏)가 또 내일 있을 것임을 알겠습니다.

취죽(翠竹)과 벽오(碧梧)가 우거지며 난새와 고니가 언덕에 머무르는 것[153]은 실로 현합(賢閤)[154]의 공입니다. 이번에 회갑을 맞아 훌륭한 아들을 많이 생산하신 부인께 감사해야 함은 형도 진실로 그래야 함을 아실 것이며, 오늘의 흰 눈썹은 바로 옛날 밥상과 나란하던 눈썹[155]이니 장창(張敞)이 아내의 눈썹을 그려주던 흥취(興趣)[156]가 장래에 갑자기 생기지나 않을런지요. 웃음이 납니다.

백발의 신선같은 두 분이 다시 근배(巹盃)를 합하는 날[157]에 아들과 딸과 손자와

---

147) 상대방의 조모를 높여 부르는 말.
148) 예전에 딸을 낳으면 문 앞에 수건을 건데서 유래한 것으로, 여자의 생일을 말한다.
149)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
150) 원방과 계방은 곧 중국 후한(後漢) 진식(陳寔)의 두 아들 진기(陳紀)와 진심(陳諶) 형제를 말한다. 이 둘은 난형난제(難兄難弟)의 고사로도 유명하다.
151) 목성(木星)을 가리킨다. 인간의 덕을 주관한다고 하는데 세성(歲星)이라고도 한다.
152) 남극성(南極星)을 말한다. 인간의 수명을 주관한다고 하며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다.
153) 훌륭한 선비가 자리에 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한유(韓愈)의 「전중소감마군묘지(殿中少監馬君墓誌)」에 "물러나 소부를 보니 취죽과 벽오가 우거지며 난새와 고니가 언덕에 머무르는 격이니 능히 그 직무를 지키는 자이다"(退見少傅 翠竹碧梧 鸞鵠停峙 能守其業者也)라고 하였다.
154) 상대방의 부인에 대한 경칭이다. 합(閤)은 내실(內室)을 의미한다.
155) 한나라의 양홍(梁鴻)이 날품을 팔 정도로 가난했으나 아내인 맹광(孟光)이 남편을 공경하여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올렸다는 고사이다. 『후한서』「양홍전(梁鴻傳)」에 보인다.
156)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그 화장에까지 마음을 써서 환심을 사는 것을 말한다. 『한서』「장창전(張敞傳)」에 보인다.

증손이 나누어 술잔을 올리고 에워싸고 모시니 이러한 경사를 어찌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발(結髮)[158]하여 부부가 되어 함께 늙어 회갑에 이르는 사람은 한 고을에 몇 사람 정도이고 함께 늙고 자손이 많은 사람은 한 도(道)에서 몇 사람 정도이며, 함께 늙고 자손이 많으며 또 다시 회근(回巹)에 이르는 사람은 한 나라에서 몇 사람 정도입니다. 그러나 또 자손이 학문과 행실을 겸비하고 증손과 현손(玄孫)이 빽빽하게 대나무가 늘어선 것처럼 된 것은 온 세상에 오직 존왕대인(尊王大人)만이 이런 큰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에 삼가 칠언고시 1백운으로 그 성대함을 서술한 것은 감히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드물게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거두어 보셨으면 합니다.

춘부장(春府丈) 대감(大監)께선 춘추가 팔십을 바라보시니, 이것은 형네 가문(家門)만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실로 온 나라의 경사입니다. 당우(唐虞)의 덕화(德化)[159]를 도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똑같이 수역(壽域)[160]으로 이끄신다면 아우 한 사람만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환호하고 축하하려 할 것입니다.

영윤(令允)의 삼가례(三加禮)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생각건대 아름다운 거동과 빼어난 표상은 총각시절에 비해 배는 더할 것입니다. 한걸음에 뛰어가 보지 못하는 한입니다.

장성한 아들에게 관(冠)을 씌워주는데 예로써 하는 것은 당나라 시절부터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주(程朱)의 가르침을 준수하여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집집마다 그에 근거하여 수행했는데 근년에 다시 느슨해져 폐해졌습니다. 듣자하니 형께서 그것을 행하려한다 하니, 고례(古禮)가 없어지지 않음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윤군(允君)의 삼가례는 언제로 정해졌는지요. 직접 가서 그 성대한 의식을 보고자 합니다.

형에게 훌륭한 자식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지금 모두 화락하고 명성이 옥처럼 쟁그랑거리니 가문의 번창함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알 수가 있으니 첫 번째로

157) 혼인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올리는 회혼식(回婚式)을 말한다. 근배(巹盃)는 곧 혼례 때 신랑, 신부가 서로 바꾸어 마시는 합환주을 말한다.
158) 남녀가 처음으로 머리를 짜올리고 어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혼례를 당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곧 혼인하여 부부가 됨을 의미한다.
159) 제요(帝堯) 도당씨(陶唐氏)와 제순(除舜) 유우씨(有虞氏)의 지치(至治)의 덕화를 말한다.
160) 인수(仁壽)의 경역(境域)이란 뜻. 태평한 세상을 말한다.

축하할 만 합니다. 이로부터 오악(五岳)에 노닐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 두 번째로 축하할 만 합니다. 혼례는 축하하지 않는다고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은데 축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영자부(令子婦)[161]가 우귀(于歸)[162]하는 날이 길일(吉日)이며 봄풍경이 화락하니, 생각건대 집안에 가득한 기쁨을 움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서(令壻)[163]는 어려서부터 명성이 높아 위숙보(衛叔寶)에 뒤지지 않으나, 형 자신이 얼음처럼 맑기 때문에 당연히 훌륭한 사위를 얻은 것입니다.[164]

현서(賢壻)[165]는 용모가 수려(秀麗)하고 문학에 일찍부터 성취가 있으니, 영애(令愛)는 용(龍)을 탔다[166]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교(鸞膠)를 얻어 이미 끊어졌던 활시위를 있게 되었으니,[167] 이로부터 종사(螽斯)처럼 자손이 번성함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168] 어찌 혼례에 핑계하여 축하가 없겠습니까.

선부군(先府君)[169]에 대한 이증(貤贈)[170]은 나라의 풍속을 바로 세우려는 정사(政事)에서 나온 특별한 은전(恩典)이니, 족하의 효성스러운 뜻이 이루어진 것이요, 사림(士林)의 공의(公議)가 펴진 것입니다.

선모공(先某公)[171]의 탁월하고 훌륭하신 행실이 비로소 정려(旌閭)를 하사 받는 은

161) 상대방의 며느리를 높여 부르는 말.
162) 시집감을 말함. 『시경』「도요(桃夭)」에 "저 아가씨가 시집감이여, 그 부부간과 집안을 화순하게 하리로다"(之子于歸 宜其家人)라고 하였다.
163) 상대방의 사위를 높여 부르는 말.
164) 악광(樂光)의 자는 언보(彦輔)인데 당시 사람들이 그를 빙경(氷鏡)이라고 불렀고, 위개(衛玠)의 자는 숙보(叔寶)인데 당시 사람들이 옥인(玉人)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사람들은 부옹(婦翁) 즉 장인을 빙청(氷淸)이라고 하고, 여서(女壻) 즉 사위를 옥윤(玉潤)이라고 하였다.
165) 상대방의 사위를 높여 부르는 말. 영서(令婿)라고도 한다.
166) 중국 후한 때 사람 환숙원(桓叔元)의 두 딸이 각기 황헌(黃憲)과 이응(李膺)에게 시집을 가니 당시 사람들이 용을 탔다고 비유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곧 훌륭한 사위를 얻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167) 후처(後妻)를 얻는 것을 말함다. 난교(鸞膠)는 난새의 지방으로 제조한 아교를 말하는데, 한무제 때 서해(西海)에서 난교를 바쳤는데, 무제가 감천궁(甘泉宮)에서 활을 쏘다가 시윗줄이 끊어졌다. 서해의 사신이 난교로 붙일 것을 청했는데 붙인 뒤에 종일토록 다시 끊어지지 않으니 무제가 기뻐하고 속현교(續弦膠)라고 명명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168) 『시경』「종사우(螽斯羽)」 "메뚜기의 깃이 우글우글하니, 너의 자손이 번성함이 당연하도다"(螽斯羽 詵詵兮 宜爾子孫 振振兮)
169) 돌아가신 상대방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
170) 중국 청나라 때의 제도. 자신에게 수여될 봉고(封誥)를 주청하여 조상이나 친척에게 대신 수여되도록 하는 제도에서 부인(婦人)에게 수여되는 것을 말한다.
171) 돌아가신 상대방의 부친을 높여 부르는 말.

전을 입었습니다. 공의(公議)가 잠시 지체되었지만 선고(先考)의 미덕은 이것으로부터 칭송되리니 어찌 축하드리지 않겠습니까.

선모공(先某公)의 전집이 간행을 마쳐 조만간 원근에 전파되어 세상사람들이 덕업(德業)을 앙모하여 모범으로 본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다만 한 세대의 다행일 뿐이겠습니까. 곧 후생에까지도 무궁한 다행일 것입니다.

선모공의 문집이 이미 출판되었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한·당(漢唐) 이래로 문장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대대로 있어 대가(大家)도 있고 소가(小家)도 있었으며 바른 길도 있고 갈래 길도 있었습니다. 비록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다해 힘써 닦고 다듬지 않음이 없었지만 바른 길을 따라 대가라 일컫는 사람은 대개 몇 사람되지 않습니다. 선모공께서는 잡스러운 것을 힘써 쓸어내시고 멀리 한유(韓愈)와 구양수(歐陽脩)를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집집마다 전해져 사람마다 외우니 출판을 가다리지 않더라도 절로 먼 후대까지 드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등사(謄寫)할 때에는 오자가 나오기 쉬우니, 어찌 교감하여 출판하는 것이 어로(魚魯)의 착오[172]가 없는 것과 같겠습니까. 크게 축하드립니다.

사환(賜環)[173]은 특별한 은총에서 나온 것이니, 저는 마침 밥을 먹다가 저도 모르게 먹던 것을 입에 물고 일어나 성명(聖明)의 인재를 아끼시는 것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옛날 한 문제(漢文帝)가 가의(賈誼)[174]의 재주가 재상이 될 만하다고 여겼으나 일부러 장사(長沙)[175]로 내려보낸 것은 대개 그의 나이가 어린 까닭에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생각을 가로막아 그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그의 도량을 넓혀 차차 발전을 하면 그를 등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의 경우는 요절하여 그럴 시간이 없었으니 슬프지 않습니까. 형의 오늘은 바로 가의가 등용될 때입니다. 바라건대 스스로 몸을 삼가하여 가의의 도량이 작게 끝난 것과 같음이 없다면 제가 축하드리는 것이 어찌 다만 오늘과 같을 따름이겠습니까.

---

172) '魚'자와 '魯'자가 비슷하여 오자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173) 옛날에 임금이 귀양간 죄인에게 환(環)이란 옥(玉)을 내리면 죄를 용서하고 불러올린다는 뜻이고, 결(玦)이라는 옥을 내리면 영결(永訣)의 의사를 표시한데서 나온 말이다.

174) 중국 전한 때의 학자. 어려서부터 천재성이 드러나 21세 때 문제(文帝)가 불러 박사(博士)가 되었고 이듬해에 태중대부(太中大夫)가 되었다. 정삭(正朔)을 고치고 예악(禮樂)을 일으킬 것을 청하다가 대신들의 꺼림을 사 장사왕(長沙王)의 태부(太傅)가 되고 후에 양회왕(梁懷王)의 태부가 되었으나 32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저서로는 『신서(新書)』『가장사집(賈長沙集)』이 있다.

175) 중국의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縣)을 말한다. 상강(湘江)의 하류에 있다.

듣자하니 형께서 책을 사들인 것이 매우 넓다 하니 축하할 일입니다. 문장을 짓는데 책이 있는 것은 밥을 할 때에 쌀이 있는 것과 같으니, 넓게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넓음에 힘을 쓰면 문장에 전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눈과 귀는 동시에 두 가지 것을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사(旁史)와 자집(子集)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십삼경(十三經)과 이십일사(二十一史)[176]는 음식에 있어서 차와 밥 같은 것인데 어찌 모두를 뱃속에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모두 뱃속에 쌓아 둔다 하여도 한 때에 지나지 않으니, 해박함이 책상자와 같다고 일컬은들 어떻게 후세에까지 능히 이름을 남긴 자를 보겠습니까? 옛날 유원보(劉原父)[177]는 구양수(歐陽修)가 책을 읽지 않음을 비웃었지만, 송(宋)의 문장은 유씨(劉氏)에게 돌아가지 않고 구양씨(歐陽氏)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대의 원자재(袁子才)[178]는 장서(藏書)가 3만권에 달했는데, 필추범(畢秋帆)[179]에게 12만권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다시는 장서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은 또한 지나친 말입니다. 문장은 많은 책을 읽는 것에 말미암지 않음이 없으나 또한 많은 책을 읽는 것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은 책을 사실 때 모름지기 이 뜻을 이해해야 하니, 문장이 성취한 것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다시 축하드리겠습니다.

---

176) 21사는 송(宋)나라의 인종(仁宗)·영종(英宗) 때 『사기(史記)』『한서(漢書)』『후한서(後漢書)』『삼국지(三國志)』『진서(晉書)』『송서(宋書)』『남제서(南齊書)』『양서(梁書)』『진서(陳書)』『위서(魏書)』『북제서(北齊書)』『주서(周書)』『남사(南史)』『북사(北史)』『수서(隋書)』『신당서(新唐書)』『신오대사(新五代史)』 등 17종의 사서(史書)를 간행하여 세상에서 17사라고 불렀는데, 명나라 때 여기에 『송사(宋史)』『요사(遼史)』『금사(金史)』『원사(元史)』를 더하여 21사라고 한 것이다. 명나라의 남북양감본(南北兩監本)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다.

177) 중국 북송 때의 학자 유창(劉敞)을 가리킨다. 원보는 그의 자이다. 집현원(集賢院)의 학사가 되었는데 학문이 깊고 넓어서 구양수도 의심 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했다고 한다. 특별히 『춘추』에 정통해서 공시선생(公是先生)이라고 일컬어졌다. 저서로는 『춘추권형(春秋權衡)』『공시집(公是集)』 등이 있다.

178) 중국 청나라 때의 시인 원매(袁枚)를 말한다. 자는 자재(子才), 호는 간재(簡齋)이다. 세상에서는 원수원(袁隨園) 또는 수원선생(隨園先生)이라고 부른다. 그의 시는 성령(性靈)을 위주로 하여 자유롭게 그의 재능을 발휘한 것이었다. 항상 청신(淸新)한 것을 좋아하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것을 싫어하여 왕왕 기벽(奇僻)에 빠져들어 부박(浮薄)으로 흐르는 점이 있었다. 칠언율시(七言律詩)에 가장 능했고 고문과 변려문에도 재능이 있었다. 조익(趙翼)·장사전(蔣士詮)과 함께 건륭삼대가(乾隆三大家)로 불리우고 또 기균(紀昀)과 병칭하여 남원북기(南袁北紀)라고도 일컬어졌다. 저서로 『소창산방집(小倉山房集)』『수원시화(隨園詩話)』『수원삼십종(隨園三十種)』 등이 있다.

179) 필원(畢沅)을 가리킨다. 자는 양형(纕蘅)이고 호는 추범(秋帆), 영암산인(靈巖山人)이라고도 한다. 학문을 좋아하여 경(經)·사(史)·『소학 小學』·금석(金石)·지여(地輿)의 학문에 능통했다. 저서로는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영암산인시문집』『경훈당총서(經訓堂叢書)』 등이 있다.

윤군(允君)이 방문했을 때 마침 시인들이 모여 앉아 이미 운(韻)에 맞춰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윤군이 문사(文詞)에 뛰어나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보니 격조가 높고 어사(語辭)가 풍부하며 음절(音節)이 화창(和暢)하여 엄연히 대가(大家)의 기풍이 있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빛을 바꾸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데 어찌 한 번의 축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영포(令抱)[180]가 방문함에 살펴보니 행동거지가 편안한데다 자상하고 말하는 것이 단정하고 씩씩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글의 뜻을 이야기해 보니 막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성취한 것이 이와 같으니 비록 타고난 자질이 본디 아름다운 데서 말미암았겠지만 가정에서 시(詩)와 예(禮)로써 그를 훈도(薰陶)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것이 감탄스럽습니다.

듣자하니 아무개 벗과 교유하신다고 하니, 매우 기쁘고 기쁩니다. 이 벗은 몸가짐이 심히 자신을 단속하지 않아도 방종(放縱)함에는 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보존하고 일을 처리함에 먼저 대체(大體)에 의거하여 확고하여 뽑아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경서(經書)의 요지에 대해서도 깊이 본원(本源)이 있어 귀로 듣고 입으로 바로 내뱉는 자와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학습은 여택(麗澤)[181]에 깊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벗들 간에는 타고난 자질은 풍부하고 인색(吝嗇)한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좇다보면 필경은 한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글을 띄워 축하를 드리는 까닭입니다.

賀

維熊之夢 昔占其吉 載弄之璋 喜可知也

夢見一道士 取棋子遺吾兄 覺則聞吾兄擧丈夫子矣

充閭佳氣 可知仁兄生男矣 直欲躍如而去 爲湯餠之客矣

卽聞老兄 夜獲掌中之珠 想頭玉嶢嶢 將爲天廟之器矣

弄璋如達 賀可勝言

生男卽人人有之 而時或不常有焉 不常有焉而乃有之 如吾兄老蚌生珠 眞足獻賀

---

180) 상대방의 손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

181) 벗들과 서로 학습을 연마하는 것을 말함. 『주역』 태괘(兌卦), 상전(象傳)에 보인다.

審有誕彌之喜 驥子鳳雛 不見可想

夜來洗兒 仰賀賀 想其犀角豐盈 不讓乃父 未知吾兄詩 亦願其愚魯 如坡老所作否 弟則惟望其聰明 必如吾兄也

燕姞徵蘭之喜 令人一快 將來國香 預爲之賀

吾兄晚得子 甚喜 此呈一方硯 卽坡翁所謂不敢以俗物爲賀者也 吾儕雖潦倒 當見其讀書弄此 覺伊時更增二喜也

賀仁兄擧令允 宛如昨日 復賀令允擧丈夫子 居然在今日 光陰荏苒 乃如是 使每聞如此 雖鬢髮如雪 覺便有少壯氣耳

聞吾兄有抱孫之慶 令人聳喜

日前聞令允得男 今朝聞其季亦得男 螽斯振振 卽德門應有之慶 而二產婦俱健飯云 尤足獻賀

今之筮仕 卽昔之登科也 出身立朝 豈有不同 況我東進士 與中州異 依舊一士子已耳 惟擢大科 始能歷敭淸華 今則一筮仕 而小大科俱勿論 卽翩翻仕路 寧不快哉 此不可以無賀

吾兄筮仕 喜可知也 自科制廢 惟此一路 可以出身 士欲長往 則已不然不應 以此視同前日之蔭宦 況吾兄懷抱利器 騁展驥步 自今日始矣

人之敎子讀書 擧未免期以登科 自科制廢 世遂缺望 乃通國不思讀書 遂以落莫 而愚獨不以爲然 今之筮仕 卽如漢之賢良無異 而令允能早出脚 是用馳賀

筮仕歲一年矣 而便能駕五馬宰百里 豈不壯哉

士之窮居 最所傷心者 菽水不繼耳 而兄於今日 有專城之養 可以爲孝矣 百里之內 盡屬字牧之任 凡窮居 而不得養親者 幾千人矣 必使斯人無一不獲其所 此孝之推而及人也 夫如是而後 得謂之全孝也 前以爲吾兄賀 後以爲吾兄勉

方讀書時 無不以修己及人爲志 而顧不得位 無以施矣 今吾兄膺字牧之任 稍可以試昔日之蘊 豈以割鷄牛刀 謂不足施邪

捧檄 喜可想矣 邑雖小 足以爲養 仰賀仰賀

製錦之試 出自聖簡 仰惟才高學優 莅民有術 報荅涓埃 正由此始矣

昨見邸報 皂蓋將南出矣 何日陛辭 何日俶裝 聞所莅 物衆地大 以兄夙抱 庶可一試恢刃矣

榮遷近地 聚首有期 不獨爲兄而賀 亦自賀也

鳧鴈纔還 又向南飛 才長理劇 夙經盤錯 駕輕就熟 當遊刃恢恢矣

南臬新命 公私俱喜 何日當啓旌節耶 高牙大纛 出按雄藩 在台執所 應有不足爲賀 惟南民將被甘棠之化 是眞可賀耳

恩資 仰想感祝

超陞寔出特眷 曷勝聳賀

宸眷隆摯 晉膺鼎席 實愜輿望 不獨私賀已也

嶽降之辰 花甲載回 令子令孫 彩袖稱觴 仰想嘉悅無比也

壽過耳順 六甲一周 琴瑟偕樂 兒孫獻嘏 人間慶喜 蔑以加玆 玆肅蕪函 聊伸賀忱

瑞動南極 春府丈花甲載回 仰想華筵高張 仙日照耀 芳樽如海 丹光映發 兄昆季允咸彩袖斑斕 迭行獻壽 人世至榮 豈有過此者乎 適因有事 未有躬賀 謹具菲儀 聊伸微悃萬惟收存

萱堂設帨之辰 六甲載周 兄平日南陔之養 靡所不備 値玆慶宴 所以報三春之輝 寧有限量哉 謹以五古三十韻 略述祝嘏 聊助稱觴 仰冀不鄙蕪陋 收置尊賓瓊什之末

兩堂壽宴 一歲再張 傾東海而爲樽 仰南極而祝嘏 未足以喻吾兄稱兕之忱也

尊王大人初度之辰 蓬弧設門 花甲周天 春萱兩堂 齊稱兕觥 玉樹芝蘭 斑斕輝映 誰不以先覩爲快乎 如弟辱忝葭莩 誼當躬賀 而事有參差 無以遂忱 敢此替函 不勝悚仄

令王大夫人壽躋回甲 日値設帨 子孫拜舞 霞觴迭擧 青紫盈庭 斑衫相映 榮養備至 歡喜洋溢 當此時 未能躬造末席 獲覩盛儀 只恨無分歡悚交切 梨百顆棗一斗 敢取義於交梨火棗 以充宴需物 雖不腆 聊伸區區之忱

尊執春秋 已近古稀 而令弟氏花甲又回 昔元方季方 同聚一處 有德星之應 而今壽曜之彩照尊第 湛樂之筵 有德固有壽 以此知太史之奏又在明日矣

翠竹碧梧 鸞鵠停峙 寔賢閣之功也 値玆回甲 賀其宜子 兄固知宜 然而今日介壽之眉卽昔者齊案之眉 張京兆畫嫵之興 將無陡然發乎 奉呵呵

鶴髮雙仙 重合巹盃 子女孫曾 分行環侍 此慶 豈人人所得有邪

結髮爲夫婦 偕老到周甲 一鄉而數人也 偕老而子孫衆多 一省而數人也 偕老而子孫衆多矣 又至於回巹 一國而數人也 然且子孫 文行兼備 曾玄森如竹立 擧一世 惟尊王大人享此洪福 謹以七言古詩一百韻 述其盛 非敢夸多也 蓋像其罕有也 仰希收覽

春府大監春秋望八 此不獨尊兄家門之慶也 實擧國之慶也 贊唐虞之化 使斯民同躋壽域 不惟弟一人 賀之 將擧國騰賀矣

令允三加已成 想丰儀秀標 比在總非 更增一倍 恨不得一躍進去也

加冠以禮 在唐時不能爾 然我東遵程朱之敎 士大夫家比比擧而修之 而挽近又弛廢矣

聞老兄將行之 古禮之不泯 足以相賀 允君三加 定在何日邪 欲躬造以覿其盛也

老兄有五鳳雛 到今皆和鳴鏘鏘 門戶之昌 可知其莫與京 一可賀也 自此而五岳之遊 可以從心 二可賀也 婚禮不賀 雖古有云 而如此 可無賀邪

令子婦于歸迨吉 春景融和 想盈門之喜 可掬也

令壻妙年聲譽 不減叔寶 兄自氷清 宜有是君之玉潤也

賢壻風姿秀朗 文學夙就 令愛可謂乘龍也

得鸞膠續已斷之絃 從此而螽斯之振振可期 豈可諉之婚禮 而無賀邪

先府君貤贈殊典 出於朝家樹風之政 而足下之孝志遂矣 士林之公議伸矣

先某公卓異之行 始蒙棹楔之恩 公議雖暫齎鬱 先美自此稱揚 曷勝獻賀

先某公全集訖刊 將傳布遠近 使宇內之人 有以仰德業 而作模楷 豈直爲一世之幸 卽後生無窮之幸也

先某公文集 已登棗梨云 不覺聳喜 自漢唐以來 文章造詣 代自有人 而有大家焉 有小家焉 有正路焉 有傍路焉 雖各盡其才之所至 莫不砥礪淬濯 而其由正路而稱大家者 蓋無幾人焉 先某公力掃榛蕪 遠接韓歐 蓋已戶傳而人誦 無待乎刊板 自可遠垂 然但謄寫之際 易致譌誤 豈若校刊之 無魚魯邪 不任獻賀之至

賜環出於特恩 弟方飯 不覺含哺而起 感歎聖明之愛才也 昔漢文帝知賈誼之才足以爲相 而屈置長沙 蓋以其年少 故欲困心橫慮 以增益其所短 而恢拓其量 及漸進而將試之 誼則無年 不悲哉 兄之今日 卽賈誼進用之時也 幸自葆攝 無如賈生之量小 則弟之可賀 豈直如今日而已邪

聞兄購書甚廣 可賀 文章之有書 如造飯之有米 不可不廣覽也 然務博 則不能專力乎文章 盖人之聰明 不能兩用無論 旁史子集 卽十三經二十一史 如飮食之茶飯 然豈能盡貯腹中邪 藉令盡貯之腹中 亦不過一時 號淹博如書簏也 惡見其能垂後者 昔劉原父笑歐九不讀書 然宋之文章 不歸之劉 而歸之歐陽也 近代袁子才 藏書三萬卷 及聞畢秋帆 有十二萬卷 不復道藏書 此亦夸言也 夫文章 未嘗不由乎多書 而亦不專在乎多書也 兄購書 須會此意 待文章有成 當復賀也

允君見顧 適値詩人在坐 已拈韻矣 弟夙聞允君 嫻於文詞 及見之 則調高辭富 音節和鬯 儼然有大家風 四座無不改容 此安得無一賀

令抱來顧 擧止安詳 言辭端莊 與之講文義 無凝滯者 夙成如是 雖由天質素美 而家庭詩禮之訓 益可驗矣 爲之歆歎

聞與某友從遊 甚喜甚喜 此友持身不甚檢 而不至放縱 其存心處事 先據大體 有確然

不可拔者 其於經旨 深有本源 非入耳出口者比也 人之學習 深資麗澤 雖天質不無豊嗇之不同 而步步相隨 竟趨一途矣 玆所以馳書專賀耳

위(慰)

하늘이 재앙을 내려 신극(宸極)[182]이 먼 길을 올랐습니다. 온 나라가 놀라고 두려워하며 신민(臣民)은 울부짖어 숨이 끊어집니다.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이런 흉변(凶變)을 내렸습니다. 용염(龍髯)[183]을 잡고 오를 수 없기에 조정과 민간이 모두 울부짖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라더니 성가(聖駕)가 멀리 오르셨습니다. 우러러 북극성을 바라봄에 오정(五情)[184]이 꺾이고 찢어집니다.

칠위(七緯)[185]가 무너져 잠기고 궁검(弓劍)[186]을 뒤따를 수 없습니다. 밤새워 소리쳐 우나니 백성들은 무엇을 우러릅니까.

신민(臣民)이 복이 없어 도성 거리에 벽제(辟除) 소리만 울립니다. 흰 구름을 바라봄에 눈물이 비처럼 흐릅니다.

대점(大漸)[187]을 낫지 못하시더니 급작스럽게 알음(遏音)[188]의 비통함을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헤아리기가 어려워 이런 가혹한 해독을 만났습니다.

---

182) 북극성(北極星)으로 임금을 의미한다.

183) 용의 수염. 『사기(史記)』「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용이 턱수염을 늘어뜨려 황제 헌원씨(黃帝 軒轅氏)를 맞이하니 황제가 올라타고 군신(群臣)과 후궁(后宮) 중에 따라서 올라탄 자가 70여 인이었다. 용이 하늘로 올라가니 나머지 신하들은 올라타지 못하고 수염만 잡고 있다가 용의 수염이 뽑히는 바람에 땅에 떨어지고 황제의 활도 이때에 같이 떨어졌다. 백성들이 황제가 이미 하늘로 올라가버린 것을 보고 활과 용의 수염을 안고 울었다는 고사에서 나온말로 곧 임금의 죽음을 말한다.

184) 희(喜)·노(怒)·애(哀)·오(惡)·욕(欲)의 다섯가지 감정을 말한다.

185) 일(日)·월(月)·화(火)·수(水)·목(木)·금(金)·토(土)성을 말함. 곧 우주를 의미한다.

186) 중국 상고시대 황제(黃帝)가 쓰던 활과 칼. 전하여 임금의 죽음을 뜻한다. 『사기(史記)』「오제기(五帝紀)」 황제붕(黃帝崩)의 주(注)에 의하면, 황제 헌원씨의 능을 그가 하늘로 올라간 교산(橋山)에 만들었는데 훗날 교산이 무너졌을 때 관속에 칼모양의 신발만이 들어있었다고 하며, 『사기(史記)』「봉선서(封禪書)」의 백성들이 황제가 이미 하늘로 올라가버린 것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의 활을 안고 울었다는 한다.

187) 임금의 병세가 위독함을 말함.

188) 알밀팔음(遏密八音)의 약어. 『서경』「순전(舜典)」의 "제요(帝堯)가 돌아가시자 백성이 부모를 잃은 듯 삼년상을 치르고 천하는 팔음의 악기를 그쳐 고요하였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후에는 옛날 국상(國喪) 중에 가무(歌舞)와 음주(飮酒)를 엄금했던 까닭에 곧 국상을 의미한다.

순임금이 부지런하여 게으름이 없는데 화축(華祝)이 영원히 결별하였습니다.[189] 신민(臣民)이 숨이 끊어질 지경이 된 것은 온 천하가 똑같았습니다.

희화씨(羲和氏)의 수레가 궤도를 이탈하고[190] 헌원씨(軒轅氏)의 활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191] 만백성이 통곡하며 푸른 하늘만 우러러 쳐다봅니다.

난로(鸞輅)[192]가 안가(晏駕)[193]하시니 우러러 바라봄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휑하니 하늘도 없는 듯하니 어떻게 아픔과 그리움을 이기겠습니까.

궁거(宮車)가 안가(晏駕)하시니 신민(臣民)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영구(靈柩)가 길로 나아감에 붙잡고 호소하지만 좇을 길이 없습니다.

영경(靈景)[194]이 길이 사라짐에 대수(大隧)가 이미 열렸습니다.[195] 긴 밤처럼 어둡고 어두우니 만백성이 통곡합니다.

교산(橋山)[196]에 구름이 드리워 성의(聖儀)를 가립니다. 신로(蜃輅)[197]를 부여잡고 마음을 치며 피눈물을 흘립니다.

온량(轀輬)[198]가 일찍이 나아가니 궁궐은 어둡고 적막합니다. 하늘의 해는 빛을 잃었고 슬픈 통곡이 끝이 없습니다.

용순(龍輴)이 행로신(行路神)에 나아감에[199] 부여잡고 울부짖는 것이 더욱 절절합

189) 화봉삼축(華封三祝)을 약어. 화(華) 땅에 사는 봉인(封人)이 수(壽)·부(富)·다남자(多男子)로 요임금을 축복한 말이다. 여기서는 요(堯)임금을 뜻한다. 『서경』「순전(舜典)」에 의하면 순임금이 섭정한지 28년만에 요임금이 돌아가셨다고 한다.

190) 『광아(廣雅)』「석천(釋天)」에 의하면, "해를 모는 자를 희화(羲和)라고 하고 달을 모는 자를 망서(望舒)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굴원(屈原)의 「이소(離騷)」 주에는 "희화는 해를 모는 자이고……. 희화는 천지가 생겼을 때부터 해와 달을 주관하는 자이다"라고 하며, 왕념손(王念孫)의 소증(疏證)에는, "해가 수레를 타고 여섯 마리의 용이 끌고 희화가 그것을 몬다"라고 되어 있다. 곧 해가 정상 궤도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191) 『사기』「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백성들이 황제가 승하하여 이미 하늘로 올라가버린 것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의 활을 안고 울었다는 한다. 곧 임금의 죽음을 상징한다.

192) 임금이 타는 수레.

193) 임금이 타는 수레가 멍에는 하였지만 늦게 나온다는 뜻. 곧 임금이 붕어(崩御)한 것을 의미한다. 『사기(史記)』 위소(韋昭)의 주(注)에 처자의 초붕(初崩)을 안가(晏駕)라고 하는 것은 신하의 마음이 궁거(宮車)가 멍에를 했지만 늦게 나왔으면 한다는 의미이다고 하였다. 다음 단락의 궁거안가(宮車晏駕)도 같은 의미이다.

194) 국상(國喪)의 광경.

195) 능(陵)의 무덤 안으로 통하는 길. 즉 임금이 능에 묻혔음을 뜻한다.

196) 상고시대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가 묻혔던 산이름. 여기서는 임금의 능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197) 관을 싣는 수레.

198) 임금의 상여를 싣는 수레를 말함. 용순(龍輴)과 같은 말.

199) 노제(路祭)를 지냄을 뜻함.

니다. 산으로부터 안장(安葬)을 알려오니 바다가 마르도록 영원히 사모할 것입니다.

추도(菆塗)[200]가 막 열림에 용가(龍駕)가 멀리 나아갑니다. 활을 안고 소리쳐 울면서 멀리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201]

세월이 빠르게 흘러 인산(因山 : 國葬)이 홀연히 다가옵니다. 신민의 슬픔과 원통함은 날이 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세월이 머물지 아니하여 국가의 의례에 따라 소상(小祥 : 1주기)이 되었습니다. 부여잡고 통곡해도 미칠 수가 없으니 임금을 여읜 슬픔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연기(練期)[202]가 곧 다가오니 조야(朝野)가 통곡합니다. 애통하고 그리움이 새로워져 더욱 더 끝이 없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 국상(國祥)[203]이 어느새 왔습니다. 울면서 창오산(蒼梧山)[204]을 바라보니 슬픔이 오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국상(國祥)이 홀연히 지나가 의관(衣冠)은 예전과 같습니다만, 천하의 신민(臣民)은 영원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난전(蘭殿)[205]께서 승하하시니 자애스러운 모습이 영원히 닫혔습니다. 서럽고 서러운 백성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요재(瑤齋)가 적막함에 성모(聖母)께서 먼 길을 오르셨습니다. 온 나라 백성의 그리움이 꺾이고 끊어짐이 어찌 이다지도 극심합니까.

달이 빛을 잃어 중전께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만백성이 어린애 마냥 소리내어 우니 슬픔은 어머니를 여읜 것처럼 깊습니다.

선궁(璇宮)의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고 자애로운 중전께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온 나라가 믿을 데가 없으니, 아픔은 하늘을 꿰뚫습니다.

이상은 나라의 슬픔을 위로한 것이다.

뜻밖에 선공(先公)[206]께서 연관(捐館)[207]하시니, 부음(訃音)을 듣고 너무나 비통하

200) 관의 사방에 풀을 쌓아올려 초분(草墳)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 『사기(史記)』「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백성들이 황제가 승하하여 이미 하늘로 올라가버린 것을 보고 하늘에서 떨어진 그의 활을 안고 울었다는 한다. 곧 임금의 죽음을 상징한다.
202) 소상(小祥)이 되어 연복(練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203) 대상(大祥)을 말하는데, 일반인의 대상과 구별하기 위해 국상이라고 한 것이다.
204) 순(舜)임금의 돌아가신 곳을 말한다.
205) 왕비가 거처하는 궁전의 미칭(美稱). 곧 왕비를 의미한다. 아래의 요재(瑤齋)나 선궁(璇宮)도 같은 뜻이다.

여 다시는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건대 효성이 지극하신데도 이런 도독(荼毒)[208]을 만났으니, 슬픔에 몸을 상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선부군(先府君)께서는 평소에 기력이 강건(康健)하시어 응당 장수를 누리실 줄 알았는데, 어찌 한 때의 병환으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으로 봉양하는 것을 급작스럽게 버리실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부음을 듣고 놀라고 슬퍼서 몇 일 동안이나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선대인(先大人)께서는 춘추가 높으시고 병환이 깊으셔서 비록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효성으로 바라는 것에 어찌 한정이 있겠습니까? 몇 달이나 탕약을 올리시느라 기력이 이미 손상되었는데 끝내 혹독한 재앙을 만났으니 슬픔으로 몸을 상하는 것이 법도를 넘을까 하는 자잘한 염려가 놀람에 앞섭니다.

뜻하지 않은 흉변으로 선공(先公)께서 연관(捐館)하시니, 하늘의 믿기 어려움이 한번에 여기에 이른단 말입니까. 부음을 듣고 너무나 애통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생각건대 효성이 지극하시니 추모하는 마음이 끝이 없을 것인데,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혹독한 재앙을 만난단 말입니까. 아픔을 당하신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해가 바뀌었습니다. 슬픔에 몸을 상하는 것이 날로 깊어지시니,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선장(先丈)께서는 기백(氣魄)이 평소에도 씩씩하시고 건강을 배양하신 것도 두터이 하셨습니다. 일찍이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녁을 마치도록 총명이 조금도 줄지 않으시기에 이때 저는 "능히 상수(上壽)[209]를 누리시리니 후진을 위해 크게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의 환후는 우연히 걸리신 감기인지라 며칠 되지 않으면 나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귀휴(歸休)의 애통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부음을 받고 너무나 슬퍼서 거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하찮은 사사로운 정리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

206) 상대방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선부군(先府君)·선대인(先大人)·선장(先丈)도 모두 같은 말이다.

207) 살던 집을 버린다는 뜻으로, 사망(死亡)의 경칭(敬稱)이다.

208) 씀바귀의 독. 씀바귀가 쓰기 때문에 쓰디쓴, 고통스러운, 혹독한 해독(害毒)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209) 사람의 수명을 상·중·하 셋으로 나눈 중의 최상의 수명을 말한다. 『장자(莊子)』에는 100세, 『춘추좌씨전』에는 120세로 되어 있다.

선장(先丈)께서 이끌어 가르쳐 주심에 부지런하심은 비록 게을리 하지 않는 큰 덕성에서 나온 것이지만,[210] 평소에 기력이 강건하시고 행동이 쇠약(衰弱)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뻐하고 다행스러워 가르침을 받을 날이 많이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산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꺾이는 일이 갑자기 중도(中途)에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득하고 아득한 푸른 하늘이 사문(斯文)[211]을 돕지 않으니 이후로는 어디에서 찬앙(鑽仰)[212]한단 말입니까. 오장(五臟)이 무너져 삶이 귀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땅히 곧바로 달려가 통곡해야 하지만 병중(病中)에 있어 조그만 성의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합니까. 앞서 이 하소연을 밝히오니, 바라건대 슬피 여겨 살피소서.

선공(先公)께서 연관(捐館)하시니 어찌 백성만이 복이 없겠습니까 실로 국가의 불행입니다. 진실로 성대한 공렬(功烈)이야 정이(鼎彝)[213]에 새겨 두어야 함은 알겠지만, 이것이 어찌 큰 복록을 누리시고 큰 계책을 도와서 영원히 후세에까지 널리 베풀 수 있는 일을 이룸만 같겠습니까. 부음을 듣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것은 사사로움 때문이 아니고 공적인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선대인(先大人)께서는 학문이 넓고 문장이 크시어 나라 안에서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불(黼黻)을 꾸미시고 생용(笙鏞)을 조화롭게 하시며 아송(雅頌)을 찬술(撰述)하시면 아름다움이 고인(古人)을 짝할 수 있는 날이 장차 있으리라고 여겼습니다.[214] 어찌 하늘이 장수하심을 아까워해 품은 재주를 시험하지도 않고 좋은 금과 아름다운 구슬의 광채가 구천(九泉)에 잠기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부음을 받고 통곡하며 원통해 합니다.

선공(先公)께서 연관(捐館)하신 날부터 온 나라엔 진췌(殄瘁)의 탄식이 일어나고

---

210) 가르침에 게을리 하지 않은 것 큰 덕성은 곧 공자(孔子)를 두고 말한 것인데, 『논어』「술이(述而)」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묵묵히 기억하며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남을 가르침에 게을리 하지 않은 것, 이중에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211) 유학(儒學)을 달리 일컫는 말.

212) 스승의 학덕을 숭상하는 것을 말한다. 『논어』「자한(子罕)」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在後"

213) 종묘에 걸어 놓은 솥. 위대한 공훈이 있는 사람의 사적을 새겨 후세에 귀감으로 삼는 일을 말한다.

214) 보불(黼黻)은 옛날 천자의 예복(禮服)을 장식한 수(繡)로 예(禮)를 상징하며, 생용(笙鏞)은 생황과 큰 종으로 음악을 상징하며, 아송(雅頌)은 아와 송을 병칭한 말로 시(詩)를 상징한다, 공자는 자신의 도(道)를 펴고사 천하를 주유(周遊)하였지만 마침내 실행될 수 없음을 알고 노년에 노(魯)나라에 돌아와 예악(禮樂)을 바로 잡고 시서(詩書)를 찬술하였다. 『사기』「공자세가(孔子世家)」 참조.

어린아이들은 의요(欸謠)의 소리를 끊었습니다. 살아서는 하늘을 순히 섬기고 죽어서는 편안하셨기에[215] 선공이야 유감이 없겠지만 후생의 본보기가 이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한 번 소리쳐 울며 죽고 싶으니, 이 한을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애형(哀兄)[216]은 청빈함이 남보다 더한데 갑자기 수백 냥의 거금을 만들어야 할 일을 당했으니, 어떻게 마련을 하시려는지요. 혹시 미리 준비해 둔 것이 있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없겠는지요. 요즘처럼 묘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선영에 아랫자락에 하관할 만한 자리가 있는지요.

형의 지극히 효성스런 성품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지만 타고난 기질은 가녀리고 허약합니다. 슬프게 울어야 할 날은 아직도 많고 출상하는 절차는 기한이 있으니, 기력이 미치지 못하여 두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할까 몹시 두렵습니다. 생각건대 멸성(滅性)의 경계[217]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부신(附身)의 후회[218]를 잊지 마십시오. 보잘 것 없는 저의 바람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선비로서 가난을 싫어하면 선비가 아닙니다. 비록 그렇지만 부모님이 병환이 있을 때는 약과 미음에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은 초종(初終)으로부터 안장(安葬)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도 가난한 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로(子路)가 가난을 근심한 까닭입니다.

애집(哀執)이 평소 가난함은 옛날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부모를 모시고 약을 받든 것도 달을 넘겼고 예로써 장례를 치른 것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에 맞게 하는 것이 예라고 비록 성인(聖人)이 가르치셨지만, 밤중에 대신하여 생각해 보니 오직 가슴이 메일뿐입니다. 하늘이 혹시 효자를 가련하게 여긴 적이 있었습니까.

슬프고 애닯아 간(肝)을 말리고 폐(肺)를 태웁니다. 부모를 잃은 망극(罔極)의 슬픔은 자연적인 천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억누르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

215) 인생을 값지게 삶을 비유한 말.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에 보인다.
216) 상(喪)을 당한 상대방을 높이여 부르는 말. 애집(哀執)과 같은 말이다.
217) 친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한 나머지 병을 얻어 죽는 것을 말함. 『예기』 「상복(喪服)」에 나온다.
218) 『논형(論衡)』 「솔성(率性)」에 나오는 말. 서문표(西門豹)는 성격이 급하여 일부러 무두질한 부드러운 가죽을 찼고 동안우(董安于)는 성격이 느슨해서 일부러 팽팽하게 시위를 맨 활을 찼는데 성격이 급하거나 느슨한 것은 모두 중화(中和)를 잃은 것이다. 그러나 무두질한 부드러운 가죽과 시위가 팽팽한 활을 차므로써 완전함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 중화의 도를 잃어버린 뒤에 후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왕대인(王大人)이 집에 계시니 형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으시면 어떤 심정이 되시겠습니까. 생각건대 슬픔을 머금고 아픔을 참으며 선장(先丈)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시던 마음을 본받아야만 두 가지 효도를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이 평소에 예를 강론하셨으니 응당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있겠지만 벗은 서로 권면(勸勉)하는 까닭에 형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건대 슬피 여겨 살피십시오.

매장(埋葬)은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장례를 치르는 큰 절차입니다. 풍수(風水)로 인해서 화와 복을 받는다는 설이 행해진 이래로 사람마다 제각기 견해가 달라서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어찌해야 그 정성을 다해 후회 없는 마음을 펼 수 있습니까. 세상의 화와 복은 풍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설이 맞습니다만, 그 폐단이 효도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매장에 소홀히 하려 할 것입니다. 화와 복이 풍수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설이 공교합니다만, 그 폐단이 화와 복에 전념함이 있다면 자주 이장(移葬)을 하여 그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모두 폐단이 있습니다. 화와 복에 미혹된 자는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산수가 아름다운 곳을 골라서 부모의 유해(遺骸)를 매장하는 것을 오히려 효도라고 할 것입니다. 화와 복에 미혹되지 않은 자는 그 사람됨이 진실로 정대(正大)하고 효심(孝心)이 있다면 반드시 화와 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매장에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부모의 유해를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또한 불효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풍수의 설을 택하는 것이 이것이 저것보다 나은 것이 있지만, 만약 사람의 화와 복이 오로지 매장에서 비롯된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옳지 않으니,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하늘·땅·사람은 삼재(三才)의 도를 체현한 것인데, 우선 먼저 하늘과 사람의 이치로써 그것을 밝혀보겠습니다. 하늘과 사람은 비록 서로 통한다고 하지만 기운과 운수가 같지 않아 서로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내리는 것은 천도(天道)의 떳떳함이요 인사(人事)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러해야 함에도 혹 그렇지도 않은 것은 인사에만 오로지 비롯되지 않고 기운과 운수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인(聖人 : 孔子)께서 "명(命)이 있는 것이다"[219]라고 탄식하신 까닭입니다. 풍수에 참으로 화와 복이 있다면 하늘·

219) 『논어』「옹야(雍也)」에 보인다. 공문(孔門)에서 덕행으로 이름높은 백우(伯牛)가 중병이 들자 공자가 위문하면서 말씀하기를 "이런 도리가 없는데, 운명인가 보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몹

땅·사람 세 가지가 모두 반드시 이것저것을 따져봐서 그 나은 쪽을 따를 것인데, 어떻게 사람의 화와 복은 땅이 홀로 그것을 관장하고 하늘과 사람은 그 사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한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매장을 하려 할 때 지사(地師) 중에 능히 책을 읽어 자못 이치에 밝은 자를 택하여 산수의 아름다운 곳을 택하게 한다면, 그 시작에 반드시 정성스럽고 반드시 근면하여 매장을 하되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이미 매장한 다음에는 공손하게 보살피고 청소할 뿐이요 다른 지사로 하여금 그 묘자리의 화와 복을 다시는 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지당한 방법입니다. 자식된 자가 사람일의 당연함을 다했으면 됐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응답의 같지 못한 것을 어찌 반드시 끝까지 따져야만 합니까. 지금 형이 매장의 절차에 대해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지만 유독 이 매장의 설에 대해서는 의심하여 결정하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합니다. 때문에 감히 비루한 견해를 보내니 딱하게 여겨 채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머무르지 않아 소상(小祥)이 어느덧 임박했습니다. 생각건대, 효심은 끝이 없어 슬퍼 울부짖는 것이 새로울 것입니다. 오직 절차에 따라 예를 행하여 저의 작은 바람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 대상(大祥)이 또 가까우니, 생각건대 효도하여 사모함은 더하고 더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슬픔을 절제하고 예를 살펴 대상의 일을 순조롭게 치르시길 바랍니다.

담제(禫祭)[220]의 날짜가 어느덧 가까이 왔습니다. 생각하니, 다시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은 애통함에 차마 조용히 있지 못하여 구구하나마 위로를 드립니다.

연기(練期)가 어느덧 지나가니 생각건대 효성스러운 마음에 몹시 개탄스러우리니,[221]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해가 바뀌어 상기(祥期)[222]가 이미 지났습니다. 효성스런 마음에 허전하시여 다시는 미치지 못하리라 생각하시겠지만, 어찌 계속해서 근심하겠습니까.

상복을 벗었으나 생각건대, 마음에 있는 슬픔이야 참으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니,

쓸 병에 걸리다니, 이런 사람이 이런 몹쓸 병에 걸리다니!"라고 탄식하였다.

220) 대상(大祥)을 지낸 다음 달에 올리는 제사.

221) 연기(練期)는 곧 소상(小祥)을 말하는데, 『예기』「단궁(檀弓)」에 "처음 돌아가심에 꽉 막혀 막다른데 다다른 것 같으며, 이미 빈(殯)을 하여서는 두리번거리며 찾지만 얻지 못한 것 같으며, 이미 장례를 치루고선 허둥지둥 바라보지만 이르지 못함이 있는 것 같으며, 소상에 연복(練服)을 하여서는 개탄스러우며, 대상을 마침엔 허전하다"라고 하였다.

222) 대상(大祥)을 말한다. 상복(喪服)을 벗고 평상으로 돌아간다.

위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길례(吉禮)가 이루어졌습니다. 생각건대 무궁한 애통함은 힘써서 놓아버리려 해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월이 말이 달리듯 빨리 지나가 연사(練祀)[223]가 가깝습니다. 생각건대 효성스러운 생각이 매일 새로울 것이니 애통함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예절 법도를 살피셔서 소상 일을 순조롭게 치르시길 바랍니다.

해가 두 번 바뀌어 대상(大祥)의 날짜가 코앞에 있습니다. 생각건대 효심의 애통함이 날로 더욱 새로울 것입니다. 보잘 것 없는 제가 생각함에 어찌 위로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중월(中月)[224]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생각건대 효성스러운 생각이야 한층 더하겠지만 슬픔과 그리움이 미칠 수 없으리니, 위로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존백부(尊伯父)[225]의 상사(喪事)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놀랍고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생각건대 춘부장(春府丈)께서는 우애가 한층 높으셨으니 얼마나 침통하시겠습니까. 노년에 비통하고 슬퍼하면 반드시 건강에 손상이 있을 것이니, 보잘 것 없는 저는 삼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백씨(令伯氏)[226]께서 갑자기 세상을 등지시니 경악하여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우애가 크고 도타웠는데 이런 비통함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참으로 알기 어려운 것이 이치입니다. 영제씨(令弟氏)[227]의 온화하고 순수한 덕과 탁월한 재주를 세상에 한 번도 시험하지 못하고 갑자기 지하에 옥수(玉樹)[228]를 묻게 되었으니, 귀신의 어질지 못함이 이에 이른단 말입니까. 형의 우애로는 본래 당연히 애통할 것이요, 쌍벽(雙璧)[229]에 하나가 없어졌으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듣는 자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하물며 당하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

223) 소상(小祥)에 치르는 제사.

224) 격월(隔月)의 뜻. 곧 25개월에 대상(大祥)을 치르고, 27월에 담제(禫祭)을 지냄을 말한다. 이것은 『예기』「간전(間傳)」에 보이는데, "중월(中月)에 담제를 지내니, 담제를 지내고서는 단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였다.

225) 상대방의 큰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

226) 상대방의 맏형을 높여 부르는 말.

227) 상대방의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

228) 옥같은 나무란 뜻으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한다.

229) 형제가 모두 뛰어남을 말한다. 『서언고사(書言故事)』「형제류(兄弟類)」에 "형제를 칭하여 쌍벽등방(雙璧騰芳)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뜻하지 않은 변고로 영합(令閤)[230]께서 세상을 이별하였으니, 부음을 듣고 경악하여 슬프고 애통합니다. 생각건대 은의(恩義)가 깊고 두터우셨으니 비통함을 견디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추도(追悼)해도 미칠 수가 없으니, 어찌 합니까 어찌 합니까.

존합(尊閤)[231]께서 갑자기 이러한 재앙을 만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형은 40년의 정의(情誼)가 소위 몸이 늙고 자식이 장성한 격으로 오랜 세월을 지냈으니, 이런 정을 어찌 쉽게 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온갖 추도도 돌아가신 분에겐 명백히 추호의 도움이 없고 자신의 건강에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근심이 있게 됩니다. 곧바로 떨어버리지 않지만 이러한 것은 비유하자면 노전(露電)[232]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니, 명철(明哲)한 형에게 바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얼굴을 맞대고 이 이치를 분석할 방법이 없으니, 바라건대 형은 깊이 살피고 통렬하게 버리시어 추호도 가슴속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뜻하지 않은 재앙이 갑자기 규합(閨閤)[233]에 닥치니 부음(訃音)을 듣고 크게 슬픔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은의(恩意)가 중하여 추모하여 슬퍼하면 가슴이 찢기는 듯 하겠지만, 세월이 자주 바뀌면 슬픔도 더욱 멀어지는 법이니, 어찌 합니까 어찌 합니까.

갑자기 공(公)에게 규문(閨門)[234]의 상사(喪事)가 있다는 것을 듣고 슬프고 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현합(賢閤)께서는 오랫동안 근심과 걱정을 함께 하셨는데 갑자기 내조(內助)를 잃어 버리셨으니 애통하여 슬픈 감정을 어찌 견디겠습니까. 영자(令子)[235]가 슬픔이 병이 되어 몸이 몹시 여위었을 것입니다.[236] 바라건대 상념(傷念)을 줄이시어 하찮은 마음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식입니까. 영함씨(令咸氏)[237]는 타고난 기질이 비록 가녀리고 파리하지만 그의 지조와 기백을 찬찬히 살펴보면 오히려 남보다 뛰어남이 있는데, 어찌

---

230) 상대방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
231) 남의 어머니에 대한 존칭.
232) 이슬처럼 해가 뜨면 증발해 버리고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빨리 지나감을 말한다.
233) 내실(內室), 곧 부인을 말한다.
234) 침실의 입구. 전(轉)하여 침실 안 즉 부인의 처소로 쓰인다. 따라서 규문의 상사는 아내가 죽었음을 뜻한다.
235) 상대방의 어린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
236) 원문에는 구시(疚柴)로 되어 있다. 『주역』 설괘(說卦)의 괘사(卦辭)에 의하면 시(柴)에 척(瘠) 곧 여윈다는 뜻이 있다.
237) 상대방의 조카를 높여 부르는 말.

대수롭지 않은 한 번의 질환으로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형님되시는 분은 평소 덕이 있는 성품으로 보면 마땅히 후한 보답을 누리셔야 하는데, 이런 이치를 거스르는 아픔을 만나셨습니다. 기수(氣數)[238]의 일정하지 않음은 비록 성인이라도 면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239] 어찌 그리도 어그러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경악스러워 참담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영완장(令阮丈)[240]이 갑자기 서하(西河)의 비통함[241]을 당하셨는데, 평소에 사랑하심이 보통과는 달랐음을 생각해 보면 어찌 차마 동오(童烏)의 죽음[242]을 지켜보시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 사람이 참담해집니다.

슬하의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놀랍고 참담하겠습니까. 더구나 늘그막에 좌절한 상심은 더욱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 추도하여 슬퍼한들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오직 바라건대 이치대로 흘려 보내시어 자하(子夏)[243]가 자식을 잃고 슬퍼한 나머지 실명(失明)했다는 기롱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종(情鍾)의 슬픔[244]이 있음을 듣고서 참담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부여받은 명(命)이 두텁지 않아 채 사람도 되지 못하여 부질없이 부모에게 슬픔만 주었으니 애초에 태어남이 없느니만 못합니다. 형도 이것으로 마음을 푸시고 무익하게 지나치도록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238) 운수, 운명과 같은 말.

239) 공자가 70세 무렵에 그의 아들 리(鯉)가 50세로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240) 상대방의 숙부를 높여 부르는 말.

241) 자식을 잃은 아픔을 말한다. 공자의 제자인 자하(子夏)가 위문후(魏文侯)의 스승이 되어 서하에 교수(敎授)로 있을 때 아들이 죽자 너무 슬피 우는 바람에 실명(失明)을 했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사기』「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 참조.

242) 어린아이의 죽음을 말함. 동오(童烏)는 한나라 양웅(揚雄)의 아들로 뛰어난 천재였지만 요절을 했다. 『법언(法言)』「문신(問神)」에, "동오는 자운(子雲)의 아들인데 공자가 안연(顔淵)을 애도한 것은 싹은 틔웠지만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운이 동오를 애통해 한 것은 길렀지만 싹도 틔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243) 공문십철(孔門十哲)의 한 사람. 자유(子游)와 함께 문학(文學)으로 일컬어졌다. 거보의 재(宰)를 지냈고 만년에는 서하(西河)에 살면서 위문후(魏文侯)의 스승이 되었다. 서하에 있을 당시 자식을 잃고 너무 슬퍼한 나머지 실명을 했다고 한다.

244) '정이 모인다'는 뜻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말한다. 따라서 정종의 슬픔은 자식의 죽음을 의미한다. 『진서(晉書)』「왕연전(王衍傳)」에 의하면, 왕연이 일찍이 어린 아들을 잃으니 산간(山簡)이 그를 조문했다. 왕연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본 산간이 말하기를, "아이는 품 속의 물건일 뿐인데 어찌 이토록 슬퍼하는가?"라고 하니 왕연이 말하기를, "성인(聖人)은 정을 잊고 어리석은 자는 정에 미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정이 모이는 곳은 우리 정도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영자부(令子婦)가 요절했다니 어찌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생각건대, 사랑하심이 높고 깊었는데, 슬픔을 어찌 견디시겠습니까. 더구나 젖먹이가 어미를 잃은 정경은 더욱 참담하니, 붓을 잡아 위로의 말씀이나 드리고자 하나 차마 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총자부(冢子婦)[245]의 상사(喪事)는 천만 뜻밖의 일이라 어찌 경악하지 않겠습니까. 친상(親喪)을 당한 영손(令孫)이 시들시들 여위어 병이 되니 그 슬퍼하여 울부짖는 정경은 생각만으로도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슬퍼 애도하는 심정과 불쌍하고 가련한 생각을 어찌 누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마주하고 위로할 수 없으니 더욱 가슴만 답답해집니다.

영애(令愛)의 죽음은 실로 전혀 생각치 못한 것입니다. 생각건대, 자애로운 사랑을 나눠줌에 있어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으니, 어떻게 슬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현서(賢壻)의 요절은 참담하고 참담합니다. 영애가 갑자기 운명이 기구한 사람이 되어 슬피 울어 죽으려 함을 생각해 보면 어찌 차마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다행히 아들이 있어 돌아가신 분의 뒤를 이을 수가 있어 그런대로 마음을 풀고 슬픔을 억누를 수 있으리니, 보잘 것 없는 저의 위로는 고작 이것뿐입니다.

慰

昊天降割 宸極登遐 羣方震驚 臣民號絶
皇穹不弔 降此鞠凶 龍髯莫攀 中外普號
天震地駭 聖駕遐昇 仰瞻宸極 五情摧裂
七緯崩淪 弓劍不追 永夜長號 蒼生曷仰
臣民無祿 天街祧躋 瞻望白雲 有淚如雨
大漸莫療 遽遭遏音之慟 天心難測 罹此荼毒
舜勤未倦 華祝永辭 臣民霣絶 環海惟均
羲躔失馭 軒弓遽墮 萬姓普慟 瞻仰蒼穹
鸞輅晏駕 仰瞻靡怙 廓若無天 曷勝痛慕
宮車晏駕 臣民痛割 靈馭卽塗 攀號莫追

245) 적장자(嫡長子)의 부인을 말한다. 여기서는 맏며느리의 의미로 쓰였다.

靈景長泯 大隨旣啓 長夜冥冥 羣黎慟號
橋山絪雲 聖儀幽翳 攀擗蜃輅 撫心泣血
轀輬夙駕 殿宇冥寂 天日沉光 哀號靡極
龍輴就祖　攀號愈切 因山告襄 罄海永慕
菆塗載啓 龍駕遐馭 抱弓號泣 瞻望靡及
日月迅逝 因山奄迫 臣民慟寃 去益罔涯
居諸不留 邦禮陳練 攀號靡逮 慟隕如新
練期載屆 朝野霣號 痛慕如新 益復罔極
曦暉如駟 國祥奄及 號瞻蒼梧 慟久益深
國祥奄過 冠裳卽吉 匝寓臣民 廓然永慕
蘭殿曉摧 慈儀永閟 哀哀赤子 胡恃以生
瑤齋廓寂 聖母遐陟 卒土孺慕 摧絶何極
太陰晦光 坤馭賓天 萬姓兒號 慟深喪妣
璇宮晝冥 慈駕長往 萬方靡恃 痛貫穹昊
已上 慰國哀

不意先公遽捐館舍 聞訃慟絶 無復有生世之念矣 伏惟誠孝深至 罹此荼毒 哀毁罔極 奈何奈何
先府君平昔 氣力健康 應享遐壽 豈意一時病患 奄棄榮養 承訃驚怛 歷日靡定
先大人春秋隆邵 病患沈重 雖未謂卽有勿藥之喜 而伏惟誠孝志願 豈有限量 歷月侍湯 氣力已損 遂罹荼毒 哀毁踰制 區區奉慮 先於驚怛
不意凶變 先公捐館 天之難諶 一至於此 承訃慟絶 生意盡矣 伏惟孝至誠深 追慕罔極 何辜于天 罹此禍酷 荼毒如昨 奄易寒暑 哀毁日深 奈何奈何
先丈氣魄素壯 培養深厚 嘗陪話竟夕 聰明不減少 時私謂克享上壽　爲後進萬萬喜幸 向時患候 卽偶嬰寒感 意不日復常 而歸休之慟 出於夢想之外 奉訃隕絶 幾欲無生 非區區哭私而已
先丈勤於誘誨 雖出於不倦之盛德 而亦由平日氣力康健 動作不衰 私心喜幸 謂承熏炙遠有歲年 豈意山頹梁摧 奄在中途 悠悠蒼天 不祐斯文 從玆以往 于何鑽仰 五內崩壞 不知有生之可貴 卽當趨走慟哭 而奈身在病中 未遂下誠 先此襮訴 伏惟哀燭
先公奄捐館舍 豈惟生民無福 實國家之不幸也 固知豊功盛烈 銘在鼎彝 而曷若享遐祿

贊鴻猷 致普施於無窮邪 承訃號怛 匪私伊公

先大人博學宏文 匝海無倫 謂飭黼黻 恊笙鏞 述撰雅頌 匹美往古 將有日矣 而豈料天靳遐壽 懷才未試 良金美玉 潛輝於九泉邪 有淚如河 奉訃號冤

自先公捐館之日 舉國興殄瘁之歎 孺者絶欬謠之音 存順沒寧 先公固無憾矣 而後生模範 自此絶矣 一號欲隕 此恨何極

哀兄淸貧過人 猝當創鉅凡百 何以得辦 倘亦有預備 無甚憾否 近年山地之難求 往古所稀 先阡下 有可繼窆否

兄至性出天 而稟質淸弱 哀號之日尙多 送終之節有期 深恐氣力不逮 難以兩盡 伏惟常存滅性之戒 勿忘附身之悔 區區仰冀 惟此而已

士而惡貧 非士也 雖然 當父母有病患時 藥餌糜粥 惟心是盡 非貧者所能辦也 當喪葬時 初終安厝 惟心是盡 非貧者所能辦也 此子路之所以傷貧也

哀執平日之貧 想古亦無之 而侍湯彌月 禮襄有日 稱財謂禮 雖聖人有訓 而中夜代思惟覺塡胸 天其或者 有以憐孝子者乎

惻怛痛疾 乾肝焦肺 罔極之哀 出於自然 必不能抑而不哭 然王大人在堂 聞兄哀哀痛哭 其將何以爲情 惟含哀忍痛 體先丈孝親之心 爲兩盡其道也 兄平日講禮 應有以處之 而友朋相勉. 不敢謂兄已知 而不言 伏惟哀察焉

葬埋者 人子爲親送死之大節也 自風水禍福之說行 人各異見 靡歸乎一 爲人子者 將何以伸其誠信勿悔之心乎 世之不主禍福於風水者 其說正矣 及夫弊也 有不盡心於孝者 則將忽略於葬埋矣 其主禍福於風水者 其說巧矣 及夫弊也 有專於禍福者 則將屢遷而不止矣 二者均之爲有弊 而惑於禍福者 必殫心竭力 擇山水之美 以安親骸 猶有孝之道焉 不惑於禍福者 其人誠正大而有孝心焉 則必不以禍福之有無而不盡心於葬埋矣 其不然者 將有不思親骸之心矣 無亦近於不孝邪 然則擇風水之說 此勝於彼 則有之矣 若曰人之禍福 專由乎葬埋 斷斷不可 何者 天地人者 三才之道也 且先以天人之理明之 天人雖曰相通 氣數之不齊而相奪焉 福善禍淫者 天道之常 而人事之應然也 其有應然而或不然者 不專由於人事 而雜乎氣數 此聖人之所以有命矣夫之歎也 使風水眞有禍福 天地人三者 其必乘除 而從其勝者矣 豈曰人之禍福 地獨管之 而天人不與乎其間邪 於此有一道焉 其將葬也 擇地師之能讀書頗明理者 求其山水之美者 而其始也 必精必勤 葬埋無不如法 旣葬也 則恭修展掃而已 勿令他師更論禍福 斯之爲旨當也 爲人子者 得盡其人事之應然也 其天數地應之不齊 惡得以必究邪 今吾兄於送終之節 靡不盡心 而獨此葬埋之說 似有疑而未定者 故敢獻鄙見 伏惟哀採焉 日月不居

小朞奄迫 伏想孝心罔極 哀號如新 惟願節順就禮 以副區區之望

居諸迅邁 大期且近 想惟孝思攀慕 益復靡極 伏願節哀俯禮 祥事利成

禫日奄近 伏想靡逮之慟 不忍澹然 區區奉慰

練期奄過 仰想孝思慨然 何以支堪

寒暑之變 祥期已過 孝心想惟廓然 益復靡逮 何以爲憂

衣裳禮變 伏惟在心之哀 實不能已 無任仰慰

卽吉禮成 伏想無窮之慟 不以勉從而少衰

日月若馳 練祀隔邇 仰想孝思如新 哀慟何支 伏祈俯就禮制 祥事利成

寒暑再變 祥朞在卽 伏惟孝心慟慕 益復如新 區區仰慮 曷勝奉慰

曦暉流邁 中月已屆 仰惟孝思加等 哀慕靡逮 不任奉慰

尊伯父喪事 遽出夢想之外 驚怛萬萬 伏惟春府丈 友愛加隆 何以沉慟 老境悲哀 必有損節 區區不勝伏慮

令伯氏奄忽違世 驚愕不能定情 仰惟友愛隆摯 摧慟何堪

難諶者 理也 以令弟氏溫粹之德卓拔之才 不一試于世 而遽至埋玉樹於地下 鬼神之不仁 至於是邪 以兄友愛 本當哀痛 而雙璧一亡 其何以堪 聞之者淚熱 況當之者何如哉 不意變故 令閤別世 聞訃驚惋 令人悲怛 切惟恩義深篤 悲慟難堪 追悼無及 奈何奈何 不謂尊閤 忽罹此禍 惟兄四十年恩好 所謂老身長子者 此情豈易割捨 然萬般追悼 於亡者了無絲毫之益 而於身有不貲之憂 不卽拂除 譬之露電 殆非所望於明哲也 無由面析此理 願兄深照痛遣 勿留絲毫胸中也

不意禍故 奄及閨閤 聞問怛然 悲惋不已 伏惟恩意之重 追悼割裂 日月屢易 感慟愈遠 奈何奈何

忽聞公有閩門之戚 不勝悲惋 賢閤久同憂患 遽失內助 痛悼何堪 令子哀疚 柴瘠當甚 惟願節省悲懷 以慰區區之念

此何報也 令咸氏天質 雖淸羸 觀其操修氣魄 尙有出人 豈謂尋常一疾 遽至不起 伯氏丈平日德性

宜食厚報 而遭此逆理之痛 氣數之不常 雖聖人有所未免 何其乖哉 萬萬驚愕 不勝慘然

令阮丈遽遭西河之慟 想其平日慈愛 非同尋常 何忍視童烏之將化 聞之 令人慘怛

膝下之痛 何等驚慘 暮境摧悼 尤所不忍 而逝者已矣 追悲何益 惟願理遣 無來喪明之譏焉

聞有情鍾之悲 慘愕不已 賦命不厚 尙未成人 而徒貽父母之戚 初不如無生 兄亦以此寬譬 勿爲無益之慟

令子婦夭逝 豈勝驚愕 仰惟慈愛隆深 悲悼何堪 況乳兒失母 情境尤慘 執筆欲慰 不忍措辭

冢子婦喪事 出於千萬料外 曷任驚愕 令孫棘人 欒欒在疚 其哀號之狀 想不忍見 悲悼之情 矜惻之懷 何以裁抑 無由面慰 只增哽塞

令愛之逝 寔出意外 想惟慈愛摧割 不以男女而有間 何以堪忍

賢壻之夭 慘矣慘矣 念令愛遽作薄命之人 哀哭欲絶 其何忍聞之邪 幸有男子 子可續亡者之世 足以寬諭而抑悲矣 區區獻慰 唯此而已

궤(餽)

오늘은 곧 올해의 첫 번째 날이고 이 물건은 곧 올해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다른 날도 선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오직 이 첫 번째 날이 아름다운 날이고, 다른 물건도 선물하기에 부적당한 것은 아니나 오직 이 첫 번째 선물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한 번 묶고 열 번을 묶은 매우 귀중한 것이니, 형께서는 빨리 열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고 보면 '元朝祝今年中隨事得妙解三百五十四款(설날에 축하하며 금년 중에 하실 일마다 묘하게 풀이한 354조목이라는 뜻)이라는 17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윤(令允)이 삼가례(三加禮)를 올리는데 며칠 동안이나 흐리던 날씨가 아침부터 맑게 개이니 좋은 조짐입니다. 붉은 부채 한 자루와 주머니에 넣는 거울 한 개를 드리오니, 부채는 그 고상한 기품과 소탈함을 취한 것이고 거울은 그 밝음과 모든 것을 밝게 비춤을 취한 것입니다. 모두 현자(賢子)를 위하여 기대가 작거나 얕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물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웃으시며 거두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늘 중국 종이가 가볍고 얇아서 우리나라 종이가 튼튼하고 질긴 것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종이는 미끄러워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 운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드리는 중국 종이는 우리나라 종이를 뒷면에 붙이고 붓으로 써내려 가면 입을 맞추듯이 딱 달라붙는 것이

바늘이 자석(磁石)에 붙는 것과 같아 가로 긋고 내려그으며 꺽이는 것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정이 있는 사람이 스무 장을 보내와 그 반을 선물로 보내 드리니 형님께서도 이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새 달력을 나누어주는 것은 그 법식이 동짓날에 있습니다. 이 달력은 주(周)나라의 정월(正月)을 사용하는 것인데,[246] 시골의 늙은 조대(措大)[247]가 어찌 법식대로 새 달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내드립니다. 형의 거처는 제 마을보다 더 궁벽하니, "이것은 하(夏)나라의 정월을 사용하는 달력이다"라고 웃으며 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붓 제조법은 아교를 써서 털의 반을 붙이니 절대로 옛날 방식은 아닙니다. 유학사(柳學士)가 말하기를, "필봉(筆鋒)은 모름지기 길어야 하고 털은 모름지기 가는 것을 골라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털이 가늘면 점과 획에 실수가 없고 필봉이 길면 먹을 넓게 적시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일찍이 장인을 시켜 중국인들의 수필(水筆)[248]의 양식을 의거하여 새롭게 붓을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털이 가늘고 필봉이 길어서 글씨를 쓰면 크게 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가 다섯 자루를 바치오니, 그런대로 임지(臨池)[249]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방구에서 동작대(銅雀臺)의 와연(瓦硯)[250]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물을 부어두면 며칠 동안이나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현(絳縣) 사람들의 징니연(澄泥硯)[251]도 또한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가품(佳品)으로 여깁니다. 저는 벼루 가운데 먹이 잘

246) 중국 고대의 삼대(三代) 곧 하(夏)·은(殷)·주(周)나라가 각각 정월을 달리한 역법을 사용했다. 하나라는 인월(寅月) 곧 지금의 1월을 정월로 했고, 은나라는 축월(丑월) 곧 지금의 12월을 정월로 했으며, 주나라는 자월(子月) 곧 지금의 10월로 정월을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라에서 동짓날에 새해의 달력을 나누어 주는 풍속이 있었다.

247) 큰 일을 조처(措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생의 미칭이다. 뒤에 말뜻이 변하여 조롱이나 겸칭(謙稱)으로도 쓰인다.

248) 항상 먹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붓으로, 쓰지 않을 때는 뚜껑을 끼워 습기를 보존한다. 건필(乾筆)의 반대이다.

249) 중국 후한 때 장지(張芝)가 못가에서 붓글씨를 배울 때 못물이 온통 까맣게 변했다고 하는 고사에서 온 말로, 습자(習字)의 뜻으로 쓰인다.

250) 고궁전(古宮殿)의 기와로 만든 벼루를 말한다. 『문방사보(文房四譜)』에는 "고와연(古瓦硯)은 상주(相州)의 위(魏) 동작대(銅雀臺)에서 나오는데, 고을 사람들이 흙을 파면 왕왕 그것을 얻는다. 물을 담아 놓으면 며칠 동안 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동작대는 위나라의 조조(曹操)가 업(鄴)땅에 건축한 궁궐을 말한다.

251)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평륙현(平陸縣)인 춘추시대 북괵(北虢) 지역의 강속에서 사람이 잠수하여 진흙을 퍼올려 체에 친 뒤 침전시킨 미세한 분말을 반죽하여 여러차례 불에 구어 만든 도기(陶器) 벼루를 말한다. 『연보(硯譜)』에 보면 당나라 사람들이 벼루를 품평할 때 제일로 쳤으나 지금은 쓰는 사람이 드물다고 하였다.

갈리는 것을 골라 철판으로 그것을 덮어두고 먹이 며칠 간 마르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개 금(金)이 물[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252] 벼루 한 개와 함께 철판을 드리니 먹을 저장하는데 쓰십시오.

서예에 능한 사람은 특히 좋은 먹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종이와 붓 그리고 벼루는 비록 적합하지 않아도 오히려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먹이 좋지 않으면 글씨는 정채가 없게 되니, 소동파가 "그 빛이 맑되 뜨지 않고 담담(湛湛)한 것이 어린아이의 눈동자와 같아야 한다"[253]고 한 것은 먹을 논하는 묘리(妙理)를 깊이 얻은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주(海州)에서 나온 것을 제일로 치는데 빛깔과 향이 중국 휘주(徽州)[254]에서 나온 것에 비교한다면 손색이 있지만, 휘주의 먹은 또 빨리 마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두 가지 먹을 섞어 갈아서 사용하는데 꽤 마음에 맞습니다. 지금 드리는 두 자루는 하나는 해주산이고 하나는 휘주산이니, 인형(仁兄)도 저처럼 섞어 갈아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접는 부채는 예로부터 이러한 방식이 없었는데 명나라 영락(永樂)[255] 연간에 우리 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감으로서 마침내 천하에 퍼졌습니다. 이 부채는 접고 펼 수 있으니 매우 편리한데 중국처럼 광대한 나라에서 개발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마침 접는 부채 한 자루를 얻었는데 품질이 조금 떨어져 형에게 드리기에는 부족하지만 한가롭게 이 고사(故事)를 생각하고 인하여 산곡노인(山谷老人)[256]의 「차전목부증고려송선(次錢穆父贈高麗松扇)」[257] 시를 써서 형님께 드립니다. 다만 송선(松

---

252) 금(金)이 수(水)를 낳는다는 것은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에서 목(木)은 불을 생기게 한다는 의미에서 화(火)를 낳고, 화(火)는 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토(土)를 낳고, 토(土)는 광물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금(金)을 낳으며, 금(金)은 녹아서 액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수(水)를 낳는다는 것에서 취한 것이다.

253) 소식(蘇軾)이 일찍이 먹에 대하여 논하기를 "세인은 먹을 논함에 검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빛을 취하지 않는다. 빛만 나고 검지 못하면 진실로 기물(棄物)이지만 만약 검고 빛이 나지 않아 신채(神采)가 없는 것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 빛이 맑으면서 뜨지 않고 담담하여 어린애의 눈동자와 같은 것이라야 가품이다"라고 하였다. 『고금사문유취(古今事文類聚)』 별집(別集) 권14에 보인다.

254) 지금의 안휘성(安徽省)에 당(唐)나라 때는 이초(李超)·이정규(李廷珪)·장곡(張谷)이, 명나라 때는 방우로(方于魯)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먹[墨]을 제조하는 것으로 천하에 이름을 떨쳤다. 이로 인해 휘묵(徽墨)이라고 불린다.

255) 명나라 성조(成祖)의 연호(1403~1424).

256)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서예가인 황정견(黃庭堅)을 말한다. 자는 노직(魯直), 호는 산곡산인. 처음에 안휘성 잠산현(潛山縣)에 있는 환산(皖山)의 산곡사(山谷寺) 석우동(石牛洞)에 들렀다가 그 경치에 반해 산곡도인 혹은 산곡노인이라고 자호(自號)했다.

257) 황정견의 「차전목부증고려송선(次錢穆父贈高麗松扇)」은 다음과 같다. "주옥같은 글귀 비단에 빛내고, 송선은 시원한 바람을 보내오네. 멀리 구적루까지 건너가, 한 여름 페랭이 아래를 맴

扇)[258]이 접선(摺扇)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는 알지 못합니다.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편지로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접는 부채 하나는 형이 외출하실 때 쓰시고 둥근 부채 하나는 형이 집에 계실 때 쓰십시오. 둥근 부채는 일반적인 방식에 비교하면 특별히 넓고 큽니다. 형이 삼복(三伏)에도 오히려 책 읽는 일을 그만 두지 않으시니, 힘이 센 서동(書童)에게 옆에서 힘껏 부치게 하십시오.

저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까닭에 집에서 빚은 술이 없어 손님이 오면 술을 사다가 몇 잔을 따를 뿐입니다. 때마침 이 술을 선물한 사람이 있는데 한 말쯤 되고, 또 말하기를 사십일 동안 숙성시킨 것으로 누룩을 적게 써서 날이 갈수록 맛이 좋아지고 그 향기가 강하여 사람을 잘 취하도록 하지만 만취에까지 이르게 않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얻었으나 먹을 수 없고 족하(足下)가 이 가운데의 정취를 아시리라 생각하여, 삼가 사람을 시켜 드리게 하고서, 가만히 옛 사람이 집에서 담근 술을 기울였던 뜻에다가 견주어 봅니다.[259]

담배는 처음에 남쪽 오랑캐로부터 나와 원(元)나라 이후에 있게 되었는데, 무슨 까닭에 천하에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가 아니어서 혹은 언(蔫)이라 하고 혹은 어(菸)라 하고 혹은 담파고(淡波姑)라 하며 혹은 금사연(金絲烟)이라 부릅니다. 저도 젊어서는 몹시 그것을 좋아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을 피웠는데, 몇년 전부터 점차로 줄어 하루에 서너 차례 피우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가래를 줄여주고 장기(瘴氣)를 물리쳐주지만 또한 기운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나온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 중에 잘게 썰지 않고 만 것을 화봉초(花峰草)라고 부르는데 가장 향기로워서 피울 만합니다. 이것은 서울로부터 전해온 것인데 한 갑에 1백 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혼자 피울

도네. 장인의 정절은 그 기운 높고도 찬데, 삼한에 부절을 들고 신산을 찾네. 안기의 불사약을 얻어, 나를 속진에서 벗어나게 하겠지"(銀鉤玉唾明繭紙 松筐輕凉幷送似 可怜遠度幘溝漊適堪今時褦襶子 丈人玉立氣高寒 三韓符節見神山 合得安期不死藥 使我蟬蛻塵埃間)"

ㅇ구적루는 고려의 지명이고, 안기는 산명인데 진시황이 불사약을 찾으로 사람을 보냈던 곳이다.

258) 『화계(畵繼)』에 보면, 고려에서 나오는 송선은 물버드나무로 만드는데 마디의 무늬가 소나무 무늬와 똑같아 중국 사람들이 소나무로 만든 것인 줄로만 알았으나 토인(土人)들이 소나무가 아니라 물버드나무의 껍질로 만든 것이라고하여 사실을 알았지만 너무나 소나무를 닮아 그냥 송선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259)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인 하충의 자는 차도(次道)인데 술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유윤(劉尹)이 이러한 그를 보고서 "하차도는 술을 잘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집에 담가둔 술을 기울게 만든다'라고 하였다. 그 주에 비록 술에 취하여도 자신을 잘 지켜 술에 피곤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진서(晉書)』「하충전(何充傳)」 참조.

수가 없어 형과 그것을 나눕니다.

붕어는 맑은 물에서 나온 것이 맛이 가장 좋고 흐린 물에서 나온 것이 그 다음입니다. 세속에서는 그것의 크고 작음에 따라 두엽(豆葉)과 시엽(柿葉)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아가미에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주척(周尺)[260]을 넘는 것을 '이(鯉)'라고 하는데 가장 큰 것입니다. 이번에 드리는 세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이(鯉)보다는 작고 시엽보다는 큰데 어부도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족하는 항상 위장이 튼튼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시는데 이 물고기의 큼은 능히 위에 도움이 될 것이요 또 맑은 물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받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흙의 성질이 과일나무를 가꾸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은데 오직 석류(石榴)를 심으면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올해에는 수십 알이 열렸는데 알이 굵고 맛이 아주 달고 좋습니다. 제일 큰 것으로 다섯 알을 골라 삼가 족하(足下)에게 드립니다. 족하가 한 번 깨물어 보면 장맹양(張孟陽)[261]이 말한 대로 "쪼개면 구슬이 흩어지고 머금으면 얼음이 풀린다"는 것을 느낄 것이니, 그 문장의 교묘(巧妙)함은 또한 음미할만 합니다.

이번에 남양(南陽)의 수시(水柹)[262] 서른 개를 드리오니, 형은 한 번 맛을 보십시오. 감은 팔월의 조홍(早紅)·옥전(玉田)·무핵(無核)[263]을 진미(珍味)로 칩니다. 그러나 조홍은 꼭지를 파먹는 벌레가 있고 무핵은 과육(果肉)이 많고 물기가 적습니다. 오직 이 감은 두 가지의 좋은 점을 겸했고 흠 없으며, 한 개의 주발에 겨우 두 세 알을 담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옛 사람들이 남검주(南劍州)의 우계(尤溪)[264]에서 나는 감과 처주(處州)의 송양(松陽)[265]에서 나는 감을 진귀한 명품으로 여겼는데, 이 감에 비교하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

---

260) 주례(周禮)에 규정된 양척(量尺). 이 자의 한 자가 곡척(曲尺)의 여섯치 육푼과 같다. 곧 0.231 미터이다.

261)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 장재(張載)를 말함. 맹양(孟陽)은 그의 자이다. 성품이 여유가 있고 우아한 데다가 박학하여 문장을 잘 지었다. 태강(太康) 초에 촉산 검각(蜀山劍閣)을 지나다가 명(銘)을 지었는데 무제(武帝)가 그것을 감상하고 사람을 파견하여 검각산에 그 명을 새겼다고 한다. 관직은 중서시랑(中書侍郎)이고 두 동생인 협(協)과 항(亢)도 문장으로 이름이 높아서 당시 사람들이 삼장(三張)이라고 불렀다.

262) 물기가 많고 연하며 맛이 단 감.

263) 모두 감의 품명이다. 조홍은 일찍익고 빛깔이 유난히 붉은 것이고, 옥전은 감이 '십(十)'자의 골이 있고 비교적 각이 진 것이며, 무핵은 씨가 없는 감이다.

264)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남평현(南平縣)이다. 오대(五代) 때 남당(南唐)의 검주(劍州)를 송나라에 와서 남검주로 개칭하였다.

265) 중국 절강성(浙江省) 여수현(麗水縣)의 서쪽 지방을 말한다. 수(隋)나라에 와서 처주에 속하게 되었다.

제가 해수(咳嗽)를 앓은 지 십 수년에 백약이 효과가 없는데 오직 잣 열매에 꿀을 탄 것이 먹어봄에 효험이 있으니, 이는 그 성질이 수장(水藏) 즉 신장(腎臟)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래 해송(海松)의 씨앗으로 잣과는 다릅니다. 잣은 곧 중국의 약재인 백자인(柏子仁)[266]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성질은 자못 같습니다. 듣자하니 족하도 근자에 해수로 고생한다니 겨우 한 되쯤 깐 것을 보내드립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것은 까보면 빈 껍질이 많은 까닭에 제가 요전에 서울에서 샀는데 가격도 이곳에 비하면 또한 저렴합니다. 족하께서 한 번 먹어 보고 조금이라도 효력이 있다면 또한 마땅히 서울에서 구해야 많이 복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시 한 수를 지었는데 자못 아름답고 절묘한 것 같아 곧바로 써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주변 사람들이 훔쳐보고서 아직 혼돈(混沌)[267]에 구멍도 뚫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런 것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냐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제 본래의 의도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이에 청감(淸鑒)을 어지럽게 하오니, 혹시 여와씨(女媧氏)[268]가 가지고 놀던 마른 황토(黃土)로 눈을 휘둥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요.

餽

今日是今年第一日 此物是今年第一餽 他日非不可餽 惟此第一日爲佳日 他物非不合餽 惟此第一餽爲佳餽 一緘十緘 千珍萬重 兄亟開看 看是何物 開看時有一十七字元朝祝今年中隨事得妙解 三百五十四款

今日令允 備三加禮 積日陰翳 朝候晴朗 佳兆也 紅扇一柄 囊鏡一面 扇取其淸風洒落

266) 측백나무 열매의 씨. 허한(虛汗)과 어린이의 경간(驚癎)에 쓰인다. 측백인(側柏仁) 또는 측백자(側柏子)라고도 한다.

267) 혼돈(混沌)에 구멍을 뚫은 것은 『장자(莊子)』「응제왕(應帝王)」에 보인다. 남해의 임금인 숙(儵)과 북해의 임금인 홀(忽)이 중앙의 임금인 혼돈(混沌)이 눈, 귀, 코, 입을 없음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뚫어주었는데 결국에는 혼돈이 죽고 말았다는 고사이다. 『장자』의 원래 취지는 인위적인 행동이 자연의 수박함을 파괴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형색도 제도로 갖추지 못한 작품으로 비유하고 있다.

268) 중국 고대 신화전설(神話傳說) 속의 인류의 시조이다. 우주가 개벽했을 당시 복희씨(伏羲氏)와 결혼해서 인류를 번식시켰다고 하며, 또 남매간의 통혼(通婚)을 금지시키고 혼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혹은 황토를 가지고 사람을 빚었는데 이로부터 인류가 생겨났다고도 한다.

鏡取其明光洞澈 皆爲賢子期待 不小淺 不在物也 仰希莞收

人恒道漢紙脆薄 不如東紙之堅韌 却怪東紙頗自淨滑 不能令書畫生韻 此呈漢紙 可以東紙糊背 染翰下紙 膞然相合如針磁然 橫竪挫衄 惟吾所欲爲 有心人遺之二十張 擧其半齎呈 以仁兄能愛此也

新曆之頒例 在於長至日 此是用周正 僻巷老措大 安能依例得新曆 今玆元朝 始送呈兄居更僻於吾巷 人有笑之者 則曰此是用夏正

東人製筆 用膠黏其半 殊非古制 柳學士云 出鋒須長 擇毫須細 毫細則點劃無失 鋒長則洪潤自由 僕嘗令工人 依漢人水筆樣 新製之 細毫長鋒 作字甚得力 謹供五枝 聊助臨池

文房以銅雀臺瓦硯爲貴 爲貯水數日不燥也 如絳人澄泥硯 亦以水不涸爲佳 僕取硯之不拒墨者 將鐵板蓋之 能令墨數日不乾 蓋金能生水也 硯一方幷鐵蓋 以充貯墨之用

能書者 尤貴佳墨 其故何也 紙筆硯縱未合宜 猶可作書 若墨不佳 書無精彩 東坡所云其光淸而不浮 湛湛如小兒目睛 深得論墨之妙 我國以出海州者爲甲 而光香遜於出漢徽州者 徽墨則又不能卽乾 僕常時和二墨磨用 頗得中 此呈二螺一海一徽 欲仁兄亦如僕和磨用也

摺扇 古無此制 明永樂中 自我國入中州 遂徧於天下 此扇卷舒甚便 而以中州之大未有創製者 可怪也 適得一摺扇 品殊劣 不足爲吾兄獻 漫思此故事 因書山谷老人次錢穆父贈高麗松扇詩 致之于座下 但未知松扇 其制與摺扇 何如也 有考可示之否

摺扇一 爲吾兄出門時用 團扇一 爲吾兄居家時用 團扇視常制殊闊大 以兄三伏時 猶不廢閱書卷 要令多力書童 從傍健搖也

僕生平不飮酒 故無家釀 客至沽酒 酌數配而已 適有人餽此酒可一斗 且云釀四十日熟者 用麴少 而歷日多味 芳烈善醺人而不至醒 僕得之無所用 惟足下可以知此中趣 謹走人負呈 竊比於古人傾家釀之義

烟草 始出於蠻人 元以後有之 不知何故擧天下無人不吸 其名不一 或謂蔫 或謂菸 或謂淡波姑 或謂金絲烟 弟少壯時 酷嗜之 日數十吸 比年來漸減 至有日三四吸 以此知其能消痰辟瘴 而亦殊損氣也 我東以西土出者爲頭品 其不細切而捲束之者 稱花峰草 最馥烈可吸 此是自日下轉來者 一匱貯百峰 弟不可獨吸 與吾兄分之

鯽魚 産於淸水者 味最良 産於濁水者 次之 俗以其大小有豆葉柿葉之稱 自腮下至尾上滿周尺者 謂之犁 最大者也 此呈三尾 其一居犁之下柿葉之上 漁人云亦不易得 足下常病胃氣未健 而此魚大能益胃 卽得於淸水者 故擧而獻之

鄙居土性 甚不宜菓 唯種石榴 則能茂鬱 今年結數十顆 顆大而味殊甘美 揀最大者五顆 謹爲足下供之 足下試嚼破焉 則張孟陽所謂剖之珠散含之氷釋 其文辭之工 又足耐咀矣

此呈南陽水柿三十顆 兄試嘗之 柿以八月早紅玉田無核爲珍味 而早紅逼蒂有蟲 無核多肉少液 惟此柿兼有二者之美 而無其疵 一椀僅盛二三顆 古人以南劍尤溪柿處州松陽柿爲奇品 未知方此爲何如也

僕病嗽十數年 百藥無驗 惟栢實和蜜 食之爲有效 蓋其性能潤金水藏也 此本海松子與栢子異 栢子 卽唐藥材 栢子仁是已 然其性頗大同 聞足下近亦苦嗽 僅以剖者一升送呈 此間所産 剖之多空殼 以故僕嘗購諸日下 價比此地又廉 足下試此有微效 則亦宜於日下求之 可多服也

近日得一詩 殊似佳妙 方欲寫呈 却被傍人偸眼 看作未破竅混沌 冷淡道將此濟得何事 雖然 不欲孤本意 玆塵淸鑒 徜不以女蝸所戲濛濛黃土團目之否

걸(乞)

새벽에 대방(帶方 : 南原)으로 떠날 생각인데 거리를 계산하면 가고 오는데 5, 6일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말을 무서워하여 나귀를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형이 모두 가지고 있으니, 나귀와 견마잡이를 빌려주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몸이 쇠약해진 이후로 비록 반나절의 일정이라도 말을 타지 않을 수 없고 말을 타면 바로 어지럽게 됩니다. 대문을 나서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나서면 마땅히 가마가 있어야 하는데 집에 가마를 둘 형편이 아니니 마땅히 그것을 남에게 빌려야 합니다. 때문에 큰 일이 있지 않으면 대문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자식의 혼사가 가까운 날에 있는데 휘장을 친 가마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형이 가지고 계시면서 가벼이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많은 말로 빌리는 바입니다.

가인(家人)이 설사병에 걸린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위(胃)가 크게 허해서 오직 인삼탕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집에 몇 량 남짓의 삼이 있기는 하지만 떨어져서 계속 먹일 수가 없습니다. 족하가 평소에 항상 삼을 드시

니 반드시 보관한 것 중에서 산종(山種)으로 한 봉(封)에 칠, 팔십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빌려주신 것은 마땅히 널리 사들여서 되갚겠습니다.

제가 해수(咳嗽)를 앓은 지 이십 년에 백약을 시험해 보았지만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꿀을 하루에 너 댓 차례 먹는 것만이 고통을 덜어주니, 복용한 지 수년만에 증세가 반 이상이나 줄었습니다. 해마다 값이 너무 올라 가난한 처지에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 친구의 처지를 알고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족하께서 마침 산중에 계시니 그것을 구하기가 이곳보다는 비교적 쉽고 값 또한 당연히 저렴할 것입니다. 혹시 저를 위하여 구매하여 석 되쯤 보내주시겠습니까. 비용은 통보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록 술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또 시에 능한 사람과 마주하여 읊조리기를 즐겨하여 한번 만나면 그때마다 십여 일 동안을 그치지 않습니다. 마침 저의 집에 시객(詩客)이 와 있는데 시도 잘하고 술도 잘합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시가 더욱 절묘해 집니다. 이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술을 사려고 하면 저자에 좋은 술이 없고 담그려고 해도 시간에 대지를 못합니다. 듣자하니 족하에게 요새 좋은 술이 있다고 하니 저를 위해 한 말을 은혜롭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족하께서 시를 사랑하심은 술을 좋아하시는 것보다 더하시니, 시가 완성되면 마땅히 써서 술빚을 갚겠습니다. 기꺼이 하시겠는지요.

옛날에 왕수령(王脩齡)[269]이 말하기를, "내가 굶주렸을 때 사인조(謝仁祖)[270]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듣자하니, 아무개 친구가 빈궁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서생(書生)을 위해 그의 굶주림을 생각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족하만이 할 수 있고, 또 족하는 아무개 친구의 사인조가 아니십니까. 왕수령도 오히려 식량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개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어찌 왕수령보다 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족하가 그것을 안다면 반드시 달라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습

269)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 왕호지(王胡之)를 말한다. 수령은 자이다. 일찍이 동산(東山)에 살 때 궁핍했다. 관직은 군수(郡守)·시중(侍中)·단양윤(丹陽尹)을 지냈다.

270) 중국 진(晉)나라 때 사람 사상(謝尙)을 말한다. 인조는 자이다. 음악을 잘해서 모든 악기를 다룰 수가 있었다. 왕도(王導)가 그를 왕융(王戎)에 비교했다. 역양태수(曆陽太守)·중랑장(中郎將)을 지냈고, 영화(永和) 연간에 상서복야(尙書僕射)·예주자사(豫州刺使)를 역임하고 공적이 있어 진서장군(鎭西將軍)이 되었다. 석경(石磬)을 만들어서 태학(太學)에 비치했다. 위장군(衛將軍)에 제수된 후에 곧 세상을 떠났다.

니다. 생각건대 족하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기에, 이에 아무개 벗을 대신해서 식량을 달라고 합니다.

소동파(蘇東坡)가 등달도(滕達道)[271]에게 준 편지에서 말하기를, "귀공(貴公)에게 주홍색의 소반과 2개의 탁자, 24개의 솥을 구하고자 한 것은 좌우로 넓게 벌려놓고 화려하게 자초(藉草)[272]의 즐거움이 이루는 것이 천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생각해 보면 24개의 솥과 같은 물건은 매우 사치스럽습니다. 그것은 풀을 깔고 앉아 음식을 해먹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비용도 또한 많이 드니, 소동파는 아마도 검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두 개의 탁자와 여덟 개의 솥이 필요하니, 소동파가 요구한 것에 비교하면 겨우 삼분의 일입니다. 형이 아니면 저를 위해 힘을 쓸 사람이 없으니, 기꺼이 마련해 주시지 않을런지요.

손명복(孫明復)[273]은 송나라의 선비로 지조와 행실이 높고 고결하여 후세에 표상이 될 만한데, 수재(秀才)[274] 시절에 범문정공(范文正公)[275]을 찾아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정공도 그를 위하여 보학직(補學職)을 마련하여 매달 삼천전(三千錢)을 받아 부모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도 미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재주도 낮고 학식도 적어서 비록 손명복에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늙고 집안이 가난한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공(公)은 바로 지금 세상의 범문정공이신데, 유독 달마다 학름(學廩)을 덜어 사람의 효도를 이루어 주려 하지 않으십니까.

이 곳에 거주하는 김생(金生)은 저와 정분이 골육(骨肉)과 같아 아픔과 가려움을 함께 하는 자입니다. 장차 선산(先山)과 관련한 소송(訴訟)으로 아무 군에 가서 자신

271) 중국 북송 때 사람 등원발(滕元發)을 말한다. 달도는 그의 자이다. 신종(神宗) 때 어사중승(御史中丞)·한림학사·개봉지부(開封知府)를 역임했다. 의론(議論)이 항상 강직했고 어전(御前)에서 일을 논의할 때도 마치 가인부자(家人父子)와 같이 태연했다. 뒤이어 운주(鄆州)·정주(定州) 등의 지사를 역임하고, 철종(哲宗) 때 용도각직학사(龍圖閣直學士)에 제수되었다. 저서로는 『손위민정남록(孫威敏征南錄)』이 있다.

272) 풀을 깔고 자리로 삼은 것을 말한다. 소동파의 편지 앞글에 "나는 찬구(饌具)를 갖추고 들에 나아가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보인다.

273) 중국 송나라 때 학자 손복(孫復)을 말한다. 명복은 자이고 호는 휴양자(睢陽子)이다. 태산에 살면서 춘추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국자감직강(國子監直講)이 되고 전중승(殿中丞)이 되었다. 그의 학파를 태산학파(泰山學派)라고 하고 안정학파(安定學派)와 함께 송학의 선구가 되었다. 저서로는 『역설(易說)』『춘추존왕발미(春秋尊王發微)』『손명복소집(孫明復小集)』 등이 있다.

274)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높여 부르는 말.

275) 중국 북송 때 유학자, 정치가인 범중엄(范仲淹)을 말한다. 자는 희문(希文), 시호는 문정이다.

이 옳다는 것을 펴려고 하는데, 보통하는 말에 "이치가 곧은데 어찌 번거롭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가?"라고 하니,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순후(淳厚)함과 경박(輕薄)함이 현격하게 다르고, 또 이번 일은 선산과 관계되어 중요함이 각별한 것인데, 어찌 한갓 자신의 곧음만 믿고서 성내며 먼저 소송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뜻밖의 일이 생기면 후회해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형은 아무 고을의 원과 교분이 친밀할 뿐만이 아니니, 또한 편지를 받아 봄에 한마디 말씀의 중함이 평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생의 이치가 곧음은 분명하기가 태양과 같습니다. 바라건대 저를 위해 편지를 쓰시어 그 억울함을 충분히 말씀하여 유력자에게 교란되어 시비(是非)가 전도되고 공사(公私)가 함께 무너지는 데 이르지 말게 하심이 어떠한지요.

처(妻)의 병이 날로 침중(沈重)해지고 날로 심해지는데 많은 의원이 자리에 앉아 사람마다 각기 의견이 다르니 사람을 답답하게 합니다. 요새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무개를 추천하나 그 집 앞엔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여 갑자기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은 이 의원과 교분이 매우 친밀하시니 반드시 형의 편지가 있으면 초치(招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긴박하고 간절한 말로 편지를 쓰셔서 반드시 오고 지체하지 말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향에 살면서 분수에 편안하게 책을 읽을 뿐이니, 어찌 구구하게 공문(公門)[276]에 연줄을 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의 일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 뜻밖에 생기는 일이 많으니, 이것이 옛날의 지조를 오로지 지키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제게는 대단치는 않지만 선대(先代)의 유업이 있어 뽕나무와 삼밭이며 닭과 돼지 등 가축으로 생활을 꾸릴 만 하고, 담을 잇대고 처마를 붙여 가솔(家率)이 모여 살며 술지게미라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이 '넉넉한 집'으로 지목하고 이러저리 전파하여 부자집으로 칭하는 데까지 이르러 상식에 벗어나게 찾아오는 괴로움이 자주 있습니다. 하량(下諒)[277]하시어 본군(本郡)에 편지를 보내시어 문하의 제자라고 핑계를 대시되, 따로 보살펴 주라 하시고 아전을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하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따라 후한 대접을 한다면 쥐가 갉아먹고 좀이 파먹는 것이 저절로 잠잠해 질 것입니다.

평소 구걸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가난으로 부자에게 구걸하지 않았고 미천

276) 관청의 문을 말함.
277)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을 살피어 알아주는 것을 말함.

함으로 귀한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고 약함으로 강한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았고 늙음으로 젊은이에게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시를 구걸하고 글씨를 구걸하며 그림을 구걸하는 것을 면하지 못했는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가난함과 미천함과 약함과 늙음은 제가 달갑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저 네 가지는 구걸한다 하여도 요행히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탐욕스런 마음만을 기를 뿐이니, 이것이 반드시 구걸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시와 글씨와 그림에 있어서는 제가 비록 능통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구걸하면 얻게 되니,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이것을 구걸하였다고 해서 탐욕스런 생각을 범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거처를 표제(表題)로 한 시 한 수, 기둥의 주련(珠聯) 글씨 두 댓귀, 병풍의 그림 열 폭이면 제가 보잘것없는 집을 사치스럽게 꾸밀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걸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세상의 깨끗한 일은 가장 압박을 받지 않으니 흥이 이르지 않아도 그만이요 흥이 다해도 그만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하여 말하기를, "세상의 깨끗한 일은 가장 부담을 받지 않으니 흥이 이를 때도 잃지 말고 흥이 높을 때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앞 말은 늦추어서 그 흥을 빼앗은 것이고, 뒷말은 재촉해서 그 흥을 발동케 한 것이니, 모두 잘 구걸하는 것에 해되지 않습니다. 형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평소의 성품이 화초를 재배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백과 힘이 굳세지 못한데다 세간에 약간의 못다 한 일도 오히려 정돈하려 해도 돌아볼 시간이 없음을 근심하는데 어느 겨를에 이에 미치겠습니까. 전에 귀장원(貴莊園)의 뜰 앞에 파초(芭草)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키가 한 자쯤 되고 잎이 깨끗한 것이 장자(長子)의 기풍이 있어 모든 홍자색(紅紫色)의 꽃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기뻐하여 제 거처로 옮겨 심어놓고 밤낮으로 바라보다가 흥취가 일어나면 한 잎을 따서 시를 짓고 글을 써도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곁의 작은 뿌리 하나를 나누어주시면 직접 물주고 가꾸어 그것이 자라서 커지는 것을 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乞

明發作帶方行 計往還 不出五六日 平常畏馬喜騎驢 兄悉之 長耳併牽僮 惠借仰企
衰來 雖半日程 不能騎 騎輒眩悸 不出門已 出則合有肩輿 而家不能儲 當借於人 以故非有大事 不出門矣 今迷子婚日在邇 帳轎所必具也 知兄自有儲而不輕借人 亦知於弟不能不借 玆所以多言而乞之耳

家人病瀉 過一旬 醫云胃大虛 非獨蔘湯不可 而家有數兩許 罄莫之繼 料足下平居常茹蔘 必有常儲中山種一封七八十者 幸次惠隨 當廣購還納矣

僕患嗽二十年 所試百藥 無完可者 惟白蜜 日四五餌 可救苦急 至數年 則減强半 比年價太高 貧無以常繼 知舊之助求者 多矣 足下適居山中 計求之較易于此 價且宜廉 倘爲之購 惠數三升否 價文待示 圖送呈矣

僕雖不嗜酒 而酷嗜詩 又喜與能詩人對吟 一遇輒十數日不休 適有詩人在僕所 旣能詩又能飮 飮多則詩益工 此不可以已之不嗜而不具酒也 欲沽之 市無佳酒 欲釀之 日不及時 聞足下近有佳釀 幸爲我惠一斗 足下愛詩 甚於愛酒 待詩成 當寫呈 以償酒債肯之否乎

昔王脩齡云 脩齡飢 自就謝仁祖索食 聞某友屢空 久矣 料此 世無爲書生念其飢者 獨足下乃可 而且足下 非某友之謝仁祖乎 脩齡猶索食 而某友不爾 豈非賢於脩齡乎 足下知之 必不待索 而未有聞焉 意足下尙未知之也 玆用代索

蘇東坡與滕達道書云 欲向公求朱紅盒子兩桌二十四裹者 極爲左右 費然遂成藉草之樂爲不淺也 今思之 二十四裹品 甚侈 恐不宜于藉草之飮 費工亦多 坡公似不儉率 弟只欲兩桌八裹 比坡公所求 廑居三之一 而非兄莫有爲我費力者 其肯圖之乎

孫明復 宋之處士也 操行高潔 足儀表百代 而以秀才干謁梵文正公 何也 爲家貧無以養親也 是以文正公爲之補學職 月得錢三千 以遂供養 至今以爲美談 生才下識寡 雖不足比之明復 而親老家貧 則無異焉 公卽今之范文正也 獨不欲月損學廩 以成人之孝邪

此居金生 於弟情類骨肉 痛癢相關者也 將以山訟詣某郡伸理 而恒言有云 理直 何煩曲徑 此大不然 古今淳漓懸殊 事在先山 所重自別 豈可徒恃其直 悻悻然不思先誦 萬一出於不測 悔之何及 兄於某倅 不惟契密 亦見倚信 一言之重 逈出尋常 而此生之理直 皦如白日 幸爲我裁札 極言其冤 俾勿爲有力者所亂 至於是非倒置公私俱壞 如何

妻病日沈日劇 而衆醫在坐 人各殊論 令人叫鬱 近世醫工 咸推某人 萬口一辭 而人馬盈門 遽難邀請 念兄於此醫 契分最密 必有兄書 乃可致之幸 緊切措辭 以爲必來無滯千萬仰乞

鄕居惟當安分讀書 豈欲區區夤緣公門 而近來事 與往古迥別 多有出於意外者 所以不能專守 古操矣 生粗有先世之業 桑麻鷄豚 可以養生 而連墻接屋 不厭糟糠 故目之曰饒戶 轉轉宣播 至有稱之以富家 而橫來之苦 比比有之矣 下諒裁簡于本郡 託之以門生 要其另庇 遣吏存問 隨言款接 則鼠齕蠹蝕 自可默息矣

平生不解乞 貧不乞富 賤不乞貴 弱不乞强 老不乞少 惟乞詩乞書乞畵 所不免焉 何者貧賤弱老 非吾所樂焉 而奈彼四者 雖乞不可倖得 徒長貪饕之念 此所以必不乞也 至於詩書畵 我雖不能爾 而乞之則得 自開關來 未有乞此而犯貪饕之料 此所以不必不乞也

題居詩一首 楹聯書二對 屛幛畵十幅 可爲我侈蝸屋 古有善乞者 其言曰 世間淸事 最不受迫 興不至且已 興盡且已 弟更翻之曰 世間淸事 最不受負 興到時勿失 興高時勿失 蓋前言緩之而奪其興 後言促之而發其興 不害俱爲善乞也 兄神領矣乎

素性不喜栽花草 非不愛也 念魄力未壯 世間多少未盡事 尙患整頓無日顧 何暇及此 向於貴莊 庭前見有芭蕉 高丈許 葉濯濯 有長子風 不比一切紅紫輩 所以可悅 思欲置之所居 日夕領會 其趣興到時 取一葉 題詩作書無不可 幸分其傍一小根 則手自灌培 見其長大 亦不妨耳

청(請)

미돈(迷豚)[278] 아무개가 장차 아무 날에 관례(冠禮)[279]를 행하려 합니다. 가르침을 주실 분을 생각해보니 나이와 덕이 선생님같이 높은 분이 없습니다. 감히 조카 아무개를 보내어 재배하며 청합니다. 집사(執事)에게 명하여 주셔서 기꺼이 흔쾌한 승낙을 주시고 그 날에 왕림하여 주시면, 아무개 부자는 실로 두터운 덕을 입게 되니, 감히 감명(感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78) 자신의 아들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

279) 사내 아이가 20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갓을 쓰고 어른이 되는 예식. 이 편지는 특히 관례의 주례자(主禮者)로 빈(賓)을 청하는 내용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관례(冠禮)」'계빈(戒賓)'에서 빈객(主禮者)을 청하는 것에 대해 친구 가운데 어질고 예를 아는 사람을 한 명 택한다고 하였다.

아우의 61세 현호(懸弧)[280]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무 날입니다. 아이들이 간략히 술과 감주를 갖추어 헌수(獻壽)를 한다고 합니다. 옛날 서적들을 일일이 찾아봐도 주갑(周甲)에 잔치를 열어 경하를 한다는 것은 없는데, 세속에서는 대경연(大慶宴)이라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 한평생에서 육갑이 한 번 돌아옴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손이 잔을 올려 축하하고자 하는 것도 마땅한 듯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기에 석연치가 않습니다. 형은 저보다 한 살이 적어 내년이면 영자(令子)와 영손(令孫)들이 뜰 안에 가득하여 번갈아 잔을 올려 축수(祝壽)를 할 텐데, 형의 주호(酒戶)[281]는 비록 크나 그 술잔을 모두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니 반드시 우리 집에서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우리 집의 자리에 와서 내년의 일을 생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형의 뜻은 어떠한가요.

어린 손자가 태어나 백일이 되어갑니다. 세속에서는 이 날에 반드시 백설기를 준비하는데 집사람에게 술도 한말 같이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형께서 이 손자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저에게 탕병(湯餠)[282]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이 실로 장난삼아 한 것이었지만 아우는 미쳐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준비하여 전날 찾으시던 것을 대신하고자 하니, 형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가요.

손자가 『논어』를 다 읽어서 줄줄 외우고 대의(大義)도 통달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현명한 스승 덕분이지만, 벗들이 부지런히 가르쳐 주고 깊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여 술과 안주 한 상을 준비하여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마을의 제현(諸賢)을 맞이하여 창회(暢會)[283]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형(仁兄)께서는 꼭 참석하시길, 위개(委价)[284]를 보내어 여쭙니다.

내일이면 즉 가친(家親)[285]이 주갑(周甲)을 맞는 초도(初度)[286]의 날입니다. 불초(不

---

280)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호(弧 : 뽕나무 활)를 문의 왼쪽에 걸어 활을 잘 쏘기를 바란 데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아들의 출생을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호지회(懸弧之回)라 하여 자신의 61세 생일이 되었음을 말한다.

281) 술의 주량.

282) 아이를 낳은 지 3일만에 그 아이의 장수를 빌기 위해 먹는 메밀국수.

283) 마음을 풀고 즐기는 화락한 모임.

284) 위임받아서 심부름하는 사람.

285) 남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

286)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의 "아버님은 나를 초도에 헤아리시고 비로소 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셨네(皇覽揆余于初度兮 肇錫予以嘉名)"라는 말에서 나왔다. 원래는 생년월일 등 하늘의 법도를 의미하였는데 이후 태어난 때, 생일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화되었다.

肖)한 저는 가난하여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차릴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간략히 술상을 차려 귀한 손님을 맞이하려 합니다. 바라건대 광림(光臨)하시어 바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벗들이 시회(詩會)를 갖는 것은 근년에 쉽게 갖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군(四郡)에서 육탑(六榻)에 이르기까지 실로 모두 모이니 진실로 성대한 모임이라 하겠습니다. 오직 노형만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참석한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램이 아닙니다. 어찌 시인의 모임에 노형이 참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형도 이 말을 들으신다면 또한 마땅히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빨리 왕림(枉臨)[287]하시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아무개 친구가 저의 처소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오늘 아침에 족하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다리 힘이 쇠하여 침상에 쓰러져 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에게 족하가 와 주기를 바란다고 대신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족하도 항상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령 현재 다른 일로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뒤로 미루고 곧 왕림해 주심이 어떠한가요.

아우가 글의 뜻을 우러러 질문할 것이 있다면, 이치상 마땅히 직접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이 계신 곳이 응접하기가 매우 번거로우니 일일이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가서 가르치는 도리는 없다'[288]고 말씀하지 마시고 잠시 왕림하여 주셔서 저의 의혹을 깨쳐 주셨으면 합니다.

일전에 일로 물어보신 것이 있었는데 당시는 갑작스레 나온 것이라 무어라 답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눈앞에 또렷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만나서 답하지 않으면 그 곡절을 다하기가 어렵고, 제가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면 또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매우 바쁘지 않으셔서 오늘밤 들려주신다면 그 자세한 것을 다 털어놓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책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 볼 만한 것이 있어 사려고 하였는데 완낭(阮囊)[289]이 공교롭게도 이미 비었습니다. 그리하여 형의 집으로 데리

---

287) 남의 방문(訪問)을 높여 일컫는 말.

288) 『예기』「곡례 상(曲禮上)」에 보인다. "예(禮)는 와서 배웠다는 말은 들었지 가서 가르쳤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289) 완낭수삽(阮囊羞澁)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옛날 진완부(晉阮孚)란 자가 집이 가난하여 흑색의 주머니를 들고서 회계(會稽)에 놀러갔다가 객 중에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다만 한 푼의 돈이 주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아마 부끄러워 머뭇거리는 모양입니다"고 하였다. 이후 자신의 궤핍(匱乏)함을 말할 때 완낭수삽(阮囊羞澁)이라고 하였다. 여기

고 가려 했더니 그 사람이 또 경생(景生)의 사고(私藁)라고 주저했습니다. 모두가 극히 웃음을 자아냅니다. 비록 백방으로 바쁘다고 하더라도 모두 물리쳐 두시고 왕림해 주십시오. 그것은 형을 위하여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서로 상의해본 이후에 이해할 만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바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삼춘(三春)[290]이 다 지나도록 하루도 회합이 없습니다. 인생이 바삐 지나감이 바로 이와 같은가 봅니다. 며칠이 지나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도 가지에서 질 것입니다. 마침 집에서 담근 술이 익어 그 향기가 코를 에워싸 가히 즐겁게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꽃을 감상하면서 한 잔 하지 않을는지요.

삼복 더위에 땀을 훔치면서 책을 보다가 이윽고 웃으면서 자조(自嘲)하기를 "내 장차 남에게 삯을 받고 남의 고용에 응하려 함인가?"라고 했습니다. 머리 들어 바라보니, 앞산은 검푸르게 물들었고 바람에 잎사귀가 뒤집어져 날립니다. 어느새 미헌(眉軒)[291]함을 느끼니, 가히 마음 속의 악착(齷齪)[292]스런 기운을 토해낼 만합니다. 족하도 함께 고상(翱翔)[293]해 볼 생각이 있는지요.

금풍(金風 : 秋風)이 산산하고 시원하며 옥로(玉露)[294]가 맑고 깨끗하며, 울밑의 황화(黃花 : 黃菊)가 이미 반쯤 방긋 피었습니다. 제가 본래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만 뜻이 일찍이 하나의 대백(大白)[295]을 끌어당겨 마시고 싶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족하도 눈에 빈 질그릇을 보면 목구멍에 갈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집에 술을 한 말 빚었으니 족하가 한 번 와서 다 마셨으면 합니다. 나는 기꺼이 강섬의 백의(白衣)[296]가 되겠습니다.

서는 다만 돈주머니 정도로 사용되었다.

290) 봄 3개월을 말한다. 음력 정월의 맹춘(孟春), 2월의 중춘(仲春), 3월의 계춘(季春)이 이에 해당한다.

291) 공치규(孔稚圭)의 「북산이문(北山移文)」 가운데 "마침내 눈썹이 자리에서 치켜 올라가고 소매가 자리 위에 펄럭인다"(爾乃眉軒席次 袂聳筵上)는 구절에서 나왔다. 원래는 북산에 사는 처사가 세상에 영합하여 세속으로 줄달음치는 것을 형상한 말이나, 이후에는 미헌(眉軒)만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마음이 명랑하여 눈살을 펴는 것'으로 쓰였다.

292) 마음이 좁은 모양. 작은 일에 구애되어 있는 모양.

293) 새가 하늘 높이 날개를 펴고 빙빙 돌며 난다는 뜻.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뜻을 세우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294) 맑고 깨끗하게 방울이 맺힌 이슬.

295) 큰 술잔을 말한다. 대배(大杯)와 같은 뜻이다.

296) 보통 입는 옷을 말하는데 무위무관(無位無官)의 사람 즉 속인을 의미한다. 여기의 '강섬의 백의'는 강가의 속인 즉 어부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조촐하게 물고기나 잡아 안주로 삼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눈이 펄펄 날리는데 크기가 손바닥만하여 천산만곡(千山萬谷)이 삽시간에 하얀 옥을 한 번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체 만물의 형상이 청(靑)·홍(紅)·황(黃)·흑(黑)·거(巨)·세(細)·풍(豊)·박(薄) 할 것 없이 섞이어 모두 태초의 홍몽(鴻濛)[297]의 모습과 같습니다. 참으로 상쾌하고 상쾌합니다. 형과 같은 술고래가 이런 때를 만나 왼쪽 손에는 게의 큰 발을 오른쪽 손에는 술잔을 들고[298] 공중을 향해 한 번 시가를 읊조리면 당연히 천상의 인간을 깜짝 놀랄게 할 것입니다. 제 집에 술 한 동이가 있으니 빨리 오셔서 맛보지 않겠습니까.

붉은빛 자주 빛 형형색색의 초목과 꽃나무가 울창하고 만발하여 진하고 엷은 정도가 마치 비단을 가위로 재단하고 실로 기워서 나무의 가지에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화창한 바람이 솔솔 적삼과 소매 사이로 불어오니, 이 때에 한 번 실컷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아이에게 술잔을 씻어놓으라고 시켰는데, 작은 시냇가에 앉자 기다릴 테니 족하는 오시기 바랍니다.

남은 꽃들은 흩뜨러지고 연약한 풀들은 마치 이부자리와 같습니다. 두견새[子規]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봄이 머무르게 할 수 없어, 술을 가득 담은 큰 병을 가지고 깊은 숲 속으로 향함은 이제 떠나가는 동군(東君)[299]을 위하여 한 번 전별(餞別)을 할까 해서입니다. 생각건대 이 일은 형이 아니면 누구와 더불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맛있는 안주거리가 없고 다만 한 접시 푸성귀만 있을 뿐입니다. 꺼리지 않으시면 즉시 지금 오십시오.

매화 장마[300]가 처음 개자, 산은 푸르고 물방울들이 떨어집니다. 이미 어린 여자종에게 명하여 마른 나뭇가지를 줍게 하고 개울가로 가서 불을 때 밥을 지었더니 연기가 하얗게 오릅니다. 손을 씻고 3~5번 손을 모아 물을 마시니, 이것은 마땅히 진솔한 배부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내 뒷짐을 지고 짙푸른 나무그늘 사이에 나아가 곳에 따라 거닐며 읊조리고 푸른 이끼를 치워서 돌 위에 시를 적으니, 이것은 마땅히 진솔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족하께서는 기꺼이 오셔서 이 맛을 보시렵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내 드릴까요.

---

297) 천지자연이 아직 생겨나기 이전의 혼돈의 상태.

298) 『진서(晉書)』에 "왼손에는 술잔을 들고 오른손에는 게 집게다리를 집는다"(左手持酒杯 右手持蟹螯)라고 하였다.

299) 봄을 상징한 말. 봄은 오행설에서 동쪽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군'은 봄을 맡은 동쪽의 신을 말한다.

300) 매림(梅霖) 혹은 매우(梅雨)는 매화나무 열매가 익을 무렵에 오는 장마를 일컫는다. 매실은 6, 7월에 초록빛에서 노랗게 익는데 이 때에 장마가 들기 시작한다.

서늘한 저녁 무렵에 버드나무 그늘진 아래에 나아가 낚시를 드리워 한 마리 큰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서 집사람에게 분부하여 비도(飛刀)로 물고기를 은실처럼 잘게 저미게 했습니다. 오늘밤에 명경(明鏡)이 하늘로 비상하는데, 형님께서는 집 앞의 이끼 낀 돌의 푸른 소나무 아래에 걸터앉음을 헤아려 보니, 술잔을 엎고 한 수의 어부사(漁父詞)를 부릅니다.

맑은 강이 온통 짙푸른데 하늘은 사방으로 드리우고, 물고기는 위 아래로 노닐며 물빛은 잇닿아 용솟는다. 사당(沙棠)[301]으로 배를 만들어 한 통의 술을 싣고서 달빛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소한림(蘇翰林 : 東坡)의 「적벽부(赤壁賦)」를 읊조린다. 공께서도 저와 더불어 이 일을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가을 서리가 두텁지 않고 대나무 빛이 맑고 짙푸르니 가히 등나무 지팡이를 비껴 짚으며 그 사이에 앉아 시를 읊조릴 만 합니다. 오직 족하만이 이런 즐거움을 알 수 있으리니 곧바로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한 그릇의 오래된 육갱(肉羹)[302]이 있으니 서로 마주하고 실컷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화나무 가지 끝의 눈을 취하여 작은 귤과 작설차를 끓입니다. 돌 아래 샘으로 나아가 얼음을 두드리면 쟁그렁 소리가 나는데 자연의 음절이 가지고 있어 맑고 새롭고,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이 즐거움을 홀로 누릴 수 없기에 노형(老兄)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請

迷豚某 將以某日加冠 思所以教之者 齒德之尊 宜無如先生 敢遣侄子某 再拜請 命于下執事 肯賜盛諾 及日寵莅之 某父子實蒙厚德, 其敢不感銘

弟六十一歲懸弧之回 正在某日 兒曹略具酒醴 稱以獻壽 歷考往籍 未有周甲之年開宴稱慶者 而世俗指爲大慶宴 不知始自何時 然人生一世 一周六甲 固非易事 子孫之欲稱觴 似亦宜然 而古則無之 未可曉也 兄少吾一歲 至明年令子令孫輩 將滿庭迭獻壽杯 兄酒戶雖大 將不勝其酌 不必要於吾家取醉 然須先向吾家席上 豫想明年事 更增一般興味 兄意何如

301) 과수의 하나. 배[舟]를 만드는 데 쓰인다.
302) 어육(魚肉)을 곤죽처럼 범벅이 되게 끓인 죽.

稚孫生將百日矣 俗於時日 必具雪糕 飭家人 幷具斗酒 因兄於此孫初生時 索我以湯餠 蓋兄實戲之 弟則未遑也 今以此二者塞所索 兄試思之 竟何如也

孫兒讀論語畢 能聯誦通大義 總賴賢師 蓋友勤誨深助也 意殊感之 具酒餠一卓 以慰勞之 幷邀里中諸賢 作一日暢會 仁兄不可不臨 玆委价仰告

明日卽家親周甲初度之辰也 貧不肖雖不能備陳甘肥 而尙略具壺觴以待高賓 伏惟光臨無孤懸望

詩朋之會 在近年未易有也 而適自四郡至六榻俱下 實盛會也 獨老兄不之顧 不惟滿坐顒望已也 夫豈有詩人會而老兄不在者乎 老兄聞之 亦以爲不宜爾也 式遄枉駕 是仰是乞

某友來僕所一宿 擬今朝訪足下 而脚力疲 頹床吟憊 要僕代陳甚欲足下之來顧也 且足下常以未晤此友爲悵悵 設現有他擾 一切揮之 卽枉駕如何

弟有仰質文義者 理當進去 而兄座接應殊煩 實無以反覆周悉 求其歸宿 幸勿曰無往敎而暫屈高駕 以破此惑焉

日前有以事俯詢者 其時出於倉猝 不知攸答 歸而深思之 若將了了於眼前 然非對晤難以盡其曲折 欲進告 則又有所掣碍者 倘不至甚忙 今夜可枉顧 庶悉其多少也

有人帶書簡至 就中有可觀者 欲買之 阮囊已空 欲携進兄所 則其人又恐爲景生私藁皆極可呵 雖百忙 一幷掃却 卽枉臨焉 不獨爲吾兄覽也 亦有合席商確而後可領會者 幸勿孤望焉

三春垂暮 無一日會合 人生匆匆 乃如是耶 過數日 紅紫將謝枝也 適家釀告熟 風香擁鼻可悅 不欲賞花一酌耶

三伏時 揮汗看書 已而笑曰 吾將受人直應人雇邪 仰首見前山染黛 風葉翻背 不覺眉軒 斯可以吐胸中齷齪氣矣 足下其有意共翱翔矣乎

金風灑落 玉露澄潔 籬下黃花已半笑矣 僕本不能飮酒 然意未嘗不欲引一大白 況足下眼空陶 令能不喉渴哉 辦一斗家釀 要足下一來傾盡 僕不妨作江州白衣耳

雪翩翩大如掌 千山萬谷 頃刻如白玉一鋪 世間一切色相 無靑紅黃黑巨細豊薄 混混都在鴻濛初 快哉快哉 以吾兄巨飮大作 當此時 左手持螯 右手浮白 向空一吟 則當驚動天上人矣 吾家有一甕酒 可亟來試之否

紅紫穠郁 淺深相間 如剪錦彌錯掛樹枝 和風習習 吹人衫袖間 此時可無一暢懷飮 方呼童洗甓 臨小溪上遲 足下臨之

殘花散綺 嫩草如茵 聽子規聲 無計留春 乃取酒滿大壺 向林深處 爲東君一餞 念非兄

莫與共之 然但無佳肴 只有一楪羊踏蔬 能不嫌 卽今惠枉也

梅霖初霽 山翠飛滴 已命小奚拾枯枝 就溪上炊 雲子白矣 洗手取三五掬 和隨下咽 此宜名眞率飽 仍負手向翠樾間 散吟隨所 得掃倉苔題石上 此宜名眞率詩 足下肯來嘗此味 遣此與乎

晩凉就柳陰下 垂釣得一魚長大許 歸囑家人飛刀作銀縷 今夜當有明鏡飛天上 擬擬兄踞堂前苔石靑松落陰 倒樽中對唱一首漁父詞

澄江一碧 天宇四垂 遊魚上下 水光瀲湧 取沙棠 載壺酒 乘月泝洄 詠蘇翰林赤壁賦 公有意與我辦此事否乎

秋霜未厚 竹色淨碧 可悅橫騎藤杖 坐嘯其間 惟足下可領會此趣 請卽過我 我有一器骨董肉羹 可相對大嚼也

取梅梢上雪 煎兒橘雀舌茶 就石下泉上叩氷 鏗然作聲 有自然音節 淸新灑落 不可獨享此樂 思與老兄共之

면(勉)

지금은 천하가 권세와 이익을 숭상하여 사람들이 입만 열면 독서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해우(海宇 : 四海)의 모든 나라가 실사(實事)만을 옳게 여기고 저 독서에 힘쓰는 것을 다만 소용없는 헛된 얘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접 때에 조정에서 과거시험으로 사람을 뽑을 때 독서하는 자는 문사(文辭)에 솜씨를 발휘하여 담당관원의 요구에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소용없는 헛된 얘기로 실사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임기응변에 힘쓰는데, 독서하는 자는 마땅히 부국강병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 이것은 곧 임기응변으로 실사를 삼는 것입니다. 무릇 어찌 두 개의 도(道)가 있겠습니까? 다만 사용하는 것이 어떠하냐 일 뿐입니다. 족하가 요즘에 아들과 조카를 면려(勉勵)하기를 독서로써 아니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인도하는 방도가 아닙니다. 청컨대 다시 심사숙고해주십시오.

형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적심(赤心)을 미루어 그 마음 속에 놓는다 하는데, 충(忠)의 지극함이 아니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우가 심안(心眼)[303]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몰래 탄식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는

데, 형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여 일에 임해서는 그 잘못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서(恕)에 있어서 미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충(忠)과 서(恕)는 항상 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충(忠)한 자는 반드시 서(恕)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때로 서로 반대되는 것도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나의 충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과 같기를 구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성을 내니 이것이 서(恕)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충이 미진할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직 서가 미진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후에 충과 서가 항상 서로 말미암게 되어 천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형은 어떻게 여깁니까?

형께서 어젯밤에 새벽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고 들었는데, 아침에 몸에 이상이나 없으신지요. 술은 대우(大禹) 때부터 있었고, 성주(成周)[304]의 융성한 시기에도 제사와 연음(燕飮)에 술을 사용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렇다면 반드시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가 과하면 작게는 몸가짐을 그르치고 크게는 본성을 해치니, 삼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무릇 술을 마시면 잠시 사이에 홍조(紅潮)가 얼굴에 오르는데, 이것은 기혈(氣血)을 동요케 하는 것이 그만큼 빠르다는 것입니다. 몸을 조리하는 자는 더욱 마땅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 같이 청수(淸瘦)한 자야 몸가짐을 잃거나 본성을 해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술을 지나치게 마셔야 되겠습니까.

형은 큰 병을 치뤄 아직 진원(眞元)이 보충되지 않았는데 노름에 빠져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까? 전해준 사람이 지나친 것이겠지요. 어찌 형의 고명(高明)[305]에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무릇 노름이라는 것은 이김을 구하는 놀이입니다. 그 시작이야 놀이에서 나오지만 그 끝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이기려는 데만 마음을 씁니다. 그리하여 이기려는 마음이 성하게 되면 심화(心火)가 동합니다. 그리고 이기려다가 이길 수가 없으면 분한 기분이 일어나고, 분한 기분이 일어나면 쓸개즙이 소진됩니다. 더욱이 잠까지 자지 않으면 즉 피가 비장(脾臟)으로 돌아오지 못하여 비장이 약해집니다. 심화(心火)가 동하고 쓸개즙이 소진되어 비장이 약해졌는데 진원(眞元)이 패(敗)하지 않을 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형께서는 삼

303)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육안(肉眼)'의 대(對).
304) 중국 주(周)나라 성왕(成王) 때를 말한다. 주공(周公)이 성왕을 도와 문물제도를 정비하여 주나라 번성의 토대를 닦은 시기였다.
305) 뜻이 고상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말함.

가 경계·반성하여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논함에 재주와 학문이 어떠한가를 묻지 말아야 한다. 재화와 여색에 사역되지 않을 수 있으면 이러한 자는 이미 중인(衆人)의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사람 중에 재화에 대해서는 담담하면서 여색에 대한 정(情)을 끊지 못한 자가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천성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능히 염빈(廉貧)의 분수에 밝은 자는 재화 때문에 자신의 지킴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색만은 단지 눈만을 즐겁게 할 뿐만이 아닙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천지음양(天地陰陽)의 기가 감응하기 때문입니다. 정에 감응하여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최상의 것은 정을 없애는 것이요, 그 다음은 그것을 잊는 것이요, 또 그 다음은 그것을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재하는데는 방법이 있는데, 내 마음이 하늘에서 받은 것과 우물(尤物)[306]이 사람을 패(敗)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가볍고 중한 것을 비교하여, 중한 것이 가벼운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면, 비록 정을 잊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형은 재화에 대해서는 평소에 담담하기에 저의 권면(勸勉)을 올릴 것이 없거니와, 오직 여색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것을 제재할 줄 모릅니다. 생각건대 아직 그 방법을 얻지 못해서인 듯 합니다. 형이 저것을 중시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알기에 이러한 말씀을 올리니, 사용하여 여색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회포가 광대해야 세상의 많은 일을 잘 다스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제갈무후(諸葛武侯 : 諸葛亮)는 삼대(三代) 이후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명한 곳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회포가 광대한 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의 생각을 집대성할 수 있었으니, 만약 회포가 광대하지 못하여 그 마음이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하의 사람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개보(王介甫 : 王安石)는 재주와 식견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천하의 일을 그르친 것은 회포가 광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형이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을 보니 때때로 목소리와 얼굴빛이 모두 사납고 노기를 띠었는데, 회포가 아직 광대하지 못해서 그러했던가 합니다. 원컨대 형은 제갈무후의 광대함을 배우시고 왕개보의 자기 의견을 고집한 태도를 행하지 마신다면, 무슨 여러 일을 구제

306) 원래 가장 훌륭한 사람을 뜻하였으나, 후세에는 미인(美人)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단지 여색의 의미로 쓰였다.

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곧은 도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이치를 좇아 간사하고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치를 좇는 사람은 곧음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되지만, 이치를 좇지 않으면 곧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굽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왕과직(矯枉過直)[307]도 곧게 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남이 꺼리고 피하는 것을 범하여 곧음을 파는 데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형은 천성이 경직(鯁直)[308]하시니 어찌 곧음을 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직 말씀이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종종 남이 꺼리고 피하는 것을 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아우가 깊이 근심하여 이런 말씀을 올리는 까닭입니다. 무릇 경(敬)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의(義)로써 밖을 방정하게 해야 합니다. 의란 일을 만남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적의(適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이 꺼리고 피하는 것을 범하는 것은 일에 있어서 적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 형같이 고명한 자가 이것을 살피지 못하겠습니까. 군자가 도를 행함에 것은 비록 자신의 화복(禍福)을 돌아보지 않습니다만 또한 불그락 성을 내어 용서하지 않고 남을 저촉해서도 안됩니다. 성인이 말씀하기를 "행동은 높게 하고 말은 공손하게 한다"[309]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컨대 형은 숙고하시어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勉

當今之時 天下尙權利 人開口說 讀書將焉用 海宇萬國 惟實事之是 務彼讀書者 特浮談耳 此言大謬 向時朝廷 以科藝取人 讀書者能巧於文辭 以中有司之求 是固以浮談爲實事也 若今世務權變 讀書者宜講富强之術 是則以權變爲實事也 夫豈有二道哉 顧用之何如耳 聞足下近日 不勉子侄以讀書云 甚非所以導誘也 請更三思焉

兄待人 輒推赤心 置其腹中 非忠之至 豈能然乎 此弟之所心眼而願學焉 竊有所歎惜者 兄所求於人甚備 臨事不能容其過 此恕有所未盡也 夫忠恕常相因 故忠者必恕 然亦有時而相反 其故何也 以己之忠 求人之必如吾求 而否也則怒 此其所以不能恕也 於此有術焉 於己也 惟恐忠之未至 於人也 惟恐恕之未盡 如是而後 忠恕常相因 而天

307)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치어 오히려 나쁘게 됨을 말함.
308) 뜻이 굳고 곧음.
309) 『논어』「헌문(憲問)」에 보인다.

下事無不可爲矣 兄以爲何如

聞兄昨夜達曙飮酒云 朝來得不損節耶 酒自大禹時有之 成周之盛 祭祀燕飮 莫不以之 則不可謂必不當飮也 然飮之過 則小而失儀 大而戕性 不可不愼也 凡飮酒也 不一刻而紅潮上面 是其搖動氣血甚速也 攝身者尤當小心 以兄淸羸 借不失儀而扶性 豈宜飮之過邪

兄大病之餘 眞元未充 而聞寓癖於賭枝 至有竟夜不寐云 其信然乎 抑傳之者過也 豈以兄之高明而有是也 夫賭枝者 求勝之戲也 其始也 出於戲 而其終也 專意乎求勝焉 勝心熾 則心火動矣 求勝而不能勝 則憤氣作 憤氣作 則膽汁消 重之以不寐焉 卽血不歸脾 而脾臟弱矣 心火動 膽汁消 脾臟弱 而能不敗眞元者 未之有也 兄其不惕然警省幡然而改乎

論人勿問才學何如 能不爲貨色所役 斯已出衆人之上矣 人有淡於貨 而不能斷情於色 其故何也 天性恬靜 能明乎廉貪之分者 不以貨擾其守矣 惟色非獨悅乎目也 男女相愛 由於天地陰陽之氣之感 感于情而觸之目 是以未易制也 雖然 太上無情 其次忘之 又其次乃制之也 制之有術 以吾心之所以受諸天與尤物之所以敗夫人者 較其輕重 能使重者 不欲爲輕者所奪 則雖不能忘情 而可以制之矣 兄於貨固淡焉 不足進吾勉 而獨於色 尙未能制之 意者未得其術乎 知兄之非重彼而輕此者 故進斯說 用以爲制之之術矣

人須懷抱廣 能濟世間多少事 諸葛武侯三代後第一人 人人無異辭 然其高處不在他 惟懷抱廣耳 是以能集衆思以成其大 若懷抱未廣 其中不能容一人 安能容天下人耶 王介甫非無才識 而以執拗敗天下事者 以懷抱未廣也 向見兄與人論議 時時聲色俱厲 得非懷抱之有未廣者乎 願兄學武侯之大 而毋介甫執拗之爲 則何患不濟多少事耶

人之所直道而行者 以其順理而不邪枉也 順理者 不求直而自直 不順乎理 則似直而實枉矣 故矯枉過直 不可謂直 況觸人忌諱以沽直乎 兄天性鯁直 豈或曰沽直乎 而惟言辭太激 故往往近於觸人之忌諱 此弟所以深憂而獻此說也 夫敬以直內者 必義以方外也 義者 遇事而宜乎宜也 觸人忌諱 非事之宜也 豈兄之高明而未及察此耶 君子行道 雖不顧禍福 然亦不當悻悻而不恤忤人也 聖人云 危行遜言 不其然乎 願兄熟思而深察焉

사사(謝思)

제가 이곳에 와서 머리를 뒤로 돌려 형이 계신 곳을 바라보니 단혼(斷魂)[310]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혜서(惠書)[311]를 살펴보니 형이 저를 생각하심이 나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남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마음은 이곳 저곳이 없는가 봅니다.

보내준 편지에 말하기를 "어젯밤 꿈에 서로 정겹게 손을 맞잡으려고 하려던 참에 닭울음소리에 깨졌다"라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때 아우도 꿈에서 형과 한 바탕 얘기를 나누려다가 하지 못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내가 가위를 눌렸기에 계속 흔들어 댔다고 합니다. 똑같은 정경이 자못 서글프게 합니다.

북쪽의 기러기는 자주 날아오는데 한 통의 서한도 없기에 형이 드디어 저를 잊으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참에 은혜로운 편지를 받아 읽고서야 비로소 형이 북쪽에 계시지 않고 동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럼에도 인편을 찾아 은근히 안부를 물어봐 주시니, 그런 후에 지난 번 형을 의심한 것이 아직 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었고 아우가 형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시를 지었는데, "생각이 깊으면 몸은 더욱 수척해지고, 꿈은 황급하여 원만히 말하기 어렵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참에 은혜로운 편지를 받아보니 "가보려는 것이 가까워서인지 말이 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척해 가는 몸을 펴서 살지게 할 수 있으니, 기쁨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혜서[寵翰] 서너 장을 받아보니 말씀에 마음이 실려 정감이 종이 위에 넘칩니다. 설령 무릎을 맞대고 다정스럽게 얘기한다고 하여도 이것보다 낫지는 못할 것입니다. 비록 편지에 능통한 자가 이런저런 곡절을 두루 풀어놓는다 하여도 평소에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심간(心肝)에 쌓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흘려 적셔주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여 가슴 속에 새김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인형(仁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면 저보다 지나친 자가 없습니다만, 인편이 있어도 떠나는 것이 너무 급해 혹 서너 마디 말로 평안함을 묻지도 못

310) 단창(斷腸)과 같은 뜻. 몹시 슬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절한 마음을 가리킨다.
311) 상대방의 편지에 대한 경칭.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인편이 있으면 편지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찌 그 사람들이 모두 급히 떠나야 할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형의 심력(心力)의 건장함이 원래 어렵고 쉬운 것을 개의치 않거나, 아니면 형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제가 형을 생각하는 것보다 갑절이 되기 때문인가 봅니다.

누차 욕되이 혜서를 보내주셨는데 한 번도 답장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편이 편지를 전해주자마자 급히 떠나버리거나 혹은 제가 공교롭게 집에 있지 않아 편지를 보낼 우역(郵驛)이 없었기 때문인데, 대체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찌 형이 모든 사정을 아시겠습니까. 장차 저더러 그리워하는 정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후로 편지를 한 것이 두 세 번뿐이 아닌데 한 번도 답장이 없으시니, 아마도 모두 중간에서 전해지지 않고 유실된 듯 합니다. 아우는 정이 많은 자입니다. 항상 천하의 철을 모아 철퇴 하나를 만들어 '사(思)'자를 깨부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내고서 답장을 받지 못하면 밤이 새도록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마침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것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인가 합니다.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 정(情)이고, 정(情)에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막힌 것이 오래되었고 길도 멀고 하여 간신히 한 명의 인편을 찾아 서너 장의 종이에 붓끝을 닳게 하면서 서로 그리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당연히 근근(勤勤)[312]하고 간간(懇懇)[313]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준 편지를 읽어보니 초초(草草)[314]한 서너 마디뿐이었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말한 없을 수 없는 것(情을 말한다)이 형에게 없거나,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그리움을 말한다)을 형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지요. 정이 깊으면 그리워지고 그리움이 절실하면 원망하고 원망함이 심하면 유감스럽게 됩니다. 아우는 이에 유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외람되게 혜서를 받은 것이 모두 다섯 차례나 되는데, 한 번도 답장을 받들어 올리지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무정한 것이 아니라 대개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제 여섯 번째 편지에서 아우를 대신하여 일일이 그 까닭을 알아주신 것이 마치 눈으로 직접 보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형이 멀리서 보고 멀리서 듣는

312) 부지런하고 공손한 모양.
313) 매우 간절하고 지성스러운 모양.
314) 바빠서 허둥지둥하는 모양.

것이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안이통(眼耳通)[315]인가합니다. 어찌도 그리 신통합니까. 평소에 아우를 살핀 것이 자세하고 아우를 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니, 가히 정신적인 사귐[神交]이라고 말할 만 하겠습니다.

아우는 무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 번 형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사람의 오내(五內)[316]를 감동시켜, 마치 이 몸이 일찍이 천하에 이 정(情)이란 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謝 思

自我來此 回首瞻望 若將斷魂 審惠書 知兄之念我 與我一般 雖身在南北 而心無彼此也

來書云 昨夢方握手款款 被鷄聲來壞 豈知是時弟亦夢兄轟談未暢 傍人謂我是壓 攪之不已 同一情境 殊足悵恨

北雁頻來 而無一帛繫者 謂兄遂忘之也 奉讀惠翰 始審兄不在北 轉而向東 然猶尋便慇懃賜存 然後覺向之疑兄 爲未知兄 而弟不及兄遠矣

方得句云 思深身轉瘦 夢遠語難圓 此際承惠翰云 枉顧在邇未圓之語 可以暢欲瘦之身若將肥 何喜如之

承寵翰累幅 辭與意暢 情溢紙上 卽促膝晤言 若無以過之 雖詞翰之工 周於曲致 而非夙昔眷念積于心肝 何以流注若此 感鐫不可量

居常謂愛念仁兄 無有過我 而遇有便人 發甚匆遽 或不能裁數語問平安 而兄則未有有便而無書 豈其人擧無匆遽發者耶 殆兄心力之壯 元無難易也 抑兄之愛我 倍蓰於我之念兄也

屢辱惠書 而幷未修謝 或由便人纔傳函卽遽發 或値身不在家 更無致書之郵 蓋未有無故然者 然豈兄周悉之哉 將謂我無情思也

前後修函 非直二三 而無一賜覆 意者其皆喬沈也 弟多情者也 常謂收天下鐵做一椎打破個思字不得 是以傳送一書 不見其答 則連宵不能接眼 欲不爾而終不能不爾 是亦不可醫之病也

---

315) 눈과 귀의 신통력(新通力) 즉,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한다. 『구사론(俱舍論)』에 보인다.
316) 사람의 오장(五臟)을 말한다.

人之不能無者 情也 情之不容不然者 思也 阻久矣 道遠矣 艱辛搜索一便人 累紙幅弊毫尖 道相懷之意 勤勤懇懇 而及奉惠覆 草草數語而已 豈向所謂不能無者 兄則無之 不容不然者 兄則不然耶 情之深者思 思之切者悵 悵之甚則憾 弟於是乎不能無憾也 辱惠書凡五度 而一未奉答 非無情也 蓋不遑也 賜第六書 代弟歷悉其所以然 若目擊然 豈兄能遠見遠聞 如釋家所謂眼耳通耶 何其神也 其平昔察弟審知弟明 可謂神交也已

弟非無情人也 然每讀兄書 感動人五內 覺此身未嘗知天下有此情字在也

사신(謝訊)

아껴주시는 편지를 매번 먼저 보내시니, 부끄러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칩복(蟄伏)[317]함으로부터 감히 친구들의 문안을 바라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물어오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세태(世態)에 대하여 괴상히 여길 것도 없겠지만, 오직 족하만은 시종 두 가지 태도를 가지지 않고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물어주니, 독서의 힘은 참으로 속일 수 없는가 보오. 나는 용렬하고 비속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크게 부끄럽습니다.

궁색한 마을에 어떤 사람도 찾아와 안부를 묻지 않는데, 욕되게 혜서를 자주 보내시고 말씀하신 뜻도 간절하여 사람을 감격시키므로 거의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소식을 전하려 사람을 보내려고 해도 도모지 인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편지를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이 4~5 차례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혜존(惠存)[318]을 받은 것이 2~3 차례에 이르니, 인형(仁兄)의 심력(心力)의 건장함이 사람을 감격케 하고, 특히 아우가 나태하여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욕되이 안부를 묻는 편지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아직도 한 통의 답장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공교롭게 몸이 집에 있지 않거나, 혹은 편지를 전하는 자가 급히 떠나거나, 보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로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송구할 뿐입니다. 이제 또 서찰을 보내 주셨는데 말씀이 간절할수록 그

317) 숨거나 틀어박혀 나오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18) 혜서(惠書)와 같은 말.

뜻도 더욱 후중합니다. 제대로 견줄 수도 없는 국량인 제가 평범하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감탄해 마지않습니다.

아우가 산수를 유람할 때 지팡이 하나와 전대 하나만을 둘러서 행색이 초라하여 이웃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개(專价)[319]가 전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은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저를 사랑하는 것이 깊어 신령스러운 기운이 묵묵히 비춰주었던가 봅니다.

때나 기다리는 벌레요 글자나 먹는 좀이 본래 우러러 수감(水鑑)[320]을 더럽힐 수 없는데, 참으로 후세에 전할만하다고 하시는 혜장(惠奬)을 받고 보니, 고루한 아우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받은 편지에 겨우 답장을 했는데 오늘 또 편지가 오니, 만약 편련(翩聯)[321]하기가 이와 같다면 어찌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지 않은 것을 한스러워 하겠습니까. 하물며 말씀이 향기롭고 뜻이 넉넉하여 사람의 마음 속을 탁 트이게 해 주시니, 비록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눈다 하여도 어찌 이것보다 낫겠습니까. 다만 의범(儀範)[322]을 접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펴놓고 읽어보면 원만하고 두루함이 있어서, 때로 형의 수염과 눈썹이 위엄이 있으며 풍채가 상쾌하고 명랑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형의 배우기를 좋아하심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비록 매우 바쁜 중에 간단한 서너 마디로 쓴 글이라도 반드시 결미에 이것을 언급하되, 한 줄이든 반 줄이든 개의치 않으시고 아직 변별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변별하려 하시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훌륭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실로 남에게 배우기를 꺼려서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한 것을 가리고 마치 그것을 알고 있기나 한 듯이 행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끝내 고루함에 빠질 뿐입니다. 남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을 속이는 것뿐이겠지요. 그러한 자들은 국량이 얕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뜻도 작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뜻을 형과 같게 한다면 어찌 기꺼이 자기를 속이려 하겠습니까.

인정(人情) 중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병이 깊은 때입니다. "옛날 비가 올 때

319) 어떤 일을 위하여 특별히 사람을 보내는 것. 전인(專人)과 같은 말이다.
320) 정지된 물처럼 모든 것을 정확히 비춰볼 수 있음을 비유한 것. 『장자(莊子)』「덕충부(德充符)」에 보인다.
321) 잇대어 끊어지지 않은 모양.
322) 원래 뜻은 예의범절의 본보기이지만, 여기서는 예의에 맞는 몸가짐 정도의 뜻으로 쓰였다.

는 찾아오는 이가 있더니 지금 비가 오는데 찾아오는 이가 없구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두소릉(杜少陵 : 杜甫)이 자신의 심정을 문자로 형용한 것입니다. 어찌 그의 헤아림이 얕고 협소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막 아우가 쇠하여 아파 신음한 처음에 형이 이미 왕림해주셨고, 연이어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주시니 거의 서로 마주보는 듯하였습니다. 아우는 혼미한 중에서도 때로 한 번 탄식하게 되는데, 대개 붕우간의 우의(友誼)가 돈독해서 일 뿐이 아닙니다. 형의 인후(仁厚)하고 측달(惻怛)한 성품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다만 감사할 뿐이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평생토록 받아 사용할 심법(心法)으로 삼겠습니다.

형이 쓰신 혜서[筆翰]의 아름다움은 아우가 유독 지금에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혜서[惠札]는 더욱 놀랍고 절묘함을 느낍니다. 곧 관대(冠帶)를 갖추고 향을 피우고 꿇어앉아 편지를 읽었습니다. 일찍이 문자를 살펴봄에 예스러우면 너무 담박하여 세속에서 기뻐하지 않으며, 농(濃)하면 곧 세속적이어서 지자(知者)는 취하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짐작하여 글을 쓰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이 편지만은 조화롭고 두루하여 인정(人情)을 곡진히 표현하여 색상은 창연(蒼然)하지만 깊숙하며 소리는 완만하지만 멀리까지 들리니, 단연코 양경(兩京 : 兩漢) 이후의 언어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을 수 있는지요. 원컨대 인형(仁兄)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謝 訊

承寵問 每在於先 慚悚不可量

自蟄伏來 不敢望故人問 故人亦不肯問 世態無足怪 獨足下始終不二 有便必賜存 讀書之力不可誣 僕之庸陋不足當此 此大可愧

窮巷無人來問 辱惠書翩翩 辭意又懇懇 令人感激 幾欲隕涕

修函馳問 非甚難事 而寄聲專足 幷若無人 擬而未果 不翅四五 而蒙惠存至於再三 仁兄心力之壯 令人感服 尤覺弟之懶怠不足爲也

蒙辱存屢矣 而尙稽一謝 或値身不在家 或由傳書遽發 亦復專足無人 蓋無無故然者 然悚仄極矣 今又賜札 辭愈懇而意愈厚 不較之量 非尋常所測度 感歎無已

弟作山水遊 一笻一蓑 行色蕭蕭 隣人未之知矣 才還家 輒承專价之問 兄何以得聆 豈愛

我之深 神氣默照也

應候之蟲 食字之蠹 本不足仰塵水鑑 而蒙惠奬 若眞可以傳諸後 弟之固陋 何足以堪之

昨存纔謝 今訊又至 使翩聯如是 何恨不面晤 況辭罔意足 令人心胸洞豁 雖面晤 何以過此 惟未接儀範爲可恨 然當展讀 圓融暢洽 時悅見兄鬚眉稜稜風神爽凉也

甚矣 兄之好學也 雖極匆擾 草草數語之書 必尾及乎此 不拘一行半行 惟要辨其所未辨 蓋不如是不足以有爲 世固有諱學於人 掩其未知而若固知之者 是卒於固陋而已 人豈可欺 適足自欺也 彼不惟量淺 卽志小也 使其志如吾兄 寧肯自欺也

人情之最難堪者 疾病時也 舊雨來人今雨不來 此杜少陵之所以形諸文字 豈其量淺狹而然哉 方弟委吟之初 兄旣已枉顧 嗣是而馳价垂問 幾乎相望 弟於昏迷之中 時一歎服 蓋非惟友朋之誼是篤也 卽仁厚惻怛 出自天性 寧直感謝 且將爲生平受用之心法也

兄筆翰之美 弟非獨而今而知之 而今來惠札 尤覺警絶 乃具冠帶 焚香跪坐而讀之 嘗見文字 古則太淡 世所不喜 濃則便俗 知者不取 斟酌二者 極是難事 而惟此調暢周洽 曲盡人情 而色蒼而深 聲緩而遠 斷非兩京以後語 未知何以則得如是 願仁兄詳教之

사하(謝賀)

어린 티도 아직 못 벗었는데 별안간 아버지의 호칭이 있게 되었습니다. 와서 축하하는 자를 만나면 금새 얼굴이 벌겋게 됩니다. 그런데 형도 편지를 보내와 축하를 해주십니까.

산발(蒜髮)[323]이 설기설기한데 비로소 사내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굽혀 셀 정도의 세월이 흘러 성장하면 아우는 상수(上壽)[324]에 오릅니다. 생각하면 망연하여 형의 축하를 번거롭게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후사가 있게 되어 큰 불효를 면하게 되었으니, 이 점에서는 만 번 다행한 일입니다. 마땅히 형의 축하가 있을 만하기에 삼가 절하여 받아들입니다.

잇달아 딸 셋을 낳아 집사람에게 우물을 돌면서 그림자를 보게 한 것[325]이 몇 차

323) 흑백(黑白)이 서로 섞여 있는 머리털.

324) 나이가 많은 것을 이르는데, 100세, 120세, 90세라는 설이 있다. 여기서는 나이가 많은 것을 뜻한다.

325) 『박물지(博物志)』에 의하면, 부인이 임신한 지 3개월이 차지 않은 자가 남편의 의관을 하고 우물을 따라 세 바퀴를 돌면서 그림자를 보고 되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례나 됩니다. 이제 요행히 웅비(熊羆)[326]의 꿈과 맞아떨어졌는데 천하에 제 혼자만 이것을 얻은 듯합니다. 이런 차에 형의 축하 편지가 이르렀으니 이것도 이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축하하게 됩니다.

누차 훼사(虺蛇)[327]만을 꿈꾸었더니 이제야 농장(弄璋)[328]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인(古人)이 '아들이 있으면 만사가 족하다'라고 한 말씀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형의 축하가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늙어서 아들은 낳으니 문득 백향산(白香山 : 白居易)의 "천 가닥 흰 귀밑털 아비는 육순이네"[329]라는 구절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형은 우선 갑작스런 축하를 마시고 나를 위하여 백성(白星)의 "별이 변하여 푸른 실과 같네"라고 한 것처럼 되기를 바래주었으면 합니다.

사내아이를 낳은 것을 축하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울러 아름다운 벼루까지 보내주시니, 어린애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중한 것 아닙니까. 지극히 감명하여 저도 모르게 소제(小題)를 말하고 크게 붓을 휘두르는 듯합니다.

돈아(豚兒)[330]가 비로소 벼슬길에 들었으니, 이것은 인신(人臣)으로서 입신출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재주와 식견이 모두 짧으니 아비된 자로서 황감(惶感)할 뿐입니다. 오직 형만이 이 아이가 직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니, 만약 과연 그러하다면 어찌 깊이 다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그막에 벼슬길에 나아가게 된 것은 부득이함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과거(科擧)를 통해서 출신(出身)한 것이 아니니, 어찌 수고롭게 성대한 축하를 주실만 하겠습니까. 다만 기대하신 것이 지나치게 바란 것이요, 실지는 권면(勸勉)해 주신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목(字牧)[331]의 임무는 정사(政事)에 재주가 있는 자가 아니면 불가하고, 아우는 이것에 심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듣자하니, 이 군은 군무(郡務)가 매우 번잡하다 하니 미리 다스릴 것을 생각하면 몹시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형은

---

326) 곰은 힘이 세고 양(陽)에 속하는 짐승이므로, 꿈에 그것을 보면 남자가 태어날 꿈이라고 한다.
327) 살무사나 뱀은 모두 음(陰)의 동물이므로, 꿈에 그것을 보면 여아를 임신한다고 한다.
328) 사내아이를 낳은 것을 비유한 말. 옛날 아들을 낳으면 장난감으로 장(璋)이란 옥(玉)을 준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329) 백거이의 「곡최아(哭崔兒)」에 보인다. "구슬을 가지고 노는 아이는 세살인데, 천 가닥 흰 귀밑털 아비는 육순이네"(掌珠一顆兒三歲 鬢雪千莖父六旬)
330) 돼지처럼 어리석은 자식이란 뜻. 자기 자식에 대한 겸칭이다.
331) 원이 백성을 사랑하여 다스린다는 뜻. 자신이 군수의 직책을 맡았음을 말한다.

조금이나마 평소에 마음에 품은 것을 시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니, 아마도 평소의 면려(勉勵)해 주신 뜻인가 합니다.

순선(旬宣)[332]은 중대한 임무이고, 방면(方面)[333]은 큰 판국입니다. 어찌 아우같이 노둔하고 열악한 재주가 능히 직분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명을 받자온 이래로 밤낮으로 걱정스럽고 두려워하면서 부임한 뒤에 감로(甘露)와 가화(嘉禾)는 반드시 바라지 못할 것이지만 다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하기를 종각(宗慤)[334]과 같이 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편지에 배운 것을 어기지 말라는 것으로써 면려해주시니 참으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조정으로 돌아온 날에 마땅히 축하의 편지가 있으리라고 기약해주시니 참으로 축하의 격식도 안다 하겠습니다. 감명하고 감명합니다.

은자(恩資)로 바르게 승진하니 지극히 감축드리되 또한 절실히 명승(冥升)[335]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분수가 아닌데 별안간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재주가 부족한데 임무가 막중하니 남우(濫竽)[336]의 부끄러움과 복속(覆餗)[337]의 경계가 마음 속에 교차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평소 임우(霖雨)[338]의 자질이 부족한데 외람되게 정내(鼎鼐)[339]의 반열에 있게 되었

---

332) 사방을 널리 복종시켜 왕명(王命)을 두루 편다는 뜻.

333) 분야 또는 영역이라는 뜻. 여기서는 큰 고을이라는 의미이다.

334) 중국 남조(南朝) 송(宋)나라 때 사람. 자는 원간(元幹)이다. 원가(元嘉) 연간에 진무장군(振武將軍)에 임명되어 임읍(林邑)을 정벌하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코끼리로 저항함에 사자상을 만들어 방어하자 코끼리가 모두 도망하였으며, 임읍은 보배가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조금도 범하지 않았다. 누천(累遷)하여 예주자사(豫州刺史)에 이르렀다. 조양후(洮陽侯)에 봉해졌다.

335) 『주역』「승괘(升卦)」 상육(上六)에 보이는 말로 "오르는데 어두이니 쉬지 않는 바름이 이롭다" 는 말이 있다. 이것에 대해 주희(朱熹)는 "음(陰)으로써 승괘의 끝에 자리잡아 어둠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 점자가 이것을 만나면 어디를 가든 이로울 것이 없다. 다만 밖의 것에 그치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서 쉬지 않는 바름에 베풀 따름이다"라고 주하였다.

336) 함부로 분다는 뜻. 남취(濫吹)와 동의어로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외람되어 높은 자리를 차지함을 말한다. 제(齊)나라 선왕(宣王)이 우(竽)라는 피리를 좋아하여 악공 삼백인을 불러 이 우(竽)를 연주하게 하였는데, 남곽(南廓)이라는 자가 피리를 불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함부로 피리를 불어 한 때는 속여 넘겼으나, 민왕(湣王) 때에 이르러 한 사람씩 불러서 불어 보게 하였기 때문에 남곽이 드디어 도망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337) 중임(重任)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 것을 말한다. 『주역』「정괘(鼎卦)」 구사(九四)에 "솥이 발이 부러져서 공상(公上)에게 바칠 음식을 엎었으니, 그 얼굴이 무안하여 붉어짐이니, 흉하도다"라고 하였다.

338) 사흘 이상 내려 해갈(解渴)시키는 비. 은택(恩澤)의 의미로 사용된다.

339) 솥과 가마솥을 가리킨다. 원래는 재상(宰相)의 지위를 비유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관직에 나갔음을 비유한 것이다.

으니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 편안히 잠자리도 들지 못합니다. 형의 고명(高明)한 학식으로 마땅히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축하를 하십니까.

나이가 이미 환갑인데 고인이 말씀하신 삼불후(三不朽)[340]에 있어서는 하나라도 일컬을 것이 없으니 광음(光陰)을 저버린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어찌 형의 축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두려운 마음과 구릉과 같은 축하는 사람 자식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인형(仁兄)의 사랑과 후한 선물을 받으니 감사함이 골수(骨髓)에 스며듭니다. 우러러 어떻게 감사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엄(家嚴)께서 회갑에 경하하는 것은 고례(古禮)에 상고할 곳이 없다 하시고 잔치를 열지 말고 단출히 술자리를 마련하여 이웃 향곡의 기로(耆老)나 불러 대접하라고 경계하였습니다. 이런데 감히 융성한 예물을 받아 부친의 가르침을 위배하겠습니까. 삼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오니, 우러러 바라건대 살펴주십시오.

자모(慈母)의 은혜가 깊기에 걸핏하면 사랑만을 믿었습니다. 사사로이 평소의 행동을 생각해보니 등에 땀이 맺힙니다. 이제 잔을 들어 축수하는 날을 맞았다는 구실로 하루의 즐거움이나 꾸밀 줄 안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불효를 속죄할 수가 없을 것이요, 그럼에도 보내주신 성대한 물품으로 봉양하는 것은 심히 형에게 바란 바가 아닙니다. 지극히 부끄러우니 감히 절하여 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양친이 모두 장수하는 것은 사람 자식으로서 드물게 만나는 경사입니다. 가난 때문에 기쁨을 꾸밀 길이 없었는데 특별히 효도하라고 격려하신 은혜를 입고 이러한 분에 넘치는 선물도 받게 되었으니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명함이 어찌 다하겠습니다.

대부모(大父母)[341] 회근(回巹)[342]의 날은 실로 사람이 당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천지 사이에 어떤 기쁨이 이것에 비교하여 만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감사하게 살펴주신 것을 받아 늘여놓고 크게 잔치하여 문미(門楣)에 빛이 생기게 함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더욱 스스로 축하하고 훈풍에 절하여 감사드립니다.

돈아(豚兒 : 家兒)가 학문에 독실히 공부를 하려 않으니 재촉하면 은혜를 상할까 두렵고 늦쳐주면 때를 놓칠까 근심스럽습니다. 족하께서 독책(督責)해 줄 것을 바랬

340) 영원히 썩지 않는 세 가지 즉, 입덕(立德)·입공(立功)·입언(立言)을 말한다.
341) 조부모를 말한다.
342) 회혼(回婚)과 같은 말. 혼인한 지 61일년 째 되는 해를 말한다.

는데 풍화(風花) 한 두 마디의 말을 가지고 취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여 참으로 서로 축하해주는 듯 하시니, 어찌 이 마음을 굽어 살펴주신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형께서 내가 책을 구매한 것을 축하해주고 또 나를 넓은 것에 힘쓰라고 경계해주시니, 나를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이러한 주밀한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유내각(劉內閣)은 문학(文學)에 강건하여 대강(大綱)을 잡았고, 구경산(邱瓊山 : 丘濬)은 넓은 것이 한 시대를 경도했습니다. 유씨는 구씨를 평하여 "창고 가득한 돈을 실로 꿰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구씨는 유씨를 평하여 "실은 있는데 꿸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우가 일찍이 생각해보니, 돈이 없기보다는 차라리 꿰지 못한 것이 낫습니다. 때문에 책을 구매한 것이 제법 넓었는데 보관해 둔 것이 얼마 되지 못하니, 비록 넓은 것을 힘쓰고자 한들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감히 바로잡아주신 말씀을 복응(服膺)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謝賀

童習未除 遽有人父之稱 見來賀者 方且辭發于顔 而兄又馳書賀之邪

蒜髮種種 而始擧男子 子屈指數居諸 待渠成長 弟且登上壽矣 思之茫然 不足煩兄賀 而從此有後 可免大不孝 是則萬幸 宜有兄一賀 謹拜受矣

連生三女 欲令家人繞井視影者 屢矣 今而幸叶熊羆之夢 若天下我獨得此 而兄之賀書又至此 亦前所未有也 不覺自賀

屢夢虺蛇 今焉弄璋 古人所謂有子萬事足 正爲吾準備之也 兄之有賀 不亦宜乎

老而生子 却憶白香山鬢髮千莖父六旬之句 不覺失笑 兄且勿遽賀 爲我願白星星者變化如靑絲 可也

賀生男宜矣 而幷賜佳硯 期待孩兒 無已太重邪 感銘之極 不覺道小題大着筆也

豚兒始仕 是人臣出身之路 而渠才識俱短 爲其父者 方且惶感 獨兄書謂此兒足以耐職倘果爾 豈不幸甚

垂老筮仕 出於不得已 又非由科第而出身 何足勞盛賀 但期待過望 實是勸勉 此宜何可忘

字牧之任 非有政事之才不可 而弟甚短於此 且聞此郡郡務頗劇 預思剸理 方切憂懼而兄乃以爲少試蘊抱 則豈是平昔勉勵之意邪

旬宣重任也 方面鉅局也 豈如弟駑劣之才所能稱職哉 自拜命來 夙夜憂懼 以爲下車之後 甘露嘉禾不必望 但爲國竭命如宗慤耳 及奉兄書以不負所學爲勉 眞知我心矣 又期以還朝之日 當有賀書 其眞知賀體哉 感銘感銘

恩資驟晉 感祝之極 還切冥升之懼

匪分驟陞 才疎任重 濫竽之慚 覆餗之戒 交縈于中 靡所措躬

素乏霖雨之資 猥叨鼎鼐之列 匪榮伊懼 不遑寢處 以兄高明之學 宜有所教 乃反賀爲

年已周甲 而古人所謂三不朽者 一無稱焉 有負光陰大矣 惡足受兄之賀也邪

喜懼之心 岡陵之祝 人子分所當然者 乃荷仁兄傾寵厚貺 感佩浹髓 罔知仰謝

家嚴以回甲稱慶 於古無稽 戒勿張宴 惟設酒醴 邀隣曲耆老而已 敢受隆儀 有違親教 謹此佈辭 仰希原燭

慈母恩深 動多恃愛 私惟平日 汗發于背 値玆稱觴之宸 藉能餘一日之喜 固不足以贖不孝 而乃荷盛什侈以能養 甚非所望於吾兄者 惶慙之極 不敢拜謝

兩親齊壽 人子罕値之慶 緣於傷貧 無以餘喜 特蒙推孝之惠 拜此溢分之貺 惶慚靡措 感銘何極

大父母回巹之辰 實非人家所應値 不知天壤之間 何喜可以比此萬一 況荷盛眷 鋪張以大作 令門楣生輝 尤庸自賀 向風拜謝

豚兒於學問不肯下篤工 急之恐傷恩 緩之慮失時 惟望足下之督責之 而以風花一二語謂有可取 若眞足相賀者然 豈俯燭此心也邪

兄賀我購書 又戒我以務博 非愛我之深 豈有此周至邪 昔劉內閣 健於文學 秉大綱 邱瓊山 則博洽傾一世 劉謂邱如一倉錢未貫緡 邱謂劉有一條繩無錢可貫 弟嘗以爲與其無錢 寧未貫也 所以購書頗廣 而所貯無幾 雖欲務博 不可得也 雖然 敢不服膺格論邪

사위(謝慰)

죄역(罪逆)이 깊고 중하여 어버이 상을 당하니 오장(五臟)이 무너져도 미칠 수가 없었는데 위로를 받게 되었으니 편지를 잡고 눈물을 짓게 됩니다. 이루 다 할 수 없는 애통함이 더욱 절실합니다.

죄가 깊은데 죽지 않고 이런 근심과 재난을 만났습니다. 위문을 받고 깊이 울부짖을 따름입니다.

위문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취지가 측달(惻怛)하며 아울러 부의(賻儀)까지 보내주셨으니, 정(情)과 예(禮)가 모두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속으로나 겉으로나 감읍(感泣)하여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喪)을 치르는 것을 위문함에 정(情)과 의(儀)가 모두 극진하니, 이마를 조아리며 감읍(感泣)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러러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환이 처음에는 그다지 중하지 않더니 며칠 사이에 갑자기 위급하여 창황(倉黃) 중에 조치를 그르쳐 백약이 무효하였습니다. 하늘에 돌봄을 받지 못하여 마침내 흉화(凶禍)를 만나게 되었으니 불효가 지극합니다. 다만 절실히 원망하고 울부짖을 뿐입니다.

예월(禮月)[343]이 급박한데 아직도 장례를 치를 곳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사람 자식의 심정이 이에 이르러 더욱 궁합니다. 위문을 받들고 더욱 망극함을 느낍니다.

하늘에 무엇을 죄졌길래 이리도 고달피 병들어 있는가.

완고하고 질긴 것의 심함에 거의 목석과 같게 되었네.

세월은 머물지 아니하고 대사(大事)는 이미 쇠하였네.

울부짖어도 미치지 못하기에 구차이 천식만 하는구나.

질기게 쿨럭거려도 죽지 못하고 어느덧 연기(練期)[344]가 되었네.

울부짖음도 새로운 듯하여 더욱 끝이 없도다.

연기(練期)도 홀연 지나가고 아침엔 고기를 먹고 곡(哭)도 멈추었네.

한 오라기 실처럼 완명(冥頑)하게 살아가니 이 어떤 사람인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구차히 세월이나 늘리고 있습니다. 대기(大朞)[345]가 어느듯 다가옴에 더욱 고독(苦毒)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력과 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사리에 어둡고 완고함이 심하다 하겠습니다.

한서(寒暑)가 홀연히 변하여 2년이 어느덧 지나가니 애통한 마음이 실로 인정으로서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절로 눈물만 떨굴 뿐입니다.

세월은 사마(駟馬)와 같아[346] 담월(澹月)[347]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예(禮)는 비록

---

343) 상을 치르는 달. 즉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달을 말한다.

344) 상(喪)을 치른 지 1년이 되어 소상(小祥)에 연복(練服)을 입는 것을 말한다. 소상이 지나면 곡기(穀氣)를 하고 곡(哭)도 멈추게 된다.

345) 대상(大祥 : 사람이 죽은 지 두 돌만에 지내는 제사)을 말함. 대상을 지나면 상례를 모두 마치게 된다.

346) 세월이 지나는 것이 사마가 끄는 수레처럼 빨리 지나감을 말한다. '사(駟)'는 네 필의 말.

347) 청담(淸淡)한 달이란 뜻. 어느덧 시간이 지나간 것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소식(蘇軾)의 「회상

어기지 못하겠지만 슬픔은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길제(吉祭)[348]가 어느덧 지나가고 관상(冠裳)도 일반인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신의 슬픔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문에 흉화(凶禍)가 있어 선조고(先祖考)가 홀연히 세상을 등지셨으니 애통하고 시린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위문을 받자오니 슬픔과 감사가 지극합니다. 그런데 가친(家親)이 연령이 이미 쇠하여 기력이 지탱하지 못한데 물과 곡기를 입에 넣지 않고 슬퍼 울부짖는 것이 절도를 넘습니다. 초조하고 절박함 심정을 어찌 이루다 말씀드릴 수 있으리까.

사문(私門)이 불행하여 세부(世父)[349]가 세상을 버렸습니다. 종사(宗事)를 생각하니 더욱 최통(摧慟)합니다.

아우는 태어나자 겨우 몇 년에 호시(怙恃)[350]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육(長育)과 성취(成就)는 오직 집안의 백부께 의지하였는데, 가문에 혹독한 흉화가 들어 홀연히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혈기를 함께 한 자의 상(喪)에 누구인들 애통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어찌 아우와 같이 견딜 수 없는 경우야 있겠습니까.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집안 아우에 죽음에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출중(出衆)한 우애(友愛)와 과인(過人)한 재학(才學)을 어디서 다시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형제간의 근심을 할반(割半)이라 하는데, 아우가 만난 경우엔 어찌 할반에만 그치겠습니까. 이 아우는 우리 형에 있어서 서로 계합(契合)한 것이 교칠(膠漆)[351]일 뿐만 아닙니다. 달을 넘도록 보지 못하면 거의 생병이 날 지경이었는데 이제 영원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지혜가 있다면 그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위문하는 편지를 받으니 참으로 목이 매어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중년에 배우자를 잃는 것은 사람의 불행한 일입니다. 그 의가(宜家)에 사람이 없음과 단현(斷絃)의 잇기 어려움은 지금 우선 말하지 말거니와, 응애거리는 갓난아기

조발(淮上早發)」에 "담월이 구름을 기우니 새벽 각적의 소리가 슬프고, 소풍이 물에 부니 푸른 비늘이 열린다"(澹月傾雲曉角哀 小風吹水碧鱗開)라는 구절이 있다.

348) 사람이 죽은 지 27일만에 지나는 제사. 대개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전(奠)을 올리고 우(虞)가 지난 다음에 제(祭)를 치른다. 따라서 예가(禮家)는 전(奠)을 상제(喪祭)라 하고 우(虞)를 길제(吉祭)라 하는데, 대개 점차 슬픔이 가시고 길(吉)로 나가기 때문이다.

349) 백부(伯父)를 가리킴. 세(世)는 대(代)를 잇는다는 뜻이다.

350) 믿고 의지함. 전(轉)하여 부모를 가리킨다.

351) 아교와 칠. 두 가지가 모두 물건을 붙이는 것이므로 교제가 친밀함을 이른다.

가 좌우에서 젖을 찾는 것은 어떻게 차마 보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謝 慰

罪逆深重 自丁荼毒 五內分崩 無所逮及 而伏蒙下慰 執書號泣 益切罔極之痛

罪深不死 遘此愍凶 伏蒙慰問 只切號叫

旣賜慰問 辭旨惻怛 幷施賻賵 情文備至 幽明感泣 罔知仰喻

問孤補喪 情儀兩盡 稽顙感泣 何以仰達

病患初不甚重 數日之間 猝然危劇 倉黃失措 藥餌無效 不吊于天 竟遭凶禍 不孝極矣 只切冤號

禮月將迫 尙未卜葬 人子情私 到此益窮 拜承俯問 愈覺罔極

何辜于天 惸惸在疚 頑忍之甚 殆同木石

日月不居 大事旣衰 叫號莫逮 苟延喘息

頑喘不死 遽當練期 叫號如新 益復罔涯

練期奄過 朝脯哭徹 一縷冥頑 此何人哉

當滅不滅 苟延歲月 大朞奄迫 愈覺苦毒 然而尙保視息 冥頑甚矣

寒暑倏變 再朞奄過 慨廓之痛 實非人情所可堪 只自隕泣而已

居諸若駟 澹月已過 禮雖莫踰 哀豈可盡

吉祭奄過 冠裳如人 終身之哀 其何能忘

家門凶禍 先祖考奄忽見背 摧痛酸苦 不自勝堪 伏蒙俯慰 哀感之至 而家親年齡垂衰 氣力不支 水穀不入口 哀號過節 情私焦迫 如何盡喻

私門不幸 世父棄世 言念宗事 尤極摧慟

弟生纔數歲 幷失怙恃 長育成就 惟舍伯是賴 而家門酷禍 奄忽喪逝 同氣之喪 人雖不痛 而豈有如弟之不可堪忍者乎 痛哭痛哭

舍弟之逝 痛矣痛矣 出衆之友愛 過人之才學 于何復見 人恒以兄弟之慽 謂之割半 如弟所遭 豈止割半而已 此弟於吾兄 契合不翅膠漆 歷月不見 幾欲生病 今焉永腐 死者有知 其何以爲情 今承慰狀 眞哽咽不忍讀

中年喪耦 人家不幸 其宜家之無人 斷絃之難續 今姑勿言 呱呱赤子 左右索乳 其何忍視 令人傷神

사궤(謝饋)

형은 평소에 청빈하여 조두(俎豆)에 올릴 올릴 제수(祭需)도 없을텐데 저에게 이와 같이 후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리치는 것이 공손치 못하기에 비록 이미 아름다운 선물에 절하여 받았지만, 이것이 별안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우가 이것으로 전을 부치고 음식을 장만하여 며칠은 배부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형이 십일은 넉넉히 드실 음식을 축내신 것은 아니신지요. 받들고 웃으며 받들고 웃어봅니다.

초야에 기거하면서 푸성귀로 반찬을 충당하였는데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나누어주시어 수일의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무어라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삼가 한 폭의 대[竹]를 그려 바치오니, 형의 동기(同騎)인 양주(楊州) 최씨(崔氏)에게 보내주십시오.

번거롭게 파신(波臣)[352]을 멀리 초야의 늙은이에게 보내주시니, 수고롭게 그물을 당겨 고기를 잡지 않아도 되고 탄협(彈鋏)[353]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여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장요(長腰)[354]를 보내주신 것이 마침 온 집안이 죽을 먹을 때 도달하였습니다. 빨리 홍엽(紅葉)으로 멜감을 삼아 밥을 짓고 푸른 부추로 반찬을 만들어 그것에 짝하니, 미포(美飽)일 뿐만 아니라 가취(佳趣)까지도 더하였습니다.

은혜롭게 옥같은 쌀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노두(老杜)가 말씀한 "정갈히 대낀 흰 쌀을 보낸다"[355]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 중에 항상 푸성귀만 먹던 자가 갑자기 양고기를 먹게 되었는데, 꿈에서 오장신(五臟神)이 말하기를 "양이 채소밭을 밟아 파괴했다"라고 했답니다. 아우가 이것을 취하여 찬을 해 먹는다면 꿈에서 반드시 "백옥(白玉)이 잘못되게 탈속(脫粟) 중에 떨어진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한

352) 어류(魚類)의 별칭. 파도의 졸개라는 뜻이다.

353) 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 맹상군(孟嘗君)의 문객 풍환(馮驩)이 칼자루를 치며 대우가 나쁜 것을 한탄하는 노래를 부른 고사로서 전(轉)하여 자기의 영달을 구함을 이른다. 여기서는 탄협과 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354) 쌀(米)의 별칭. 소식(蘇軾)의 「별황주시(別黃州詩)」에 "장요엔 배를 지탱하는 쌀이 있고, 활령엔 혹을 가리는 옷을 만든다"(長腰尙在撐腸米 闊領先裁蓋瘿衣)라는 말이 있다.

355) 두보(杜甫)의 「행관장망보도휴수귀(行官張望補稻畦水歸)」에 "가을 고미(菰米)가 흑색이 되면, 정갈히 대낀 흰 쌀을 보낸다"(秋菰成黑米 精鑿傳白粲)에서 나왔다.

번 배불리 잘 먹겠습니다.

남인(南人)은 금등(金橙)으로 물고기 회(膾)을 동반해 놓은 것을 금제옥회(金薤玉膾)라고 하고, 오중(吳中)에서는 오이로 국을 끓여 그것에 배합해 놓은 것을 금갱옥회(金羹玉膾)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는 등(橙)나무가 없지만 옛날부터 오이는 있으니 한 번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은혜롭게 설루(雪縷)를 보내준 것이 마침 오이가 익을 때이니,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기이하다 하겠습니다.

술 향기가 매우 맑고 술병의 배도 크니 하루에 세, 네 잔씩으로 계산하면 한 겨울은 충분히 마실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해엔 과실이 대체로 잘 익지 않았는데 감이 특히 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댁의 부리는 자가 와서 물감을 건네주었습니다. 세 명의 빈객이 있었는데 각기 다섯, 여섯 개를 먹어보고 모두들 시원하고 달다고 합니다. 아우도 평소에 그것을 좋아하여 연속해서 열 개쯤을 먹었습니다. 올해 같은 때에 형은 어디에서 이것을 얻었는지요. 그것이 익은 것이 제법 진한데 이백 개가 새로 딴 뜻하여 하나도 뭉개진 것이 없으니, 와서 전한 자의 정밀함과 삼가함도 기특하다 하겠습니다.

앉은자리에 모전(毛氈)이 없어 차가운 벼루를 호호 불면서 글자를 쓰고 있는데, 마침 은혜롭게도 오금철(烏金鐵)로 만든 화로를 보내주시니, 차가운 계곡의 사방에 따뜻한 선율이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데 어찌 반드시 푸른 명아주가 책을 비춰줄 것[356]을 원하겠습니까.

합죽(合竹) 곡두옹(曲頭翁)[357]은 참으로 아름다운 물건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를 일순간에 변화시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인자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 드리며 아름다운 선물에 공경히 절합니다.

불 구름이 정오를 달구고 주렴 모서리에서는 연기가 생겨납니다. 단공(丹功)[358]도 성취하지 못하였고, 금장(金漿)[359]도 효과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숨이 차고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에 입에 상큼한 것을 씹었으면 하였더니, 홀연히 감사하게도 수박과 참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맑은 샘에 띄웠다가 잘 드는 칼로 썰었더니 얼음처럼 차가

356) 중국 전한 때 사람 유향(劉向)이 천록각(天祿閣)에서 교서(校書)하고 있을 때 푸른 명아주의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타나 책을 비춰주었다고 한 고사에서 나왔다.
357) 합죽선(合竹扇)이 둥글게 만들어진 것을 비유한 것.
358) 도가(道家)에서는 주사를 이용하여 장생불사하는 약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단공'은 바로 이러한 단약(丹藥)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59) 선약(仙藥)의 이름. 미주(美酒)로도 사용된다.

운 액이 흘러 넘쳐 시원히 피부와 골수에까지 스며듭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금경(金莖)[360]의 이슬도 이것과 비교하여 더 상쾌하겠습니까.

한 번 보내주신 명경(明鏡)을 대하니 혜풍(惠風)이 먼지를 털어냅니다. 생각건대, 저의 간담(肝膽)을 비춰보라는 뜻인가 합니다. 비록 멀리 천리나 떨어져 있지만 감히 청광(淸光)에 목욕하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신 신발 한 켤레를 시험삼아 신어보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발로부터 올라오는 듯합니다. 문득 산중에 들어가 소단(燒丹)[361]이나 해볼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렇지만 형이 나에게 보내준 뜻이 어찌 그것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이것을 신고서 상송(商頌)[362]을 노래하도록 한 것입니다. 형이 와 주시면 마땅히 신발을 거꾸로 신을 정도로 바삐 맞이하여 절하겠습니다.

대자리의 문양이 물과 같아 하늘에서 바람이 솔솔 불어옴을 느낍니다. 성긴 주렴 사이에 앉아 바둑을 두면 완연히 몸이 수루(水樓)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謝 饋

兄素淸貧 應無登俎之需 而乃饋我如是其優 却之不恭 雖已拜嘉 然念此非卒乍可辦得 使弟煎熬饌炙 足有數日之飽 而兄無乃匱浹旬蔬食之資邪 奉噱奉噱

野居惟有韭葵充饌 而分以大嚼之味 自此可以免數日瘦 何感如之 謹寫一幅竹仰呈 要與兄同騎楊州崔也

煩惠波臣 遠餉野老 不勞擧綱 卽免彈鋏 感謝不可言

長腰之餉 適到於擧家食粥之時 亟取紅葉作薪而炊之 靑韭充饌而配之 不惟美飽 更增一種佳趣

惠饋玉粒 眞老杜所謂精鑿傳白粲者也 昔人有常食蔬者忽食羊 夢五臟神曰 羊踏破菜園 弟取此來作飯食之 蒙必曰 白玉誤落脫粟中 好一捧腹

南人以金橙拌魚膾 謂之金虀玉膾 吳中以菰作羹配之 謂之金羹玉膾 我東雖無橙 固自有菰 思一試之 惠餉雪縷 適及於菰熟之時 絶奇絶奇

---

360) 이슬을 받는 반(盤)을 동(銅)으로 만든 기둥을 말한다.

361) 연단(煉丹)과 같은 뜻. 도가(道家)에서는 단약을 만들어 장생불사하고자 하였다.

362) 『시경(詩經)』의 편명. 송(頌)은 시(詩)의 육의(六義)의 하나로, 성덕(盛德)을 칭송하여 신명(神明)에게 고하는 것이다.

酒香甚冽 壺腹亦大 計日三四杯 足支一冬飮 珍謝珍謝
今年菓子 槪告不熟 而柹尤甚 忽貴伻至 饋以水柹 坐有三賓 各啜五六顆 皆云淸甘可悅 弟素嗜之 一連啜十許顆 若今年 兄何從而得此也 其熟殊濃矣 而二百顆如新摘 無一壞者 來伻之精謹 又可奇也
坐無氈 方呵氷硯 抄文字 適惠以烏金 卽寒谷四暖律 何必願燃藜照書也
合竹曲頭翁 洵佳物也 變溽暑於頃刻 起凉風以爽豁 深感仁惠 敬拜嘉貺
火雲烘午 簾角生熏 丹功未就 金漿無效 方苦肺渴 思啖爽口之物 忽承惠以藍皮蜜房之實 浮之新泉 析以利刀 氷液瀼瀼 淸透肌髓 未知金莖露方此更爽否也
一面明鏡 惠風拂塵 意者其照我以肝膽乎 雖遠隔千里 敢不沐浴淸光
惠履一兩 試一躡之 靄雲溶溶 從足底起也 輒思向山中作燒丹計 雖然 兄之遺我 豈爲彼哉 正欲使我拖此而歌商頌也 俟兄來臨 當倒屣而拜
簟紋如水 覺天風拂拂來矣 疎簾看奕 宛若身在水樓上也

사걸(謝乞)

어른께서 명(命)이 있으신데, 감히 심부름꾼을 통해 보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병풍에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된 것이지만 그런대로 종정(鍾鼎)[363]의 고도(古圖)를 모사한 것이기에 폐결(廢缺)된 곳은 없습니다. 가르침대로 보내 올립니다.

호골(虎骨)은 일찍이 다리가 약한 관계로 산중 사람으로부터 전부를 구하여 그 중에 경골(脛骨)을 취하여 약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비늘이나 껍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이라도 가져다 쓰실런지요.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친 뜻을 삼가 모두 살폈습니다. 곽원진(郭元振)이 자전(資錢)을 들고 유종도(柳仲塗)가 자금(資金)을 기울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에 보탬을 주는 것은 의리상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요, 하물며 옛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편의대로 약간을 마련하여 아무의 댁(宅)

363) 종정문(鍾鼎文)을 가리킨다. 중국 은주시대(殷周時代)의 종정(鍾鼎)의 명(銘)에 쓰인 고문(古文)의 양식을 말한다.

에 보냈으니, 굽어 헤아려주심이 어떠할런지요.

책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아우의 뜻과 합하지 않습니다. 대개 책을 보관하는 기구는 다른 것을 보관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책을 빼고 넣는 데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법도를 삼아야 합니다. 그 문의 상하와 좌우가 모두 장본(藏本)과 다만 한 푼 정도를 띠고 양층(兩層)과 사호(四戶)를 만든다면 책을 많이 보관하면서도 넣어두고 취하는 것이 모두 편리합니다.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굽어 헤아리시고 다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때 삼가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병풍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마땅히 명을 따르겠습니다. 아우는 글씨에 있어서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깊이 공부하여 종이를 소모한 것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뜻에 맞는 작품을 얻었을 때는 혹 진당(晉唐)의 유풍이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림에 있어서는 아직 익숙하지가 못합니다. 형은 무엇 때문에 그 비슷한 것을 놓아두시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을 취하려 하십니까. 의심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박아(博雅)를 통하여 일의 원위(源委)[364]를 자세히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편지를 써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의 일은 지난 시절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록 군재(郡宰)가 제재를 한 두 번 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끝내 잘하지 못합니다. 꼭 알만한 일에 대해서도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굽어 헤아리셔서 제재할 수 있는 곳을 따라 다시 편지 한 통을 써서 그 군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거처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의뢰하는 것은 옷과 음식입니다.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자식을 양육하는데 만약 곡식함이 비게 되면 그것에 부림을 받게 되고, 조금이나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부림을 받지 말아야 할텐데 남는 것 때문에 또 부림을 받습니다. 오직 밖의 것에 부림을 받더라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만 탁월한 자라 할 것입니다. 고명(高明)[365]과 같은 이는 탁월하다 하겠는데 만약 마음에 동요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탁하신 말씀은 마땅히 받들어 부응할 것이오니, 어떠할까 라고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진인(晉人)이 말하기를 "평상시 일없이 한가하여 술을 마시면서 「이소(離騷)」[366]를

364) 어떠한 일의 근본과 여줄가리.
365) 뜻이 높고 사리에 밝다는 뜻으로 남에 대한 존칭이다.

읽어야 명사(名士)라고 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형은 평소에 진인(晉人)의 문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실 때에는 진인을 이끌어다 비교하곤 합니다. 감히 묻건대 형은 『이소』를 읽으면 가슴속이 얼음이 녹듯이 막힌 것이 없어집니까. 「이소」는 풍아(風雅)[367]의 유풍인데 사물을 취한 것이 중복되고 단락이 너무 가지런하지 못하며 또 만연하고 지리하니, 무슨 까닭입니까. 형이 갈증이 나실 때 이 의미를 가지고 깨우쳐 보여주시면 아우는 마땅히 한 글자에 술 한 병을 받들겠습니다. 받들고 웃으며 받들고 웃습니다.

다른 국화는 한 번 가꾸면 곧 무성해지는데 운타(雲朶)는 재배하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괴이하게도 귀한 사람은 병에 잘 걸리고 천한 사람은 대체로 건강한데 꽃도 그런가 봅니다. 지난 가을에 이것을 구하여 네 다섯 뿌리를 얻었고 겨울에 많은 공을 들여 보호하였지만 지금은 겨우 두 뿌리만이 예쁘게 자랐습니다.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아 나누어 보내드리오니 적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밭을 소유한 자는 소작인의 능력을 금방 알아봅니다만, 독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려 들지 않으니 야박한 풍속이 한탄스럽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마땅히 독서를 힘써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즈음은 종이가 매우 비싼 까닭에 겨우 일백 쪽지를 받들어 보냅니다. 다시 제조하기를 기다려 마땅히 보내 드리겠습니다. 꾸짖지 마십시오.

謝 乞

蠶者旣有命矣 敢不令僕夫牽呈

屛風所存 非新伊故 而猶是摸鍾鼎 古圖者 無廢缺處 玆依敎送呈

虎骨曾以患脚軟 從山中人求全部 而取脛骨和藥 所餘可謂鱗甲 雖此亦入用否 申敎若何

敎意謹悉矣 郭元振之擧資錢 柳仲塗之磬資金 今雖不能如之 助葬在義當爾 況是故舊豈可不念 方辦若干 專送于某宅矣 俯諒若何

366) 중국 전국시대 초(楚)나라 굴원(屈原)이 지은 부(賦). 참소를 당하여 임금을 만날 기회를 잃은 걱정과 번민의 심정을 읊은 서정적 대서사시이다. 뒷날 초사(楚辭)의 기초가 되었다.

367) 『시경』의 국풍(國風)과 대·소아(大小雅)를 말한다.

書藏所敎 與弟意不合 蓋藏書之器 與他藏不同 必以書卷出入無碍爲度 其門之上下左右 皆與藏身 只爭一寸許 而作兩層四戶 藏書多而貯取皆便 兄以爲如何 俯諒更示之當登時飭造矣

俯戒屛本 當惟命是聽 而弟於書雖非專門 猶下深工 費紙亦不少 得意時或彷佛有晉唐之遺 而於畵則蓋未熟矣 兄何以捨其彷佛 取其未熟者 可訝可訝

博雅之來 詳聞其源委矣 依所言修書與之 然近日事 與往時不同 雖郡宰受制 非一二竟不能 自由事之必諳 未可質也 俯諒從其可制處 更得一書 直致于彼郡如何

甚矣 處世之難也 人之日所資者 衣食耳 仰事俯育 如至匱乏 則爲所役 稍有贏餘 則庶其勿役 而以贏餘 故又役焉 惟其外役而內不動 斯其卓拔者也 如高明是卓拔矣 而如將動乎內 亦復何哉 俯托當奉副矣 勿慮如何

晉人云 常得無事 飮酒讀離騷 可稱名士 兄平居不許晉人文章 而飮酒則引晉人擬之敢問兄讀離騷 胸中氷釋無擬滯乎 離騷是風雅之遺 而取物重複 段落太不齊 又曼衍支離 何故哉 兄當喉渴時 將此義示破 則弟當於一字奉酒一壺也 奉呵奉呵

他菊一栽便茂 雲朶培擁極未易 可怪貴人善病 賤者率强康 花亦爾邪 昨秋求此得四五根 冬護頗費工夫 今只有兩本茂好 承示玆分呈 倘不少之邪

有田者知佃人之能 讀書率不肯許 薄俗可歎 雖然 當力圖之矣 諒下若何

近日紙甚貴 僅奉百箋以呈 俟更製當委納矣 休誚萬仰

사청(謝請)

집사(執事)께서 관빈(冠賓)으로 불러주었지만, 저는 민첩하지 못하여 일을 함께 하지 못할까 두려워 병이 생겼지만 성례(盛禮)를 감히 사양하리까.

거듭하여 근명(勤命)이 있으신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동짓날에 삼가 몸소 나가겠습니다.

호(弧)와 세(帨)[368]가 나란히 걸렸고 춘훤(春萱)[369]이 나란히 장수하시니, 이것은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광입니다. 효도와 기쁨이 비교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

368)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 대문 왼쪽에 호(弧, 활)을 달고, 딸을 낳으면 대문 오른쪽에 세(帨, 수건)를 걸어 놓았다.

369) 남의 어머니의 존칭이다. 옛날에 어머니는 북당(北堂)에 거처하면서 그 뜰에 원추리를 심었으므로 그렇게 쓰인 것이다.

다. 즉시 잔치의 끝자리에 참여하여 경의(慶儀)를 목도해야 마땅한데, 게다가 먼저 불러주심을 받았는데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삼가 마땅히 달려가겠습니다.

정성(丁星)[370]이 빛을 더하니, 이 날을 우리 형이 주갑(周甲)이 되는 날입니다. 보잘 것 없는 것을 헤아리지 않고 축하 말을 하려든 참에 은혜롭게 불러주시니 마땅히 새가 날개를 편듯이 나아가겠습니다.

탕병(湯餠)[371]의 부름에 마땅히 뛰어 가야겠지만 마침 먼데서 찾아온 손님이 있어 다른 날 가 뵙겠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과연 참으로 천상기린석(天上石麒麟)[372]이라 하겠습니다. 우러러 마지않습니다.

별서(別墅 : 別莊)를 낙성했다 하니 당연히 경하 드려야 할 것인데 불러주시니 어떻게 즉시 가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다른 연고가 있어서 심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모레 아침에 마땅히 찾아갈 테니 술이 이미 떨어졌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술이 거나하여 흥에 겨우면 붓을 잡고 별업시(別業詩)를 짓기를 배적(裴迪)[373]이 왕마힐(王摩詰 : 王維)[374]에 화답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얼음과 눈이 길에 깔려있고 삭풍(朔風)이 차갑고 매섭습니다. 노대(老大)는 자연히 회포가 증가하여 해가 저물을 탄식합니다. 혜서(惠書)에 제석(除夕)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다음날 아침 백엽주(栢葉酒)[375]을 대작하면서 신년회(新年會)을 하는 것만 같지 못할 듯합니다. 가르침을 어겨서 죄스럽습니다.

지금 아드님의 재성(才性)이 탁월하고 조예(造詣)가 정밀하고 깊어 더불어 반식경을 말함에 저도 모르게 감연(欿然)히 실색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되기를 구하여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려 감히 스승이 되겠습니까. 저와 같은 이는

370) 태세(太歲)의 천간(天干)이 정(丁)으로 된 해의 별자리 즉 정년(丁年)을 말한다.
371) 국수를 말한다. 아이가 낳은 지 사흘만에 그 아이의 장수를 빌기 위하여 먹는 메밀 국수를 말한다.
372) '천상의 돌 기린'이란 뜻으로 비범한 아들을 낳은 것을 경하할 때 통상 사용하는 말. 『수서(隋書)』「서릉전(徐陵傳)」에 따르면 "서릉의 어미 장씨(臧氏)가 꿈에 오색 구름이 봉황으로 변하여 왼쪽 어깨에 앉은 것을 보았는데, 이윽고 서릉을 낳았다. 당시 보지(寶誌)라는 자가 아이의 이마를 만지고서 '천상의 돌 기린이다'고 하면서 경하하였다"한다.
373) 중국 당나라 때 시인. 자는 불상(不詳)이다. 젊어서 왕유(王維)·최흥종(崔興宗) 등과 종남산(終南山)에 동거하면서 서로 창화(唱和)하였다.
374) 중국 성당(盛唐) 때의 시인. 자는 마힐. 시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정통했으며, 특히 남화(南畵)의 조(祖)로 일컬어질 정도로 산수화에도 능했다.
375) 측백나무 잎을 넣어 빚은 술,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정월 초하루에 마신다.

겨우 기문(記問)의 학문에 불과할 뿐이니 진실로 성례(盛禮)를 받지 않고자 합니다. 만 번 헤아리시고 깊이 용서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해우(海宇 : 海內)가 눈을 부릅뜨고 팔을 끼고서 분분(紛紛)히 송곳 끝과 같은 작은 일이나 찾아 부강함을 과시하려 하는데, 족하만이 한담(閒淡)한 곳을 찾아 상고(上古)의 서책을 읽으면서 탈연(脫然)히 풍속이 숭상하는 것의 밖에 우뚝 서 계시니 어찌 대장부라 아니하겠습니까. 더구나 성대한 모임에 홍장(鴻匠)들이 나란히 앉았다고 들었는데, 비록 야계(野雞)가 학(鶴)의 무리에 낄 수는 없겠지만, 찬 계곡에서 떨면서 굶주리고 있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따뜻한 햇볕을 쬐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즉시 명을 받들겠습니다.

오늘은 날이 갠 다음인지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밥 먹고 나서 지팡이를 집고 형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 한 잔의 차를 구하여 장 속의 먼지를 씻어내고 형의 근체시(近體詩)[376]를 약간 읽어 답답한 심회를 풀었으면 합니다. 귀댁의 심부름꾼이 노새까지 끌고와 오라는 명을 전하였는데, 간지러워 긁으려던 곳을 긁어주시니 어찌 쾌활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마침 세속 일이 방해하는 것이 있어 흥겨운 생각을 쓸쓸히 깨뜨려버리니 밉습니다. 일을 마치면 곧바로 몸을 일으켜 가겠거니와, 형이 몹시 기다릴까 염려되어 먼저 이렇게 답장을 올립니다.

족하의 책을 구매하는 습관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읽지 않으니 저들에겐 진실로 쓸모 없는 것이거늘 우리들에게 주어 보관하지 않게 하니 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남이 버린 물건을 주워 취하고자 하되 항상 미치지 못할까 근심하니 또한 우습습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족하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지금 간단하게 서목(書目)을 써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을 바치오니, 읽어보시면 모두 아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갈 수 없는 처지니 이해하여 주십시오.

사계절 사이에서 풍경이 뛰어나게 아름다워 사람의 흥을 절로 돋게 하는 것이 몇 일이 없고, 한 해 안에서 인사가 한가하여 경치를 즐겁게 감상하는 것이 몇 시간이 없고, 팔방 가운데서 지기(志氣)가 서로 같고 말을 함에 거스름이 없는 것이 몇 사람 없습니다. 아우는 때로 이것을 생각하면 울적하여 홀로 슬픕니다. 그러므로 남이 불러주는 것이 있으면 곧 달려갑니다. 하물며 오형(吾兄)의 명이 있거늘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

376) 한시(漢詩)에서 율시(律詩)와 절구(絶句)를 이르는 말.

謝請

蒙執事召爲冠賓 某不敏 恐不能共其事以病 盛禮敢辭

蒙重有勤命 敢不勉從 至日謹當躬造

弧帨雙懸 春萱齊壽 此人世至榮 仰想孝喜無比 卽宜進參宴末 獲覩慶儀 況承先召 其敢有辭 謹當趨赴矣

丁星增彩 是吾兄周甲之辰 不揆蕪拙 方擬嘏詞際 拜寵速明發 當翼如而進矣

湯餠之召 當躍焉以赴 而適遠賓至 容俟他日往

摩其頂 試果眞天上石麒麟也 不罪是仰

別墅告落 宜有燕賀 而乃蒙走星專召 安可不卽進 又稱有他故 則偃蹇甚矣 雖然 再明日詰朝 當進去 毋曰酒已盡矣 興酣援筆 作別業詩 如裴迪和王摩詰也

氷雪載途 朔風凜厲 老大自然增懷 歎歲聿其暮矣 欲惠書要除夕共飮 不如明朝對酌栢葉 作新年會也 違戒知罪

今允才性卓拔 造詣精深 與語半餉 不覺欵然自失 求爲友 尙恐不堪 況敢爲之師乎 若僕不過記問之學 實不欲當盛禮 萬惟深恕

方海宇張目掖腕 紛紛逐錐刀誇富强 乃足下就閒淡地 讀上古書 脫然立於俗尙之外 豈非大丈夫哉 況聞盛會 鴻匠駢坐 雖野雞不宜入鶴羣 與其栗饑於寒谷 曷若一曝之暄哉 卽當惟命矣

今日霽色可喜 擬食已振 策至兄所 索一椀茶 洗腸中垢 讀兄近體詩若干 首以暢鬱邑之懷 貴力牽驢子來 傳來汝之命 爬欲搔之癢 豈不快活 適有俗事相妨 令人興思索然而敗 可憎哉 俟摒擋卽起身 恐兄苦待 先此仰報

足下購書之癖未已邪 擧世不讀 在彼固無用 而不解付與吾輩人貯之 可怪 吾輩人又要拾取人拋棄之物 常患不及 又可笑 未審足下所欲購者 何書 今就簡明書目抄易購者呈覽可燭悉也 僕今未可進 恕諒焉

四時之間 風景絶勝 發人興思 無幾日 一年之內 人事閑暇 就景快償 無幾時 八方之中 志氣相同 出言莫逆 無幾人 弟有時思此 黯然獨悵 是以人有招邀輒赴之 況吾兄有命 其可辭諸

사면(謝勉)

형의 훌륭하신 잠언(箴言)에 절하고 형의 지극한 뜻에 감사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 감히 고쳐 옮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외람되게 근실하게 경계하시어 술을 마시지 말라 하셨는데, 술은 천성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매 번 마음이 답답하여 펼 수가 없거든 곧 술잔을 당겨 마시고 잠시나마 그런대로 긴장을 늦출 뿐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게도 가슴속에 울퉁불퉁 쌓인 것이 심하여 일곱, 여덟 잔을 마시지 않으면 도대체 채워지지를 않기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마음에 문책하여 지금부터 마땅히 패위(佩韋)[377] 하여 마음을 꺼진 재[死灰]와 같게 해야만 비로소 술을 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한 달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형은 조금 용서해주시고 한 달에 닭 한 마리 훔치는 자[378]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우는 식언(食言)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우는 타고난 품성이 매우 조급하여 거슬리는 것을 만나면 바로 발동하여 인내하여 그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몸가짐에 왕왕 합당함을 잃게 되고 일이 지나가면 바로 스스로 후회가 됩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시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학력이 지극하지 못하여 기질를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그것이 점차 스스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혜교(惠敎)[379]를 받자오니, 감히 성실하게 고칠 것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외람되게 세상의 비루한 것에 뜻을 나누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 형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깊이 느끼어 뼈에까지 자리하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아우라고 어찌 세상의 비루한 것으로 마음을 얽매어 두고자 하겠습니까.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노친(老親)이 집에 계시는데 아우가 의식(衣食)에 일삼지 않으

377)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서문표(西門豹)가 자기의 성급한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항상 무두질한 부드러운 가죽을 차고 반성한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

378)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보인다.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이웃집 닭을 훔치는 자가 있었는데 혹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자, 그가 말하기를 "그 수를 줄여 나가 달마다 닭 한 마리를 훔쳐먹다가 내년을 기다린 뒤에 그만두겠다"라고 하였다. 맹자는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만일 의리가 아님을 안다면 속히 그만두어야 할 것이니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였다.

379) '은혜로운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편지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혜유(惠諭)나 성유(盛諭)도 같은 말이다.

면 무엇으로써 봉양하겠습니까. 무릇 먹기를 배불리 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며 집안에 넉넉한 자금이 있으면 아우가 비록 어리석고 비루하더라도 진실로 또한 억지로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살피건대, 세상의 책을 읽는 자들은 청수(淸修)를 추구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의식(衣食)을 일삼는 것을 비루하게 여기는데 그 가운데에도 경중(輕重)의 의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자못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만, 형은 나를 알아주는 자이니 저의 실정을 헤아려서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유(惠諭)을 받들어 세 번, 다섯 번 읽어보고 붕우간의 절시(切偲)[380]하는 태도를 통하여 서로 길러주는 의미를 깊이 느꼈습니다. 일찍이 생각해보니, 생각은 심(心)에서 나오고 소리는 신(腎)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백력(魄力)이 약한 자는 나름대로의 방술(術)이 없어서는 안되니, 다독(多讀)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사색이 너무 지나치면 심(心)을 상하기 때문에 잠시 늦쳐주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음토(音吐)가 너무 번잡하면 신(腎)을 상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늦쳐주거나 잠시 휴식을 취해주는 때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마음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만약 놓아버리지 않고 함양(涵養)해주는 것이 있다면 불식(不息)의 공(功)[381]이 이에 있게 됩니다. 형이 이미 간담(肝膽)을 기울여 서로 권면해 주었으니, 아우가 어찌 한 마디 말로써 서로 보답해주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혈기가 강장(强壯)하여 인내하여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날마다 휴식하지 않으면 자연히 관통하게 되리라는 것은 진실로 성유(盛諭)와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 홍유(鴻儒)와 석장(碩匠)이 모두 많이 읽음으로써 공을 성취한 까닭이니, 어찌 다른 말로 어지럽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그렇지만 단지 많이 읽는 것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인 줄만 알고 어떻게 힘을 얻어지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한갓 책이나 읽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도학(道學)에 관한 문장은 논할 것도 없거니와, 반드시 마음으로 체득해야지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비록 소리를 내어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마음을 경주하여 간단(間斷)이 없게 한다면 그 뜻과 의리가 융석(融釋)되어 깨닫게 되고 무젖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종

380) 자상하게 권면하는 모양. 『논어』「자로(子路)」에 보인다.
381) 『주역』「건괘(乾卦)」에 "하늘의 운행이 씩씩하니,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자강불식(自彊不息)한다"는 말에서 나왔다.

사하여 정액(精液)이 관주(貫注)하여 마음과 하나가 되면 지난 번 읽었던 책은 이미 실컷 배부른 뒤의 조박(糟粕)일 뿐입니다. 무릇 이와 같으면 어떻게 소리가 있는 것으로써 독서를 삼고 소리가 없는 것으로써 독서를 삼지 않겠습니까? 또 독서는 편수(遍數)에 심히 구애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읊조리고 암송하여 마음에 그 뜻과 의리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독서입니다. 혹간 급한 음색으로 유창하게 읽어 많은 편수를 소화하는 것에 힘을 쓰는 자는 독서가 어디에 소용되는가를 알지 못한 것이니,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형의 설과 같지 않습니다만, 서로 표리(表裏)가 되는 데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보시고 만약 합치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편지를 보내주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충고하면 사이가 소원해진다'[382]는 혐의를 피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침폄(針砭)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우가 비록 어리석고 둔할지라도 어찌 감개하여 거두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가운데에 드러내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지만 말이 매우 번잡하여 편지로는 모두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날을 잡아 마땅히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謝 勉

拜兄良箴 感兄至意 刻鏤在心 敢不改遷

辱勤戒勿飮酒 酒非性好也 每因心懷鬱邑不得伸 輒引以澆之 聊且寬耳 而苦胸中磊磈甚 非酌到七八盃 了不成澆 所以多酌也 要之責之心 自今當佩韋 令心如死灰 乃可止酒 然非日月可消磨 請兄少恕之 勿視以月攘一鷄者焉 弟不食言也

弟賦性頗燥 遇忤輒發 不能耐住 擧措往往失當 事過輒自悼悔 而旣而復然 此由平居學力未至 不能變化氣質也 然而心知其非較漸自戢矣 今承惠敎 敢不益自愷愷以圖改邪

辱敎以勿分志於世累 非吾兄 誰當愛我者 感深次骨 雖然 弟豈欲以世累嬰心哉 家苦貧甚 老親在堂 非弟之役於衣食 何以奉養邪 夫飽食煖衣 家有餘貲 弟雖愚陋 固亦不强求矣 嘗見世之讀書者 以淸修爲高 衣食爲鄙 而不知其中有輕重之義 心頗不以爲然 兄知我者 幸原其情而恕之焉

382) 『논어』「이인(里仁)」에 보인다.

惠諭奉讀三五 深感切偲相長之義也 嘗以爲思出於心 聲出於腎 故魄力弱者不可無術要多讀先須識此 蓋思索太過則傷心 所以有暫寬 音吐太煩則傷腎 所以有暫休 但暫寬暫休之時 人苦放心耳 若不放過 有以涵養之 則不息之功 於是在焉 兄旣傾倒肝膽以相勉 弟亦安得無一言以相報邪

氣血强壯 足以耐讀者 日不休息 則自然貫通 誠如盛諭 此古昔鴻儒碩匠 皆由多讀而成功 豈有他言以亂之邪 雖然 只知多讀之爲得力 而不知所以得力 是徒讀已也 無論道學文章 必須心得 不可只是口耳也 雖不出聲而讀之 使心心在此 無所間斷 旨義融釋 領會浹洽 久而精液貫注 與心爲一 則向之所讀之書 卽已飫之糟粕也 夫如是 何嘗以有聲者爲讀 而以無聲者爲不讀也邪 且讀書 亦不甚拘於遍數 使其緩節諷誦 心存於旨義 此善讀也 其或促音滑利 以多遍爲務者 是不曉讀書爲何用也 惡足道哉 此言與兄說不同 而不害爲表裏也 俯覽如有未合 請更賜指敎焉

不避數疎之嫌 賜此針砭之言 弟雖愚頑 寧不感戢 但其中有不得不襮白者 辭甚繁 非書可罄陳 日當進告矣

燕石山房文藁

別集

燕石山房文藁 別集 一/429
新舊折衷末篇/429
齊一之八/453

燕石山房文藁 別集 二 /463
窮理說/463
理象取譬說/468
理氣說 第二/473
理氣說 第四/479
太極動靜說/485
太極動靜體用說/490
以太極爲體 動靜爲用 其言有病說/497
答黃雲卿/505
答黃石田/511
答李惺湖/516
答黃雲卿/524
答黃梅泉/528
『논어』에 대한 물음/532
題所書三家帖贈盧生處仁/554
五畵詩祝李惺堂時衡其大人壽筵/558
倍根學說/432
理象說/466
理氣說 第一/471
理氣說 第三/476
太極說/483
理有動靜說/487
體用說/493
理一分殊說/500
識本箴 - 集三藏序字/508
題四宜堂 - 鄭嵲堂精舍/512
答李惺湖/521
【附】梅泉書/524
題 畵/531
答黃梅泉/553
書金石田屛/556

여 백

燕石山房文藁 別集 一

신구절충말편(新舊折衷末篇)

베이컨 학설

베이컨[1]은 영국 사람으로 1561년에 태어났다(서양력은 예수 탄생년을 시작으로 한 것이다. 동양력에 기준한다면 한나라 평제 원년 신유년을 시작으로 하여 양나라 무제 원년 임오년이 502년이 된다. 당나라 태종 원년 정해년은 627년이고 송나라 진종 4년 신축년은 1001년이다. 명나라 태종 원년 무신년은 1368년이고 청나라 세조 원년 갑신년은 1644년에 해당된다. 매 1백년으로써 1세기로 삼는다). 이 해는 명나라 가정(嘉靖) 44년에 해당된다. 그리고 66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 때의 학설은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2]와 플라톤[3] 철학의 함정에 빠져 길을 찾

---

1) 르네상스시대 영국이 낳은 최대의 사상가(1561~1626). 테카르트와 더불어 근세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진다. 그의 철학목표는 중세풍의 스콜라적 방법의 비판과 근대 과학적 방법의 확립에 있었으며 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극히 유물론적이다. 그가 최대의 관심을 기울인 것은 인간생활의 물질적 제조건의 개선 즉 인간에 의한 대규모적인 자연개조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의 가장 저명한 노작은 노붐오르가눔이며 이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옛 논리학에 대립된 새로운 논리학이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종족우상·동굴우상·시장우상·극장우상 등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며 종래의 철학은 이들 우상에 사로잡혀 형식적인 삼단논법을 구사하여 추상적인 사변에 탐닉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새롭게 제창한 것은 실험에 의한 개개의 사례를 비교 및 고찰해서 자연의 일반법칙을 찾아내는 방법 즉 귀납법이었다.

2) 그리이스의 고대 철학자(B.C. 384~322). 일찍부터 자연과학에 큰 관심을 가져 다방면에 걸친 깊은 연구를 하였으며 18세기 때에는 아테네로 와서 아카데미아에 입학한 후 스승 플라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그곳에 머물렀다. 스승이 세상을 떠나자 아테네를 떠나 트로아스의 아소스에 가서 아카데미아의 분교 비슷한 학원을 세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거의 모든 그리스 철학자들의 학설을 수집, 비판하는 동시에 독창적 연구방법에 의하여 논리학을 처음으로 학으로 창시하여 논리학을 철학의 부분으로는 보지 않고 그것을 모든 다른 학의 예비학으로 삼았다. 그의 논리학적 저술을 총칭하여 오르가논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모든 학문연구의 기관이라는 뜻이다. 그 중에서도 범주론은 술어와 존재의 최고류를 분류하여 실체·분량·관계·장소·시간·위치·상태·능동·수동 등 10개를 열거하여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를 세

지 못한 채 궤변과 접하고 공상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베이컨이 출현하게 되어서부터 실제적인 학문풍토로 돌아가게 되었다. 영국인들이 수백년간 역사가 이어 내려온 후 먼저 실험한 후에 이론을 세우게 되는 경험론[4]의 학문풍토는 베이컨이 선구가 되었다. 따라서 베이컨은 실제 영국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베이컨은 사람들이 학문을 구하고자 할 때 다만 자연조화의 자취(현상)에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탐구함으로써 공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거기에 스스로가 결속하여 조작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그러한 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리를 추리하여 헤아린다면 곧 그것이 미혹되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근원인 것이다.

또 말하기를, 인간의 정신은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과 같아서 외부의 사물이 비쳐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볼록거울에 처하여 비춰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목거울에 처하여 비춰져서 비록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라도 비춰지는 것이 같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찰이 스스로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오류의

웠다. 명제론에서는 문장과 판단에 대해서 논하였으며 분석론 전서는 추리에 관하여 분석론 추서는 논증·정의·분류·원리의 인식에 관하여, 변증론은 변증법적 추리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다음에 형이상학이라고 불리우게 된 그의 제1철학에서는 우주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여 우주의 궁극적 원리 또는 원인으로서 형상·질료·운동·목적의 4원인을 들었다.

3) 그리이스의 고대 철학자(B.C. 427~347). 아테네의 명문에서 탄생하였다. 젊었을 때는 헤라클레이토스의 학파인 크라튈로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으나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소크라테스였다. 소크라테스가 옥사 당한 것은 27~28세 때였다. 플라톤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데아론 혹은 변증법이다. 변증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기 것은 전부 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으로서 무지의 반박청소와 진정한 지식에의 권장을 목적으로 한다. 플라톤 대화편에서 그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철학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조리 있는 사유를 증진시켜준다. 그것들은 어떤 관점을 택하여 그것을 정의하고 그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의의를 추궁해 간다. 이리하여 최초의 거점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는 말하자면 논리적 분석에 의한 침략전이라 하겠다.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그것들은 어떤 관념의 의의를 그것의 진리에 관해서 미리 동의함이 없이 고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식의 분석에 국한되고 있는 대화조건들은 플라톤의 전기의 작품으로서 소크라테스의 영향이 강할 때 저술된 것들이다. 그 반면 후기의 대화편에서는 논리적인 분석에다 자기가 사색해 오던 문제에 대한 객관적 진리를 확정하려는 노력을 가하고 있다.

4) 인식론에 있어서 지식의 기원을 경험에 두는 학설. 반대어는 합리론이다. 역사적으로 고대의 소피스트 키레네 학파,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등과 중세기의 유명론 등을 경험론이라 볼 수 있으나 합리론에 대립할 수 있는 확고한 지반은 18세기에 이르러서 확립되었다. 17세기 이성주의의 철학이 종교적, 절대적 이성의 입장인데 반하여 18세기의 철학은 인간적, 상대적 이성의 입장이었다. 이 경향은 선구를 이루는 것은 17세기 후반의 로크이다. 그의 사상은 버클리·흄에 의하여 발전되어 소위 영국의 경험론을 형성하고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에서는 꽁디약·달랑베에르의 실증론, 돌바크의 유물론이 생겼다. 현대 미국에서 제임스를 대표로 하는 프래그마티즘도 경험론에서 파생된 한 유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험론의 체계가 확고해진 것은 영국의 경험론에서라고 할 수 있다. 베이컨은 영국경험론자의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제1원인이 되는 것이다(첫 번째 오류의 원인).

또 우리의 오관에 접하여 감각된 것은 사물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 아니고 사물의 가상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류를 불러오게 하는 제이 원인이다(두 번째 오류의 근원). 또 우리들의 체질이 각각 달라서 동일한 사물에 따라 사람들의 견해가 각각 상이하게 된다. 이것이 오류를 불러오게 하는 세 번째 원인이다(세 번째 오류의 근원). 또 사람 사람마다 서로 처하는 시간이 달라서 서로 관계하는 인연에 따라 오류의 견해가 발생하게 된다. 전인의 설과 교왕되는 것이 오류의 견해를 낳는 모태가 된다. 이것이 오류를 불러오게 하는 네 번째 원인이다(네 번째 오류의 근원).

베이컨은 이 미혹의 원인을 다스리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나오는 삼구법(三句法)[5]과 같은 것은 아니다(自註 : 일본에서는 논리학이라고 번역하고 중국에서는 구역으로 辨學이다). 대개 삼구법은 언어 문자법에 불과한 것이다. 진리를 찾아 얻어 그것을 서술하면 일상에 크게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의 존재처를 고찰한다면 그 온당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이컨이 생각한 좋은 방법은 사실에 나아가 경험을 쌓는 것일 따름이다.

실험의 방법은 무릇 사물의 제 현상 가운데 나아가 일상적으로 들어 나는 현상과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을 추구하는 것이니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의 법으로 자주 여러 번 관찰하고 반복 실험하여 하나의 어떤 현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등급표를 만들어 기재해 가는 것이다. 예컨대 처음에 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없다면 처음은 갑의 등급에 위배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을의 등급에 위배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고찰 검토하여 기재됨이 오래 누적될 때 일정의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일 따름이다.

---

5) 논리학에서 말한 삼단논법을 지칭한 말이다. 삼단논법은 형식논리학에서 간접추리를 대표한다. 삼단추리식이라고도 한다. 전제에 두 개의 판단, 결론에 하나의 판단을 갖는 간접추리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른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특히 정연 삼단논법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또 넓은 의미로는 연역적 추리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형식논리학에서 취급되는 판단은 정언판단과 가언 및 선언의 두 복합판단이기 때문에 삼단논법에 관계되는 판단의 종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세 개의 판단에 모두 같은 종류의 것을 순수삼단논법이라 하고 종별에 따라 정언적·순수가언적·순수선언적 세 가지 삼단논법으로 구분한다. 2) 다른 종류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을 혼합삼단논법이라 하고 이것을 다시 혼합가언적 혹은 혼합선언적의 두 삼단논법과 양도논법으로 나눈다.

倍根學說

倍根者 英國人 生於一千五百六十一年(西曆以耶蘇生年爲始 以泰東曆準之 則始生於漢平帝元年辛酉 而梁武帝元年壬午爲五百二年也 唐太宗元年丁亥爲六百二十七年也 宋眞宗四年辛丑爲一千一年也 明太祖元年 戊申爲一千三百六十八年也 淸世祖元年甲申爲 一千六百四十四年也 每以一百年爲一世紀) 卽明嘉靖四十四年也 年六十六卒 是時學說 泥於希臘阿里士多德 拍拉圖之科臼 未能闢涂徑 涉於詭辯 陷於空想 及倍根出而始歸於實際 英人數百年來 先實驗而後理論 倍根爲之先驅 實英國學界之代表人也 倍根以爲人欲求學 只能就造化自然之迹 而按驗之 不能空 自有所紉造 若恃其知慧 臆度事理 則知慧卽爲迷謬根原 又曰人之精神 如凸凹鏡 外物之來照者 或於凸處 或於凹處 於是乎雖同一物 而所照不同 我之觀察 自不得不所謬爲 致誤第一原因(一誤根) 又五官所接者 非物之本色 而物假相也 此爲致誤之第二原因(二誤根) 又吾人之体質 各各不於是乎同一事物 而人之所見 各各相異 此爲致誤之三因(三誤根) 又人與人相處之間 謬見交相因緣而起 又前人之說 交往往爲謬見之胎 此爲致誤之四原因(四誤根) 倍根以爲治此迷因 有良法 然非如阿里士多德論理學三句法也(日本譯之論理學 中國舊譯爲辨學) 盖三句法者 不過語言文字法耳 尋得眞理 而敍述之則大適於用 若欲由此以考察理之所存 未見其當也 然則倍根之良法 就實事以積經驗已 實驗之法 就凡事物諸現象中 分別其常現之象 及偶見之 而求其所以然之故 是爲第一着手 是故欲求得一眞理 先卽一法而頻頻觀察反覆試驗 作一有無級度之表以記 如初則有是事 次則無是事 初則違於甲之級度 次則違於乙之級度 一一考驗記載積之旣久 而一定理出焉矣

시경일과 권지제일지팔(詩經日課卷之齊一之八)

제(齊)는 나라 이름이다. 본래 소호(少昊)[6] 때에 상구씨(爽鳩氏)가 거주하던 지역이니, 『서경』「우공(禹貢)」의 청주(靑州)지역이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태공망(太公望)[7]을 봉해주시니,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황하(黃河)에 이르고, 남으

6) 태고시대의 제왕의 이름. 황제(黃帝)의 아들. 이름은 효(孝), 호는 금천씨(金天氏)라 한다.
7) 주나라 초의 현신(賢臣)인 여상(呂尙)을 이름. 성(姓)은 강(姜). 위수(渭水) 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마침 사냥 나온 주나라 문왕(文王)을 만나 서로에 대해 기뻐하고 함께 돌아왔다. 무왕이 즉

로는 목릉(穆陵)에 이르고, 북으로는 무체(無棣)에 이르렀다.

태공은 강성(姜姓)이니, 본래 사악(四岳)의 후손이다. 이미 제나라에 봉해지자, 공업과 상업을 통하게 하고 어염(魚鹽)의 이익을 편리하게 활용하여 백성들이 많이 귀의하였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되었으니, 지금의 청주(靑州)·제주(齊州)·치주(淄州)·유주(濰州)·덕주(德州)·체주(棣州) 등지가 바로 이 지역이다. 【구보(舊譜)】

제땅은 옛날 소호의 시대 상구씨의 유허(遺墟)이다. 주나라 무왕이 주(紂)를 벌하고 태사(太師) 여망(呂望)을 제에 봉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나라 태공이다. 땅은 사방 1백리이고, 도읍은 구(丘)에 세웠다.

주공(周公)은 태평한 정치를 이루고, 구기(九畿)[8]를 펴서 정했으며, 하우(夏禹)의 옛 제도를 회복했다. 그러나 그 뒤 5대인 애공(哀公) 때에 정치를 쇠퇴시키고 황음(荒淫)하고 태만해졌는데, 기후(紀侯)가 주나라 의왕(懿王)[9]에게 애공을 참소해서 애공을 팽형(烹刑)에 처하도록 했고, 제나라 사람들의 변풍(變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鷄旣鳴矣　　닭이 이미 울었으니
朝旣盈矣　　조정에 이미 신하들이 가득합니다 하였더니
匪鷄則鳴　　닭이 운 것이 아니라
蒼蠅之聲　　파리떼의 소리로다

구소서(舊小序)[10]에서는 "「계명(雞鳴)」은 어진 후비(后妃)를 생각한 시이다. 애공(哀公)이 황음(荒淫)하고 태만하였다. 그러므로 어진 후비와 정녀(貞女)가 밤낮으로 경계하여 서로 이루어준 도(道)를 읊은 것이다" 하였다.

공소(孔疏)[11]에는 "음란함[淫]으로 말미암아 거칠어지기 때문에 황음(荒淫)이라고

위하자 사상부(師尙父)라고 높였다. 무왕이 은나라를 칠 때 도왔고, 주나라가 선 뒤에 제(齊) 땅에 봉해져서 제국의 시조가 되었다. 속칭 강태공(姜太公)이다. 『사기(史記)·제태공세가(齊太公世家)』에 보인다

8) 주나라의 왕기(王畿)를 천리 사방으로 하고, 그 주위를 좌우 각각 500리마다 1기(畿)로 구획하여 후기(侯畿)·전기(甸畿)·남기(男畿)·채기(采畿)·위기(衛畿)·만기(蠻畿)·이기(夷畿)·진기(鎭畿)·번기(蕃畿)로 함. 구복(九服)과 같은 말이다.

9) 주나라 제7대 임금.

10) 모서(毛序)를 말함.

11) 당대(唐代)의 대유(大儒) 공영달(孔穎達 : 574~648)의 소(疏). 공영달의 자는 중달(仲達). 기주

말한 것이다. 지아비에게 짝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현비(賢妃)가 되고,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정녀(貞女)가 된다"고 하였다. 육의(陸義)는 "경(警)은 본래 또한 경(敬)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구전(舊傳)에 "닭이 울면 부인이 일어나고, 조정에 신하가 가득하면 임금이 일어난다. 창승(蒼蠅)의 소리는 멀리서 우는 닭소리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전(箋)[12]에 "닭이 울고 조정에 신하가 가득함은, 부인과 임금이 그것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상례이다. 그러나 부인이 창승(蒼蠅)의 소리를 닭울음 소리로 여겼다는 말은 상례보다 일찍 일어난 것이니, 공경하는 태도이다.

東方明矣　　동방이 밝은지라
朝旣昌矣　　조정에 이미 신하들이 많습니다 하였더니
匪東方則明　　동방이 밝은 것이 아니라
月出之光　　달이 떠서 빛남이로다

구전(舊傳)에 "동방이 밝으면 부인은 비녀를 꽂고 뵙고, 조정에 이미 신하들이 가득하면 임금이 조회를 본다. 달이 뜨는 빛을 보고서 동방이 밝아진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전(箋)에 "동방이 밝아지고 조정에 이미 신하들이 많다는 것은 역시 부인과 임금이 아침에 인사하고 조회하는 상례이다. 임금은 해 뜨면 조회를 본다. 부인이 달빛을 동방이 밝아진 것으로 알았다는 말은 조회함이니, 또한 공경함이다"고 하였다.

소(疏)에 "『의례(儀禮)』「사혼례(士昏禮)」 주에 '사(纚)는 머리를 싸는 것이다. 사(纚)의 넓이는 한 폭이고 길이는 6척이다. 계(笄)는 지금의 잠(簪)이다' 하였다. 『의례』「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와 「사혼례」에는 모두 '이계초의(纚笄綃衣)'라 하고 주에 '초(綃)는 무늬 있는 비단이니, 이는 옷을 검은 색으로 물들인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머리를 싸고 비녀를 꽂고서 임금께 조회할 때면 마땅히 몸에 초의(綃衣)를 입어야 한다.

형수(衡水) 사람. 수(隋)나라 때 과거에 급제하고, 당나라에 들어와서 국자사업(國子司業), 국자좨주(國子祭酒) 등을 지냈다. 태종(太宗)의 명을 받들어 『오경정의(五經正義)』를 편찬하였다.

12) 중국 후한 때의 경학자 정현(鄭玄)의 주해를 일컬음. 정현(127~200)의 자는 강성(康成). 모든 경에 정통하여 한나라 경학을 통일되게 집대성하였다. 모시(毛詩) 이외에도 『주례』 『의례』 『예기』 등의 주석을 냈다.

『열녀전(列女傳)』[13] 노사씨(魯師氏)의 어머니는 제(齊) 강융(姜戎)이니, 그녀는 '동틀 무렵에 머리를 싸서 비녀를 꽂고서 조회를 하면 군신간의 엄함이 있다'고 하였다. 노(魯)나라 장공(莊公) 24년 『공양전(公羊傳)』 하휴(何休)[14] 주의 말[15]은 『열녀전』의 이 말과 같다. 임금에 대해서는 조회를 본다고 말하였고, 부인(夫人)에 대해서는 아침에 머리를 싸서 비녀를 꽂고서 남편을 뵐 줄을 안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蟲飛薨薨　　벌레가 날아 윙윙거리거든
甘與子同夢　　그대와 함께 꿈꾸기를 좋아하건만
會且歸矣　　모였다가 장차 돌아가게 되면
無庶予子憎　　행여 나 때문에 당신조차 미워하지 않을까

구전(舊傳)에 "옛날의 부인은 그 군자와 짝함에 또한 지아비 공경할 것을 잊지 않았다. 회(會)는 조회에 모임이다. 경대부는 임금께 조회하고, 아침에는 정사를 보고 저녁이면 돌아가 자기 집안 일을 다스린다. '행여 나 때문에 당신조차 미워하지 않을까'하는 시구는 부인을 미움받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말이다"고 하였다.

전(箋)에는 "충비홍홍(蟲飛薨薨)은 동방이 일찍 밝아지는 때이다. 내 오히려 그대와 함께 누워 꿈꾸기를 즐긴다는 것은 친히 하고 사랑해 마지 않음을 말한다. 서(庶)는 무리이다. '벌레가 날아 윙윙'[蟲飛薨薨]거릴 때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까닭은 경대부(卿大夫)로서 조회한 자가 장차 파하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내 연고 때문에 그대까지 미워함이 없도록 하라고 경계한 것이다"고 하였다.

소(疏)에는 "지금의 정본(定本)에는 '여자증(與子憎)'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현(鄭玄) 주에서 '아(我)'라고 했고, 이 '아(我)'가 '나'라는 뜻인 것에 의거하면 여(與) 자(字)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고 하였다.

또 "『대대례(大戴禮)』[16]에서 '우충(羽蟲)은 360가지이고, 그 가운데 봉황(鳳凰)을

13) 중국 한나라 때 유향(劉向)이 편찬한 책.
14) 중국 후한 때의 경학자(129~182). 자는 소공(邵公). 17년의 적공(積功) 끝에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주석을 냈다.
15) 『공양전』 장공(莊公) 24년 소(疏)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데 네 가지 의가 있으니, 닭이 울면 머리에 비녀를 꽂고 조회하니, 군신간의 예이다"(妻事夫 有四義 鷄鳴 縰笄而朝 君臣之禮也)
16) 『소대례기(小戴禮記)』. 한(漢)나라 초에 대성(戴聖)이 전한 『예기』. 戴聖의 숙부(叔父) 대덕(戴德)이 쓴 것을 『대대례(大戴禮)』라 한다.

큰 것이라 한다' 하였으니 새도 충(蟲)이라 칭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충비훙훙(蟲飛薨薨)'의 충(蟲)은 꼭 소충(小蟲)만은 아닐 것이다"고 하였으며, 또 '서(庶)는 무리이다'는 말은 『이아(爾雅)』「석고(釋詁)」의 글이다"고 하였다.

육의(陸義)는 "비(妃)는 본래 배(配)라고도 쓴다"고 하였다.

-- 이 시구에 대한 집전(輯傳)들은 구설(舊說)들과 매우 같다. 그러나 모서(毛序)에서 애공(哀公) 운운한 것은 근거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취하지 않은 것이다.

손육(孫毓)[17]에 의하면, "애공(哀公)은 황음(荒淫)하고 여색에 마음을 두었으니, 어찌 밤새도록 절조를 잃은 생활을 하고서도 항상 일찍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으니, 태만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으며, 신하들의 미워함에 대해 무엇을 경계했으리? 애공(哀公)으로부터 쇠퇴한 팔대(八代)까지에서, 이 시가 어떤 공(公)을 지적해서 풍자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이다"고 한다. 이 말로 보건대, 모서(毛序)에서 말한 애공에 대해 고인(古人)도 일정한 근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말한 것이다.

계명삼장(鷄鳴三章)이니 장(章)은 네 구이다. - 구동(舊同)

子之還兮	몸이 재빠른 그대가
遭我乎狃之間兮	나와 노산(狃山)의 사이에서 만난지라
並驅從兩肩兮	함께 수레를 몰아 두 짐승을 뒤쫓더니
揖我謂我儇兮	나에게 읍하면서 나더러 날렵하다고 이르는구나

구소서(舊小序)[18]에, "환(還)은 황(荒 : 사냥에 빠짐)을 풍자한 시이다. 애공이 사냥을 좋아하여 금수를 사냥하는 데 종사하여 만족함이 없으니, 나라 사람들이 교화되어 마침내 풍속을 이루어 전렵(田獵)에 익숙함을 어질다 이르고,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 데 익숙함을 아름답다 이르게 된 것이다"하였다.

정전(鄭箋)에는, "황(荒)은 정사가 폐해지고 어지러움을 말한다"고 하였다.

육의(陸義)는 "환(還)은 한시(韓詩)[19]에는 선(嫙)이라 하였으니, 선(嫙)은 훌륭한 모

17) 명대(明代) 상하(商河) 사람. 선덕(宣德)년간의 진사시에 합격해서 감찰어사(監察御使)가 되어서는 탄핵을 당해도 권귀(權貴)함에 굴하지 않았다. 후에 섬서(陝西) 우참정(右參政)으로 전직해서 청렴함으로 명성을 날렸다. 『난대법감록(蘭臺法鑒錄)』 7 참조.

18) 毛序

양이다. 염(厭)은 본래 염(饜)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전(傳)에 "환(還)은 빠른 모양이다. 노(猏)는 산 이름이다. 종(從)은 뒤쫓음이다. 짐승이 3년 된 것을 견(肩)이라 한다. 현(儇)은 재빠름이다" 하였다.

전(箋)에 "(이 시에서 일컫는) 그대와 나는 모두 사대부로서 다 사냥을 나왔다가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병(並)은 나란함이다. 나와 그대가 나란히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데, 그대가 내게 읍하고 마주서서 나를 재빠르다고 말하며 칭찬하였다. 칭찬을 한 사람은 앞의 재빠르다는 말(還)에 대해 보답한 것이다"고 하였다.

소(疏)에서는 "서로 보답해가며 칭찬하는 것은 두 사람의 존비(尊卑)가 똑같은 것이고, 둘 다 임금은 아니다. 그러나 수레를 달려 짐승을 쫓기 때문에 서인(庶人)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일컫는) 그대와 나는 모두 사대부로서 사냥을 나왔다가 서로 만나게 된 것이다" 하였다.

소(疏)는 또 "『주관(周官)』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20]에는 '큰 짐승은 공공(公共)으로 하고 작은 짐승을 사사로이 한다'고 하였고, 「칠월(七月)」[21]에 '햇돼지는 자기가 갖고 세 살 된 돼지는 공소(公所)에 바치느니라'라고 하였으니 견(肩)은 큰 짐승이다. 그러므로 '세 살된 돼지를 견(肩)이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육의(陸義)에 "노(猏)는 『설문(說文)』[22]에 '노산(猏山)은 제(齊) 땅에 있다'고 하였고, 최집주(崔集注)에서는 본래 농(噥)이라 썼고, 편첩(便捷)도 본래는 편선(便旋)이라고 썼다. 구(驅)는 본래 구(駏)로 썼다. 견(肩)은 『설문』에 '3년 된 돼지가 견(肩)이고, 그와 대등한 것을 본래 견(豜)이라고도 쓴다'고 하였다. 현(儇)은 한시(韓詩)에서는 '권(婘)'이라 하였으니 훌륭한 모양이다고 하였다.

---

19) 중국 한(漢)나라 때 『시경(詩經)』을 전한 노(魯)·제(齊)·한(韓) 삼가(三家). 노시(魯詩)는 신공(申公)에 근본하고, 제시(齊詩)는 원고(轅固)에 근원하며, 한시(韓詩)는 한영(韓嬰)에 근원한다. 제시와 노시는 위(魏)와 서진(西晉)을 전후하여 망실되었고, 한시는 외전(外傳)만이 남아 전한다. 지금 전하는 『시경』은 한대(漢代)의 모시(毛詩)를 일컫는다.

20) 周代 육경(六卿)의 하나. 군대의 일을 담당하였다.

21) 『시경』 빈풍(豳風) "4월에 아기풀이 패거든/ 5월에 말매미가 울며/ 8월에 곡식을 수확하거든/ 10월에 초목이 말라 떨어지느니라/ 일양(一陽)의 날에 호리(狐貍) 사냥을 가서/ 저 호리를 취하여/ 공자의 갖옷을 만들고/ 이양의 날에 큰 사냥을하여/ 무공을 계속하여/ 햇돼지는 자기가 갖고/ 세 살된 돼지는 공소(公所)에 바치느니라"(四月秀葽 五月鳴蜩 八月其穫 十月隕蘀 一之日于貉 取彼狐貍 爲公子裘 二之日其同 載纘武功 言私其豵 獻豜于公)

22) 중국 한나라 때 허신(許愼)이 지은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약칭.

子之茂兮　　아름다운 그대가
遭我乎猏之道兮　나와 노산(猏山)의 길에서 만난지라
竝驅從兩牡兮　함께 수레를 몰아 두 짐승을 뒤쫓더니
揖我謂我好兮　나에게 읍하면서 나더러 아름답다 이르는구나

부(賦)[23]이다. 무(茂)는 아름다움이다.

구전(舊傳)에 "무(茂)는 아름다움이다" 하였다.

전(箋)에 "칭찬해서 아름답다 말한 것은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한 것(茂)에 보답한 말이다" 하였다.

子之昌兮　　성대한 그대가
遭我乎猏之陽兮　나와 노산(猏山)의 남쪽에서 만난지라
竝驅從兩狼兮　함께 수레를 몰아 두 숭냥이를 뒤쫓더니
揖我謂我臧兮　나에게 읍하며 나더러 잘 한다고 이르는구나

구전(舊傳)에 "창(昌)은 성대함이다. 낭(狼)은 짐승의 이름이다. 장(臧)은 잘함이다"라고 하였다.

전(箋)에 "창(昌)은 아름다운(佼好) 모양이다"고 하였다.

소(疏)에 "『이아(爾雅)』「석수(釋獸)」에 낭('狼)은 숫컷을 환(貛)이라 하고, 암컷을 낭(狼)이라 하며, 새끼를 격(獩)이라 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을 신(迅)이라 한다'고 하였고, 『주례』「사인(舍人)」에는 '낭(狼)은 숫컷을 환(貛)이라 하고 암컷을 낭(狼)이라 하며, 새끼를 격(獩)이라 하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을 신(迅)이라 한다' 하였다. 손담(孫炎)[24]은 '신(迅)은 빠름이다'고 하였다."

육기(陸璣)[25]의 소(疏)에는 '그(狼) 울음소리를 작게도 하고 크게도 하며 어린아이

23) 『시경』을 명명하는 것에는 풍(風)·아(雅)·송(頌)이 있고, 뜻을 기탁하는 방식에는 부(賦)·비(比)·흥(興)이 있다. 명명하는 것에는 각기 정하는 바가 있고, 탁의(托意)에는 부·비·흥이 서로 중첩할 수 있다. 부는 사실의 진술, 비는 비유, 흥은 비유의 원뜻이 나타나지 않는 은유의 형태이다.

24) 중국 삼국시대 위(魏) 나라의 유학자. 자는 숙연(叔然). 정현(鄭玄)의 제자. 동주(東州)의 대유(大儒)로 일컬어졌다. 『이아음의(爾雅音義)』를 지었는데 처음으로 반절(半切)을 썼다.

25) 중국 삼국시대 오(吳)나라 사람. '陸機'라고도 한다. 자는 원각(元恪). 『모시초목어충소(毛詩草

의 울음소리처럼 잘 울어 사람을 유혹한다. 사람과 수십 보 쯤의 거리에서 그 사납고 민첩한 것은 비록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 해도 승냥이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다. 그 기름은 졸여 간을 맞출 만하고, 가죽으로는 갖옷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기』에서 승냥이의 가슴 속의 비계(狼臅膏)[26]를 말하였고, 또 <임금의 오른쪽 위사(衛士)는 호랑이 갖옷을 입고, 그 왼쪽 위사(衛士)는 승냥이 갖옷을 입는다>[27]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고 하였다. '장(臧)은 착함이다'는 말은 『이아』「석고(釋詁)」의 글이다"고 하였다.

육의(陸義)에 "교(佼)는 본래 교(姣)라고도 쓴다"고 하였다.

--이 시의 집전(輯傳)도 구설과 같지만 서(序)에서 이른 바 애공(哀公) 운운한 것을 취하지 않음은 역시 여기저기의 해석들이 다 같다. 오직 양(陽)과 낭(狼)만은 해석을 덧붙였고, 낭(狼)의 해석은 『설문(說文)』에서 취했다.

환(還) 삼장(三章)이니 장(章) 네 구이다 - 구동(舊同)

俟我於著乎而　나를 문간에서 기다리나니
充耳以素乎而　충이(充耳)를 흰 실로 하였고
尙之以瓊華乎而　그 위에 경화(瓊華)를 더하였도다

구소서(舊小序)에 "<저(著)>는 시속을 풍자한 것이니, 당시에 친영(親迎)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정전(鄭箋)에 "당시에 친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영의 예를 말해서 풍자하였다"고 하였다.

육의(陸義)에 "저(著)는 直·居의 반절(半切)이고 또 直·據의 반절이지만, 시 안의 협구(協句)에서 소리를 내 보면 마땅히 直·據의 반절로 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였다.

전(傳)에 "사(俟)는 기다림이다. 문병(門屛)의 사이를 저(著)라 한다. 소(素)는 상아로 된 귀막이옥이고, 경화(瓊華)는 아름다운 보석이니, 선비의 복식이다" 하였다.

전(箋)에는 "아(我)는 시집가는 자가 자신을 말한 것이다. 나를 문간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군자를 따라 나가서 문간에 이르러 군자가 읍(揖)하는 때를 말한다. 내가

木魚蟲疏)』 2권을 지었다.
26) 『예기』「내칙(內則)」 "小切狼臅膏 以與稻米爲酏"
27) 『예기』「옥조(玉藻)」

군자를 보니 흰 실로 충이(充耳)를 했다는 것은 귀막이 옥을 매단 것을 말하고, 그것은 혹 담(紞)이라고도 한다. 담을 짤 때에, 임금은 5색이고 신하는 3색으로 하는데도 먼저 이렇게 흰색을 말한 것은 눈에 먼저 보인 색으로 말한 것이다. 상(尙)은 꾸밈(飾)과 같다. 경화(瓊華)로 꾸몄다는 것은 매달린 담 끝의 이른 바 귀막이옥을 말한다. 임금은 옥으로 경화를 만드는데, 돌빛이 옥과 같은 것이다"하였다.

소(疏)에 '사(俟)는 기다림이다'는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아』 「석궁(釋宮)」에 '문병(門屛)의 사이를 저(宁)라 한다'라고 하였고, 이순(李巡)[28]은 '문병(門屛)의 사이란 정문(正門) 안의 양쪽 문옆방 사이를 말하니 저(宁)라 한다' 하였다. 손담(孫炎)은 '문 안쪽 울 바깥은 임금이 조회 볼 때 서있는 곳이다. 저(著)는 저(宁)와 소리와 뜻이 같다'고 하였다. 모장(毛萇)[29]은 이 장으로 사(士)를 말한 것이니, 대체로 사는 상아로 귀막이옥을 만든다"고 하였다.

또 "뜰에서 내게 읍(揖)한다고 말하고 당(堂)에서 내게 읍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혼례 때 여자는 방안에 서서 남면(南面)을 하고, 남편은 당 위에서 기다리다가 절을 받고는 곧 당에서 내려온다. 예(禮)에, 당 위에서는 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다.

환공(桓公) 2년 『좌씨전』의 '형담굉연(衡紞紘綖)'은 귀막이옥을 매다는 끈이다. 그러므로 '혹 이름을 담(紞)이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국어(國語)』 「노어(魯語)」에 '경강(敬姜)[30]이 <왕후는 친히 현담(玄紞)을 짜는데 실로 짜서 현담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바로 지금의 조승(條繩)은 반드시 여러 가지 채색 실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담(紞)을 짤 때, 임금은 5색, 신하는 3색실로 한다'고 한 것이다. 대체로 천자와 제후는 모두 5색으로 하고, 경대부와 사(士)는 모두 3색으로 한다.

왕숙(王肅)[31]은 '왕후가 현담(玄紞)을 짜는데, 천자의 현담은 검은색 하나 뿐이다. 그런데 어째서 5색을 갖추었다고 말하는가?' 하자, 왕기(王基)[32]가 그것을 판가름해서 '담(紞)은 지금의 조(條)이니, 어찌 한 가지 색의 끈(條)이 있겠는가? 색이 여러

28) 중국 후한(後漢) 사람. 여양(汝陽) 출신이다. 당시 환관(宦官)의 전횡에도 흔들리거나 권력을 다투지 않고 경(經)을 심정(審定)하는 데 기여하였다.

29) 현재 『시경』인 모시(毛詩)의 저자.

30) 춘추시대 노(魯)나라 문백(文伯) 탁(豰)의 어머니. 일찍 과부가 되었고, 여러 가지에 통달하였으며 예에 밝았다.

31) 중국 삼국시대 위(魏) 나라 학자(195~256). 자는 자옹(子雍), 동해(東海) 사람이다. 『상서』 『시경』 『논어』 『삼례』 『좌씨전해(左氏傳解)』 및 『공자가어주(孔子家語注)』를 지었다. 『삼국지(三國志)』 권 13 참조.

32)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 사람. 자는 백흥(伯輿).

가지가 아니면 조(條)를 만들지 못한다. 왕후가 현담(玄紞)을 짠다는 것은 색 가운데 높은 것을 들어 말했을 뿐이다' 하였으니, 뜻이 혹 당연한 것같다" 하였다.

또 소(疏)에 "경(瓊)은 옥의 미칭(美稱)인데, 화(華)라고 이름붙인 것은 빛나고 화려한 색이 있음을 이른다. 이 돌이 경옥(瓊玉)의 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석이라 한 것이다. 모장(毛萇)은, 사(士)들이 미석(美石)이라고만 말하는 것을 천히 여기기 때문에, 아래 장에서 바로 '옥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또 "상(尙)은 이 물건을 높이 더했다는 말이니, 이른 바 꾸밈이다. 임금은 옥으로 귀막이옥을 만든다 하였으니, 임금은 바로 옥을 쓰지만 신하는 쓸 수 없다. 그런데 경(瓊)은 옥의 이름이므로 신하도 옥을 쓴다는 것일까 혐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별해서 '경화(瓊華)는 아름다운 보석이니, 색이 경(瓊)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경화(瓊華)로 꾸몄다는 것은 바로 경화로 충이(充耳)를 만들어서, 신하가 그것을 착용해서 꾸몄다는 것이지, 경화로 담(紞)을 꾸몄다는 말은 아니다"고 하였다.

俟我於庭乎而　나를 뜰에서 기다리나니
充耳以青乎而　충이(充耳)를 푸른 실로 하였고
尙之以瓊瑩乎而　그 위에 경형(瓊瑩)을 더하였도다

구전(舊傳)에 "청(青)은 청옥(青玉)이다. 경형(瓊瑩)은 돌이 옥과 비슷하니, 경대부가 착용하는 것이다" 하였다.

전(箋)에는 "나를 뜰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뜰에서 내게 읍할 때를 말한다. 청(青)은 담(紞)이 푸른 것이다. 돌색은 경(瓊)과 같고 형(瑩)과 같다"라고 하였다.

俟我於堂乎而　나를 당(堂)에서 기다리나니
充耳以黃乎而　충이(充耳)를 누런 실로 하였고
尙之以瓊英乎而　그 위에 경영(瓊英)을 더하였도다

구전(舊傳)에 "황(黃)은 황옥(黃玉)이다. 경영(瓊英)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옥과 같은 것이니, 임금이 착용하는 것이다" 하였다.

전(箋)에 "황(黃)은 담(紞)이 누런 것이다. 경영(瓊英)은 경화(瓊華)와 같다"고 하였다.

소(疏)에서는 "『이아』「석초(釋草)」에 '나무에서 꽃 피는 것을 화(華)라 하고 풀에서 꽃 피는 것을 영(榮)이라고 한다. 그런데 꽃만 피고 열매맺지 않는 것을 영(英)이라 하니, 그렇다면 영(英)은 화(華)의 별칭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영(瓊英)은 경화(瓊華)와 같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 이 시의 소서(小序)에서는 이 시가 당시의 친영(親迎)하지 않는 풍속을 풍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집전(輯傳)에서는 대체로 그 설을 따르고 있다. 모장(毛萇)과 정현(鄭玄)은, 삼장이 모두 당시의 친영의 예(禮)를 들어 풍자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동래(東萊) 여씨(呂氏)[33]는 "이미 친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신부가 신랑의 집에 이르는 예를 행하였고, 신랑은 신부를 인도해서 들였기 때문에 문간과 뜰, 당에서 매번 기다렸던 것이다"하였다. 그 뜻이 다른 구설들에 비해 더 낫기 때문에 집전에 다 취하였다.

저(著) 삼장(三章)이니 장(章)은 세 구이다 - 구동(舊同)

東方之日兮　동방의 해여
彼姝者子　저 아름다운 그대가
在我室兮　내 방에 있도다
在我室兮　내 방에 있으니
履我即兮　내 발자취를 밟아 따라오도다

구소서(舊小序)에 "「동방지일(東方之日)」은 쇠(衰)함을 풍자한 시이다. 군신이 도리를 잃고 남여가 음분(淫奔)하여 예로써 교화하지 못해서였다"고 하였다.

육의(陸義)에 "쇠(衰)함을 풍자했다는 것은 본래 양공(襄公)을 풍자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르다. 「남산(南山)」장[34] 이하가 비로소 양공에 대한 시이다"라고 하였다.

---

33) 중국 남송 때의 학자 여조겸(呂祖謙 : 1137~1181)을 말함. 금화(金華) 사람. 자는 백공(伯恭)이고 동래(東萊)는 그의 호이다. 주희(朱熹)·장식(張栻)과 함께 동남삼현(東南三賢)이라 불렸다. 『고주역서설(古周易書說)』『춘추좌씨전설(春秋左氏傳說)』『동래좌씨박의(東萊左氏博義)』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 처음에는 주희와 함께 『근사록(近思錄)』을 공편(共編)하기도 했으나, 뒤에 『모시(毛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배척하게 되었다.

34) 『시경』「제풍(齊風)」 제6장.

전(傳)에 "흥(興)이다. 해가 동방에 떠오름은, 임금이 밝고 성대해서 살피지 않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수(姝)는 처음 결혼할 때의 모습이다. 이(履)는 예(禮)이다"라고 하였다.

전(箋)에는 "'동방의 해여'라고 말한 것은 하소연한 것일 뿐이다. 처음 결혼한 듯이 아름다운 사람이 내 방에 와 있으면서 나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려 하나 나는 어찌할 수 없다. 해가 동방에 있다는 것은 그 밝음이 아직 매우 환하게 솟아오른 것은 아니니, 임금이 현명치 못함을 비유하였다. 즉(卽)은 나아감이다. 내 방에 있는 사람이 예로써 내게 왔다면 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그대는 예로써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였다"고 하였다.

소(疏)에서는 "정현(鄭玄)은, 당시의 남녀가 음분(淫奔)하니, 여자가 남자를 거절하는 말을 빌어 당시의 쇠란(衰亂)함을 풍자하였다고 여겼다.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하소연한다"고 하였다.

또 소에서는 "왕숙(王肅)은 '임금의 현명하고 성대함을 말해서 현재의 어두움을 풍자한다'고 했다" 하였다.

소는 또 "전(箋)에서는, 모서(毛序)에서 군신실도(君臣失道)를 말하고 선을 논해서 악을 풍자함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당시의 실제 일이라, 밝고 성대한 임금을 위함에는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꾸었고, 전(傳)은 '동방의 해'라는 것을 임금에다 비유해서, 해에게 정(情)을 하소연한다고 하였다".

또 '이(履)는 예(禮)이다'라는 것은 『이아』「석언(釋言)」의 말이다. 왕숙(王肅)은 '옛 혼인의 바른 체를 말해서 지금의 음분(淫奔)한 풍속을 풍자하였다'"고 하였다.

東方之月兮　동방의 달이여
彼姝者子　저 아름다운 그대가
在我闥兮　내 문 안에 있도다
在我闥兮　내 문 안에 있으니
履我發兮　내 발자취를 따라 출발하도다

구전(舊傳)에 "달빛이 동방에서 성대하다 하였으니, 임금이 위에서 밝은 것은 해와 같고, 신하가 아래에서 살피는 것은 달과 같다. 달(闥)은 문 안이다. 발(發)은 감이다" 하였다.

전(箋)에서는 "달로 신하를 흥(興)했다. 달이 동방에 있다는 것은 또한 말이 분명하지 않다. 예로 왔으니 내가 가서 함께 떠난다는 것이다" 하였다.

소(疏)에서는 "떠나감은 반드시 발을 출발시켜서 가기 때문에 발(發)로써 떠나간다고 한 것이다"고 하였다.

육의(陸義)는 "한시(韓詩)에서는 '문병(門屛)의 사이를 달(闥)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시의 구설(舊說)에서는 남녀의 음분이 군신의 실도(失道)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에 풍자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집전(輯傳)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두었지만 정풍(鄭風)의 「동문지선(東門之墠)」 장의 예처럼 지적하는 곳은 없다. 대개 음분(淫奔)의 시로 여긴 것이다. 이(履)를 섭(躡)이라 한 것은, 『박아(博雅)』[35]에서 "섭(躡)은 밟음이다"하고, 『사기(史記)』의 '섭족행오지간(躡足行伍之間)'이라는 말을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역시 이(履)의 뜻을 섭(躡)이라 할 수 있다.

「동방지일(東方之日)」 이장(二章)이니 장(章)은 다섯 구이다 - 구동(舊同)

東方未明　동방이 아직 밝지 못하였거늘
顚倒衣裳　의상을 전도(顚倒)하여 입노라
顚之倒之　넘어지고 엎어지거늘
自公所之　공소(公所)로부터 부르도다

구소서(舊小序)에 "'동방미명(東方未明)'은 절도가 없음을 풍자한 시이다. 조정이 일어나고 거처함이 절도가 없고 호령이 제때에 맞지 않아 설호씨(揭壺氏)[36]가 그 직책을 관장하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정전(鄭箋)에는 "호령(號令)은 부름과 같다. 설호씨는 시간을 담당한 자다"하였다.

공소(孔疏)에는 "『주례』 「하관(夏官)」 서(序)에 '설호씨는 하사(下士)니 여섯사람이다'하였고, 주에 '설(揭)은 설발(揭髮)의 설과 같이 읽는다. 호(壺)는 물을 채우는 그릇이다'"고 하였다.

육의(陸義)는 "설호씨는 시간을 담당하는 관리이다"고 하였다.

---

35) 『광아(廣雅)』의 별칭. 중국 수(隋)나라 때 조헌(曹憲)이 음석(音釋)을 쓰고 수양제(隋煬帝)의 휘(諱이)를 피해 '박아(博雅)'로 바꾸었다.

36) 시각(時刻)을 맡은 관원

전(傳)에 "위를 의(衣)라 하고 아래를 상(裳)이라 한다. 자(自)는 부터이다. 여러 신하들이 의상(衣裳)을 전도(顚倒)하여 입었는데, 조정 관원이 임금이 계신 곳으로부터 와서 불렀다. 이는 시간이 절도를 잃으니 임금도 일찍 일어난 것이다" 하였다.

전(箋)에서는 "설호씨가 누각(漏刻)의 절도를 잃어서 동방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도 밝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갑작스레 의상을 전도하여 입었다. 여러 신하들이 조회할 때는 (날이 밝아) 색깔을 구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조정에 들어간다" 하였다.

소(疏)에서는 "『예기』「곡례(曲禮)」에 '두 손으로 옷자락 끝이 땅에서 한 자쯤 뜨게 치켜 들어야 한다'하고, 주에 '자(齊)는 상(裳)의 아래 꿰맨 곳이다' 하였으니 여기의 상(裳)도 옷(衣)을 일컫는다" 하였다.

東方未晞　동방에 아직 햇살이 퍼지지 않았거늘
顚倒衣裳　의상을 전도(顚倒)하여 입노라
倒之顚之　넘어지며 엎어지거늘
自公令之　공소(公所)로부터 호령하도다

구전(舊傳)에는 "희(晞)는 햇빛이 처음 올라오는 것이다. 영(令)은 고함이다" 하였다.

소에서는 "희(晞)는 해의 빛과 기운이 옅게 드러난 것이므로 태양이 밝지 못한 것은 아니다. 햇빛을 보게 되면 물건이 마르기 때문에 희(晞)를 마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방이 아직 밝지 않았다는 것은 마르는 것에 대해 취함이 없다. 그러므로 햇빛이 처음 올라 오는 것이라 말하였다" 하였다.

折柳樊圃　버들가지를 꺾어 채전(菜田)에 울타리친 것을
狂夫瞿瞿　광부(狂夫)도 두려워하거늘
不能晨夜　새벽과 밤을 구별하지 못하여
不夙則莫　이르지 않으면 너무 늦도다

비(比)이다. 유(柳)는 버들이 아래로 늘어진 것이니, 부드러운 나무이다. 번(樊)은 울타리이다. 포(圃)는 채원(菜園)이다. 구구(瞿瞿)는 놀라 돌아보는 모양이다. 숙(夙)은

이름이다.

○ 버드나무를 꺾어 채전(菜田)에 울타리를 친 것은 비록 믿을 만한 것이 못되나, 광부(狂夫)가 이것을 보고 오히려 놀라서 돌아보고 감히 넘지 못한다. 이것으로 새벽과 밤의 한계가 매우 분명해서 사람들이 알기 쉬운 것인데, 지금 마침내 새벽과 밤의 한계를 알지 못해서 너무 이른 실수를 하지 않으면 너무 늦는 실수를 함을 비유한 것이다.

구전(舊傳)에는 "유(柳)는 부드러운 나무이다. 번(樊)은 울타리이다. 포(圃)는 채원(菜園)이다. 버드나무를 꺾어 채원에 울타리를 친 것은 금하는 일에 무익(無益)하다. 구구(瞿瞿)는 지키지 못하는 모양이다. 옛날에 설호씨는 수화(水火)로 낮과 밤을 나누어 조정에 때를 고했다. 신(辰)은 때이고, 숙(夙)은 이름이고, 모(莫)는 늦음이다" 하였다.

전(傳)에서는 "버드나무는 울타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광부가 설호씨의 일을 맡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그 일을 맡지 못했다는 것을 항상 절도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소(疏)에서는 "번(樊)은 울타리이니 「석언(釋言)」의 글이다. 곽박(郭璞)[37]은 '울타리를 말한다. 채소를 심는 땅을 포(圃)라 하는데, 그 바깥 울타리를 원(園)이라 한다'고 하였고, 『주례』 「태재(太宰)」에서 구직(九職) 가운데 '두번째는 원포(園圃)니, 초목을 기른다' 하고, 주에 '초목을 심는 곳을 포(圃)라 하니, 이 포 안에 채소를 심을 수 있고 또 초목을 심을 수도 있다'하였다.

「실솔(蟋蟀)」[38]에서는 '양사(良士)가 돌아보고 돌아보는 바이니라(良士瞿瞿)'고 하고, 전(傳)에 '구구연(瞿瞿然)은 예의를 돌아봄이다' 하였다. 여기에서 '광부구구(狂夫瞿瞿)'란 말은, 미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구구(瞿瞿)는 지키지 못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설호씨(挈壺氏)」직[39]에 '상(喪)에 호(壺)를 매달아 곡(哭)을 번갈아 하는 것은 모두 수(水)와 화(火)로 지켜 밤낮을 나눈다. 겨울에는 불로 솥의 물을 때서 물이 끓어오

37) 중국 진(晉)나라 때 학자(276~324). 자는 경순(景純). 경술(經術)을 좋아해서 박학했고, 사부(詞賦)로도 유명했으며, 음양역산(陰陽曆算)과 복서(卜筮)에도 능통하였다. 『이아(爾雅)』『방언(方言)』『산해경(山海經)』『목천자전(穆天子傳)』 등을 주석하였다.

38) 『시경』「당풍(唐風)」 참조.

39) 『주례』 하관(夏官) 「설호씨(挈壺氏)」에 보인다.

르면 붓는다'하고, 주에 '대(代)는 번갈아듦이다. 예에 대렴(大斂)하기 전에는 哭을 번갈아 한다. 물로 호(壺)를 지키는 것은 물을 붓고 흘리는 일을 하고, 불로 병을 지키는 것은 밤이면 시각 수를 보여준다. 지금 태사(太史)[40]가 잰 것은 다 동지(冬至)엔 낮 45 밤55, 하지에는 낮 65 밤 35, 춘분과 추분에는 주 55 반, 야 44 반이라 했는데, 태사의 관(官)이 서서 법을 만들어 정해서 48전(箭)을 만들었다. 그런데 일년에 24절기가 있기 때문에 일년 동안 48전을 쓰게 된다.'고 하였다.

마융(馬融)[41]과 왕숙(王肅)이 『상서』에 주를 달아, '날이 길면 낮엔 60각, 밤엔 40각을 세고, 날이 짧으면 낮엔 40각, 밤엔 60각을 세며, 춘분과 추분에는 주야에 각각 50각'이라고 한 것은, 『상서』에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마침내 해가 보이는 것으로 한도로 삼은 것이다.

『상서위(尙書緯)』[42]에서는 각(刻)을 상(商)이라 하였고, 정현(鄭玄)이 지은 『사혼례목록(士昏禮目錄)』에서는 '해가 들어간 삼상(三商)이 저녁이 된다'고 하였으니 전체 수를 들어 말했을 뿐이다. 사실은 해가 나타나기 전과 해가 들어간 뒤 혼명(昏明)의 사이가 각각 2각 반이니, 낮의 5각을 덜어 밤에 더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역법에서는 대부분 5각으로 계산하고 있다.

정(鄭)은 『서경』「요전(堯典)」 주(注)에서 '춘분과 추분은 해가 보이는 시각이 보이지 않는 시각과 같다. 해가 긴 것은, 해가 보이는 시각이 55, 해가 보이지 않는 시각이 45각이다' 하였으니, 마융·왕숙의 견해와 같지 않다. 춘분과 추분의 시각이 같다고 한 정(鄭)의 말은 옳지만, 해가 길 때와 해가 짧을 때의 수를 말한 것은 역법과 매우 어긋난다.

마융은, 낮의 시각은 60이고 밤의 시각은 40이므로 낮을 덜어 밤을 보충한다고 말했는데, 정(鄭)의 생각으로는, 낮 시각을 덜어내지 않거나, 또는 낮의 5각을 덜어서 밤에 더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鄭의 망령된 말일 뿐이다. 『주례』 춘관(春官) 「계인(鷄人)」직에 '나라의 일에 시기를 만들면 때를 고한다'하고, 주에 '닭이 시간을 아는 것을 본떴다'고 했다. 천자가 관직을 갖출 때에, 설호가 시간을 담당하고 계인

40) 일관(日官). 『주례』 춘관(春官) 「태사(太史)」조에 보인다.
41) 중국 한(漢)나라 때의 경학자(79~166). 자는 계장(季長). 정현(鄭玄)의 스승이다. 『삼전이동설(三傳異同說)』을 지었으며, 『효경(孝經)』 『논어』 『시경』 『서경』 『주역』 『열녀전』 『노자』 『이소(離騷)』 등 여러 책에 주석을 하였다.
42) 위서(緯書)의 하나.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상서위』 3권이 있고, 모두 정현(鄭玄)의 주(注)가 있다 한다.

(鷄人)이 때를 고하게 하는데, 제후들은 관직을 겸하게 해서 계인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설호(挈壺)가 시간을 고한다"고 하였다.

또 "『이아』「석훈(釋訓)」에 '불신(不辰)은 불시(不時)이다' 하였으니, 이 신(辰)이 때가 된다. '숙(夙)은 이름[早]이다'는 「석고(釋詁)」의 글이다"고 하였다.

-- 이 시 집전(輯傳)들이 모서(毛序)의 설을 따랐고, 여기저기의 해석들도 구서(舊序)와 대체로 같다. 다만 설호(挈壺)의 담당 직업에 대한 말은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구(瞿瞿)'란 말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시 중에 '미명(未明)·미희(未晞)·불숙즉모(不夙則莫)'의 句가 있는데, 이런 일을 주관함에 구서(舊序)는 광부(狂夫)를 설호씨(挈壺氏)라 지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마지막 장의 경우, 구서(舊序)에서는 위 한 구를 비유로 취했기 때문에 그 말이 우회적이다. 만약 2구를 아울러 비유로 삼아서 집전(輯傳)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했다면 진실로 적절하고 명쾌했을 것이다. 주자(朱子)께서 "글을 볼 때 천착(穿鑿)해서는 안 되고, 뜻이 분명한 곳으로부터 보아야지, 뜻이 숨겨진 곳으로부터 찾아가서는 안된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시를 읽는 것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동방미명(東方未明) 삼장(三章)이니 장(章)은 네 구이다 - 구동(舊同)

南山崔崔　남산이 높고 높거늘
雄狐綏綏　숫여우가 제 짝을 찾도다
魯道有蕩　노나라 길이 평탄하거늘
齊子由歸　제자(齊子)가 이 길을 따라 시집왔도다
旣曰歸止　이미 시집을 왔거늘
曷又懷止　어찌하여 또 그리워하는고

구소서(舊小序)에는 "「남산」은 양공(襄公)을 풍자한 시이다. 금수의 행실로 그 누이와 간음하니, 대부가 이 악행을 만나 시를 짓고 떠나간 것이다" 하였다.

정전(鄭箋)에는 "양공의 누이는 노나라 환공(桓公)의 부인인 문강(文姜)이다. 양공이 본래 문강과 간통을 하였는데, 문강이 시집갔을 때, 환공이 이를 꾸짖었다. 환공

이 부인과 함께 제나라에 가자, 부인이 이 일을 양공에게 하소연하였는데, 양공은 공자(公子) 팽생(彭生)을 시켜서 환공을 수레에 태워 목졸라 죽였다. 부인은 오래 제(齊)나라에 머물렀고, 노(魯)나라 장공(莊公)이 즉위한 후에 노나라로 와서도 오히려 다시 제후(齊侯)를 작(祰)[43]과 축구(祝丘)에서 만났으며, 또 제나라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다. 제나라 대부가 양공이 이처럼 악을 행함을 보고는 시를 지어 풍자했고. 또 노나라 환공이 부인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齊)나라로 간 것을 비난했다"고 하였다.

공소(孔疏)에는 "경의 상 2장은 양공을 풍자했기 때문에 노나라 환공을 말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대부가 이러한 악행을 만나서 시를 짓고 떠난 것이다. 시를 지은 뜻을 말해서 임금의 악행이 심함을 나타냈지만, 경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또 "「폐구(弊笱)」[44]와 「의차(猗嗟)」[45]장의 모서(毛序)를 통해 제나라 양공이 간음한 누이가 문강(文姜)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전(箋)은 또, 경에 노나라 환공을 그르다고 한 일이 있는데도 모서(毛序)에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 부인(夫人)을 들어 글을 썼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펴서, 양공이 이처럼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대부가 시를 지어 풍자했다고 말하고, 또한 노나라 환공이 문강을 제어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였다. 『시경』에 이 두 뜻이 들어 있다고 언급하는 곳에 '떠나갔다는(去之)' 말이 중첩되어 있는데, 서(序)의 '거지(去之)' 글은 제나라를 버리고 떠남을 말한다"고 하였다.

육의(陸義)는 "액(搤)은 『설문』에 '착(捉)'이라 하였다. 『춘추공양전』에는 '공의 몸을 잡고서 죽였다'고 하였다. 작(祰)의 음은 작(灼)이니 지명이다" 하였다.

전(傳)에 "흥(興)이다. 남산(南山)은 제나라 남산이다. 최최(崔崔)는 높고 큼이다. 임금의 존엄함이 남산의 고대(高大)함과 같다는 말이다. 숫여우가 서로 따름에 수수(綏綏)하니 별로 음양의 짝을 잃음이 없다. 탕(蕩)은 평이(平易)함이다. 제자(齊子)는 문강(文姜)이다. 회(懷)는 그리워함이다" 하였다.

전(箋)에는 "숫여우가 남산 위에 가서 짝을 구하는데, 그 모양이 수수연(綏綏然)하다. 시를 흥(興)한 자는, 양공(襄公)이 임금의 존위(尊位)에 있으면서 음탕하고 방일한 행동을 하였으니, 그 위의(威儀)의 부끄럽고도 추악함이 여우와 같다고 비유했다.

---

43) 춘추시대 제(齊)나라 고을 이름.
44) 『시경』「제풍(齊風)」 참조.
45) 『시경』「제풍(齊風)」 참조.

부인이 시집가는 것을 귀(歸)라 하니, 문강(文姜)이 이미 예로써 이런 도리에 따라 노후(魯侯)에게 시집갔음을 말한다. 회(懷)는 옴이다. 문강이 이미 노후에게 시집갔다고 했으니 어찌 다시 오려 하는가? 그가 오는 것은 그르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소(疏)에서는 "지금 정본(定本)에 '음양의 짝을 잃었다'고 하였으니, 뜻이 또한 통한다. 대문(對文)에는 날짐승은 자웅(雌雄)이라 하고 길짐승은 빈모(牝牡)라 한다 하였으니, 그 말을 서로 흩트려 쓰면 서로 통할 수 있다. 예컨대 『서경』「목서(牧誓)」에서는 '암탉[牝雞]이 새벽에 울면'이라고 하였고, 희공(僖公) 15년 『좌전』에서는 진백(秦伯)이 진(晉)을 칠 때 주역점을 쳐서 고괘(蠱卦)를 얻었다고 하고, 그 말미에 '숫여우[雄狐]를 잡았다' 했다"고 하였다.

또 "길의 모양을 말했기 때문에 탕(蕩)을 평이(平易)라고 하였다. 전(傳)에서는 이 시의 '유(由)'에 대해 대부분 용(用)이라고 새겼다" 했다.

또 '회(懷)는 그리워함이다'는 「석고(釋詁)」의 글이고, '회(懷)는 옴[來]이다'는 「석언(釋言)」의 글이다" 하였다.

葛屨五兩　칡신은 다섯 켤레이며
冠緌雙止　갓끈은 한 쌍이니라
魯道有蕩　노나라 길이 평탄하거늘
齊子庸止　제자(齊子)가 이 길을 사용하여 시집왔도다
旣曰庸止　이미 이 길을 사용하여 시집왔으니
曷又從止　어찌하여 또 서로 따르는고

구전(舊傳)에 "갈구(葛屨)는 복식 가운데 천한 것이고, 관유(冠緌)는 복식 가운데 귀한 것이다. 용(庸)은 사용함이다" 하였다.

전(箋)에서는 "'칡신이 다섯 켤레'라는 말은 문강(文姜)이 조카딸, 여동생, 유모와 함께 거처하는 것을 비유하였고, '갓끈'은 양공(襄公)을 비유했다. 다섯 사람은 홀수가 되는데, 양공이 가면 그에 따라 쌍(雙)이 되는 것이다. 갓끈과 칡신발이 함께 처해서는 안되는 것은 양공과 문강이 부부의 도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다. 이는 문강이 이미 이 부부의 도리로 노후(魯侯)에게 시집갔는데, 양공은 어찌 다시 보내놓고도 문강을 따라 음일(淫佚)한 행실을 하는가? 라는 말이다"고 하였다.

소(疏)에서는 "다섯이라 밝힌 것은 반드시 본뜬 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강과

조카딸, 여동생과 유모는 모두 부인(婦人)들이고 양공은 남자로서 그 가운데 끼여들었음을 비유한 것이지, 양공이 다섯 사람에게 모두 음란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藝麻如之何　삼을 심을 때에 어찌해야 하는가
衡從其畝　그 이랑을 횡으로 하고 종으로 하느니라
取妻如之何　아내를 취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必告父母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하느니라
旣曰告止　이미 부모에게 아뢰었거니
曷又鞫止　어찌하여 또 욕심을 극에 달하게 하는고

구전(舊傳)에 "예(藝)는 심음이다. 횡으로 지나고 종으로 지나면서 심은 뒤에야 삼을 얻으니, 반드시 부모의 사당에 고해야 한다. 국(鞫)은 궁극함이다" 하였다.

전(箋)에는 "삼을 심는 자는 반드시 먼저 그 밭을 갈고 다스린 뒤에 삼을 심어야 하니, 그것으로 임금이 처를 취할 때에 반드시 먼저 부모께 의논해야 함을 말하였다. 취처(取妻)의 예는 산 사람에게 의논하고 죽은 자에게는 점치니, 이것을 일러 고한다고 한다. 국(鞫)은 가득 참이다. 노후(魯侯)는 여자를 이미 부모에게 고하고서 취했는데, 어째서 다시 명(命)을 채워주고 따라서 제(齊)나라에 이르렀는가? 또한 노나라 환공(桓公)을 비방한 것이다" 하였다.

소(疏)에는 "마땅히 아녀자의 도리로 금해야 하거늘, 어째서 또 사악한 뜻을 극에 달하게 해서 제(齊)나라에 이르게 했는가? 위에서는 노(魯)나라 환공(桓公)이 문강(文姜)을 금지하지 못함을 꾸짖었다. 정(鄭)이 국(鞫)을 영(盈)이라 한 것만이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하였다.

또 "들에서 짐승을 쫓는 것을 엽(獵)이라 하니, 엽(獵)은 걸어서 밟아감의 명칭이다. 횡(衡)은 옛날에 횡(橫)자였다. '衡獵之 從獵之'라는 말은 밭갈고 나서 동서로 밟으며 고르고 만지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쟁기를 밀면서 갈아서 종횡으로 가며 밭갈기에는 마땅하지 않았다. 또 『서경』의 전(傳)에 경(耕)을 엽(獵)이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렵(摩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정본(定本)에서는 '거듭한 뒤에야 삼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뜻은 비록 통할 수 있지만 종(種)자를 쓰는 것만은 못하다" 하였다.

또 "전(傳)에서는 경의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하느니라'란 말이 오직 산 자에게만 고하는 것이라 할까 혐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사당에 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箋)에서는 또한 그 말이 오직 사당에만 고하는 것이라 할까 혐의해서 산 자에게 의논하고 죽은 자에게 점친다고 한 것이다"고 하였다.

또 "소공(昭公) 원년의 『좌전』에서 초(楚)나라 공자(公子) 위(圍)가 장차 정(鄭)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그 말에 '위(圍)가 궤연(几筵)을 펴 놓고 장왕(莊王)과 공왕(共王)의 사당에 고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 본래 사당에 고하는 법이 있었는데, 전(箋)에서는 반드시 점치는 것이라고 여겼으니, 납길(納吉)[46]이 육례(六禮)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점친다는 것을 들어 말했던 것이다.

'국(鞠)은 궁극[窮]함이다'는 「석언(釋言)」의 글이고, '국(鞠)은 가득참[盈]이다'는 「석고(釋詁)」의 글이다. 노나라 환공(桓公)이 문강을 한껏 방종하게 하고 제어하지 못함을 꾸짖었다" 하였다.

析薪如之何	장작을 패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匪斧不克	도끼가 아니면 하지 못하느니라
取妻如之何	아내를 취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匪媒不得	중매가 아니면 얻지 못하느니라
旣曰得止	이미 얻었거니
曷又極止	어찌하여 또 욕심을 극에 달하게 하는고

구전(舊傳)에 "극(克)은 능함이다. 극(極)은 지극함이다"라고 하였다.

전(箋)에는 "이는 장작을 패려면 반드시 도끼를 기다려서야 팰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는 아내를 취함에 반드시 중매를 기다려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여자를 이미 중매로 얻었거늘 어째서 제어하지 않고 그 사악한 뜻을 방자하고 지극히 하게 해서 제(齊)나라에 이르게 했는가? 또한 노나라 환공(桓公)을 비난한 것이다." 하였다.

소(疏)에서는 '극(極)은 지극함이다'는 「석고(釋詁)」의 글이다. 전(箋)에서는 '사악한 뜻을 방자하고 지극하게 해서 제(齊)나라에 이르게 했는가?'라는 것을 말하여 극(極)

46) 중국 주(周)나라 때 혼례의 육례(六禮) 가운데 하나. 신부감의 양부(良否)를 점쳐 상상길(上上吉)의 판단이 나오면 하인을 보내어 여자의 집에 통고하는 일.

이 지극함의 뜻이 됨을 거듭 설명했다. 자(恣)는 뜻을 해석한 말이지, 경문(經文)의 극(極)은 아니다.

-- 이 시의 대지(大指)는 소서(小序)를 따랐고, 여러 훈고는 모(毛)와 정(鄭)의 설을 가려서 그 뜻이 좋은 것을 취하였다. 정(鄭)씨의 "다섯 사람은 홀수가 된다"는 설은 너무도 사정에서 멀고, 게다가 조카와 여동생, 유모로 그 수를 채우는 것은 심한 천착(穿鑿)이다. 집전(輯傳)에서는 다만 "신발은 두 짝이 되고 갓끈은 반드시 쌍(雙)이어야 하니, 물건은 각각 짝이 있는 것이다"고 했으니 명쾌하다 할 만하다.

유(綏)는 『의례(儀禮)』「사관례(士冠禮)」 주에 "끈이니 꾸밈이다" 하였고, 집전에서는 "관(冠) 위의 꾸미개"라고 하였는데, 출전한 바가 자세하지 않다. 해박한 고찰을 기다린다.

齊一之八

齊 國名 本少昊時爽鳩氏所居之地 在禹貢 爲靑州之域 周武王 以封太公望 東至于海 西至于河 南至于穆陵 北至于無棣

太公 姜姓 本四岳之後 旣封於齊 通工商之業 便魚鹽之利 民多歸之 故爲大國 今靑齊淄濰德棣等州 是其地也 舊譜

齊者 古少昊之世爽鳩氏之墟 周代武王伐紂 封太師呂望於齊 是爲齊太公 地方百里 都營丘 周公 致太平 敷定九畿 復夏禹之舊制 後五世哀公政衰 荒淫怠慢 紀侯 譖之於周懿王 使烹焉 齊人變風始作 鷄旣鳴矣 朝旣盈矣 匪鷄之鳴 蒼蠅之聲

舊小序 鷄鳴 思賢妃也 哀公 荒淫怠慢 故陳賢妃貞女 夙夜警戒相成之道焉

孔疏云 由淫而荒 故言荒淫也 論其配夫 則爲賢妃 指其行事 則爲貞女

陸義云 警本又作敬

傳云 鷄鳴而夫人作 朝盈而君作 蒼蠅之聲 有似遠鷄之鳴

箋云 鷄鳴朝盈 夫人也君也 可以起之常禮 夫人 以蒼聲爲鷄鳴 則起早於常禮 敬也

東方明矣 朝旣昌矣 匪東方則明 月出之光

舊傳云 東方明 則夫人 纚笄而朝 朝已昌盛 則君聽朝 見月出之光 以爲東方明

箋云 東方明 朝既昌 亦夫人也君也 可以朝之常禮 君 日出而視朝 夫人 以月光爲東方明則朝 亦敬也

疏云 士昏禮注 纚 綃髮 纚 廣充幅 長六尺 笄 今時簪 禮特牲饋食及士昏禮 皆云纚笄綃衣 注云 綃 綺屬 此衣染之以黑 此以纚笄朝君 則當身服綃衣也

列女傳 魯師氏之母 齊姜戎 其女云 平旦 纚笄而朝則有君臣之嚴 莊二十四年 公羊傳何休注 其言 與列女傳 亦同 於君言聽朝 夫人言而朝足知纚笄而朝君矣

蟲飛薨薨 甘與子同夢 會且歸矣 無庶予子憎

舊傳云 古之夫人 配其君子 亦不忘其敬 會 會於朝也 卿大夫朝會於君 朝聽政 夕歸治其家事 無庶予子憎 無見惡於夫人

箋云 蟲飛薨薨 東方早明之時 我猶樂與子臥而同夢 言親愛之無已 庶 衆也 蟲飛薨薨 所以當起者 卿大夫朝者 且罷歸故也 無使衆臣 以我故憎惡於子 戒之也

疏云 今定本 作與子憎 據鄭云我 我是予之訓 則作與者 非也

又云 大戴禮 羽蟲 三百六十 鳳凰 謂之長 則鳥亦稱蟲 此蟲飛薨薨 未必唯小蟲也

又云 庶衆 釋詁文 陸義云 妃 本亦作配

此詩輯傳 與舊說大同 而序所謂哀公云云 則無可據 故取之也

○ 按孫毓云 哀公 荒淫留色 安能侵夜失節之漏而常早興乎 如此 何怠慢之有也 何憎之戒也 自哀至衰八世 未審此詩指刺何公耳 以此觀之 序所云哀公 古人亦不見其定據 故其言如是

鷄鳴三章 章四句 舊同

子之還兮 遭我乎狃之間兮 並驅從兩肩兮 揖我謂我儇兮

舊小序 還 刺荒也 哀公好田獵 從禽獸而無厭 國人化之 遂成風俗 習於田獵 謂之賢 閑於馳逐 謂之好焉

鄭箋云 荒 謂政事廢亂 陸義云 還 韓詩作嫙 嫙 好貌 厭 本或作黡

傳云 還 便捷之貌 狃 山名 從 逐也 獸三歲曰肩 儇 利也

箋云 子也我也 皆士大夫也 俱出田獵而相遭也 並 併也 子也我也 併驅而逐禽獸子則揖耦我 謂我儇譽之也 譽之者以報前言還也

疏云 以報答相譽 則尊卑平等 非國君也 然馳車逐獸 又 非庶人 故知子也我也 皆士大夫 出田相遭也

又云 大司馬云 大獸公之 小禽私之 七月云 言私其豵 獻豜于公 則肩是大獸 故言三歲曰肩

陸義云 猋 說文云 猋山在齊 崔集注 本作嘽 便捷 本亦作便旋 驅 本又作駈 肩 說文云 三歲豕 肩 相及者 本亦作豜 儇 韓詩作嬛 好貌

子之茂兮 遭我乎猋之道兮 竝驅從兩牡兮 揖我謂我好兮

賦也 茂 美也

舊傳云 茂 美也

箋云 譽之言好者 以報前言茂也

子之昌兮 遭我乎猋之陽兮 竝驅從兩狼兮 揖我謂我臧兮

舊傳云 昌 盛也 狼 獸名 臧 善也

箋云 昌 佼好貌

疏云 釋獸云 狼 牡豲 牝狼 其子 獑 絶有力 迅 舍人曰 狼 牡 名豲 牝 名狼 其子名獑 絶有力者 名迅 孫炎曰 迅 疾也

陸璣疏云 其鳴 能小能大 善爲小兒啼聲 以誘人 去數十步 其猛捷者 雖善用兵者不能免也 其膏 可煎和 其皮 可爲裘 故禮記狼腸膏 又曰 君之右虎裘 厥左狼裘 是也 臧善 釋詁文

陸義云佼 本又作姣

此詩輯傳 亦與舊說同 而不取序所謂哀公云云者 亦散詁皆同 唯陽與狼爲增釋 狼詁取說文語

還三章 章四句 舊同

俟我於著乎而 充耳以素乎而 尙之以瓊華乎而

舊小序 著 刺時也 時不親迎也

鄭箋云 時不親迎 故陳親迎之禮以刺之

陸義云 著 直居反 又 直據反 又音於詩內協句 宜音直據反

傳云 俟 待也 門屛之間曰著 素 象瑱 瓊華 美石 士之服也

箋云 我 嫁者自謂也 待我於著 謂從君子而出至於著 君子揖之時也 我視君子則以素爲充耳 謂所以懸瑱者 或名爲紞 織之 人君五色 臣則三色 而已此言素者 目所先見而云 尙 猶飾也 飾之以瓊華者 謂懸紞之末所謂瑱也 人君 以玉爲瓊華 石色 似瓊也

疏云 俟待 釋詁文 釋宮云 門屛之間謂之宁 李巡曰 門屛之間 謂正門內兩塾間 名宁 孫炎曰 門內屛外 人君視朝所宁立處也 著 與宁音義同 毛以此章陳士 蓋士以象爲瑱也

云揖我於庭 不言揖我於堂者 婚禮 女立于房中南面 壻於堂上待之 拜受卽降 禮於堂上無揖 故不言之

桓二年 左傳云 衡紞紘綖 是懸瑱之繩 故云 或名爲純 魯語敬姜云 王后親織玄紞 織線爲之 卽今之絛繩 必用雜綵線爲之 故言織之 人君五色 臣則三色 蓋天子諸侯 皆五色 卿大夫士 皆三色

王肅云 王后織玄紞 天子之玄紞 一玄而已 何云具五色乎 王基理之云 紞 今之絛 豈有一色之絛 色不雜 不成爲絛 王后織玄紞者 擧夫色尊者 言之耳 義或當然

又云 瓊是玉之美名 華謂色有光華 此石似瓊玉之色 故云美石 毛以士賤直言美石 故下章乃言似玉

又云 尙 謂尊尙此物 所謂飾也 人君 以玉爲瑱 君乃用玉 臣則不可 而瓊是玉名 嫌臣亦用玉 故辨之云 瓊華 美石 色似瓊者也 飾之以瓊華 正謂以瓊華作充耳 人臣服之以爲飾 非言以瓊華飾紞

俟我於庭乎而 充耳以青乎而 尙之以瓊瑩乎而

舊傳云 青 青玉 瓊瑩 石似玉 卿大夫之服也

箋云 待我於庭 謂揖我於庭時 青 紞之青也 石色 似瓊似瑩也

俟我於堂乎而 充耳以黃乎而 尙之以瓊英乎而

舊傳云 黃 黃玉 瓊英 美石似玉者 人君之服也
箋云 黃 紘之黃 瓊英 猶瓊華也
疏云 釋草云 木謂之華 草謂之榮 榮而不實者 謂之英 然則英是華之別名 故言瓊英猶瓊華

此詩小序 以爲刺時不親迎也 而輯傳 概從其說 但毛鄭云 三章皆擧其親迎之禮以刺之 而東萊呂氏 則謂以旣不親迎 故但行婦至壻家之禮 壻道婦入 故於著於庭於堂 每節俟之 其義比舊說爲長 故輯傳取之
著三章 章三句 舊同

東方之日兮 彼姝者子 在我室兮 在我室兮 履我卽兮

舊小序 東方之日 刺衰也 君臣失道 男女淫奔 不能以禮化也
陸義云 刺衰 本亦作刺襄公 非也 南山已下 始是襄公之詩
傳云 興也 日出東方 人君明盛 無不照察也 姝者 初昏之貌 履 禮也
箋云 言東方之日者 懇之乎耳 有姝然美好之子 來在我室 欲與我爲室家 我無如之何也 日在東方 其明未融興者 喩君不明 卽 就也 在我室者 以禮來我 則就之 與之去也 言今者之子不以禮來也
疏云 鄭以爲當時男女淫奔 假爲女拒男之辭 以刺時之衰亂 有女以男逼己 乃訴之
又云 王肅云 言人君之明盛 刺今之昏闇
又云 箋以序言君臣失道 不言陳善刺惡 則是當時實事也 不宜爲明盛之君 故易 傳以東方之日者 比君 於日 以情訴之也
又云 履禮 釋言文 王肅云 言古婚姻之正禮 刺今之淫奔

東方之月兮 彼姝者子 在我闥兮 在我闥兮 履我發兮

舊傳云 月盛於東方 君明於上若日也 臣察於下若月也 闥 門內也 發 行也
箋云 月以興臣 月在東方 亦言不明 以禮來 則我行而與之去

疏云 以行必發足而去 故以發爲行也
陸義云 韓詩云 門屛之間曰闥

此詩舊說 以爲男女淫奔 由於君臣失道 故刺之 而輯傳有散詁 而無所指如鄭風東門之墠之例 蓋以爲淫奔之詩也 以履爲躡者 博雅云 躡 履也 以史記躡足行伍之間爲證 故亦可訓履爲躡也
東方之日二章 章五句 舊同

東方未明 顚倒衣裳 顚之倒之 自公召之

舊小序 東方未明 刺無節也 朝廷興居無節 號令不時 挈壺氏不能掌其職焉
鄭箋云 號令 猶召呼也 挈壺氏 掌漏刻者
孔疏云 夏官序云 挈壺氏 下士 六人 注云 挈 讀如挈髮之挈 壺 盛水器也
陸義云 挈壺氏 掌漏刻之官
傳云 上曰衣 下曰裳 自 從也 群臣 顚倒衣裳 而朝人 又從君所來而召之 漏刻失節 君又早興
箋云 挈壺氏 失漏刻之節 東方未明而以爲明 故群臣促遽顚倒衣裳 群臣之朝 別色始入
疏云 曲禮曰 兩手摳衣 去齊尺 注云 齊謂裳下緝也 是裳亦稱衣也

東方未晞 顚倒裳衣 倒之顚之 自公令之

舊傳云 晞 明之始升 令 告也
疏云 晞 是日之光氣 湛露云 匪陽不晞 謂見日之光而物乾 故以晞爲乾 此言東方未明 無取於乾 故言明之始升

折柳樊圃 狂夫瞿瞿 不能晨夜 不夙則莫

比也 柳 楊之下垂者 柔脆之木也 樊 藩也 圃 菜園也 瞿瞿 驚顧之貌 夙 早也
○ 折柳樊圃 雖不足恃 然狂夫見之 猶驚顧而不敢越 以比晨夜之限甚明 人所易知

今乃不能知 而不失之早 則失之莫也

舊傳云 柳 柔脆之木 樊 藩也 圃 菜園也 折柳以爲藩園 無益於禁矣 瞿瞿 無守之貌 古者有挈壺氏 以水火分日夜 以告時於朝 辰 時 夙 早 莫 晚也

箋云 柳木之不可以爲藩 猶是狂夫不任挈壺氏之事 此言不任其事者 恒失節數也

疏云 樊 藩也 釋言文 郭璞曰 謂藩籬也 種菜之地 謂之圃 其外藩籬 謂之園 太宰九職 二曰園圃 毓草木 注云 樹果蓏曰圃 是圃內 可以種菜 又可以樹果蓏

蟋蟀云 良士瞿瞿 傳云 瞿瞿然顧禮義 此言狂夫瞿瞿 謂狂愚之夫 故言瞿瞿無守之貌 挈壺氏職曰 凡喪 懸壺以代哭 皆以水火守之 分以日夜 及冬則 以火爨鼎水 而沸之而沃之 注云 代 更也 禮 未大斂 代哭 以水守壺者 爲沃漏也 以火守壺者 夜則視刻數也 今太史所候 皆云 冬至 則晝四十五 夜五十五 夏至 則晝六十五 夜三十五 春秋分 則晝五十五半 夜四十四半 太史之官立爲法 定作四十八箭 以一年有二十四氣 故周年而用箭四十八也

馬融王肅 注尙書 以爲日永 則晝漏六十刻 夜漏四十刻 日短 則晝漏四十刻 夜漏六十刻 日中宵中 則晝夜各五十刻者 以尙書有日出日入之語 遂以日見爲限

尙書緯 謂刻爲商 鄭作士昏禮目錄云 日入三商 爲昏 擧全數以言耳 其實日見之前 日入之後 距昏明 各有二刻半 減晝五刻以裨夜 故於曆法 皆多挍五刻也

鄭 於堯典注云 日中宵中者 日見之漏 與不見者齊也 日永者 日見之漏 五十五刻 日不見之漏 四十五刻 又與馬王不同者 鄭言日中宵中者其漏齊 則可矣 其言日永日短之數 則與曆甚錯

馬融言 晝漏六十 夜漏四十 減晝以裨夜矣 鄭意謂其未減 又減晝五刻以增之 是鄭之妄說耳 春官鷄人云 凡國事爲期 則告之時 注云 象鷄知時 蓋天子備官 挈壺掌漏 鷄人告時 諸侯 兼官不立鷄人 故挈壺告也

又云 釋訓云 不辰 不時也 是辰爲時也 夙早 釋詁文

此詩輯傳 從序說 散詁亦與舊大同 獨挈壺掌職之說 不取之 故其釋瞿瞿 亦不同也 蓋詩中有未明未晞不夙則莫之句 職此而舊以狂夫 指爲挈壺氏 特意之耳 非有明據也

且如末章 舊以上一句取喻 故其辭迂回 若幷二句爲之比如輯傳所云 則誠直切而明快矣 朱子有云 看書 不可穿鑿 看從分明處 不可尋從隱僻處去 誠哉 言乎 讀詩 亦當如此也

東方未明 三章 章四句 舊同

南山崔崔　雄狐綏綏 魯道有蕩 齊子由歸 旣曰歸止 曷又懷止

舊小序 南山 刺襄公也 鳥獸之行 淫乎其妹 大夫遇是惡 作詩而去之

鄭箋云 襄公之妹 魯桓公夫人文姜也 襄公素與淫通 及嫁 公謫之 公與夫人 如齊夫人愬之襄公 襄公 使公子彭生 乘公而搤殺之 夫人 久留於齊 莊公卽位後來 猶復會齊侯于禚于祝丘 又如齊師 齊大夫 見襄公行惡如是 作詩以刺之 又非魯桓公不能禁制夫人而去之

孔疏云 經上二章 刺襄公 故不言魯桓 故大夫遇是惡 作詩而去之 言作詩之意 以見君惡之甚 於經 無所當也

又云 以弊笱猗嗟之序 知襄公所淫之妹 文姜是也 今此箋 又以經有非魯桓公之事而序不言之 據夫人發文 故申其意 言大夫見襄公行惡如是 作詩以刺之 又非魯桓公不能禁制文姜 言詩經有此二意也 而云去之者疊 序去之文 謂棄齊而去

陸義云 搤 說文云捉也 公羊傳云 拉公幹而殺之 禚 音灼 地名

傳云 興也 南山 齊南山也 崔崔 高大也 國君尊嚴 如南山崔崔然 雄狐相隨 綏綏然無別失陰陽之匹 蕩 平易也 齊子 文姜也 懷 思也

箋云 雄狐 行求匹耦於南山之上 形貌綏綏然 興者 喻襄公居人君之尊 而爲淫泆之行 其威儀可恥惡如狐 婦人謂嫁曰歸 言文姜旣以禮定此道 嫁于魯侯也 懷 來也 言文姜旣曰嫁于魯侯矣 何復來爲乎 非其來也

疏云 今定本云 失陰陽之匹 義亦通也 對文則飛曰雌雄 走曰 牝牡 散則可以相通 牧誓曰牝鷄之晨 僖十五年左傳 稱秦伯伐晉 筮之遇蠱 其繇曰 獲其雄狐

又云 以其說道路之貌 故以蕩爲平易 傳於詩由 多訓爲用

又云 懷思 釋詁文 懷來 釋言文

葛屨五兩 冠緌雙止 魯道有蕩 齊子庸止 旣曰庸止 曷又從止

舊傳云 葛屨 服之賤者 冠緌 服之尊者 庸 用也

箋云 葛屨五兩 喻文姜與姪娣及傅姆同處 冠緌 喻襄公也 五人爲奇 而襄公往 從而雙之 冠屨 不宜同處 猶襄公文姜 不宜爲夫婦之道 此言文姜 旣用此道 嫁於魯侯 襄

公何復送而從之 爲淫泆之行

疏云 明五 必有象 故以喻文姜與姪娣傅姆五人 俱是婦人 襄公 乃以男子厠入其中 非謂襄公 於五人 皆淫之

藝麻如之何 衡從其畝 取妻如之何 必告父母 旣曰告止 曷又鞫止

舊傳云 藝 樹也 衡獵之 從獵之 種之然後得麻 必告父母廟 鞫 窮也

箋云 樹麻者 必先耕治其田 然後樹之 以言人君取妻 必先議於父母 取妻之禮 議於生者 卜於死者 此之謂告 鞫 盈也 魯侯 女旣告父母而取 何復盈從命 至于齊乎 又非魯桓

疏云 宜以婦道禁之 何爲又使窮極邪意而至齊乎 上責魯桓不禁制文姜 鄭 惟以鞫爲盈爲異 餘同

又云 在田逐禽 謂之獵 則獵是行步踐履之名 衡 古橫字也 衡獵之縱獵之 謂旣耕而東西踐躡槩摩之也 古者 推耒耜而耕 不宜縱橫耕田 且書傳 未有謂耕爲獵者 故知是摩獵之也 今定本云 重之然後 得麻 義雖得通 不如爲種字也

又云 傳 以經云必告父母 嫌其惟告生者 故云必告父母之廟 箋又嫌其惟告於廟 故云議於生者 卜於死者

又云 昭元年 左傳 說楚公子圍 將娶妻於鄭 其辭云 圍布几筵 告於莊恭之廟而來 是娶妻自有告廟之法 而箋必以爲卜者 以納吉爲六禮之一 故擧卜言之 鞫窮 釋言文 鞫盈 釋詁文 責魯桓之盈縱文姜 不禁制之

析薪如之何 匪斧不克 取妻如之何 匪媒不得 旣曰得之 曷又極之

舊傳云 克 能也 極 至也

箋云 此 言析薪 必待斧 乃能也 又云 此 言取妻 必待媒 乃得也 女旣以媒得之矣 何不禁制而恣極其邪意 令至齊乎 又非魯桓

疏云 極至 釋詁文 箋言恣極邪意令至齊者 申說極爲至之義 恣 解義之言 非經中極也

此詩大指 從小序 散詁 採毛鄭而取其義長 鄭氏 五人爲奇之說 已迂矣 而復以姪娣傅母 充其數 鑿之甚也 輯傳 直曰 屨爲兩 緌必雙 物各有偶 可謂明暢矣

緌 儀禮士冠禮注云 纓 飾也 輯傳云 冠上飾 未詳所出 俟博考

여 백

燕石山房文藁 別集 二

궁리설(窮理說)

▣ 궁리(窮理)[47]란 무엇인가? 사물의 소이연(所以然)[48]을 궁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치를 궁구하는 것인가? 장차 무릇 사람이 그 도리의 당연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자식이 되어서 그 부모를 섬기는 도를 다하며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다하며, 장유(長幼)·부부(夫婦)·붕우(朋友)에 있어서 또 모든 일에 응하고 만물을 접하는 가운데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힘써서 그 당연(當然)의 도를 다하고자 할진댄 사물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소이연을 궁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대개 당연한 도리를 다하고자 할 때에 당연한 도를 사람이 반드시 알아서 조목조목 살필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다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마땅히 그렇게 실천해야 할 도리라고 여기는 것이요 실제로 당연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窮理者何 窮究其事物之所以然也 胡以窮理也 將以盡夫人道之當然也 爲子而盡其事父之道 爲臣而盡其事君之道 以至長幼也 夫婦也 朋友也 與夫應萬事接萬物 務欲盡其當然之道 而莫不有關於事物 故窮究其所以然也 蓋欲盡夫當然之道 而當然之道 人未必知之皆審 未必皆審則自以爲當然 而實非當然者有之矣

---

47)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 주자(朱子)는 수양의 방법으로 거경(居敬), 즉 마음에 내재된 도덕적 주체를 잘 보존하여 정신을 다른 데로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한다는 뜻으로 내적 수양방법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도덕적 주체를 더욱 투철하게 한다는 외적 수양방법으로 궁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주자의 철학을 객관주의라고 한다.

48) 그렇게 존재하는 이치로서 모든 사물의 존재원리. 소당연(所當然)은 마땅히 그렇게 실천해야 할 당위의 법칙이다. 일반 윤리학에서는 존재원리와 당위법칙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존재원리인 소이연과 당위법칙인 소당연을 연관시켜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주자는 리(理)에 소이연지리(所以然之理)와 소당연지리(所當然之理)가 있다고 하였다.

▣ 이러한 까닭에 군자가 학문을 강론(講論)함에 있어서 미리 궁구하여 당연히 실천해야 할 것을 살피고 그에 따라 처신함으로써 그 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궁리(窮理)의 설이 생긴 연유인 것이다. 그리고 그 차서(次序)를 보면 진성(盡性)보다 앞서 있다. 이것을 벗어나 인도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꼭 그 소이연을 궁구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런가? 어떤 사람이든 한 번 어긋나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곧 고상하고 심오한 학문만을 쫓게 되는 것이다. 정자(程子)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논한 글에서 말하기를 일신(一身)의 가운데에서 만물의 이치에 이르기까지 이회(理會)된 경우가 거듭되어 쌓이면 자연히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정성(情性)이 진실로 몸에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또한 다 이치가 있으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뒷날의 학자가 혹 그 뜻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학문의 길로 들어선다면 문득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별도의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고자 하나 도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이 정밀하지 못하게 된다. 정자가 이르지 않았던가? 치지(致知)의 요체는 마땅히 지선(至善)의 경지를 알아야 할 것이니 만약에 이것을 힘쓰지 않고 다만 범연히 만물의 이치를 살핀다면 아마도 지극히 고원한 것만을 추구하여 학문의 본체를 실천하는 곳에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임을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천도유행(天道流行)과 조화발육(造化發育)에 무릇 소리·색깔·모습·형상이 있어서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물(物)이다. 이미 물이 있으면 이 물이 되는 까닭이 있는 것인 바 각각 당연한 법칙이 있어서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른바 천지에 가득 찬 것이 물(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정자가 이른바 풀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도 모두가 다 이치가 있다는 것이요 이른바 각기 당연한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자가 이르는바 마땅히 '지선(至善)'이 있는 곳을 아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외물(外物)만을 추구한다면 이치가 자기 내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또한 곧 정자가 이른바 지나치게 고원한 것을 쫓아 돌아갈 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정자와 주자의 말은 평이하고 진실하여 모두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무릇 인도(人道)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깨달음이 있다는 설은 흡사 갑작스러운 경지여서 그 경지를 엿보기가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다.[49]

49)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소이연(所以然)의 존재원리를 밝히는 것을 주장한 것이

是以君子之講學也 預有以窮究之 以審其當然者而處之 不失其道 此窮理之說之所由生 而其序居乎盡性之先 過此而非人道之所必知者 則不必窮究其所以然 何者一差焉不入於穿鑿 卽騖於高遠矣 程子論格物致知而曰 一身之中 以至萬物之理 理會得多自然有箇覺處 又曰求之情性 固切於身 然一草一木 亦皆有理 不可不察 後之學者 或有不得其旨 而誤認者 則遽欲窮萬物之理 以求其有覺焉 盖亦察之未精也 程子不云乎致知之要 當知至善之所在 若不務此 而徒汎然以觀萬物之理 則吾恐其太遠 而無所歸也 朱子有曰天道流行 造化發育 凡有聲色貌象 而盈於天地之間者 皆物也 旣有是物則其所以爲是物者 莫不各有當然之則而自不容已 夫其所謂盈天地者皆物也者 卽程子所云 一草一木 亦皆有理也 其所謂莫不各有當然之則者 卽程子所云 當知至善之所在也 又有曰其欲必窮萬物之理 而專指外物 則於理之在己者 有不明矣 此人卽程子所云恐其太遠而無所歸也 以此觀之 程子朱子之言 平易眞實 皆欲人之窮究事物之理 以盡夫人道者也 惟其有覺之說 似有驟難以窺測者

▣ 그러나 주자가 말하기를 『대학』의 가르침은 반드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조목을 우위에 두고 마음의 수양하는 방법을 밝혀 이미 선악이 있는 바와 가히 좋아하고 가히 미워할 수 있는 필연성을 알게 한다.[50] 또 그윽히 홀로 있으며 은미하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마음의 사악한 감정을 제거시켜 나아가 삼가고 공경하여 구차(苟且)하고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싹을 금지시킨다.[51] 또 말하기를 잠깐의 시간과 미세한 사물의 사이에서도 생각을 공경스럽게 가짐으로써 감히 조금도 간단(間斷)이 없게 한다면 거의 내외(內外 : 本末)가 밝게 녹아들어갈 것이며 표리(表裏)가 맑아져 마음이 바르지 아니함이 없고 몸이 닦여지지 아니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아아! 이는 격물치지를 통해서 성의(誠意)의 요체에 나아가는 것이니 이른바 밝게 녹아들어가고 맑게 마음이 닦여진다는 것은 곧 정자가 말한 것으로 자연히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는 것이요 이 깨달음의 밖에 별도로 현묘(玄妙)한 경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君子의 학문은 무릇 사물의 이치에서 인도(人道)의 당연한 법칙(도덕적 당위

다. 만약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소이연의 법칙을 탐구한다는 것은 마치 고원한 원리만 추구하는 잘못된 학문이라는 주장이다. 소이연지리(所以然之理)는 곧 소당연지리(所當然之理)이고 소당연지리는 바로 지선(至善)이라는 내용이다.

50) 호오(好惡)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군자의 경지를 말한다. 인자(仁者)라야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본성을 잘 다스려 외물에 흔들림 없는 경지를 추구한다는 뜻.

성)을 절실하게 궁구할 뿐이다. 만약 지식만을 추구하여 그 지식의 척도만을 가늠하며 외형적인 욕구만을 만족하고자 한다면 소이연을 궁구하는 것이 아니다.[52]

然朱子有曰 大學之敎 必首之以格物致知之目 以開明其心術 使旣有以識夫善惡之所在 與其可好可惡之必然 又欲其謹之於幽獨隱微之奧 以禁止苟且自欺之萌 又有曰 須臾之頃 纖芥之微 念念相承 又無敢少間斷焉 則庶乎內外昭融 表裏澄澈 而心無不正 身無不修矣 嗚呼 此其格物致知 以進於誠意之要旨 而其所謂昭融澄澈者 卽程子所云自然有箇覺處也 非此覺之外 別有所謂玄妙者也 然則 君子之學 凡於事物之理 窮究其切於人道之當然者而已 若其智之所難測 口之所難宣 皆不當窮究其所以然也

이상설(理象說)

▣ 리(理)는 마음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상(象)이다. 오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상(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릇 귀로는 들을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으며 입으로 맛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두 상(象)의 류(類)에 해당한다. 그런즉 상(象)은 이미 그렇게 있는 것이다. 즉 그렇게 있는 것은 반드시 소이연이 있다. 리(理)라고 하는 것은 소이연을 가리켜 이름한 것이다. 이것을 명명(命名)하여 말하기를 소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추구하고 근원을 궁구한다고 할 때 본원이 소리·색·냄새·맛이 없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근본을 미루어 알고 근원을 궁구한다고 하는 것인가? 대개 여기에 상(象)이 있기 때문이요 원래 근본 원인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루어 사물에 적용하여 그 이치를 헤아린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미루어 헤아리고 근원을 궁구하는 데 있어 마음이 밝고 빛나서 능히 비추어야 하는데 가림이 없는 경우는 먼저 깨달은 자라야 면할 수 있다. 본성이 흐리게 되면 의

52) 격물치지는 사물의 이치를 궁격하여 앎이 투철해진다는 뜻으로 『대학』에서 나온 사상이다. 이것이 성리학에 와서 궁리설의 요체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격물치지를 통해서 성의(誠意), 즉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의 궁극적인 것은 사물의 이치에서 인도의 당연한 법칙을 절실하게 궁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자는 특히 격물에 대하여 중시하고 격물을 지사(至事)로 번역하고 객관적인 도덕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왕양명은 이와는 달리 정사(正事)로 번역하여 마음의 선천적 도덕성으로서 사리의 주체인 마음을 바르게 세워간다는 주관주의 철학을 주장하였다.

심이 생기게 된다.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다투는 것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53] 이로써 선각(先覺)들은 생각에 의문이 나는 것을 풀었으며 이에 근본을 미루어 헤아리고 근원을 궁구하여 통섭하여 말하기를 충막무짐(沖漠無朕)이라고 했다. 충막무짐이라고 하는 것은 혼혼(渾渾)하여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나눌 수 없는데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그 까닭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연고는 무엇인가?[54]

理可以心究 而不可以目見 目所以見者其象也 非惟目見之謂象 凡耳可以聞 鼻可以嗅 口可以嘗 皆象之類也 然則象者已然也 其已然者 必有所以然 理者所以然之名也 命之曰所以然 則是推本窮原之無聲色臭味者也 胡以推本窮原也 盖於此有象焉 必非無本原猝然而生 故推窮之也 方其推窮也 心之明睿 有以照之 其能照之 而無蔽者 斯爲先覺其未免 有蔽者疑於是乎 生疑者爭之所由起也 是以先覺者 思有以釋其疑 乃推本窮原而統言之曰 沖漠無朕 沖漠無朕者 渾渾不可分也 不可分也而 有可分者 存於其中 其故 何也

▣ 무릇 천하의 상(象)이 이미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已然) 소이연(所以然)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근원한다. 이에 다시 분석하여 말하기를 만상(萬象)이 빽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삼(森)의 뜻풀이는 삼삼(森森)이다. '삼삼'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然)의 글자의 의미는 약(若)과 같다. 약(若)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삼연(森然)이라고 이르는 것은 그 가운데 빽빽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빽빽한 것 같다는 것은 진실로 빽빽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만상의 소이연이 이미 충막무짐(沖漠無朕)의 가운데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연(已然 : 이미 그러한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릇 이연(已然)이 그 중심에 있

53) 부귀공명 등의 외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54) 소이연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연(已然)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象)이다. 그러나 이연(已然)에는 반드시 소이연이 있으니 궁구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지는 것이 마음에 없어야 궁구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명(命)은 명령한다는 뜻이다. 하늘의 명령, 즉 천명은 거대한 변화가 움직여 작용하는 과정에서 기(氣)가 이 사물에 이르면 곧 이 사물이 생겨나고 기(氣)가 저 사물에 이르면 곧 저 사물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천이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과 비슷하다. '명'이라는 글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즉 이(理)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기(氣)를 가지고 말하기도 한다.

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만상의 장연(將然)한 것(장차 그러한 것)이 이미 그 중심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한다면 무엇으로써 분별을 하겠는가? 아아! 군자가 이연(已然)한 것에 의거해서 소이연을 미루어 궁구하며 미연(未然)한 곳에 나아가지 않고도 장차 그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현상계에 보여 지는 사물에 의해서 당연한 것을 구하여 알기 때문이다. 미연(그렇지 아니한 곳)한 곳에 나아가서 장연(將然)한 곳(장차 그러한 것)을 예측하는 것이 그릇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유자(儒者)가 힘쓸 바 아니다.[55]

凡天下之象之已然者 究其所以然 盡在於是 於是又復析言之曰 萬象森然已具 森之爲言森森也 森森者多也 然之爲言 若也 若者彷佛也 森然云者 若森森乎其中也 曰若森森則 其眞非森森者 可以知矣 是謂萬象之所以然者 已具於冲漠無朕之中也 非謂其已然者 在於其中也 夫已然者之不在其中 人人而知之矣 有疑其萬象之將然者 已具於其中 此何以辨焉 嗚呼 君子據其已然而 推窮其所以然 不就其未然而 豫測其將然者 何則 據見在之事物 求識其當然而已 其就未然而 測將然 非 曰不然 固非儒者之所務也

이상취비설(理象取譬說)

▣ 천하의 사물이 일찍이 대략 서로 같은 것도 있고 또한 매우 같지 않은 것도 있다. 오직 대략 서로 같기 때문에 비유를 취하며 오직 매우 같지 않기 때문에 '선관(善觀)'(사물을 잘 파악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대의(大義)를 취했을 뿐이다. 무릇 리(理)라고 하는 것은 소리·색깔과 냄새, 맛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비유하여 말하면 여기에 우물물이 있다고 할 때 우물물은 오히려 리라고 일컬을 수 있다. 물을 길어서 밥을 짓기도 하고 물을 길어서 술을 빚기도 한다. 밥과 술을 비유하면 상(象)에 해당이 된다. '상'에는 온갖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사물의 상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56]

---

55)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바의 소이연(所以然)을 궁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연(已然)을 통해서 소이연을 알 수 있으니 장차 그렇게 있을 미래의 세계 즉 장연(將然)의 세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진정 유자의 자세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렇게 있지 않는 즉 '미연'의 세계에서 '장연'의 세계를 예측한 것은 진정한 유자의 자세가 아니다.

天下之物 未嘗無略相似者 而亦未嘗有酷相似者 惟其略相似也 故取譬焉 亦惟其不能酷相似也 故善觀者 取其大義而已 夫理也者 無聲色臭味之可言 姑且譬之曰 於此有井水焉 井水者 猶云理也 有汲之 而造飯者焉 有汲之 而釀酒者焉 飯與酒譬則象也 象有萬焉而擧此二者 萬不外乎是矣

▣ 밥을 짓는 자와 술을 빚는 자가 우물가에 앉아서 '리(理)와 상(象)'에 대해서 담론하고 있었다. 술을 빚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밥을 짓는 물은 원래 우물에 있는 물이고 또한 술을 빚는 물도 또한 원래 우물에 있는 물이다. 이 물을 길러서 자네는 장차 밥을 짓고 나도 또한 술을 빚는다. 이 물이 없으면 밥을 짓고 술을 빚을 수 없다. 이것을 미루어 보건대 밥을 하지도 않고 술을 빚지도 않았을 때에 밥과 술은 진실로 이미 우물물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밥을 짓는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지 않다. 우물에 있는 것은 밥을 짓지도 않고 술을 빚지도 않았을 때의 물인데 밥을 짓고 술을 만들기 위하여 특별히 취했을 따름이다. 어찌 문득 밥과 술이 진실로 우물 가운데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술을 빚는 자가 말하기를 자네는 밥과 술은 특별히 이 물을 취해서 밥을 짓고 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밥과 술을 가지고 물 가운데 있다고 이르는 것은 진실로 옳지 않다.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밥을 짓고 술을 빚는 물은 진실로 이미 우물 가운데에 있는가? 밥을 짓는 자가 말하기를 이 부분은 같다. 오히려 아직 이루지 아니한 때이다. 우물에 있는 물은 아직 길지 않은 물이요 밥을 짓고 술을 빚는 물은 이미 길어 올린 것이다. 아직 길어 올리지 아니한 때를 당하여서는 우물 가운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어찌 일찍이 먼저 밥을 짓고 술을 빚어낼 수 있겠는가? 이미 물을 길어 올린 후에 밥을 짓고 술을 빚는 것이니 어찌 우물물과 구별이 없겠는가? 술을 빚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장차 길어 올린 물을 우물 가운데에 쏟아 부으면 자네는 능히 구별할 수 있겠는가? 밥을 짓는 자가 말하기를 물과 물이 합쳐지는데 내가 어떻게 구별을 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물을 길어 올렸을 때의 물과 아직 길어 올리지 않았을 때의 물 그리고 다시 우물에 부어 넣었을 때의 물은 나는 구별할 수 있다. 술을 빚는 자가 말하기를 물과 물을 합한 경우에는 자네는 구별하기 어려울 것인즉, 이것은 자네의

56) 리(理)와 현상의 관계를 우물물과 술을 빚고 밥을 지은 물에 비유하고 있다. 이것은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외형적 관계를 비유해서 말한 것 같다. 본체가 하나의 리(理)로 있는 것을 온갖 것에 사용되기 전의 우물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재미있다.

밝음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물이 합해졌을 때도 구별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밥을 짓고 술을 빚는 물이 이미 우물 가운데에 있거늘 자네는 어찌 이를 의심하는가?

마침 과객(過客)이 쉬고 있었다. 과객이 술을 빚는 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시험삼아 자네와 밥을 짓는 자에게 각기 하나의 표주박을 줄 것이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우물가에 두면 내가 물을 나누어 줄 것인 바 어떤 표주박의 물로 장차 밥을 지을 것이며 어느 표주박의 물로 장차 술을 빚겠는가? 자네는 능히 이것을 아는가? 술을 빚는 자가 말하기를 능히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또한 장차 내 양손에 각각 자네 두 사람의 표주박을 가지고 있다. 아직 물을 길어 올리지 않았을 때에 우물의 어느 곳에 나아가 물을 길어 장차 밥을 짓는 표주박을 들이 밀 것이며 우물의 어느 곳에 나아가서 물을 길어 올려 장차 술을 빚는 표주박을 들이 밀 것인가? 자네는 능히 아는가? 능히 알 수 없다 하는데 객이 말하기를 어째서 알 수 없다고 하느냐고 물으니 술을 빚는 자가 말하기를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객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네는 어찌 반드시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이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과 합치시키려고 하는가? 자네는 마땅히 이정자(已定者 : 이미 정해진 것)는 미정(未定)의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이정(已定)의 소이연(所以然)이 일찍이 미정의 가운데에 섞이지 아니함이 없을 뿐이다.[57]

造飯者與釀酒者 坐於井傍 而談理象焉 釀者曰 造飯之水 元是在井之水 釀酒之水 亦元是在井之水 汲此水 而予將造飯焉 吾且釀酒焉 無此水則無飯與酒矣 以是推之 未造未釀之時 飯與酒固已在於井水之中矣 造者曰 不然 在井者 未造未釀之水 飯與酒特取此水 造且釀焉而已 豈可遽曰 飯與酒固已在於井水之中邪 釀者曰 子云飯與酒特取此水造且釀焉而已 則執飯酒謂在水中 誠未可也 獨不可曰 造與釀之水 固已在於井中邪 造者曰 此則似矣 而猶未也 井水未汲者也 造釀之水已汲者也 當其未汲之時 井水之中 何嘗先有造釀乎 而及其已汲之後 造釀之水 惡得與井水無別也哉 釀者曰

57) 이일분수(理一分殊)의 입장에서 보면 본체 이(理)는 현상의 사물 속에 내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에는 존재의 원리와 마땅히 그러해야 할 당위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理)와 상(象)을 논하면서, 특히 니(理)와 상(象)의 관계에 대해서 논급하고 있다. 즉 이미 존재해 있는 사물들의 소이연은 아직 미정(未定)의 본체인 이(理) 가운데 내재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을 우물물과 밥을 짓고 술을 빚는 물에 비유해서 재미있게 논급하고 있다. 밥을 짓고 술을 빚는 물의 속성은 이미 본체에 비유되고 있는 물의 속성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吾且以已汲之水 投還之井水 則予能別之乎 造者曰 水與水合 吾何以別之 雖然 其未汲也 已汲也 還投也 則吾能別之矣 釀者曰 水與水合 予不能別之 則是予之明有所未照也 且此水之相合無以別之焉 造釀之水之 已在於井中 予惡得以疑之 有過客適憩焉 問于釀者曰 試使予與造飯者 各持一瓢 汲取井水 置于井傍 使吾擧而分之 則何瓢之水 將以造飯 何瓢之水 將以釀酒 予能知之乎 釀者曰不能也 客曰 且使吾兩手 各持予二人瓢 當其未汲也 就井中何邊而汲之者 將入於造飯之水之瓢 就井中何邊而汲之者 將入於釀酒之 飯之瓢 予能知之乎 曰不能也 客曰 何以不能也 釀者曰 未定也 客曰然則 予何必以已定者 一之於未定乎 予宜曰 已定者 不可謂先在於未定之中 然已定之所以然 未嘗不具於未定之中焉已爾

이기설(理氣說) 제일(第一)

▣ 기(氣)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과정에서 갖추게 되는 자료인 것이다. 크게는 천지의 형체에서부터 작게는 티끌이 움직이게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기가 생기면 반드시 근원된 것이 있다. 이러한 근원이 바로 리(理)이다. 리는 자취가 없는 것이니 자취가 없으면 가히 볼 수 가 없다. 그러므로 기에 입각해서 리를 말한 것이니 리가 기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는 형체가 있다. 형체를 버리면 무릇 리를 밝힐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기를 말한 것이니 기가 리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리는 기의 근원이기 때문에 리기가 서로 떨어질 수 가 없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리 없는 기도 없고 또 기없는 리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기가 비록 리에 근원하고 있으나 리는 자취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다. 그러므로 리기를 가리켜서 가히 서로 섞여서 혼일한 것일 수 없다고 했다. 주자가 이른바 리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形而上)의 도(道)요 기라고 하는 것은 형이하(形而下)의 기(器)라고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한 것이다. 이윽고 말하기를 가히 서로 떠날 수 없고 가히 섞일 수 없으니 리기를 말하는 것이 어렵다. 아아! 성현이 리기를 말하는 것은 장차 선악(善惡)이 연유하여 생긴 바를 밝혀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회복하고 악을 버리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을 버리고 리기를 말하는 것은 군자가 할 임무라고 할 수 없다.[58]

58) 주자는 우주 만물의 본체를 말할 때 반드시 이(理)와 기(氣)를 겸해서 말하였다. 기는 그 실질

氣也者 天地生物流行化育之具也 大而天地之形體 小而塵埃之游息 皆氣之爲也 是氣之生 必有所原 所原者理也 理無迹 無迹則不可見故 卽氣而言理 非理之輕於氣也 氣有形 捨形則無以明夫理 是以先言氣 非氣之重於理也 理者 氣之所原 故言理氣不可相離 朱子所云 未有無理之氣 亦未有無氣之理是也 氣雖原乎理而 理無迹 氣有形故指理氣不可相混 朱子所云 理也者 形而上之道 氣也者 形而下之器是也 旣曰 不可相離 又曰不可相混 此理氣之所以難言也 嗚呼 聖賢之言 理氣者 將以明夫善惡之所由生 使人復善而去惡也 捨是而言理氣者 非君子之所急也

▣ 무릇 리(理)라고 하는 것은 지선(至善)을 명명한 것이다. 천지는 사물을 생성시킴으로써 마음(근본정신)을 삼는데 사물생성의 마음은 선(善)할 따름이다. 따라서 리가 선하기 때문에 기 또한 선한 것이다. 기는 생물의 갖추어진 것이다. 비록 그러나 리에는 선이 있고 악은 없다. 기는 경우에 따라서 반드시 선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가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기가 유행(流行)하는 것은 곧 바로 행하는 직행(直行)도 있고 횡류(橫流)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가지가 서로 대대(待對)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직행을 하면서도 능히 직수(直遂 : 곧바로 이루는 것)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횡류(橫流 : 비켜서 생기는 것)가 생기기 때문이다. 직(直)은 바른 것이요 정(正)은 선한 것이다. 횡류는 사악(邪惡)한 것이니 사악한 것은 악이다. 그러므로 악은 선이 횡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리기를 살피는 데 있어 그 선악의 기틀을 살펴서 털끝만큼의 사이도 분별을 하는 것은 선이 횡류하여 악에 빠질까 염려를 해서이다. 군자가 리기를 말할 적에 반드시 리를 위주로 삼는 것은 리를 주인으로 삼으면 기가 저절로 명(命)을 들어서 선이 있고 악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선은 있고 악이 없은 즉 지선(至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직 지선한 뒤에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59]

부분을 가리키고 이는 실질에 내재해 있는 성(性)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 안에 있는 일체의 조리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는 이(理)와 기(氣)를 나누어 말하지만 다만 한 물체로 혼성해 있고 두 물체로 대립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理)가 없으면 기(氣)가 존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氣)가 없으면 이(理)도 또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동시 병존하는 것이며 실은 일체로 혼성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59) 리는 지선(至善)하다. 천지의 만물을 낳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 역시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가 생물의 자구(資具)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 악함이 있게 되는 것은 기가 유행할 때 횡류(橫流), 즉 곧바로 행하여지지 않고 비껴서 유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악을 기의 횡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천지의 본체정

夫理也者 至善之名也 天地以生物爲心 生物之心 善而已矣 理善故氣亦善 氣也者 生物之具也 雖然理有善而無惡 氣則時不能必善焉 非氣之所不善也 氣之流行也 有直行者焉 有橫流者焉 非二者相對而生也 直行焉而有時乎不能直遂焉 斯橫流之所以生也 直者正 正則善矣 橫者邪 邪則惡矣 故惡者 善之橫流者也 是故君子之察理氣也 察其善惡之幾 辨於毫釐之際 恐其善之橫流而陷於惡也 君子之言理氣也 必主乎理 理爲之主 則氣自聽命 而有善而無惡 夫有善無惡 則止於至善 惟至善而後 可以贊天地之化育矣

이기설(理氣說) 제이(第二)

▣ 리는 형상이 없고 방위가 없어서 비유를 들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러나 리라고 하는 것은 무릇 온전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무릇 유일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째서 같다고 하는가? 장차 이것을 온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온전하다는 것은 방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이것을 유일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유일한 것은 형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고 무릇 온전한 것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며, 유일하다고 말하지 않고 무릇 유일한 것과 같다고 말을 한 것이다. 기의 유행(流行)에 있어서는 온전한 것이 있으며 치우친 것[偏]이 있으며 하나로 되는 것이 있으며 나뉘어 지는 것도 있다. 무릇 온전한 것이 이름을 얻어 그 치우침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로 이름을 얻어 그 나누어짐으로써 치우침이 없게 하는 것이 어찌 반드시 온전한 칭호를 얻을 것이며 나눔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어찌 하나로 칭호를 얻을 것인가? 온전한 것[全]과 , 하나인 것[一], 치우친 것[偏], 나누어지는 것[分]의 명칭이 비록 다르나 그 실제를 보면 다름이 없다. 대개 하나인 까닭에 온전하고 나뉘어 지기 때문에 치우침이 된다. 바야흐로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정수청명(精粹淸明)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은 있고 악은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그 나뉨에 있어서는 횡사(橫邪)·잡유(雜糅)·분운(紛紜)·궤결(潰決)이 이에 생겨난다 그러므로 리는 선하고 기는 능히 다 선하지 못하다. 이미 말하기를 리는 선하다고 했다. 다만 능하지 못한 것은 기가 선

신은 선하고 악이 없다. 악은 선의 비껴남이다. 선의 비껴남은 기에 의한 것이니 리를 위주로 하여 수양에 힘써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 않아서인가? 능하지 못해서이다. 60)

理無形象 無方位 不可得以喩焉 雖然理也者 猶夫全之謂也 猶夫一之謂也 何以曰猶也 將謂之全 則全者 有方位 將謂之一 則一者 有形象 是以不曰全而曰猶夫全也 不曰一 而曰猶夫一也 氣之流行也 則有全者焉 有偏者焉 有一者焉 有分者焉 夫全之得名以其有偏也 一之得名以其有分也 使無偏焉者 豈必有全之稱乎 使無分焉者 豈必有一之稱乎 全之與一偏之 與分其名雖殊 其實則無異 盖一故全 分故偏也 方其一也 惟精粹淸明 可以喩焉 故有善而無惡 及其分也 則橫邪雜糅紛紜潰決者 於是乎生故曰理善而氣不能 皆善也 旣曰 理善矣 顧不能使氣無不善也邪 曰不能也

▣ 지금 모든 물은 그 처음이 한 근원에서 발하여 나뉘어져서 수많은 물결을 이루며(天派萬流)지금 무릇 나무는 처음에 한 근본에서 나와서 나뉘어 수많은 가지와 잎이 되니 이것은 조화의 작용에 의해서이다. 즉 어류에 이른 바 기가 강하고 리가 약하여 리가 다른 것을 주관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즉 어찌 리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설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하기를 리는 유행의 주체가 되고 기는 유행의 도구가 되는 까닭으로 리가 기에 있어 진실로 유행하게 하는 것이다. 유행함에 이르러서는 능히 횡사·궤결함이 없도록 할 수 없으니 이것은 또한 리에 능(能)하지 못함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요임금이 곤에게 치수를 하게 하였으나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홍수를 막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대개 리가 유일하니 그러므로 기도 또한 유일한 것이다. 그 처음에는 진실로 일기(一氣)이니 일기가 유행하여 만물을 화육하는 것은 선의 진실이다. 횡사·궤결하여 능히 다 선하지 못한 것은 망령된 것이다. 곧 주자어류에 이른 바 비록 망령되었다 하더라도 천리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런즉 어찌 리가 선하여 주체가 된다고 하겠는가? 말하기를 이것은 군자가 리기를 살펴서 리를 위주로 삼아 기가 유행하도록 하여 횡사·궤결이 없게 하면 어찌 리가 주장이

60) 리를 온전한 것이라거나 전일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잘못이라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나 전일한 것은 형상으로 말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기는 유행으로 온전한 것도 있고 치우친 것도 있으며 유일한 것도 있고 나뉘어진 것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에 횡사(橫邪)·잡유(雜糅)·분운(紛紜) 등이 있어 선하고 악함이 있게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행상(流行上)에서 능(能)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점이 특이한 점이다.

된다고 이를 수 없겠는가? 궤결한 가운데에 나아가서 리기의 직수(直遂)를 살피는 자가 둑을 쌓아 막아 궤결이 없게 하고 소통을 하여 이르게 하여 직수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 궤결과 직수가 같지 아니한 것은 이기가 서로 섞여서 일컬어지지 않기 때문이니 이른바 비록 기 가운데 저절로 기가 작동하여 서로 끼어 들지 않게 하니 또한 이른바 순전히 상면의 천리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요, 기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막아 소통하게 해서 궤결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본연의 정수와 청명을 회복한다면 리기가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른바 공부가 지극하면 기질(氣質)이 어찌 의리(義理)에 청명하지 않겠는가? 이른바 오직 능히 배워서 기를 이기면 이것은 혼연하여 처음부터 괴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다만 기의 유행에 의거해서 점차 나누고[分], 치우쳐서[偏] 궤결하는 데 이르러 말을 하니 리도 또한 능히 기를 부릴 수 없어서일 뿐인 것으로 본연(本然)은 선하지 아니함이 없다. 다만 리가 하나이면서 전일한데 나아가서 보면 리가 진실로 순선(純善)하여 기의 주체가 된다. 비록 리가 주체가 되나 또한 반드시 전전긍긍(戰戰兢兢)하게 된다. 이강기약(理弱氣强)을 살펴서 망령된 것이 참[眞]을 가리지 못하게 한 뒤에 진실로 능히 리써 주체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자가 리기를 말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회복하는 것이다.[61]

今夫水其始也 發乎一源 而分而爲千派萬流 今夫木其始也 出乎一本 而分而爲千枝萬葉 此造化之不容不爾也 卽語類所云 氣强理弱 理管他不得者是也 然則惡在乎理氣之不相離也 曰理爲流行之主 而氣是流行之具 故理之於氣 固使之流行矣 及其流行也 不能無橫邪潰決者 是亦理之所不能使之無也 譬如 堯之爲君 使鯀治水 以有而不能使鯀之必不理洪水也 盖理一 故氣亦一 其始也 固一氣也 一氣之流行而化育萬物者 善之眞也 其有橫邪潰決 而不能皆善者 其妄也 卽語類所云雖是妄 亦無非天理者是也 然則惡在其理善而爲之主也 曰此君子之所以察理氣而主乎理也 使氣之流行 而必無橫邪潰決 則豈有主乎理之云邪 卽於其潰決之中 審其理之直遂者 隄而防之 使不潰決疎而達之 使還捲直遂 夫直遂與潰決不同者 理氣之不相混稱 而 所謂雖在氣中 氣自是氣不相挾雜 亦所謂純指上面天理而言 不雜氣說者是也 其隄防疎達 而不至潰決 以

61) 리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는 현상사물상에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하여 기강리약(氣强理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리를 위주로 하여 수양한다면 기의 본연인 선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기를 논한 까닭은 악을 버리고 선을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 또한 특이한 주장이다.

復其本然之精粹淸明者 則有以見理氣之元不相離 而所謂若功夫至 則氣質豈得不聽命於義理也 亦所謂 惟能學以勝氣則知此 渾然初未嘗壞者是也 今也 只據其氣之流行而漸分而偏 而爲潰決者而言之 理亦不能使氣而無不善也 直就其理之一且全者而觀之 理固純善而 爲氣之主也 雖主乎理 而亦必競競焉 察其理弱氣强 不以妄掩眞然後 眞能以理爲主也 故學者之言理氣 所以去惡而復其善也

이기설(理氣說) 제삼(第三)

▣ 무릇 리(理)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주역』이다. 그리고 기(氣)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맹자』에서이다. 이를 『주역』에서 구할 것 같으면 리로써 그 체(體)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맹자』에서 구할 것 같으면 기로써 그 용(用)을 살필 수 있다. 지금 또한 리의 처음을 말해 본다면 『주역』「문언전(文言傳)」에서는 '황(黃)은 중(中)이니 리와 통한다'라고 했다. 정자(程子)가 전하여 말하기를, 황(黃)은 중색(中色)이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황(黃)은 중(中)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군자는 문(文)을 통해서 중(中)을 잘 유지하여 리에 도달한다'라고 하였다. 가만이 정자(程子)의 『역전(易傳)』을 가지고 미루어 보건대, 대개 중(中)이라고 하는 것은 정(正)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색이 빛이 밖에 나타나는 것이다, 오직 바르고 치우치지 않는 까닭으로 지나치지 않는 것이며 오직 빛이 밖에 나타나는 까닭으로 그 무늬가 중심에 있는 것을 안다. 달(達)이라고 하는 것은 막히지 않는 것이다. 오직 막힘이 없는 까닭으로 리에 화순(和順)한다. 생각컨대 그 중심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는 까닭은 문(文)이 족히 밖으로 드러난다는 말이니 오직 모름지기 리의 당연한 것을 따르는 것이다.[62]

夫言理之始 始於易 言氣之詳 詳於孟子 求之於易 則理可以明其體矣 求之於孟子 則氣可以察其用矣 今且先言理之始 易之文言曰 黃中通理 程子之傳曰 黃中色也 又曰 黃中不過也 又曰 君子文中而達於理 竊因程子之傳 而推之 盖中者 正而不偏者也 色者 光之見於外者也 惟其正而不偏 故不過也 惟其光之見於外 故知其文之在中也 達

62) 이를 『주역』「문언전」에서 말한 중(中)으로 설명한 내용이다. '중'은 바르고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리와 통한다. 문(文)은 밖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이니 그 근거는 반드시 '중'인 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者 無滯也 惟其無滯 故順於理也 意者 其所以在中不偏 而文足以見於外者 其惟須於理之當然者乎

▣ 중도(中道)에 맞아 치우치지 않는 것은 도(道)의 체(體)인 것이고 문채가 밖에 드러나는 것은 덕(德)이 나타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을 따르는 것은 의(義)에 합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나 『주역』에서는 곤괘(坤卦)의 육오(六五)의 효를 말하였고 정자(程子)는 오직 경서에 따라서 해석을 했을 뿐이다. 일찍이 리(理)에 나아가지 않고 오로지 말을 했을 따름이니 감히 억측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계사전」에서 말하기를 도덕(道德)에 화순(和順)하고 의리(義理)에 따라 이치를 궁구하고 성품을 다하여 명(命)에 이른다고 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화순종용(和順從容)하여 거스른 바가 없다는 것은 통섭하여 말한 것이고, 리(理)는 일에 따라 그 조리를 얻는다고 말한 것은 분석해서 말한 것이다.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고 인물의 성(性)을 다하여 천도에 합치하는 것은 성인(聖人)의 지극한 공인 것이다. 은밀히 주자의 뜻으로 인해서 미루어 보건대 무릇 도는 대도(大道)이다. 덕은 성덕(成德)이다. 도덕이라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고 성품을 다하여 명(命)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섭해서 이를 말한 것이다.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은 천하의 일의 이치를 미루어 궁구한다는 것이다. 천하의 일은 무궁하여 모름지기 일마다 그 조리(條理)가 있다. 그러므로 분석해서 말을 한 것이다. 반드시 일마다 각기 조리를 두어 장차 무릇 성(性)을 다 하며 무릇 성이 있는 바를 다하여 만족한 뒤 이에 천도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정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부여받은 것은 '성'이고 하늘이 부여한 것은 '명'이다. 따라서 사람이 부여받은 것은 곧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 광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오직 부여받은 바의 이치를 다할지라야 비로소 가히 하늘이 부여한 바에 부응하여 도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자가 말한바와 주자가 해석한 것이 모두 이에 나아가서 오로지 말한 것이다. 성이라고 하고 명이라고 한 것은 또한 이 리일 뿐이다. 어찌 다른 언설을 부연했겠는가? 대저 이른바 천하의 이는 무슨 이를 말하는가? 전에 말하기를 '건도(乾道)로써 쉽게 안다'[乾以易知], '곤도(坤道)로써 간단 명료하게 실천할 수 있다'[坤以簡能][63]고 했으니 대개 쉽게 알고 간명하게 능한 것은 곧 사람이 군신(君臣)·부자

63) 우주의 이치는 쉽고 평이한 것이니, 인간이 이것을 잘 순응하여 그 법칙을 따라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父子), 일용이륜(日用彝倫)의 마땅히 행할 도덕적 법칙인 것이다. 마땅히 행할 일에 있어서 조리가 있지 않을 수 없다. 천도를 쉽게 알 수 있으니 친함이 있고 좇는 것이 쉬우니 공이 있다. 마땅히 행할 일에 있어서는 비록 뭇사람이라도 더불어 알고 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함이 있으면 가히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공이 있으면 가히 오랫동안 크다고 할 수 있다. 오직 뭇사람이 가히 알고 능하게 되므로 이에 장구하게 폐하지 않는 도가 있다. 공이 있는 곳에 미치게 되는 것은 천하를 태평히 다스리고 사해에 널리 베풀어 천지 화육(化育)에 도움을 주는 것이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 현인(賢人)의 덕이요, 가히 크다고 했으니 현인의 업(業)이다. 현인의 덕을 뭇사람이 다 할 수 없고 현인의 업을 뭇사람이 능히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현인의 덕과 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능(能)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이면 오래 유지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쉽게 알고 간단명료하여 천하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즉 주자가 이른바 천하의 이치를 궁구한다는 것이 곧 공자가 가르치는 것이 이간(易簡)의 일이다. 그러나 현인이 있으며 중인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뭇사람은 알 수 있으나 즐겨 앎을 누리지 않고 능할 수 있으나 즐겨 능함을 발휘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인욕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금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뭇사람이 알 수 있고 능한 일이나 중인이 감당해낼 수 없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어찌 뭇사람이 알 수 없고 능할 수 없는 일이겠는가? 특별히 인욕이 가리는 바가 있어서 다하지 못할 뿐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뭇사람이 인욕에 가리는 바가 없이 즐겨 알 수 있고 능할 수 있다면 현인의 덕업(德業)에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맹자가 사람이면 누구나 요순(堯舜)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예를 들면서 성선(性善)을 언급한 이곧 공자가 가르치고자 한 이간(易簡)의 이치이니 잘 연구해 보아야 한다.[64]

中而不偏 道之體也 文見於外 德之著也 順其當然者 合於義也 雖然易言坤之六五之

64) 천지의 도는 『주역』에서 말한 이간(易簡)의 법칙(쉽게 알 수 있고 간단히 행할 수 있는 법칙)이다. 이것은 곧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이고 맹자의 성선의 이치라는 것. 이것은 천(天)의 명(命)이고 사람의 성에 근거한 것이니 하늘이 부여한 것을 명(命)이고 사람이 부여받은 것이 성(性)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 중도(中道)에 맞아 치우치지 않는 것이 도체(道體)이고 문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덕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대도이고 덕은 성덕이니 도덕은 이치를 궁구하고 성품을 다하여 명(命)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학(學)으로, 정자·주자 등은 이에 입각해서 말한 것일 따름이라는 견해의 내용이다.

爻 而程子惟據經釋之而已 未嘗就理而專言之 不敢臆度而明之也 繫辭傳曰 和順於道德而理於義 窮理盡性 以至於命 朱子之義曰 和順從容 無所乘逆 統言之也 理謂隨事得其條理 析言之也 窮天下之理 盡人物之性 而合於天道 此聖人之極功也 竊因朱子之義而推之 夫道大道也 德成德也 道德者 窮理盡性 以至於命之謂也 故曰統言之也 窮理者 推窮天下之事之理也 天下之事無窮 要事 事各得其條理 故曰 析言之也 必欲事事之各得條理者 將以盡夫性也 必盡夫性之所有而無不足而後 乃可以合於天道也 程子曰 人所受爲性 天所賦爲命 夫人之所受 卽天之所賦 而天道廣大無所不包 故人惟盡其所受之理 始可以上荅 天之所賦而 合於其道也 此則夫子之所言 朱子之所釋皆就理而專言之 而曰性曰命 亦此理而已 於是乎 可以申其說矣 夫所謂天下之理 何理也 傳曰 乾以易知 坤以簡能 盖易知而易能者 卽人之君臣父子日月彝倫當行之事也 於其當行之事 而莫不得其條理 故曰易知則有親 易從則有功也 惟此當行之事 雖衆人可以與知而與能 故曰有親則可久 有功則可大也 惟其衆人之可與知且能也 斯所以爲長久不廢之道 而及其有功 則平治天下 博施四海 于以贊天地之化育 不外乎是也 故曰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也 賢人之德 非衆人之所能 盡賢人之業 非衆人之所能就 然賢人之德與業 莫不因天下之人之所可知所可能 而積之以至於久且大也 故曰 易簡而天下之理得矣 然則朱子之所謂 窮天下之理者 卽夫子之所訓 易簡之理也 然而有賢人焉 有衆人焉者 何也 衆人者 可以與知而不肯盡其知 可以與能而不肯盡其能 何則人欲蔽之也 何以知其然也 今以平治天下之事 謂衆人之可以知可以能則 固非衆人之分之所堪當也 若孝於父母 豈衆人之所不可知不可能邪 特有所廢而不肯盡焉耳 以此推之衆人而無所蔽焉 而肯盡其知與能 則賢人之德業 可以漸進矣 此孟子之所以謂人可以爲堯舜 而其道性善 卽得於夫子所訓 易簡之理之義也 審矣

이기설(理氣說) 제사(第四)

▣ 기(氣)를 자세히 말한 것 중에 『맹자』에서 말한 내용보다 나은 것이 없다. 『맹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65]를 잘 기른다고 했는데, 무릇 호연지기는 하늘이 유행화육(流行化育)하는 자구(資具)로써 온전하고 순일(純一)한 것이다. 사람이

65) 사람이 도덕성을 확신하고 도덕을 실천하려는 의욕에 불 탈 때 마음에 생기는 호뭇하고도 힘찬 기분을 말한다. 맹자는 이것을 길러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부여받아서 온전하고 순일하게 되는 것이니 유행하고 화육하는 소이(所以)가 천리의 순일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 기(氣)되는 것은 지대지강(至大至剛)하여 '직(直)'으로써 길러서 해(害)가 없으니, 즉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 오직 온전하기 때문에 지극히 크다고 했고, 순일하기 때문에 지극히 강(剛)하다고 했다. 오직 온전하고 순일한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횡류(橫流)가 없다고 했다. 이것으로 직(直)이 길러지기 때문에 천지에 가득 차서 호연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 기가 되는 것은 의(義)와 도(道)에 짝하기 때문에 문드러짐이 없게 된다. 대체로 리(理)가 하늘에 있는 것을 도라 하고 일이 이치에 합당하게 맞아들어가는 것을 의(義)라고 한다. 비록 리(理)라 말하지 않고 도(道)라 말하고 의(義)라 말을 하는 것은 리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가 리의 명을 들어서 빠뜨림이 없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직수(直遂)가 있지 아니하면 이지러지게 되니 이것이 문드러진다는 의미이다. 이 '집의(集義)'가 생기는 것을 말할 때에도 의(義)가 갑자기 와서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무릇 '집의'라고 하는 것은 일마다 각각 그 조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義)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리기가 구체적인 사물로 드러날 때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대저 이와 같을진대, 기가 용(用)이 되는 것이 상세하지 아니한가? 따라서 리도 체(體)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릇 기를 말할 때에 횡류(橫流)가 있어서 '기강이약(氣强理弱)'이 된다는 설은 또한 이미 『맹자』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맹자』에 말하기를 뜻이 기를 거느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릇 기가 리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기가 전일하면 뜻을 옮길 수가 있는 것이다[66]

言氣之詳 莫詳於孟子 孟子曰 我善養吾浩然之氣 夫浩然之氣 天以流行化育之具之全且一者 賦與乎人者 而人能全而一之 則其所以流行化育 無非天理之純也 曰其爲氣也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惟其全也 是以至大焉 惟其一也 是以至剛焉 惟其循其全且一者 而無橫流也 是以直焉 而塞于天地 此所以浩然也 曰其爲氣也配義與道無是餒也 夫理之在於天者謂之道 事之合於理者謂之義 雖不曰理 而曰道曰義 則理斯在焉 此言氣之聽命於理而無所虧欠者也 一有未直遂者 則虧欠焉 是以餒也

66) 맹자가 기(氣)를 위주로 하여 도의(道義)를 전개했다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말하였는데 호연지기는 순일(純一)하고 지대지강(至大至剛)하여 천지에 가득찬 것이다. 그러므로 횡류(橫流)할 수 없고 직류(直流)하여 의(義)와 도(道)에 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맹자가 주로 의(義)를 말한 것은 리(理)가 하늘에 있는 것이 도이고 일이 이치에 합당한 것이 의(義)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현상의 입장에서 일상 일용의 도덕을 강조하며 현상의 기강이약(氣强理弱)의 위험을 경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曰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夫集義者 事事各得其條理 故無不合於義也 有以見理氣之不相離 而理爲之主也 夫如是 氣之爲用 不其詳乎 而理之體 亦可得以默契矣 若夫氣之時有橫流 而氣强理弱者 其說亦已詳於孟子 孟子曰 志者 氣之帥也 此指夫氣之聽命於理也 無用更言矣 曰氣壹則動志也

▣ 지금 넘어지는 자와 뛰는 자 모두가 기(氣)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도리어 그 마음까지도 움직인다. 무릇 마음이 지향하는 바를 '지(志)'라고 한다. 심(心)은 성(性)이 있는 곳이요 성(性)은 이치가 마음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지(志)라고 말을 하고 리(理)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리가 또한 그 가운데 내재하기 때문인 것이다.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넘어지고 뛰어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동의 정상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기가 때로 횡류(橫流)하는 것과 같다. 넘어지고 뛰는 것의 전일은 곧 그 마음을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니 이것은 기의 횡류로 기강이약(氣强理弱)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대개 기가 전일하면 지(志)가 능히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기가 강하면 리가 능히 약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때에는 리로써 주장을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장차 유행하여 불선(不善)한 데 들어감에도 기를 기르는 공부를 착수하지 않으면 기가 스스로 리의 명령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기를 전일하게 하고 뜻을 움직이게 한다는 설을 안다면 리기를 섞어서 일컬을 수 없을 것이며 집의(集義)와 양기(養氣)의 방법을 안다면 리기가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인위적으로 바르게 하려하지도 말며 망령되게 하지도 말며 조장(助長)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아! 이것이 '양기'가 의(義)에 합하는 방법이니 의(義)에 합당하다는 것은 리에서 명령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주자(朱子)가 이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기를 기르는 것은 집의(集義)로서 일을 삼고 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혹 채워지지 않더라도 다만 일찍이 '망(忘)'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그것에 작용을 끼쳐서는 안될 것이니, 이것이 집의(集義)와 양기(養氣)가 절도에 맞는 것이다. 무릇 이른바 망령스러운 것은 뭇사람이 한결같이 기가 횡류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요 마음이 방탕한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소통(疏通)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도와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비록 마음을 바로 잡아 소통해야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릇 '직(直)'을 이루어 오랫동안 쌓는 공(功)이 없으면 조급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 대개 뜻을 집의(集義)에 두고서도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 싹이 틀 수 있도록 돕는 것이요 '조(助)'라고 하는 것은 '정(正)'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무릇 사람이 리기를 강론할 때에 일용당행지사(日用當行之事 : 날마다 행하는 도덕적 당위적인 일)를 당하여 볼 수 있는 곳에 나아가서 소이연(所以然)을 연구하여 당연한 법칙을 적용하면 날마다 쌓이고 달마다 누적이 되어 스스로 관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집의'라고 한다. 혹 볼 수 없는 데 나아가서 장차 그러한 이치를 탐구하여 필연적인 의미를 삼는다면, 그것은 미리 기대한 것이니 '조장(助長)'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맹자가 기를 말한 것이 이미 크고 커서 이를 사물 인식에 확충할 수 있으며 리의 체(體)도 또한 밝게 된다. 어찌 일찍이 도의(道義)의 밖에 별도로 현묘고원(玄妙高遠)한 리기가 있겠는가? 맹자가 말하기를 그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했으며, 그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바는 하늘을 섬기는 것이요 요수(夭壽)를 의심하지 않고 몸을 닦아 기다리는 것은 천명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무릇 말하기를 천(天)을 안다는 것이 현묘하고 고원한 것 같지만 그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본성을 알아 가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을 보존하고 성품을 길러 가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이 명에 이르는 것이다. 아아! 맹자는 진실로 공자가 가르친 이간(易簡)의 이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67]

今夫蹶者趨者 皆是氣也 而反動其心 夫心之所之謂之志 而心者性之所在也 性者 理之在於心也 曰志則不曰理 而理亦在其中矣 人之行而有蹶與趨 皆非行之常也 是猶夫氣之有時而橫流也 蹶趨之專一則反動其心 此氣之橫流 而氣强理弱之證也 盖氣壹則志不能不動也 氣强則理不能不弱也 于是不能以理爲主 必將流而入於不善 于是而克下養氣之工 則氣自聽命於理 而心自不動也 知氣壹動志之說 則有以見理氣之不可混

67) 넘어지고 뛰는 것을 기(氣)의 횡유(橫流)에 비유하여 기강이약(氣强理弱)의 증거라고 하였다. 만약 기가 강하면 리가 약해져 리로써 주를 삼을 수 없으니, 기를 기르지 아니하면 리의 명을 따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집의(集義)나 양기(養氣)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를 떠나 별도의 현묘고원(玄妙高遠)한 리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마음을 다하면 본성을 알고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말한 것이다. 현실 도덕을 목표로 한 성리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자철학을 중요시한 내용이다. 하늘을 섬기는 것은 곧 마음을 보존하고 성품을 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稱 而知集義養氣之術 則有以見理氣之元不相離也 曰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也 嗚呼 此養氣而合於義之術也 合於義者 聽命於理之謂也 朱子釋之曰 養氣者 必以集義爲事 而勿預期其效 其或未充 則但嘗勿忘 其所有事而不可作爲 以助其長 乃集義養氣之節度也 夫所謂忘者 衆人之一任其氣之橫流 而不思所以隄防而疎達也 所謂正助者 雖知其隄防疎達之爲復 夫直遂而無積累之功 有躁進之念 盖有意於集義 而不能順氣節度也 正者助之始萌 而助者 正之已遂也 凡人之講理氣者 當於日用當行之事 卽其可見 而究其所以然 用審其當然則日積月累 自有貫通之時 是之謂集義也 或有就其不可見 而求識其將然 執以爲必然者 卽與其預期 而助長者 無以異也 以是觀之 孟子之言氣不已詳而推之 而理之體 亦可以明矣 何嘗於道義之外 別有玄妙高遠之理氣邪 孟子曰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氣性 則知天矣 尊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夭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 夫曰知天則似乎玄妙高遠矣 而其所以知天者 不出乎盡心知性也 其所以事天者 不出乎存心養性也 此其所以至於命也 嗚呼 孟子其眞有得於夫子所訓易簡之理之義也已

태극설(太極說)

▣ 『주역』「계사전」에 말하기를 역(易)에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은 팔괘(八卦)를 낳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문(文)으로 말미암아 그 형세를 말한 것이다. 이것은 일(一)은 이(二)를 낳고 이(二)는 사(四)를 낳고 사(四)는 팔(八)을 낳는다는 말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一)'이라고 말하지 않고 태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에는 하나의 형체가 있는 것이다. 리와 기의 나뉨에 있어서 형체는 기에 속한다. 이로써 하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즉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온갖 이치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수(數) 중에서 큰 것을 만(萬)이라고 하는데 '만'으로도 천하의 수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없다. 수가 만을 벗어나면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수가 지극히 많으나 수에서 떠날 수 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형체가 있으면서도 태극은 형체가 없다. 그러므로 태극이라고 한다.[68]

68) 태극(太極)은 아직 미분된 상태에 있는 극한의 리(理)로서 형기(形氣)로는 형용할 수 없다. 옛 경서에서 태극에 대해 말한 것은 『주역』「계사전」에서 "역에 태극이 있다"고 말한 것뿐이다.

繫辭傳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由其文而語其勢 是一生二 二生四 四生八明矣 然而不曰一 而曰太極者 何也 謂之一則 一有形 其於理氣之分 有形屬乎氣 是以不可曰一也 然則太極者何 曰萬理之摠名也 數之大者 號曰萬 而 萬不足以包天下之數 數過乎萬 則不可數 不可數雖爲數之極多 然不離乎數 猶有形焉而太極無形也 故曰太極也

▣ 대개 '극(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것이다. 다만 '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극'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크다는 의미를 덧붙였으니 크다고 하는 것은 크면서도 상(上)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극(大極)이라 하지 않고 '태극(太極)'이라고 말을 하니, 태극이라 하는 것은 천하의 지극한 대체를 들어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크면서도 상(上)에 해당한다는 이유이다. 전(傳)에 말하기를, 형이상(形而上)[69]을 도(道)라고 했는데 무릇 형체가 없다고 이르지 않고 분상(分上)이라고 말한 것은 기(器)에 나아가서 도(道)의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이상'이라고 하였다. 뒤에 태극을 해석하여 대중(大中)으로 옛 본지라고 여긴 것은 공자가 명명한 취지를 잃은 것이다. 주자(周子)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고 했다. 이것은 태극은 곧 무극과 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어의(語義)가 분명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졌으니, 대개 실제의 이치를 가리킨다면 이는 태극이요 무형(無形)을 가리킨다면 무극의 뜻이다. 뜻이 깊도다! 주자는 무극을 말하지 않는다면 태극이 일물(一物)과 동일해져서 온갖 조화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고, 태극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극이 공적(空寂)에 빠지게 되어 능히 온갖 조화의 근본이 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象數)가 나타나지 않고 이치가 이미 갖추어진 것을 말하고 형기(形器)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나 그 이치의 조짐이 없다는 조목을 가리킨 것이다. 아! 이것은 그 뜻을 다 절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70]

역은 음양변화일 따름이다. 그 음양변화의 리가 바로 태극이다. 『주역』「계사전」에서는 삼극(三極)의 도라고 말하였다. 삼극은 삼재(三才)의 극한의 리일 뿐이다. 태극을 삼극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삼재가 그 속에 각기 태극을 가지고 잇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도 태극의 오묘함을 삼재의 전체에 두루 적용되지 않음이 없다. 여기에서는 태극은 온갖 리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 '온갖'이라는 것은 수가 지극히 많아서 수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체가 있으면서도 형태가 없는 것이 태극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9) 형상을 초월한 것.

盖極者至極也 而但曰極 則猶疑乎有極 故加之以太 太者大而上也 不曰大極而曰太極太極云者 猶曰擧天下之至極 而摠不外乎是之云也 斯其爲大而上也 傳曰 形而上謂之道 夫不謂之無形而曰分上者 卽其器而言其道之無形 故曰而上也 後之釋太極 而有以大中爲古者 失夫子命名之旨 而周子則曰無極而太極 是猶曰太極卽無極也 而語意尤爲混圓 盖指其實理則曰太極 指其無形則曰無極 旨哉 朱子之言曰 不言無極 則太極同於一物 而不足爲萬化根本 不言太極 則無極淪於空寂 而不能爲萬化根本 又曰 太極者象數未形 而其理已具之稱 形器已具 而其理無朕之目 嗚呼 斯其盡之矣

태극동정설(太極動靜說)

▣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이라 하고 태극이 동(動)하여 양(陽)이 생기며 정(靜)하여 음(陰)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것은 그 동정(動靜)에 태극무형(太極無形)이 있으므로 동정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리에 동정이 있다. 그러므로 기에 동정이 있다. 만약 리에 동정이 없다면 기가 어찌 스스로 동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가만히 두 선생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밀하게 고찰해 보건대,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는다는 설을 받아들인다면 정하여 음이 생긴다는 설이 저절로 유추될 수 있다. 대개 이미 움직인 양에 의거해서 그 근원을 궁구해 보면 마땅히 말하기를 동은 양이요 동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태극이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거슬러 미루어 생각할 수 있으니 한마디 말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다.

周子曰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有疑其動靜有太極無形 不可以動靜言者 朱子云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乎 竊因兩夫子之言而細究之 得動而生陽之說 則靜而生陰 自可推矣 盖據其已動之陽 而窮其本源則 當曰動者陽也 所以動者 太極也 此自下而推上也 一言而人皆可知矣

70) 이 문단에서는 '태극'을 단순히 크다는 의미의 대(大)가 아니라 천하의 지극한 대체를 들어서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로 '태(太)'자를 쓴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주염계(周濂溪)의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말한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에 대한 설명도 주자의 학설을 따르고 있다 태극은 무극과 같다는 것이다 즉 실재의 이치를 가리킨다면 태극이고, 무형(無形)한 것을 가리키면 무극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大)'자와 '태(太)'자의 의미를 밝혀 태극과 '무극이태극'을 설명한 것은 탁견이라 할 수 있다.

▣ 지금 『역전(易傳)』에 말하기를 태극(太極)이 양의(兩儀)를 낳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생기는 것을 말한 것이니, 묵묵히 가슴속에서 생각할 부분이기에 쉽게 형용해 낼 수 가 없다. 그러므로 말로 정립해 내기가 어렵다. 왜 그런가? 장차 태극이 양을 낳으려고 함에 동(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은 기에 속하는 것으로 장차 동이 양에 속한다는 것은 어색한 말이기 때문이다. 태극이 참여하지 않으면 리와 기가 서로 떠나 그 리가 기의 오묘함을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동'자 아래 '이(而)'자를 내려야 하며 또한 '생(生)'자를 내려야 한다. 대개 '동'자를 통해서 태극의 안에 원래 이 '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而)'와 '생(生)' 두 글자를 통해서 태극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기를 타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은 곧 양이면서 또한 곧 기이다. 즉 태극이 탄 바이다. 리에 가히 형체가 있다면 생겨난다고 이르지 않겠는가? 동하면서 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태극이 이미 함유한 바의 동이요, 생(生)하게 된 뒤에 이 동은 양이 되고 기에 속하게 된다. 비록 그러나 태극이 형체 있는 것에 의심을 두어 스스로 움직이는 까닭으로 태극의 위에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는 다섯 글자를 더한다. 이것은 오히려 이 아래 부분에서 말한 태극의 움직임은 태극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뿐이다. 이것을 다시 『통서(通書)』에서 거듭 밝혀 말하기를, 동(動)하면서 정(靜)하지 않고 정하면서 동함이 없는 것은 물(物)이요, 동하면서 동함이 없고 정하면서도 정함이 없는 것은 신(神)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하면서 동함이 없고 정하면서 정함이 없는 것은 동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다. 물(物)인 경우에는 통하지 않고도 만물에 신묘한 작용을 하니, 무릇 동하면서 정함이 없고 정하면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태극이 생긴 바의 음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물(物)인즉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은 저절로 양이 되며', '음은 저절로 음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동하여도 움직임이 없으며 정하여도 고요함이 없다는 것은 양을 낳고 음을 낳는 태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의 신묘함이 만물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신(神)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이 생기고 음이 생기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신(神)이 곧 리(理)라고 했다. 무릇 이와 같이 태극이 동함에 양이 생긴다는 동은 곧 『통서』에서 말하는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는 동이요, 또한 이른바 동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말하기를 동하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을 태극이 동하면 양이 생긴다고 하니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주자(周子)가 의도하는 바가 주밀한 것이요 주자(朱子)가 태극설을 해석한 것이다. 반드시 『통서』에서 말한 것

으로 더불어 아울러 말한 것이니, 리에 동정이 있다는 설은 진실로 주자(周子)의 마음과 합당한 곳이 있다.[71]

今易傳云 太極生兩儀 此則自上而生下也 可以默契 而未易以形容之 故難乎其爲言也 何則將言太極之生陽 則不可不言動 而動屬乎氣 將嫌動之屬乎陽 而太極不與焉則 理與氣相離 一見其理涵氣之妙也 於是於動字之下 下而字又下生字 盖於動字而 見太極之內原涵此動也 於而生二字 而見太極之不自動 而乘氣以動也 動便是陽 亦便是氣 卽太極之所乘也 於是乎 有形焉 可不謂之生乎 然則 動而之動 太極所涵之動 而至於而生然後 是動也 爲陽而屬乎氣也 雖然 尙有疑乎太極之有形 而自動 故於太極之上 加無極而太極五字 是猶曰 此下所謂太極之動 非太極之自動云爾 復於通書申之曰 動而無靜 靜而無動 物也 動而無動 靜而無靜 神也 動而無動 靜而無靜非不動不靜也 物則不通神妙萬物 夫動而無靜 靜而無動者 指太極所生之陰陽也 此所謂物則不通不通云者 陽自爲陽 陰自爲陰也 動而無動 靜而無靜者 指生陽生陰之太極也 此所謂神妙萬物 神云者 生陽生陰之不測也 故朱子云 神者 卽此理也 夫如是太極動而生陽之動 卽通書所云 無動之動而 其所云非不動也 旣曰 非不動則 曰太極動而生陽 不亦宜乎 此周子用意之密 而朱子所以解太極說也 必與通書幷言之 而其理有動靜之說 眞有得於周子之心云

이유동정설(理有動靜說)

▣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태극이 동정을 머금었다"고 했으니, 태극을 곧 동정이라고

71) 리(理)와 기(氣)는 우주의 체(體)이며 인(仁)과 신(神)은 우주의 용(用)이다. 반드시 이 네 가지를 겸해서 보아야 주자 우주론의 전모를 볼 수 있다. 장횡거는 귀와 신은 음·양 두 기의 선천적인 능력이다, 라고 하였다. 정이천은 "귀와 신은 조화의 자취이다"라고 하였다. 주자의 귀신론은 대체로 이 두 사람의 설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천의 설이 횡거의 설만 못하다고 보았다. 주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귀신이란 기 가운데 신령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곧 기 가운데 일종의 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혹 귀신이라 부르거나 혹 신이라 부르건 간에 그것은 기의 능력이다. 만약 신과 이를 비교한다면 이는 형이상에 속하고 신은 형이하에 속한다. 이와 같이 말하고 보면 하늘과 땅, 사람과 물건이 모두 한 덩어리이다. 이 한 덩어리를 합해서 말하면 기이고 나누어서 말하면 음과 양이다. 음과 양이 서로 감하여 오가며, 움츠리고 펴기를 거듭하면서 온갖 조화를 연출한다. 이 온갖 조화는 오묘하여 식별하고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른다. 신은 일종의 조화의 작용이자 공능이다. 이러한 공능과 작용 위에 반드시 이라는 존재가 있다.
여기에서는 태극과 동정의 관계를 신(神)의 개념과 연결시켜 논하고 있다. 결국 태극은 원리이고 동정은 작용이며 신(神)은 조화의 공능(功能)이다.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 형이상·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에 의하여 볼 때 동정은 형이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자상(鄭子上)[72]이 태극 동정에 대해 물은 데 대해 답한 것을 보면 리에는 동정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 동정이 있다고 하였으니, 만약 리에 동정이 없다면 기는 어느 곳에서부터 동정이 있게 되는 것인가? 또 지금 논해 보면 인(仁)은 곧 동이요 의(義)는 곧 정이니 또한 어떻게 기가 관여할 수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보건대, 동정은 오로지 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설을 참고하여 살펴 보건대, 유행이 이미 나타난 자취를 살펴보면 동은 발(發)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마땅히 형이하에 속한다. 그 유행이 되는 까닭을 미루어 보면 유행은 천리(天理)이다. 그러므로 때로 오로지 기에 속하지 않을 수 도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태극이 동하여 양을 낳고 동하여 동으로 변하여 가는 것은, 곧 태극이 포함하는 동으로 포함한 바의 동이 능히 움직이는 것은 태극의 안에 원래 유행의 이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장차 유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주역대전(周易大傳)』에서 말하는 '계지자선(繼之者善)'[73]이요 '성지자성(成之者性)'[74]이라는 예와 그 의미가 동일하다. 주자(朱子)는 『통서(通書)』에서 이것을 인용하여 해석하여 말하기를, 기가 바야흐로 나와서 이루는 바가 없는 것을 말함이요, 선(善)이라고 하는 것은 리가 바야흐로 행하는데 세워진 바 명목이 없는 것이다. 성(成)은 사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요, 성(性)은 이치가 세워진 것이라고 해석하였다.[75]

朱子云 謂太極舍動靜 則可謂太極便是動靜 則是形而上下不可分 據此而動靜之屬 形而下明矣 其答鄭子上太極動靜之問 曰 理有動靜 故氣有動靜 若理無動靜 則氣何自而有動靜乎 且以目前論之 仁便是動 義便是靜 亦何關於氣乎 據此而動靜 又不專屬乎氣審矣 參二說而究之 夫跡其流行之已著 則動者發之謂也 當屬乎形而下也 原其流行之所以 則流行者天理也 故有時而不專屬乎氣也 何以言之 周子曰 太極動而生陽動而之動 卽太極所涵之動 而所涵之動之能動 以太極之內 元有流行之理故也 知動而云者 指其將流行而言之也 此與易大傳所云 繼之者善 成之者性 其例略同 朱子於通

72) 주자(朱子)의 문인.
73) 하늘의 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선(善)이라는 말.
74) 하늘의 도를 이루는 것, 즉 구체적인 사물의 본질성으로 이루는 것을 말함.
75) 태극 동정을 『주역대전』에서 말한 '계지자선(繼之者善)'과 '성지자성(成之者性)'과 연관시켜 논하고 있다.

書所引而釋之曰 繼之者 氣之方出 而未有所成之謂也 善者 理之方行 而未有所立之名也 成則物之已成 性則理之已立者也

▣ 이 예에 의해서 말을 정리하면, 마땅히 동(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리(理)가 바야흐로 움직이려고 하는 즈음이기 때문에 무어라 일컬을 만한 것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양을 낳으면 양이 이미 움직이는 것이다. 대개 이에는 행적이 없으니 근본적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장차 이치가 유행하는 것을 밝혀서 성(性)을 이루면 즉 부득이 리가 운행된다고 할 수 있다. 홀로 기 뿐만 아니라 가히 운행된다고 할 수 있다. 태극은 형체가 없으니 또한 동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장차 그 이치가 유행하는 것을 밝혀서 음양이 생기면 또한 부득이 태극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다. 양뿐만 아니라 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善)을 잇는 것'[繼善]과 '성(性)을 이루는 것'[成性]은 유행의 기로써 형이상의 리와 통하는 일면이 내재한다. 동하여 양을 낳는다는 것은 기의 유행의 근원으로부터 형이하의 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데로 이른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나, 다만 대략 그 의미가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가 깊도다 주자의 말이여! 태극이라는 것은 분연지묘(本然之妙)요 동정은 탄 바의 기틀이니, 무릇 기틀이라고 하는 것은 발동(發動)이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것은 리가 기를 탄 바이며 운행의 오묘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 어류(朱子語類)』에 이른바 "기가 이미 동정이 있으면 이미 실려 있는 이치에 어찌 동정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인(仁)은 곧 동이요 의(義)는 곧 정이니 또한 '계선(繼善)', '성성(成性)'을 음양에 분배하는 것과 같다. 대개 선(善)과 성(性)은 본래 형이상으로 혼연(渾然)함이 찬연(粲然)한 것이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니, 곧 부득불 '계성(繼成)'에 나아가서 본원(本原)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과 의는 또한 본래 형이상으로 혼연함에 찬연한 것이 있는 것을 말한 것으로, 부득불 동정에 나아가서 분위(分位)를 정한 것이다. 대체로 리기가 도기(道器)와 서로 혼동된다고 하는 의심이 들면, 반드시 가리키는 바의 특징을 연구한 뒤에 추이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76]

76) 주자(朱子)의 우주론은 주염계의 태극도설에 연원을 둔 것이므로 역(易)과 도(道)에도 아울러 통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따져보게 되면 도가(道家)의 주장이 한결같이 자연에 바탕을 두는데 비해 주자의 이기론에서는 자연을 그대로 도로 인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주의 형이상계에서는 이는 정의(情意)도 없고 계탁(計度)도 없고 조작(造作)도 없고 작용도 없다. 그러나 일단 인간사회나 물질계에

今欲依此例而立言 當曰動而者 理之方動 而未有所稱之謂也 生陽則陽之已動者也 盖理無跡 本不當曰行 而將明其理之流行而成性 則不得已而曰理之方行也 不獨於氣而可謂之行也 太極無形 亦不當曰動 而將明其理之流行 而生陰陽 則亦不得已而曰太極動也 不獨於陽而可謂之動也 然而繼善成性 卽夫流行之氣 而默契其形而上之理也 動而生陽 自氣流行之原 而懸指其形而下之氣也 故不可曰其致同 而但曰其例略同也 旨矣哉 朱子之言 曰 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夫機者 發動所由也 其意猶曰 此是理之乘氣 而行之妙關也 語類所謂 氣旣有動靜 則所載之理 安得謂之無動靜者是也 其曰 仁便是動 義便是靜 亦與繼善成性之分配陰陽者同 盖善與性 本是形而上者 而言其渾然之爲燦然 則不得不就其繼成 而指其本原也 仁與義 亦本是形而上者而言 其渾然之有燦然 則不得不就其動靜 而定其分位也 凡言理氣有疑乎道器之相混 則必先究其所指之異而後 有以識其所移之同也

태극동정체용설(太極動靜體用說)

▣ 천하의 사물이 체(體)가 없는 것도 없고 또한 용(用)이 없는 것도 없다. 이런 까닭에 체용(體用)이 서로 기다리는 것이다. 체를 말하는 것 중에 태극보다 큰 것이 없고 용을 말하는 것으로 유행화육(流行化育)보다 큰 것이 없다. 태극은 물(物)이 아니니 체를 볼 수 가 없다. 비록 그러나 이미 유행 화육의 작용이 있으면 태극이 어찌 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태극의 본체를 고찰해 보건대, 정자(程子)가 말한 충막무짐(沖漠無朕)하여 만상(萬象)이 빽빽히 갖추어져 있어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다. 무릇 '충막무짐'은 스스로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만상이 이미 빽빽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이에 유행 화육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주자(朱子)는 태극도(太極圖)의 제2도인 음양이 서로 근본하는 중심의 빈 하나의 도(圖)를 태극 본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또한 내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없다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것이니, 형체가 없는 것은 흡사 지극히 고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고요한 것으로 태극의 체를 삼고 있는데, 주자(朱子)는 이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았다. 대개 정(靜)과 동(動)은

내려오면 사람이 리(理)에 의지하여 움직이므로 이는 마침내 작용하는 것이 된다. 기의 권역 안에 있는 인생계는 자연히 정의도 있고 계탁도 있다. 다만 이 정의와 계탁이 이에 부합하려면 리도 곧 작용과 조작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자의 심성론을 들어 보아야 그 사상의 발양처와 귀착점을 알 수 있다.

상대적이지만, 동정은 곧 태극이 함유하는 것이다. 미발(未發)로부터 정(靜)으로써 태극의 체를 삼은 즉, 포함된 바에 동이 들어가지 않고 빠지는 것이다.

天下之物無無體者 亦無無用者 是以體用相須焉 語體之大 莫大乎太極 語用之大 亦莫大乎流行化育 而太極非物也 其體不可見 雖然旣有流行化育之用 則太極惡可曰無體也 今究太極之本體 程子所云 沖漠無朕 萬象森然已具者 可以盡之矣 夫沖漠無朕 自不可見之謂也 萬象森然已具者 斯其爲流行化育之主之謂也 朱子則以太極圖之第二圖 陰陽互根之中心一虛圖 謂之太極之本體 其意亦猶曰無朕也 無朕者無形 而無形有似乎至靜 故有以至靜爲太極之體者 而朱子以爲不是 盖靜與動對 而動靜乃太極之所涵也 自其未發 而以靜爲太極之體 則於其所涵而遺却其動也

▣ 이발(已發)에 미쳐서는 정(靜)을 태극에 귀속을 시켰으니, 양의(兩儀)에는 정(靜)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만일 지정(至靜)으로 이발·미발을 관통하면 이미 태극이 버려지고 양의에 이지러짐이 있으니, 모두 정당한 이론이 되지 못한다. 비록 그러나 체(體)가 서지 못하면 용(用)도 운행될 수 없다. 태극의 체를 구하고자 하면, 태극은 형체도 없고 본체도 볼 수 없으니, 오직 '지정(至靜)'이라야 그 의미를 가깝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은 태극의 체가 되니 태극의 체는 반드시 지극히 고요할 지라야 살필 수 가 있다. 이것은 주자(朱子)가 태극도에서 그 음의 고요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태극의 체가 서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무릇 동은 유행화육(流行化育)의 용(用)이 되며 정도 역시 유행화육의 용이 된다. 그러나 태극의 체가 반드시 정에서 확립될 때, 곧 무릇 용이 체에 붙게 되는 것이다. 정만 그러할 뿐만 아니라 동도 또한 그렇다. 동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 극한이면 다시 정으로 돌아온다. 이것 또한 용으로 말미암아 체가 확립되는 곳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체용이 서로 기다리는 오묘한 이치를 볼 수 있으니, 태극의 체가 확립되는 바를 말한 것이요, 진실로 음양의 고요한 것이 태극의 체가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에 『주자어류』에서 누구의 기록인지 분명하지 않은 말에 이르기를 "태극은 저절로 동정의 이치를 머금어 문득 동정으로 체용을 나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개 정은 곧 태극의 체요 동은 곧 태극의 용이니 소록(所錄)의 말이 잘못되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게 하지 못한다. 만약 태극이 동정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동정의 이치가 곧 태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정으로 체용을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정은 태극의 체가 서는 까닭이 되고, 동은 태극의 용이 운행되는 바이다. 그렇게 된다면 『태극도해(太極圖解)』의 뜻으로 더불어 서로 합치가 된다. 어떤 사람은 태극의 체를 볼 수 없으니 유행화육(流行化育)의 용에서 체험하는 것이 옳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 꼭 음의 정(靜)에서 체가 확립되는 까닭을 볼 수 있겠는가? 말하기를, 배우는 자가 태극과 양의를 강론함에 동정체용(動靜體用)을 연구하는 것은 마음을 고원(高遠)한 데 쓰는 것이 아니다. 대개 이것에 나아가서 간절히 묻고 절실히 생각하여 진덕수업(進德修業)하는 데 바탕을 삼는다. 무릇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은 태극 동정의 이치를 전일하게 갖추고 있다. 중인(衆人)은 사물에 감통하나 이것을 동에서 잃고 성인은 그 덕을 온전히 하여 이를 정에 근본을 두니 중인이 성인을 배우는 것은 오직 정을 위주하여 동을 전일하게 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 체(體)가 서며 용(用)이 운행된다고 한다. 어찌 정밀히 살펴서 정하지 아니하랴![77]

及其已發而以靜屬之太極 則兩儀而缺却其靜也 若以至靜爲貫乎已發未發 則旣於太極而有遺 又於兩儀而有缺 俱未見其正當也 雖然 體不立則用無以行 欲求太極之體則太極無形 其本體不可見 而惟至靜爲近之矣 至靜雖太極之體 而太極之體 必於至靜可以察之 此朱子所以於太極圖指其陰之靜者 而曰太極之體所以立也 夫動爲流行化育之用 而靜亦爲流行化育之用也 然而太極之體 必於靜而立焉 是卽夫用而寓其體也 不獨靜然也 雖動亦然 動不常動 極則復靜 是又由用而反于體之所立焉 於是有以見其體用相須之妙 而其曰太極之體 所以立也 則非直指陰之靜者 以爲太極之體也明矣 乃語類不知何氏之所錄曰 太極自是函動靜之理 却不可以動靜分體用 盖靜卽太極之體也 動卽太極之用也 其所錄之語 殊欠曲折 令人不可曉 若曰太極函動靜 動靜之理 卽是太極 故不可以動靜分體用 然靜爲太極之體之所以立 而動爲太極之用之所以行也 云爾則與圖解之旨相合矣 或者謂太極之體 旣不可見 則且於流行化育之用驗之可也 何必於陰之靜見其體之所以立乎 曰學者之講太極兩儀 而究動靜體用者 非用心於高遠也 盖卽此而切問近思以資其進德修業也 夫聖人與衆人 其具太極動靜之理一也 衆人感於物而失之於動 而聖人則全其德而本之於靜 衆人之所以學聖人者 惟在於主乎靜以一其動 此之謂體立而用行也 惡可不精察而有所定乎

77) 여기에서는 태극동정을 가지고 체용을 논하고 있다. 즉 정(靜)을 태극의 체라고 한 것은 태극의 체가 정에서 확립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동은 유행화육(流行化育)의 용이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동에서 태극의 용이 운행되는 것임을 가리킨 것이다.

체용설(體用說)

▣ 체(體)라고 하는 것은 용(用)이 바탕한 것이요, 용은 체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개 바탕이 있은 뒤에 곧 베푸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체는 항상 앞서 있고 용은 항상 뒤에 있게 된다. 일찍이 선현(先賢)들이 논한 체용의 설은 일정하게 바꿀 수 없는 체용이 있고, 또한 류(類)에 따라서 각기 가리키는 것이 다른 체용이 있다. 비록 주장하는 바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시(資施)'[78]가 되는 것은 한 가지이다. 무엇을 가리켜 일정하게 바뀌지 않는 체용이라고 하는가?

정자(程子)는 "체용일원(體用一源)"이라 했고, 주자(朱子)는 이것을 해석하되, 지극히 미미한 이치로써 말을 하면 충막무짐(沖漠無朕)하여 온갖 상(象)이 비추어져 갖추어진 것이라고 했으니, 대개 체를 들어 말하면 용의 이치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서 한 근원으로 여기게 된다. 무릇 이것을 일러 '일정불역(一定不易)'이라고 한다. 리(理)라고 하는 것은 만상(萬象)의 근원이요 『주역』에 있어서는 태극이 체가 되고 화육(化育)이 용이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性)이 체가 되고 정(情)이 용이 된다. 이는 본래 형체가 없으니 체로 마땅히 지목할 수 없다. 비슷하게나마 형용해 본다면 억지로 이름할 수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빗대어 말하기를 체라고 한다. 『주자어류』에 이른바 척(尺)과 칭(稱)은 서로 같으나 위에 푼치(分寸) 성수(星銖)가 있는 것은 체이다. 장차 물사(物事)를 헤아려 본다면 용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억지로 비유를 들어 본 것이다. 척(尺)과 칭(稱)은 비유해 보면 충막무짐한 것으로 이른바 도체(道體)의 온전함이요 혼연히 일치된 것이다. 위에 푼치와 성수가 있는데 비유를 해보면 만상이 밝게 이미 갖추어 있다. 이른바 정추(精粗)·분말(本末)·내외(內外)·빈주(賓主)의 구분이 찬연하여 그 가운데 털끝 만큼의 어긋남도 있지 않다. 장차 물사(物事)를 헤아려 보는 것에서 비유해 보면, 일에 나아가고 사물에 나아감에 이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다. 이른바 일동일정(一動一靜)하는 것이 어떤 상황 하에서도 중정인의(中正仁義)의 지극함이 아닌 것이 없다.

무엇을 일러 류(類)에 따라서 각각 가리키는 것이 다른 체용이라고 하는가? 주자(朱子)가 이르기를 보이는 것을 '체'라 했고, 뒤에 생겨나는 것을 '용'이라고 했다. 또 이르기를 사람으로써 다만 합당한 곳이 문득 체가 되고 사람이 활용하는 곳[79]이 바로

78) 바탕이 되고 베푸는 것이 되는 것.

용이라고 했다. 형이상적인 측면에서 말을 해보면, 보여지는 것은 형체가 없을 수가 없으므로 억지로 빗대어서 체라고 말을 한 것이요, 형이하의 관점에서 보면 합당한 곳이 곧 일을 따라서 이치에 맞게 되는 체가 된다고 했다. 또 이르기를 신(身)은 체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수족을 움직이는 곳이 곧 용이라고 했다. 손은 체이고 손가락을 움직여 부리는 것은 용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형질(形質), 신기(神氣)를 가지고 체용을 나눈 것이다. 또 이르기를 양에 나아가서 보면 양은 체이고 음은 용이다. 음에 나아가서 보면 음은 체이고 양은 용이다. 이것은 대대주빈(對待主賓)에 따라서 그 체용을 나눈 것이다.

인의(仁義)로써 체용을 나누어 볼 경우에 이르기를 인이 마음에 내재하면 성(性)이 체가 되고 의(義)가 일에 제제를 가하면 성(性)이 용이 된다. 이는 성(性)으로써 동정을 나누고 체용을 나눈 것이다. 또 이르기를, 성(性)으로써 말을 해보면 모두 체이고 정(情)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용이다. 이 또한 인의(仁義)에 나아가서 성정(性情)을 나누고 체용을 이해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의(義)는 체이고 인(仁)은 용이다. 이것은 의(義)의 수렴(收斂)으로써 정(靜)에 붙여 나눈 것이고, 인의의 발생의 관점에서 이를 동(動)으로 분속(分屬)시킨 것이며, 정을 주로 하여 체를 세우며 동을 전일하게 하여 용을 행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인의(仁義) 가운데 각각 체용이 있다. 이는 '인'이 마음에 있는 것이 체가 되고 인물(人物)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 된다. '의'가 마음에 조절이 되는 것이 체가 되며, 일을 행하는 데 각각의 처소에 맞게 하는 것이 용이 된다고 했다. 일찍이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건대, 체용이 비록 정해진 처소(處所)가 없으나 요체는 바탕이 있은 후에 베풀어지는 바가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니, 자(資 : 바탕)는 체가 되고 시(施 : 베풀어지는 것)는 용이 아님이 없다. 지금까지 인용한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기록한 것인지는 그 근거를 알 수 없지만, 이 예에 의해서 미루어 보건대, 그 뜻은 대개 태극은 스스로 동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용을 갖추고 있다. 동정의 뒤에 나아가서 동정이 그 자체가 체용으로 나뉜 것이 아니니, 대개 정은 태극이 포함한 체요, 동 또한 태극이 포함한 용이다.

태극이 함유하고 있는 근원에 체가 있는 까닭에 정(靜)으로 나누어 세웠고, 태극이 함유한 근원에 용이 있는 까닭에 동으로 나누어 운행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설명된다면 비록 전에 말한 '일정불역지설(一定不易之說)'과는 같지 않다. 다만 체용이 아

79) 인간이 올바른 방향에서 활용하는 것. 즉 사물의 적용의 문제를 말한다.

울러 태극의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고 했으니, 대개 이미 남헌장씨(南軒張氏)가 이미 태극이 체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임천오씨(臨川吳氏)가 말한 것은, 태극은 본래 체용의 나뉨이 없고 유행하고 변화하는 것은 모두 기의 기틀이 합벽(闔闢)을 하여 고요한 때가 있고 움직일 때도 있다는 것이다. 정에 해당할 때는 태극이 그 가운데 있어서 정하게 되는 바이며 인하여 태극의 체로 여기게 된다. 동함에 미쳐서는 태극이 또한 그 가운데 있어서 움직이게 되며 인하여 태극의 용으로 여기게 된다. 태극이 충막무짐(沖漠無朕)한 것은 때로 그렇지 아니한 것이 없고 동정도 간격이 있지 않은데 또한 어찌 체용의 나뉨이 있겠는가? 이것은 어떤 사람이 기록한 바를 따라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주자(朱子)의 뜻을 근원해 볼 때 체가 세워진 뒤에 용이 운행이 된다. 인의중정(仁義中正)을 하는데 있어 적감(寂感)[80]의 극치인 인태극(人太極)[81]에서 세워지고 군자·소인의 길(吉)하고 흉(凶)하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서 나뉘어지게 된다. 이에 찬연히 나뉘어 지는 최고의 절실한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임천오씨가 해석한 바는, 다만 그 혼연히 나뉨이 없는 곳에 나아가서 말을 한 것이요 특별히 주자(朱子)의 본뜻이 아니다. 대개 어떤 사람이 기록한 바의 문사(文辭)는 후학이 의문을 갖는 부분에 이해를 돕지 못하니 만약에 주자가 쓴 글을 볼 것 같으면,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것이다. 대개 체용의 나뉨은 이와 같이 전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리(理)의 일정한 방향에 귀속시키면 합당하지 않음이 없으니 횡간(橫看)·수간(竪看)의 설이 모두가 바르게 뜻이 통할 수 있다. 주자가 이른바 혹 떠나며 혹 합하고 혹 다르며 혹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비록 그러나 또한 반드시 일정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으니 크게 도달해야 할 부분을 정한 뒤에 그 부류에 따라서 각기 가리키는 방향이 모두 다 조리가 있고 문란하지 않아야 한다. 앞에서와 같이 체용이 아울러 태극의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일정한 관점에서 본다면 흡사 체 위에 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과 같고, 각기 가리키는 개별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른바 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만상이 이미 갖추어진 내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릇 그러한 뒤에 체용의 설은 '인이신지(引而伸之)[82]해야 한다.

---

80) 『주역』「계사전 상」에 나오는 '寂然不動 感而遂通'을 말함.
81) 인간의 도덕적 실천 원리.
82) 본래적인 의미를 이끌어 내어 사물을 인식하고 그 결과적인 것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

體者用之所資 而用者體之所施也 盖有所資而後 乃有所施 是以體常居先 而用常居後也 嘗觀先賢所論體用之說 有一定不易之體用 亦有隨類各指之體用 雖所主之不同而其爲資施一也 何謂一定不易之體用也 程子曰 體用一源 朱子釋之 曰 以至微之理言之 則沖漠無朕 萬象昭然而具也 盖擧體而用之理已具所以爲一源也 夫此之謂一定不易者也 理也者 萬象之所原也 在易則太極爲體 而化育其用也 在人則性爲體而 情其用也 理本無形 不宜目之以體而欲形容其彷彿 則不得不强名之焉 以爲無此則彼不能有故 擬之曰 體也 如語類所云 與尺與秤相似 上有分寸星銖則體也 將去稱量物事則用也 此亦强而擬之也 尺與秤譬 則沖漠無朕 所謂道體之全 渾然一致者也 上有分寸星銖譬 則萬象昭然已具 所謂精粗本末內外賓主之分 燦然於其中 有不可以毫釐差者也 將去稱量物事譬 則卽事卽物而此理無乎不在 所謂一動一靜無適而非中正人義之極也 何謂隨類各指之體用也 朱子有云 見在底便是體 後來生底便是用 又云 人只是合當做處便是體 人做處便是用 以上者而言之 見在底不是無形强擬之體也 以下者而言之合當做處 卽是隨事合理之體也 有云身是體 目視耳聽手足運動處便是用 手是體 指之運動提掇處便是用 此以形質神氣 分其體用也 又云 就陽言 則陽是體 陰是用 就陰言 則陰是體 陽是用 此以對待主賓 分其體用也 其有以仁義 分體用者則 有云 仁存諸心 性之所以爲體也 義制乎事 性之所以爲用也 此以性分之動靜分體用也 又云 以其性言之 則皆體也 以其情言之 則皆用也 此又就仁義而分其性情 以爲體用也 又云 以陰陽言之 則義體而仁用也 此以義之收斂屬之靜分 以仁之發生屬之動分 主乎靜而立其體一其動而行乎用也 又有云 仁義中又各有體用 此以仁之存心爲體 而及於人物者爲用 義之裁乎心者爲體 而處之事爲者爲用也 嘗由此數者而觀之 體用雖無定所 然要不出於有資而後有施 莫不以所資爲體而所施爲用也 今以上所引 不知何氏之所錄依此例而推之 則其意盖曰 太極自是涵動靜該體用者也 不可就動靜之後 而於動靜自分體用 盖靜本是太極所涵之中之體 而動亦是太極所函中之用也 以其太極所函原有之體也 故所以於靜分而立也 以其太極所函原有之用也 故所以於動分而行也 如此云爾則雖與前所云 一定不易之之例不同 而直以體用 幷具於太極之中 盖南軒先生已有太極該體用之說也 若臨川吳氏之所言 則謂以太極本無體用之分 其流行變化者 皆氣機之闔闢 有靜時有動時 當其靜也 太極在其中 以其靜也 因以爲太極之體 及其動也 太極亦在其中 以其動也 因以爲太極之用 太極之沖漠無朕者 無時而不然 不以動靜而有間 而亦何體用之分哉 此盖因何氏所錄 推究而爲之說 然原朱子之旨 則以體立而後用有以行者 爲仁義中正 寂感之極致人極 於是而立 君子小人之所以吉凶 於是而判

此是燦然之分之最切要者 而吳氏之所釋 只就其渾然無分者而言之 殊非朱子之本旨也 盖何氏所錄之文辭 不達意 以致後學之疑 而若有得於朱子手業之書 則其所疑者可以辨矣 大抵體用之分 如是其不一 而一之于理無不合當 則橫看竪看 皆可以通正 朱子所謂 或離或合或異或同者 指其類也 雖然 亦必有一定不易者 爲之大致而後 其隨類而各指者 皆有條而不紊 如前以體用 幷具於太極之中之云有以一定者視之 則似有嫌乎體上之體而以各指者視之 則其所謂體用者 亦包於萬象已具之內矣 夫然後體用之說可引而伸之矣

태극을 체(體)라 하고 동정을 용(用)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설
以太極爲體 動靜爲用 其言有病說

▣ 주자의 『태극도설』 주(註)에서 처음에 태극(太極)으로 체(體)를 삼고 동정(動靜)으로 용(用)을 삼는다고 했다. 이윽고 그 말이 병통이 있다고 여겨 이를 고쳐 말하기를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본연(本然)의 오묘한 이치이며 동정(動靜)이라는 것은 탄 바의 기틀이라고 했다. 대개 뒤의 말이 정밀하여 더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상체용(理象體用)'이라고 정자가 일찍이 말을 하였다. 그런즉 '태극은 리이며 음양은 상(象)이다'고 한 앞의 말을 어찌하여 옳다하지 않고 병통이 있다고 하였는가? 무릇 천하의 사물은 용이 있으면 이에 체가 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말했을 따름이다. 태극은 그 본체를 가히 볼 수 없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사물에 대하여 칭명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니 특별히 비유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그 오묘한 뜻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반드시 본연의 오묘한 이치를 말한 후에는 형상(形象)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니 그 말이 비로소 정밀하다. 그 동정으로 용을 삼지 않는 것은 대개 또한 까닭이 있다.

朱子註太極圖說 初以太極爲體 動靜爲用 旣而以爲其言有病而改之曰 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盖後說精密 無以加矣 然理象體用 程子嘗言之矣 太極理也 陰陽象也 前說何爲不是 而以爲有病也 凡天下之物 有用斯有體 此槩言之耳 至於太極 其本體不可見 若以所稱於物者 槩言之 則特取喩而已 非所以直指其妙也 必曰 本

然之妙而後 不落於形象而 其言始精矣 其不以動靜爲用者 盖亦有故焉

▣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天命)이 유행(流行)하여 화육(化育)하는 이치이다. 유행 화육하는 공(功)이 모두 양(陽)의 동(動)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양이 아니면 능히 움직일 수 없고 동이 아니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流行 화육하는 것은 비록 볼 수는 없으나 진실로 거기에 내재해 있다. 즉 태극의 미발(未發)이니 이미 미발이면 곧 지극히 고요하다. 정이 비록 태극은 아니나 태극의 본체는 반드시 여기에 바탕을 두고 확립하게 된다. 왜 그런가? 미발이기 때문이다. 정은 음이요 음은 태극이 소생된 것이다. 태극의 체는 태극에서 볼 수 없으나 생겨난 바의 고요함에서 나뉘어 서게 된다. 태극은 원래 동정을 포함하고 체용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체는 정에 바탕하여 확립하게 되고 용은 동에서 운행한다. 이것이 오묘한 이치이다. 동은 갑자기 홀로 움직일 수 없으므로 정에 근원을 둔다. 이것은 화육(化育)의 공에 의지하는 것이요 또 능히 항상 움직일 수 없으므로 정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화육의 공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동정은 단서가 없고 유행하여 잠시도 쉼이 없이 운행되어 천지간에 충만하게 된다.

太極者 天命流行化育之理也 其流行化育之功 皆陽之動之爲也 何者 非陽則不能動 非動則不能行也 其所以流行化育者 雖不可見而固有在焉 卽太極之未發 是已未發則至靜 靜雖非太極 而太極之本體 必於是而立焉 何者 未發故也 靜陰也 陰太極之所生也 太極之體 不能於太極見之 而於其所生之靜 分有以立也 太極原是涵動靜 該體用故體立於靜而用行於動 斯其所以爲妙也 動不能驟動 而根於靜 此化育之功之所藉也 又不能常動而復於靜 此化育之功之所就也 是以 動靜無端 而流行化育 不暫息焉 而充滿於天地之間矣

▣ 『주역』에 말하기를 "척확(尺蠖 : 자벌레 나방의 유충)이 굽히는 것은 도약을 하기 위한 것이요 용사(龍蛇)가 칩거(蟄居)하는 것은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였다. 무릇 동정이 서로 바탕을 삼고 체용이 서로 기다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태극이 동의 기틀을 타면 운행이 되고 정의 기틀을 타면 서게

된다. 운행이 되기 때문에 용이 붙게 되고 확립되기 때문에 그 체가 실해진다. 체가 비록 정에 바탕하여 확립되나 체 가운데 용이 있고 용이 비록 동에 의해 운행이 되나 용 위에 체가 있다. 이것은 태극의 체용이 동정에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태극은 본연의 오묘한 것이요,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바의 기틀이다. 그렇다면 리(理)는 체요 상(象)은 용이라고 하는 말은 그릇된 것인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자어류』에 말하지 않았는가? 체용은 정해진 처소가 없다고 했으니, 대체로 무릇 이것을 말하면 태극은 체가 되며 음양은 용이 된다는 설이 확고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대대(待對)하여 말하면 정은 체로 말미암아 확립하게 된 바요, 동은 용으로 말미암아 운행되는 것이다. 세분하여 말을 하면 체가 확립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 용의 바탕 하에 이루어지고, 용이 운행되는 것은 또한 체가 기다리는 바에 의해서 가능하다. 만약 다만 태극으로 체를 삼고 동정으로 용을 삼는다고 한다면, 유행 화육하여 조금도 쉼이 없는 운행의 오묘한 이치를 형용하는데 어찌 이같이 밀접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앞의 말에 병통이 있어서 고친다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易曰 尺蠖之屈 以求伸也 龍蛇之蟄 以存身也 夫動靜之相資 而體用之相須 有如是矣 何以言之 太極乘動機則行 乘靜機則立 行焉而其用溥 立焉而其體實 體雖立於靜而體中有用 用雖行於動 而用上有體 此太極體用之見於動靜者也 其不可見者 於是乎見矣 不可見故曰 太極者 本然之妙也 可見故曰 動靜者 所乘之機也 曰 然則理體象用之說 非歟 曰否 非此之謂也 語類不云乎 體用無定所 夫槩言之 則太極之爲體 陰陽之爲用 固也 對言之 則靜爲體之所由立 動爲用之所由行也 細言之則 立其體者 實爲用之所資 而行其用者 亦爲體之所須也 若但以太極爲體動靜爲用云爾 則其流行化育 不息之妙 惡得以形容之如是密也邪 此所以以前說爲有病而改之者歟

▣ 인간이 품수(稟受)한 이치에 따라 인극(人極)을 세운 것을 말하자면 천명에 의해 유행 화육된다고 하는 것이다. 즉 이 마음이 주류관철(周流貫徹)해서 끊어짐이 없다는 것이다. 태극의 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적연(寂然)하여 움직이지 않는 곳에 천명의 성품의 체단(體段 : 단계)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이때를 당하여 공경으로써 마음을 가다듬고 이 기상을 마음 속에 항상 보존하여 잃지 않으면 날마다 생활하

는 의지와 취지가 동에 치우치지 아니하여 감통(感通)하여 움직이는 것이 조박(糟粕)하고 부박(浮薄)하며 경박한 기상이 없게 되고, 순일(純一)한 맛에 깊이 침잠함이 있어 자연스러운 가운데 절도에 맞아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주자가 중용에 내포된 미발(未發)의 가운데에 뜻을 얻어 그 본령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태극도설』의 '주정(主靜)'으로써 깊은 이치를 드러내고자 했다. 아아! 체험을 하여 이 말을 실천하고자 한다.

以人生稟受 而立人極者言之 則天命之流行 化育云者 卽此心之周流貫徹 而無間斷者也 太極之體所以立云者 卽此心之寂然不動之處 而天命之性體段具焉者也 當此時 敬以持之 使此氣象常存而不失 則日用意趣不偏於動 而其感通而發者 無躁迫浮露之氣 而有深潛純一之味 而自然中節矣 此朱子之有得於中庸未發之中之旨 而以爲本領者 故特於圖說之主靜 而發明其深致也 嗚呼 其有以體驗而爲是言也

이일분수설(理一分殊說)

▣ 정자가 『서명西銘』에서 논한 글을 보면 무릇 '이일이분수(理一而分殊)'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자의 『태극도설주(太極圖說註)』를 참고하면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 합해서 말한다면 만물을 통체(統體)로 하여 보면 하나의 태극인데 나누어서 말하면 하나의 사물은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 대개 통체라고 하는 것은 도체(道體)의 온전함이요 혼연일치한 것이다. 各具라고 하는 것은 정추(精粗)와 본말(本末), 내외(內外)와 빈주(賓主)의 구분이 그 중심에 찬연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리(理) 가운데 찬연한 분수가 있고 분상(分上)에 혼연한 이치가 있다고 한 것이다.[83]

---

83) 이일분수(理一分殊)라는 말은 리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말은 주자가 한 말이 아니고 정가 한 말이다. 정이는 장횡거의 『서명(西銘)』에 대해서 "『서명』은 이일(理一)이면서 분수(分殊)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하였다. '이일'이라고 하는 것은 리의 일관성·공통성·보편성이고 '분수'라고 하는 것은 사물 각각의 신분과 역할에서 차이가 생김을 말한다. 주자는 이일분수를 자신의 이기철학(理氣哲學)에 포함하여 이해한다. 리와 기에 대한 물음에 주자는 정이의 설이 좋다고 하면서 "천지만물을 합하여 말하면 단지 하나의 리일 뿐이다. 사람의 경우에도 또 각각 하나의 리가 있다"고 말하였다. 천지만물을 종합하여 그 궁극에 있는 것, 곧 근원에 있는 것은 보편적인 하나의 리이다. 리가 사람에 내재할 때 사람마다 자연

程子論西銘有云 理一而分殊 夫理一而分殊者 何謂也 觀朱子太極圖說註 有可以知之者矣 曰 合而言之 萬物統體一太極也 分而言之 一物各具一太極也 盖統體者 道體之全 渾然一致者也 各具者 精粗本末 內外賓主之分 粲然於其中者也 是以理中有粲然之分 分上有渾然之理

▣ 주자(朱子)가 『서명』을 논한 글을 보건대, 이른바 체(體)에 나아가서 보면 그 가운데 나뉨이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 분수(分殊)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립(分立)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이일'을 근원해 보면 바로 '분상(分上)'[84]에 이가 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분(理分 : 理의 나뉨)이 '서로 떨어진 것'을 용납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를 정리해 보면 '이즉분(理卽分)', '분즉리(分卽理)'요. 이분(理分)이 '서로 섞인다'고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이자리(理自理)', '분자분(分自分)'[85]인 것이다. 어떠한 관점에서 '이즉분', '분즉리'라고 하는가? 리 가운데 분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말하기를 대개 만사 만물의 소이연(所以然)이 모두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극도론(太極圖論)에 이른바 체를 들어서 보면 용의 이치가 이미 갖추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분수상(分殊上)에 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개 말하기를 일사일물(一事一物)의 소이연은 곧 만사만물의 소이연이다고 한다. 태극도론에 이른바, 일에 나아가 보면 리의 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이미 리라 하고 분이라 하여 비록 '상잡(相雜)'할 수 없으나, 그 소이연을 궁구해 보면 일찍이 같지 아니함이 없다. 무슨 이유로 '이자리(理自理)', '분자분(分自分)'이라고 하는가? 이는 형체가 없으니 형이상의 도이다. 태극도해(太極圖解)에 이른바, 동하고 양이며 정하고 음인 본체이다. 분(分)에는 상(象)이 있다. 상은 형이하의 기(器)이다. 『태극도설』 주(注)에 이른바 분음분양(分陰分陽)은 분수의 일정한 규칙으로 옮겨지지 않는 불변의 이치이다. 이일분수의 소이연이 '상리(相離)'를 용납하지 않으나 도기(道器)의 상·하를 말하면 진실로 자연히 구분이 된다.

히 각각 하나의 리를 갖는다. 이 때 사람이 각각 가진 리는 그 신분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원으로서의 리는 동일하다. 사람의 경우에는 리라고 할 때 리는 기와 함께 존재한다. 이일분수는 리와 기의 문제이다. 곧 형이상과 형이하의 문제이다.

84) 구체적 현상에 적용되는 개별성.

85) 리(理)는 저 스스로 '리'이고 분(分)은 저 스스로 '분'이라는 말.

朱子西銘論 所謂 卽體而分在其中者 正所以言夫理中有分也 所謂無適而非分立 而推理一者 正所以言夫分上有理也 就其理分之不容相離而言之 則理卽分 分卽理也 就其理分之不可相雜而言之 則理自理 分自分也 何以謂理卽分 分卽理也 理中有分者 盖曰 萬事萬物之所以然 盡涵於其中也 太極圖論所謂 擧體而用之理已具者 是已分上有理者 盖曰 一事一物之所以然 卽萬事萬物之所以然也 太極圖論 所謂卽事而理之體可見者 是已曰理曰分 雖不可相雜 而究其所以然 則未嘗不同也 何以謂理自理 分自分也 理無形 形而上之道也 太極圖解所謂 所以動而陽 靜而陰之本體也 分有象 象形而下之器也 太極圖說注 所謂分陰分陽 分之所以一定 而不移者也 理分之所以然 雖不容相離 而語其道器之上下 則固自有別矣

▣ 이런 까닭에 그저 혼연(渾然)한 것이 큰 것 인줄만을 알고 무릇 찬연(粲然)한 것이 처음부터 떨어질 수 없음을 알지 못하면, 그 논하는 관점은 항상 치우침에 빠져 추없는 저울과 눈금 없는 자로 공적(空寂)에 빠져 일물(一物)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능히 만화(萬化)의 근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무릇 찬연함이 처음 서로 떠나지 아니한 것만을 알면서 무릇 혼연함과 찬연함이 '상잡(相雜)'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울추와 자의 눈금이 일물(一物)에 섞여서[86] 족히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없다. 대개 혼연한 가운데 찬연한 것이 없다면 소가 말을 낳는 현상이 생길 것이며, 복숭아 나무에서 오얏꽃이 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찬연한 것과 혼연한 것이 서로 섞이면 정자(程子)가 말한 충막무짐(沖漠無朕)한 것이며 장횡거가 말한 '태일(太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고신(一故神)'이라고 한 말은 헛된 것이 된다. 주자(朱子)가 말한 '깨끗하고 비어 있으면서 넓다'[淨潔空濶]고 하는 것은 장차 혼잡을 극복하지 못하고 협소하고 좁은 의견이 될 것이다.

是故 徒知渾然之爲大 而不知夫粲然之未始相離 則其論每陷於一偏 而無星之秤 無寸之尺 淪於空寂 不能爲萬物之根矣 徒知夫粲然之未始相離 而不知夫渾然之與粲然之不容相雜 則秤上之星 尺上之寸 同於一物 不足爲萬化之根矣 大抵渾然者之中 若無粲然者 則牛可生馬 而桃樹發李花矣 粲然者 若與渾然者相雜 則程子所云 沖漠無朕

86) 성(性)과 심(心)의 관점에서 사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심(心)의 작용 하에 사물을 관찰한다는 의미.

張子所云 一故神者 皆爲虛語 而朱子所云 淨潔空闊者 將不勝其混雜而狹隘矣

▣ 지금 『서명』의 뜻을 궁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울러 『태극도설』의 뜻을 고구해야 할 것이며, 『서명』을 논한 뜻을 얻고자 할진대 반드시 아울러 『태극도』를 논한 뜻을 얻어 보아야 할 것이다. 무릇 그런 뒤에 서로 밝힘에 도움이 되어 온전하게 사물의 근원과 현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편견에 기울지 않을 것이다. 혹자는 의심하여 말하기를 리 가운데 분수(分殊)가 있다고 하고 또 리 가운데 분상(分上)의 이치를 말하는데 리 위에 리를 더할 수 있는가? 아! 여기에서 '각구(各具)'의 이치를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통체(統體)의 이치요 통체의 이치 외에 또 각구(各具)의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개 천지의 공공(공명정대한 이치)한 이치가 사물에 떨어지지 않는 것(개별화되지 않은 상태)을 '통체'라 하고 '혼연(渾然)'이라하며 공공의 이치가 사물에 구체화되는 것을 '각구'라 하고 '찬연(粲然)'이라고 한다. 혼연이라고 하는 것은 흐릿흐릿한 상태이며 혼혼한 것을 가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찬연이라고 하는 것은 찬찬해서 찬찬한 것이 가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今欲究西銘之義 必幷究太極圖說之義 欲得西銘論之旨 必幷得太極圖論之旨 夫然後互相發明雙擧而不偏矣 或者疑旣曰 理中有分 而又於理中之分 却曰分上之理 不幾於理上加理邪 噫 於此有以見其各具之理 卽是統體之理 非統體之理之外 又有所謂各具之理也 盖指天地公共之理之不墮於物者 曰統體 曰渾然也 指公共之理之囿於物者 曰各具 曰粲然也 渾然云者 若乎其渾渾而非有渾渾者之可測也 粲然云者 若乎其粲粲而非有粲粲者之可著也

황운경(黃雲卿)에게 답함

전후 여러 차례 글월을 올렸지만 한 편지만이 겨우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전달되지 못한 것보다는 낳겠지요. 형이 써 약국에 부탁한 편지와 아무 탈 없이 이르러 갈산(葛山)에 맡긴 유하(柳下)의 책을, 김생(金生)이 가지고 오려는데 발에 병이나 올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 점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형의 몸은 더욱 평안하시고 아우님도 잘 삼가시어 쾌하게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남은 증세가 있는지요. 그 풍채와 운치는 늘 사람을 대하면 아름답다고 칭찬하게끔 합니다. 게다가 내가 형에게 조금도 겸손하지 않았던 것에 생각이 미치자 무릎을 맞대고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 형께서는 근자에 집안 일을 맏아들에게 맡기고 오직 손자와 노는 일과 책보는 일. 두 가지만 하신다고 치효(致孝)가 말하더군요. 상쾌하고도, 상쾌합니다.

저는 흉년을 겪으며 진 빚을 아직 청산하지 못했는데 날로 힘이 쇠하여져가 거의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 늘그막에 힘도 헤아리지 않습니다(문자를 공부하면서 망령되게도 어느 선에 이를 것을 기약하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은 아직 미치지 못한다 해도 스스로 기가 꺾이지 않았고, 비록 세상에 쓰이지 않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한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에 관계된 것은 내가 저를 어찌할 수 없고,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은 저 또한 나를 어찌할 수 없으니, 하늘이 나를 낳았노라고 애오라지 답할 뿐이었기 때문이지요.

때때로 형과 해학(海鶴 : 李沂)이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학은 지나친 근심[漆室之憂] 때문에 이곳에 올 겨를이 없으니 형만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은 또한 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다 안다면 협소한 방에서 흰 밥 먹는 것(梅泉 편지 가운데 있는 말이다)을 충분히 불쌍하게 여길만한데도 어찌 한번도 방문하지 않고 헤아리어 정하십니까.

저는 근래에 늘 한 번 외출하면 삼사 일도 못되어 돌아옵니다. 혹 형께서 소천형(小川兄)과 더불어 한번 욕림(辱臨)하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때 제가 비록 외출하고 없다 하더라도 서둘러 떠나지는 말아주십시오. 문을 닫고 머리를 맞대고 열흘을 지내지 않는다면 여러 해 쌓인 답답한 회포를 만에 하나 펴는 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내복(來覆)이 그 설을 무척 훌륭하다고 일깨워 주는데 그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묘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의심스럽고 석연하지 않은 것이 있어 별지에 질문을 드렸으니, 채택하여 주실려는지요.

저를 잊었는가 생각했다가 윤달에 내신 편지를 읽고 난 후에야 형께서 저를 아주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형의 맏아들이 와 있습니다. 대부인께서 기

체 건강하고 편안하시다니 우러러 축하드립니다. 우러러 축하드립니다. 모든 거동이 이사를 하지 않으면 한 시라도 안정될 수 없을 듯합니다. 저에게 한 꾀가 있으니 형을 위해 대신 꾀해보겠습니다.

무릇 인사(人事)가 오래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지요. 형께서 집을 떠난 지가 오래이니 마땅히 한번 변해야 합니다. 서울에 오래 머무르셨으니 또한 한번 변해야 옳지요. 사람의 정리상(情理上) 오래되면 염증내게 되고 염증내면 내치게 되지요. 집을 떠나신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가난함에 염증을 내는 것이요, 서울에 오래 머물러 계셨기에 서울 사람들이 형의 사정 어두움에 염증을 낸 것입니다. 만약 통하여 내침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거든 일단 급히 고향으로 돌아와 자취를 변화시키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정리로 하여금 염증나지 않게 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행동거지에 실제 효과가 있으리니,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형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높고 밝으시니 제가 자질구레한 말할 필요 없이 기미만 발하여도 그 다음은 요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향(還鄕)하고자 하신다면 지금이 적시입니다. 형께서도 도모하십시오. 만약 늦춘다면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형께서 제가 조금이라도 지각 있다고 여기신다면 믿어주십시오. 시편(詩篇)들은 모두 풍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께서 원래 소유했던 바이고, 제가 오래 전부터 인정했던 바이지요. 한가로운 틈을 타 쓴 편지라 차서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答黃雲卿

前後屢修函 僅一書得達 猶愈於並未達也 兄書付藥舖者 與柳下卷無恙到付葛山者 聞金生將帶至而足疾故未果也 ———— 漸可人 兄體益萬旺 令弟氏宿愼其快復 抑尙有餘證否 其風韻每對人艷稱 且念及我無少遜於兄者 恨未促膝 ———— 致孝言 兄近日家事聽允君 惟有弄孫與看書二事 快哉快哉 弟經歉之債 尙未淸 日復衰耗 殆不可耐 雖然 ———— 老來不量力(盖攻文字妄意期及) 古人雖未及不自沮 雖無用于世不自悔 雖無人知者不自恨 繫于命者吾莫如彼何 其在我者彼亦莫如吾何 聊以答天之生我而已 時時念兄與海鶴其知之 而海鶴以漆室之憂 不遑及此 獨兄宜與之同 而不惟南北落落 兄亦知我未之盡也 誠知之盡 豈環堵白飯(梅泉書中語)之 足恤而不一顧商確

邪 弟比來 每日出不三四日卽還 倘兄與小川兄 不惜一屈 雖適値弟出 幸勿遽發 閑戶聚首非過一旬 不足攄積年鬱鬱懷萬一也 來覆喩以其說甚長 不審其長如何 其妙旨又如何 然就中有疑而未釋然者 別紙奉質其肯採擇否 意謂忘之矣 讀閏月出書而後 知兄不遂忘之也 今允君來顧矣 大夫人氣候康寧 仰賀仰賀 諸儀非搬移 無以奠一時 弟有一籌 爲兄代策之 凡人事久則變 變則通 兄離家久 自宜一變 留洛久亦宜一變 凡人情久則厭 厭則散 惟離家久故家人厭其貧 惟留洛久故都人厭其迂 如欲通而無散 則亟一還鄕以變其跡 乃可使人情不厭 進退有實效 其能善處人事者也 兄天資高朗 不必弟瑣瑣言之 只發其機 可料理次第也 欲還鄕適此時爲可 兄其圖之 若緩恐悔之無及 兄以弟謂稍有知覺 當信之也 詩篇儘富且佳矣 然是兄所原有 弟所宿許者 容閒時奉次不備

식본잠(識本箴)[87] - 『삼장서(三藏序)』의 글자를 모음

하늘은 덮고 땅은 실으며, 산과 내는 드넓고, 네 계절의 변화는 오행(五行)에 따르니 음양(陰陽)의 법칙을 헤아릴 수 없다네.

무리는 부류대로 나눠지고 만물[品物]은 모두 형통(亨通)한데 사람이 그 가운에 처하여 마음과 몸이 허령(虛靈)[88]하네.

하느님은 지극히 공평하여 모두에게 덕을 내리셨으니, 오직 본성(本性)만이 진실하여 온갖 선의 본보기 되기에 충분하네.

고요하게 느껴 서로 응하고 한 사물 장악하여 동류(同類) 지식 증가하며 밝고 환히 통달(通達)하여 형상 비추는 거울 같으나, 혹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여 부여받은 바가 다르다네.

정(情)은 물(物)을 따라 옮겨가 흘러서 거짓이 되나, 이전의 성인(聖人)은 지극히 명철(明哲)[89]하시어 홀로 그 온전함을 얻으셨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저절로 그러함에 근원하고, 신명(神明)함 무리보다 뛰어나고 덕은 높고 업적은 크다네.

요임금과 순임금 수공이화(垂拱而化)[90]하시니 정치와 교육이 크게 흥성했네.

---

87) 식본(識本)은 불가어. 스스로 본심을 안다[自識本心], 스스로 본성을 본다[自見本性]를 일컫는다.
88) 포착할 수는 없으나 그 영험이 불가사의하다.
89) 사리에 아주 밝음.
90) 위정자의 덕에 의하여 백성이 착해져서 정사(政事)가 잘됨.

해와 달 비치는 바요, 비와 이슬 떨어지는 바로, 은택(恩澤)이 풀과 벌레에까지 미쳐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네.

오륜(五倫)[91]이 뚜렷하게 밝혀지고 구우(九宇)[92] 비로소 평안했네.

중고(中古) 이래로 지극한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은 멀어지고 가르침은 어그러졌네.

뜻 깊은 말 밝혀지지 않고 이단이 아울러 일어났네.

그래서 근본이 흐려지니 갑자기 오묘한 이치를 본듯하나 사실은 세상을 미혹할 뿐이었네.

큰 현인(賢人)이 시세에 순응하여 천년(千年)의 도를 접하셨네.

육경(六經)에서 궁극적 근원을 구하여 정미하게 분석했고, 어둡고 깊은 밤 등잔불 밑에서 후학을 인도하셨네.

남기신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드리워져 때때로 부합하는 바 있네.

도체(道體)를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깊고 넓어 끝이 없네.

정미한 곳에 다다르려 하면 큰 근본을 마땅히 알아야 하고, 큰 근본을 세우자면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해야하네.

곧고 한결같이 택심(宅心)[93]하고, 상전(常典)[94]을 공경하여 지키며 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선에 이르리.

눈과 귀에 닿는 것이면 크고 작은 것 가릴 것 없이, 선을 보면 잃지 말고 즉시 실천하리.

정연하게 행한다면 하나 하나 거듭되어 만이 쌓이리니, 높이 올라 멀리 매진함에 어찌 급작스레 뛰어오를까.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함 모두 제거하여 발은 실지(實地)를 밟아야지.

하학(下學)과 상달(上達)[95]은 원래 두 개의 뜻이 아니네.

강령(綱領)을 이같이 행한다면 가는 곳마다 얻으리.

---

91) 다섯 가지의 인륜(人倫). 곧 부자(父子)의 친애(親愛), 군신(君臣)의 의리(義理), 부부(夫婦)의 분별(分別), 장유(長幼)의 차서(次序), 붕우(朋友)의 신의(信義). 친(親)·의(義)·별(別)·서(序)·신(信).

92) 구주(九州).

93) 존심(存心). 유가에서 본심을 잃지 않고 도덕심을 기르는 일.

94) 상규(常規).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범.

95) 下學은 비근한데서부터 배운다는 의미, 즉 人道를 배운다는 의미요, 上達은 天理에 도달함을 이름. 그러므로 하학상달(下學上達)은 비근한 사물을 배운 뒤에 점차로 깊은 학리(學理)에 나아감을 이름.

지극히 성실하여 쉬지 않으면 금석도 꿰뚫을 수 있으리.

識本箴 - 集三藏序字

天覆地載 山川廣博 四時五行 陰陽不測
群分以類 品物咸亨 人處其中 心體虛靈
上帝至公 摠降是德 惟性眞實 萬善本足
寂感相應 觸類而長 光明洞達 如鑑照象
其或淸濁 所受或異 情隨物遷 流而爲僞
前聖極哲 獨得其全 仁義禮智 根諸自然
神明出類 德高業宏 堯舜垂拱 治敎大興
日月所照 雨露所墜 澤及舟蟲 靡有不遂
五倫宣明 九宇載寧 中古以還 至道未凝
聖遠敎缺 微言莫闡 異端幷起 而迷其本
騶觀奧妙 實維惑世 大賢應運 道接千載
求之六經 窮源精析 昏夜之燭 導玆後學
遺訓垂今 時有所契 窃謂道體 深廣無際
欲臻精微 大本當識 要立大本 先分善惡
宅心貞一 敬守常典 不墜于惡 乃至于善
耳目所觸 無問細大 見善莫失 卽期于履
循循而行 累一積萬 昇高邁遠 詎可驟進
盡拔浮華 足躡實地 下學上達 元非二致
綱領斯擧 所往而獲 至誠不息 能洞金石

황석전(黃石田)에게 답함

속뜻이 깊으십니다, 석전(石田)이여! 나처럼 가난하여 고통스럽고 나처럼 썩고 열등한 사람을 돌아보건대 이 세상에서 누군들 생각해주려 하겠습니까. 오로지 석전만이 2백리 밖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부탁하여 황량하고 적막한 곳에 은근함을 다

하였으니 의기가 본디 중하고 풍류(風流)와 운치가 특별히 빼어나지 않았다면 만에 하나라도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 같은 줄 이미 알았고 또 이처럼 감동하였는데도, 육 개월을 급박하게 보내며 감사하는 편지 한번 갖추지 못하였으니, 어쩌면 마음씀이 이리도 현격한지요.

지금 수재(秀才) 김계동(金桂東)이 온지라 그 거처를 알고는 급히 찾아갔지만 형의 편지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못 괴이하게 여겼지만 곧 뒤쳐저 이르려니 여겼습니다. 형은 모르셨겠지요. 타진해보니 과연 그러더군요. 만약 알았더라면 당연히 대하여 보여주신 것이 있었겠지요. 들으시지 못한 것이 애석합니다.

앞서 보낸 편지에서 영백씨(令伯氏)[96]께서 아름다운 손자를 안게 되었고 형 또한 사내아이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하할만한 일입니다. 이번 늦봄에는 숙환도 시원하게 없애고 기체만강(氣體萬康)하십시오. 양댁(兩宅)의 모든 일이 편안하고 뛰어난 자손들의 귀상(貴相)이 날로 풍요로와지기를 구구하게 우러러 비옵니다.

저는 진실로 노쇠했으며 가난함 또한 마땅하니 모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이들만은 경계할 것이 없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가소로운 것은 아직도 고달프게 심행수묵(尋行數墨)[97]하여 마치 엄한 스승이 있어 회초리를 잡고 몹시 꾸짖는 것처럼 하니 어쩐 일인지요. 기백(氣魄)이 점점 적어져 어찌 능히 고인(古人)에게 도달하겠습니까. 도움을 받아 다다른다 하여도 또 어디에 쓰겠습니까. 비록 쓸데없어도 이 고심(苦心)을 알아주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거의 한이 없을 것이지만, 이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달밤에 영백씨(令伯氏)께서 한번 방문해주기를 바랬지만 지우(知遇)[98] 또한 운명이 있는 것이니, 아아! 그만둘 일입니다.

계동(桂東)의 행낭(行囊) 중에 영백씨(令伯氏) 시(詩) 수십 수가 있어 이미 베껴두었습니다. 그 흉중을 표현해 놓은 말이 곱고 고와 운치가 있습니다. 노련한 글이 더욱 정치하고 힘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무척 탄복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재주를 헤아려 대가의 시를 게을리 익힌다"라고 이르고, 또 "힘써 옛 작품을 추구하나 재주 현격함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른 말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 망령되게도 실소(失笑)하고 말았습니다. '게으르다', '부끄럽다' 하는 것은, 자신이 반드시 대가에 이른 후에야 이런 경지를 두는 것인데 도리어 재주 없는 것을 근심하는 듯 하

96) 황석전(黃石田)의 형, 황운경(黃雲卿)을 가리키는 듯함.
97) 독서하는데 문자에만 구애되어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함.
98) 자기의 성품·재능 등을 잘 알아 대우해 주는 사람.

시니 장난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겸양하는 것일 뿐이겠지요.

창강(滄江 : 金澤榮)의 「칠의기(七義記)」를 알려 주십시오. 진실로 이 작가의 말을 법도에 맞아 이 한가지 일에 깊은 자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영백씨(令伯氏)가 늘 그의 글에 대하여 대단히 칭찬했는데 이제야 그분이 안목을 갖춘 점에 탄복합니다. 유이산(柳二山)의 「야화(夜火)」 중

> 일련 마땅히 장단양(張丹陽)과 더불며,
> 금산사의 나무 종소리에 그림자 지네

라는 두 구와 서로 대등하지만 신령스럽고 밝음은 낳습니다. 흥처(興處)를 만나면 매번 무릎을 치며 높은 목소리로 읊조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 나라 안이 분분할 정도로 오래도록 사방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는데도 붓을 잡고 한가하고 텅 빈 듯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미 지나치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찌 저가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위하여 (옛사람을 향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백씨(令伯氏)의 21수 시는 훈지상화(壎篪相和)[99]하는 듯 한데 석전(石田)의 시는 아직 읽지 못했으니 지극히 한스럽습니다. 서신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옛날 소천(小川) 어른에게 그 시고를 보여달라고 애걸한 적 있지만 잡고서 주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영백씨(令伯氏)에게 더욱 간절히 구했지만 또한 이룰 수 없어 원하던 바를 크게 잃고 말았습니다. 형께서는 삼가 이 어른들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동(桂東)이 며칠 머물었는데도 제가 마침 눈병으로 누웠는지라 겨우 그의 시 두 수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씩씩하고 힘이 있어 충분히 기이하였으며, 동자(童子)로서 한 원유(遠遊)[100]도 족히 장하였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전 편지에 대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한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영백씨(令伯氏)에게 올리는 글이 순조롭게 들어가도록 구걸합니다. 초초(草草)하게 평안하시냐는 안부를 물을 뿐입니다. 생각 같으면 자첨(子瞻 : 蘇軾)과 자유(子由 : 蘇轍)처럼 책상에서 마주하여 이 편지를 볼 수 있었음 합니다. 사정을 살피셔 아시기를 우러러 희구합니다.

---

99) 형은 질나팔을 불고 아우는 이에 화답하여 저를 분다는 뜻으로 형제가 서로 화목함을 이룸.
100) 멀리 나가서 노닒.

答黃石田

有心哉石田 夫寒酸如吾 朽劣如吾 顧此世 誰肯念之 獨石田叮嚀囑二百里外人 致慇懃於荒寂之所 非氣義素重 風韻特拔 可萬一有此邪 若弟旣知其如彼 又感之如此 乃駸駸經六月 未辦一行謝札 何心力之相懸乃爾也 今金秀桂東之來 聞其居 亟索兄書 無有焉 始頗怪之 尋而意其逶迤 而至兄則未知之也 叩之果然 若知之當有相示者 惜乎其未聞也 辱前書審 令伯氏抱佳孫 兄亦得英男 可勝賀哉 卽玆春暮 宿患夬祛 棣候萬旺 兩宅諸儀寧迪 驥子鳳雛 犀角日豊 區區仰祝 弟衰邁固也 貧且宜然 俱不足道 惟兒曹無聲爲幸 其可笑者尙矻矻 尋行數墨 若有嚴師執夏楚責之者奈 魄力漸小 何能及古人 藉及之又焉用 雖無用 有一人解此苦心 庶無恨矣 而此豈易得邪 所以月夜望令伯氏一顧而知遇亦有命 噫其已焉 夫桂東裝中 有令伯氏詩數十數 已謄之矣 其寫胸中言 纚纚有致 老筆愈精健 令人絶歎伏 就中有云「量才倦習大家詩」又云「力追古作愧才懸」不覺妄自失笑 以爲或倦或愧 必已及大家而後 有此境而反若病夫才然 豈戲之邪 殆將謙也已 惠示滄江七義記 固是作家語 繩尺有準 非深於此一事者 未易識之 令伯氏常盛稱其文 乃今服其具眼也 柳二山夜火「一聯當與張丹陽 金山寺樹影鐘聲」二句詩相埒 而神朗過之 每値有興 未嘗不擊節高詠也 今見海宇紛紛 繹騷四聞 而把筆作閒曠語 無已太痴邪 然而豈以彼擾吾方寸而(不向故人)道邪 令伯氏二十一首詩 是塤篪唱和 而未讀石田詩極可恨 倘因便示之否 昔嘗於小川丈乞其詩藁 而執不與 去年轉懇于令伯氏 亦不(能致)大失所望 兄愼勿如此丈爲也 桂東留數日 而弟適以眼眚臥 僅見其詩二首 殊有步武足奇也 童子遠遊又足壯也 使我得謝前書 又足幸也 呈令伯氏書 乞順納焉 草草問平安而已 意欲子瞻子由 對床覽此書也 仰希照亮

사의당(四宜堂)에 부침 – 정우당정사(鄭嵎堂精舍)

여름에는 서늘맞이 하는 것이 마땅하고 겨울에는 독서하는 것이 마땅하며 낮에는 대를 대하는 것이 마땅하고 밤중에는 달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름이면 서늘맞이 하고 싶고 밤이면 달맞이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동일한 바이다. 오직 독서와 대를 대하는 것만은 출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비록 그러하나 정신이 맑으면 바람이 없어도 상쾌하고 마음이 밝으면 달이 없어도 밝으며 기상이 소쇄(瀟洒)[101]하면 대가 없어도 빼어나며 뜻이 넓고 포용력 있으면 책이 없어도 통달한다. 진실로 맑은 자 상쾌한 것도 마땅하고 상쾌하지 않은 것 또한 마땅하며, 진실로 밝은 자는 비치는 것도 마땅하며 비치지 않는 것 또한 마땅하며, 진실로 소쇄한 자는 빼어남도 마땅하지만 빼어나지 않음도 또한 마땅하며, 진실로 관용 있는 자는 통달함도 마땅하지만 통달하지 않음 또한 마땅하다.

이는 틀림없이 마땅히 상쾌하여 상쾌하고, 마땅히 비춰야 하므로 비추고, 마땅히 빼어나므로 빼어나고, 마땅히 통달하여야 하므로 통달하는 것이요, 마땅하지 않음에 당하여선 비록 상쾌하지 않고 비추지 않고 빼어나지 않고 통달하지 않아도 과연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사의당(四宜堂)은 처음에는 네 가지의 없음을[四無] 일컬음이 옳으며, 그 중간에는 네 가지의 진실[四眞]을 일컬음이 옳으며, 그 마지막에는 부득불 네 가지의 마땅함, 즉 '사의'라고 일컬었을 뿐이다.

題四宜堂 - 鄭嵎堂精舍

夏宜納凉 冬宜讀書 晝宜對竹 夜宜邀月 夫夏而欲凉 夜而欲月 人所同也 惟讀書對竹非出夫人不能焉 雖然神淸無風而爽 心明無月而照 氣象滿洒 無竹而秀 志意寬容 無書而達 眞淸者爽也宜 不爽也亦宜 眞明者照也宜 不照也亦宜 眞瀟洒者秀也宜 不秀也亦宜 眞寬容者達也宜 不達也亦宜 是必宜爽而爽 宜照而照 宜秀而秀 宜達而達 當其不宜 雖不爽不照不秀不達 未嘗不宜也 然則四宜之堂 其始也謂之四無也可 其中也謂之四眞也可 其終也卽不得不謂之思宜也已

이성호(李惺湖)에게 답함

욕되게도 태극체용설(太極體用說)을 보여주시어 십 수 차례 받들어 읽으며 손에서 놓을 수 없었으니, 그 견문과 학식이 점점 발전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탄복하

101) 맑고 깨끗함. 인품이 맑아 속기(俗氣)가 없음.

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즉시 감사함을 닦지 않은 것은 그 사이에 한 두 가지 저의 뜻과 합치하지 않은 것이 있어 특별히 우러러 질문하고자 하는데 창졸지간(倉卒之間)에 그 가 계시는 곳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편지를 드리니 굽어보시어 만약 마땅치 않음이 있으면 일일이 비판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태극(太極)이라는 것은 진실로 하나이다.

하나이면서 넷이고 넷이면서 하나인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태극(太極)[102]은 하나라고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도 오히려 볼 수 있는 상수(象數)[103]가 있으니, 이로써 태극에 비견해본다면 소략한 듯합니다. 아마도 '태극은 진실로 하나의 이치이다'라고 말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원이형(元而亨)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이치가 온축(蘊蓄)[104]한 선(善)을 볼 수 없으며, 이이정(利而貞)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 이치의 일정한 체(體)를 볼 수 없다.[105]

이 단락의 말뜻은 완전히 확실합니다.

효를 가지고 말해본다. 사람의 마음에서 절로 발하여 그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선심(善心)이다. 천리(天理)에서 근본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은 말하자면 정체(定體)이다.

———— 완벽하게 확실합니다. 다만 '효를 가지고 말해본다'———— 는 매우 절박하지는 않는 듯 하니 아마도 '사단(四端)[106]을 가지고 말해본다' ———— 라고

102) 역학(易學)에서, 우주 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本體). 천지가 아직 열리지 않고 혼돈(混沌)한 상태로 있던 때. 곧 천지와 음양이 나누어지기 이전이다.
103) 역(易)의 괘(卦)에 나타난 형상과 변화.
104) 오랜 연구로 학식을 많이 쌓아둠.
105)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천도(天道)의 네가지 덕(德). 원(元)은 봄이니 만물의 시초로 인(仁)이 되고, 형(亨)은 여름이니 만물이 자라 예(禮)가 되고, 이(利)는 가을이니 만물이 이루어져 의(義)가 되고, 정(貞)은 겨울이니 만물을 거두어 지(智)가 된다.
106)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단서(端緖)가 되는 네 가지의 마음씨. 곧 인(仁)의 단서인 측

말해야 할지.

선(善)이라는 것은 용(用)이며 덕(德)이고, 체(體)라는 것은 성(性)이다.

이 단락은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극도(太極圖)를 가지고 해석하여 추측한다면 원형(元亨)은 양(陽)의 동(動)으로 태극의 용(用)이 행(行)하는 까닭[所以]이요, 이정(利貞)은 음(陰)의 정(靜)으로 태극의 체(體)가 서[立]는 까닭입니다. 주자(周子)가 말씀하시기를, '원형은 성(誠)의 통(通)이요, 이정(利貞)은 성의 복(復)이라' 했으며, 주자(朱子)는 이를 해석하여, '성(誠)은 곧 태극이다. 도해(圖解)에 운운한 것은 사실 이것에서 근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통(通)은 용(用)을 발(發)하는 것이요, 복(復)은 즉 본체(本體)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는 당겨놓고 아직 발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반드시 도해에서 운운한 바와 같아야 그 뜻이 완전하게 만족스럽습니다. 만약 위에서 '태극(太極)'을 제거하고 아래에서 '소이행소이립(所以行所以立)' 여섯 글자를 제거한다면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나뉘어 체와 용이 된다'는 것과 거의 같지 않겠습니까. 『주자어류(朱子語類)』에, '태극은 본디부터 동정(動靜)을 함유하였으니 도리어 동과 정으로 체와 용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이 뜻입니다.

정체(定體) 상으로 나아가 본다면, 발용(發用)을 기다리지 않아도 선(善)한 의사(意思)가 이미 존재하고, 발용에 나아가 본다면, 정해져 변하지 않는 것은 이에 즉해서 그 필연성을 더욱 믿을 수 있다.

이 단락은 또한 완전하게 확실합니다.

불[火]을 가지고 비유하자면, 그 기(氣)가 밝은 것[明者]은 용(用)이요, 그 질(質)이 뜨거운 것[熱者]은 체(體)이다.

이 단락은 다시 생각해보시기를 청합니다. 주자는 물이 맑은 것은 물의 본성[性]

은지심(惻隱之心), 의(義)의 단서인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의 단서인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의 단서인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말한다.

이 된다 여기셨으니, 불의 밝음을 불의 본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비단 밝음만이 불의 용(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뜨거움 또한 당연히 불의 용이 되지요. 리(理)에 나아가 말한다면 밝음과 뜨거움은 모두 불의 본성[性]이 되고, 기(氣)에 나아가 말한다면 밝음과 뜨거움은 모두 불의 용(用)이 되니, 곧 주자가 이른 바 '원형이정은 리(理)요, 이 사단(四段)이 있는 것은 기(氣)이다'입니다. '이 사단이 있다'라고 이처럼 말씀하셨을 때 기(氣)의 사덕(四德)[107]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기(氣)에 나아가 보아야만 얻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불을 가지고 비유하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바야흐로 밝고 바야흐로 뜨거운 것 이것은 용이 행하는 때문이요, 이미 밝고 이미 뜨거운 것 이것은 체가 확립[立]했기 때문이다.

불을 지펴 불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촛불로 비출 수 없어 그 밝음을 볼 수 없을 것이요, 불을 살라 활활 타오름을 이루지 않는다면 태울 수 없어 그 뜨거움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단락은 비록 쌍관(雙關)[108]이지만, 의미는 일치합니다. 태극(太極)의 체용(體用)[109]을 밝혀 밝혔던 이유가 다 해소되지 않은 듯합니다. 저의 뜻을 자세히 한다면 마땅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밝은 것은 비로소 불을 지핀 것이요, 바야흐로 뜨거운 것은 비로소 불사른 것이다. 불을 지피면 불꽃을 이루고 불꽃을 이루면 이미 밝다. 불을 사르면 활활 타오름을 이루고 활활 타오르면 이미 뜨겁다. 처음 불지피고 처음 불사름에 그 용(用)이 행함을 볼 수 있고 불꽃이 이루어지고 활활 타오름이 이루어짐에 그 체(體)가 확립됨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비로소 지핀 것은 반드시 불꽃을 이루고 비로소 사른 것은 반드시 활활 타오르니 마땅히 양(陽)에 속할 것이요, 불꽃이 극에 달하면 깜부기가 되고 활활 타오름이 극에 달하면 숯이 되니 마땅히 음(陰)에 속한다. 양(陽)이기 때문이 용(用)이 행하고 음(陰)이기 때문에 체(體)가 확립된다.

---

107) 천지자연(天地自然)의 네 가지 덕. 원(元)·형(亨)·이(利)·정(貞)을 말한다.
108) 문장 구조법의 하나. 상대되는 문구를 늘어놓아 한 편의 골자로 삼는 것이다.
109) 본체와 작용을 가리킨다.

이는 원래 한 사물[一物]이요, 또한 한 때의 일[一時事]이다. 사람이 보는 바에 따라서 두 개의 의사(意思)가 있지 실제로는 두 개의 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태극의 원(元)·형(亨)·이(利)·정(貞)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이지만 네 개의 의사가 저절로 존재하고 넷이지만 하나의 본체가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 단락의 총결은 또한 완전하게 확실합니다.

答李惺湖

辱示太極體用說 奉讀十數回 不能釋于手 其見識之漸詣 令人歎服 而卽修謝者 盖由其間 有一二與鄙意不合者 殊欲仰質 倉猝未得其歸宿處 今乃書呈 俯覽如有未允 乞一一砭示焉

夫太極者固是一

以一而四 四而一者言之則太極可謂之一 然一猶有象數之可見 以此擬之于太極 似爲疏略 恐當曰 太極固是一理

然不言元而亨 則無以見此理 所蘊之善 不言利而 貞則無以見 此理一定之體
此段辭意完確

以孝言之 自其發於人心而不容已者 言之則善心也 自其本於天理而不可易者 言之則定體也
———— 亦完確 但以孝言之 ———— 似未襯貼 恐當曰 以四端言————之

善者用也而德也 體者性也

此段 請更商之 以太極圖解而推之 則元亨陽之動也 太極之用所以行也 利貞陰之靜也 太極之體所以立也 周子云 元亨誠之通 利貞誠之復 朱子釋之云 誠卽所謂太極也

圖解云云 實本於此 而朱子又云 通卽發用 復卽本體也 此猶引而未發 必如圖解所云而後其意完足 而令若 上去太極字 下去所以行所以立六字 則不幾於元亨利貞分爲體用乎 語類云 太極自是含動靜 却不可以動靜分體用者 亦此意也

就定體上看 則不待發用 而善底意思已在 就發用處看 則定而不易者卽此 而益信其必然也

此段亦完確

以火喩之 其氣之明者用也 其質之熟者體也

此段 請亦更商之 朱子以水之淸者爲水之性 則亦當以火之明者爲火之性 且不獨明爲火之用 熱亦當爲火之用 蓋就理言之 則明與熱俱爲火之性 就氣言之 則明與熱俱爲火之用 卽朱子所謂元亨利貞理也 有這四段氣也 有這四段 若是說時卽有 那未涉於氣底四德 要就於氣上看也 得者是也 今欲以火喩之 則當曰方明方熱 是用之所以行也 已明已熱 是體之所以立也

不燃而成燄 則不能獨照 無以見其明 不爇而成熾 則不能炊烘 無以知其熱

此段雖爲雙關 竟是一致 其所以發明太極之體用似未消 詳鄙意則當曰 方明者始燃也 方熱者始爇也 燃則成燄 燄者已明也 爇則成熾 熾者已熱也 始燃始爇 而見其用之行 成燄成痴 而見其體之立 且始燃者必燄 始爇者必熾 當屬于陽 燄極則爲燼 熾極則爲炭 當屬于陰 惟其陽也 是以用行焉 惟其陰也 是以體立焉

此原是一物 亦是一時事 隨人所見 而有兩底意思 非實有二火也 太極元亨利貞亦然一而四底意思自在四 而一之本體不虧焉

此段摠結亦完確

이성호(李惺湖)[110]에게 답함

이기설(理氣說)에 대해서는 비록 문장 가운데 대략적으로 엿본 바는 있지만 애초부터 체험적인 진실은 없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자로 나타내지 않고자 하니 이는 대개 세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억측으로 하는 소견을 자랑하는 것이 첫째요, 남의 헐뜯는 평론을 초래하는 것이 둘째요, 애초에는 서로를 가르치는데서 출발했지만 끝내는 서로를 헐뜯는 것으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 셋째입니다.

접때 베풀어주신 아름다운 논의를 받들어 우연히 망령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가르침을 받들게 되니 정의상(情誼上)으로도 감히 방치해두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꼴답지 않은 설이라고 혹 남에게 보이지 마시고 또한 부합하지 않는다고 혐오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당한 데로 귀착하기만을 구하십시오. 천만번 극진하게 바랍니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우연히 『통서(通書)』[111]를 읽다가'로부터 '이것은 이(理)가 이(利)하면서도 정(貞)하다'라고 한 데까지는, 논의하신 바가 모두 진실로 합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善)이라는 것은 이(理)의 용(用)이 바야흐로 행하는 것이다'고 운운하신 바 일 단락만은 비천한 저의 뜻과는 같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선(善)은 성(性)의 본체이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잇는 것이[繼之者] 선인 연후에 바야흐로 용(用)이라 일컬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뒤를 잇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한다면, '잇는다[繼]'는 글자의 의미가 무겁고 '선(善)'이라는 글자의 의미는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선(善)이 비록 성(性)의 본체이지만 도리어 용(用)을 발(發)하는 본분에 속할 것입니다. 주자(朱子)가 「답호백봉서(答胡伯逢書)」에서 말했습니다.

"맹자가 이른바 성선(性善)이라는 것은 그 본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니, 인의예지가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이 이것이요[112], 이른바 가히 선이 될 만 하다는 것은 그

110) 두주(頭註)에 '이진사(李進士) 병찬(炳燦)'이라 하였다.
111) 중국 북송 때의 도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저서.
112) 自註 :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글에서, "정자가 말하기를 '지선(至善)에서 멈춘다'하고서 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선이라고 말한 것은 그 의리(義理)의 정미함을 가히 표현해 낼 수 없으므로 잠시 지선(至善)이라고 지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용처(用處)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사단의 정이 발하여 도에 어긋나지 않고 맞은 것[中節]이 그것이다[113]"

이제 이를 근거로 추측해본다면, 가히 선이 될만하여 용(用)에 속한다는 것은 '可以爲[가히 될만하다]' 세 글자가 있기 때문이며, 뒤를 잇는 것은 선이라는 것으로 용(用)에 소속시킨 것 또한 '繼之者[뒤를 잇는 것]' 세 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에서 '계지자' 세 글자를 제거하고 곧바로 '선이라는 것은 이(理)의 용(用)이 바야흐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떠할 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고 아름답게 깨우쳐주신 위아래의 글 뜻이 선을 본체로 여기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자를 처리하는 사이에 선(善)과 선(善)을 대치시켜 쌍관(雙關)[114]을 절로 이루도록 하였으니 이처럼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성(性)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선(善)을 명명한 것이요, 선(善)이라는 것은 성(性)이 온축된 바 실질적인 이(理)를 명명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비록 지목한 바가 각각 마땅한 바가 있는 연유로 명명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실제는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잇는다[繼]''이룬다[成]'하는 것들이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대칭하여 쌍관(雙關)을 지어야 하지만 그러나 만약 곧바로 선(善)을 용(用)이라 하고 성(性)을 체(體)라고 한다면 아마도 말을 조성함에 나누어 쪼갠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혐의를 면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주자(朱子)의 「답호백봉서(答胡伯逢書)」 가운데, "성(性)을 말했으나 명명한 말의 실수를 모른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아래 글에서 이르기를,"이른바 '명명한 말의 실수'라고 한 것은 지선(至善)의 본연(本然)함을 살피지 못하고 대강 선이라고 일컬어 이미 발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선(善)자를 제거하면 이 성(性)자는 착실(着實)한 도리가 없이 다만 일개 공허한 물(物)을 이룰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에 근거해서 추측한다면 '계선(繼善)'과 '성성(成性)'은 비록 대치하여 쌍관(雙關)을 짓지만 성과 선이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는 것은 살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견해를 가집니다. 그 다만 선(善)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진실로 성(性)의 본체이지만 '반드시 뒤를 잇는 것이 선한 연후에 가히 용(用)을 발한다'라고 말

113) 自註 : 이 부분에 해당되는 글에서 이르기를, '뒤를 잇는 것은 선'이라 했는데, 이는 선을 말하면서 도리어 가벼움을 얻도록 말했으니, 다만 '이 도[斯道]를 잇는 자는 선 아님 없다'는 것만을 일컬은 것이다.

114) 문장 구조법의 하나. 상대되는 문구를 늘어놓아 한 편의 골자로 삼는 것.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통서(通書)』 주에서 '선(善)이라는 것은 용(用)이 바야흐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하면 이(理)가 바야흐로 행한다'라고 말했던 것이니, 이에서도 또한 비록 유행하는 가운데라도 그 기와 관계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섞여짐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태극도해(太極圖解)』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양(陽)의 동(動)은 태극의 용의 행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양의 동은 태극의 용이 행하는 소이(所以)이다'라고 말했으니, 소이(所以)라는 글자를 보면 그 은미한 뜻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주자가 '계(繼)'와 '성(成)'은 기(氣)에 소속되고 '성(性)'과 '선(善)'은 이(理)에 속하여 성이 이미 이와 기를 겸하고 선은 전적으로 이에 속한다고 밝혀 말했으니,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밝힌 것입니다. 선생님의 뜻에는 어떠하신지요.

별지에서 말씀하신 바는 하나 하나가 모두 정밀한 공부의 결과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흠탄하게 만듭니다. 다만 계선(繼善) 성선(成善)을 본말(本末)로 일컫고 체용(體用)으로 말한 것은 틀림없이 근거한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건대 굽어 보여 주십시오. 이체(理體) 기용(氣用)에 대한 증명인 즉 저도 드러내 증명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자와 주자가 모두 이(理)를 체(體)로, 상(象)을 용(用)으로 여겼으니, 상(象)은 곧 기(氣)입니다. 아마도 다시 증명할 것을 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체용(體用)의 설인 즉 가히 우러러 외울만한 것이 있습니다. 주자(朱子)의 「답여자약서(答呂子約書)」에 이르기를, "만약 형이상인 것으로 말하자면 충막(沖漠)[115]한 것은 진실로 체가 되고 그것이 사물 사이에서 발한 것이 용이 되며, 만약 형이하인 것으로 말하자면 사물 또한 체가 되고 그 이가 발현한 것은 용이 된다"라고 했으니, 개략적으로 형이상인 것을 도의 체라고 여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천하의 달도(達道)[116] 다섯은 도(道)의 용(用)을 일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본대, 형이상(形而上)[117]을 가지고 말한 것은, 이체기용(理體氣用)[118]의 한 깨달음이요, 형이하(形而下)[119]를 가지고 말한 것은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현재 존재하는 것은 체요 뒤에 생겨나는 것은 용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러한 유를 지적하여 말한 듯 한데. 그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

115) 공허하고 광막한 모양.
116) 어떠한 지역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널리 널리 행해져야 할 도.
117) 무형(無形)의 것. 추상적(抽象的)인 것, 곧 도(道)를 이른다.
118) 리(理)는 체(體)요, 기(氣)는 용(用)이다.
119) 유형(有形)의 것. 지각(知覺)할 수 있는 것. 기(器)를 이른다.

答李惺湖

理氣之說 雖於文辭 畧有所窺 而初無體驗之實 故平居不欲形諸文字 盖以其弊有三 長已之臆見一也 招人之譏議二也 始出於相長而終歸於相短三也 向日承惠美論 偶一妄質 而今又承諭 在情誼亦不敢置而不對 然幸勿以不似之說或以示人 亦勿以未契者爲嫌 惟歸宿至當之是 求千萬至乞 來諭自偶讀通書 至此理之利而貞也 所論允當 然惟所云 善者理之用方行者也一段 鄙意不同 盖單言善則是性之本體也 必曰 繼之者善然後方謂之用也 曰繼之者善 則繼字意重 善字意輕 故善雖性之本體 却屬於發用之分也 朱子答胡伯逢書云 孟子所謂性善者 以其本體言之 仁義禮智之未發是也 (此下分書云 程子曰 止於至善不明乎善 此言善者 義理之精微 無可得而名 姑以至善目之) 所謂可以爲善者 以其用處言之 四端之情發而中節者是也(此下分書云 繼之者善 此言善却言得輕 但謂繼斯道者莫非善也) 今據此推之 則其以可以爲善屬之于用者 以其有可以爲三字也 其以繼之者善屬之于用者 亦以其有繼之者三字也 若上去繼之者三字而直曰善者理之用方行 恐未知果何如也 詳美諭上下文意 未嘗不以善爲本體 然文字措語之間 以善與性字 對作雙關自致 如此云云耳 竊以爲性者 人之受善於天之名也 善者性之所蘊實理之名也 雖因所指之各有攸當 而命名不同 然其實一也非二也 以其曰繼曰成 所指不同之故 而不容不對作雙關 然若直以善爲用 而以性爲體 則措語之際 似未免有分劈太過之嫌也 朱子答胡伯逢書中有言性 而不知名言之失云 其下分書云 所謂名言之失者 不察乎至善之本然 而槩謂善已發也 又云 除却善字 卽此性字 便無着實道理 只成一箇空虛底物 今又據此推之 則繼善與成性 雖對雙關 而性與善之爲一而非二也審矣 於此有以見 其單言善者 固性之本體 而必曰繼之者善然後 可謂之發用也 故朱子於通書註 不曰善者用之方行 而曰善則理之方行 此亦可見 其雖於流行之中 而其未涉乎氣者 自不容雜之意也 於太極圖解亦然 不曰陽之動太極之用之行也 而曰陽之動太極之用所以行也 觀所以字 其微意可以知矣 況朱子明言 繼成屬氣 性善屬理 性已兼理氣 善則專屬理 其義尤較然彰明矣 未知盛意如何 別紙所言 一一皆是用功之精密 令人歆歎 但繼善成性 謂以本末言體用者 想必有所據 請俯示焉 理體氣用之證 則鄙亦無所顯證 然程子朱子俱以理爲體 以象爲用 象則氣也 似不必更求其證耳 體用之說 則有可仰誦者 朱子答呂子約書云 若以形而上者言之 則冲漠者固爲體 而其發於事物之間者爲之用 若以形而下者言之 則事物又爲體 而其理之發見者爲之用 不可槩

以形而上者爲道之體 天下達道五謂道之用 竊以爲 以其形而上者言之者 卽理體氣用之一證也 以其形而下者言之者 語類有云 見在底爲體 後來生底爲用 似指此類而言也 恐未知是否

황운경(黃雲卿)에게 답함

평상시에 인형(仁兄)[120]의 문장은 당세는 물론이고 비록 중고(中古) 시대에 둔다 하여도 마땅히 한 자리는 차지할 것이라 여기고, 그 더욱 나아가 위로 오르려 함은 내 충정(衷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침 인형의 아우 석전(石田)이 급히 편지를 보내어 형의 문(文)을 축수(祝壽)해주기를 구하기에 이 마음에 불현듯 사심이 발하여 또한 스스로 꾀합니다. 한결같이 칭찬만 한다면 이는 아호(阿好)[121]에 가깝지요. 이 때문에 억누르면서도 드러내고, 드러내면서도 권면하여, 남들은 감히 못할 말을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십 이전의 글은 모두 버리라"고 운운하는 것의 실상은 가왕(賈王)[122] 같은 이들보다 위에 두고자 하는 대단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자잘한 것까지도 해아려 지나친 논의 아님이 없지만 의도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말로 나타내는 데 있었습니다. 망령되게도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여 형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스스로 생각하지, 형의 높은 식견으로 폄하하는 말이라고 여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멀리 칠자(七子)[123]를 이끌어 반대한 것은 심합니다. 말은 잘 표현하기 어렵고 마음은 쉽게 비추어 보일 수 없지요. 내가 인형보다 몇 살 위지만 당세의 명성은 훨씬 아래지요. 그래서 진정 시기하여 해치려는 마음이 있음을 빙자하여 그 폄하함을 이루려 하나 돌아보건대 이 기염으로는 남을 내렸다 올렸다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인형 이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애석합니다. 형이 이 글을 읽으면 무릎을

120) 편지에서 친구끼리 상대편을 대접하여 부르는 말.
121) 친한 사람을 붙좇음.
122)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와 왕유(王維)인 듯함.
123) 중국 명나라 때 재사, 전칠자(前七子) 후칠자(後七子)가 있다. 전칠자는 이몽양(李夢陽)·하경명(何景明)·서정경(徐禎卿)·변진(邊貢)·강해(康海)·왕구사(王九思)·왕정상(王廷相). 후칠자는 오아세전(王世禎)·이반룡(李攀龍)·사진(謝榛)·종신(宗臣)·양유예(梁有譽)·서중행(徐中行)·오국륜(吳國倫).

치면서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석정(石亭)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없노라"고.

나는 이처럼 기대하기에 앞서처럼 말하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즉 형은 말을 수용할 도량을 가지고 있고 아우는 바칠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침내 꾀하기를 실패하고 도리어 아름답지 않은 말을 하고 말았으니 후회스러움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득불 급히 변론한다는 것이 사대(四代)[124]라 하고 육의(六義)[125]라 했으니, 이는 대개 그 옛스러움을 극진하게 지적한 것일 뿐이지, 형의 문장이 사대와 육의를 따르지 않고 들어간 것을 일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무척 많으나 한갓 변론하는 것만으로는 충정을 드러내기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몰래 혼자서 슬퍼하는 것이 있으니, 저의 타고난 소질이 지극히 잡박(雜駁)한데도 덕과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옛적의 문물을 숭상함에 뜻을 두고서, 형의 재주가 높음을 보고 함께 좋아하는 것을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여 전후를 애써 진술하고 마음속을 모두 헤쳐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에야 비로소 깨닫건대, 인형께서는 이미 그때 내가 항형(抗衡)[126]하려는가 의심했던 것이지요. 저의 죄를 알겠습니다. 그러나 형씨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상에 이러한 것에 뜻을 두는 자는 너무 외롭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마음으로 거슬려 남의 비난을 초래할 여지를 만들겠습니까. 형이 양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세 호남의 문장으로 추앙한다면 진정(眞情)이겠지만 지나간 옛날 화하(華夏)[127]의 문장임을 기대한다면 거짓 모양[贋貌]이 될 것입니다. 내 비록 어리석지만 조금은 알지요. 그리고 오직 사랑함이 깊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높은 법입니다.

형씨께서는 이 편지를 석전에게 보여주시요. 석전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내 마땅히 이 절(節)을 지워 없애버리고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負荊][128] 사죄하겠습니다.

---

124) 우(虞) 하(夏) 은(殷) 주(周)의 네 시대.
125) 시의 육체(六體). 곧 풍(風)·아(雅)·송(頌)·부(賦)·비(比)·흥(興).
126) 서로 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음.
127) 화(華)는 화려함, 하(夏)는 대국(大國)이라는 뜻으로, 중국 본토의 과칭(誇稱).
128) 가시나무를 등에 지고 매질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사죄(謝罪)하는 일.

答黃雲卿

居常謂仁兄文章無論當世 雖在中古 當據一席 而其欲益進而躋之上 則出自愚衷也 適因令弟石田馳書 求壽吾兄文 而此心陡發私又自計 一於稱揚卽近阿好 是以設抑而見揚 在揚而寓勸 乃敢說人所不敢說 直截下筆有曰 盡去五十以前文云云 大致欲其實過賈王數子之上 揣量分寸 非不爲過中之論 而意在言表期待則深矣 妄自以爲赤心相愛無負吾兄 而不謂以兄明鑑認作貶辭 引七子以爲反對甚矣 言之難工而心之未易照也 弟於兄雖有數年之長 而當世聲名遠出其下 藉眞有忮心 欲遂其貶 而顧此氣燄 不足以低昻人 仁兄不當惧此也 惜乎 兄若讀此文 擊節而歎曰 世之愛我無踰石亭 期待我如是 其至云爾 則兄有受言之量 弟有納善之實 而竟乃失圖 反召觸犯 辭之未婉 悔將何及 其不得不急辨者 則曰四代曰六義 益極指其古耳 非謂兄文章不從四代六義而入也 所欲分疎者甚多 而徒辨不足以襮衷故擧置之 然竊有所自悼者 弟賦質極駑 而不度德量力 志在尙古 見吾兄才高 甚欲與之同求所好 前後苦陳披盡心肝矣 乃今始覺吾兄已於其時 疑將抗衡也 弟於是知罪矣 雖然兄試想 今世有志於此者不已孤乎 弟以何心牴牾啓釁 以來人譏也邪 兄盖未之諒也 推之爲當世湖南之文 則爲眞情 期之以前古華夏之文 則爲贋貌 弟雖愚亦稍知之 而惟其愛之也深 故望之也高矣 兄幸以此書示之石田 石田亦曰 不然則弟當抹去此節 負荊而謝之矣

【附】梅泉書

매천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작(大作)이 해마다 더욱 높아지고 문(文)은 더욱 온후해지니 존경하여 복종합니다, 존경하여 복종합니다. 나로 하여금 오십 이전에 지은 시와 문에 대한 배움이라 하는 것들은 모두 버리고 사대(四代)[129]·육의(六義)[130]의 문하에서 다시 찾으라 하신데 이르러서는,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자 아니라면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모두 잃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129) 우(虞)·하(夏)·은(殷)·주(周)의 네 시대.
130) 시의 육체(六體). 곧 풍(風) 아(雅) 송(頌) 부(賦) 비(比) 흥(興).

게다가 시와 문의 학은 그 진정한 뜻[眞情] 펴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거짓된 모습[贋貌] 표절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옛 대가(大家)를 구실삼아 그 타심(唾瀋)[131]을 수습한다면 이 또한 어찌 귀할 수 있겠습니까.

전·후칠자(前後七子) 같은 이들은 옛 작품을 힘써 추종하여 간심(艱深)[132]하고 험굴(險崛)[133]함을 힘썼으니 비록 올바른 도[正軌]가 아니었다 해도 그들이 이룩한 공교로움은 몹시 어려운 것이었으니 그래도 말할 만하지요.

구·증(歐曾)[134]의 옛 보루[古壘]를 살펴가 보면 원·백(元白)[135]이 이루어 놓은 자취를 천천히 따라, 조금의 힘도 들이지 않고 다만 평이 만연(漫衍)한 것만을 답습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사대(四代)의 문'이요 나는 '육의(六義)의 시'요 하지요. 의관이 비록 닮았다 해도 우맹(優孟)과 숙오(叔敖)는 필경 두 사람이니[136], 물 속에 있는데 다시 물을 가하면[137] 누가 물을 마시겠습니까. 게다가 졸고 수십 편은 다만 제 스스로 보배롭게 여기는 떨어진 빗자루[弊帚自享][138]일 뿐이지 시와 문이라고 일컬을 수 없지요. 그러나 들어감에는 사대와 육의를 좇지 않음이 없습니다. 다만 재주와 힘이 모자란 까닭으로 조금도 기어오를 수 없었으니, 대개 여유 있게 노닐면서 애오라지 한 해를 마쳐 그 얻은 것에 흡족해하며 엿보기 어려운 천기(天機)를 울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배나무에 재앙을 입히고 대추나무의 원수가 되어[139] 세상에 이름 날린 옛 사람과 버티고 겨루는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노형의 높은 뜻[抗志]이 비록 높아도 틀림없이 쉽게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니, 스스로 애써 노고하여 달자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한 말이 이에 이르니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습니다.

---

131) 타액(唾液).
132) 시문의 뜻이 깊어 해석하기 어려움.
133) 험하고 높음. 어려움. 난삽함.
134) 북송(北宋)의 문장가 구양수(歐陽修)와 증공(曾鞏). 당송팔대가(唐宋八代大家)에 속함.
135) 당나라 시인 원진(元稹)과 백거이(白居易).
136) 옛날 초(楚)나라의 이름난 배우 우맹(優孟)이 손숙오(孫叔敖)의 의관을 차리고 손숙오 아들의 곤궁을 구해냈다는 고사. 전하여 사이비한 것의 비유로 쓰인다.
137) 이수제수(以水濟水) : 물 가운데 있는데 다시 물을 더하는 것으로, 부화뇌동하여 일에 아무런 도움을 되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138) 폐추자진(弊帚自珍) : 비록 좋지 않은 것이라도 자신은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비유한다.
139) 재리(災梨) : 쓸데없는 책을 각인하여 재앙이 배나무에까지 미치게 한다는 것으로, 각인에 대한 겸사(謙辭)로 상용된다.

梅泉書云 大作年益高而文益醇 敬服敬服 至使我盡去五十以前 所謂詩若文之學 更尋四代六義之門 非愛我之深者 何以及此 然年已晩矣 不幾於幷失故步乎 且詩文之學貴抒其眞情 不貴剿其贋貌 藉口古大家而拾其唾瀋 亦何足貴哉 且如前後七子 力追古作 務爲艱深險崛 雖非正軌 其爲工甚難 猶可說也 今乃按行歐曾之故壘 徐循元白之成迹 不費絲毫之力 而只襲其平易漫衍者 而晏然自號曰 吾四代之文也 吾六義之詩也 衣冠雖肖 優孟叔敖畢竟是兩人 而以水濟水 誰食諸 且拙稿數十篇 只可弊帚自享 而不可謂之詩若文 然其入也 未嘗不從四代與六義也 直才力不逮 所以不能躋攀分寸也 益優哉游哉 聊以卒歲 以自得其得 而鳴其微竇之天機耳 可望灾梨棗棗 與古人名世者抗衡乎 老兄抗志雖高 此則必不可易致 毋自矻矻勞苦 爲達者所笑也 放言至此 一笑一悚

황매천(黃梅泉)에게 답함

아우의 뜻이 편협하고 견문은 어울리지 않고 변변치 못합니다. 비록 백수노인(白首老人)으로 고달프게 책을 좋아하긴 하였으나 본 바는 겨우 중고(中古) 이전에 그치지요. 늘 온정균(溫庭筠)[140] · 이상은(李商隱)[141]의 시는 성색(聲色)[142]과 정취 면에서 넉넉히 성당 제 현인들의 문에 들 수 있고, 성색 면에서는 온정균이 이상은 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마음은 자못 온정균에게 경도되었던 것입니다.

금(金)나라와 청(淸)나라의 대가 중에 혹시 조금 통하는 자가 한 둘 있지만 용공(用功)은 전실하지 못하지요. 그들은 온정균의 품격을 알지 못한 채, 그 아래 거하여, 그 소견이 정치하지 못할 뿐이고 모방하는 바 또한 동류가 아니지요. 이제 매우 간절하고 수고롭게 가르쳐주심을 받들게 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궁구하겠습니다.

접때 문자(文字)로 과오를 저질러 인형의 뜻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정상을 따져보면 지극히 추앙하지 않음 없지만 특히 어리석고 충박(忠朴)한 성품 때문에 기대가 심원하였던지라 옮겨 말할 때 혹은 억누르고 혹은 찬양함을 면하지 못했으니 이미 거듭 참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사죄하였으면서도 불민하여 일찍이 말씀드리

140) 중국 만당 때의 시인. 자는 비경(飛卿). 여덟 번 팔짱을 끼는 동안에 시 한 수를 지을 만큼 재사(才思)가 민첩하다 하여 온팔차(溫八叉)라 한다.
141) 중국 만당 때의 시인. 자는 의산(義山). 오정균과 함께 온이(溫李)로 불리우며 후세에 그 시파를 서곤파(西崑派)라 일컬었다.
142) 언어와 안색(顔色).

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형(仁兄)께서 저를 업신여김이 어찌 양해함이 미진하여서 이겠습니까. 저는 평생 문자가 시대에 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지금 시대에 살면서도 망령되게도 옛 시문을 짓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영향을 대략 헤아려 모방했지만 스스로 보기에도 무척 불만스러웠습니다.

기미년(1859) 이래로 지금 까지 십여 년 동안 온갖 정력을 기울여 오로지 공부하느라 침식도 거의 폐하여 얻은 바 사고(私稿)가 10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옛 현인(賢人)들의 처마 밑에 붙여줄 것을 감히 바라지도 않지만 만약 그 현인들의 울타리 밖을 엿보았다고 만이라도 여긴다면 제 바람은 진정 이 정도로도 족합니다. 이 때문에 인형께서 비록 성정지설(性情之說)을 보여주시어 홀로 나아가는 길을 직접 지시해주시고 전후 경계하여 꾸짖어주심이 핍절(逼切)하고 통쾌하였지만, 먼저 나타난 병통이 고황(膏肓)[143]을 견고하게 점거하여 시종 고집하고 바꾸지 않았으니 때로 한 번씩 생각해보면 저는 천하에 지극히도 어리석어 교화되기 어려운 자입니다. 게다가 이미 인형의 가르침을 받들지 못했으면서도 도리어 인형과 더불어 좋아하는 것을 함께 구하고자 요구했으니 이는 지극히 어리석다는 한 증거입니다. 인형 용서하십시오.

근년에 늘 인형께서 한번 방문해주실 것을 제가 바랐던 것은 인형의 뛰어난 총명함을 잘 알고 있어 제 원함, 즉 제 분수에 따라 이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진보하지 않았나 살피려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인형께서는 이미 교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살피시고 부득이 맡기긴 하셨어도 방문을 허락하시지는 않았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찌 강제할 수야 있겠습니까.

저의 나이 이제 칠십이고 게다가 몸에는 병까지 있고 주거지 또한 멀지요. 생각해보니 생전에 몇 번이나 인형을 향해 붓을 잡을 수 있으려는지요. 비록 견권(繾綣)[144]한 정이 엉키고 설켜 이어진다 한들 오히려 서럽고 한스러움이 마지않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서로 어려워하여 마치 편치 않음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까. 자고로 문인들은 세상을 함께 살면서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이 온전치 않았으니, 이는 대부분 기를 서로 내리지 않았던 데서 연유하지요. 저는 일찍이 이를 개탄스럽게 여기고 진실로 전철을 밟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세상에서 문인은

143) 심장과 격막 사이의 부분. 곧 침이나 약으로 고치지 못하는 곳. 명치. 전(轉)하여 전부터 내려오는 고치기 어려운 오류.
144) 생각하는 정이 살뜰하여 못내 잊을 수 없다.

더욱 의지할 데 없어 외롭고 쓸쓸하니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겠지요. 오직 바람 편에 소식을 전하여[因風寄聲] 연연해하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하니 이는 마음속에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인형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答黃梅泉

弟志意偏隘 見聞孤陋 雖白首矻矻好書 而所見僅止中古以前 嘗謂溫飛卿李義山詩 聲色情致 優入盛唐諸賢之門 聲色則飛卿似又過於義山 故心頗傾倒 其於金淸大家 時或粗涉一二 而用功未專實 不曉飛卿品居其下 惟其所見之未精 而所擬亦不倫 今承慇慇勤敎 當更究之矣 囊者謬以文字 失仁兄意 原其情 非不極其推仰 而特以愚性忠朴 期待深遠 轉辭之際 未免有抑揚 旣復慚悔 盖已謝以不敏 未嘗道 仁兄藐視我也 豈諒之有未盡邪 弟生平不知文字 繫於時代 生於今 妄意爲古詩文 雖略揣模影響 而自視甚不滿 自乙未以來 至今十餘年 殫精專攻 幾廢寢食 所得私藁爲數十卷 不敢望人謂以寄之 昔賢之廡下 而倘以爲伺候於其籬外 情願足矣 是以雖蒙仁兄 示以性情之說 直指獨造之路前後 戒責逼切痛快 而先見之病 堅據膏肓終始執而不改 時一思之 殆天下之至愚亂化者也 且其不能奉遵仁兄之敎 却要與仁兄同求所好 此至愚之一驗也 仁兄其恕之 比年相望仁兄之一顧者 深知仁兄明睿卓絶 意欲就吾願隨吾分 審其較前稍進不也 而想仁兄已察其難化 不得已任之而不肯顧也 亦何能强之哉 弟今年近七十 身且病居又遠 計生前把筆向仁兄 安能復幾何時 雖繾綣纏綿 猶悵恨之無已 豈宜無故相難 若有不平者然邪 自古文人幷世情誼未全 概多由於氣不相下 弟嘗慨然歎息 誠不欲身蹈之也 況今世文人尤孑孑落落 宜相愛憐 惟因風寄聲表戀戀不忘 寔中心之不能已也 幸仁兄深諒之焉

그림에 부치다(題畵)

성당(盛唐)의 왕유(王維)[145]와 맹호연(孟浩然)[146]의 시는 한원(閒遠)하고 아담(雅淡)

145) 중국 성당(盛唐) 시대의 대표적 자연시인(自然詩人). 자는 마힐(摩詰). 만년의 벼슬이름을 따라 '왕우승(王右丞)'이라고도 한다. 시뿐만 아니라 음악의 명수이기도 하고 남종화(南宗畵)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한 것으로 높고 북송(北宋)의 소식(蘇軾 : 東坡)과 황정견(黃庭堅)[147]의 시는 빼어나고 새로우며 기이하고 박식한[穎新奇博] 면에서 뛰어나다. 시험삼아 매화를 그림에 당송(唐宋)의 이 같은 운치를 겸하면 묘경(妙境)에 나아가리니, 한원아담(閒遠雅淡)함은 매화(梅花)의 기요, 영신기박(穎新奇博)함은 매화의 격이다. 매화의 정신은 기(氣)와 격(格)의 밖에 있지만 기격(氣格)의 안을 벗어나지 않는다. 《매화》

대 그림은 문장에 『맹자』의 호연장(浩然章)이 있음과 같으며 글씨에 구양솔경(歐陽率更)[148]의 「예천명자(醴泉銘字)」가 있는 것과 같아, 순수하게 기골(氣骨)을 주로 삼는다. 그러므로 본떠 모방하고[摹擬] 형체를 비슷하게 하는 자가 방불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비록 그러하나 말을 어찌 쉽게 할 수 있겠는가. 《대》

역(易)을 배우는 자는 태극(太極)으로 지극한 뜻을 삼는다. 한묵가(翰墨家)[149]는 삭고(削藁)[150]하고 습자(習字)하는 여가에 재미 삼아 난·매·대·바위 등 여러 묵화를 그리는데 반드시 난 잎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그 나머지는 차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역을 배우는 자가 태극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있다고 인식하면 없고 없다고 여기면 있는 것이 그 의미이기 때문이다. 《난》

일찍이 고문(古文)을 읽으니 반드시 엶이 있고 닫음이 있으며 조응(照應)이 있고 문단속이 있었는데, 바위를 그림에도 또한 열고 닫음 조응 문단속의 묘가 있다. 혹 하나라도 파탄이 나면 문(文)을 이룰 수 없고 속기(俗氣)가 있으면 진문(眞文)이 아니다. 바위에도 쌓인 습관[累習]이 있으면 진정한 바위[眞石]가 아니다. 《바위》

---

146) 중국 성당의 시인. 일찍이 세상에 뜻이 없어 녹문산(鹿門山)에 은거하다가 40세에 비로소 경사(京師)에 나와 왕유(王維) 등과 사귀었다. 불우하고 고독한 생활 속에서 속정(俗情)을 떠난 한적한 자연의 정취를 사랑했는데, 그의 시는 이러한 자연에 친근하여 이를 주관적·동적으로 읊는 경향이 있어 비감하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

147) 중국 송(宋)나라 때 시인. 자는 노직(魯直), 호는 산곡(山谷). 강서시파(江西詩派)의 시조로서 소동파와 병칭되었으며, 서가(書家)로서도 송대사가(宋代四家)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148) 중국 당나라 때의 서법가(書法家) 구양순(歐陽詢)을 가리킴. 순(詢)이 솔경령(率更令)을 지낸 적 있으므로 이렇게 일컫는다.

149) 서화와 글에 뛰어난 사람.

150) 삭초(削草). 옛날 대신이 상서문을 올림에 상소가 끝나면 원고를 훼손시켜 신밀(愼密)해야 함을 보이다.

도징사(徵士)[151]가 사랑했던 국화는 오늘의 감국(甘菊)이요, 여기에 그린 바 국화는 세속에서 칭하는 바 운타(雲朶)이다. 옛날 창려 한유(韓愈)[152]가 「모영전(毛穎傳)」을 지을 때 사마자장(司馬子長 : 司馬遷)의 말을 물려받지 않았는데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작품을 읽게 하면 마치 자장의 역사를 읽는 듯 하니 이는 탈태법(脫胎法)[153]이다. 속품(俗品)을 고취(古趣)에 붙이니, 이는 또한 남몰래 비교하기 때문이라 한다. 《국화》

옛이나 지금이나 오동나무를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봉황(鳳凰)[154]을 거론한다. 오동나무가 있어도 봉황이 있음을 이제는 들을 수 없다. 생각해보건대, 일세(一世)의 일을 처리함에는 경제(經濟)[155]할 선비가 반드시 필요하나 들림이 없으니, 봉황이 없는 것과 같다. 바야흐로 오동에 관해 지으려면서 멋대로 하는 생각이 이에까지 미쳤다. 요약해 본다. 봉황은 평범한 새를 벗어나지 않으며 경제(經濟)할 선비는 평범한 인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알아채느냐 알아채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동》

모란은 꽃 중에서 번화한 자이다. 그러나 한담(閒淡)[156]한 먹으로 그것을 그린다. 일찍이 여름날 청운(晴雲) 수십 첩이 얼룩덜룩 성하게 일어나니, 이는 오직 한담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본다 하여도 사랑할 수 없다. 모란꽃을 그림에는 의당 이를 법으로 삼아야 한다. 《모란》

일찍이 지었던 수묵 파초,

---

151) 중국 진(晉)나라 때 의 은사 도잠(陶潛 : 자는 淵明)을 가리킴. '징사'는 학덕이 높아 조정에서 부른 선비를 의미한다.
152) 중국 당나라 중기의 유학자 · 문장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 자는 퇴지(退之). 그의 문장은 고문을 문장으로 삼아 웅위굉심(雄偉宏深)하여 후세의 종(宗)이 된다.
153) 원래는 탈태법(奪胎法)이다. 고인(古人)의 시문(詩文)의 취의(趣意)를 따서 형식만 바꾸어 시문을 짓는 방법.
154) 상서로운 상상의 새. 수컷을 봉(鳳)이라 하고 암컷을 황(凰)이라 하는데, 덕이 높은 천자가 나오면 나타난다고 하며, 오동나무에 깃들이고 대 열매 씨를 먹으며 예천(醴泉)을 마신다 한다.
155)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건짐.
156) 고요하고 담박함.

꽃으로 눈을 한 번 씻어내니
풍채와 거동 문득 새로움 발해라
홍진(紅塵)[157]의 말굴레 벗어난
헌활(軒豁)[158]한 들 사람이라

를 생각하고는, 스스로 웃으며 말했다.

"늙은 조대(措大)[159]를 위하여 해조(解嘲)[160]하는 것이라."《파초》

이청련(李靑蓮 : 李白)의 시는 천연하여 꾸밈을 제거한다. 부용(芙蓉)을 읊은 한 구는 전신(傳神)[161]하는데 꾸밈을 제거하여 절로 천연하다. 연을 그릴 때마다 늘 이 뜻을 마음에 두어 도움을 받았는데, 또 어느 때 이를 다시 망각할 지 모르겠다.《연》

장자의 『남화경(南華經)』에 이르기를, "재목감이 아니어서 천년을 마치었다"하고 또 일찍이 이르기를, "그대는 큰 나무를 소유하고 있으면 어찌하여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162]에 심지 않는가. 만약 무하유지향에 심고자 한다면 어찌 능히 천명을 마치지 못하겠는가"라고 했으니, 또 어찌 재목감과 재목감 아님을 논하리오.《松》

題 畵

盛唐王孟之詩 以閒遠雅淡爲高 北宋蘇黃之詩 以穎新奇博爲勝 試作梅兼唐宋詩人之趣 乃造妙境 盖閒遠雅淡梅之氣 穎新奇博梅之格 其神則在乎氣格之外 而不離乎氣格之中 <梅>

---

157) 시끄럽고 번화한 속세.
158) 훤희 드넓다.
159) 서생. 큰 일을 조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생(書生)의 미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전하여 조롱 또는 겸손의 뜻을 나타낼 때도 쓴다.
160) 조롱을 받고 해석하는 것.
161) 대상의 정신과 태도를 생동적으로 핍진하게 표현한 것을 일컫는다. 예술수단을 형용하는데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162) 아무 것도 없는 시골이라는 뜻. 세상의 번거로운 일이 없는 자연의 낙토(樂土)를 이른다.

畵之於竹 如文之有鄒經浩然章 如書之有歐陽率更醴泉銘字 純以氣骨爲主 非摹擬形似者之所可彷佛 雖然談何容易 <竹>

學易者 以太極爲極至之義 翰墨家刪藁臨池之餘 戲作蘭梅竹石諸墨畵 而必先知作蘭葉 其他可次第而就 如太極者之理會太極之義 盖認有而無謂無 則有此其意也 <蘭>

嘗讀古文 必有開有闔 有照應 有關鎖 寫石亦有開闔照應關鎖之妙 一或破綻 便不能成文 有俗氣非眞文 石有累習非眞石 <石>

陶徵士所愛之菊 今甘菊也 此所畵之菊 世俗所稱雲朶也 昔韓昌黎作毛穎傳 不襲司馬子長語 而令人讀之 如讀子長史 此脫胎法也 以俗品寄古趣 盖亦窃比云 <菊>

古今言梧桐者 必擧鳳凰 梧桐所在而有而鳳凰 今無聞焉 試思辦一世事必須經濟之士而無聞焉 如鳳凰然 方作梧桐 漫思及此 要之 鳳凰不離凡鳥 經濟士不離凡人 在知之與不知耳 <梧桐>

牧丹花之繁華者 而閒淡之墨作之 嘗於夏日 見晴雲數十疊斑駁 蓊然而起 此惟閒淡人能見之 他人非不見也 雖見之不能愛也 作牧丹花 宜以此爲法 <牧丹>

憶曾題水墨芭蕉云「一洗經花眼 風儀頓發新 紅塵珂馬外 軒豁野巾人」因自笑云 爲老措大解嘲 <芭蕉>

李靑蓮詩 天然去雕飾 一句爲芙蓉 傳神去雕飾自天然 每寫蓮時 着此意有助 又不知何時 可復忘此 <蓮>

莊南華云 不材終其天年 彼亦嘗云 子有大樹 何不樹之於無何有之鄕 苟欲樹之無何有鄕 豈不能終其天年 又何論材不材 <松>

『논어』에 대한 물음

『논어』에서 공자(孔子)가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때로 그 배운 것을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했으니, 성인께서 배우고 익힘[學習]만 말씀하시고 그 좇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배우는 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근거해서 배워 익히면 성인(聖人)의 취지 및 속뜻과 합치하겠습니까. 멀리서 온 벗이 혹 나만 못해도 즐거울 수 있습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는 것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에는 또한 그 깊고 옅고를 말한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학이(學而)」장 안에서 쓰인 세 개의 역(亦)자 의

미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까?

【답】: 성인께서 사람을 가르침에는 각각 그 재주에 따라 학습하도록 시켰으니, 그 좇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꼭 그렇다고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다.

왜 그런가? 공자의 문하생 중에서 효(孝)에 관해 물은 자가 넷이었는데, 맹의자(孟懿子)에게는 "어기지 말아라"고 답하셨으며, 맹무백(孟武伯)에게는 "부모님께서는 오직 그 병들까 근심하신다"라고 답하셨고, 자유(子游)에게는 "요즘의 효자들은 이를 능양(能養)이라 여긴다"라고 답하셨고, 자하(子夏)에게는 "색난(色難)[163]이다"라고 답하셨다. 문인들이 질문한 것은 모두 "효"에 관해서였는데 공자께서 이에 관해 답하신 것은 각기 달랐으니, 이는 그 재주에 따라 가르치신 것 아니겠는가.

『논어』에서 배움[學]을 말한 것은 무릇 사십 장인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십 칠 장이며 이십 칠 장의 말 또한 각각 다르니, 이는 사람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을 반드시 정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 아니겠는가.

만약 "배우는 자가 장차 무엇에 근거하여 학습하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시험삼아 『논어』에 나아가 고찰해 보아라. 그 효제(孝弟)[164]에 의거해서 학습하는 것이 상세하다. 어째서 그렇게 보는가? 성인의 말은 광대하여 가히 들여다보고 추측할 수 없다. 오직 성인에게 친자(親炙)[165]한 자만이 '가히 좇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자(有子)가 말하지 않았던가.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務本]. 근본이 서야 도(道)가 생기니, 효제(孝弟)[166]라는 것은 그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

대개 부자의 도는 인이고 인을 행함은 효제로부터 시작되니, 이것은 배우는 자들이 먼저 근거하여 학습할 것 아니겠는가. 문인들이 이 책(『논어』)을 편찬함에 이 한 장(務本章)을 「학이」장 아래에 이어 두어 이미 성인의 뜻에 합치했던 것이다. 그리고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에서 이른 바 '명선(明善)'과 혹자가 물은 바 '지행(知行)'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질문을 밝힘으로 인하여 조목조목 대답하겠다.

---

163) 부모를 섬길 때에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말함.
164) 부모와 형을 잘 섬김.
165) 스승이나 존경하는 분에게 가까이 하여 친히 가르침을 받음.
166) 부모와 형을 잘 섬김.

군자는 벗을 택함에 있어 비록 자신보다 낳은 사람을 택하지만 자신 만 못한 사람이 왔다고 하여 어찌 물리칠 수 있겠는가. 자신보다 낳은 자에게서는 힘써 자신을 보충하며 자신보다 못한 자에게는 강구하여 힘쓰게 한다. 강구(講究)[167]하는 것 또한 배우는 것이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는, 전적으로 자신에 나아가 말하는 것으로,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라"와는 말을 세움이 애초부터 같지 않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는 것은 덕을 이룬 자에 편안하게 한 말이요,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는다'는 배우는 자에게 권면(勸勉)한 말이다. 그러니 그 깊고 옅음에 대해 변론을 기다릴 필요 없다.

세 번 나온 '역(亦)'자에 대해서도 또한 설이 있다. '역'이라는 것은 이미 그랬지만 다시 그렇다는 의미이다. 배움이 이미 기쁘지만 익히니 다시 즐겁고, 기쁨이 깊으면 즐겁고,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다시 즐겁다. 배우고 익혀서 기쁘고 즐거운 것은 실로 군자 아니면 불가능하고, 즐거움이 깊으면 절로 성내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과연 덕을 이룬 군자이다. 세 번 나오는 '역'자의 의미는 혹 이 같은 것인가. 삼가 대답한다.

問 : 論語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聖人只言學習 而不言其從入之方 今爲學者 將何據而學習 則可合於聖人之旨意邪 遠來之朋 或不如己 亦可以樂邪 人不知而不慍 此與不患人之不已知者 亦有淺深之可言邪 章內三亦字之義 可得聞歟

對 : 聖人之敎人 各因其材 使之學習焉 而其從人之方 不可必定也 斯其所以不言乎何者 夫子之門人 問孝者四 而答孟懿子曰 無違 答孟武伯曰 父母唯其疾之憂 答子游曰 今之孝者是爲能養 答子夏曰 色難 夫門人之所問者同是孝也 而夫子之答之 各不同焉 斯非因其材而敎之乎 論語之言學凡四十章 而夫子之所言爲二十七 二十七章之言 又各不同 斯非從入之方之不可必定乎 若曰 學者將何據而學習云乎 則試就論語而考之 其據孝弟 而學習者審矣 何以見其然也 聖人之言廣大 不可窺測 惟親炙於聖人者 其言爲可從而入矣 有子不云乎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盖夫子之道仁也 爲仁必自孝弟始 斯非學者所先據而學習者歟 門人之編此書也 以此一

167) 좋은 방책을 찾아내도록 연구함.

章 卽接學而章之下 已合於聖人之旨矣 而朱子集註所云明善 或問所云 知行亦不外乎是矣 復因明問而條對之 君子之於朋友也 雖擇其勝己者 而不如己者之來 豈可却之乎 於勝己者則勉而輔己 於不如己者 則講而使之勉焉 夫講亦學也 豈不足樂乎 人不知而不慍 專就己而言也 不患人之不己知 將以患其不知人也 立言元自不同 然不知不慍在成德者 而安之之辭也 不患不知在學者而勉之之辭也 其淺深不對辨矣 三亦字之義抑有說焉 亦者旣然而復然之謂也 學旣可悅 而習復悅也 悅之深則樂矣 而遠朋之來復樂矣 學習而悅樂者 固非君子不能也 而樂之深則自無可慍 斯果成德之君子矣 三亦字之義 或者其如是乎 謹對

【문】: 『논어』에서 증자(曾子)[168]는, "나는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해 세 가지를 반성한다[一日三省]. 남을 위하여 꾀하는데 충심으로 하지 않았는가. 벗과 사귐에 있어 믿지 않았는가. 배운 것은 익히지 않았는가."라고 말하였고, 주자(朱子)는 충과 신(忠信)을 배운 것을 익히는[傳習] 근본으로 삼았으며, 증자는 일찍이 '일관지도(一貫之道)[169]'를 제자들에게 고하여, "충과 서(忠恕)일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증자가 전습한 것은 일관지도이다. 충(忠)과 신(信) 및 충(忠과) 서(恕)를 구별하지 않음은 어찌된 일인가.

【답】: 증자가 삼성(三省)에서 충과 신을 말하면서 '서'(恕)를 말하지 않았으니, 비록 '서'를 말하지 않아도 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요, 비록 충과 신을 말했어도 신은 또한 충이다. 이를 안다면 다름이 없다해도 실제로는 같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어째서인가. 충(忠)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요, 서(恕)는 급물(及物)[170]하는 것이다. 충(忠)으로 신(信)을 대하여 말하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충(忠)이라고 일컫고, 일[事]에 나타나는 것을 신(信)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충과 신(忠信)으로 사람과 벗에 대하여 말한다면, 충과 신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되고 꾀함과 사귐[謀與交]은 접물(接物)[171]이 된다.

---

168) 공자의 제자로 이름은 삼(參). 자는 자여(子輿). 효행(孝行)으로 유명함.
169) 한가지 도리(道理)를 사용하여 만사 만물을 꿰뚫는 것을 일컫는다.
170) 은혜가 만물에 미침.
171) 사람과 사귐에 그 인물을 대접하는 것.

무릇 자신에게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다할 수 있는 바이므로 충(忠)은 진실로 신(信)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신은 또한 충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접물(接物)이라는 것은 내가 자신에게 추측해보아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는 바이며 번거로운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말하였기 때문에, "서(恕)는 그 가운데 있다"고 말한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충과 신을 위주로 한다[主忠信]'고. 주(主)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 주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자신에게 있어 주가 된다는 것은 이른바 충이 신을 포함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공자께서 서(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하지 않고자 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고 하였다. 무릇 베푼다[施]는 것은 자신에게 미루어보아 타물에게도 베푸는 것을 일컫는다. 미루어보아 타물(他物)에게 베풀면 이른바 서(恕)니 번잡한 말을 기다리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증자가 '남을 위해 꾀함에 나의 충(忠)을 다 하여 자신이 스스로를 꾀하는 것 같이 하며, 벗과 더불어 사귐에 나의 믿음을 실(實)하게 하여 마치 자신이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하라'는 말 중, 그 '충과 실을 다한다[盡忠實]'는 것은 '믿음[信]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과 같고, '스스로를 꾀하는 것과 같이 한다[如己自謀]' '마치 스스로를 보는 것 같이 한다[如己自視]'는 바로 '급물(及物)'을 의미한다. 이는 증자가 공자에게 받아 둔 것이니 이 삼성(三省)은 가는 곳마다 충과 신(忠信) 아님이 없다. 주자가 해석한 바, "배운 것을 익히는[傳習] 데 있어 충과 신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에서 주자가 배운 것을 익혔던 것[傳習]은 곧 '일관지지(一貫之旨)'였음을 드러낸다.

충과 신이 비록 자신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덕[實德]이라 할지라도 급물(及物)을 두지 않는다면 일관(一貫)의 극치를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열 가구 있는 마을에 반드시 충과 신(忠信)이 있을 것이지만 배움을 좋하는 것[好學]만 못하다"라고 말하였다. 배움을 좋아해야만 그 배운 것을 익힐 수 있어 한 유일한 것[一唯]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과신 및 과 충과 서가 같지 않음이 없음을 어찌 다시 의심하겠는가.

問 : 論語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朱子以忠信爲傳習之本 曾子嘗以一貫之道 告門人曰 忠恕而已矣 曾子所以傳習者 卽一貫之道也 而忠信與忠恕 未有不同者何歟

對: 曾子三省 言忠信而不言恕 雖不言恕而恕在其中 雖言忠信而信亦忠也 知此則微不同 而實未嘗不同者可辨矣

何者 忠在己者也 恕及物者也 以忠對信而言則有於己之謂忠 見於事之爲信 然以忠信對人與朋友而言 則忠信爲在己謀與交爲接物

夫在己者 吾所以自盡 而忠固包信 故曰 信亦忠也 接物者 吾所以推己及之而無待乎煩言故曰 恕在其中也

夫子不云乎主忠信 夫主者 主乎在己之謂也 主乎在己 則所謂忠之包信者非耶

夫子之言恕曰 己所不欲勿施於人 夫施者 推己而施諸物之謂也 推而施諸物 則所謂恕無待乎 煩言者非耶 曾子之爲人謀也 盡吾之忠而如己之自謀焉 其與朋友交也 實吾之信而如己之自視言 夫盡其忠實 其信在己者也 如己自謀 如其自視 及物者也 此卽曾子受諸夫子 而有此三省 無適而非忠恕也 朱子所釋 以忠信爲傳習之本者 有以見曾子之傳習 卽是一貫之旨也

盖忠信雖爲在己之實德 而不有以及乎物 無以盡一貫之極致 故曰 十室之邑 必有忠信不如好學也 惟好學然後 能習乎其傳 而至於一唯也 然則忠信忠恕之微不同復何疑乎

【문】: 『논어』에서 공자가, "군자(君子)가 인(仁)을 버리면 어찌 이름을 이룰 것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찍이 이르시기를, 자로(子路)·염유(冉有)·공서화(公西華)·중궁(仲弓)은 그 인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 그렇다면 이들이 명성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떻게 얻은 것인가.

【답】: 군자가 명성을 이루는 인은 인의 전체이다. 그러나 네 제자는 군자의 전체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仁)을 모른다 말한 것이다. 인의 전체인 것은 순수한 천리(天理)로, 혼연(渾然)하게 온전히 다 갖추어져 있다. 하나라도 이지러져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실제를 소유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반드시 밥 한끼 먹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인을 어기지 않으며, 아주 급작스러운 때라도 반드시 그러하며, 엎어지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반드시 그래야 하니, 그런 후에야 불인(不仁)한 때가 없으며 불인한 곳이 없어 인이라는 명성이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니, 이를 일컬어 전체적인 군자라 한다.

만약에 하루에 한번 이르고, 혹은 한 달만에 한번 이른다면 인의 유행(流行)이 끊

어짐이 있어 비록 그 뜻을 인에 두었다 하더라도 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자의 문하(門下)에 오직 안자(顔子)[172]의 인(仁)만이 체를 갖추었는데도 공자께서는 오히려 "삼 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 하셨으니, 그 삼 개월이 지나서는 혹 때로 어기곤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무릇 안자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네 명의 제자야 더 말할 나위 있겠는가. 이 네 제자가 능하게 할 수 없었던 바는 인에 이르는 것이었다. 만약 명성을 이루는 바 같으면 부자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혹자는 '천승(千乘)[173]의 나라에 그 군정(軍政)을 다스리게 할 수 있다'하고, 혹자는 '천 가구 있는 마을 백승(百乘)의 집안[174]에서 재(宰)가 되도록 할 수 있다' 혹자는 '예복을 입고 띠를 띠고서 조정에 서서 빈객들을 맞아 말을 나누게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재주를 얻은 자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하다. 중궁에 이르러서는 덕행(德行)으로 칭해졌으며, 공자께서는 남면(南面)[175]하게 할만하다 인정하셨으니, 명성을 얻기에 더욱 충분하다. 인에 있어서 모두에게 말하기를, "그 인한 지는 알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있다고 일컬으면 때로 없는 것이요, 없다고 일컬으면 때로 있기 때문이다. 그 실제를 보고 그 이름을 정하니, 비록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기 어렵다.

아아! 네 제자는 모두 군자(君子)이다. 그러나 군자라는 명성이 동일하지 않아 그 전체를 이룬 자가 있고 그 한 쪽만 얻은 자도 있다. 네 제자는 군자 중에서 그 한 쪽만 얻은 자로다.

問 : 論語 子曰 君子去仁 惡乎成名 而嘗謂子路冉有公西華仲弓 不知其仁 然則諸子成名 果有何而得之邪

對 : 君子成名之仁 是仁之全體也 而四子者未得君子之全體 故曰不知其仁 盖有其實而後稱其名 實不足言則不可以定矣 仁之全體者 純乎天理 渾然具足矣 一有虧欠 不

172) 안회(顔回)를 높여 일컬음. 춘추시ㄷ 말기의 학자. 노(魯)나라 사람. 자(字)는 자연(子淵). 공자의 제자로서 십철(十哲)의 으뜸으로 꼽힘. 안빈낙도(安貧樂道)하여 덕행(德行)으로 이름이 높았다.

173) 승(乘)은 병거(兵車). 주대(周代)의 제도에 천자(天子)가 기내(畿內)의 땅 천 리를 영유하고 전시(戰時)에 병거 만승(萬乘)을 내놓으며, 큰 제후(諸侯)는 사방 백 리를 영유하고 병거(兵車) 천승(千乘)을 내놓았다. 일승(一乘)에는 갑사(甲士) 삼인, 보병(步兵) 칠십이인(七十二人), 거사(車士)이 십 오인이 딸렸다.

174) 백승지가(百乘之家). 주대(周代)의 제도에서 전시(戰時)에 수레 백대를 내놓는 집. 곧 천승(千乘)의 나라의 대부(大夫). 경대부(卿大夫).

175) 군왕의 위에 앉음.

可謂有其實也 必也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顚沛必於是 而後無時不仁 無處不仁 而仁之名始定 斯謂之全體之君子也

若日一至焉 或月一至焉 則仁之流行 有所間斷 雖其志志於仁矣 而名之以仁則不可也 夫子之門 惟顔子之仁爲具體 而夫子猶謂之三月不違仁 其過三月而或有時而違 未可知也 夫顔子猶然 況四子者乎 此四子之所以不能至於仁也 若其所以成名 則夫子不云乎 或千乘之國可使治其賦 或千室之邑 百乘之家 可使爲之宰 或束帶立於朝 可使與賓客言 斯其得於才者 足以名矣 至於仲弓 則以德行稱 而夫子許之以可使南面 尤足以名矣 其於仁也 均之曰不知其仁 盖謂之有也則有時而無焉 謂之無也則有時而無焉 視其說而定其名 雖聖人難乎其爲言 故曰不知其仁也 嗚呼 四子者皆君子也 謂不知其仁 則似不足爲君子 然君子之名不同 有成其全體者矣 有得其一偏者矣 四子者 其君子之得其一便者歟

【문】: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불기(不器)[176]"라 하셨는데, 자공(子貢)의 질문에 답하심에는 "너는 그릇이다[女器也]"라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자공의 어짐으로도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답】: 덕을 이루고 완전한 재능을 소유한 군자 차원에서 말하자면 자공의 어짐은 아직 불기(不器)에 미치지 못한 것이요, 재주를 이루고 덕에 나아가는 군자 차원에서 말하자면 자공의 그릇됨은 뭇 사람의 그릇됨과는 다른 것이다.

그릇이라는 것은 한 가지 것에 국한되는 물건이다. 때문에 비록 용(用)에는 적당하지만 서로 통하지는 못한다. 덕은 이루고 온전한 재주를 소유한 군자는 체(體)는 갖추지 않음이 없고 용(用)은 두루 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가히 그릇[器]으로 이름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군자불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공(子貢)은 그 아름다운 언어와 화려한 문장으로 조정에 나아가고 물러나며 빈객(賓客)에게 읍양(揖讓)[177]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그를 종묘(宗廟)의 호련(瑚璉)[178]에 해당되는 그릇으로 인정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귀하고도 중요하지

176) 그릇과 같이 어디 한군데만 쓰이는 것이 아님. 어디든지 쓰이다.
177) 읍(揖)하여 겸손을 표시함.
178) 은대에 종묘(宗廟)에서 서직(黍稷)을 담던 제기(祭器)로 주대(周代)의 보궤(簠簋)와 같은 것. 공자가 자공(子貢)의 인물됨을 평하여 호련(瑚璉)이라고 한데서, 우수한 인물의 비유로 쓰이다.

않음이 없지만 한 쪽만을 얻어 구획이 져 통하지 않으므로 불기(不器)의 반열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에 집착하여 자공에게 군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어째서 그렇다고 보는가.

『논어』에서 군자를 칭한 것은 78장인데, 지극하게 말한 것은 '군자불기'라는 부류요, 인정하여 말한 것은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와 같은 부류요, 대략적으로 말한 것은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엄이 없다'와 같은 부류이다. 자공의 어짐은 세 부류 가운데, 인정하여 말한 것보다는 남음이 있고 지극하게 말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공자께서 관중에 대하여 그 그릇됨을 '작도다'라고 말씀하셨고, 남궁괄(南宮适)·복자천(宓子賤)에 대해서는 모두 군자라고 허락하셨다. 관중은 진실로 성인의 문하에서는 말하지 않는 바요, 남궁괄·복자천이라 할지라도 자공과 같은 '일관지지(一貫之旨)에 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아아! 자공의 그릇됨은 관중(管仲)의 작음과는 다르니, 자공의 군자됨이 어찌 남궁적 복자천의 군자됨만 못하리오.

問 : 論語子曰 君子不器 及其答子貢之問 則曰女器也 然則以子貢之賢 猶不得爲君子邪

對 : 以成德全才之君子言之 則子貢之賢尙未至於不器也 以成才進德之君子言之 則子貢之器異諸衆人之器矣 盖器者物之局於一者也 雖適於用而不能相通矣 成德全才之君子 體無不具 而用無不周 豈可名之以器哉 此所以曰君子不器也 子貢則其言語之美文章之華 可以進退於朝廷 揖遜於賓客 故夫子許之以宗廟瑚璉之器 非不貴且重也 而得其一偏局而不通 其不能與於不器之列矣 若執此而謂子貢之非君子則不可 何以見其然也 論語之稱君子者 爲七十有八章 而有極言之者 如君子不器之類是也 有許言之者 如君子哉若人之類是也 有槩言之者 如君子不重則不威之類是也 子貢之賢 其於三者之類 許言之則有餘 極言之則不足矣 夫子於管仲言其器則曰小哉 於南宮适宓子賤則皆許以君子 夫管仲固聖門之所不道 而雖南宮适宓子賤 未嘗聞一貫之旨如子貢矣 噫子貢之器 異諸管仲之小 而子貢之爲君子 豈不如南宮适宓子賤之爲君子乎

【문】 :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을 좋아하면서 배움을 좋아하지 않

으면 그 폐단은 어리석은 데 있다"라고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허물을 보면 이에 인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다. 인이라는 것은 온갖 선의 으뜸인데, 인(仁)를 좋아하면서도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도리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답】: 어리석다는 것은 밝지 못함을 의미한다. 허물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음을 이른다. 마음으로는 인을 행하는 것이 좋음을 알면서도 인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면 마음이 가리우는 바가 있어 밝지 못하니, 이를 일컬어 "그 폐단은 어리석은 데 있다"라고 한 것이니, 이 또한 의당하지 않은가. 오직 그 마음이 인을 행함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잘못한 바가 있어도 불인한 곳에 빠지지 않는다. 이를 보아 그 마음이 인을 벗어난 적이 없었을 것을 아니, "허물을 보면 인을 안다"라고 말한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인(仁)은 비록 온갖 선(善)의 으뜸이지만 인을 좋아해야만 인을 구하는 것이요, 인을 구한 뒤에야 이루어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좋아함에도 옅고 깊음이 있으며, 구함에도 정밀함과 거침이 있다. 옅은 자는 배움이 지극하지 못한 자요, 지극하지 못하면 밝지 않다. 거친 자는 배움이 미숙한 자이니, 미숙하면 실수가 있다. 밝지 못한 자가 어찌 어리석지 않을 수 있으며, 잘못이 있는 자가 어찌 허물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인을 좋아하나 가리움이 있다" "허물을 보아 인을 안다"는 것은 모두 인을 배우는 자를 위해 가설하여 말한 것이요, 인을 이룬 자에게 나아가 그 효력을 논한 것이 아니다.

인을 이룬 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질지만 어리석다' '허물이 있는데 어질다'는 흡사 상반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을 배우는 자의 관점에서 말하면 인을 좋아함이 깊지 못하여 그 병통이 인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쉽게 이른 것이요, 인을 구함이 정밀하지 못하여 그 행동이 경중 완급을 조절하는 때 쉬 실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록 가리워 어리석은 데로 나아가지만 진실로 인을 좋아하는 것은 잃지 않는다. 비록 허물이 있어도 드러나 보인다면 또한 인을 아는데는 해가 되지 않는다. 어찌 온갖 선의 으뜸이라는 이름에만 집착하여 어리석고 허물이 있어도 인을 행한다는 것을 의심하는데 이르는가.

問 : 論語子曰 好仁不好學其蔽也愚 又曰 觀過斯知仁矣 夫仁者萬善之首也 好之而未

免愚 有過而反謂仁者何歟

對 : 愚者不明之稱也 過者有失之謂也 其心能知爲仁之好 而不知求仁之方 則心有所遮而不明焉 謂之其蔽也愚 不亦宜乎 惟其心能知爲仁之好 故雖有所失而不陷於不仁之地 於是觀之 可知其心之未嘗不出於仁也 謂之觀過知仁不亦可乎 盖仁雖萬善之首而必好之而後求之矣 亦必求後有成焉 然而好之有淺深 求之有精粗 淺者學之未至者也 未至則不明矣 粗者學之未熟者也 未熟則有失矣 不明者安得不愚 而有失者惡可曰非過乎 然則好仁而有蔽 觀過而知仁 皆爲學仁者而設言也 非就成仁者而論其效也 夫自其成仁者而觀之 則仁而愚過而仁似乎相反 而從其學仁者而言之 則好之未深而其患易至於不知求之之方矣 求之未精 而其行易失於輕重緩急之際矣 是以雖蔽而趍於愚固不失爲好仁也 雖過而顯諸觀 亦不害其爲知仁也 豈可執其萬善之首之名 而致疑於愚與過之猶爲仁也哉

【문】: 『논어』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신의가 있지만 편당(偏黨)하지 않는다[不比]"라고 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천하에 전일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다. 오직 의와 더불어 따를 뿐이다[與比]"라고 하셨는데, 이미 '편당(偏黨)하지 않는다[不比]'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불어 따른다[與比]'라고 하신 것은 어째서인가.

【답】: '편당하지 않는다[不比]'와 '더불어 따른다[與比]'는 그 말이 다르지만 '더불어 따른다[與比]'의 의미는 실제로 '편당하지 않는다[不比]'의 가운데를 관통한다.

왜 그런가. '편당하지 않는다[不比]' 의 '비(比)'는 '사사롭게 아부함[黨於私]'을 말하고, '더불어 따름[與比]'의 비(比)는 '의로움을 따름[從於義]'을 말한다. 군자는 오로지 의로움만을 이에 따르니, 어찌 사사롭게 아부하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동일한 '비(比)'자를 썼지만 글자의 뜻이 각자 다르니, 이것이 이른바 그 말이 같지 않다[其辭不同]는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군자가 천하의 일에 있어 마음을 비우고 이치를 살펴 '적과 막(適莫)[179]'을 미리 마음속에 작정하지 않는다. 오직 그 마땅히 좇아야 할 의로움을 보면 따른다.

179) '적(適)'은 어느 사물에 열심하는 일. '막(莫)'은 그 반대로 싫어하는 일.

신의인 즉 공적인 것이요, 아첨인 즉 사적인 것이다. 공적인 것은 의리상 마땅히 좇아야 할 것이요, 사사로움은 의리상 마땅히 좇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마땅히 좇지 않아야 하므로 좇지 않는 것은, 이 '편당하지 않는다[不比]'다는 뜻 아니겠는가. 아첨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아첨하지 않으면, 이는 '오직 의로움만을 이에 따른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더불어 따른다[與比]'의 '비(比)'가 사실 '아첨하지 않는다[不比]'의 중앙을 관통함을 알 수 있다.

또 '전일(專一)한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다[無適無莫]'는 것에 나아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아첨하지 않는다'를 옳다고 여겨 두 비(比)자의 말이 동일하지 않음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이른바 '적(適)을 고집하는 것'이요, 아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더불어 따른다'의 비자가 사실은 편당하지 않는다의 중앙을 관통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이른바 '막(莫)을 고집하는 것'이다. 오직 그 말이 동일하지 않음을 능히 알아, 하나의 '의(義)'자로 같고 같지 않음을 관통하는 것, 이를 일컬어 '오직 의로움만을 더불어 따른다'고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같은 비(比)자가 어째서 한번은 '편당하지 않는다[不比]'라 하고 다른 한번은 '더불어 따른다[與比]'라고 하는 지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問 : 論語子曰 君子周而不比 又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無莫也 義之與比 旣曰不比 又曰與比者何歟

對 : 不比與比 其辭不同 而其與比之義 實貫乎不比之中矣 何者 不比之比 黨於私之辭也 與比之比 從於義之辭也 夫君子唯義之是從 豈容黨於私乎 同一比也而字意各有所指斯所謂其辭不同也 雖然 君子之於天下之事 虛心觀理 不以適莫豫執乎心 惟視其義之當從者而從之 周則公矣比則私矣 公是義之當從者也 私是義之不當從者也 夫不當從而不從者 斯非不比之旨乎 知其不比而不之比焉 斯非唯義是比者乎 然則與比之比 實貫於不比之中 可以知矣 且就無適無莫而觀之 則以不比爲可而無分乎 二比字之辭不同焉者 此所謂執乎適也 以黨比爲不可 而不知與比之比實貫乎不比之中者 此所謂執乎莫也 惟其能知其辭之不同 而以一義字有以貫乎同不同者 斯之謂唯義與比也 由此觀之 二比字之 何以曰不比何以曰與比之意 不難解矣

【문】: 『논어』에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고, 어진 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덕이 있는 자는 훌륭한 말은 하지만 용기가 없고, 어진 자는 용감하지만 훌륭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인이라는 것은 마음의 덕(德)이니, 인(仁)과 덕(德)을 어찌 나누었는가. 그 상세하게 듣기를 원하노라.

【답】: 말을 대하여 말하면 절로 당연히 '덕'이라 말하고, 용기를 대하여 말하면 절로 당연히 '인'이라 말하니, 이는 둘 다 들어 상호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덕 있는 자 용기 없는 것 아니요, 어진 자 말없는 것 아님을 이에 판단할 수 있다.

대개 안으로 얻은 것을 덕(德)이라 일컫고, 밖으로 발양(發揚)한 것을 말이라 이르며, 안팎을 상대하여 말하면 덕이라 하고 인이라 한다. 인의 사랑은 부드러움에 가깝고, 용기의 과단성은 강(剛)함으로 발해진다.

부드러움과 강함[柔剛]을 상대하여 말하면 어짐이라 말하며 용기라 말한다. 통합하여 말하면 어짐과 용기 모두 덕이며, 덕은 자신에게 얻은 것을 총칭하는 명칭이다. 분석하여 말하면 어짐과 용기는 각각 정해진 명칭을 소유하나 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덕이 있는 자는 또한 용기 있을 수 있고, 어진 자 또한 훌륭한 말을 할 수 있으니, 또한 어찌 어짐과 용기가 상대한다 하여 곧 말이 없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에 말이 있고 말이 없고 용기가 있고 용기가 없고는 대부분 분변할 수 없다. 만약 '어짐이 마음의 덕이니 어짐과 덕을 어찌 나눌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쌍봉(雙峰) 요씨(饒氏)의 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설에 말하였다.

"얻은 바의 옅고 깊음을 따르는 것은 모두 덕이 될 수 있으나, 어짐은 덕의 온전함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 장에서 이른바 덕이 있다는 자는 어찌 꼭 얻은 바가 옅은 자를 지적해서 말한 것이겠는가. 덕과 인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나눌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비유해 보겠다.

「이인(里仁)」에서 말하였다.

"공자의 도는 충과 서(忠恕)일 뿐이다."

나누어 말한다면 충은 서가 될 수 없고 서는 충이 될 수 없지만, 합해서 말한다면

충 또한 도요 서 또한 도이다.

「술이(述而)」에서 말하였다.

"공자께서는 네 가지를 가르치셨으니, 문(文)·행(行)·충(忠)·신(信)이다."

나누어 말한다면 문은 행이 될 수 없고 행은 문이 될 수 없으며, 합해서 말한다면 문 또한 가르침이요 행 또한 가르침이다.

이제 덕에 대한 인의 관계 또한 저 두 가지 것과 같다. 성인의 말은 혹 합하였다 나뉘고 혹은 나뉘었다 합하여, 각자가 마땅한 바가 있거늘 어찌 상대하여 들어 그 다름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問 : 論語 子曰 有德者必有言 仁者必有勇 然則有德者 有言而無勇 仁者有勇而無言邪 仁者心之德也 仁與德何分歟 願聞其詳

對 : 對言而言 則自當曰德 對勇而言 則自當曰仁 玆非雙擧而互言之乎 有德者之非無勇 仁者之非無言 于以可辨矣 盖得於內之謂德 宣於外之謂言 內外相對而曰德曰仁也 仁之愛近於柔 勇之斷發於剛 柔剛相對而曰仁曰勇也 統言之則仁與勇皆德也 而德是得於己之摠名也 析言之則仁與勇各有定名 而不可謂非德矣 是以 有德者亦可有勇 仁者亦可有言 豈可以德與言相對之故 而便疑其無勇也 亦豈可以仁與勇相對之故 而便疑其無言也 於是乎 有言無言 有勇無勇 不足多辨矣 若曰 仁爲心之德 而仁與德可分焉 則雙峰饒氏說 可以證之矣 其說曰 隨所得深淺者 皆可爲德 仁則德之全也 愚竊以爲 此章所謂有德者 豈必指其所得之淺者而言之邪 今不可以仁與德之分言 而疑其可分也 請且喩之 里人篇曰 夫子之道忠恕而已矣 分言之則忠不可爲恕 恕不可爲忠 而合而言之則忠亦道也 恕亦道也 述而篇曰 子以四教文行忠信 分言之則 文不可爲行 行不可爲文 而合而言之 則文亦教也 行亦教也 今夫仁之於德也 亦猶夫彼二者也 聖人之言 或合而分 或分而合 而各有攸當 豈可以其對擧而疑其有異乎哉

【문】: 『논어』에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천명(天命)[180]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군자는 불가불 천명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천명에 대해 드물게 말씀하신 것은 또 어째서인가?

180) 하느님에게 부여받은 운수. 자연의 운수. 하늘에서 타고난 목숨.

【답】: "천명에 관해 드물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면 때때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때로 말씀하셨다면 비록 늘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불가불 천명을 알았던 것을 이에 알 수 있다.

왜 그런가? 천명의 이치는 몹시 은미하여 사람 사람마다 쉽게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배워서 닦는 것은 나에게 있지만 천명은 하늘에 있다고 하여 천명에 맡기고 닦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바야흐로 배워서 몸을 닦음에 있어 배워도 닦아지지 않음만을 오로지 시급하게 여길 것이니 무슨 겨를에 천명을 말하겠는가. 꼭 겨를이 없어서 만이 아니다 할지라도 천명을 말하지 않음이 옳다.

비록 그러하나 하늘이 나에게 명한 바의 것은 진실로 다 갖추어져 있어 부족하여 빈 부분이 없는 것이다. 내가 배우고 닦아 채우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에게 명한 바에 답할 수 없다. 이에 불가불 천명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천명을 비록 몰라서는 안되지만, 날마다 사용하는 언행에서 배우고 닦는 바의 내용은 오직 시·서·지켜야할 예로 이들만이 항상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불가불 천명에 대한 말을 드물게 하는 것이다.

그 배움이 점점 닦아짐에 이르면 천명의 유행(流行)이 사물의 소이연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살피지 않음이 없어 그 받은 바에 순종하여 편안하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천명이다. 그러니 군자가 모를 수 있겠는가? 진실로 이를 모른다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아아! 중등 인물[中人][181] 이하는 높은 것[上]을 말해줄 수 없다.[182] 그러므로 『논어』 20편 속에서 공자와 문인들이 문답한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천명을 말한 적은 없다.

안연이 죽자 말씀하시기를 "불행히도 단명하고 말았으니 애통하도다" 하셨으며, 백우(伯牛)가 고치기 어려운 나쁜 병에 걸리자 "죽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애석해하신 것이다. 공백료(公伯寮)가 하소연하자 "도가 행해짐도 명과 함께 할 것이요, 도가 행해지지 않음도 명과 함께 할 것이다. 공백료여! 그 명을 어찌하겠는냐"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대개 명을 편안하게 여기신 것이다. 이를 보면 공자께서 명에 관해 드물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문인들이 친히 가르침을 받아 실제로 기록한 것이다.

---

181) 지식 재주 등이 보통인 사람. 범상한 사람.
182) 『논어』「옹야(雍也)」편에서 나왔다.

공자께서 주역의 계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명(性命)의 이치에 순종하라", "각자 성명(性命)을 따라라", "이치를 궁구히 하고 주어진 본성을 다 발휘하여[窮理盡性] 그로써 천명에까지 이르라"라고 하셨으니, 이에서 지극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50세에 이르러서 천명을 알았던[知天命] 까닭이니, 어찌 사람들에게 자주 말할 수 있었겠는가. 지명(知命)[183] 한 장으로써 『논어』 전체의 끝에 기록했으니, 그 의미가 깊다 말할 만하다.

問 : 論語 子曰 不知命無以爲君子也 然則君子不可不知命 而夫子乃罕言命者 何歟

對 : 其曰 罕言命則有時而言可知也 有時而言則 雖不雅言 而其不可不知命者 斯可以知矣 何者 命之理甚微 非人人之所易知也 學之修在我 而命則在天 不可委之命而不修也 方其修也 惟學之不修之是急 奚暇言命也 非惟不暇 卽不言命可也 雖然天之所以命我者 固有具足而無虧欠者 我不修之而充焉 則無以答夫天之所以命我 於是乎而不可不知命也 命雖不可不知 而日用云爲所修之實 惟詩書執禮爲可雅言 故不容不罕言命也 及其學之漸修 則天命之流行 與夫事物之所以當然之故 無不察焉 而有以順其所受而安之 此所謂命也 君子可不知之乎 信乎不知此 則無以爲君子也 嗚呼 中人以下不可以語上 故論語二十篇 夫子與門人問答者不一 而未嘗言命 及顔淵死則曰 不幸短命痛之也 伯牛有惡疾則曰 亡之命矣 夫惜之也 公伯寮有訴則曰 道之將行與命也 道之不行與命也 公伯寮其如命何 盖安之也 觀此則 夫子之罕言命可知 而是門人之親炙而實記之也 夫子之繫易也曰 將以順性命之理 又曰 各正性命 又曰 窮理盡性以至於命 於是焉而乃極言之 斯所以至於五十而知天命 此豈可驟言於人哉 其以知命一章記之於論語全部之末 其意可謂深矣

【문】 : 『논어』 「향당(鄕黨)」편 머리에서 자(子)라고 칭하지 않고 공자(孔子)라고 칭한 것은 무슨 뜻인가. 중간에 별도로 실마리를 꺼내 군자(君子)라고 칭한 것은 또 무슨 뜻인가.

【답】 : 공자라고 칭한 것은 그 사례를 신중하게 한 것이요, 군자라고 칭한 것은 그

183) 『논어』(論語)의 편명.

법을 존중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제자들이 부자(夫子)의 말과 일을 기록함에 자(子)라 칭했던 것은, 천하의 배우는 자들 가운데 부자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子)라고 칭해진 것을 보면 그것이 모두 부자(夫子)의 말과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따름이다. 향당편에서 먼저 종묘(宗廟)와 조정의 예를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공자라고 칭하여 일의 대체[事體]가 중한 것임을 보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그 사례를 신중하게 한 것이다.'

그 아래에는 의복·음식·연거(燕居)[184]·접하여 응대하는 존절함[節]을 기록하고 별도로 군자라고 칭한 것은 부자(夫子)의 일용 언행중 미세한 것 하나까지 군자의 도 아님이 없음을 보인 것이니, 이는 이른바 '그 법을 존중한 것이다.' 그런 즉 자(子)라 칭하지 않고 공자(孔子)라 칭하고 별도로 실마리를 꺼내 군자라고 칭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질문을 밝힘으로 인하여, 『논어』 일부(一部)에 나아가 고찰해보면, '공자(孔子)'라고 칭한 것이 41장인데, 그 가운데 임금을 대하여 물은 것은 일곱이요, 제후와 향대부에 대한 것은 일곱이요, 사람들이 군사(君事)에 관해 물은 것을 대답한 것은 하나요, 참위한 자를 베자는 자[誅僭者]에게 대답한 것이 하나요, 난신(亂臣)을 치자고 청한 자에게 답한 것이 하나요, 출처(出處)의 의리를 밝힌 것이 하나요, 이단과 소인을 엄단한 것이 셋이요, 기록한 바의 일 중 큰 것이 하나요, 말한 바의 정치가 큰 것이 하나요, 제자를 찬양한 것이 하나요, 한 때 사람들을 찬양한 것이 셋이다.

「계씨(季氏)」편 가운데 제론(齊論)[185]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열 하나인데 이 「향당」편에서 칭해지는 바와 합하면 39장이다. 그 사례에 관해 논함에 모두 말할만한 것이 있지만 오직 「선진(先進)」편의 남용(南容) 한 장과 「양화(陽貨)」편의 자장(子張)의 질문 한 장만은 의심할 만하다. 형의 딸로 남용(南容)[186]의 아내를 삼아주었다 하면, 그 자녀로 공야장(公冶長)에게 시집보냄 또한 의당 이상할 것 없으니 그 사례를 어찌 이상하게 여기겠는가. 자장의 물음과 다른 제자들의 물음 또한 이상할 것 없으니 그 사례를 어찌 이상하게 여기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기록한 자가 한

184) 한가히 있음.
185) 금문(今文) 『논어』(論語) 중 한 본으로, 제나라 사람이 전한 바로 오래 전 없어졌다고 한다. 현전하는 노론(魯論)보다 「문왕(問王)」「지도(知道)」 두 편이 많다 한다.
186) 남궁괄(南宮适). 공자의 학생.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 사례 또한 하나가 아니니, 자질구레하게 정례(定例)를 삼을 필요 없도다.

問 : 論語鄕黨篇首 不稱子而稱孔子者 何義也 中間別爲起端而稱君子者 亦何義也

對 : 稱孔子者 謹其例也 稱君子者 尊其法也 何以言之 門人記夫子之言與事而稱子者 直以天下之學者 無不以夫子爲師故見稱子 而皆知其爲夫子之言與事也 鄕黨篇 先記其宗廟朝廷之禮 故特稱孔子 以見其事體之重 此所謂謹其例也 其下記其衣服飮食燕居接應之節 而別稱君子者 以見其夫子日用云爲之微細者 無一非君子之道也 此所謂尊其法也 然則不稱子而稱孔子別起端而稱君子可以辨矣 今因明問 就論語一部而考之 則凡稱孔子者 爲四十一章 而對君問者七 諸侯鄕大夫者七 答人之問君事者一 誄僭者一 請討亂臣者一 明出處之義者一 嚴異端與小人者三 所記之事大者一 所言之政大者一 弟子之贊者一 時人之贊者三 季氏篇之謂齊論者十一 幷此鄕黨篇所稱爲三十九章 論其例 皆有可言 而惟先進篇之南容一章 陽貨篇之子張問一章爲可疑矣 謂以兄之子妻南容 則以其子妻公冶長 宜無異也 而何以異其例也 子張之問與他子弟問亦無異也 而何以異其例也 試窃思之 所記者非一人 故所記之例亦不一 抑不必規規以爲定例也矣

【문】: 주자가 인(仁)자를 해석함에, 『논어』에서는 "사랑의 이치[愛之理]요 마음의 덕[心之德]이다"라고 했으며, 맹자는 "마음의 덕이요 사랑의 이치다"라고 했으며, 대학에서는 다만 "사랑이다"라고 말했을 뿐이며, 중용에서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사람이 얻어 낳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 상세함과 간략함이 같지 않으며,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있으니, 그 의미는 무엇인가?

【답】: 인(仁)을 해석한 의미는 일찍이 같은 적이 없었으니, 인을 해석하는 말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있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있는 이유일 것이다.

왜 그런가? 『논어』『맹자』『중용』『대학』은 공자 및 할아버지와 손자, 스승과 제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서로 전하여 준 것인 즉 그 인을 설명함에 있어 진실로 일

찍이 부절처럼 서로 합치하였으며, 주자는 평생 사서(四書)에 온 정력을 다 들여 그가 주석한 바는 대성(大聖 : 孔子)과 아성(亞聖 : 孟子)의 뜻을 깊이 얻었으니 그 인을 해석함에 어찌 혹이라도 다름이 있겠는가.

다만 책을 써 말을 남김에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었는데 훈고(訓詁)하여 발명(發明)함에 문자를 따라 해석하였으니, 이것이 먼저와 나중 상세함과 간략함의 다름이 있는 이유이다. 이제 같지 않은 까닭을 구하려고 한 즉 낱낱이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이 옳다.

『논어』에서 말한 인을 해석해보자.

유자(有子)는 효제(孝弟)를 인의 근본으로 삼은 즉, 인이라는 것은 사랑의 이치이고 사랑은 반드시 효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이치를 먼저하고 마음의 덕을 절로 뒤에 둔 것이다. 이는 유자의 말을 따라서 그 비롯한 바의 것을 먼저 말했을 뿐이요 『논어』 일부(一部)가 말한 바 인이 반드시 모두 사랑의 이치를 우선으로 여겨 해석한 것은 아니다.

맹자가 말한 인을 해석해보자.

양혜왕(梁惠王)이 이(利)를 가지고 질문하였기에, 맹자가 양혜왕의 마음이 그릇됨을 잡아주려 하였는데, 인이라는 것은 마음이 덕인지라, 임금 마음의 그릇됨을 잡아주는데는 인(仁)만큼 적절한 것이 없으므로 부득불 마음의 덕을 먼저하고 사랑의 이치는 절로 그 뒤에 놓인 것이다. 이는 맹자의 말을 따라 먼저 그 소이(所以)를 해석했을 뿐이지 『맹자』 일부에서 말한 바 인이 반드시 마음의 덕을 우선하여 해석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 이르러서인 즉 구범(舅犯)[187]이 "인친(仁親)[188]을 보배로 삼는다"라고 하였다. 인친이라고 운운한 것은 애친(愛親)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약 『논어』와 『맹자』를 해석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또한 멀어 다다르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다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이유이니, 부득불 간략히 한 것이다.

『중용』에서는 자사(子思)가 지도(地道)가 나무에 힘쓰는 것을 가지고 인도(人道)가 정치에 힘쓰는 것을 비유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함에 '무릇 천지가 만물을 낳는다

187) 춘추시대 진(晋)나라 사람. 문공(文公)의 장인[舅]으로 이름은 범(犯)이다. 그래서 구범(舅犯)이라 일컬었다.
188) 어진 사람.

[天地之生物]'를 근본으로 하여 말하였다. 만약 『논어』와 『맹자』를 해석했듯이 해석한다면 느슨해서 넉넉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것이 "인자는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사람이 얻어 낳는 것이다" 말한 까닭이며 그 말이 부득불 상세해진 것이다.

아아! 주자가 인(仁)이라는 한 글자를 해석함에 사서(四書)에서 그 비롯한 바와 그 절박한 바에 각각 나아가 반드시 다다르고 반드시 넉넉한 것으로 해석했으니, 이는 그 정미함의 지극함으로, 누에고치의 실·소의 털로도 그 분석함을 비유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 상세함과 간략함, 먼저와 나중의 차이를 어찌 다시 의심할 것인가. 『논어』의 「교언(巧言)」장과 같이 유독 '마음의 덕(心之德)'으로 해석한 것은 예(禮)·의(義)·지(智)를 겸해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또 이 4개의 장도 치우쳐 바르지 못한 말의 사례가 아니다. 집사선생께서 인을 설명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음을 문제삼아 질문하셨기에 아울러 진술하였다.

問 : 朱子釋仁字 論語則曰 愛之理心之德 孟子則曰 心之德愛之理 大學則只曰愛也 中庸則乃曰 天地生物之心人得以生者 其詳略不同先後有異 其義何歟

對 : 釋仁之旨未嘗不同 而釋仁之辭 不容不異 此所以有先後詳略者乎 何者 論孟庸學是夫子祖孫師弟子 所相傳授者 則其於仁之說也 固嘗若合符契 而朱子平生精力殫於四書 其所註釋深得大聖亞聖之旨 則其於釋仁也 豈或有異哉 但著書立言 各有攸指而訓詁發明 隨文而解 斯所以有先後詳略之不同也 今求所以不同之故 則皆可歷指而言矣 其釋論語之言仁也 有子以孝弟爲仁之本 則仁者愛之理也 而愛心始於孝弟 故不容不以愛之理爲先 而心之德自居其後也 是隨有子之言 而先解其所始者而已 非謂論語一部所言之仁 必皆以愛之理爲先而釋之也 其釋孟子之言仁也 梁惠王以利爲問 故孟子將格其心之非 而仁者心之德也 格君心之非 莫切於仁 故不容不以心之德爲先 而愛之理自居其後也 是隨孟子之言 而先解其所以者而已 非謂孟子一部所言之仁 必皆以心之德爲先而釋之也 至於釋大學 則舅犯曰 仁親以爲寶 夫仁親云者 猶曰愛親也 若以釋於論孟者釋之 不亦遠而不着乎 此所以只曰愛也 而其辭不容不略也 中庸則子思以地道之敏樹 喩人道之敏政 故其釋之也 原夫天地之生物而爲之辭 若以釋於論孟者釋之 不亦緩而不贍乎 此所以曰 仁者天地生物之心 而人得以生者也 而其辭不容不詳也 嗚呼 朱子釋一仁字 而於四書各就其所始所切 必着必贍者而爲之釋此其精微之至 蠶絲牛毛不足以其析也 其詳略之不同 先後之有異 復何疑乎 若夫論語巧言章 獨以心

之德釋之者 兼包義禮智而全言之也 又非此四章偏言之例也 執事先生 旣以釋仁之不同發問 故幷陳之

황매천에게 답함

욕되게도 최근 가르쳐 주신 2천언 가까운 말씀을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그 대강의 뜻은 접때 깨우쳐주신 바 '옛과 지금의 인재들은 유한하다'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특별히 상세하게 말씀을 더하시고 더욱 심각한 경계를 더 하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 비록 어리석고 어두우나 또한 옛과 지금이 다르고 인재는 서로 현격하다는 것을 대강 압니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애쓰며 마지 못하는 것은 뜻에 정한 바가 있기 때문이지, 내가 기필한 것이 남이 기필한 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꺾어 내 뜻을 변하게 할 수 는 없었습니다. 인형께서 이에 다 털어놓지 않으심이 있어 괴로울 뿐입니다. 게다가 인형께서는 제가 뜻에 차지 않아 원망함이 있다고 이르시는데, 형께서 충분히 많은 말을 하셨으니 저는 그것을 편안히 여기고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여겨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강론하고 연마할 때에 견해가 다름으로 인하여 성을 내 잘잘못을 따져 꾸짖다가 끝내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으르렁거리고 꾸짖어 욕하다가 심지어는 반목하여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저는 일찍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꼭 이래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였고, 때문에 스스로 깊이 경계하여 전철을 밟지 않고자 합니다. 인형께서 이에 대하여 다 털어놓지 않으시기에 의심하는 것일 뿐입니다.

변론하는 것은 밝히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요. 밝히려는 것은 한군데로 귀일(歸一)하려는 목적 때문이지요. 인형께서는 문자에 이미 성숙하셨고 저 또한 망령되게도 스스로 생경(生硬)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마딱뜨리는 것은 견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에게 저를 따르라 억지할 수 없습니다. 인형께서도 나를 강제하여 형을 따르라 할 수 없지요. 각자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면서 자신의 설을 펴 쟁론하기를 마지않는다면 다투지 않을 수 없고, 다투기를 마지않는다면 아까 운운했던 바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한군데로 귀착하는 것은 제가 감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가령 쟁론하기를 마지않아 설득시켜 한 때의 구변을 통쾌하게 했다한들 그것은 학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람

들과 쟁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형께서 그것을 깊이 이해해주십시오.

答黃梅泉

辱近敎近二千言細讀之 大義不出囊所諭古今人才之有限者 而特言之加詳 戒之加深而已 弟雖愚暗 亦粗識古今之不同 人才之相懸 而矻矻不能已者 志有所定也 不以已之必不及人之必 不許沮吾心而變吾志也 仁兄於此未有悉 故病之耳 且仁兄謂弟有歉懟豈不以兄則盛言而弟乃安之而無辨乎 弟嘗見人 因講磨時所見不同 而盛氣辨詰 竟不相下 則咆號詬罵 至於反眼相仇者 私心以爲何必如此 是以深自箴警不欲蹈之 仁兄於此有未悉故疑之耳 夫辨者將以曉之也 曉之者將以歸乎一也 兄於文字已成熟 弟亦妄自以爲不生硬 然有牴牾者 以識見之不同也 弟之不能强兄以從我 猶兄之不能强我以從兄 各守其見 各伸其說 而辨之不已則未有不爭矣 爭之不已則未有不蹈向所云云矣 然而能歸一者 非愚所敢知也 借使辨之而已 說得伸適足快一時之口 非所以資益於學識也 是以弟未嘗與人辨也 仁兄其深諒焉

삼가(三家)의 글씨를 베껴 쓴 서첩(書帖)에다 써서 노처인(盧處仁)에게 주다

서예는 왕우군(王右軍 : 王羲之) 이래로 세상에 이름을 날린 자가 대대로 서로 바라다 보았으나, 우군의 문장(門墻)[189]에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자로는 삼가(三家)가 있다. 송나라의 미남궁(米南宮)[190]은 그 근골(筋骨)을 얻었고, 원나라의 조송설(趙松雪)[191]은 그 정세한 의미[精意]를 얻었으며, 명나라의 동향광(董香光)[192]은 그

189) 학문적 또는 예술적 경지를 말함.

190) 중국 송나라 때의 서화가 미불(米芾)을 말함. 자는 원장(元章), 호는 해악거사(海嶽居士), 또는 녹문거사(鹿門居士). 세상에서 미양양(米襄陽)이라 일컬으며 성품이 척당불기(倜儻不羈)하여 또 미전(米顚)이라고도 일컫는다. 금석(金石)·고기(古器)를 애완(愛玩)하고, 특히 기석(奇石)을 좋아하였다. 문장이 기험(崎險)하고 서화에 능하였는데 글씨는 입신(入神) 지경에 이르렀다 하며 그림은 남화(南畵)로서 산수·인물을 잘 그려 후세에 남화가의 종(宗)으로 불린다. 저서로 『보진영광집(寶晋英光集)』『서사(書史)』『화사(畵史)』『연사(硯史)』 등이 있다.

191) 중국 원나라 때 서예가 조맹부(趙孟頫)를 말함. 자는 자앙(子昂). 본래 송(宋)나라의 종실(宗室)로서, 서화는 물론 시문에도 뛰어났다.

풍신(風神)을 얻었다.

글씨를 배우는 자가 처음에는 오로지 익히는데 힘쓰고, 이어서는 삼가를 절충하고 삼가를 합하여 하나로 한다면 진현(晋賢) 왕우군(王右軍)의 방에 거의 들 수 있을 것이다. 돌아보건대, 풍기(風氣)는 시대와 관계 있으니, 명으로부터 송으로 소급하면 제 절차를 따라 나아갈 것이다.

題所書三家帖贈盧生處仁

書自右軍來 名世者代相望焉 而其的然可造右軍門墻者 有三家 宋之米南宮得其筋骨 元之趙松雪 得其精意 明之董香光得其風神 學書者始於傳習 繼又折衷 合三家而一之 則庶幾入普賢之室矣 顧風氣關於時代 故自明遡宋 可循梯而進矣

김석전(金石田)의 병풍에 쓰다

나는 글씨 쓰기를 무척 좋아한다. 진첩(晋帖)과 당첩(唐帖)을 임서(臨書)[193]함에 반드시 그 뜻을 구하니, 서첩 수십 개를 겪고 나면 종이는 수만 장을 쓰게 된다. 남들이 나의 글씨를 논함에 유달리 나의 뜻과는 어긋난다. 손과정(孫過庭)[194]이 말한 바,

"생각을 다하여 지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 혹 그릇된 곳이 있는데도 도리어 감탄과 칭찬을 받는 예가 비일비재하게 있다. 부채에 썼는데 처음에는 노하였다가 후에 가서 책상으로 청하기도 하며, 부친이 깎음에 아들이 한하기도 한다"

라는 것은 옛부터 그랬다.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뜯으면 그의 뜻이 산수(山水)에 있다는 것[195]을 아는 자 세상에 몇이나 될까. 진(晋)나라 사람이,

192) 중국 명나라 때의 서예가 동기창(董其昌 : 1555~1636)의 자. 시호는 문민(文敏). 벼슬은 예부상서에 이르렀다.
193) 글씨본을 보면서 글씨를 씀.
194) 중국 당나라 때의 서예가 손건례(孫虔禮)를 말함. 과정은 그의 자. 학식이 넓고 성품이 단아하며 문장에 능하였다. 초서(草書)는 이왕(二王)을 법으로 삼아 준발하고 강하고 과단성이 있었다. 송나라 이래로 모두 그를 능품(能品)이라고 추대하였다.

"비단 말을 잘하는 사람[能言人]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석할 사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니, 심하도다 말을 아는 자를 만나는 것의 어려움이여."

라고 말하였는데, 나는 석전에게 장차 희망을 건다.

석전은 천성이 영특하여 시문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 능한 지의 여부를 알아채, 글씨를 보는 감식안 더욱 정밀하다. 스스로 글씨에 능하다고 여겨도 석전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능한 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내가 늘 그에게 인정받기를 바랬지만 석전은 나의 글씨를 보고 일찍이 칭찬한 적도 또한 모두를 허락한 적도 없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서보(書譜)에서 말하기를, "힘있고 빠른[勁速] 것은 뛰어날 실마리요, 오래 머무는 것[遲留]은 미를 이해하는[會美]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니, 마음이 한가롭고 손이 민첩하지 않으면 겸하여 통달하기 어렵다. 나는 힘이 손에 있어 바야흐로 뛰어날 것을 기약하지만 석전은 감식안이 있기 때문에 미를 이해하기를 구하니 이것이 완전히는 합치할 수 없는 까닭이다.

글씨는 근력(筋力)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결구(結構)를 꾀로 삼는다. 그런데 근력이 풍부하고 결구에 익숙한 자는 왕우군 한 사람 뿐이다. 구양솔경(歐陽率更 : 鷗陽詢)과 안평원(顔平原)[196]은 신력(神力)으로는 우군에게 양보하지 않고 결구도 가히 말할 만 하지만 보존하여 지킴으로써 변화하지 못하였다. 나의 보존함은 구양솔경 안평원보다도 심하지만 석전은 우군의 변개함[化]을 갖추라고 요구하니 이처럼 서로 맞지 않아 그에게 인정받기는 실로 어렵다.

그러나 일찍이 생각해보니, 천하의 일은 경력한 것이 많지 않고 연마한 것이 오래지 않고서는 숙련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최고의 경지[太上]는 숙련되면 숙련될수록 더욱 삼간다. 삼가면 생경한 것에 가깝다. 스스로 생경하여 숙련된 데로 돌이켜야 진실로 숙련된 것이며, 진실로 숙련되어야 변개할 수 있다. 만약 숙련된 것만 익혀 숙련된 데에만 그친다면 이른 바 진실로 숙련된 것[眞熟]이 아니다.

제갈무후(諸葛武侯 : 諸葛亮)는 삼대(三代) 이후의 제일인자이다. 그가 스스로 칭한 것도 '근신(謹愼)'에 불과하였으니, 겸손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편드는 것이다. 아아! 근신은 진실로 숙련된 것으로 나아가는 배와 수레로다. 어찌하여 유독 천하의

195)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에 얽힌 고사.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그 거문고 소리를 듣고 백아의 심중을 헤아렸다 한다.

196) 중국 당나라 때의 충신이며 서예가인 안진경(顔眞卿)을 말함. 벼슬은 평원태수(平原太守)를 지냈으며, 해서(楷書)와 초서(草書)를 잘 썼다.

일만 그러하리오. 문을 짓고 시를 쓰고 글씨를 쓰는데도 그렇지 않음이 없다.

석전이 나의 글씨에서 칭찬한 것은 가히 그 근력이요, 허락하지 않은 것은 결구(結構)에 대해 근심했기 때문이다. 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진실로 그것에까지 미칠 겨를이 없다. 지금 석전은 그 숙달할 것을 구하는데 나는 이에 집착하면 할수록 더욱 생경해진다. 그러나 그 편들어주기를 구하는 것은 장차 진실로 숙련된 것에 뜻두는 것을 편들어줄 것을 구하여 진실로 숙련되지 않은 숙달함에 그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書金石田屛

余甚嗜作書 臨晋唐帖 必求其意 盖閱帖數十費紙數萬矣 人之論余書 殊乖余意 孫過庭所云 盡思作之 曾不留目 或有誤失 翻被嗟賞比比有之 夫題扇而初恕後請書几 而父削子懊 自古然矣 伯牙彈琴而能知其意在山水者 世有幾人矣 晋人云 非惟能言人不得 幷索解人不得 甚言知者之難遇也 而余於石田 將有望焉 石田天性穎特 於詩文一覽知其能否 而鑒書尤精焉 凡自謂能書而不見知於石田者 必非能者也 余是以常冀其見知 而石田見余書 未嘗不稱之 亦未嘗盡許之 其故何也 書譜云 勁速者超逸之機 遲留者會美之方 非心閒手敏 難以兼通 余則力在於手 故方以超逸期之 而石田則鑑存乎眼 故卽以會美求之 玆所以不盡合也 書以筋力爲聖 以結構爲謀 而其豊於筋力 熟於結構者 王右軍一人而已 如歐陽率更顔平原 神力不讓右軍 而結構皆有可議 以其執而未化也 余之執甚於歐顔 而石田以右軍之化責備 其見知誠憂憂乎難矣哉 雖然試嘗思之 天下事非經歷之多 鍊磨之久 則不可以言熟 而太上愈熟而愈謹 謹則近乎生 自生而返乎熟而後 乃爲眞熟 眞熟而後可以化矣 若狃於熟而止乎熟 則非所謂眞熟也 諸葛武侯三代後一人也 其自稱也 不過曰謹愼 非謙也卽自許也 嗚呼 謹愼其造乎 眞熟之舟車乎 奚獨天下事爲然以之 而爲文爲詩及爲書無不然矣

石田之余書稱之者可其筋力也 不許者憾其結構也 余非不知而誠未暇及也 今石田方求其熟者 而余於此愈執而愈生焉 然而望其許焉者 將求許其志於眞熟 而不欲止於未眞熟之熟云爾

다섯 편의 화시(畵詩)로 성당(惺堂) 이시형(李時衡) 대인의 수연(壽筵)을 축하하다

저 봉래산(蓬萊山) 바라보니
대나무 있음에 오직 조릿대라
아름답고 긴 줄기와 잎
자줏빛과 비취색 눈에 가득하네
아름다운 열매 구슬 같고
신령한 빛 사방을 비추네
좋은 날 헌수(獻壽)하니
영자(令子)[197]들 능히 본받네《대》

옥정(玉井)의 물 초록빛이니
연 잎이 둥둥 떠 있네
신령한 거북이 이곳에서 노니
그 수명 천 년이라
연꽃 봉오리 배[舟]만 하여
위에서는 하늘의 별 응하네
미쁘도다 군자들이여
능히 장수[遐齡]를 누리도다《연》

찬연히 빛나는 국화는
실로 눈서리에도 오만하네
샘이 아래 있어
달고도 차네
한 번 마시면
도로 젊고 씩씩해질 수 있나니
군자는 그래서 장수하고
나이 많은 노인들 병 없어라《국화》

197) 훌륭한 아들. 남의 아들의 경칭.

반짝이는 보랏빛 영지[紫芝]
빛나게 빼어나네
흰 구름 일산처럼
모여들어 위를 덮네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져
훨훨 봉황처럼 날아오르지
손자아이들 번갈아 공경하니
영복(靈福)에 크게 기뻐하네《지초》

천지의 뼈[骨]
오직 바위만이 길이 존재하네
안으로 진수(眞髓) 머금어
원기(元氣) 크고도 크네[渾渾]
하늘이 주신 효자
이에 잔치[瓊漿]를 열었네
효자들 어버이 봉양하여
높은 집[高堂]을 바치네《돌》

五書詩祝李惺堂時衡其大人壽筵

瞻彼蓬山　有竹維簹　猗猗莖葉　紫翠盈眼
嘉實如珠　靈光四照　良辰獻壽　令子克肖 <竹>
玉井水綠　荷葉田田　新龜斯遊　厥壽維千
菡萏如舟　上應天星　允矣君子　克享遐齡 <蓮>
燦燦者菊　寔敷霜雪　有泉在上　旣甘且洌
一有飮之　克還少壯　君子盖壽　黃耆無恙 <菊>
煌煌紫芝　燁燁其秀　白雲如盖　凝然上覆
服之身輕　翩如鳳翥　兒孫迭擎　靈福鴻豫 <芝>
天地之骨　維石長存　內含眞髓　元氣渾渾
天錫孝子　開玆瓊漿　孝子養親　以獻高堂 <石>

石亭 李定稷 遺藁(Ⅱ)　　鄕土文化資料 第20號

2001年 12月 24日 印刷
2001年 12月 30日 發行

펴낸이 : 金 丙 學
펴낸곳 : 金 堤 文 化 院
TEL. (063) 547-4659, 540-3564
FAX. (063) 546-4659
찍은곳 : 圖書出版 學 藝 社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86
TEL. (063) 285-5221, 286-5959

※ 이 책자는 김제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